

국립국어원 2024-01-60

발간등록번호
11-1371028-100006-01

2024년 국어 어원사전 편찬

연구책임자

황 선 업



국립국어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2024년 국어 어원사전 편찬'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 기간: 2024년 3월 ~ 2024년 12월

2024년 12월 12일

연구책임자: 황선엽(서울대학교)

연구 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황선엽(서울대학교)

공동연구원 황선엽, 조남호, 하귀녀, 이병기, 이지영, 장경준,
정은영, 오민석, 김지오, 문현수, 이용, 허인영,
박진양, 도원영, 김숙정

연구보조원 최준호, 신현규, 배진솔, 하정훈, 장린, 이용규,
양하오췌, 강현주, 김준수, 정윤희, 이찬식, 김형진,
김진희, 배은혜, 강은진, 이광숙, 오필애, 진윤정,
전한솔, 이효운, 남유진, 유환일, 한다영, 엄효민,
장준희

<국문 요약>

2024년 국어 어원사전 편찬

본 사업의 목적은 우리말에 대한 역사적 정보와 어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민을 위해 신뢰도 높은 어원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의 어원 정보와 역사 정보는 기술이 소략한 편이며, 기존에 출간된 어원사전은 표제어 수가 적고 웹 검색에 용이하지 않아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본 연구팀은 어원사전 집필감수팀, 말뭉치팀, 차자표기팀, 자료구축팀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정보성과 신뢰성을 갖춘 어원사전을 편찬하고자 하였다. 어원사전 집필을 위하여 국어사 학계의 기존 연구 성과와 사전 편찬 경험을 활용하여 국어 어원사전의 표제어 목록과 집필 지침을 마련하였다. 기존 어원사전, 기구축 어휘역사 정보 등을 토대로 2023년도 사업을 통해 정한 6,000 항목의 어원사전 표제어를 선정하였고, 상세 정보를 집필한 뒤 감수를 거쳤다. 상세 정보에는 표제어, 품사, 뜻풀이, 최초 출현형 및 기원적 형태 분석, 표기·형태·의미 변화 과정, 관련 설화, 유입 경로, 민간어원 정보 등의 상세한 설명이 기술되었다. 또한, 한글 창제 이후부터 20세기까지 세기별 출현 용례를 제시하였다.

한편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기반 자료로서 2023년에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32만 어절의 말뭉치를 정비하고, 신규 말뭉치 52만 어절 이상을 구축하였다. 2023년과 마찬가지로 위키 기반 플랫폼 ‘KOHICO’를 사용하였고, 2023년 사업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깜짝새(SynKDP) 1.0.0.5’가 ‘KOHICO’ 플랫폼과 연동되어 집필팀과 말뭉치팀의 소통을 통한 말뭉치의 유지·보수의 측면에서 큰 발전이 있었다.

한글 창제 이전에 차자표기로 기록된 어휘에 대한 정보를 국어 어원사전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2024년부터 시작하였다. 먼저 고대부터 15세기까지 한자로 표기된 국어 어휘를 포함하고 있는 주요 자료집, 이두 및 구결 사전, 연구서, 연구 논문 등에서 관련 정보를 추출하여 잠정적인 ‘차자표기 어휘 DB’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어원사전 내 차자표기 정보를 기록할 집필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 시범 집필을 하여 향후 차자표기 정보 기술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였다.

어원사전 집필을 위한 기반 자료로서, 어원사전과 어원 관련 논문 및 단행본을 망라한 참조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DB 구조, 미시 항목별 수집 정보의 유형과 기록 방식을 지침으로 작성하였으며, 공통의 지침을 바탕으로 단행본 및 학위 논문, 신문·잡지 등의 자료를 통해 ‘어원사전 편찬용 참조 DB’를 구축하였다.

충실하게 마련된 기반과 체계화된 지침에 따라 집필된 어원사전은 우리말 어원 및 역사 정보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것이다. 나아가 우리의 언어문화에 대한 연원을 이해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주요어: 국어 어원사전, 어원, 어휘사, 국어 역사 말뭉치, 참조용 데이터베이스

<Abstract>

Compilation of Korean Etymology Dictionaries – Year 2024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provide a reliable etymological dictionary for the citizens who have a keen interest in the historical information and origins of the Korean language. The etymological and historical information in existing dictionaries such as the "Standard Korean Dictionary" and "Urimalsaem" is somewhat limited, and previously published etymological dictionaries have shortcomings in terms of the number of entries and accessibility for web searches, falling short of meeting the public's interest.

To address this, our research team divided roles into an etymological dictionary compilation team, a corpus team, and a data construction team to compile an etymological dictionary with informative and trustworthy content. For the compilation of the etymological dictionary, we utilized the achievements of existing research in Korean linguistics and the experience of dictionary compilation, formulating a list of entries and compilation guidelines. Based on existing etymological dictionaries and previously constructed vocabulary history information, we selected 6,000 entry words for the etymological dictionary as determined through the 2023 project and conducted a thorough review after compiling detailed information. The detailed information includes explanations such as entry word, part of speech, meaning description, the original form and historical form, changes in spelling, form, and meaning, related anecdotes, influx pathway, and information on folk etymology. Additionally, examples of usage from the creation of Hangeul to the 20th century are provided.

As a foundational resource for the etymological dictionary, we refined 320,000 unprocessed word units from the corpus in 2023 and built an additional 520,000 or more new word units. As in 2023, we utilized the wiki-based platform 'KOHICO' while improving upon issues identified in the previous project to enhance efficiency. Notably, 'SynKDP 1.0.0.5' was integrated with the 'KOHICO' platform, significantly advancing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he corpus through enhanced communication between the editorial and corpus teams.

In 2024, we initiated work to incorporate information on vocabulary recorded using phonetic transcription before the creation of Hangeul into the Korean etymological dictionary. First, we extracted relevant data from major sources containing Korean vocabulary transcribed in Chinese characters from ancient times to the 15th century, including reference collections, Idu and Gugyeol dictionaries, research books, and academic papers, to establish a preliminary 'Phonetic Transcription Vocabulary Database.' Additionally, we drafted editorial guidelines for recording phonetic transcription information in the etymological dictionary and conducted pilot entries for select terms, laying the groundwork for future documentation of phonetic transcription data.

As foundational material for the compilation of the etymological dictionary, we established a

reference database encompassing etymological dictionaries, research papers, and monographs. We formulated guidelines for database structure, types of information collected for microscopic items, and recording methods. Based on these common guidelines, we constructed the 'Reference Database for Etymological Dictionary Compilation' using sources such as monographs, dissertations, newspapers, and magazines.

The etymological dictionary compiled in accordance with well-established foundations and systematic guidelines is expected to alleviate the curiosity of the public regarding Korean language etymology and history. Furthermore, it is anticipated to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origins of our language culture and establishing cultural identity.

Keywords: Korean Etymology Dictionary, Etymology, Vocabulary History, Corpus of Korean Historical Language, Reference Database

목차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의 목적	1
1.2. 사업의 내용	2
1.3. 참여자 현황 및 역할 분담	3
1.4. 작업 추진 경과	7

제2장. 집필·감수팀

2.1. 집필·감수팀 작업 개요	11
2.2. 어원사전 집필 계획	12
2.3. 어원사전 집필진 및 감수진 현황	13
2.4. 집필 항목 선정	15
2.5. 집필 및 감수 절차	16
2.6. 집필 지침	24

제3장. 말뭉치팀

3.1. 2024년 미정비 역사자료 말뭉치의 정비	203
3.2. 2024년 역사자료 말뭉치의 관리	214

제4장. 차자표기팀

4.1. 차자표기팀 작업 개요	234
4.2. 차자표기 어휘 추출 대상 자료	236
4.3. 차자표기 자료 구축 작업	238
4.4. 차자표기 어휘 잠정 목록	249
4.5. 차자표기 항목 집필 지침 초안	250
4.6. 차자표기 항목 집필 샘플	255

제5장. 자료구축팀

5.1. 자료구축팀 작업 개요	263
5.2. 참여 연구진	263
5.3. 작업 계획 및 경과보고	264
5.4. 주요 작업 내용	265
5.5. 근현대 신문 및 잡지 참조 자료 조사	273

5.6. 작업 관리	276
5.7. 자문	277

제6장. 기대 효과

6.1. 집필·감수팀	282
6.2. 말뭉치팀	283
6.3. 차자표기팀	284
6.4. 자료구축팀	285

[부록 1] 집필·감수팀 - 2024년 집필 완료 항목	287
[부록 2] 차자표기 어휘 DB 작업 세부 지침	301
[부록 3] 차자표기 어휘-우리말샘 표제어 대비 잠정 목록	309
[부록 4] DB화 단행본, 학위 논문, 논총 목록	324
[부록 5] 어원 관련 논저 DB 작업 지침	329
[부록 6] DB화 기사 목록	334



제 1 장

사업 개요



1.1. 사업의 목적

이 사업은 우리말에 대한 역사적 정보와 어원에 관심이 많은 국민을 위해 신뢰도 높은 어원사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어 어원사전 편찬 작업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말 어휘에 대한 역사적 정보, 어원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립국어원이 제공하는 규범 사전인 <표준국어대사전>과 국민 참여형 지식 사전인 <우리말샘>은 세계 최고 수준의 모어에 대한 언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말의 어원 정보와 역사 정보는 소략하게 기술되어 있어 국민의 궁금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출판계에서는 출간한 어원사전은 표제어 수가 적고 종이사전이어서 웹 검색에 익숙한 이용자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본 사업을 통해 정보성과 신뢰성을 갖춘 어원사전을 편찬하고자 하였다. 국어사학계의 어원 연구 성과와 사전 편찬의 경험을 활용하여 편찬 지침을 마련하고, 다양한 시기와 분야에서 표제어를 선정하며, 어원과 어휘 역사를 충실히 기술할 수 있는 정보 항목을 확정하고 학계 전문가가 집필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향후 어원사전 편찬 사업의 기초로 삼고자 하였다.

어원사전을 편찬하려면 우리말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온 자료를 한데 모아 검색할 수 있도록 가공된 국어사 말뭉치가 충실히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우리말의 형태적, 의미적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21세기 세종 계획’과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을 통해 대규모 국어사 말뭉치를 구축하고 정비하였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또한 효율적인 어원사전 편찬을 위해 기존 사전과 학술 연구 성과를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요구되었다.

충실하게 마련된 토대 위에서 체계화된 지침에 따라 집필된 어원사전을 통하여 국민이 만족할 만한 어휘역사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우리의 언어문화에 대한 연원을 이해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본 사업이 기획되었다.

1.2. 사업의 내용

1) 어원사전 집필

본 사업에서는 국어 어원사전의 표제어 목록과 집필 지침을 마련하고, 6,000항목을 집필하였다. 기존 어원사전, 기구축 어휘역사 정보 등을 토대로 2023년도 사업을 통하여 정한 어휘항목을 대상으로, 어원사전 집필 항목에 따른 상세 정보를 집필(표제어, 품사, 뜻풀이, 최초 출현형 및 기원적 형태 분석, 표기·형태·의미 변화 과정, 관련 설화, 유입 경로, 민간어원 정보 등 상세 설명)하였다. 한글 창제 이후부터 20세기까지 세기별 출현 용례를 구축하였다.

2)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기반 자료로 말뭉치 정비

2023년 말뭉치 정비사업의 후속 사업으로서 작년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말뭉치 가운데 32만 어절의 말뭉치를 정비하고, 신규 말뭉치 52만 어절 이상을 구축하여 총 84만 어절의 말뭉치를 정비하였다.

3)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기반 자료로 말뭉치 정비

또한 한글 창제 이전에 차자표기로 기록된 어휘들도 별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8종의 문헌 자료에서 어휘를 직접 추출하기도 하고, 차자표기 어휘 관련 단행본과 논문, 구결사전과 이두사전, 2023년 <어원관련논저 DB>에서 차자표기 어휘들을 추려 정리하였다. 그리고 어원사전 내 차자표기 정보를 기록할 집필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샘플 항목을 집필하였다.

4)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기반 자료로 어원 관련 DB 구축

어원사전 집필을 위한 기반 자료로서, 어원을 다룬 사전, 논문과 단행본 등을 참조용 데이터베이스로 만든다. 단행본 및 학위 논문 100종, 신문 및 잡지의 기사 100종에 대한 참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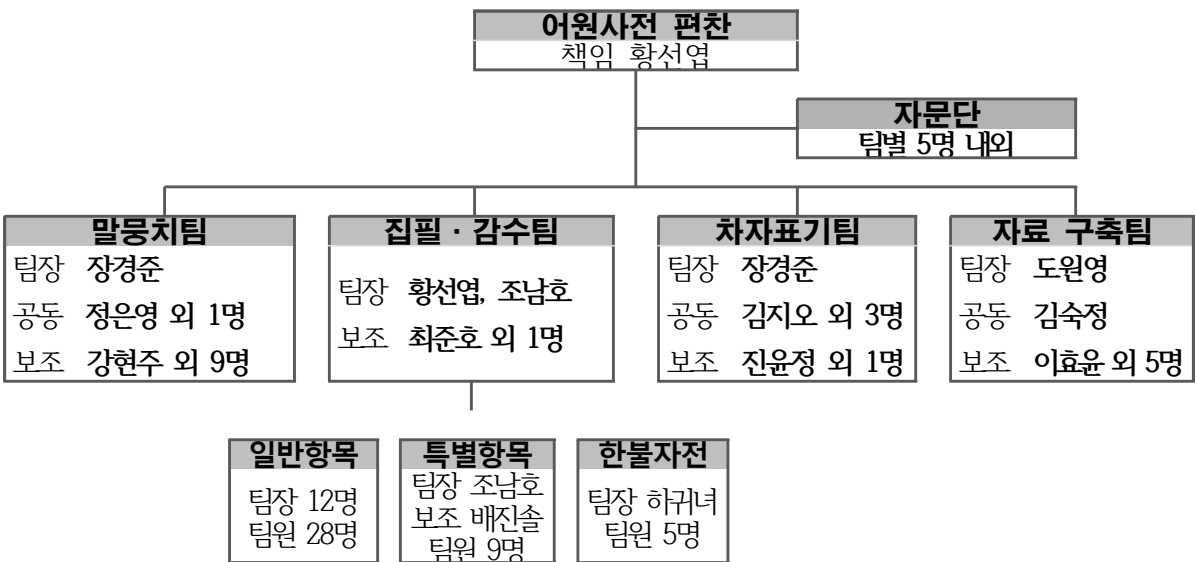
4) 전문가 자문 회의 개최

어원사전을 집필하고 기반 자료를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론적,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학술발표회, 국립국어원과의 공동워크

습, 어원사전 집필·감수, 국어사 말뭉치 구축, 선행 연구 DB 구축의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 세부 일정 ‘1.4. 작업 추진 경과’ 참조

1.3. 참여자 현황 및 역할 분담



1) 집필·감수팀

2024년 어원사전 편찬 프로젝트의 집필 및 감수진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다. 일반 항목 집필팀은 총 12명의 팀장(감수진)으로 이루어진 1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팀마다 2명에서 4명의 집필진이 참여하였다.

총괄	연구보조원	감수진	집필진
황선엽 (서울대) 조남호 (명지대)	최준호 (서울대) 신현규 (서울대)	이병기(한림대)	서정호(동국대)
			이소은(서울시립대)
		이지영(서강대)	안주현(대구한의대)
			백채원(서울대)
			노위(서울대)
			이강혁(서울대)
		서형국(전북대)	선한빛(전남대)
			문현수(고려대)

		이상신(아주대)	여은지(전북대)
			정연정(안동대)
		이동석(한국교원대)	하정수(동국대)
			김태우(부산대)
		신중진(한양대)	김남경(대구가톨릭대)
			이상훈(서울시립대)
		김유범(고려대)	고경재(고려대)
			성우철(한국과기대)
		김성주(동국대)	이성우(한림대)
			전기량(동국대)
		유필재(울산대)	이화숙(대구가톨릭대)
			김천학(서울시립대)
		김현주(공주교대)	장고은(인천대)
			이수진(전남대)
		정경재(창원대)	정은진(고려대)
			강서현(고려대)
		하귀녀(방송대)	이상금(서울대)
			김한결(서울시립대)
			박부자(성신여대)
			김경혜(인하대)

한편, 특별 항목 집필팀은 9명의 집필진이 참여하였으며, 역시 2주에 한 번 전체 회의를 진행하면서 집필 일정 및 집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였다.

팀장	연구보조원	집필진
조남호 (명지대)	배진솔 (서울대)	김양진(경희대)
		신중진(한양대)
		유필재(울산대)
		이동석(한국교원대)
		이병기(한림대)
		이상신(아주대)
		이영경(대구가톨릭대)
		조남호(명지대)
		한성우(인하대)

마지막으로, 19세기말 출현 어휘 집필진은 《한불사전》의 표제어를 대상으로 19세기 후반에 새롭게 출현한 어휘에 대한 집필을 담당하였다.

팀장	집필진
하귀녀 (방송대)	배진솔(서울대)
	양하오췌(서울대)
	이용규(방송대)
	장린(서울대)
	하정훈(서울대)

2) 말뭉치팀

9개월간 80만 어절 규모로 미정비 말뭉치를 정비하고 신규 말뭉치를 구축하기로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사자료 말뭉치를 다룰 줄 아는 국어사 전공 대학원생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하였다. 그리하여 2023년 사업에 참여하였던 보조연구원 가운데 작업 달성률이 뛰어나며 성실한 10명의 보조연구원을 선별하여 2개의 팀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보조연구원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이 높고, 대학원생들과의 소통 능력 및 추진력과 팀워크가 뛰어나며, 2023년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 3명(책임 포함)을 연구진으로 구성하였다. 2024년 사업에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KOHICO’ 플랫폼을 사업에 이용하였다. 작년에 ‘KOHICO’를 이용하여 사업에 참여하였던 보조연구원들은 어렵지 않게 작업할 수 있었고, 2023년 사업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 말뭉치팀 구성

팀장	공동연구원	보조연구원	소속 대학
장경준 (총괄)	정은영 (문헌 검토, 일정 관리) (1팀 결과물 검수)	강현주	경상대
		김준수	서울시립대
		정윤희	대구가톨릭대
		이찬식	대구가톨릭대
		김형진	대구가톨릭대
	오민석 (작업 전처리, 플랫폼 관리) (2팀 결과물 검수)	김진희	고려대
		배은혜	경북대
		강은진	전남대
		이광숙	서울시립대
		오피애	제주대

3) 차자표기팀

공동연구원들이 차자표기 자료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입력 지침을 마련하였다. 또한 공동연구원들은 이두, 향찰, 구결, 목간 등 1차 자료에서 직접 어휘를 추출하고 어휘에 대한 현대어역과 예문 선별 및 예문 번역을 진행하거나 2차 자료인 고대국어 어휘와 관련 단행본·논문·사전 등에 나타난 차자표기 어휘를 정리·입력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일부 어휘 항목을 대상으로 차자표기 정보를 시범 집필하였다.

보조연구원들은 2023년도 어원사전편찬사업 결과물인 <어원관련논저DB>에서 차자표기 관련 어휘들만 다시 추려내고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단, 보조연구원 중 1인(전한솔)은 향약명 어휘를 직접 뽑아내고 현대어로 번역하는 작업까지 함께 수행하였다. 또한 보조연구원들도 모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 차자표기팀 구성

팀장	공동 연구원	보조연구원	소속 대학
장경준	김지오 문현수 이용 허인영	진윤정	고려대
		전한솔	서울대

4) 자료 구축팀

공동연구원이 DB 구조 및 미시 항목별 수집 정보의 유형과 기록 방식을 지침으로 작성하고, 지침을 바탕으로 단행본 및 학위 논문 100종, 신문 및 잡지의 기사 100종에 대한 참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였다. 공동연구원은 구축 과정에 발생하는 실제적이고 세부적인 문제를 관리하여 작업 지침을 보완하고,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다.

팀장	공동 연구원	보조 연구원	소속 대학
도원영 (고려대)	김숙정 (호남대)	이효윤	경희대
		남유진	고려대
		유환일	성균관대
		엄효민	고려대
		한다영	고려대
		장준희	고려대

1.4. 작업 추진 경과

※ 진행 계획

[illegible]

※ 회의 진행 경과

일시	내용	장소	참석자
2024년 3월 24일(금) 오후 3:00	착수보고회	국립국어원	어원사전팀 연구진, 국립국어원
2024년 6월 9일(금) 오후 3:30	제1차 공동워크숍 및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	고려대학교	어원사전팀 연구진, 국립국어원 외 말뭉치팀 자문위원 (문병열, 박지용, 장요한), 자료구축팀 자문위원 (최경봉, 김윤희)
2024년 8월 9일(수) 오후 2:00	중간보고회 및 제2차 공동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의)	국립국어원	어원사전팀 연구진, 국립국어원 외 집필감수팀 자문위원 (홍운표, 조항범, 이건설, 권인한)
2024년 10월 6일(금) 오후 1:30	학술대회 개최 (한국어 어휘의 삶, 그 탐구와 활용)	농수산물무역진 흥센터(aT센터)	발표자, 토론자, 좌장, 사회자, 청중 등 총 120여 명
2024년 10월 25일(수) 오후 1:00	제3차 자문회의	국립국어원	어원사전팀 연구진, 국립국어원 외 개발자 박진양, 자문위원(최준호, 최현규, 이후영, 권혜수)
2024년 11월 23일(목) 오후 4:00	최종보고회	국립국어원	어원사전팀 연구진, 국립국어원 등



제 2 장

집필·감수팀



2024년에 진행된 국립국어원 ‘국어 어원사전 편찬’ 사업은 사업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1) 집필·감수팀, (2) 말뭉치팀, (3) 차자표기팀, (4) 자료구축팀의 네 개 팀으로 진행되었다. 제2장에서는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진 집필·감수팀의 작업 목표, 계획, 과정, 그리고 그 결과물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집필·감수팀 작업 개요

‘2024 어원사전 편찬’ 사업은 우리말에 대한 역사적 정보와 어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민을 위해 신뢰도 높은 어원사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어 어원사전》 편찬 작업을 수행하는데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2024년도 ‘집필/감수팀’의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2023년도 사업을 통하여 정한 어휘 6,000항목에 대하여 어원 정보를 집필한다. 또한, 2023년도 기집필된 4,000항목에 대하여, 추가된 말뭉치와 변경된 집필 지침에 따라 수정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 2024년도 집필 대상 표제어 6,000항목 선정
- 집필 대상 표제어 중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대표 표제어 200항목 선정
- 선정된 집필 항목에 대한 상세 정보 집필(표제어, 품사, 뜻풀이, 최초 출현형 및 기원적 형태 분석, 표기·형태·의미 변화 과정, 관련 설화, 유입 경로, 민간어원 정보 등 상세 설명)
- 고대 한국어 시기에 최초 출현형이 확인되는 어휘의 어원 정보 별도 집필
- 한글 창제 이후부터 20세기까지 세기별 출현 용례 구축
- 2023년도 기집필 4,000항목에 대한 수정

2.2. 어원사전 집필 계획

제안서에 제시된 집필 계획은 아래와 같았다.

3월	집필 항목 선정
	집필진 교육
	집필지침 수정 및 보완(~10월)
	기 작성 원고에 대한 보완 집필
↓	
4월~9월	집필(~10월)
	집필지침 보완 (~10월)
	감수 (~11월)
↓	
4월~10월	1차 감수 작업
↓	
5월~11월	2차 감수 작업
↓	
6월~11월	3차 감수 작업
↓	
12월	최종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실제로 진행된 집필 일정은 1.1.2의 계획과는 다소 달라졌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집필진 중 대다수는 1차년도에 사업에서 집필 경험이 있었으므로 초기에는 작년보다 집필이 수월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사업 초반에 집필기 및 집필 지침이 안정되는 데까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2023년도 사업의 경우 목표로 잡은 4,000 항목이 모두 기존에 집필된 어원 정보를 수정/확대하는 것이었던 반면, 올해 사업은 완전히 새롭게 기술해야 하는 항목이 많았다는 점 또한 예상보다 집필이 지연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2.3. 어원사전 집필진 및 감수진 현황

2024년 어원사전 편찬 프로젝트의 집필 및 감수진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다.

일반 항목 집필팀은 총 12명의 팀장(감수진)으로 이루어진 1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팀마다 2명에서 4명의 집필진이 참여하였다. 2023년에는 집필/감수진 전체가 함께 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나, 올해 중반까지는 팀 체계로 진행되었다. 집필진이 집필 중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팀장에게 문제를 보고하고, 공동연구원과 팀장이 함께 회의하는 팀장 회의를 2주마다 진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업 중반 이후로 전체 회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8월 말부터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2주 간격으로 집필/감수진 전체가 Zoom에서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집필 지침의 구체적인 적용 문제, 일정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후의 집필/감수 절차를 이어갈 수 있었다.

한편, 특별 항목 집필팀은 9명의 집필진이 참여하였으며, 역시 2주에 한 번 전체 회의를 진행하면서 집필 일정 및 집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19세기말 출현 어휘 집필진은 《한불자전》의 표제어를 대상으로 19세기 후반에 새롭게 출현한 어휘에 대한 집필을 담당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2.3.1. 일반 항목 집필팀

총괄	연구보조원	감수진	집필진
황선엽 (서울대) 조남호 (명지대)	최준호 (서울대) 신현규 (서울대)	이병기(한림대)	서정호(동국대)
			이소은(서울시립대)
		이지영(서강대)	안주현(대구한의대)
			백채원(서울대)
			노위(서울대)
			이강혁(서울대)
		서형국(전북대)	선한빛(전남대)
			문현수(고려대)
		이상신(아주대)	여은지(전북대)
			정연정(안동대)
		이동석(한국교원대)	하정수(동국대)
			김태우(부산대)
		신중진(한양대)	김남경(대구가톨릭대)
			이상훈(서울시립대)
		김유범(고려대)	고경재(고려대)
			성우철(한국과기대)
		김성주(동국대)	이성우(한림대)

			전기량(동국대)
		유필재(울산대)	이화숙(대구가톨릭대)
			김천학(서울시립대)
		김현주(공주교대)	장고은(인천대)
			이수진(전남대)
		정경재(창원대)	정은진(고려대)
			강서현(고려대)
		하귀녀(방송대)	이상금(서울대)
			김한결(서울시립대)
			박부자(성신여대)
			김경혜(인하대)

2.3.2. 특별 항목 집필팀

팀장	연구보조원	집필진
조남호 (명지대)	배진솔 (서울대)	김양진(경희대)
		신중진(한양대)
		유필재(울산대)
		이동석(한국교원대)
		이병기(한림대)
		이상신(아주대)
		이영경(대구가톨릭대)
		조남호(명지대)
		한성우(인하대)

2.3.3. 19세기말 출현 어휘 항목 집필팀

팀장	집필진
하귀녀 (방송대)	배진솔(서울대)
	양하오췌(서울대)
	이용규(방송대)
	장린(서울대)
	하정훈(서울대)

2.4. 집필 항목 선정

2023년도 사업에서는 향후 집필이 필요한 표제항을 22,000개 선정하였다. 이때는 근대어 중심으로 어원 정보 제시가 필요하다고 선별한 단어, 한중연 사업 결과물인 신어db, 기출간된 어원 논저, 자료팀에서 정리한 어원사전 목록 등을 참고했다.

2024년도 사업에서는 이 중 6,000 항목을 정하여 어원 정보를 집필하기로 했다. 이 중 어원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특히 높은 항목 200개를 선별하여 ‘특별항목’으로 집필했다. 따라서 2024년도에는 일반 어휘 5,800 항목과 관심 어휘 200 항목을 집필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였다.

올해 집필된 표제항 가운데 ‘특별항목’은 다음 210 항목이다. 이를 제외한 항목 가운데 일부 집필진은 《한불자전》의 표제어를 대상으로 19세기 후반에 새롭게 출현한 어휘에 대한 집필을 진행하였다.

가락국수, 가방, 가위, 가입하다, 각선미, 간호부, 감사, 감사하다, 개인, 개장국, 거란, 경영하다, 경험, 경험하다, 계삼탕, 고구마, 고들빼기, 고등어, 고로케, 고무, 고무신, 고추, 골동반, 곰국, 곰탕, 곱창, 공부, 공부하다, 과메기, 광고, 구두, 국문, 국어, 쫄면, 그녀, 글썸, 기린, 기억, 기차, 김밥, 깡통, 깡패, 껌, 나일론, 낙화생, 남만시, 냄비, 냉면, 노다지, 노라리, 농악, 다솜, 당면, 당추자, 대통령, 도떼기시장, 도루묵, 도우미, 돈가스, 동무, 들깨, 따라지, 따라지목숨, 땅콩, 떡볶이, 토라이, 툇툴하다, 똥판지, 마담, 마요네즈, 막국수, 만년필, 만담, 만리경, 만세, 만화, 망원경, 맥고모자, 맥주, 메리야스, 명함, 몸빼, 무도회, 미용실, 미용원, 미장원, 민족, 바리칸, 반창고, 방송하다, 백숙, 버스, 벼룩시장, 보루, 복덕방, 뷔다, 브래지어, 비빔밥, 빙수, 빨치산, 뽕튀기, 삐라, 사물놀이, 삼계탕, 삼팔따라지, 삼편주, 샌들, 샤쓰, 삼페인, 서울, 설탕, 섭씨, 셔츠, 수투전, 순히, 승강기, 시계, 시금치, 시치미, 심심하다, 싱싱하다, 아래아, 아령, 아편, 안동답답이, 알나리깁나리, 애매하다001, 애매하다002, 애먼, 야하다001, 야하다003, 약반, 약밥, 약식, 양갱, 양귀비, 어음, 엘리베이터, 역겹다, 연계, 연탄, 연필, 염병, 영감, 영계, 영계백숙, 영계찜, 오프라이스, 온돌, 와인, 우동, 우레, 운전, 운전하다, 울돌목, 울면, 유모차, 유성기, 이발관, 이발소, 이판사판, 인력거, 일년감, 자꾸, 자명종, 자전거, 자행거, 전간, 전당, 전당포, 전당하다, 전축, 전화, 조끼, 졸업하다, 주마등, 주장하다, 중인, 중절모, 쥐통, 짜장면, 짭깨, 천리경, 천연두, 청년, 쳐다보다, 초콜릿, 추석, 축음기, 치어다보다, 카레라이스, 카바레, 켈레, 콜레라, 토마토, 투전, 판소리, 팔방미인, 포도주, 한국어, 한글, 호두, 호두나무, 호역, 호열자, 혼돈반, 화씨, 화장실, 회전목마, 훈민정음

2.5. 집필 및 감수 절차

2.5.1. 집필 및 감수 단계

집필 및 감수는 《우리말샘》 집필기 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2024년 어원 사전 집필/감수팀의 집필 및 감수 절차는 총 4단계로 진행되었다. 이를 간략하게 보이면 아래와 같다.

《우리말샘》 집필기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총 4단계로 이루어진다.

집필 단계: 집필진이 해당 항목의 역사 정보를 집필하는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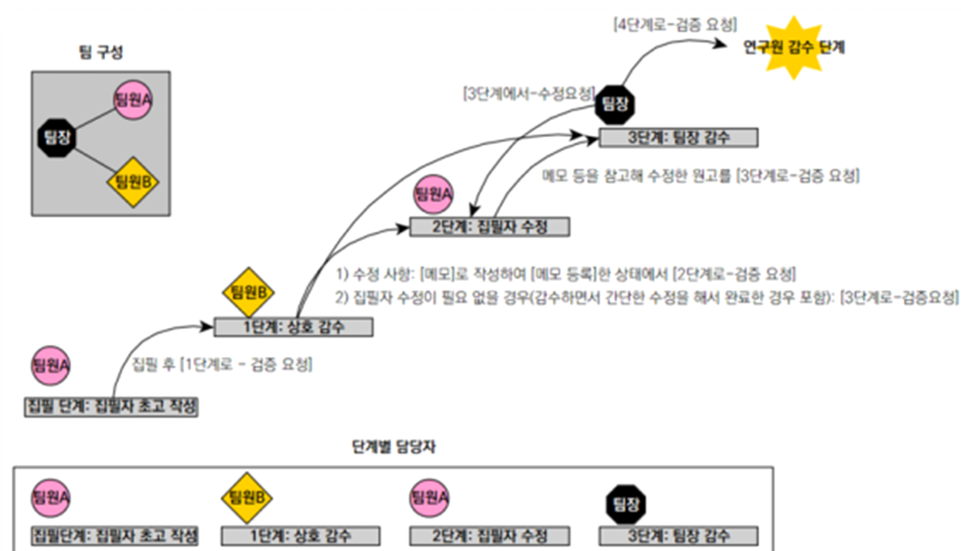
1단계: 상호감수. 집필 원고 내용을 같은 팀원인 집필진이 1차적으로 감수하는 단계.

2단계: 집필 수정. 감수 결과를 바탕으로 원 집필자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단계.

3단계: 팀장 감수. 1차 감수가 이루어진 원고를 감수자인 팀장이 감수하는 단계.

집필 및 감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집필자가 《우리말샘》 집필기에서 집필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상호감수를 요청하는 단계로, 집필기에서 [1단계로 검토 요청]한다.
- ② 상호감수자인 팀원은 [1단계로 검토 요청]된 원고를 검토하여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
 - ②-1. [2단계로 검토 요청]: 오류, 누락 정보 등의 보완을 집필자에게 요청한다.
→ 집필자는 팀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원고를 수정 후, [3단계로 검토 요청]한다.
 - ②-2. [3단계로 검토 요청]: (부수적인 오류를 감수자가 직접 수정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원고를 3단계로 보내 팀장 감수를 요청한다.
- ③ 팀장이 감수를 통해 최종적인 원고 확정을 요청한다.



〈그림 1〉 집필 및 감수 절차

2.5.2. 집필 및 감수 단계 관련 집필기 문제

별도 스프레드시트 파일로 집필 항목을 정리하여 개별적으로 집필하던 2023년에 비해 2024년에는 집필자 정보를 ‘올린 사람’ 정보에 반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선이 이루어졌다. 최초 집필시에 연구보조원이 ‘올린 사람’ 정보를 집필자로 설정하고, 감수 단계에 따라 이 정보를 감수자 변경하면 각 작업자가 본인이 집필 또는 감수를 맡은 항목을 모아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올린 사람’ 정보만을 고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감수자가 원고를 수정하면 목록에서의 ‘고친 사람’, ‘검토한 사람’이 모두 감수자로 바뀌었다. 원 집필자, 수정 감수자 등의 정보가 별도로 정리되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수자의 수정에 의해 ‘올린 사람’뿐 아니라 ‘고친 사람’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구보조원이 해당 항목의 원 집필자 정보를 찾아 변경을 해 두지 않으면 집필자가 집필기에서 본인 원고를 모아 보기 불편했다.

2.5.3. 집필 과정과 집필 예

우리말샘에서 집필 대상의 뜻풀이 등 집필 항목의 기본 정보를 확인한 후 집필을 시작하게 된다. 집필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집필자에게 배정된 집필 항목을 ‘깜짝새’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 검색한다. 둘째 집필 지침을 참고하면서 집필한다. 셋째 우리말샘 어원사전에 입력한다.

2.5.3.1. 검색

기본적으로 깜짝새 검색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말뭉치 파일에서 검색을 한다. 말뭉치에 어형이 안 나올 경우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1945년까지 출현형을 확인한다. 여기서도 예를 찾을 수 없을 경우 깜짝새 프로그램의 사전 검색이나 국립국어원 근현대 국어사전을 이용한다. 아래에서 ‘삽사리’를 예를 들어 그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2.5.3.1.1. 깜짝새

깜짝새 프로그램에는 ‘조건 검색’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집필 항목의 이형태, 이표기 확인이 수월하다. 아래는 ‘삽/5사/1리/4’로 검색한 것으로 이 조건으로 ‘삽소리, 삽사리, 습소리’ 등이 확인 가능하다. ‘삽사리’는 ‘삽살이’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조건으로 ‘삽살이’ 등을 검색한다.



〈그림 4〉 1920년 신문 기사의 ‘삽사리’

2.5.3.1.3. 국립국어원 근현대 국어사전

국립국어원 근현대 국어사전에서는 <1940 수정증보 조선어사전>과 <1957 큰사전>을 사진 원문과 함께 보여준다. 입력된 표제항을 클릭하면 원문 사진이 제공된다.



〈그림 5〉 국립국어원 근현대 국어사전 ‘삽사리’ 검색

2.5.3.2. 참고문헌 확인

집필 항목 중 어떤 항목은 참고문헌을 이용하여 어원 등의 정보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깡깡새 검색 프로그램에는 ‘사전검색’으로 기존 사전에 실린 집필 항목을 보여주며 때로는 해당 항목과 관련한 참고 문헌도 제시되어 있다. 이것을 이용하여 형태 분석이나 어원 관련 내용을 적고 있다. ‘삽사리’의 경우는 이것 이외에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경산의 삽살개’의 참고문헌으로 실린 <문화재대관 천연기념물 Ⅱ>(1993)을 참고하였다.



〈그림 6〉 깜짝새 사전 검색 ‘삽살개’ 검색

2.5.3.3. 집필지침 확인 및 집필

검색을 통해 확인한 형태를 세기별로, 연대순으로 정리해서 대중 변화의 흐름을 이해한 뒤 집필 지침을 참고하여 내용을 정리한다. 집필자는 이를 바탕으로 어원 정보를 집필한다.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에는 개의 일종인 ‘삽사리’¹⁾와 관련된 항목으로 ‘삽사리’, ‘삽살개’, ‘삽살개히’²⁾, ‘경산의 삽살개’, ‘청삽사리’가 있다. 조항범(2022)에서는 ‘삽사리’와 ‘청삽사리’가 다른 품종이라고 했는데 우리말샘의 뜻풀이만으로는 그 차이를 알 수 없다. 아래 (1), (2)는 우리말샘에 나오는 ‘삽살개’와 ‘청삽사리’의 뜻풀이이다.

(1) 삽살개

개 품종의 하나. 털이 복슬복슬 많이 나 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널리 길러 오던 토종개이나 일제 강점기에 멸종 위기에 몰렸다가 현재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서 사육되면서 증식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정식 명칭은 ‘경산의 삽살개’이다.

(2) 청삽사리

개의 한 품종. 검고 긴 털이 곱슬곱슬하게 난 개.

1) ‘삽사리’에는 ‘메뚜기과의 곤충’을 나타내는 ‘삽사리’와 ‘개삽사리’도 있다.

2) ‘삽살개’의 옛말이라고 뜻풀이가 달려 있다.



〈그림 7〉 한국삽살개재단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경산의 삽살개’ 역사 부분

<한국정신문화대백과사전>의 ‘경산의 삽살개’³⁾ 항목에서는 삽살개의 “색조에 따라 청삽사리와 황삽사리로 분류”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고려하면 ‘청삽사리’를 ‘삽살개’의 또 다른 이름인 ‘삽사리’의 일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표제 ⁴⁾	삽사리 002
품사	명사
뜻풀이	개 품종의 하나. 털이 복슬복슬 많이 나 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널리 길러 오던 토종개이나 일제 강점기에 멸종 위기에 몰렸다가 현재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서 사육되면서 증식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정식 명칭은 ‘경산의 삽살개’이다.
원어	% ⁵⁾
형태 변화	삽스리(19세기, 미상)삽사리(20세기)
내적 정보	‘삽사리’의 옛말인 ‘삽스리’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삽스리’는 ‘삽술’과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연철 표기된 것이다. 19세기에는 ‘삽스리’가 분철 표기된 ‘삽술이’도 보인다. ‘삽사리’가 단독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20세기부터지만, ‘삽사리’가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복합어를 이룬 ‘청삽스리’, ‘靑삽술이’가 19세기부터 확인된다. ‘·’와 ‘ㅏ’가 표기에서 섞여 쓰이면서 20세기에 ‘습스리’, ‘삽사리’, ‘삽살이’가 나타나는데 ‘삽사리’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
외적 정보	%
기타	1. ‘삽사리’와 관련된 것으로 ‘삽살개’가 있다. ‘삽사리’와 ‘삽살개’는 ‘삽살’과 접미사 ‘-이’가 결

3) <문화재대관 천연기념물 II>(1993), 한국삽살개재단(www.sapsaree.org),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삽살’에 대한 기술이 같은 것을 고려하면 <문화재대관>에서 그 내용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어원	합했는지, ‘삽살’과 명사 ‘개’가 결합했는지의 차이만 있다. ‘삽살개’로 이어지는 ‘삽살개히’가 1527년 〈훈몽자회〉에서 나오고 ‘삽사리’가 19세기에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삽살개’에서 ‘삽사리’가 나왔다고 할 수 있다. 2. ‘삽살’에 대해서는 “털”과 관련짓는 의견과 “귀신을 쫓음”과 관련짓는 의견이 있다. 전자는 ‘삽사리’, ‘삽살개’가 털이 많은 개라는 점과 관련하여 ‘삽’, ‘살’, ‘삽살’ 등을 “털”과 관련 짓는 견해이다. 골디어에 ‘삽살’과 어형과 의미가 유사한 ‘삽조레(긴 털을 지닌, 긴 수염을 지닌)’라는 단어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한다. ‘삽살’을 의태어로 보는 견해도 넓은 의미에 여기에 해당한다. 후자는 “쫓다, 들어내다”를 뜻하는 ‘삽’과 “귀신, 액운”을 뜻하는 ‘살’이 결합하여 ‘삽살개’를 귀신이나 액운을 쫓는 개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삽’과 ‘살’을 고유어로 보고 있으나 ‘삽’은 해당 의미를 지닌 고유어가 없고 ‘살’은 “사람을 해치거나 물건을 깨뜨리는 모질고 독한 귀신의 기운”을 뜻하는 한자어 ‘煞’(살)만 있어 문제가 있다.
용례	19세기: (삽소리, 삽술이) 스립문 안의 {청삽소리} 원산만 바라보고 꼬리 치는 저 집이니<1840 춘향전 단: 7>(번역: 스립문 안의 청삽사리 먼산만 바라보고 꼬리 치는 저 집이니) 저 건너 綵雲 어린 곳에 數間 茅屋 디스립 밧게 {靑삽술이더러} 무르시오<1876 가곡원류 97>(번역: 저 건너 채운이 어린 곳에 몇 간의 초옥 대사립 밖에 청삽사리에게 물으시오) 연대미상: (삽소리) 저 건너 彩雲 어린 곳디 數間 茅屋 대사립 밧기 {靑삽소리를} 츠즈소서<미상 악학습령 94>(번역: 저 건너 채운이 어린 곳에 몇 간의 초옥 대사립 밖에서 청삽사리를 찾으시오) 20세기: (삽소리, 삽살이, 삽사리) 한참 재미있게 뜯어먹는디 윈 {청삽소리} 기 한 마리가 오더니 궁아지를 노려보며<1908 은세계 114>(번역: 한참 재미있게 뜯어먹는데 윈 청삽사리 개 한 마리가 오더니 강아지를 노려보며) 별안간에 마루 밧헤서 자든 {삽살이가} 켕켕 짓더니<1908 빈상설 26>(번역: 별안간 마루 밑에서 자던 삽살이가 켕켕 짓더니) {청삽사리가} 뛰여 나오며 자즈러지게 짓드<1912 홍도화 상: 352>(번역: 청삽사리가 뛰어 나오며 자지러지게 짓다가) 흥 싱원 집 {삽사리} 짓는 소리에 제각기 잠을 놀나<1912 홍도화 상: 352>(번역: 흥생원 집 삽사리가 집는 소리에 제각기 잠을 놀라(깨어)) 抛 {삽살이} 방 獅스자 스 狐여호 호<1918 초학요선 99> 한 마리는 털이 굵슬굵슬하난 흰 {삽사리요} 또 한마리난 털이 넉넉넉하난 검정 {삽사리인대}<1920 동아일보 4월 9일 4면> 향나무 밧헤 비루먹은 {청삽살이} 괴운업시 조으다가 구면객도 몰라보고 쑤시시 일어나며 켕켕 짓고 내뺏는다<1925 동아일보 12월 13일 6면> 이웃집 {삽사리} 느닷업시 켕켕그리니<1930 동아일보 11월 27일 4면>
이표기	삽소리, 삽술이, 삽소리, 삽사리, 삽살이
관련어	삽살개, 경산의 삽살개
참고	김민수 편, 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논저	조항범, 2022, 말과 글의 달인이 되는 법: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1993, 문화재대관 천연기념물 II(증보),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 한국삼살개재단(www.sapsaree.org)
의견	%

4) 이 표는 국립국어원 어원사전 입력기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사용하던 것인데, 2024에도 이용되고 있다. 이 파일에서 내용을 정리한 뒤 입력기에 입력해야 시간이 절약된다.

5) %는 해당하는 내용이 없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2.6. 집필 지침

사전을 편찬할 때, 표제어에 대한 기술이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확한 집필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집필 지침은 처음부터 완성된 지침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기집필된 원고나 집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2023년도 사업에 이어 올해 사업에서도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현재까지 완성된 집필 지침은 아래와 같다.

어원사전 집필지침(v. 3.9.-241031)

<차례>

□ 집필 관련 사항	4
I. 일반 사항	4
II. 집필 범위	5
III. 원고 집필 기준	6
IV. 《우리말샘》 집필기 사용	7
V. 어원사전의 구조 및 주요 집필 정보	8
가. 어원사전의 미시구조	8
나. 기본 정보	8
다. 형태·표기 변화	8
라. 언어 내적 정보	8
마. 언어 외적 정보	9
바. 기타 어원 설명	9
사. 세기별 용례	9
아. 관련어	10
자. 참고 논저	10
차. 메모	10
□ 미시구조별 집필 세부 지침	12
1. 형태·표기 변화	12
1.1. 제시 범위	12
1.2. 용언 기본형 제시 방법	13
1.3. 체언 기본형 제시 방법	13
1.4. 출현 세기 제시 방법	14

2. 언어 내적 정보	15
2.1. 언어 내적 정보 기술 범위와 순서	15
2.2. 최초 출현형에 대한 설명	15
2.3. 최초 출현형에 대한 어원적 설명	18
2.4. 역사적 변화 단계 설명	22
2.5. 의미 변화에 대한 설명	23
2.6. 변화 설명 마무리	24
2.7. 특수한 사례들의 기술	25
2.8. 언어 내적 정보를 기술할 때 주의할 사항	27
3. 언어 외적 정보	29
4. 기타 어원 설명	32
5. 세기별 용례	35
5.1. ‘언어 내적 정보’에서 의미 변화를 설명한 경우	35
5.2. 용례 제시 방법	35
5.3. 이표기 및 변화형 제시 방법	36
5.4. ‘세기별 용례’ 기술 방법	38
5.5. 용례 번역	39
5.6. 이형태/이표기	40
6. 관련어	41
7. 참고 논저	43
8. 메모	43
8.1. 메모 작성	43
□ 부록 1: 현상 설명을 위한 표현	45
● 음운 변화에 관련된 표현	45
■ 아래아 소실과 표기 변화	45
■ 어두 자음군	45
■ 어두 경음화	46
■ △ 소실	46
■ ㄴ 변화	46
■ 구개음화	47
■ 역행 동화	48
■ 원순 모음화	48
■ 전설 모음화	48
■ 이중 모음의 단모음화	48
■ ㅛ → ㅜ	49
■ ㅓ의 유성 후두 마찰음화	50
■ 유성 후두 마찰음 소실	50
■ ㅎ의 약화	50
■ 니>이	51
■ 축약	51

● 표기 변화에 관련된 표현	51
■ 종성 ㅇ(옛이응) 표기의 변화	51
■ 중세 국어의 종성 표기	51
■ 종성 ㄷ과 ㅅ 표기의 혼동	52
■ ‘ㅅ, ㅈ, ㅊ’ 아래의 단모음이 이중 모음으로 표기되는 현상	52
■ 반모음 표기 이동	52
■ 연철/분철/중철 표기/ㄹㄹ 관련 표기	52
■ 과도 교정	53
■ 현대형 표기가 먼저 등장하고 선대형 표기가 뒤에 등장할 때	54
● 기술에 사용하는 표현과 부호 사용 등	54
■ 문자 사용	54
■ 설명에서의 띄어쓰기	55
■ 부호의 사용	55
■ ‘~세기’와 ‘~세기 문헌’	56
■ 기타	56
□ 부록 2: 기술 문장 사례	57
□ 부록 3: 현상 설명을 위한 표현 사례	60
□ 부록 4: 집필 예시	62
● 들뜨다	62
● 깨	64
● 겁다	66
● 끝장	68
● 어리다	69
● 벗다	72

□ 집필 관련 사항

1. 일반 사항

1) 어원사전 집필은 <<우리말샘>> 입력 시스템을 사용한다.

2) 어원사전 집필에 말뭉치를 활용한다.

가) 집필관리자가 제공하는 모든 말뭉치 → 깎깎새에서 제공되는 말뭉치

나)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1945년까지): 특히, 20세기 용례가 없을 경우에는 ‘뉴스라이브러리’를 적극 참조하여야 하며, 이때 원문 기사를 확인하여 원문의 표기대로 입력한다.

예) ‘텍스트 보기’에서 ㅅ으로 나타났는데, 원문 기사는 ㅆ과 같았다.

ㄱ. 나중에는 (밥숯까지) 떼여서 버림으로 <1923 조선일보 11월 5일 3면>

ㄴ. 나중에는 {밥솥ʹ지} 떼어서 버림으로 <1923 조선일보 11월 5일 3면>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텍스트 보기’로 제공되는 기사에는 오류가 많으므로 반드시 원문 기사를 확인해야 한다.

다) 인터넷에 찾을 수 있는 말뭉치

예)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https://nl.go.kr/newspaper/>)

예)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 ‘한국 근대 사료 DB’에 신문과 잡지가 포함되어 있음

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내 ‘신문자료’(<https://search.i815.or.kr/>)

예)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https://kdp.aks.ac.kr/>)

☞ 제목 정도만 검색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독립신문 등 일부 신문, 잡지 자료는 내용 검색 서비스되고 있음

예)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 한문 정보 제공. 한자어의 역사 정보를 검색할 때 유용함

라)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말뭉치나 기타 다른 자료에서 확인되는 말뭉치. 단, 이때는 ‘메모’에 이용 말뭉치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남긴다.

3) 어원사전의 모든 내용은 교양을 갖춘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기술되어야 한다.

가) 가급적 쉬운 표현을 사용한다.

예) 산견된다 → 간혹 보인다.

예) 문증된다 → 문헌에서 확인된다. / 문헌 자료에 나타난다.

예) ‘그속ㅎ-, 그속-, 그스근’ 등과 같이 ‘-ㅎ-’가 수약적으로 탈락하기도 하였다.

☞ ‘수약적’으로라는 표현을 빼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4) 집필에 사용하는 용어 등은 정해진 것을 따른다.

가) 집필에 사용하는 용어는 학교 문법 용어를 사용한다.

선택(O)	비선택(X)	선택(O)	비선택(X)
관형사형 어미	관형형 어미	관형격 조사	속격 조사
서술격 조사	계사	목적격 조사	대격 조사
고대 국어	고대 한국어	양순음	순음
중세 국어	중세 한국어		
근대 국어	근대 한국어		
현대 국어	현대 한국어		

나) 조사, 어미의 이형태는 말뭉치에 나오는 형태에서 분석되는 이형태를 제시한다.

예) 관형사형 어미 ‘-ㄴ’, 관형사형 어미 ‘-은’

2. 집필 범위

1) 집필자는 자신에게 배정된 표제어를 집필한다.

가) 배정된 표제어 중에서 **깜짝새에서** 제공되는 말뭉치에서 용례가 발견되지 않으면 집필에 필요한 용례를 찾지 못했다고 ‘메모’에 밝히는 것으로 집필을 끝낸다. 다만, ① 다른 자료 등을 통해 19세기 이전 용례가 있음이 확인되면 그 용례를 이용하여 집필한다. ②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른 표제어(자모음 교체형, 쌍형어 등)를 고려하면 집필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고 네이버 뉴스라이브리 등에서 1945년 이전의 용례가 발견되면 집필한다.

나) 표제어 선정 오류가 간혹 있으므로 집필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아 맞는 표제어로 옮겨 집필한다.

예) 현재 <우리말샘>에는 ‘나라미001’에 역사 정보가 있어 이를 근거로 표제어를 선정하였다. 그런데 집필 과정에서 ‘나라미002’에 해당하는 정보가 잘못 제시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런 경우 집필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나라미001’이 아닌 ‘나라미002’에 집필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집필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아 ~~추가로 집필할 수 있다.~~ → 되도록 추가로 집필한다.

가) 집필 시스템 ‘편집/검증’에서 검색되지 않으나(즉, 집필 대상이 아니나) 어원 정보를 기술할 필요가 있는 단어를 발견한 경우. 다만, 해당 단어는 <우리말샘>에 등재된 표제어여야 한다.

예) ‘끼절가리’를 집필하는 중에 비슷한말인 ‘승마’의 용례가 말뭉치에서 확인되었다. 집필 대상이 아니어서 집필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추가로 집필했다. ‘관련어’에서 두 표제어 각각에 상대 표제어를 관련어로 제시한다.

☞ ‘끼절가리’에서 ‘승마’에 관한 내용까지 합쳐 기술하지 않고 각각의 표제어에서 집필해야 한다.

나) 배정된 표제어와 긴밀한 관련이 있고 용례도 확인되는데 집필 대상이 아닌 표제어

- 주표제어와 부표제어

예) ‘낭패하다’를 집필할 때 ‘낭패’도 집필

- 집필 표제어로 시작되는 복합어 또는 복합어인 집필 표제어를 구성하는 표제어

예) ‘물약’을 집필할 때, ‘물’과 ‘약’도 가능하면 함께 집필

3) 집필 대상이 되는 동음어는 원칙적으로 한 집필자가 모두 집필한다.

☞ 집필자에게는 동음어가 구분되지 않은 표제어가 제공되므로 집필자가 말뭉치 등을 검토하여 집필 대상이 되는 동음어 모두를 집필한다.

3. 원고 집필 기준

1) <우리말샘>에서 상위 표제항으로 묶여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하나의 어원 정보만을 기술한다. 그러나, 하위 표제항 중 일부의 어원 정보도 별도로 집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필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아 추가 집필할 수 있다.

예) ‘그’의 경우

그 [그 ㉠]

- 그 「001」 「대명사」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였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주로 남자를 가리킬 때 쓴다. **제안**
- 그 「002」 「대명사」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였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 그 「003」 「관형사」 듣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
- 그 「004」 「관형사」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
- 그 「005」 「관형사」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밝히고 싶지 아니한 일을 가리킬 때 쓰는 말.

☞ 그 「001」부터 「005」는 상위 표제항으로 묶여 있으므로, 하나의 어원 정보만을 기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집필자가 ‘그’에 대해 대명사와 관형사 용법을 구별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필 관리자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 항목을 구별하여 기술할 수 있다.

- 2) <<우리말샘>>을 기준으로, 상위 표제항이 달리 설정되어 있는 항목의 어원 정보는 별도로 집필한다. 같은 상위 표제항으로 묶여야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원칙에 따라 별도 기술하고 ‘메모’ 난에 집필자 의견을 밝힌다.

법석 [법석 ㉠] 법석만 [법쟁만]

- 법석 「001」 「명사」 소란스럽게 떠드는 모양.

법석(法席) [법석 ㉠] 법석만 [법쟁만]

- 법석 「002」 「명사」 「불교」 설법, 독경, 강경(講經), 법화(法話) 따위를 행하는 자리.

☞ <<우리말샘>>에 있는 ‘법석001’과 ‘법석002’는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어라서 하나의 상위 표제항으로 묶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말샘>>에 별도의 표제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칙에 따라 따로 집필한다. ‘법석001’의 어원 정보를 기술할 때는 ‘법석002’에서 온 말임을 기술한다.

4. <<우리말샘>> 집필기 사용

- 1) 어원사전의 각 항목을 집필할 때는, <<우리말샘>> 집필기를 활용한다.
- 2) ‘집필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 개인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우리말샘>>에 로그인한다.

우리말샘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우리말 사전

3)

옛 한글
Q

자세히 찾기

4) 로그인한 후, '어원사전' 탭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가'와 '편집/검증' 메뉴가 나타난다.

사전 편찬 | 어원사전 | **집필 참여하기** | 사전 통계 | 어휘 지도 | 작은 창 사전

추가
편집/검증

우리말샘

옛 한글

5)

6) 기존에 역사 정보가 이미 기술되어 있는 경우, 이를 수정/보완하는 것이기에 '편집/검증' 항목을 클릭하여 진행한다. 기존에 역사 정보가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항목을 클릭하여 진행한다.

7) 기존 역사 정보가 이미 기술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눌러서는 안 된다.

8) 수정/보완하는 경우 '편집/검증' 항목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찾을 대상 부분에 표제어를 입력한다. '찾기 결과 목록'에 해당 표제어가 나타나는데, 해당 표제어의 뜻풀이 부분에 있는 어원사전 '수정' 부분을 클릭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5. 어원사전의 구조 및 주요 집필 정보

가. 어원사전의 미시구조

1) 어원사전의 미시구조는 아래와 같다.

표제어	
1) 기본 정보	어휘, 구분, 품사, 원어, 고유어 여부, 뜻풀이
2) 변화 정보	형태·표기 변화
	언어 내적 정보
	언어 외적 정보
	기타 어원 설명

	세기별 용례
	이형태/이표기
3) 부가 정보	관련어
	참고 논저
4) 기타 정보	메모

나. 기본 정보

- 1) 편집기에서 <<우리말샘>>의 정보가 자동 이관된다. **'기본 정보' 항목은 수정하지 않는다.** '기본 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메모'에 의견을 기술한다.

다. 형태·표기 변화

- 1) 최초출현형으로부터 현대어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어형만을 제시한다.
- 2) 용언은 기본형('·다')의 형태로 제시한다.
- 3) 체언은 기저형을 밝혀 적는다. (예: '갯', '늪')
- 4) 출현 세기는 각 어형이 문헌에서 발견되는 세기를 모두 클릭한다.

라. 언어 내적 정보

- 1) 최초출현형, 어원, 형태 정보, 형태적/의미적 변천 등을 언어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 2) 합성어나 파생어의 경우 형태적 구성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다.
- 3) 최초 출현형 이후 현대어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설명한다.
- 4) 현대어와 의미가 다르거나 옛말에서 현저하게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경우 의미 변화를 기술하고 '세기별 용례'에서 용례도 각각 제시한다.

마. 언어 외적 정보

- 1) 문화사적 정보, 유입 경로 등을 기술한다.
- 2) 외래어 혹은 귀화어의 경우 해당 단어가 온 언어에서의 정보를 기술한다.
- 3) 어원과 관련하여 문화사적으로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면 기술할 수 있다.
- 4) 예전에 많이 쓰이던 차자 표기를 기술할 수 있다.
- 5) 선인들의 기록에서 해당 표제어와 관련된 흥미로운 기록은 기술할 수 있다.
- 6) 국어 정책적으로 말이 정리된 것을 기술할 수 있다.

바. 기타 어원 설명

- 1) 학계에서 널리 인정되지 않는 어원, 즉 민간 어원, 여러 설이 공존하는 어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어원 등을 기술한다.
- 2) 기존 논저를 인용할 경우 출처를 밝히거나 직접 인용하지 않고 최대한 요약하여 제시한다.
- 3) 어느 한 학설이 널리 인정되지 않은 채 여러 학설이 공존하는 경우에 기술한다.
- 4) 널리 인정되는 학설은 아니나 소개할 만한 학설인 경우에는 기술한다. 그러나 '기타 어원 설명'은 집필진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학설은 아니며, 문제점이 있을 경우 밝힐 수 있다.
- 5) 민간 어원이나 어원 관련 설화 등을 기술할 수 있다.
- 6) 관련이 있는 다른 표제어와의 특이한 역사적 관계를 기술할 수 있다.
- 7) 내적 파생/쌍형 어간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의 관계를 기술할 수 있다.
- 8)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으나 별도의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단어의 어휘 역사 정보를 기술할 수 있다.

사. 세기별 용례

- 1) '언어 내적 정보'에서 의미 변화를 설명한 경우 의미별로 나누어 제시한다.
- 2) 세기별로 3개 이상 용례를 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용례는 원칙적으로 1945년 이전에 나온 문헌에서 발견된 것까지만 원칙적으로 인용할 수 있다.
- 4) 용례, 출처, 한문 원문, 현대어역을 제시한다.
- 5) 세기별로 말뭉치에서 확인되는 모든 이표기 및 변화형을 제시한다.
- 6) 세기가 다르면 앞선 세기에서 제시된 이표기 및 변화형이라도 다시 제시한다.
- 7) 같은 세기 내의 이표기 및 변화형의 배열 순서는 용례에서 제시되는 순서대로 한다.
- 8) 어간을 제시하되 체언은 조사를 제외한 부분, 용언은 어미를 제외한 부분을 제시한다.
☞ '형태·표기 변화' 부분을 기술할 때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한다. '형태·표기 변화' 부분에서는 '다르다'로 제시한다면, 그 외의 부분에서는 '다르-'로 제시한다.
- 9) 용례는 같은 세기 내에서는 연대순으로 제시한다.
- 10) 연대미상 자료의 경우, 19세기와 20세기 사이에 제시한다.
- 11) 신문 출처는 '〈연도+신문명+월일+면수〉'로, 사전 출처는 '《연도+사전이름》'으로 제시한다.

12) 용례 중에 나오는 표제어는 { }를 사용하여 어절 단위로 표시한다.

13) 1919년까지의 문헌에 나타난 용례는 현대어역을 제시한다.

14) '이형태/이표기'에서는 세기, 용례 제시 순서로 이형태와 이표기를 모두 제시하되 같은 이형태, 이표기를 반복 제시하지는 않는다.

아. 관련어

1) 형태 분석 정보 및 어원과 관련된 단어를 제시한다.

2) 단순히 형태론적으로 관련된 복합어나 단순히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 옛말은 관련어로 제시하지 않는다.

자. 참고 논저

1) 집필에 참고한 논저를 제시한다. 논저의 내용이 집필에 포함된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내용이 있어 참고한 논저까지 포함된다.

2) 참고 논저 제시 방식은 학술 논저의 일반적인 제시 방식을 따르며, 단행본과 논문을 구별하여 기술한다.

차. 메모

1) 위에서 기술할 수 없는 내용, 어휘 역사 정보와 관련 없지만 <<우리말샘>> 사전 기술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 집필자의 추가 의견, 검토하거나 논의할 내용, 동음어인데 <<우리말샘>>에 오르지 않은 옛말 등을 기술한다.

☞ 말뭉치에서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 <<우리말샘>> 어원사전 집필 사이트에서 '사전 편찬 > 분과 게시판 > 말뭉치 오류 신고'에 기록을 남긴다.

□ 미시구조별 집필 세부 지침

6. 형태·표기 변화

가. 제시 범위

1) '형태·표기 변화'에서는 최초출현형으로부터 현대어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어형만을 제시한다. 밑의 '이형태/이표기' 항목에서는 문헌에 나타나는 모든 어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추가	
☐ 15세기 ☐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미상 ☐ 20세기 찻쫓하다	☐ 노출 제외 삭제 ▲ ▼
☐ 15세기 ☐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미상 ☒ 20세기 찻쫓하다	☐ 노출 제외 삭제 ▲ ▼
☐ 15세기 ☐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미상 ☒ 20세기 따뜻하다	☐ 노출 제외 삭제 ▲ ▼

예) ‘따뜻하다’의 경우, 문헌에 ‘찻쫓하다’, ‘찻쫓하다’, ‘찻닷하다’, ‘차쫓하다’, ‘따뜻하다’ 등의 어형이 나타난다. 그런데 최초출현형 ‘찻쫓하다’에서 현대형 ‘따뜻하다’로의 변화를 설명할 때 ‘찻쫓하다’, ‘찻닷하다’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형태·표기 변화’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 위 예시 참조

예) ‘미늘’의 경우, 문헌 자료에 ‘미늘’, ‘미늘’, ‘미늘’, ‘미날’의 네 가지 어형이 나타난다. 그런데 최초출현형 ‘미늘’과 현대형 ‘미늘’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미늘’과 ‘미늘’로 충분하므로, ‘미늘’과 ‘미날’은 ‘형태·표기 변화’에서는 제시하지 않는다.

예) ‘길다’는 15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근대 국어 시기에 ‘깃-’으로 표기가 혼동되는 예가 나타나지만 변화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깃-’은 ‘형태·표기 변화’에서는 제시하지 않는다.

- 2) 변화 과정을 설명하기 어려워도 선후 관계가 있고 ‘언어 내적 정보’에서 기술했으면 대표적인 형태를 제시한다.

예) ‘구유’의 경우, 15세기부터 ‘구시’로 나타나고 16세기부터 ‘구슈’가 나타난다고 ‘언어 내적 정보’에서 기술했다. ‘언어 내적 정보’에서 기술했다면 ‘구시>구슈’의 변화를 설명하기 어려워도 ‘형태·표기 변화’에 ‘구시’를 제시해야 한다.

- 3) 다른 복합어의 성분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당 성분만 제시한다.

예) ‘깨’는 15세기 문헌에서 ‘츄뻬’, ‘두리깨’와 같은 복합어에서만 확인된다. 이 경우 ‘뻬’, ‘깨’만 ‘형태·표기 변화’에서 제시한다.

☞ 집필 예시의 ‘깨’ 참조

- 4) ‘형태·표기 변화’에서 어형을 제시하는 경우 실제로 문헌에 나타나는 것만으로 한정한다.

☞ 용언이나 체언의 기본형 제시 방법은 아래의 규정을 따르되 문헌에서 한 가지 형태만 확인된다면 그것만 제시하고 ‘언어 내적 정보’에서 재구형이나 추정형 등을 이용하여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 형태를 설명한다.

예) ‘겹다’의 옛말인 ‘계우다’와 ‘계오다’는 15세기부터 나타난다. 현대 국어에서 ‘겹다’의 활용형으로 주로 쓰이는 ‘겨워’, ‘겨우니’와 15세기 국어의 ‘계워’, ‘계우니’의 활용형이 기본적으로 같으므로 어간이 ‘계우->겨우-’와 같이 달라졌을 것이고 ‘빙’을 끝소리로 하는 어간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지만 자음 어미 앞에서의 형태가 확인되지 않아 ‘겹-’이 어간인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경우는 ‘계우다’, ‘계오다’로 제시한다.

☞ ‘겹다’를 확인할 수 있는 어형을 문헌에서 찾을 수 없으므로 ‘겹다’가 아닌 ‘계우다, 계오다’를 ‘형태·표기 변화’에서 제시하고 ‘언어 내적 정보’에서 설명했다

예) '빛'의 옛말인 '빋'은 16세기부터 나타난다. 이 말의 어원이나 18세기에 나타나는 '빋츠'를 고려하면 기본형은 '빋'이었을 것이다. '빋'은 자음 조사 앞에서는 '빋', 모음 조사 앞에서는 '빋'으로 나타나는데 16세기에서는 '빋'만 확인된다. 18세기에 나타난 '빋츠'는 음절의 끝소리 '츠'이 중절 표기된 것이다.

☞ '빋'을 확인할 수 있는 어형을 문헌에서 찾을 수 없으므로 '빋'을 '형태.표기 변화'에서 제시하고 '언어 내적 정보'에서 설명했다.

나. 용언 기본형 제시 방법

- 1) 용언은 기본형('다')의 형태로 제시한다. (예: '깊다')
- 2) 특수 어간 교체 또는 현대 국어의 불규칙교체('ㅂ' 불규칙, 'ㅅ' 불규칙)를 보이는 어형들도 '-다'의 어형으로만 제시하고, 상세한 교체형은 '언어 내적 정보'에서 제시한다.

예: '심다'의 경우, 15세기 어형을 '시므다'로 제시한다.

☞ '심거'와 같은 활용형은 '언어 내적 정보'에서 설명한다.

예: '어지럽다'의 경우, 15세기 어형을 '어즈럽다'로 제시하며 '어즈럽다'로 제시하지 않는다.

☞ '어즈러버'와 같은 활용형은 '언어 내적 정보'에서 설명한다.

예: '웃다'의 경우, 15세기 어형을 '웃다'로 제시하며 '웃다'로 제시하지 않는다.

☞ '우서'와 같은 활용형은 '언어 내적 정보'에서 설명한다.

다. 체언 기본형 제시 방법

- 1) 체언은 기저형을 밝혀 적는다. (예: '갯', '늪')

예) '잎'의 경우, 15세기 어형을 '늪'으로 제시하며 '납'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예) '숯'의 경우, 15세기 어형을 '쑤'으로 제시하며 '숯'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 모음 조사 앞에 오는 형태를 기저형으로 본다.

- 2) 특수 어간 교체를 보이는 체언의 경우 현대 국어로 이어지는, 자음 조사 앞에 오는 형태를 제시한다(예: '나모', '구무', 'ㄱ르', '노로'). 다만, 문헌에서 모음 조사 앞에 오는 형태만 발견된다면 그것을 제시한다.

- 3) ㅎ 말음 체언의 경우 'ㅎ'은 따로 적는다.

예) '나라'의 경우, 15세기 어형을 '나라ㅎ'으로 적는다.

라. 출현 세기 제시 방법

- 1) 출현 세기는 각 어형이 문헌에서 발견되는 세기를 모두 클릭한다.

예) 가까이

☒ 15세기 ☐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미상 ☐ 20세기
갓가비

☒ 15세기 ☒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미상 ☐ 20세기
갓가이

☐ 15세기 ☐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미상 ☒ 20세기
가까이

예) 귀뚜라미

☒ 15세기 ☐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미상 ☐ 20세기
꿇돌와미

☐ 15세기 ☒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미상 ☐ 20세기
꿇도라미

☐ 15세기 ☐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미상 ☒ 20세기
귀뚜라미

2) 같은 세기에 나타나는 어형을 함께 제시하지 않는다.(A를 취하고 B를 버린다.)

A: 바른 예

☐ 15세기 ☐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미상 ☐ 20세기
가라닙다

☐ 15세기 ☐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미상 ☐ 20세기
갈아닙다

B: 잘못된 예

☐ 15세기 ☐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미상 ☐ 20세기
가라닙다, 갈아닙다

3) 표제어와 동일한 형태가 20세기에 비로소 확인되면 20세기를 선택하고 표제어 형태를 제시한다.

예) 1.4.1.의 '가까이', '귀뚜라미' 참조

☞ 2024년 어원사전 집필에서 사용되는 말뭉치부터는 사전류가 포함된다. 따라서, 20세기 예가 거의 확인될 것이다. 2023년의 경우 사전에만 검색되는 경우에는 20세기를 선택하지 않았으나, 2024년부터는 선택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예를 들어, ‘방망이꾼’의 경우 2023년이라면 20세기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나(사전류 이외 말뭉치에서 나타나지 않음), 2024년부터는 20세기를 선택한다(최소한 사전류에 나타났기에 집필 대상이 되었으므로).

7. 언어 내적 정보

가. 언어 내적 정보 기술 범위와 순서

- 1) 최초 출현형 및 어원, 형태 정보, 형태나 의미의 변화 등을 언어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 2) 언어 내적 정보의 기술 순서는 다음과 같다.

최초 출현형에 대한 설명

- 최초 출현형에 대한 어원적 설명 및 형태 정보(필요할 때)
- 역사적 변화 단계 설명 / 의미 변화에 대한 설명(필요할 때)
- 변화 설명 마무리(필요할 때)

나. 최초 출현형에 대한 설명

- 1) 최초 출현형은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들뜨다: 16세기의 ‘들쁘다’를 최초 출현형으로 선택

가) 다만, 사전에 별개의 표제어로 오른 경우에는 각각의 표제어를 기준으로 최초 출현형을 선택한다.

예) ‘가르치다’와 ‘가리키다’는 어원이 같지만 별개의 표제어로 올랐으므로 각각의 의미에 해당하는 예를 최초 출현형으로 선택

나) 변화 과정을 설명하기 어려워도 선후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집필자가 판단하여 최초 출현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필요하면 ‘메모’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예) ‘구유’: 15세기의 ‘구시’를 최초 출현형으로 선택

예) ‘광저기’: 16세기의 ‘광장이’를 최초 출현형으로 선택

- 2) 최초 출현형을 제시할 때 ‘형태·표기 변화’에서 제시한 어형을 그대로 사용한다.

예) ‘가다’는 15세기부터 ‘가다’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예) ‘심다’의 옛말인 ‘시므다’는 15세기부터 나타난다.

예) ‘꽃’의 옛말인 ‘곶’은 15세기부터 나타난다.

가) 최초 출현형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기본형이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설명을 덧붙인다.

예) ‘겹다’의 옛말인 ‘계우다, 계오다’는 15세기부터 나타난다. 현대 국어에서 ‘겹다’의 활용형으로 주로 쓰이는 ‘겨워’, ‘겨우나’와 15세기 국어의 ‘계워’, ‘계우나’의 활용형이 기본적으로 같으므로 어간이 ‘계우-’>‘겨우-’와 같이 달라진 것이다. ‘계우-’나 ‘계오-’는 현대 국어 ‘겹다’와의 관련성을 생각하여 보면 ‘방’을 끝소리로 하는 어간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방’을 끝소리로 하는 어간이라면 15세기에는 자음 어미 앞에서는 ‘겹-', 모음 어미 앞에서는 ‘계우-' 또는 ‘계오-'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런데 15세기에서 자음 어미 앞에 쓰인 예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어간이 ‘꺄-’이었는지 알 수 없다. 19세기에 ‘겨우-’가 나타나고 20세기에 ‘겹-'이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 위 1.1.4.에서 제시했듯이 ‘형태·표기 변화’에서 어형을 제시하는 경우 실제로 문헌에 나타나는 것만으로 한정한다. 그러므로 ‘계우다’, ‘계오다’만 최초 출현형으로 제시하고, 설명을 덧붙여야 하면 ‘언어 내적 정보’에서 재구형이나 추정형 등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나) 최초 출현형이 다른 복합어의 성분으로 나타날 때는 설명을 덧붙인다.

예) ‘깨’의 옛말인 ‘뻬, 께’는 15세기부터 나타난다. 단독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16세기부터지만, ‘뻬’가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복합어를 이루는 구성이 15세기부터 확인된다.

☞ ‘형태·표기 변화’에서는 ‘뻬’, ‘꿔’를 제시하고 ‘세기별 용례’에서는 복합어 전체에 { } 표시를 한다. (5.4.8. ‘용례 중에 나오는 표제어는 { }를 사용하여 어절 단위로 표시한다.’ 참조)

예) ‘결쇠’의 옛말인 ‘결쇠’는 15세기부터 나타난다. 단독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16세기부터지만 ‘결쇠’가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복합어를 이루는 구성이 15세기부터 확인된다.

3) 최초 출현형은 (1) 현대 국어와 어형이 동일한 경우, (2) 현대 국어와 어형이 다른 경우를 구분하여 기술한다.

가) (1)-1 최초 출현형과 현대 국어 어형이 동일하고, 다른 이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A’는 B세기부터 ‘A’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예) ‘나’는 15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나) (1)-2 최초 출현형과 현대 국어 어형이 동일하고, 다른 이형태가 나타나는 경우: ‘A’는 B세기부터 나타난다.

예) ‘거두다’는 15세기부터 나타난다.

☞ 17세기에는 ‘거도다, 거두우다’의 어형이 보이나 현재에는 여전히 ‘거두다’가 사용된다.

예) ‘벗다’는 15세기부터 ‘벗다’와 ‘뱃다’로 나타난다.

다) (2) 최초 출현형과 현대 국어 어형이 다른 경우: ‘A’의 옛말인 ‘B’는 C세기부터 나타난다.

예) ‘메밀’의 옛말인 ‘모밀ᄇᆞ’는 16세기부터 나타난다.

예) ‘벗어나다’의 옛말인 ‘버서나다’는 15세기부터 나타난다.

☞ ‘벗어나다’와 ‘버서나다’처럼 발음이 동일하지만 표기가 다른 것도 옛말로 본다.

4) ‘미상’ 시기에 나타나는 경우: “B/C세기”를 “19세기경으로 추정되는 문헌”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한다.

예) ‘너력바위’는 19세기경으로 추정되는 문헌부터 ‘너력바위’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 최초출현형이 연대미상 문헌에 나타나는 경우, ‘19세기경으로 추정되는 문헌’, ‘19~20세기로 추정되는 문헌’과 같이 최대한 세기를 추정하여 제시하며, ‘연대미상 문헌에서’라고 기술하지

않는다.

- 5) 최초 출현형은 한자 표기와 한글 표기를 구별하여 기술한다. (1) 한자 표기와 한글 표기가 세기를 달리하여 나타나는 경우, (2) 한자 표기와 한글 표기가 같은 세기에 나타나는 경우, (3) 한글 표기만 나타나는 경우를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여기서 한자를 제시할 때는 한글음을 () 안에 제시하지 않는다. 한글음이 표제어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가) 한자 표기와 한글 표기가 세기를 달리하여 나타나는 경우

- (1) 한자가 먼저 나오는 경우: ‘A’는 B세기에 한자로 표기된 ‘C’로 나타나고 D세기부터 한글로 표기된 ‘E’로 나타난다.

예) ‘별세하다’는 18세기에 한자로 표기된 ‘別世하다’로 나타나고 19세기부터 한글로 표기된 ‘별세하다’로 나타난다.

예) ‘갈건’은 15세기에 한자로 표기된 ‘葛巾’으로 나타나고 19세기부터 한글로 표기된 ‘갈건’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 (2) 한글이 먼저 나오는 경우: ‘A’는 B세기부터 한글로 표기된 ‘C’로 나타나고 D세기부터 한자로 표기된 ‘E’도 나타난다.

예) ‘기미’는 19세기부터 한글로 표기된 ‘기미’로 나타나고 20세기부터 한자로 표기된 ‘氣味’도 나타난다.

예) ‘방’은 16세기부터 한글로 표기된 ‘방’으로 나타나고 17세기부터 한자로 표기된 ‘榜’도 나타난다.

☞ (1)에서처럼 후대에 “한자로 표기된 ‘E’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후대의 표기가 한자인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한자로 표기된 ‘E’도 나타난다”와 같이 조사 ‘도’로 바꾸었다.

나) 한자 표기와 한글 표기가 같은 세기에 나타나는 경우: ‘A’는 B세기에서부터 한글로 표기된 ‘C’나 한자로 표기된 ‘D’가 나타난다.

예) ‘와사등’은 19세기에서부터 한글로 표기된 ‘와사등, 와스등’이나 한자로 표기된 ‘瓦斯燈’이 나타난다.

☞ 다른 경우에는 ‘부터’를 주로 사용하나 여기에서는 한자와 한글이 동시에 나타나기에 ‘에서부터’라고 세기를 기술한다.

다) 한글만 나타나는 경우: “‘A’는 한자어 ‘B’를 한글로 표기한 것이다.”를 덧붙인다.

예) ‘결귀’는 19세기부터 ‘결귀’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결귀’는 한자어 ‘乞鬼’를 한글로 표기한 것이다.

예) ‘등신’은 19세기부터 ‘등신’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등신’은 한자어 ‘等神’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다.

예) ‘간섭’의 옛말인 ‘간섭’은 18세기부터 나타난다. ‘간섭’은 한자어 ‘干涉’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다.

- 6) 최초 출현형의 이형태는 8종성 표기를 비롯하여 형태소 분석 원칙에 따라 확인되는 모든 이형태를 기술한다.

가) 용언의 경우

예) 가깝다: ‘갓잡-’은 자음 어미 앞에서는 ‘갓잡-’, 모음 어미 앞에서는 ‘갓잡-’으로 나타난다. 15세기 중반 이후 ‘방’이 반모음 [w]로 변하여 ‘갓잡-’은 ‘갓가오-’로 나타나게 되어 ‘갓잡-/갓가오-’의 교체를 보이는 불규칙 용언이 되었다.

예) 밝다: ‘봣-’은 자음 어미 앞에서는 ‘봣-’으로, 모음 어미 앞에서는 ‘봣-’으로 나타난다. 15세기 중반 이후 ‘방’이 반모음 [w]로 변하여 ‘봣-’은 ‘봣오-’로 나타나게 되어 ‘봣-/봣오-’의 교체를 보이는 불규칙 용언이 되었다.

18세기부터 자음 어미 앞에서만 나타나던 ‘븍-’이 ‘븍아’, ‘븍을’과 같이 모음 어미 앞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여 규칙 용언으로 바뀌게 되었다. 18세기에 보이는 ‘븍을’(븍오--+ㄹ), ‘븍을’(븍우--+ㄹ)은 이전 시기의 표기 방식이 남아 있는 것이다.

예) 붓다: ‘븍-’은 자음 어미 앞에서는 ‘븍-’, 모음 어미 앞에서는 ‘븍-’으로 나타난다. 16세기 이후 ‘Δ’이 소실되어 ‘븍-’이 ‘브-’로 나타나게 되어 ‘븍-/브-’의 교체를 보이는 불규칙 용언이 되었다.

예) 심다: ‘시므-’는 자음 어미 앞에서는 ‘시므-’, 모음 어미 앞에서는 ‘심-’으로 나타난다. 제1음절이 중성 모음인 ‘ㅣ’일 때는 어간의 제2음절이 음성 모음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양성 모음인 ‘ㅛ’가 나타난 ‘시므-’도 보인다. 19세기부터 자음 어미와 모음 어미 앞에 ‘심-’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예) 길다: ‘길-’은 15세기에는 ‘ㄴ-, ㄷ-, 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기-’로 나타난다.

예) 긴다: ‘긴-’은 자음 어미 앞에서는 ‘긴-’, 모음 어미 앞에서는 ‘길-’로 나타나 ‘긴-/길-’의 교체를 보였다. 이러한 교체 양상 또한 15세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예) ‘꼴프-’는 어미 ‘-아’와 결합하면 ‘ㅛ’가 탈락하여 ‘꼴파’로 나타난다.(‘고프다’) *‘꼴표’를 이형태로 제시했음.

예) 크다: 자음 어미 앞에서는 ‘크-’, 모음 어미 앞에서는 ‘크-’로 나타난다.

☞ ‘으’ 탈락의 경우에 한해 탈락된 이형태를 기술하지 않는다.

나) 체언의 경우

예) 나모: 자음 조사 앞에서는 ‘나모’, 모음 조사 앞에서는 ‘남’으로 나타난다.

예) 여우: 자음 조사 앞에서는 ‘여스’, 모음 조사 앞에서는 ‘열ㅇ’으로 나타난다.

예) 숲: 자음 조사 앞에서는 ‘숫’, 모음 조사 앞에서는 ‘슌’으로 나타난다.

예) 망울: 모음 또는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에는 ‘몽 올ㅎ’, 그 밖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나 단독으로 쓰일 때는 ‘몽 올’로 나타난다.

예) 숲: ‘숲’은 자음 조사 앞에서는 ‘ㅅ’, 모음 조사 앞에서는 ‘슌’으로 나타난다.

예) 숲: ‘슌’은 자음 조사 앞에서는 ‘슌’, 모음 조사 앞에서는 ‘슌’으로 나타난다.

7) 준말처럼 어원을 공유하는 현대어가 여럿 있을 때는 각각 해당 어형을 기준으로 기술한다.

예) ‘깨지다’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깨지-’는 ‘깨어지-’가 축약된 형태이다.

☞ ‘깨여디다’는 표제어 ‘깨어지다’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어원적으로 관련이 된 단어이므로 ‘관련어’에서 ‘깨어지다’를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 ‘나’와 ‘나이’

나	나이
‘나’의 옛말인 ‘나ㅎ’는 15세기부터 나타난다. ‘나ㅎ’은 모음 또는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는 ‘나ㅎ’, 그 밖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나 단독으로 쓰일 때는 ‘나’로 나타난다. 이후 ‘나ㅎ’과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나히’가 하나의 단어로 굳어지면서 19세기부터는 단독으로도 ‘나히’로 나타나면서 20세기까지 공존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대 국어에서는 ‘나ㅎ’의 ‘ㅎ’이 탈락	‘나이’의 옛말인 ‘나히’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나히’는 ‘나이’를 뜻하는 말인 ‘나ㅎ’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단어로 굳어지면서 19세기에 단독으로도 ‘나히’로 나타나게 되었다. 20세기까지 ‘나(나ㅎ)’가 쓰였으므로 이 둘이 공존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에 모음 사이에서 ‘ㅎ’이 탈락한 ‘나이’가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한 ‘나’를 ‘나이’의 준말로 처리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 위의 예와 마찬가지로 ‘나’에서는 ‘나이’를, ‘나이’에서는 ‘나’를 관련어로 제시한다.

- 8) 같은 세기에 기본형으로 볼 수 있는 어형이 여러 개 나타날 때는 그것을 모두 나열하면서 기술한다.

예) ‘같다’의 옛말인 ‘곶하다, 곶타다, 곶다’는 15세기부터 나타난다.(‘같다’)

다. 최초 출현형에 대한 어원적 설명

- 1) 최초 출현형을 제시할 때와 달리 이 이후로는 설명할 때 ‘세기별 용례’의 ‘표기’에 제시된 형태를 사용한다.

예) ‘들뜨다’의 옛말인 ‘들쁘다’는 16세기부터 나타난다. ‘들쁘-’는 “뚫다”를 뜻하는 ‘들-’과 “사이가 벌어지다”를 뜻하는 ‘쁘-’가 결합한 것이다. 근대 국어 시기에 어두 자음군이 사라지고 된소리로 바뀌면서 ‘쁘-’의 초성 역시 ‘ㅅ-’의 된소리로 바뀌고, ‘들쁘-’의 종성 ‘ㅃ’에서 ‘ㅈ’이 탈락함에 따라 17세기에는 ‘들뜨-’로 나타난다. 20세기 이후 ‘ㅈ’을 ‘ㅊ’으로 적게 되는 경향에 따라 ‘들뜨-’가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18세기의 ‘들뜨-’는 ‘들쁘-’의 된소리 표기 ‘ㅃ’을 ‘ㅈ’으로 바꾼 것이다. 같은 시기의 ‘들뜨-’는 ‘들뜨-’ 혹은 ‘들쁘-’의 제2음절 초성을 예사소리 ‘ㄷ’으로 표기한 것이다.(‘들뜨다’)

- 가) 단, 문헌에 나타나는 어형에 대한 쓰임이 아니라 표제어 자체에 대한 정보일 경우에는 ‘-다’형을 제시한다.

예) ‘쑤구다’의 옛말인 ‘쑤고다’는 15세기부터 나타난다. 근대 국어 시기에 양성 모음 ‘고’가 음성 모음 ‘구’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20세기 이후 ‘쑤구-’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쑤구다’는 19세기까지 일부의 예를 제외하면 대부분 ‘쑤다’와 마찬가지로 자동사로 쓰였으나 현대 국어의 ‘쑤구다’는 타동사로 쓰이고 ‘쑤구치다’가 주로 자동사로 쓰인다.(‘쑤구다’)

- 2) 복합어나 파생어의 경우 형태적 구성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기술한다.

‘A’는 “B”를 뜻하는/뜻인 ‘C’와 “D”를 뜻하는/뜻인 ‘E’가 결합한 것이다.
‘A’는 “B”를 뜻하는/의 뜻인 ‘C’와 ‘D’가 결합한 ‘E’에 “F”를 뜻하는/뜻인 ‘G’가 결합한 것이다.

예) ‘꾸지람하다’의 옛말인 ‘꾸지람하다’는 18세기부터 나타난다. ‘꾸지람하-’는 “꾸지람”을 뜻하는 명사 ‘꾸지람’과 현대어 ‘하다’로 이어지는 ‘-하-’가 결합한 것이다.(‘꾸지람하다’)

예) ‘들어켜다’의 옛말인 ‘드리혀다’는 15세기부터 나타난다. ‘드리혀다’는 “들어가다” 혹은 “들어오다”를 뜻하는 동사 ‘들-’과 접미사 ‘-이-’가 결합한 ‘드리-’에 “당기다”를 뜻하는 동사 ‘혀-’가 결합한 것이다. 한편 ‘드리-’와 동사 ‘혀-’에서 발달한 강세 접미사 ‘-혀-’가 결합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들어켜다’)

예) ‘기여가다’의 옛말인 ‘괴여가다’는 15세기부터 나타난다. ‘괴여가-’는 “기다”를 뜻하는 ‘괴-’와 반모음 ‘ㅣ’[ɿ] 뒤에서 어미 ‘-어’를 소리대로 표기한 ‘-여’가 결합한 ‘괴여’에 동사 ‘가-’가 결합한 것이다.(‘기여가다’)

예) ‘막난이’는 “바로 지금”을 뜻하는 ‘막’과 “태어나다”를 뜻하는 동사 ‘나-’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한 ‘막난’에 의존 명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막나니’)

- 가) ‘C’, ‘E’, ‘G’을 제시할 때 선대형으로부터의 변화 과정을 기술하지 않고 형태적 구성을 분석할 때 나오는 형태를 제시한다.

예) ‘쓰어가-’는 끝을 뜻하는 동사 ‘그스-’에서 변화한 ‘쓰으-’와 어미 ‘-어’가 결합한 ‘쓰어’에 동사 ‘가-’가 결합한 것이다. (X)

→ ‘쓰어가-’는 “끝다”를 뜻하는 동사 ‘쓰으-’와 어미 ‘-어’가 결합한 ‘쓰어’에 동사 어간 ‘가-’가 결합한 것이다. ‘쓰으-’는 동사 ‘그스-’에서 변화한 것이다. (O) (‘끌어가다’)

☞ 선대형으로부터의 변화 과정은 필요하면 형태적 구성 분석 뒤에 간단히 기술할 수도 있다. 또한, ‘관련어’에 해당 표제어를 제시한다. 위의 예 ‘끌어가다’에서는 ‘끝다’를 ‘관련어’에 제시한다.

나) 기본형이 아닌 소리대로 적는 표기로 나타나는 경우는 후대형 기술을 위해 “‘A’를 소리대로 표기한 ‘B’”처럼 기본형으로부터의 변화를 추가 기술한다.

예) ‘근없-’은 “끝”을 뜻하는 명사 ‘P’를 소리대로 표기한 ‘근’과 형용사 ‘없-’이 결합한 것이다. 근대 국어 시기에 “P/근”의 제1음절 초성 ‘ㄱ’이 된소리화된 ‘ㅈ’으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말음 ‘ㅌ’을 소리나는 대로 ‘ㅅ’으로 적은 ‘ㅅ’이 나타나는 것처럼, ‘근없-’도 이러한 변화를 겪어 18세기에 ‘쑈없-’이 나타난다. (‘끝없다’)

다) 관형사형 어미 ‘-은, -을’,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예) ‘관술’은 “진이 많음”을 뜻하는 형용사 ‘관-’과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한 ‘관’에 “소나무”를 뜻하는 명사 ‘술’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다. (‘관술’)

예) ‘작은아버지’는 ‘작은’과 ‘아버지’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다. 이때, ‘작은’은 형용사 ‘작-’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한 것이다. (‘작은아버지’)

예) ‘눈病’은 ‘눈’과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눈’에 한자어 ‘病(병)’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다. (‘눈병’)

라) 형태 분석 정보를 분석할 때 대상 표제어의 출현 시기를 고려하여 기술 방식을 선택한다.

☞ ‘끝내다’는 ‘끝+내다’로 기술할 수도 있고 ‘끝나+이다’로 기술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나다’, ‘내다’는 15세기부터 나오지만 ‘끝나다’는 18세기, ‘끝내다’는 19세기에 나온다. 이를 고려하여 ‘끝+내다’로 기술하도록 한다.

3)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복합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우리말샘》에서 제시된 원어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1) 사전의 오류가 확실하면 ‘언어 내적 정보’에서 기술하고 원어를 수정해야 한다는 메모를 남긴다. (2) 오류인지 불확실하면 ‘언어 내적 정보’가 아닌 ‘기타 어원 설명’에서 기술한다.

예) ‘끝장’의 옛말인 ‘쑈장’은 19세기부터 나타난다. ‘쑈장’은 “끝”을 뜻하는 명사 ‘쑈’와 “상황” 또는 “장면”을 뜻하는 한자어 ‘場(장)’이 결합한 것이다. (‘끝장’)

→ ‘끝장’의 옛말인 ‘쑈장’은 19세기부터 나타난다. ‘쑈장’은 “끝”을 뜻하는 명사 ‘쑈’와 ‘장’이 결합한 것이다.

☞ 집필 예시의 ‘끝장’ 참조

☞ 《우리말샘》에는 ‘끝장’이 고유어로 처리되어 있다. 이때 원어를 수정할지, 기타 의견으로 제시할지 집필자가 판단을 해야 한다. ‘끝장’에서 ‘장’을 ‘場’으로 볼 근거가 없어 지침에서는 원어를 수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지 않고 ‘기타 어원 설명’에서 기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예를 제시하였다.

나) 한글 표기만 문헌에 나타나는 경우: 한자어 ‘B’를 한글로 표기한 ‘C’

예) ‘광패하다’의 옛말인 ‘광패ᄃᆞ다’는 18세기부터 나타난다. ‘광패ᄃᆞ다’는 한자어 ‘狂悖(광패)’를 한글로 표기한 ‘광패’에 현대어 ‘하다’로 이어지는 ‘-ᄃᆞ-’가 결합한 것이다. (‘광패하다’)

예) ‘깃대’의 옛말인 ‘괴스대’는 18세기부터 나타난다. ‘괴스대’는 한자어 ‘旗(기)’를 한글로 표기한 ‘괴’에 관형격 조사 ‘스’이 결합한 “k”에 “막대”를 뜻하는 명사 ‘대’가 결합한 것이다. (‘깃대’)

예) ‘글귀’의 옛말인 ‘긋구’는 16세기부터 나타난다. ‘긋구’는 명사 ‘글’과 관형격 조사 ‘스’이 결합한 “G”에 한자어 ‘句(구)’를 한글로 표기한 ‘구’가 결합한 것인데, ‘스’ 앞에서 ‘르’이 탈락하여 나타난 형태이다. (‘글귀’)

다) 한자 표기 또는 한글 표기가 문헌에 같이 나타나는 경우: ‘A’는 한자어 ‘B’에 ‘C’가 결합한 것이다.

예) ‘별세하다’는 18세기에 한자로 표기된 ‘別世ᄃᆞ다’로 나타나고 19세기부터 한글로 표기된 ‘별세ᄃᆞ다’로 나타난다. ‘別世ᄃᆞ-’는 한자어 ‘別世(별세)’에 현대어 ‘하다’로 이어지는 ‘-ᄃᆞ-’가 결합한 것이다. (‘별세하다’)

예) ‘문틈’은 17세기에 한자로 표기된 ‘門틈’으로 나타나고 18세기부터 한글로 표기된 ‘문틈’이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門틈’은 한자어 ‘門(문)’에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를 뜻하는 명사 ‘틈’이 결합한 것이다. (‘문틈’)

예) ‘기망하다’는 18세기부터 한글로 표기된 ‘괴망ᄃᆞ다’로 나타나고 20세기부터 한자로 표기된 ‘欺罔ᄃᆞ다’도 나타난다. ‘괴망ᄃᆞ-’는 한자어 ‘欺罔(기망)’의 옛 표기인 ‘괴망’에 현대어 ‘하다’로 이어지는 ‘-ᄃᆞ-’가 결합한 것이다. (‘기망하다’)

예) ‘진맥하다’는 18세기에서부터 한글로 표기된 ‘진뵝ᄃᆞ다’나 한자로 표기된 ‘診脈ᄃᆞ다’가 나타난다. ‘진뵝ᄃᆞ-’는 한자어 ‘診脈(진맥)’을 한글로 표기한 ‘진뵝’에 현대어 ‘하다’로 이어지는 ‘-ᄃᆞ-’가 결합한 것이다. (‘진맥하다’)

☞ 한자 표기와 한글 표기가 문헌에 모두 나타나면 앞선 세기 문헌에서 나타나는 것을 기준으로 기술하고 같은 세기에 나타나면 한글 표기를 기준으로 기술한다. 위의 예에서 한자 표기가 앞선 세기에 나타나는 ‘別世ᄃᆞ-’, ‘門틈’은 한자 표기를 기준으로 기술했고, 한글 표기가 앞선 세기에 나타나는 ‘괴망ᄃᆞ-’와 한자와 한글 표기가 같은 세기에 나타나는 ‘진뵝ᄃᆞ-’는 한글 표기를 기준으로 기술했다.

4) 형태적 구성을 이루는 각 성분을 제시할 때 그 성분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간략한 풀이나 문법 정보를 제시한다.

가) 현대어와 형태가 동일할 경우에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때 《우리말샘》의 풀이를 참고할 수 있다.

예) ‘말재’는 “끝”을 뜻하는 한자어 ‘末(말)’을 한글로 표기한 ‘말’에 “차례”를 뜻하는 접미사 ‘-재’가 결합한 것이다. (‘말재’)

예) ‘막난이’는 “바로 지금”을 뜻하는 ‘막’과 “태어나다”를 뜻하는 동사 ‘나-’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한 ‘막난’에 의존 명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망나니’)

예) ‘검딤영’은 “검다”는 뜻인 ‘검-’과 ‘-딤영’이 결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딤영’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검댕’)

예) “k발”은 한자어 ‘旗(기)’를 한글로 표기한 ‘괴’와 관형격 조사 ‘스’이 결합한 “k”에 “물체의 가락”을 뜻하는 말로 추정되는 ‘발’이 결합한 것이다. (‘깃발’)

나) 다만, 현대어와 형태가 동일하고, 표제어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거나, 동음어가 없어서 무슨 의미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 설명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아래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

- ~을 뜻하는 ‘A’ / ~라는 뜻인 ‘A’ / 현대어 ‘A’로 이어지는 ‘B’
-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 ‘A’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나
- 현대어 ‘하다’로 이어지는 ‘-ㅎ-’
- 동사/형용사 ‘A’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한 ‘B’에
- ~을 뜻하는 접미사/접두사 ‘A’
- ~을 뜻하는 의태어/의성어 부사/어근 ‘A’
- 사동 접미사 ‘-이-’/‘-히-’/‘-오-’, 형용사 파생 접미사 ‘-ㅁ-’, 부사 파생 접미사 ‘-이’
- 관형격 조사 ‘ㅅ’, 보조 용언 ‘디-’, 연결 어미 ‘-아’, 연결 어미 ‘-어’, 의존 명사 ‘이’

예) ‘勤儉하다’는 한자어 ‘勤儉(근검)’에 현대어 ‘하다’로 이어지는 ‘-ㅎ-’가 결합한 것이다. (‘근검하다’)

예) ‘가잠나룻’은 ‘가잠’과 ‘나룻’이 결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가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가잠나룻’)

예) ‘귀뚜라미’의 옛말인 ‘꺄들와미’는 15세기부터 나타난다. ‘꺄들와미’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꺄뚜라미’)

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나 18세기에 ‘불히’의 마지막 음절 ‘히’가 탈락하여 ‘귀스불’로 나타난다. (‘꺄불’)

예) ‘끔적끔적’은 끔적을 뜻하는 의태어 부사 ‘끔적’이 반복된 것이다. (‘끔적끔적’)

5) 최초 출현 형태가 한자와 결합한 것일 때는 설명 부분에 ‘한자(현대 한자음)’의 형식으로 제시한다.

예) ‘늪病’은 ‘늪’과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늪’과 한자어 ‘病(병)’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다. (‘늪병’)

6) 다른 언어로부터 온 말은 “‘A’는 ○○어로부터 들어온 말이다.”라고만 밝힌다.

예) ‘빋’은 몽골어로부터 들어온 말이다. (‘빋’)

☞ 다른 언어에서의 용법이나 형태, 의미 변화나 서구어가 일본어를 통해 간접 차용된 경우, 불교 용어의 변화나 의미 등과 같은 자세한 설명은 ‘언어 외적 정보’에서 밝힌다.

7) 관련어로 어원적 설명을 대신할 수 있으면 ‘관련어’에 해당 표제어를 제시하고 자세한 어원적 설명은 하지 않는다.

예) ‘췌미’는 ~~설어나 끈 따위를 구멍이나 틈의 한쪽에 넣어 다른 쪽으로 뱀을 뜻하는 동사 어근 ‘뻬-’에서 변화한 ‘췌-’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췌음’에서 변한~~ ‘췌’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 ‘췌미’는 현대어 ‘꺄다’로 이어지는 ‘췌-’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췌음’에서 변한 ‘췌’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꺄미’)

☞ ‘관련어’에 ‘꺄다’를 제시하는 것으로 ‘췌-’에 대한 어원적 설명을 대신한다.

예) ‘디새집’은 “기와”를 뜻하는 ‘디새’와 ‘집’이 결합한 것이다. (‘기와집’)

☞ ‘디새>기와’의 변화를 설명하지 않고 ‘관련어’에 ‘기와’를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즉 ‘디새’로부터 ‘기와’로 이어지는 변화 과정은 ‘기와’에서 설명하므로 ‘디새집’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디새집’에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라. 역사적 변화 단계 설명

1) 최초 출현형 이후 현대어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설명한다.

가) 역사적 변화를 설명할 때 다른 복합어의 성분으로 나타나는 예는 원칙적으로 설명에 이용하지 않는다. 다만, 역사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예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명에 이용할 수 있다.

예외 예) 단독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16세기부터지만, ‘빼’가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복합어를 이루는 구성이 15세기부터 확인된다.(‘깨’)

2) ‘세기별 용례’에 제시된 이표기 및 변화형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20세기 이후에 차용된 외래어에서 다양한 이표기가 나타나지만 특별히 기술한 내용이 없는 것은 ‘등’을 사용해 문헌에 나타난 이형태를 간략하게 제시할 수도 있다.

예) ‘초콜레트, 초코레-트, 쏘코렛, 초코렐, 초콜렛, 초콜릿’ 등 다양한 표기가 나타난다.

3) 문헌에 나타난 순서대로 설명을 하되 변화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거나 예외적인 표기는 시기를 밝히지 않고 뭉뚱그려 설명할 수 있다.

예) ‘벗어나다’의 옛발인 ‘버서나다’는 15세기부터 나타난다. ‘버서나-’는 몸에서 떼어 낸다는 뜻인 ‘벗-’과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한 ‘버서’에 밖으로 나온다는 뜻인 ‘나-’가 결합한 것이다. 19세기에 나타나는 ‘벗서나-’는 ‘버서나-’의 중첩 표기이며, ‘버서나-’는 근대 국어 시기에 ‘서’와 ‘서’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어 표기가 섞여 쓰인 것이다. 또한 19세기에 나타나는 ‘버서느-’와 ‘버서느-’는 ‘·’ 소리가 없어졌지만 ‘·’와 ‘ㅏ’가 표기에서 섞여 쓰이면서 나타난 표기이다. 현대 맞춤법에서 원형을 밝혀 적도록 함에 따라 ‘벗어나다’로 표기하게 되었다.(‘벗어나다’)

4) 중간에 어형이 교체된 경우에는 그에 맞춰 기술한다.

예) ‘광저기’는 16세기부터 ‘광장이’로 나타난다. 16세기부터 종성의 ‘ㅇ’이 ‘ㅇ’으로 표기되면서 ‘광장이’도 표기가 변화했을 것이나 17세기에서 ‘광장이’가 확인된다. 19세기까지 ‘광장이’만 나타나다가 20세기에 ‘광저기’가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광장이’가 ‘광저기’로 바뀐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광저기’)

5) 언어 변화 시기와 문헌에서 출현 시기가 다른 경우는 언어 변화 시기를 설명하고 문헌에서 출현한 시기를 이어 설명한다.

예) 19세기에 자음 뒤에서 모음 ‘ㄴ’이 ‘ㄷ’로 바뀌는 현상에 따라 20세기에 ‘기망’이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기망’)

예) 18세기 이후 나타난 ‘·’가 ‘ㅏ’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즈’가 ‘자’로 변하였고, ‘글즈’의 ‘즈’도 이러한 변화를 겪어 19세기에 ‘글자’로 나타나게 되었다. (‘글자’)

6) 방언에 대한 기술은 역사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기술하며, 방언의 영향이 분명한 경우에만 ‘방언의 영향’이라고 기술한다.

예) 16세기에는 ‘구령이’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구령이’가 ‘구령이’의 단순한 오기인지 방언형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구령이’)

예) 이 ‘숯’은 근대 국어 시기에 볼 수 있는 ‘술’의 다른 형태로 현재 몇몇 방언에 남아 있다. (‘술’)

예) 16세기에는 ‘갓가브리니’처럼 규칙 변화를 하는 ‘갓갑-’이 일부 발견되기도 하나 방언의 영향으로 보인다. (‘가

깎다')

- 7) 《우리말샘》을 비롯하여 사전에 제시된 공시적인 뜻풀이와 역사적 변화가 다를 때는 설명을 덧붙일 수 있다.

예) 현대 국어에서 '끼다'는 '끼우다'의 준말로 처리되고 있는데, 중세 국어에 나타나는 '뻬-'와 근대 국어에 나타나는 '찌-'를 고려하면, 현대 국어의 '끼우다'는 동사 '끼-'에 접미사 '-이-'와 '-우-'가 결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끼다' 010)

마. 의미 변화에 대한 설명

- 1) 현대어와 의미가 다르거나 옛말에서 현저하게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경우 의미 변화를 기술하고 '세기별 용례'에서 **용례도 각각 제시한다.**

예) '어리다'는 15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어리-'는 15세기 국어와 똑같은 형태가 현재까지 쓰이고 있으나 의미는 변하였다. 즉 15세기에는 "어리석다"의 의미로 쓰인 예만 나타나는데 16세기 이후에는 "나이가 적다"의 의미로 쓰인 예도 나타난다. 이 두 의미로 쓰인 예는 19세기까지 보인다. 현재의 '어리-'는 "어리석다"의 의미로는 쓰이지 않고 "나이가 어리다"의 의미로만 쓰인다.('어리다')

☞ 집필 예시의 '어리다' 참조

☞ 다의어의 개별 의항(sense)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원칙적으로 기술하지 않는다.

바. 변화 설명 마무리

- 1) 현대어와 동일한 표기를 제시하면 "현재까지 이어진다."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예) 제3음절의 'ㄱ'이 'ㄱ'로 변하고 'ㅅ'이 'ㅈ'으로 변하여 '그저께'가 되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그저께')

예) '꿀꿀'의 옛말인 '쑈쑈'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근대 국어 후기에 'ㅅ'을 'ㅈ'으로 적게 되는 경향에 따라, 19세기에 '꿀꿀'이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꿀꿀')

- 2) 현대어와 동일한 표기가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20세기에 'A'가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 집필 대상이 되는 단어는 모두 20세기 문헌에서 확인되어 사전에 올라간 것이므로 대부분 옛 사전의 예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문헌에서 예를 발견할 수 없을 때는 이처럼 기술하도록 한 것이다. 아래는 예시로 만든 것이다.

예) '밤기운'의 옛말인 '밤기운'은 18세기부터 나타난다. '밤기운'은 "어두한 동안"을 뜻하는 '밤'과 현대어 '기운'으로 이어지는 '기운'이 결합한 것이다. 20세기에 '밤기운'이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밤기운')

예) 19세기에 'ㅅ'을 'ㅈ'으로 적게 되는 경향으로 인해, 그리고 'ㄱ'이 'ㄴ'으로 변하면서 '깨묵'이 확인된다. 20세기에 'ㅅ'이 들어간 '꺄묵'이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꺄묵')

- 3) 현대와 동일한 표기가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으면서 맞춤법 규정에 의해 표기가 정리된 경우 그에 맞는 설명을 덧붙인다.

• 현대 맞춤법에서 'A'(예, '저')는 'B'(예, '저')로 적기로 함에 따라 'B'로 표기하게 되었다.

- 현대 맞춤법에서 원형을 밝혀 적도록 함에 따라 ‘A’로 표기하게 되었다.
- 현대 맞춤법에서 소리대로 적도록 함에 따라 ‘A’로 표기하게 되었다.
- 현대 맞춤법에서 된소리는 같은 글자를 반복하여 적도록 함에 따라 ‘A’로 표기하게 되었다.
- 현대 맞춤법에서 부사 ‘-이’와 ‘-히’는 구별하여 적도록 함에 따라 ‘A’로 표기하게 되었다.
- 현대 맞춤법에서 한자어는 두음 이외에는 본음대로 적도록 함에 따라 ‘A’로 표기하게 되었다.

☞ 맞춤법은 1912년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부터 1988년 한글 맞춤법까지 몇 차례 정해졌기 때문에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처럼 특정 맞춤법을 언급하려면 맞춤법 규정들을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현대 맞춤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예) 20세기 전반기까지 혼용되어 쓰이던 ‘그전’과 ‘그젠’은 현대 맞춤법에서 ‘저’는 ‘저’로 적기로 함에 따라 ‘그전’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그젠’)

예) 현대 맞춤법에서 원형을 밝혀 적도록 함에 따라 ‘한결같이’로 표기하게 되었다. (‘한결같이’)

예) 현대 맞춤법에서 된소리는 같은 글자를 반복하여 적도록 함에 따라 ‘걸러뛰다’로 표기하게 되었다. (‘걸러뛰다’)

예) 현대 맞춤법에서 된소리는 같은 글자를 반복하여 적도록 함에 따라 ‘깜짝’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깜짝’)

가) 다만, 최초의 문헌 예가 맞춤법에 따른 예이고 중간 시기에 표기가 일시적인 혼동을 보인 것이면 설명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그적’은 15세기부터 나타난다. 19세기에 나타나는 ‘그적’은 근대 국어 시기에 ‘적’과 ‘적’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어 표기가 섞여 쓰이면서 나타난 것이다. ‘크적’과 ‘크적’은 현대 맞춤법에서 ‘저’는 ‘저’로 적기로 함에 따라 ‘크적’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그적’)

4) 20세기 전반기까지 여러 형태가 사용되면 “20세기까지 ‘A’, ‘B’, ‘C’ 등 여러 형태가 쓰였으나 ‘A’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예) 20세기까지 ‘ㅂ-’, ‘미-’, ‘무이-’ 등 여러 형태가 쓰였으나 ‘미다’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 (‘미다’)

예) 20세기까지 ‘두루막이’, ‘두루마기’, ‘두루매기’, ‘두루막’ 등 여러 형태가 쓰였으나 ‘두루마기’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 (‘두루마기’)

5) 어느 한 표기로 굳어진 원인이나 시기가 명확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예) 1936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서 표준어로 선택하여 현재까지 이어진다.

예) 1988년 <표준어 규정>에서 새로 표준어로 인정하여 현재까지 이어진다.

예) 1957년에 완간된 《큰사전》에서 표준어로 올려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사. 특수한 사례들의 기술

1) 쌍형 어간

가) 현대어에 쌍형 어간의 어느 한쪽만이 남은 경우: 해당 표제어의 ‘언어 내적 정보’에서 쌍형을 모두 기술한다.

☞ 집필 예시의 '벗다' 참조

나) 쌍형이 《우리말샘》에 둘 다 표제어로 등재된 경우: 같은 의미로 사용된 시기에는 쌍형 모두에서 같이 기술하고 의미 분화된 이후에는 각 표제어에 관한 것만 기술한다.

예)

고비	굽이
‘고비’의 옛말인 ‘고비’는 15세기부터 나타난다. 고비’는 형용사 ‘굽-’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의’가 결합한 것이다. 16세기 이후 나타난 제2음절 이하의 ‘ㆍ’가 ‘ㅡ’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ㄱ’도 ‘ㄴ’로 변하면서 17세기에 ‘고’가 되었다. 이후 19세기에 자음 뒤에서 모음 ‘ㄴ’이 ‘ㄷ’로 바뀌는 현상에 따라 ‘고’ 또한 20세기에 ‘고비’로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음상의 대조를 보이는 ‘구’와 함께 구체적인 의미로 쓰여 ‘물근 古流 軒 고비’ 《1481 두 시언해 초간본 7:3ㄴ》와 같이 나타난다. 19세기까지는 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20세기 이후 현재와 같이 “절정을 넘긴 상태”를 뜻하는 추상적인 의미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굽이’의 옛말인 ‘구’는 15세기부터 나타난다. ‘구’는 형용사 ‘굽-’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의’가 결합한 것이다. 19세기에 자음 뒤에서 모음 ‘ㄴ’이 ‘ㄷ’로 바뀌는 현상에 따라 ‘구’가 되었다. 그리하여 19세기에 ‘구비’로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 20세기에 ‘굽이’로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음상의 대조를 보이는 ‘고비’와 함께 사용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고비’는 “절정을 넘긴 상태”를 의미하는 추상적인 의미로 변하고 ‘구’는 구체적인 의미를 유지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고비’와 ‘굽이’가 나뉘었다.

2) 어형 분화

가) 어원적으로 같은 형태였으나 후대에 별개의 단어로 형태가 달리 분화하여 《우리말샘》에서 별개의 표제어로 오른 것은 현대어의 뜻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용례를 제시하며 두 표제어에서 과거에 같은 단어였음을 밝힌다.

예) 가르치다/가리키다

예)

	가르치다	가리키다
언어 내적 정보	‘가르치다’의 옛말인 ‘古르치다’는 15세기부터 나타난다. 16세기에는 제2음절 이하의 ‘ㆍ’가 ‘ㅡ’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古르치-’가 나타났으나 간혹 ‘ㄷ’로 변한 ‘古라치-’도 나타났다. 18세기에는 제1음절의 ‘ㆍ’가 ‘ㄷ’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가르치-’, ‘가라치-’로 나타났고, 20세기에 들어 점차 ‘가르치-’로 형태가 굳어졌다. 16세기 이후 나타나는 ‘굴으치-’는 ‘古르치-’를, ‘굴으치-’는 ‘古르치-’를 분철 표기한 것이며, ‘古르티-’, ‘古르티-’는 ‘치’를 구개음화를 겪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티’로 과도 교정한 것이다. 20세기까지 ‘古르치-’, ‘굴으치-’, ‘가르치-’ 등 여러 형태가 쓰였다.	‘가리키다’의 옛말인 ‘古리키다’는 15세기부터 나타난다. 16세기에는 제2음절 이하의 ‘ㆍ’가 ‘ㅡ’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古리키-’가 나타났으나 이를 분철 표기한 ‘굴으치-’도 나타났다. 18세기에 나타나는 ‘古르티-’는 ‘치’를 구개음화를 겪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티’로 과도 교정한 것이다. 18세기 이후 나타난 제1음절의 ‘ㆍ’가 ‘ㄷ’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19세기에 ‘가르치-’가 나타난다. 20세기에 나타나는 ‘가리키-’는 ‘가르치-’의 제2음절 ‘ㅡ’가 ‘ㄷ’로 바뀐 형태이며, ‘가리키-’는 ‘가르치-’의 제3음절 ‘치’를 구개음화를 겪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키’로 과도 교정하여 나타난 형태이다.

	‘ㄱ르치다’는 현대어의 “가리키다”와 “가르치다”의 뜻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20세기까지 지속되었으나 1936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서 “가르치다”의 뜻으로 ‘가르치다’를 표준어로 선택하여 현재까지 이어진다.	‘ㄱ르치다’는 현대어의 “가리키다”와 “가르치다”의 뜻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20세기까지 지속되었으나 1936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서 “가리키다”의 뜻으로 ‘가리키다’를 표준어로 선택하여 현재까지 이어진다.
언어 외적 정보	“가리키다”와 “가르치다”의 의미를 포괄하던 ‘ㄱ르치다’ 등이 1930년대에 들어와 전자의 뜻은 ‘가리키다’가, 후자의 뜻은 ‘가르치다’가 갖는 것으로 정리된 것은 언어정책적 문제 때문이었다. 1930년 6월 17일 자 <조선일보> 기사에 “‘가르치’는 敎導(교도)한다는 말이요 ‘가리치’는 指示(지시)한다는 말이니 이도 가려 써야 합니다.”라고 나오는 것을 보면, 당시 한 어형에 두 가지 의미가 사용된다는 것이 불편했음을 알 수 있다.	“가리키다”와 “가르치다”의 의미를 포괄하던 ‘ㄱ르치다’ 등이 1930년대에 들어와 전자의 뜻은 ‘가리키다’가, 후자의 뜻은 ‘가르치다’가 갖는 것으로 정리된 것은 언어정책적 문제 때문이었다. 1930년 6월 17일 자 <조선일보> 기사에 “‘가르치’는 敎導(교도)한다는 말이요 ‘가리치’는 指示(지시)한다는 말이니 이도 가려 써야 합니다.”라고 나오는 것을 보면, 당시 한 어형에 두 가지 의미가 사용된다는 것이 불편했음을 알 수 있다.

그예/기어이

	그예	기어이
언어 내적 정보	‘그예’의 옛말인 ‘그여이’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그예이’는 한자어 ‘期於(기어)’의 옛 표기인 ‘긔어’에 부사 파생 접미사 ‘-히’가 결합한 ‘긔어히’에서 온 것이다. ‘긔어히’에서 제1음절의 반모음 ‘ㅣ’[j]가 제2음절에서 발음이 나는 것으로 바뀌고 제3음절의 ‘ㅎ’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탈락하여 ‘그여이’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반모음이 더 들어간 ‘그예이’도 19세기에 나타난다. 20세기에 ‘그여이’가 축약되었거나 또는 ‘그예이’에서 마지막 음절 ‘이’가 탈락한 것으로 보이는 ‘그예’가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기어이’의 옛말인 ‘긔어히’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긔어히’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어 ‘期於(기어)’의 옛 표기인 ‘긔어’에 부사 파생 접미사 ‘-히’가 결합한 것이다. ‘그여히’는 ‘긔어히’에서 제1음절의 반모음 ‘ㅣ’[j]가 제2음절에서 표기되기도 했던 영향으로 보이고, ‘긔여히’는 제1음절과 제2음절에서 모두 반모음 표기가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제3음절의 ‘ㅎ’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탈락하고, 자음 뒤에서 모음 ‘ㅣ’가 ‘ㅣ’로 바뀌는 현상에 따라 20세기에 ‘기어이’가 나타나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기타 어원 설명	‘그예’와 현대어 ‘기어이’는 어원이 같다. ‘기어이’는 ‘期’의 한자음의 변화 ‘긔>기’를 반영한 것이고 ‘그예’는 순우리말로 인식된 후 변화한 형태이다.	‘그예’와 현대어 ‘기어이’는 어원이 같다. ‘기어이’는 ‘期’의 한자음의 변화 ‘긔>기’를 반영한 것이고 ‘그예’는 순우리말로 인식된 후 변화한 형태이다.

아. 언어 내적 정보를 기술할 때 주의할 사항

1) 문헌에 나타난 예로만 설명한다.

예) ‘물약’은 19세기부터 ‘물약’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물약’은 ‘물’과 한자어 ‘藥(약)’이 결합한 것이다. 18세기의 ‘ㅁ’ 아래의 ‘ㄴ’이 ‘ㄱ’로 바뀌는 현상(원순모음화)에 따라 ‘물’이 ‘물’로 바뀌었으므로 19세기 이전에 ‘물약’의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지만 예가 확인되지 않는다. (‘물약’)

☞ 문증되지 않는 어형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는다.

가) 다만,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문헌에 나타나지 않은 예를 설명할 수 있다.

예) ‘관디’의 옛말인 ‘관디’는 16세기부터 나타난다. 16세기 이후 나타난 제2음절 이하의 ‘·’가 ‘ㅡ’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디’도 ‘디’로 변하면서 ‘관디’는 *‘관디’가 되었을 것이나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근대 국어 후기에 이중 모음 ‘디’가 ‘디’로 변화하여 20세기에 ‘관디’로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관디’)

2) 합성어나 파생어의 경우 그 구성 성분 각각의 어원 관련 정보는 기술하지 않고 구성 성분에 대응하는 해당 표제어에서 기술한다.

예) ‘물방아’의 옛말 ‘물방하’는 18세기부터 나타난다. ‘물방하’는 ‘물’과 현대어 ‘방아’로 이어지는 ‘방하’가 결합한 것이다. ‘방하’는 본래 ‘방하’의 형태로 쓰였으나 ‘하’가 소멸하여 ‘방하’의 형태가 되었고, 이후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하’가 탈락하여 현재의 ‘물방아’가 되었다. 19세기에 ‘물방아’란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ㅏ’와 ‘ㅑ’의 표기가 섞여 쓰이면서 나타난 것이다. ‘물’의 옛말인 ‘물’과 ‘방아’의 옛말인 ‘방하, 방하’ 등이 결합한 어형은 확인되지 않는다. (‘물방아’)

가) 구성 성분의 어원 관련 정보를 밝혀야 하나 구성 성분이 《우리말샘》에 따로 오른 표제어가 아닌 경우에는 적절한 자리(‘기타 어원 설명’ 등)에서 구성 성분의 어원 관련 정보를 밝힐 수 있다.

예) 가시아비

기타 어원 설명	‘가시’의 어원을 명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부부의 낮춤말인 ‘가시버시’의 ‘가시’와, “장인”, “장모”를 뜻하는 ‘가시아비’, ‘가시어미’의 ‘가시’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가시아비’와 ‘가시어미’의 ‘가시’는 ‘갓’(여자, 아내)에 관형격 조사 ‘이’가 결합된 어형인 ‘가시’가 변화를 겪은 ‘가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

3)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으나 미등재, 방언 등의 이유로 별도로 어원이 집필되지 않는 단어의 어휘 역사 정보는 기술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언어 내적 정보’가 아니라 ‘기타 어원 설명’에서 제시한다.

예) 단추: ‘돌마기’는 현대로 이어지지 않고 어원적으로도 무관하므로 ‘기타 어원 설명’에서 기술

기타 어원 설명	‘단초’와 같은 의미인 ‘돌마기(紐子)’《1517 사성통해 48ㄴ》은 16세기부터 보인다.
----------------	--

예) 깨다

기타 어원 설명	15세기에는 “깨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로 ‘빼혀다/빼혀다’, ‘빼티다’도 사용되었다. 이들은 ‘빼-’에 ‘-혀/혀-’ 및 ‘-티-’가 결합한 단어로 ‘빼다’와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며 사용되었다.
----------------	---

가) 별개의 표제어로 《우리말샘》에 올라 있는 항목은 해당 표제어에서 어원 정보를 기술하고

‘관련어’에 해당 표제어를 제시한다.

예) ‘단오’는 18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단오’는 한자어 ‘端午(단오)’를 한글로 표기한 것이다. ‘단오(端午)’의 고유어인 ‘수릿날’ 역시 15세기부터 나타난다(수릿날) 저본 발 불근 자네(端午枚赤足者) 《1489 구급간어방 6:53ㄱ》. (‘단오’)

☞ ‘수릿날’은 별개의 표제어로 있으므로 ‘단오’에서 기술하지 않는다. 19세기 이전 문헌에 예가 있으므로 별도 집필 대상이 된다.

예) ‘옛날식 가옥에서, 마루와 방 사이의 문이나 부엌의 바깥문’을 뜻하는 ‘지게’ 또는 ‘지게문’도 있었다.

戶 지게 *又 房門 《1748 동문유해 상:35ㄴ》

房門 지게문 《1778 방언유석 2:20ㄱ》

지게=門 ㅅ만 뉘고 밤드도록 기다라니 《1876 가곡원류 40》 (‘방문’)

☞ ‘지게문’은 별개의 표제어로 있으므로 ‘방문’에서 기술하지 않는다. 19세기 이전 문헌에 예가 있으므로 별도 집필 대상이 된다.

- 4) 역사적 변화를 설명할 때 문헌에서의 인용 예를 제시하면서 설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예는 ‘세기별 용례’에서 제시해야 한다.

예) 16세기에 규칙 변화를 하는 ‘갓잡-’이 일부 발견되기도 하나(아라흔 ㅅ 나르라는 기 아로마 (갓가부라니) 또 무수물 가져 아로물 커들우마 ‘曰하리라’ 《1577 몽산범어언해 21ㄴ》), 이것은 방언의 영향으로 보인다.

→ 16세기에는 ‘갓가부라니’처럼 규칙 변화를 하는 ‘갓잡-’이 일부 발견되기도 하나 방언의 영향으로 보인다. (‘가잡다’)

- 가) 특수한 사례이거나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례에서 다른 예들이 있음을 밝힐 때는 어형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시할 수 있다.

예) 17세기에는 ‘먹’으로도 나온다. 근대 국어 시기에 나타난 모음 ‘ㅣ’나 반모음 ‘ㅣ’[j] 앞의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로 인해 ‘먹빛’의 ‘ㅊ’을 구개음화를 겪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ㅌ’으로 과도 교정하면서 ‘먹’과 같은 형태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런 예는 ‘겉(《ㄱ》)’, ‘팔(《ㅍ》)’ 등에서도 보인다. (‘먹빛’)

- 5) 용례를 제시할 때 용언 중 논항 구조가 변하는 경우는 이를 유의하여 제시하고 ‘언어 내적 설명’에 이와 관련된 기술을 덧붙인다.

예) 15세기에는 ‘갓잡-닌’처럼 동사에 결합하는 선어말 어미 ‘-느-’가 결합한 형태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갓잡-’은 자동사로도 사용되었다. (‘가잡다’)

예) ‘쫓구다’는 19세기까지 일부의 예를 제외하면 대부분 ‘쫓다’와 마찬가지로 자동사로 쓰였으나 현대 국어의 ‘쫓구다’는 타동사로 쓰이고 ‘쫓구치다’가 주로 자동사로 쓰인다. (‘쫓구다’)

- 6) 기술은 표기 위주로 한다. 음가의 변화는 설명하지 않는다.

☞ ‘역사정보’ 지침에서는 “‘ㄱ, ㅋ, ㆁ’ 등과 관련하여 변화를 설명할 때 15세기에는 이중 모음이 있으며 근대 국어 시기를 지나면서 표기는 같으나 발음은 다르다는 설명을 붙인다. 이때 추정되는 발음을 [aj]와 같이 한글 옆에 덧붙인다.”라고 되어 있으며 현재 그렇게 기술된 경우가 많다. 이번 작업에서는 표기 위주로 설명하므로 이중 모음이 단모음으로 변했다는 기술은 역사적 변화 설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하지 않는다.

- 7) 성조(혹은 방점)은 원칙적으로 기술하지 않으나 동음어 구별 등 역사적인 변화와 관련해서 설

명할 가치가 있으면 해당 단어의 성조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예) ‘밤’은 15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장음으로 발음되는 ‘밤’은 15세기에 글자 왼쪽 옆에 두 점을 찍는 ‘상성’으로 표시되었다. (‘밤’)

- 8) 언어 내적 정보는 원칙적으로 문단을 나누지 않고 기술한다. 다만, 기술 내용이 많을 때는 문단을 나눌 수 있다.

예) ‘수레’의 옛말인 ‘술위’는 15세기부터 나타난다. 16세기에 제2음절의 ‘ㄱ’이 비원순 모음인 ‘ㄴ’로 바뀌어 ‘술의’로 변하였다. 16세기에 나타나는 ‘수ړ’은 ‘술위’가 연철 표기된 것이다. 18세기에 제2음절의 ‘ㄴ’이 ‘ㄹ’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수레’가 되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17세기부터는 ‘수리’의 제2음절 ‘ㄴ’이 ‘ㄹ’로 표기된 ‘수리’도 나타난다. 18세기에 나타나는 ‘술ړ’은 ‘수ړ’을 중철 표기한 것이다.

8. 언어 외적 정보

- 1) 문화사적 정보, 유입 경로 등을 기술한다.

- 2) 외래어 혹은 귀화어의 경우 해당 단어가 온 언어에서의 정보를 기술한다.

☞ 외래어 혹은 귀화어의 경우 ‘언어 내적 정보’에서 “‘A’는 ○○어로부터 들어온 말이다.”라고만 밝히므로 여기서는 해당 단어가 온 언어에서의 정보를 기술하는 것이다.

예) ‘빋’은 쓴다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 ‘biči-’에 접미사 ‘-geči’가 붙어서 파생된 몽고어 ‘biči-geči’에서 온 차용어로 알려져 있다. 우리말에 차용되면서 문서를 관장하는 하급 관리라는 뜻으로 쓰였다. 이 말은 우리나라 문헌에서 ‘必關赤(필도적)’ 등으로 표기되었으며 ‘필도치, 빋차지’ 등으로 사전에 실려 있다. 이 말이 줄어 ‘빋’이 되고 다시 ‘빋’으로 변한 것으로 보고 있다.(‘빋’)

☞ ‘언어 내적 정보’ 지침 설명에서 “‘빋’은 몽골어로부터 들어온 말이다.”라는 예를 제시한 바 있다.

예) ‘가방’은 일본어 ‘かばん(카반)’에서 온 말이다. 일본어 ‘かばん’의 어원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첫째, 여행 가방을 뜻하는 네덜란드어 ‘kabas’에서 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둘째, 중국어에서 유래했다고 보는데 ‘夾板(협판)’을 ‘キャバン(카반)’으로 읽은 데서 유래했다고 보기도 하고, ‘夾樓(협만)’을 ‘キャバン(카반)’ 또는 ‘キャマン(카만)’으로 읽은 데서 유래했다고 보기도 한다. 또한 프랑스어 ‘cabas’에서 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가방’)

예) ‘마고자’는 중국어 ‘馬褂子(마괘자)’를 차용한 말이다. 1778년에 간행된 《방언유석》(권2, 服飾類)에서 ‘馬褂子’를 ‘마상에 낚는 자른 옷’ (말 위에서 입는 짧은 옷)으로 기록하고 있어 ‘마고즈’의 차용 시기는 18세기 말 이후로 추정된다. ‘馬褂子’는 청나라 시기에 등장한 의복의 형태로 흔히 ‘馬褂’라고 한다. ‘馬褂子’는 18세기 무렵에 간행된 중국 소설인 ‘홍루몽(紅樓夢)’에서 쓰임이 확인된다. ‘馬褂’는 《방언유석》의 설명처럼 말을 탈 때 입던 옷인데 청나라 시기에 유행하면서 일상적으로 입는 옷이 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져 개량이 되면서 마고자가 되었다. 고종 시기에 대원군이 청나라에 잡혀 갔다 돌아올 때 입고 오면서 우리나라에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방언유석》에 이미 이 말이 나오고 청나라의 馬褂와 마고자가 다른 옷인 점을 고려하여 그 전에 이미 전해졌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마고자’)

예) 정약용(丁若鏞)의 《아언각비(雅言覺非)》를 살펴보면 ‘鼯頭(감두)’ 조(條)에 ‘鼯頭誤讀甘土, 華音本甘투 (‘鼯頭’는 ‘甘土’로 잘못 옮겨졌고, 중국음은 본래 ‘감투’이다.)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를 통해 그 한자 어원을 확인할 수 있다. ‘감투’에서 ‘감’은 한자 ‘鼯’의 근대 한음(漢音)과 중세 한국 한자음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한자음으로 읽힌 것인지, 한음(漢音)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토’는 ‘頭’의 근대 한음(漢音)

인 */thəu/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투')

3) 어원과 관련하여 문화사적으로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면 기술할 수 있다.

예) '돈가스'는 일본어에서 온 말이다. 일본어에서는 'とんかつ', 'とんカツ', 'トンカツ', '豚かつ' 등 여러 가지로 표기가 된다. 그렇지만 표기 방식만 다를 뿐 발음은 같다. '돈가스'에서 '가스'는 'かつれつ'(가쓰레쓰)가 줄어든 말로 'かつれつ'는 영어 'cutlet'(커틀릿) 또는 프랑스어 'côtelette'(코틀레트)에서 온 말로 보고 있다. 소고기나 닭고기 등으로 만드는 커틀릿에 비해 일본에서는 돼지고기를 사용하여 커틀릿 비슷하게 만든 음식을 'ポークカツレツ'(포쿠 가쓰레쓰)라 하기도 하였는데 시간이 흐르고 조리 방법에도 변화가 생겨 돼지고기로 만든 'かつれつ'라 하여 앞에 돼지를 의미하는 '豚(돈)' 자를 붙여서 'とんかつ'라고 하게 되고 이 말이 굳어져 쓰이게 되었다. '커틀릿'이 고기를 기름에 돌려 익힌 것이라면 '돈가스'는 고기를 기름에 푹 잠기게 하여 익힌 것이라는 점 등 여러 가지로 다르게 요리하는 음식이다. 커틀릿을 토대로 하여 일본에서 새로이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돈가스' 요리법이 완성된 것은 1929년으로 보고 있지만 그전부터 이미 간이식당 등에서 'とんか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한다.('돈가스')

4) 예전에 많이 쓰이던 차자 표기를 기술할 수 있다.

예) '너울'은 한문으로 기록된 문헌들에서 '汝火'(여화)나 '羅兀'(나울)로 나타난다. '汝火'는 '汝(너 여), 火(불 화)'이므로 훈을 빌린 훈차(訓借) 표기인 '*너불'로 재구되는데, '*너불 > *너불 > 너울'의 변화 과정을 거쳐 '너울'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羅兀'은 '너울'의 취음(取音) 표기이다. 문헌에서 처음 확인되는 시기는 비슷하지만 후대로 갈수록 '汝火'보다는 '羅兀'이 쓰였는데, '汝火'는 《선조실록》(선조 36년(1603) 5월 2일 기사), 18세기 중반 이전의 의궤들에서 확인되며 '羅兀'은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1614), 《숙종실록》(숙종 14년(1688) 11월 12일 기사), 18세기 중반 이후의 의궤들에서 확인된다. ('너울')

5) 표제어에 대응하는 다른 언어의 예도 기술할 가치가 있으면 기술할 수 있다.

예) 중국명 '白鯁(bái liǎn)'은 뿌리의 속이 흰 덩굴로서 오직 염창(斂瘡)을 치료하는 약이라는 뜻이다. ('가위톱')

6) 선인들의 기록에서 해당 표제어와 관련된 흥미로운 기록을 기술할 수 있다. 최대한 간결하게 기술한다.

예) 유희의 《물명고》에서는 '斑貓(반묘)'에 대해 때에 따라 이름이 바뀐다고 하였다. 7~8월에 콩잎 위에 있으면서 등껍질이 얼룩덜룩한 것을 '오색가뢰'라 하고, 봄에 원화(芫花)에 있으면서 푸른색을 띠는 것을 '청가뢰'라고 하였다. ('가뢰')

예) 《해동농서》에는 '荊杷 굴키'라고 하였으며 "벼 고갱이를 따로 모으는 연장으로 싸리나무를 구부려 만든 것으로 타작마당에 긴요하며 큰 솔가리 나무를 할 때에도 쓴다(疏剔禾稻之器也揉荊編成列齒場圃間不可無者亦爲樵蘇所用)."라고 기록하였다. ('갈퀴')

7) 국어정책적으로 말이 정리된 것을 기술할 수 있다.

예) 1936년에 간행된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서 '기다', '긔다' 중 'ㅣ'가 들어간 '기다'를 표준말로 인정하였다. ('기다')

예) 1988년에 제정된 <표준어 규정> 제13항에서 한자 '句'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글귀'와 '귀글'만은 '귀'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고 하였다. ('글귀')

☞ 표준어 사정 등을 통해 표기가 최종 결정된 경우에는 '2.6. 변화 설명 마무리'에서 설명했듯이 '언어 내적 정보'로 기술한다.

예) "가리키다"와 "가르치다"의 의미를 포괄하던 'ㄱㄹ치다' 등이 1930년대에 들어와 전자의 뜻은 '가리키다'가, 후

자의 뜻은 ‘가르치다’가 갖는 것으로 정리된 것은 언어 정책적 문제 때문이었다. 1930년 6월 17일 자 <조선일보> 기사에 “‘가르치’는 敎導(교도)한다는 말이고 ‘가리치’는 指示(지시)한다는 말이니 이도 가려 써야 합니다.”라고 나오는 것을 보면, 당시 한 어형에 두 가지 의미가 사용된다는 것이 불편했음을 알 수 있다.

예) ‘가락국수’는 1949년 한글날을 맞아 ‘한글학회’와 ‘한글전용촉진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처음 나타난다. 일본 식 간판에 나타난 말을 고친 예 중에 ‘우동’을 ‘가락국수’로 고친 예가 포함되었다. ‘우동’은 ‘가락국수’로 바꾸어 써야 함은 많이 알려졌지만 결국 ‘우동’과 ‘가락국수’가 모두 여전히 쓰이고 있다. 심지어 ‘가락국수’ 대신 ‘가락우동’이라고 하기도 한다. 한동안 ‘우동’ 대신 ‘가락국수’라고 썼지만 ‘가락국수’가 ‘우동’과 다른 음식으로 발달한 영향도 없지 않다. ‘가락국수’는 ‘우동’을 순화한 말로 등장했지만 일본식 우동 대신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멸치 국물에 고명을 넣은 밀가루 음식을 ‘가락국수’라고 하였다. 싼 가격에 판매되어 서민들이 즐겨 먹었다. 특히 ‘가락국수’는 대전역에서 팔면서 유명해졌다.(‘가락국수’)

8) 집필을 하면서 발견한 자료를 반영하여 작성하되 이용한 자료에 대한 정보를 참고문헌에 밝힌다. 정보의 정확성은 감수진과 집필관리자가 추후에 검토한다.

9) 다음과 같은 정보는 ‘언어 외적 정보’로 부적절하므로 제시하지 않는다.

예) [의학용어] 서혜부 림프선이 부어오른 것을 말하며 허벅다리 윗부분의 림프절이 부어 생긴 멍울을 의미한다.

예) 충을 목표물에 조준할 때 이용하는 장치를 ‘가늠-쇠’라 한다. (‘가늠쇠’)

예)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8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는 정신에 따라 ‘그으름’은 ‘그을음’으로 표기가 고정되었다. (‘그을음’)

예) ‘中’의 15세기 한자음은 ‘둥’이므로 이 단어가 더 이전에 쓰였다면 ‘빅둥’의 형태로 표기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중’)

☞ 문헌에 나타나지 않은 표기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 ‘말’은 만주어 morin, 몽골어 mori, 중국어 馬 mǎ, 일본어 uma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뭍’의 이형태 ‘ㅁ’과 관련해서 중국어 mǎ와 일본어 uma를 참고할 수 있다.(‘말’)

☞ 다른 언어와의 비교는 작업 범위가 커지고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계통론을 전개하거나 다른 언어와의 비교까지로 기술 범위를 넓히지 않는다.

10) 다음과 같은 정보는 ‘언어 외적 정보’가 아닌 ‘언어 내적 정보’에서 기술한다.

예) 19세기 이후 ‘그저’의 여러 이표기들은 1936년 표준어 사정 때 ‘그저’라는 표기는 “그냥” 등의 의미를, ‘거저’라는 표기는 “공짜로” 등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정리되고, 나머지 ‘그저’, ‘거저’ 등의 표현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저’)

예) ‘밴댕이’의 ‘댕’은 뒤에 붙은 접미사 ‘-이’의 영향을 받아 원래의 ‘당’이 ‘댕’으로 되었다는 것 이외에 ‘반당’의 어원은 알 수 없다. (‘밴댕이’)

예) ‘너울’은 여자들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 쓰던 전통적인 쓰개의 일종인데, 이러한 전통 예법이 사라진 20세기 초에는 서양식 결혼 예복에 맞추어 신부가 쓰는 ‘면사포’를 가리키기도 하였다. (‘너울’)

11) 다음과 같은 정보는 ‘언어 외적 정보’가 아닌 ‘기타 어원 설명’에서 기술한다.

예) ‘뭍별’의 ‘뭍’은 한자와의 대응을 고려하면 ‘馬’의 직역어일 가능성이 있다. (‘말별’)

예) ‘미늘’은 물(水)의 고대음 [미]와 늘(늘[刀])의 합성어로서 “물속에서 쓰이는 날”이라는 뜻인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미늘’)

예) ‘명석’은 ‘網席(망석)’의 한글 표기인 ‘망석’과 의미상 같기 때문에 서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명석’)

예) 15세기 어형인 ‘뭍-’은 어원적으로는 ‘물[水]’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명사 ‘물’에서 형용사 “[水-]”이 파생되고, “[水-]”의 모음이 교체되어 ‘뭍-’이 파생된 것이다. “[水-]”은 현대 국어의 ‘뭍-’으로 이어지고, ‘뭍-’은 ‘땀-’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불[火]’에서 “-[火]”이 파생되고, “-[火]”의 모음 교체로 ‘뵤-’이 파생되어 현대어의 ‘땀-’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땀다’)

12) 언어 외적 정보는 원칙적으로 문단을 나누지 않고 기술한다. 다만, 기술 내용이 많을 때는 문단을 나눌 수 있다.

가) 입력기의 제한 사항 때문에 글자 수는 2,000천자를 넘을 수 없으므로 그 숫자를 넘어서면 불가피하게 새로운 창을 만들어 이어서 기술한다.

나) 이미 기술한 것과 다른 내용을 기술할 때는 문단을 나누지 않고 새로운 창을 만들어 거기서 기술한다.

9. 기타 어원 설명

1) 학계에서 널리 인정되지 않는 어원, 즉 민간 어원, 여러 설이 공존하는 어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어원 등을 기술한다.

2) 집필 시 기존 논저를 인용할 경우, 출처를 밝히거나 직접 인용하지 않고 최대한 요약하여 제시한다.

☞ 지금 집필하고 있는 것이 논문이 아니라 사전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저자명이나 논저명을 본문에 직접 밝히지 않고 참고문헌에만 제시한다.

기타 어원 설명	‘도깨비’의 어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도깨비는 ‘똥+아비[아버지] → 똥가비>도까비>도깨비’로 어형 변화가 일어났다. ‘똥’은 ‘두역신’과 같이 귀신(鬼神)을 뜻한다. 도깨비는 ‘실체가 아닌 헛것’을 이르는 말로 어원적 의미가 ‘갑자기 나타난 아비 같은 것’이라는 설이다. 둘째, ‘똥가비’의 ‘똥’은 ‘환(幻), 변화와 요술’의 뜻을 지니며, ‘똥아비’가 ‘똥가아비’로 변했다고 보면, ‘똥가아비’는 ‘환부(幻父), 요술아비’라는 본뜻을 지닌다. 셋째, ‘똥갑다’(도답다: 서로의 관계에 사랑이나 인정이 많고 깊다)에서 기원된 것으로 보아, “똥갑+이(접미사)”의 결합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똥갑이>도까비>도깨비”의 변화 과정을 상정한다.
----------	--

☞ 갈퀴: 서정범(2000, 2018:34)에서는 ‘갈퀴’는 ‘갈교리>갈구리>갈쿠리>갈퀴’로 변화했다고 보았다. 백문식(2014, 2018)에서도 ‘갈구리(<갈교리>)’의 준말로 설명하였다. 다만 서정범(2000, 2018)에서는 ‘갈’은 ‘갈’의 고형으로 보았으며, 백문식(2014, 2018)에서는 ‘갈’은 ‘갈타’, ‘가렵타’와 동근어로 추정하였다.

☞ 다음과 같이 기술하지 않는다.

3) 어느 한 학설이 널리 인정되지 않은 채 여러 학설이 공존하는 경우에 ‘언어 내적 정보’가 아니

라 '기타 어원 설명'에서 기술한다.

예) '가초'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공존한다면 '기타 어원 설명'에서 기술한다.

언어 내적 정보	'갓추'는 15세기부터 'ㄱ초'의 형태가 나타난다. 16세기 이후로는 'ㄱ초'와 함께 이를 중철 표기한 '갓초, 곤초'의 예도 나타난다. ……
기타 어원 설명	'ㄱ초'의 구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용언 '갓-'에 파생접미사 '-호-'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동사 'ㄱ초-'의 어간이 그대로 부사로 파생되어 쓰였다는 견해와 용언 '갓-'에 부사파생접미사 '-호'가 결합하여 부사 'ㄱ초'가 만들어졌다는 견해가 있다. ……

- 4) 널리 인정되는 학설은 아니나 소개할 만한 학설의 경우에 기술할 수 있다. 그러나 '기타 어원 설명'은 집필진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학설은 아니므로 문제점이 있을 경우 밝힐 수 있다.

예) '서까래'의 어원에 대한 학설을 '기타 어원 설명'에서 기술한다.

언어 내적 정보	'서까래'의 옛말인 '헛기래'는 17세기부터 나타난다. '헛기래'는 “마룻대에서 도라 또는 보에 걸쳐 지른 나무”를 뜻하는 '허'와 '스'이 결합한 '헛'에 “길고 기는 물체”를 뜻하는 '가래'가 결합한 것이다. ……
기타 어원 설명	'서'의 모양이 “동물의 입 안 아래쪽에 있는 길고 둥근 살덩어리”를 뜻하는 '허'와 같다고 생각하여 '서'를 신체 일부를 지칭하는 '허'로 되돌리는 의도가 작동한 결과가 '서'와 '허'의 교체라고 보고 있는 견해도 있다.

예) 개천

기타 어원 설명	'지천'의 '지'를 “물가”를 의미하는 한자어 '개(浦)'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浦 개 보 << 1527 훈몽자회 상:3ㄱ>>'에서 보는 것처럼 16세기 '포(浦)'의 훈은 '기'가 아니라 '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	---

- 5) 명확하지는 않으나 어원사전 등에서 언급하였거나 널리 언급되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 기술한다.

예) '가시'의 어원을 명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부부의 낮춤말인 '가시버시'의 '가시'와, “장인”, “장모”를 뜻하는 '가시아비', '가시아미'의 '가시'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가시아비'와 '가시아미'의 '가시'는 '갓'(여자, 아내)에 관형격 조사 '익'이 결합된 어형인 '가식'이 변화를 겪은 '가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시아비')

예) '범아귀'는 “손아귀”의 뜻인 중국어 '虎口(hūkǒu)'의 번역 차용어로 추정된다. ('범아귀')

- 6) 민간 어원이나 어원 관련 설화 등을 기술할 수 있다.

예) 이처럼 유사한 이야기가 여러 문헌에 실려 있지만, 이 이야기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민간 어원에 속한다. 부사 '도로'와 물고기의 이름인 '목'이 결합하여 '도로목'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아무리 임금이 명령했다 하더라도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대중이 사용하던 명칭이 어느 한 사람에게 의해 쉽게 바뀌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어원설은 '도로목'이라는 물고기의 이름에서 마침 '도로'가 부사와 형태가 같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도로목')

예) 유희(柳僞)의 <물명고>에 따르면 목화씨를 전래한 문익점(文益漸)의 손자 문래(文萊 또는 文來)가 만든 데서 '물레'가 되었다고 한다. 문세영 편 <조선어사전>에서는 '(文來)'를 표제어로 올리고 이것을 '물레'와 같은 뜻의 단어로 기술하면서도 “고려 말년에 문래(文來)라는 사람이 이 기계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라는 풀이

를 추가하였다.('물레')

예) 옛날에 어떤 집에 달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자 주인이 껌을 내어 “가라고 가랑비 오네.”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손님은 “있으라고 이슬비 오네.”라고 응수하며 버티었다고 하는 데서 ‘가랑비’와 ‘이슬비’가 생겼다는 민간어원설이 있다. (‘가랑비’)

예) ‘갈보’의 어원과 관련하여 ‘蠍婦(갈부)’에서 온 것으로 보기도 하였으나 이는 의미를 고려하여 고유어 ‘갈보’와 유사한 한자음을 가져다 쓴 것에 불과하다. 한편 ‘갈보’의 어원을 1920~1930년대에 활약한 영화배우 ‘가르보’에서 찾기도 한다. ‘가르보’라는 영화배우가 아름다운 용모와 빼어난 연기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다가 ‘갈보’로 줄어들었고, 이어서 ‘웃음과 몸을 파는 여자’를 가리키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설에 그친다. (‘갈보’)

7) 관련이 있는 다른 표제어와의 특이한 역사적 관계를 기술할 수 있다.

예) ‘간섭하다’는 명사 ‘간섭’에 ‘하다’가 결합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干涉하다’는 15세기부터 나타나고 한글 표기인 ‘간섭하다’는 17세기부터 나타나 ‘간섭’보다 출현하는 시기가 빠르다. 문헌에서 나타나는 예로만 본다면 동사 ‘干涉하다’, ‘간섭하다’의 쓰임이 명사 ‘간섭’의 쓰임보다 앞서고 있다. (‘간섭’)

예) ‘어숙’은 ‘어숙하다 <1880 한불사전 24>’의 ‘어숙’과 관련이 있다. (‘어숙비숙’)

예) 어근 ‘갑작’은 <1880 한불사전 132>에 나온 ‘갑작부리’, ‘갑작쓰레[猝然]’에서 볼 수 있다. ‘갑작스럽다’는 <1940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에서 처음 등장한다. (‘갑자기’)

8) 내적 파생/쌍형 어간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의 관계를 기술할 수 있다.

예) ‘삭다’는 현대 국어의 ‘썩다’로 이어지는 중세 국어 어형 ‘석다’와 모음 교체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삭다’)

9)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으나 별도로 어원이 집필되지 않는 단어의 어휘 역사 정보를 기술할 수 있다.

예) 현재 ‘너비아니’의 비규범 표기인 ‘너브할미’는 <한불사전>(1880)에 ‘너부할미’로 나타난다. ‘너부할미’는 ‘너브할미’의 제2음절 모음 ‘ㅡ’가 양순음 ‘ㅂ’ 아래에서 ‘ㄴ’로 바뀐 것이다. 문세영의 <조선어사전>(1940)에서는 ‘너브할미’를 ‘너비아니’의 방언으로 설명하였지만, <조선일보>(1936. 11. 28.)에 실린 <조선어 표준말 모음 (21)>에서는 ‘너비아니’와 ‘너브할미’를 동의어로 설명하였다. (‘너비아니’)

예) ‘곡도’는 아래의 예들에서 “환영”, “허깨비”, “허수아비”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 幻質은 {곡도} 곧 혼 열구리오 <1459 월인석보 2:21_1ㄴ-21_2ㄱ>

나. 世間이 無常호야 구든 주리 업서 {곡도} 노릇 곧 호야 <1459 월인석보 10:14ㄱ>

다. 箕子스 {곡되라} 허니라(箕子操ㅣ라 허니라) <1588 소학언해 4:25ㄴ> (‘꼭두각시’)

예) ‘단추’ 항에서 ‘들마기’를 기술

☞ ‘언어 내적 정보’의 [‘2.8. 내적 정보를 기술할 때 주의할 사항’](#) 참조

10) 다음과 같은 정보는 ‘기타 어원 설명’에서 기술하지 않는다.

가) 동음이의어 혹은 단순히 관련이 되는 다른 단어

예) 15세기 ‘ㄱ장’에는 동음이의어로 “끝”을 뜻하는 명사도 있었는데 이 단어는 ‘가장자리’에 흔적이 남아 있다. 또한 명사 ‘ㄱ장’이 관형사형 어미 뒤나 명사 뒤에서 쓰인 경우 “까지”, “껏”의 의미를 지니기도 했다. (‘가장’)

예) 15세기에는 동음어로서 “베짖이”의 뜻인 ‘뵤짖이’와 “질경이”의 뜻인 ‘뵤짖이’가 있었다. (‘베짖이’)

☞ ‘ㄱ장’은 《우리말샘》에 동음이의어가 구분되어 실려 있으므로 ‘기타 어원 설명’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뽕빵이’는 ‘베짱이’의 뜻만 실려 있다. 이런 경우는 ‘기타 어원 설명’이 아닌 ‘메모’에 추가할 표제어로 남겨야 한다.

11) 차자 표기 자료를 이용한, 최초 출현형 이전 어형에 대한 추정

☞ 한글 창제 이전의 차자 표기 문헌에서 나타나는 어형에 대한 기술은 나중에 현재의 집필과 별도로 검토가 진행될 계획이므로 따로 집필하지 않는다.

12) 다음과 같은 정보는 ‘기타 어원 설명’이 아닌 ‘언어 내적 정보’에서 기술한다.

예) 15세기의 부사 ‘ㄱ장’에는 “모두”, “다” 정도로 쓰인 예도 보인다. (‘가장’)

예) ‘붉-’에 결합하던 사동 파생 접미사가 ‘-이-’에서 ‘-히-’로 변화하였다. (‘밝히다’)

예) ‘비슷ㅎ-’가 ‘비슷ㅎ-’로 바뀌는 현상은 국어사에 있던 ‘ㄱ’과 ‘ㅅ’의 교체로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 “틀림없이 꼭”을 뜻하는 ‘반득기’가 ‘반득시’로 바뀌었는데, 이들은 ‘반득’, ‘반듯’에 접사 ‘-이’가 결합한 형태이다. (‘비슷하다’)

13) ‘기타 어원 설명’이 아닌 ‘관련어’로만 제시할 내용

가) 어원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어인데, 단어들 각각에서 그 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면 ‘기타 어원 설명’에서 기술하지 않고 ‘관련어’로 상대 단어를 제시하기만 한다. 단, 단어들 각각에서 그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우면 ‘기타 어원 설명’에서 기술할 수 있다.

예) 19세기에 나타나는 ‘꿈작이-’와 형태와 의미가 다르지만 18세기에 “눈을 깜작이다”를 의미하는 ‘눈 슴적이-’ (《동문유해》 상: 28ㄱ, 《첨해뭉어》 1: 16ㄱ)와 같은 구성이 나타나고, 20세기 사전에서도 동사 ‘꿈적이-’의 의미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다”를 예로 들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꿈’을 움직이는 의미인 ‘꿈적이다001’과 ‘눈’을 움직이는 의미인 ‘깜작이다001’은 의미의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러한 동사들이 15세기의 ‘금죽-’류 용언에서 파생돼 나온 동일 기원어라는 학설도 있다. (‘꿈적이다’)

☞ 2024년 지침에서는 위 예의 기술 내용은 삭제하고 ‘관련어’로만 제시하도록 했으나 ‘꿈적이다’와 ‘깜작이다’의 관계를 관련어로만 설명하기 곤란하여 ‘꿈적이다’의 ‘기타 어원 설명’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했음.

14) 기타 어원 설명도 원칙적으로 문단을 나누지 않고 기술한다. 다만, 기술 내용이 많을 때는 문단을 나눌 수 있다.

가) 입력기의 제한 사항 때문에 글자 수는 2,000자 넘을 수 없으므로 그 숫자를 넘어서면 불가피하게 새로운 창을 만들어 이어서 기술한다.

나) 이미 기술한 것과 다른 내용을 추가로 기술할 때는 문단을 나누지 않고 새로운 창을 만들어 거기서 기술한다.

10세기별 용례

가. ‘언어 내적 정보’에서 의미 변화를 설명한 경우

1) '언어 내적 정보'에서 의미 변화를 설명한 경우에 의미별로 나누어 의미를 먼저 제시하고 해당 의미에 맞는 용례를 제시한다.

2) 자동사, 타동사처럼 논항의 변화도 '세기별 용례'에서 용례를 각각 제시한다.

예) '그치다'는 "멈추게 하다"의 의미를 갖는 타동사였다. 16세기 이후 타동사 '그치다'가 자동사의 용법까지 갖게 되면서 현대 국어에서처럼 자동사와 타동사의 용법을 모두 갖게 되었다. ('그치다')

☞ 자동사의 세기별 용례, 타동사의 세기별 용례로 나누어서 제시한다.

3) ~~제시하는 의미는 최대한 간략하게 하며, " "를 사용하여 제시한다.~~

예) ~~"어려석다" / "나이가 적다"~~

나. 용례 제시 방법

1) 세기별로 3개 이상 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말뭉치에서 용례가 3개 이상 발견되지 않으면 3개보다 적게 제시할 수 있으며, 용례가 없는 세기는 당연히 제시하지 않는다.

2) 한글 또는 국한문으로 된 문헌에서만 용례를 인용한다. 순한문 문헌 또는 차자 표기 문헌에서 발견되는 예는 '언어 내적 정보'나 '언어 외적 정보' 등을 기술할 때 제시하며 용례로 제시하지 않는다.

가) 한글 또는 국한문으로 된 문헌에서 발견되는 차자 표기는 용례로 인용한다.

예) 각시: “生된 것튼 더 {閼氏} 남의 肝腸 그만 근소”〈1876 가곡원류 101〉

3) 용례는 원칙적으로 **1945년 이전에** 나온 문헌에서 발견된 것까지만 인용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집필 대상이 되는 표제어는 19세기 전의 문헌에서 용례가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20세기 문헌의 용례도 1945년으로 제한한 것이다.

예) 불안한 공가 속에서 들뜨고 있는데 ≪〈1948 조선일보 12.05 2면〉≫

예) 할머니머리에겐 김볼과 (가사랭이) 터럭이 불성 사나웠읍니다. 〈1983 조선일보 12월 3일 8면〉

가) 단, 역사 변화를 설명하는 데 좋은 용례가 1945년 후에 나온 문헌에서 발견되거나, 1945년 후에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어원 정보를 제시하기로 한 표제어를 기술할 때는 1945년 후에 나온 문헌도 인용할 수 있다.

예) '가락국수'의 경우 1949년 이후에야 용례가 나오므로 1945년 후에 나온 문헌을 인용한다.

4) 용례가 많아지는 20세기 문헌에서 용례를 선정할 때는 동음이의어의 예인지, 다른 의미의 방언의 예인지 주의해야 한다. 방언이라면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것만 선별하여 제시한다.

예) 꺾밥: 고막에 구멍이 뚫린 사람이나 혹은 {귀밥이} 만든 사람은 주의해야 됩니다. 〈1930 조선일보 8월 20일 5면〉

☞ 이 예는 '꺾밥'의 방언인 '귀지'의 뜻이므로 인용하면 안 된다.

예) '꺾구멍'에서 '귀구녕, 꺾구녕'을 예로 제시하지 않는다.

☞ ‘꺾구녕’은 ‘꺾구멍’의 방언으로 올라 있다.

가) 단, 19세기 이전의 문헌에 나타날 때는 방언이라 해도 용례로 포함하고 ‘언어 내적 정보’에서 관계를 설명한다.

5) 용례, 출처, 한문 원문, 현대어역을 제시한다.

가) 용례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길이 범위 내에서 제시한다.

나) 출처는 **깜짝새에** 제공하는 말뭉치에 제시된 그대로 제시한다. 말뭉치에 없고 집필자가 발견한 용례는 해당 문헌의 원문대로 인용하고 출처는 **깜짝새에** 제시된 양식을 따라 제시한다.

다) 한문 원문은 말뭉치에 있는 경우에 한해 제시한다. 단, 석보상절, 월인석보의 원문은 제시하지 않는다.

☞ 말뭉치에 제시되어 있는 석보상절, 월인석보의 원문은, 그것이 원문이라고 확정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라) 현대어역은 집필자가 번역하여 제시한다.

마) 현대어역을 할 때는 원문에 없어도 현대의 관점에서 문장 부호를 사용한다. 예컨대 문장이 끝난 경우라면 마침표를 찍는다.

6) 한자어의 경우 집필 대상 말뭉치에서 한자로 표기된 용례가 나오면 제시한다. 단, 한문 원문에서 나오는 것은 용례 제시 대상이 아니다.

☞ 《두시언해》 협주의 경우는 언해 형식으로 된 것과 한문 형식으로 된 것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만 용례 제시 대상이 된다.

다. 이표기 및 변화형 제시 방법

1) 세기별로 말뭉치에서 확인되는 모든 이표기 및 변화형을 제시한다.

가) 세기가 다른 앞선 세기에서 제시된 이표기 및 변화형이라도 다시 제시한다.

예) ‘그저께’

세기	☐ 15세기 ☒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미상 ☐
표기	그저께, 그것끼

2) 같은 세기 내의 이표기 및 변화형의 배열 순서는 용례에서 제시되는 순서대로 한다.

☞ ‘표기’에서 이표기 및 변화형을 제시할 때는 어간을 제시하되 체언은 조사를 제외한 부분, 용언을 어미를 제외한 부분을 제시한다. ‘형태·표기 변화’를 기술할 때와 제시 방법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한다. ‘형태·표기 변화’에서는 ‘다르다’로 제시하지만 그 외에서는 ‘다르-’로 제시한다.

3) 뒤에 오는 조사나 어미에 따라 이형태 교체가 생길 때는 이형태를 각각 제시한다.

예) 나무, 남 / 노로, 놀ㅇ, 놀, 놀

☞ ‘남’과 ‘놀ㅇ’의 차이는 아래아 한글에서 한 음절로 입력이 가능한가의 여부이다. 한 음절로 입력이 가능한 경우에는 점받침으로 적되, 입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적는다. 예컨대, ‘엿ㅇ’은 한 음절로 입력할 수 없으므로 ‘엿ㅇ’과 같이 적는다.

가) 용언의 경우 ‘다르-’와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형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형태에 줄표(-)를 표시한다.

예) 다르-, 달ㅇ-, 달르- / 갓잡-, 갓잡- / ㄱ르-, ㄱㅇ-, 가르-, 갈르-

나) 용언의 경우 중철 표기인 경우도 모든 이형태에 줄표(-)를 표시한다.

예) 갑표-, 갑-, 갇-

다) 후행하는 어미의 환경에 따른 이형태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줄표(-)를 표시한다.

예) 엽미이-, 엽미이-

라) 체언의 경우에는 나타난 이표기대로 모두 제시한다.

예) 용언 : 다르-, 달ㅇ-, 달르- / 갑ㅎ-, 갇-

체언 : 노르, 놀ㅇ / 꽃츠, 꽃ㅎ

마) ‘-ㅎ-’가 탈락한 경우에도 이표기로 제시한다.

예) 그속ㅎ-, 그속-

바) ‘ㅎ’ 말음 체언의 경우에는 ‘ㅎ’을 받침에 표기하지 않고 따로 적는다.

예) 암ㅎ, 수ㅎ, 나라ㅎ

☞ ‘않’, ‘술’, ‘나랑’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4) 20세기에는 다양한 이표기 및 변화형이 나타나므로 빈도가 적거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이표기 및 변화형은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예) 철근『콩크리트』삼층 건물은 오랜 풍상에 {그을} 대로 {그러서} 바치 고성(古城)과도 카튼 장중한 늦김을 준다. <1936 조선일보 5월 29일 3면>

☞ ‘그을다’의 이표기 ‘그러서’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이표기로 보이므로 제시하지 않는다.

예) {귀전에} 박관찰이 엇저고 ㅎ는 말이 들린다. <1920 조선일보 7월 21일 4면>

軍縮의 空砲聲 쫓아야 {귀전에나} 들릴 줄이 잇으랴. <1933 동아일보 11월 19일 1면>

☞ ‘귓전’이 이전 문헌부터 나타나고 ‘귀전, 귀쩐’은 표기의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용하지 않는다.

5) 20세기에는 대부분의 단어에 대한 쓰임이 확인되므로 복합어의 일부 성분으로 쓰인 예를 제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외로운 등잔불이 {깜박깜박하느} <1922 교목화 68면>

☞ ‘깜박깜박’의 예에서 ‘깜박깜박하다’의 예를 제시하지 않는다.

라. ‘세기별 용례’ 기술 방법

- 1) 용례는 같은 세기 내에서는 연대순으로 제시한다.
- 2) 연대미상 자료의 경우, 19세기와 20세기 사이에 제시한다.
- 3) 같은 세기의 용례는 가능한 한 다양한 형태를 보일 수 있도록 제시한다.
- 4) 한자어의 경우 번역문이나 본문에 한자 표기 어형이 출현하면 제시한다. 한문 원문에만 나오는 것은 제외한다.

예) 별세하다

언어 내적 정보	‘별세하다’는 18세기에 한자 표기인 ‘別世하다’로 나타나고 19세기부터 한글 표기인 ‘별세하다’로 나타난다.
세기 별 용례	18세기 : (別世하다) 내 父親은 불셔 {別世하여} 계오시되 <1790 인어대방 3:28ㄱ> (번역: 내 부친은 벌써 별세하셨는데) 19세기 : (별세하다) {별세하다} 別世 <1880 한불사전 323> 그 남편은 먼저 {별세하고} <1899 매일신보 3월 21일 3면> [하락]

5) 20세기의 경우에는 말뭉치에서 예가 없으면 ‘집필 관련 사항’에서 제시한 사이트나

가)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newslibrary.naver.com) / 연세 20세기 한국어 말뭉치 (<https://ilis.yonsei.ac.kr/corpus/#/search/TW>)

6) 말뭉치에서도 용례가 발견되지 않으면 감쪽새에 포함된 사전의 표제어를 제시할 수 있다. **표제어만 인용하고 뜻풀이 등은 인용하지 않는다.**

예) ‘끓었다’ *말뭉치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끓었다’를 <1957 큰사전>으로 인용한다.

7) 문헌을 인용할 때는 아래의 양식대로 인용한다.

가) ‘연도 문헌명 권차:장차’의 양식으로 인용한다.

예) 1447 석보상절 6:23ㄴ

나) 단권으로 되어 있을 경우, ‘연도 문헌명 장차’의 양식으로 인용한다.

예) 1869 규합총서 16ㄱ

다) 문헌명은 KOHICO에서 제공되고 있는 문헌의 ‘맞은 이름’을 사용한다.

예) 1447 석보상절 6:23ㄴ, 1447 석상 6:23ㄴ

라) 장차 표시는 ‘ㄱ, ㄴ’으로 하며, ‘권차:장차’의 방식으로 인용한다. 콜론 뒤에 공백을 두지 않는다.

예) 1447 석보상절 6:23ㄴ, 1447 석보상절 6:23b

1690 역어유해 상:33ㄴ, 1690 역어유해 상: 33ㄴ

마) 신문의 경우에는 ‘연도+신문명+월일+면수’ 방식으로 제시한다.

예) 1924 조선일보 5월 15일 3면

예) 1898년10월20일~11월12일 매일신문 제1권 제148호~제167호: 1~

☞ 말뭉치명으로 인용하지 않고, 말뭉치 안에서 일자와 면수를 찾아서 밝힌다.

바) 2면에 걸쳐 용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를 사용한다.

예) 1899 독립신문 9월 22일 1~2면

사) 사전의 경우에는 ‘연도+사전이름’ 방식으로 제시한다.

예) 1920 조선어사전 / 1940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 1947 표준조선말사전 / 1957 큰사전

8) 말뭉치 혹은 원문에 나타난 표기 그대로 인용하되 **띄어쓰기만 현대의 띄어쓰기 규정을 준용한다.**

가) 원문에 한자가 노출되면 한자 그대로 인용하고 한자(한글), 한글(한자) 형식인 경우에도 그대로 인용한다.

예) 萬頃 大東團, 白口 A團, 白鶴 B團 등이었는바 第二日인 決勝戰에 이르러 <1925 조선일보 9월 2일 4면>(현대어역: 만경 대동단 백口 A단, 백합 B단 등이었는바 제2일인 결승전에 이르러) (‘백합’)

나) 신소설, 독립신문 등에는 띄어쓰기가 이미 되어 있으나,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현대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에 맞추어 수정하여 인용한다.

다) 말뭉치에서 용례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말뭉치에 있는 띄어쓰기 오류, 명백한 오타 등 발견하게 될 경우, 용례를 인용하면서 수정하고 **‘깜짝새 프로그램에 있는 ‘말뭉치 오류 신고’ 기능을 이용하여 신고한다.**

☞ 현재 말뭉치에는 여러 오류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고된 사항들을 모아 말뭉치 정비에 활용할 것이므로 오류를 보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라) ‘-을씨-’의 경우, 말뭉치 구축 지침에서 처리한 것과 같이 붙여 쓴다. (‘-을씨라’를 취하고 ‘-을 씨라’를 버린다.)

예) 饒는 畚이오 畚은 더을씨라

마) 원문에서 반복 기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글자를 복원한다.

예) 도련님들은 싸꾼~~ㅅ~~하게 → 도련님들은 싸꾼싸꾼하게

예) 코를 들~~ㅅ~~ 골고 잔다 → 코를 들들 골고 잔다

바) 인용 예문이 길어 중간을 생략할 때는 ‘...’ 또는 ‘...’를 사용한다. 앞뒤를 뺀다.

9) 용례 중에 나오는 표제어는 { }를 사용하여 어절 단위로 표시한다.

예) {나모}와 (x), {나모}와 (○)

예) 승이 대송의 손을 {잡고} 놀나 곱오되

가) 다른 복합어의 성분으로 나타나는 예도 어절 단위로 표시한다.

예) 石城에서 두드리는 柝을 더니 {쇠결좌는} 門關을 열오져 후넛다 (‘결쇠’)

예) 새 {츄매} 서 홉과 / 或呼蘇子其油曰重油又{츄매}(혹은 차조기의 씨[蘇子]의 기름을 중유(重油) 또는 츄매라고 부른다.) (‘깨’, 집필 예시 참조)

마. 용례 번역

- 1) **1919년까지의 문헌에 나타난 용례는 현대어역을 제시하며**, 연대미상 문헌의 경우에도 현대어역을 제시한다.

가) 단, 1920년 이후 문헌에 나타난 용례 중에서 한자가 많이 노출된 경우에는 현대어로 번역한다.

예) 萬頃 大東團, 白口 A團, 白鶴 B團 등이었는바 第二日인 決勝戰에 이르러 <1925 조선일보 9월 2일 4면> (현대어역: 만경 대동단 백口 A단, 백합 B단 등이었는바 제2일인 결승전에 이르러) ('백합')

- 2) 표제어에 대응하는 예만 있는 어휘집의 용례는 번역하지 않는다.

예) 兩臉骨 {광디뼈} <1690 역어유해 상:33ㄴ> (현대어역: 광대뼈)

가) 단, 어휘집의 용례라 하더라도, 구나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현대어로 번역한다.

예) 廚房 음식 {달오논} 집 <1778 방언유석 西部方言:18ㄴ> (현대어역: 음식 다루는 집)

- 3) 번역을 할 때 설명과 일치되도록 유의한다.

예) 네 代官의 가 내 말로 {그적괴} 여기 노려와 어제라도 오을 거술 路次의 고티매 이제야 문까지 왔습니 <1676 첩해신어 초간본 1:1ㄱ-1ㄴ> (현대어역: 너의 대관에게 가 내 말로 “크자께 여기 내려와 어제라도 올 것을, 도중에 피곤하여 이제야 문까지 왔습니다.”)

☞ 어원 설명에서는 이 당시의 ‘그적괴’는 ‘그저께’가 아니라 ‘며칠 전’의 의미라고 설명했으나, 예문에서는 ‘그저께’로 번역하고 있다. 설명과 동일하게 ‘며칠 전’으로 번역한다.

가) 단, 번역을 할 때 표제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면 현대에서 많이 쓰는 단어를 대신 제시할 수 있다.

예) 王祥이 옷 바사 브리고 어름 {뿌고} 어두려 후더니 <1518 번역소학 9:24ㄴ-25ㄱ> (현대어역: 왕상이 옷을 벗어 버리고 얼음을 깨고 얻으려 하더니) ('끄다')

☞ 용례에 나오는 ‘뿌고’를 현대어역에서 ‘끄고’가 아닌 ‘깨고’로 번역하였다. ‘끄다’가 사전에 있지만 실제로 쓰이지 않는 말이어서 일반인을 위해 ‘깨고’로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언어 내적 정보’에서 ‘끄다’가 현재까지 이어진다고 했는데 번역에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일반인을 위해 이 문제점은 무시하도록 한다.

- 4) 어원적으로 같은 형태로 다의였으나 후대에 별개의 단어로 형태가 달리 분화한 경우에는 현대어로 번역할 때 각각의 의미에 맞는 단어를 선택하여 번역한다.

예) ‘가르치다’와 ‘가리키다’

- 5) 현대어로 번역할 때 현대어에서 잘 안 쓰이는 한자어의 경우에는 () 안에 한자를 밝혀 준다.

예) 한 약방문에 子數(子嗽) 고치되, 패모를 기울과 누르게 볶아 가루 만들어 ('기울')

- 6) 제시된 원문에 한문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것까지 포함하여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원문: 腦 골치 노 俗稱頭 呼(곡뒤) 曰後

번역: ‘腦’자는 ‘골치 노’이며 속칭으로 ‘頭’라고 한다. ‘골치’라고 하면 뒷머리(머리 뒷부분)를 말하는 것이다.

바. 이형태/이표기

- 1) 세기, 제시 순서로 이형태와 이표기를 모두 제시한다.
- 2) 앞선 세기에서 나온 이표기나 변화형은 반복하여 제시하지 않는다.

예) 밤나모, 밤낱, 밤남오, 밤나모, 밤나무, 밤나무, 밤낭구(‘밤나무’)

예) z동기-, z동기-, z동기-, 브터동기-

11.관련어

- 1) 형태 분석 정보 및 어원에 관해 기술한 정보와 관련되거나 해당 표제어의 어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표제어를 제시한다.

가) 《우리말샘》에 있는 현대어 표제어 중에서 어원 정보가 있거나 혹은 향후 기술될 가능성이 있는 표제어만 관련어로 제시한다. 원칙적으로 옛말과 방언은 관련어로 제시하지 않는다.

표제어	관련어	설명
강아지	송아지, 망아지, 돼지	이 네 단어는 어원에서 서로 관련되어 자주 언급되므로 네 단어에서 각각 나머지 세 단어를 관련어로 제시함.
그믐	그믐께, 그믐날	‘그믐’의 어원 설명에서 ‘그믐께, 그믐날’이 언급되므로 관련어로 제시함. ‘그믐께’와 ‘그믐날’은 각각 ‘그믐’과 어원적으로 연관되므로 ‘그믐’만 관련어로 제시함.
그믐께	그믐	
그믐날	그믐	
나누다	X	‘나누이다’의 변화를 설명할 때 ‘나누다’가 필요하므로 ‘나누다’를 관련어로 제시함. ‘나눠다’는 ‘나누이다’와 관련이 되므로 ‘나누이다’를 제시함. ‘나누다’는 ‘나누이다, 나눠다’가 없어도 이해가 되므로 관련어를 제시하지 않음.
나누이다	나누다	
나눠다	나누이다	
가까이	가깝다	‘가까이’를 이해하려면 ‘가깝다’의 어원을 아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시함. ‘가깝다’는 ‘가까이’가 없어도 되기에 제시하지 않음.
가깝다	X	
갈퀴질하다	갈퀴	‘갈퀴질하다’는 어원이 집필되었으나 ‘갈퀴질’은 집필되지 않았으므로 ‘갈퀴’를 관련어로 제시함. 나중에 ‘갈퀴질’을 추가하게 되면 그때 ‘관련어’를 조정함.
갈퀴	X	
너비	넓다	‘너비’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넓다’의 변화를 알아야 하므로 ‘넓다’를 관련어로 제시함. ‘넓다’는 ‘너비’가 없어도 되기에 제시하지 않음.
넓다	X	
나다니다	다니다	‘나다니다’의 경우 ‘나돈니다’로부터 ‘나다니다’로 변화하기까지 ‘다니다’의 변화를 따르므로 ‘다니다’를 관련어로 제시함. ‘다니다’는 ‘나다니다’가 없어도 되기에 제시하지 않음.
다니다	X	
가탈걸음	가탈	‘가탈’의 후대형이 ‘가탈걸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탈’에서도 ‘가탈걸음’을 제시함.
가탈	가탈걸음	
감자	고구마?	‘감자’와 ‘고구마’가 지시 대상에서 혼란이 되어 섞여 쓰였음을 어원 정보로 기술하면 이때는 ‘고구마’를 관련어로 제시함.
너비아니	너비, 너브할미(X)	‘너비아니’에서 ‘너비’를 언급하므로 관련어로 제시함. ‘너브할미’의 경우는 비표준어로 어원 정보가 기술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제시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너브할미’가 예외적으로 기술이

		된다면 그때는 관련어로 제시해야 함).
구두쇠	구두(X), 벽쇠(X)	‘구두’나 ‘벽쇠’가 기술될 가능성이 없어 제시하지 않음. ‘벽쇠’는 비표준어이기도 함.
가볍다	무겁다(X)	‘무겁다’는 ‘가볍다’와 어원 정보 기술 내용이 무관하고 단지 반의 관계에 있는 말임.
그전	그때(X), 그적(X), 그저께(X)	‘그전’의 어원 정보 기술 내용이 ‘그때, 그적, 그저께’와는 무관하므로 관련어로 제시하지 않음

예)

2)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관련어로 제시한다.

가) 복합어를 구성하는 성분이 되는 표제어로 그 표제어의 어원이 해당 복합어의 어원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경우

예)

표제어	관련어	설명
수레바퀴	수레, 바퀴	‘수레’와 ‘바퀴’의 복잡한 변화와 ‘수레바퀴’의 변화가 밀접히 연관되므로 ‘수레, 바퀴’를 관련어로 제시함.
수레	X	
바퀴	X	
끌어가다	끌다	역사적 변화가 복잡한 ‘끌어가다’와 ‘끌다’가 밀접히 연관되므로 ‘끌다’를 제시함.
끌다	X	
겨우살이	겨울	‘겨우살이’가 ‘겨스사리’ 형태로 나타나므로 ‘겨울’을 관련어로 제시함.
겨울	X	

나) 어원이 같지만 분화하여 별개의 표제어가 된 경우

예)

표제어	관련어	설명
구완하다	구원하다	‘구완’이 ‘구원’에서 온 말이므로 양쪽에서 관련어로 제시함.
구원하다	구완하다	
가르치다	가리키다	같은 어원에서 분화된 단어이므로 양쪽에서 관련어로 제시함.
가리키다	가르치다	

다) 어원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져도 다른 어원 설명에서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는 경우

예)

표제어	관련어	설명
꼭뒤	꼭대기	‘꼭대기’의 설명에서 ‘꼭뒤’의 후대형이 ‘꼭대기’의 뜻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으므로 양쪽에서 관련어로 제시함.
꼭대기	꼭뒤	
견주다	겨누다	‘견주다’의 설명에서 선대형이 ‘겨누다’의 뜻으로도 쓰였다고 설명했으므로 양쪽에서 관련어로 제시함.
겨누다	견주다	

라) 쌍형 어간이나 내적 파생, 즉 자모음 교체에 의해 짝을 이루는 표제어가 모두 어원 정보가 있는 경우

예)

표제어	관련어	설명
거꾸로	가꾸로	두 표제어의 ‘언어 내적 정보’에서도 상대 단어에 대해 기술했음.
가꾸로	거꾸로	

☞ 내적 파생 관계에 있는 모든 표제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원 정보가 기술되었을 때만 제시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는 관련어로 제시하지 않는다.

가) 단순히 형태론적으로 관련된 합성어나 파생어

예) '돌다리'의 관련어로 '돌'과 '다리'를 제시하지 않는다.

예) '암뱀지'의 관련어로 '뱀지'를 제시하지 않는다.

나) 단순히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

예) '부채'의 관련어로 '선자(扇子)', '인풍(仁風)'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 단,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 각각 어원 설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예) '바비다'의 관련어로 '부비다', '비비다'를 제시할 수 있다.

4) 언어 내적 정보, '언어 외적 정보', '기타 어원 정보' 등에서 관련어에 대한 기술을 했는지와 무관하게 '관련어'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제시한다.

12.참고 논저

1) 집필에 참고한 논저를 제시한다. 논저의 내용이 집필 내용에 포함된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내용이 있어 참고한 논저까지 포함하여 제시한다.

2)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널리 퍼진 견해에 대해서는 참고 문헌에 논저를 제시하지 않는다.

3) 참고 논저 제시는 학술 논저의 일반적인 제시 방식을 따르며, 단행본과 논문을 구별하여 '참고 논저'의 해당 칸에 제시한다.

예) 논문, 단행본, 신문 기사 등

	저자명	연도	제목	출판사 또는 학술지명	삭제
참고 논저	황선영	2009	'명아주'(藥)의 어휘사	《국어학》 55, 국어학회	삭제
	조항범	2022	《말과 글의 달인이 되는 법: 우리말 어원 사전》	태학사	삭제
	경지영	1930	철자법 강좌(55)	《조선일보》, 1930.6.17., 4면	삭제
	동아일보	1920	영 의회와 조선 문제	1920.5.3., 3면	삭제

☞ 책의 경우에는 “《 》” 안에 제시한다. '출판사 또는 학술지명'에서 논문이나 신문, 잡지 등의 경우에는 간행처 등 필요한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가) 외국 서적을 참고한 경우에는 해당 언어로 제시한다.

예)	多田洋子	2005	教育学用語の訳語-伊沢修二著『教育学』に見られ	《英学史研究》 38
----	------	------	-------------------------	------------

나) 인터넷 사이트는 원칙적으로 참고 논저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다른 논저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신뢰할 만한 정보라고 판단되면 참고 논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저자명	연도	제목	출판사 또는 학술지명
예)		dumbbell	https://en.wikipedia.org/wiki/Dumbbell

13.메모

가. 메모 작성

- 1) 위에서 기술할 수 없는 내용, 어휘 역사 정보와 관련 없지만 <<우리말샘>> 사전 기술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 집필자의 추가 의견, 검토하거나 논의할 내용 등을 기술한다.

예) 남광우 <<고어사전>>에서는 ‘발마보다’를 표제어로 다루고 있다. (‘발다’)

☞ 용례를 찾는 중에 발견된 말뭉치의 오타기, 띄어쓰기 오류 등 말뭉치에서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메모’가 아니라 ‘감작새’ 프로그램에 있는 ‘말뭉치 오류 신고’ 기능을 이용하여 신고한다.

- 2) 어원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동음어의 재분류 등 어원과 관련하여 수정이 필요한 사전 기술
- 3) 동음어인데 <<우리말샘>>에 오르지 않은 옛말

예) 15세기에는 동음어로서 “배짱이”의 뜻인 ‘뵤짱이’와 “질경이”의 뜻인 ‘뵤짱이’가 있었다. (‘배짱이’)

- 4) 용례 검색 중에서 추가로 용례를 발견한 단어인데, 북한어로 되어 있는 표제어

예) ‘배배하다’의 관련어인 ‘비비하다’는 북한어로 등재되어 있다.

□ 부록 1: 현상 설명을 위한 표현

14.음운 변화에 관련된 표현

☞ 음운 변화에 대해 기술할 때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한다.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생략하거나 적절히 바꿔 쓸 수 있다.

가. 아래아 소실과 표기 변화

- 16세기 이후 나타난 제2음절 이하의 ‘ㆍ’가 ‘ㅡ’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으로 인해)
- 16세기 이후 나타난 제2음절 이하의 ‘ㆍ’가 ‘ㅡ’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ㅅ’도 ‘ㄴ’로 변하면서
- 18세기 이후 나타난 제1음절의 ‘ㆍ’가 ‘ㅏ’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으로 인해)

- 18세기 이후 나타난 제1음절의 ‘ㆍ’가 ‘ㅏ’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ㅓ’도 ‘ㅕ’로 변하면서
- 18세기 이후 나타난 제1음절의 ‘ㆍ’가 ‘ㅏ’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ㅎ-’가 ‘-하-’로 바뀌면서 ○○세기에 ‘○○’가 나타난다/나타나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예) 16세기 이후 나타난 제2음절 이하의 ‘ㆍ’가 ‘ㅡ’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18세기에는 ‘다듬다’로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다듬다’)

예) 16세기 이후 나타난 제2음절 이하의 ‘ㆍ’가 ‘ㅡ’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다르다’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르다’가 등장한 이후로도 19세기까지는 ‘다루다’ 형태 역시 나타나고 있다.(‘다르다’)

예) 18세기 이후 나타난 제1음절의 ‘ㆍ’가 ‘ㅏ’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갈기다’는 18세기부터 ‘갈기다’로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갈기다’)

예) 18세기 이후 나타난 제1음절의 ‘ㆍ’가 ‘ㅏ’로 변하는 현상으로 인해 19세기에 ‘갈다’로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갈다’)

예) 18세기 이후 나타난 제1음절의 ‘ㆍ’가 ‘ㅏ’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ㅎ-’가 ‘-하-’로 바뀌면서 19세기세기에 ‘수고하-’가 나타나서 현재까지 이어진다.(‘수고하다’)

- ‘ㆍ’가 ‘ㅏ’로 표기된 ‘C’가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 ‘ㆍ’와 ‘ㅏ’가 표기에서 섞여 쓰이면서

예) ‘ㆍ’가 ‘ㅏ’로 표기된 ‘괘씸하다’가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괘씸하다’)

예) 19세기에 나타나는 ‘뚫자리’는 ‘ㆍ’와 ‘ㅏ’가 표기에서 섞여 쓰이면서 나타난 표기이다. (‘뚫자리’)

예) ‘ㅓ’와 ‘ㅕ’가 표기에서 섞여 쓰이면서 18세기부터는 ‘식’가 나타나 20세기 전반부까지 ‘새’와 ‘식’가 공존하였다. (‘새’)

예) ‘ㆍ’와 ‘ㅏ’가 표기에서 섞여 쓰이면서 ‘ㄹㅏ듬다’, ‘ㄹㅓ듬다’, ‘ㄹㅕ다듬다’, ‘가ㄹ듬다’와 같은 표기도 나타난다. (‘가다듬다’)

나. 어두 자음군

☞ 어두 자음군은 표기 변화를 중심으로 기술하되, 음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아래의 예를 참조하여 기술한다.

예) 17세기에 등장한 ‘춍술, 춍빨’ 형태는 ‘빨’의 초성인 어두 자음군 ‘ㅼ’[ps]에서 ㅂ이 앞 음절의 종성으로 이동한 것이다. 근대 국어 시기에 어두 자음군이 사라지고 된소리로 바뀌면서 ‘빨’의 초성 역시 ‘ㅅ’의 된소리로 바뀌었으나 표기상으로는 19세기까지도 ‘췌’와 함께 ‘빨’의 예가 나타난다. (‘참빨’)

예) 근대 국어 시기에 어두 자음군이 사라지고 된소리로 바뀌면서 ‘췍’의 초성 역시 ‘ㅅ’의 된소리로 바뀌었으나 표기상으로는 18세기까지도 ‘췍’과 함께 ‘췍’의 예가 나타났다. (‘다복췍’)

예) 근대 국어 시기에 어두 자음군이 사라지고 된소리로 바뀌면서 ‘빨기’의 초성 역시 ‘ㅅ’의 된소리로 바뀌었으나 표기상으로는 19세기까지도 ‘췌기’와 함께 ‘빨기, 빨기’의 예가 나타났다. (‘빨기’)

- 1) ‘각자병서’나 ‘합용병서’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된소리를 같은 글자로 적게 되어’와 같이 음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도 피하여 아래와 같은 표현으로 기술한다.

- ‘A’를 ‘B’로 적게 됨에 따라
- ‘A’를 ‘B’로 적게 되는 경향에 따라

예) 15세기~17세기에는 ‘쓰-’와 함께 ‘스-’가 공존하였는데, 이는 1465년 《원각경언해》 간행 때부터 ‘ㅍ’을 표기

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쓰다’)

☞ ‘각자병서가 폐기됨에 따라’와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예) 20세기 이후 된소리 표카 ‘ㄷ’을 ‘ㄸ’으로 적게 되는 경향에 따라 ‘누에똥’으로 나타나 현재에 이르렀다. (‘누에똥’)

예) ‘끌끌’은 19세기부터 ‘쫄쫄’로 표기되어 나타난다. 근대 국어 후기에 ‘ㄷ’을 ‘ㄸ’으로 적게 되는 경향에 따라, 19세기에 ‘끌끌’이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쫄쫄’)

다. 어두 경음화

- ‘A’의 제1음절 초성 ‘B’가 된소리화된 ‘C’가 나타난다.

예) ‘똥다’의 제1음절 초성 ‘ㄷ’이 된소리화된 ‘똥다’가 나타난다. (‘똥다’)

예) ‘불휘’의 제1음절 초성 ‘ㅂ’이 된소리화된 ‘뽕휘’, ‘뽕희’, ‘뽕휘’도 나타난다. (‘뿌리’)

예) 제1음절 초성 ‘ㄱ’이 된소리화되면서 16세기에 ‘꺃’이 나타난다. (‘꺃’)

예) 18세기에 제1음절 초성 ‘ㄱ’이 된소리화된 ‘꺃답-’이 나타난다. (‘꺃답다’)

라. ㅏ 소실

- 16세기 이후 (‘A’의) ‘ㅏ’이 소실되어

예) 16세기 이후 ‘궁’의 ‘ㅏ’이 소실되어 ‘궁-’이 되었고 (‘가없다’)

예) 16세기 이후 ‘ㅏ’이 소실되어 ‘궁말다’가 되었고 (‘가말다’)

예) 16세기 이후 ‘ㅏ’이 소실되어 ‘그옥하다’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옥하다’)

예) 16세기 이후 ‘ㅏ’이 소실되었으나, 일부 어휘에서는 ‘ㅏ, ㅑ’으로 변하기도 하였다. (‘느시’)

마. ㅓ 변화

1) ㅓ > [w]

- (15세기 중반 이후) ‘ㅓ’이 반모음 [w]로 변하여

예) 15세기 중반 이후 ‘ㅓ’이 반모음 [w]로 변하여 ‘것와시, 것위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거지’)

예) 15세기 중반 이후 ‘ㅓ’이 반모음 [w]로 변하여 ‘글뵈’는 ‘글왈’ 혹은 ‘글월’로 나타나게 되었다. (‘글월’)

예) ‘갈’과 ‘뵈’이 결합하면서 모음 사이에서 ‘ㅓ’이 ‘ㅓ’으로 바뀐 ‘*갈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갈뵈’의 ‘ㅓ’이 반모음 [w]로 변하여 ‘갈뵈’이 된 것이다. (‘갈뵈’)

예) 15세기 중반 이후 ‘ㅓ’이 반모음 [w]로 변하면서 ‘어뵈’는 ‘어드우’로 변화하여 ‘어뵈-/어두우’의 교체를 보이는 불규칙 용언이 되었다. (‘어뵈다’)

2) ㅓ 소실

- (15세기 중반 이후) ‘ㅓ’이 사라지면서

예) 15세기 중반 이후 ‘ㅓ’이 사라지면서 ‘갓가뵈’는 ‘갓가이’로 변화하였다. (‘가까이’)

예) 15세기 중반 이후 ‘ㅓ’이 사라지면서 ‘쉬뵈’는 ‘쉬이’로 변화하였다. (‘쉬’)

바. 구개음화

1) ㄷ 구개음화

- (근대 국어 시기에 나타난 모음 ‘ㅣ’나 반모음 ‘ㅣ’[j] 앞에서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에 따라/로 인해)

예) 근대 국어 시기에 나타난 모음 ‘ㅣ’나 반모음 ‘ㅣ’[j] 앞에서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로 인해 18세기에 ‘샤치’가 나타난다. (‘새치’)

예) 근대 국어 시기에 나타난 모음 ‘ㅣ’나 반모음 ‘ㅣ’[j] 앞에서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로 인해 ‘각디’도 ‘각지’로 변하였다. (‘깍지’)

2) ㄱ 구개음화

- 17세기 이후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ㅣ’모음이나 반모음 ‘ㅣ’[j] 앞에서 ‘ㄱ, ㅋ, ㆁ’이 ‘ㅈ, ㅊ, ㅍ’으로 바뀌는 ㄱ 구개음화(에 따라/로 인해)

예) ‘질경이’의 옛말인 ‘길경’은 17세기부터 나타난다. 17세기에는 ‘길경’에 품사를 바꾸지 않는 접미사 ‘-이’가 결합한 ‘길경이’ 형태가 등장하였다. 17세기 이후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ㅣ’모음이나 반모음 ‘ㅣ’[j] 앞에서 ‘ㄱ, ㅋ, ㆁ’이 ‘ㅈ, ㅊ, ㅍ’으로 바뀌는 ㄱ 구개음화로 인해 20세기에 ‘질경이’로 나타나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길경이>질경이’는 ㄱ 구개음화를 겪은 형태가 중부 방언에서도 받아들여진 드문 경우이다. (‘질경이’)

3) ㅎ 구개음화

- 모음 ‘ㅣ’나 반모음 ‘ㅣ’[j] 앞에서 ‘ㅎ’이 ‘ㅅ’으로 바뀌는 ㅎ 구개음화(에 따라/로 인해)

예) 모음 ‘ㅣ’나 반모음 ‘ㅣ’[j] 앞에서 ‘ㅎ’이 ‘ㅅ’으로 바뀌는 ㅎ 구개음화에 따라 18세기에 ‘혜-’가 ‘세-’로 나타나고, ‘ㅅ’ 뒤의 ‘ㅈ, ㅋ, ㆁ, ㅍ’이 ‘ㅈ, ㅋ, ㆁ, ㅍ’로 바뀌는 현상에 영향을 받아 19세기부터 ‘세다’가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세다’)

예) 모음 ‘ㅣ’나 반모음 ‘ㅣ’[j] 앞에서 ‘ㅎ’이 ‘ㅅ’으로 바뀌는 ㅎ 구개음화에 따라 17세기부터 ‘혈마’가 ‘설마’로 나타난다. (‘설마’)

예) 19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효쥬’는 모음 ‘ㅣ’나 반모음 ‘ㅣ’[j] 앞에서 ‘ㅎ’이 ‘ㅅ’으로 바뀌는 ㅎ 구개음화를 의식한 과도 교정 형태이다.(‘소주’)

사. ㅣ 역행 동화

- 18세기에 모음 ‘ㅑ, ㅓ, ㅕ’가 뒤따르는 ‘ㅣ’모음의 영향으로 ‘ㅓ, ㅕ, ㅗ’가 되는 ‘ㅣ’ 역행 동화(에 따라/로 인해)

예) 18세기에 모음 ‘ㅑ, ㅓ, ㅕ’가 뒤따르는 ‘ㅣ’모음의 영향으로 ‘ㅓ, ㅕ, ㅗ’가 되는 ‘ㅣ’ 역행 동화에 따라 ‘과썸하다’도 *‘괘썸하다’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괘썸하다’)

예) 18세기에 모음 ‘ㅑ, ㅓ, ㅕ’가 뒤따르는 ‘ㅣ’모음의 영향으로 ‘ㅓ, ㅕ, ㅗ’가 되는 ‘ㅣ’ 역행 동화에 따라 ‘달팡이’의 제2음절 ‘ㅓ’가 ‘ㅕ’가 되어 19세기부터 ‘달팽이’, ‘달팡이’로 나타난다. (‘달팽이’)

아. 원순 모음화

- 근대 국어 시기에 양순음 ‘ㅁ, ㅂ, ㅍ, ㅃ’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ㅜ’로 변하는 원순 모음화(에 따라/로 인해)

예) 근대 국어 시기에 양순음 ‘ㅁ, ㅂ, ㅍ, ㅃ’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ㅜ’로 변하는 원순 모음화에 따라 18세기에 ‘검불다’가 나타난다. (‘검뽕다’)

예) ‘썰’은 근대 국어 시기에 양순음 ‘ㅍ, ㅂ, ㅍ, ㅂ’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ㅜ’로 바뀌는 원순 모음화에 따른 것이다. (‘뿔’)

예) 근대 국어 시기에 양순음 ‘ㅍ, ㅂ, ㅍ, ㅂ’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ㅜ’로 변하는 원순 모음화가 있었는데, ‘눈물’에는 이러한 변화가 좀 더 일찍 적용되어 16세기에 ‘눈물’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눈물’)

자. 전설 모음화

- (근대 국어 후기에/19세기에) ‘ㅅ, ㅆ, ㅈ’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ㅣ’로 바뀌는 전설 모음화(에 따라/로 인해)

예) 근대 국어 후기에 ‘ㅅ, ㅆ, ㅈ’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ㅣ’로 바뀌는 전설 모음화에 따라 ‘늪우츠며, 늪우츠니’ 등이 ‘늪우치며, 늪우치니’로 변화하였다. (‘늪우치다’)

예) 근대 국어 후기에 ‘ㅅ, ㅆ, ㅈ’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ㅣ’로 바뀌는 전설 모음화에 따라 20세기 이후 ‘느직이’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느직이’)

예) 19세기에 ‘ㅅ, ㅆ, ㅈ’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ㅣ’로 바뀌는 전설 모음화에 따라 ‘지리-’로 변화되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지리다’)

차. 이중 모음의 단모음화

1) ‘의’의 단모음화: 의>이

- (근대 국어 후기에/19세기에) 자음 뒤에서 모음 ‘ㅡ’가 ‘ㅣ’로 바뀌는 현상(에 따라/으로 인해)

예) 근대 국어 후기에 자음 뒤에서 모음 ‘ㅡ’가 ‘ㅣ’로 바뀌는 현상에 따라 ‘관디’로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관디’)

예) 근대 국어 후기에 자음 뒤에서 모음 ‘ㅡ’가 ‘ㅣ’로 바뀌는 현상에 따라 ‘견디-’로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견디다’)

예) 19세기에 자음 뒤에서 모음 ‘ㅡ’가 ‘ㅣ’로 바뀌는 현상에 따라 ‘비비-’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비비다’)

2) 이중 모음 ‘ㅐ, ㅑ’의 단모음화

가) 표기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음가의 변화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중 모음의 단모음화는 설명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근대 국어 시기 후반에 이중 모음 ‘ㅐ’[aj]가 [ɛ]로 단모음화하여
- 근대 국어 시기 후반에 이중 모음 ‘ㅑ’[aj]가 [e]로 단모음화하여
- 근대 국어 시기 후반에 이중 모음이었던 ‘ㅐ’[aj], ‘ㅑ’[aj]가 단모음 ‘ㅐ’[æ], ‘ㅑ’[e]가 된 후, ‘ㅐ’[ɛ]와 ‘ㅑ’[e] 소리가 구분이 되지 않게 됨에 따라

예) 18세기에 제1음절의 ‘ㅐ’가 ‘ㅑ’로 변하고 이중 모음 ‘ㅑ’ 또한 이중 모음 ‘ㅐ’[aj]로 변하였다. 이후 이중 모음 ‘ㅐ’[aj]가 다시 단모음 ‘ㅐ’[ɛ]로 변하였는데, ‘기슴미-’에 결합한 ‘미-’ 또한 이러한 변화를 겪어 ‘매-’가 되었다. (‘김매다’)

→ 18세기 이후 나타난 제1음절의 ‘ㅐ’가 ‘ㅑ’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ㅑ’도 ‘ㅐ’로 변하면서 ‘미-’ 또한 이러한 변화를 겪어 ‘매-’가 되었다.

예) ‘언제인가’는 근대 국어 시기에 이중 모음 ‘ㅐ’[aj]가 [ɛ]로 단모음화하고, 이후 ‘제’와 ‘제’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어 표기가 섞여 쓰인 것이다. ('언젠가')

→ '언제인가'는 근대 국어 시기에 '제'와 '제'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어 표기가 섞여 쓰인 것이다.

☞ '김매다', '언젠가'에서는 단모음화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예) '건네다'는 '건내다'에서 제2음절의 양성 모음 'ㅐ'[aj]가 모음조화를 위해 앞 음절의 음성 모음 'ㄱ'에 따라 'ㅔ'[ej]로 바뀐 것을 표기한 것이다. 표기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근대 국어 시기 후반에 이중 모음 'ㅐ'[aj]가 단모음 [e]로 변화하여 현대 국어와 같은 '건네다'가 되었다. ('건네다')

예) 근대 국어 시기 후반에 이중 모음이었던 'ㅐ'[aj], 'ㅔ'[ej]가 단모음 'ㅐ'[æ], 'ㅔ'[e]가 된 후, 'ㅐ'[æ]와 'ㅔ'[e] 소리가 구분이 되지 않게 됨에 따라 표기상의 혼란이 발생하여 '기지게'가 '기지개'로 표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지개')

3) 이중 모음 'ㅑ, ㅓ, ㅕ, ㅗ'의 단모음화

• 근대 국어 시기에 'ㅑ, ㅓ, ㅕ' 아래에서 이중 모음 'ㅑ, ㅓ, ㅕ, ㅗ'가 'ㅑ, ㅓ, ㅕ, ㅗ'로 단모음화하는 현상에 따라

예) '섬'은 근대 국어 시기에 'ㅑ, ㅓ, ㅕ' 아래에서 이중 모음 'ㅑ, ㅓ, ㅕ, ㅗ'가 'ㅑ, ㅓ, ㅕ, ㅗ'로 단모음화하는 현상에 따라 '섬'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섬')

예) '조금'은 근대 국어 시기에 'ㅑ, ㅓ, ㅕ' 아래에서 이중 모음 'ㅑ, ㅓ, ㅕ, ㅗ'가 'ㅑ, ㅓ, ㅕ, ㅗ'로 단모음화하는 현상에 따라 '조금'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조금')

예) '처마'는 근대 국어 시기에 'ㅑ, ㅓ, ㅕ' 아래에서 이중 모음 'ㅑ, ㅓ, ㅕ, ㅗ'가 'ㅑ, ㅓ, ㅕ, ㅗ'로 단모음화하는 현상에 따라 '처마'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처마')

가. ㅗ → ㅜ

• 근대 국어 시기에 양성 모음 'ㅗ'가 음성 모음 'ㅜ'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로 인해) ㅚ ㅜ

예) 근대 국어 시기에 양성 모음 'ㅗ'가 음성 모음 'ㅜ'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17세기부터 '광주리'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광주리')

예) 근대 국어 시기에 양성 모음 'ㅗ'가 음성 모음 'ㅜ'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19세기에 '되우'가 나타나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되우')

예) 근대 국어 시기에 양성 모음 'ㅗ'가 음성 모음 'ㅜ'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사귀다'도 영향을 받아 19세기에는 '사귀다'의 형태가 나타나 함께 쓰이다가 '사귀다'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 ('사귀다')

타. ㅓ의 유성 후두 마찰음화

• ('ㅓ' 뒤에서) 'ㅓ'이 약화되어 유성 후두 마찰음 'ㅇ'[h]으로

예) '늘애'는 동사 '늘-'에 명사 파생 접미사 '-개'가 결합한 것으로, 'ㄹ' 뒤에서 'ㅓ'이 약화되어 유성 후두 마찰음 'ㅇ'[h]으로 실현된 형태이다. ('날개')

예) '궁애'는 기원적으로 "자르다, 베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 '궁-'과 도구를 나타내는 파생 접미사 '-개'의 결합인 *궁개에서 'ㅓ'이 약화되어 유성 후두 마찰음 'ㅇ'[h]으로 실현된 형태이다. ('가위')

예) '결리다'는 동사 '결-'과 피동접미사 '-기-'가 결합한 것으로, 접미사 '-기-'의 'ㅓ'이 어간 말음 'ㄹ' 뒤에서 약화되어 유성 후두 마찰음 'ㅇ'[h]으로 실현된 것이다. ('결리다')

예) '결오-'는 동사 '결-'에 사동접미사 '-고-'가 결합한 것으로 'ㄹ' 뒤에서 'ㅓ'이 약화되어 유성 후두 마찰음

‘ㅇ’[h]으로 실현된 것이다. (‘결우다’)

파. 유성 후두 마찰음 소실

- 유성 후두 마찰음 ‘ㅇ’[h]이 사라지면서

예) 15세기 ‘그르-’는 자음 어미 앞에서는 ‘그르-’, 모음 어미 앞에서는 ‘글ㅇ-’으로 나타났다. 16세기에 유성 후두 마찰음 ‘ㅇ’[h]이 사라지면서 ‘ㄹ’이 첨가되어 17세기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글러’와 같이 ‘글ㄹ-’로 나타나게 되었다. (‘끄르다’)

예) ‘골오’는 형용사 어간 ‘고르-’에 부사 파생 접미사 ‘-오’가 결합한 것으로 제2음절의 모음 ‘ㅏ’가 탈락하여 ‘골오’로 실현된 것이다. 16세기에 와서 제2음절의 첫소리인 유성 후두 마찰음 ‘ㅇ’[h]이 사라지면서 앞 음절의 끝 소리가 연철 표기되어 ‘고로’로 나타나게 되었다. (‘고루’)

하. ㅎ의 약화

- (근대 국어 시기에) 1) ‘ㄴ’과 모음 사이에서 2) ‘ㄹ’과 모음 사이에서 3)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ㅎ’이 탈락하는 현상에 따라/탈락한

☞ ‘근대 국어 시기’는 해당 예의 상황에 따라 ‘19세기’와 같이 구체적인 시기로 표현할 수 있다. 해당 예의 환경에 따라, 1), 2), 3)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예) 19세기 이후 ‘ㄴ’과 모음 사이에서 ‘ㅎ’이 탈락하고, 제2음절의 모음 ‘ㅓ’가 ‘ㅜ’로 바뀌어 ‘나누-’가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나누다’)

예) 근대 국어 시기에 ‘ㄹ’과 모음 사이에서 ‘ㅎ’이 탈락한 ‘설은’과 이것이 연철 표기된 ‘셔른’이 19세기에 모두 나타난다. (‘서른’)

예) ‘부형이’에서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ㅎ이 탈락한 ‘부영이’가 19세기에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부영이’)

거. 니>이

- 근대 국어 시기에 두음 법칙에 따라 모음 ‘ㅣ’나 반모음 ‘ㅣ’[j] 앞에 ‘ㄴ’이 올 수 없게 되어

예) 근대 국어 시기에 두음 법칙에 따라 모음 ‘ㅣ’나 반모음 ‘ㅣ’[j] 앞에 ‘ㄴ’이 올 수 없게 되어 ‘ㄴㅑ’이 ‘ㅑ’으로 변화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20세기 이후 ‘땃ㅑ’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땃ㅑ’)

예) 근대 국어 시기에 두음 법칙에 따라 모음 ‘ㅣ’나 반모음 ‘ㅣ’[j] 앞에 ‘ㄴ’이 올 수 없게 되어 ‘ㄴㅓ’의 제1음절 ‘ㄴㅓ’이 ‘ㅓ’으로 변화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진다. (‘ㅓㅓ’)

예) 근대 국어 시기에 두음 법칙에 따라 모음 ‘ㅣ’나 반모음 ‘ㅣ’[j] 앞에 ‘ㄴ’이 올 수 없게 되어 ‘ㄴㅕ’이 ‘ㅕ’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ㅕㅕ’)

너. 축약

예) ‘딛히다’의 ‘ㄱ’과 ‘ㅎ’이 축약되어 ‘ㄷ’으로 표기된 ‘디히다’가 나타나고, 이것이 중철 표기된 ‘딛히다’도 나타난다. (‘지키다’)

예) 20세기에 ‘가읍’이 한 음절로 축약된 ‘갑’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갑’)

예) 18세기에 ‘개야미’의 제1음절과 제2음절이 축약된 ‘개미’가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개미’)

예) 19세기 이후 제2음절과 제3음절이 축약되어 ‘금세’로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금세’)

15. 표기 변화에 관련된 표현

가. 종성 ㅇ(옛이응) 표기의 변화

- 16세기부터 종성의 ‘ㅇ’이 ‘ㅇ’으로 표기되면서

예) 16세기부터 종성의 ‘ㅇ’이 ‘ㅇ’으로 표기되면서 ‘광조리’도 ‘광조리’로 나타난다. (‘광주리’)

예) 16세기부터 종성의 ‘ㅇ’이 ‘ㅇ’으로 표기되면서 ‘광대’도 표기가 변화했을 것이나 17세기에서 ‘광대’가 확인된다. (‘광대’)

나. 중세 국어의 종성 표기

- 소리대로 적는 표기법에 따라

☞ ‘8종성법에 따라’ 등과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예) “T-”은 소리대로 적는 표기법에 따라 ‘ㅈ-’으로 표기되었다. (‘바쁘다’)

예) ‘결맞다’는 소리대로 적는 표기법에 따라 적은 것이다. 현대 맞춤법에서 원형을 밝혀 적도록 하여 지금은 ‘결맞다’로 적는다. (‘결맞다’)

예) ‘돛자리’는 “돛자리”를 뜻하는 명사 ‘돛’에 ‘자리’가 결합한 것이다. ‘돛’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자리’와 결합하면서 소리대로 적는 표기법에 따라 ‘돛’이 되어 ‘돛자리’로 나타난 것이다. (‘돛자리’)

다. 종성 ㄷ과 ㅅ 표기의 혼동

- (16세기에) 종성 ‘ㄷ’과 ‘ㅅ’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된 (이후에 표기가 섞여 쓰이면서)

예) 18세기에 나타나는 ‘갑웁’은 16세기에 종성 ‘ㄷ’과 ‘ㅅ’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된 이후에 표기가 섞여 쓰이면서 나타난 것이다. (‘갑웁’)

예) ‘갓’의 옛말인 ‘갑’은 15세기부터 나타난다. 16세기에 종성 ‘ㄷ’과 ‘ㅅ’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된 이후에 17세기에는 종성의 ㄷ이 ㅅ으로 바뀐 ‘갓’이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이처럼 본래 ㄷ이었던 종성이 ㅅ으로 표기되다가 실제 소리까지도 ㅅ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갑>갓’의 변화도 이러한 예에 포함된다. (‘갓’)

라. ‘ㅅ, ㅈ, ㅊ’ 아래의 단모음이 이중 모음으로 표기되는 현상

- 근대 국어 시기에 ‘A’와 ‘B’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어 표기가 섞여 쓰인/쓰이면서

☞ 선대형이 이중 모음이었던 것과 단모음이었던 것을 구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선대형이 이중 모음이었던 것은 ‘단모음화’ 항목을 참조하여 기술하고, 선대형이 단모음이었던 것은 이 항목을 참조하여 기술한다.

예) 18세기에 나타나는 ‘그저’는 근대 국어 시기에 ‘저’와 ‘저’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어 표기가 섞여 쓰인 것이다. (‘그저’)

예) 19~20세기에 나타나는 ‘벗어나다’는 근대 국어 시기에 ‘서’와 ‘셔’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어 표기가 섞여 쓰이면서 나타난 것이다. (‘벗어나다’)

예) 19세기에 보이는 ‘술독’은 근대 국어 시기에 ‘수’와 ‘슈’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어 표기가 섞여 쓰이면서 나타난 것이다. (‘술독’)

마. 반모음 표기 이동

• C세기에 ‘A’는 ‘B’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A’와 ‘B’는 표기만 다를 뿐 실제 발음은 ([j]으로) 동일했다. 이는 반모음 ‘j’의 위치가 달리 나타난 표기일 뿐이다.

예) 15세기에 ‘개야미’는 ‘가야미’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개야미’와 ‘가야미’는 표기만 다를 뿐 실제 발음은 [kajami]로 동일했다. 이는 반모음 ‘j’의 위치가 달리 나타난 표기일 뿐이다. (‘개미’)

예) 17세기에 ‘가얌’은 ‘개암’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가얌’과 ‘개암’은 표기만 다를 뿐 실제 발음은 [kajam]으로 동일했다. 이는 반모음 ‘j’의 위치가 달리 나타난 표기일 뿐이다. (‘개암’)

예) 16세기에 ‘계우’는 ‘계유’, ‘겨유’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들은 표기만 다를 뿐 실제 발음은 [kjəju]로 동일했다. ‘계우’는 반모음 ‘j’가 제1음절에, ‘겨유’는 반모음 ‘j’가 제2음절에, ‘계유’는 반모음 ‘j’가 양쪽 음절에 모두 적힌 표기이다. (‘겨우’)

바. 연철/분철/중철 표기/ㄹㄹ 관련 표기

1) 연철 표기

예) 제3음절의 끝소리 ‘ㄹ’이 연철 표기되어 ‘광대싸리’로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광대싸리’)

예) ‘갈외’는 형태의 변화 없이 19세기까지 쓰였으며, 20세기 이후 연철 표기되어 ‘가뢰’로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가뢰’)

예) 18세기에 ‘글이다’와 함께 ‘그리다’가 공존하였는데 ‘그리다’는 2음절의 끝소리 ㄹ이 연철 표기된 것이다. (‘가리다’)

예) ‘막난이’의 제1음절 종성 ‘ㄱ’은 후행하는 ‘ㄴ’에 동화되어 19세기에는 ‘망난이’로 나타난다. 20세기 이후 연철 표기한 ‘망나니’로 나타나서 현재에 이르렀다. (‘망나니’)

예) 15세기에는 연철 표기가 일반적인데 ‘벌에’는 연철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2음절의 초성 ‘ㅇ’은 유성 후두 마찰음 [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벌레’)

2) 분철 표기

예) 이 시기에 함께 보이는 ‘그옥이’는 ‘그으기’를 분철 표기한 것이다. (‘그옥이’)

예) 16세기에는 분철 표기된 ‘글ᄇ샤디’도 나타난다. (‘가라사대’)

예) 19세기에 나타나는 ‘꽃썰이’는 제2음절 초성의 된소리를 ‘ㅅ’으로 표기하고 ‘부리’를 ‘불이’로 분철 표기한 것이다. (‘꽃부리’)

예) ‘다다거다’는 ‘다다’를 점차 ‘달아’로 분철 표기하게 되고 ‘걸-’의 종성 ‘ㄹ’이 탈락하지 않게 됨에 따라 ‘달아걸다’가 되었다. (‘달아걸다’)

3) 중철 표기

예) ‘갓탈’은 ‘가탈’을 중철 표기한 것이다. (‘가탈걸음’)

예) 17세기에 나타나는 ‘갓타-’는 ‘가타-’를 중철 표기한 것이고, 18세기에 나타나는 ‘갓치-’는 ‘가치-’를 중철 표기한 것이다. (‘갓히다’)

예) 18세기에 나타나는 ‘겁품’은 중철 표기이다. (‘거품’)

예) “갓추다”를 뜻하는 ‘갓초-’는 16세기 이후로 중철 표기된 ‘곤초-’, ‘긔초-’로도 나타난다. (‘갓추다’)

4) ‘ㄹㄹ/ㄹㄴ’ 표기

예) ‘그슬니다’는 근대 국어 시기에 ‘ㄹㄹ’을 ‘ㄹㄴ’으로 적던 경향에 의해 나타난 형태이다. (‘그슬리다’)

예) 18세기의 ‘걸니다’는 ‘ㄹㄹ’을 ‘ㄹㄴ’으로 적던 경향에 의해 나타난 형태이다. (‘걸리다’)

5) 재음소화 표기

예) 19세기의 ‘눈빛ㅎ’은 ‘ㅈ’을 ‘ㅅ’과 ‘ㅎ’으로 나누어 표기한 것이다. (‘눈빛’)

예) 18세기 이후 나타나는 ‘무릍ㅎ’는 ‘ㅍ’을 ‘ㅂ’과 ‘ㅎ’으로 나누어 표기한 것이다. (‘무릎’)

예) 이 시기 동안 ‘남넉’은 ‘남넉’의 제2음절 종성을 중철 표기한 ‘남넉ㄱ’, ‘ㄱ’을 ‘ㄱ’과 ‘ㅎ’으로 나누어 표기한 ‘남넉ㅎ’도 함께 나타나다가 20세기부터 ‘남넉’으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남넉’)

예) 16세기 이후 나타나는 ‘긔트-, 곤트-’는 중철 표기이고, ‘긔ㅎ-, 긔ㅎ-’는 ‘ㅌ’을 ‘ㄷ’ 또는 ‘ㅅ’과 ‘ㅎ’으로 나누어 표기한 것이다. (‘갈다’)

예) 한편 이 단어는 다양한 이표기를 보이고 있는데, “戀Á-”, ‘곱프-’와 같은 중철 표기의 예나, “捐a-”, ‘곱ㅎ-’와 같이 제2음절의 ‘ㅍ’을 ‘ㅂ’과 ‘ㅎ’으로 나누어 표기한 표기, ‘골푸-, 곱푸-, 고푸’와 같이 양순음 ‘ㅍ’ 아래에서 모음 ‘ㅡ’가 ‘ㄴ’으로 변하는 원순 모음화를 반영한 표기 등이 보인다.(‘고프다’)

예) 이외에도 16세기~20세기에 ‘긔트, 긔트, 긔트, 긔트’와 같이 중철 표기된 형태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긔트, 긔트’와 같은 어간의 말음이 ‘ㅈ’인 예들이 나타나기도 하며, ‘긔트, 긔트’와 같이 ‘ㅌ’을 ‘ㅅ’과 ‘ㅎ’으로 나누어 표기한 형태들도 나타난다. (‘끝’)

사. 과도 교정

- ‘A’를 구개음화를 겪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B’로 과도 교정하면서 ‘C’로 나타나게 되었다.

☞ 이번 사업에서는 방언 간의 우세 관계에 의한 현상만을 과도 교정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구개음화의 경우에 한하여서만 과도 교정으로 인정하며, 그 외의 경우는 과도 교정으로 기술하지 않는다.

예) ‘지’를 구개음화를 겪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기’로 과도 교정하면서 ‘기와’로 나타나게 되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기와’)

예) ‘가리키-’는 ‘가르치-’의 제3음절 ‘치’를 구개음화를 겪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기’로 과도 교정하면서 나타난 형태이다. (‘가리키다’)

1) 기존 집필 등에서 과도 교정으로 기술된 다음 예들은 표기상의 혼동이나 유추 등으로 기술한다.

예) 19세기에 치찰음 ‘ㅅ, ㅆ, ㅈ’ 뒤에 오는 ‘ㅡ’가 ‘ㅣ’로 변하는 전설 모음화에 유추되어 원래의 ‘ㅣ’를 ‘ㅡ’로 바꾼 어형인 ‘보습’이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보습’)

예) 16세기 이후로는 ‘그르-’의 제2음절 ‘ㅡ’가 ‘ㅛ’로 표기된 ‘그르-’도 나타난다. (‘그르다’)

예) 17세기부터는 ‘수리’의 제2음절 ‘ㄱ’이 ‘기’로 표기된 ‘수리’도 나타난다.(‘수레’)

예) 18세기부터 나타나는 ‘동히-’는 유성음과 모음 사이에서 ‘ㅎ’이 탈락하는 현상을 의식하여 ‘동이-’를 원래 ‘ㅎ’이 있는 형태로 이해하고 이를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동이다’)

예) 19세기에 보이는 ‘슈리’는 근대 국어 시기에 ‘수’와 ‘슈’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어 표기가 섞여 쓰이면서 나타난 것이다.(‘수리’)

예) ‘어연브-’, ‘어연부-’는 종성 ‘ㄷ’과 ‘ㅅ’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된 이후에 표기가 섞여 쓰이면서 나타난 형태이다.(‘예쁘다’)

예) 근대 국어 시기에 두음 법칙에 따라 모음 ‘ㅣ’나 반모음 ‘ㅣ’[j] 앞에 ‘ㄴ’이 올 수 없게 된 현상을 의식하여 18~19세기에는 ‘닐궂-, 닐궂-, 닐궂-’도 나타난다.(‘일궂다’)

18·19·20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거품’은 원순모음화의 역표기이고, 16세기~17세기에 나타나는 ‘거품’은 비어두 음절에서 ‘-’와 ‘-’가 구별되지 않음을 반영한 표기이다.

1) 18·19·20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거품’은 원순모음화의 역표기이고

→ 18세기에 나타나는 ‘거품’은 원순 모음화를 겪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과도 교정한 것이다. *과도 교정의 사례로 추가?

→ 18세기 이후로는 ‘거품’의 제2음절 ‘ㅈ’가 ‘-’로 표기된 ‘거품’도 나타난다. * 과도 교정으로 기술하지 말아야 할 사례로 추가?

아. 현대형 표기가 먼저 등장하고 선대형 표기가 뒤에 등장할 때

예) ‘꾸불꾸불’은 19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 20세기에 제1음절과 제3음절의 초성 ‘ㄱ’을 ‘ㅈ’으로 쓴 ‘쭈불쭈불’이 나타나는데, 이는 ‘ㄱ’의 된소리를 ‘ㅈ’으로 표기하는 옛 관습을 따른 것이다. (‘꾸불꾸불’)

예) ‘깍박깍박’은 19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20세기에 사용된 ‘깍박깍박’은 ‘ㄱ’의 된소리를 ‘ㅈ’으로 적는 옛 관습을 따름에 따라 나타난 표기이다. (‘깍박깍박’)

16.기술에 사용하는 표현과 부호 사용 등

가. 문자 사용

- 1) 원칙적으로 설명에서 한자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한자(현대 한자음)”의 방식으로 한자음을 밝힌다. 단, 한자 사용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한자가 처음 제시될 때만 제시한다.

예) ‘別世하다’는 한자어 **別世(별세)**와 현대어 ‘하다’로 이어지는 ‘-하-’가 결합한 것이다.

☞ 최초출현형에서 한글과 한자로 표기된 예가 같이 나타나서 한자를 제시할 때는 한글음을 () 안에 제시하지 않는다. 한글음이 표제어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2.2.4. ‘최초 출현형은 한자 표기와 한글 표기를 구별하여 기술한다’ 참조)

- 2) 다른 언어의 단어 등을 제시할 때는 다음의 기준을 따르되 국어와의 관계를 감안하면 발음을 밝힐 필요가 있을 때는 () 안에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음을 제시한다.

가) 일본어의 경우에는 일본어에서 사용하는 표기(한자, 히라카나 또는 가타카나)대로 제시한다.

나) 중국어의 경우는 한자를 제시할 때 꼭 밝혀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간체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로마자로 적는 서구어는 해당 언어의 표기대로 제시한다.

라) 기타 문자를 사용하는 언어의 경우에는 로마자로 제시한다.

예) '가방'은 일본어 'かばん(카반)'에서 온 말이다. 일본어 'かばん'의 어원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첫째, 여행 가방을 뜻하는 네덜란드어 'kabas'에서 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둘째, 중국어에서 유래했다고 보는데 '夾板(협판)'을 'キャパン(카판)'으로 읽은 데서 유래했다고 보기도 하고, '夾櫓(협란)'을 'キャパン(카판)' 또는 'キャマン(카만)'으로 읽은 데서 유래했다고 보기도 한다. 또한 프랑스어 'cabas'에서 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가방')

예) '돈가스'는 일본어에서 온 말이다. 일본어에서는 'とんかつ', 'とんカツ', 'トンカツ', '豚かつ' 등 여러 가지로 표기가 된다. 그렇지만 표기 방식만 다를 뿐 발음은 같다. '돈가스'에서 '가스'는 'かつれつ'(가쓰레쓰)가 줄어든 말로 'かつれつ'는 영어 'cutlet'(커틀릿) 또는 프랑스어 'côtelette'(코틀레트)에서 온 말로 보고 있다. ('돈가스')

- 3) 단어의 의미를 설명할 때는 동의어나 다른 말로 풀어서 기술하며 한자를 제시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예) '마르비'는 '마르[霧]+비[雨]'로 구성된 말이기 때문에

→ '마르비'는 안개를 뜻하는 '마르'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구성된 말이기 때문에

- 4) 한글은 한 음절로 입력이 가능한 경우에는 겹받침으로 적되 입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적는다.

예) '늪'은 입력이 가능하지만 '늪ㅇ'은 입력이 가능하지 않아 따로 적었다. '열ㅇ'도 한 음절로 입력할 수 없으므로 '열ㅇ'와 같이 적는다.

☞ '나라ㅎ'처럼 ㅎ 발음 체언의 경우 'ㅎ'은 따로 적는다.

나. 설명에서의 띄어쓰기

- 1) 띄어쓰기는 <우리말샘>의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한다.

가) <우리말샘>에서 '^'로 표시된 부분은 띄어 쓴다.

예)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이중^모음, 원순^모음화, 이^모음^역행^동화, 양성^모음

다. 부호의 사용

- 1) 책명 등을 표시할 때는 한글 맞춤법 부록 '문장 부호'에서 정한 '《, 》, 〈, 〉'을 사용한다.

예) 1957년에 완간된 《큰사전》에서 표준어로 올려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 저서나 사전류는 '《, 》'을 사용하고, 신문은 '〈, 〉'을 사용하여 인용한다.

- 2) 형태나 자모일 때는 ' ' , 뜻을 나타낼 때는 " "를 사용한다.

가) 설명에서 자음, 모음의 개별 음소를 제시할 때 ' '를 사용한다.

예) '·'가 'ㅏ'로 변하였다.

- 3) 의존 형태소인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를 표시한다. 단, 학교 문법에 따라 기술하므로 조사에는 '-'를 붙이지 않는다.

- 4) 문증되지 않는 형태인 경우에는 '*'를 사용하여 '*두을'과 같이 표시한다.

- 5) 여러 세기를 걸쳐 기술할 때는 '~'을 사용한다.

예) 18~19세기에 나타나는

가) 여러 세기에 걸쳐 기술하는 것은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 단순히 여러 세기에 걸쳐 나타나는 어형의 경우는 처음 나타나는 시기만 언급한다.

예) 18~20세기에 나타나는 ‘ㅇㅇ’은(X)

18세기에 나타나는 ‘ㅇㅇ’은(O)

나) 같이 언급해야 할 여러 어형이 여러 세기에 걸쳐 나타나면 ‘ㅇㅇ세기 이후’라고 하며, 하나의 어형이 특정 세기 이후 지속해서 나타남을 밝혀야 하는 경우라면 ‘ㅇㅇ세기부터’라고 한다.

예) 16세기 이후 나타나는 ‘곶ㅌ-, 곶ㅌ-’은 중철 표기이고, ‘곶ㅎ-, 곶ㅎ-’는 ‘ㅌ’을 ‘ㄷ’ 또는 ‘ㅅ’과 ‘ㅎ’으로 나누어 표기한 것이다. (‘갈다’)

☞ ‘곶ㅌ-, 곶ㅌ-, 곶ㅎ-’는 16세기부터 나타나고 ‘곶ㅎ-’는 17세기에만 나타남

라. ‘~세기’와 ‘~세기 문헌’

- 1) ‘~세기 문헌’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언어 현상을 설명할 때는 ‘중세 국어(예/에서), 15세기(예/에서)’ 등으로 표현한다. 단, 어떤 어형이 연대미상 문헌에서 최초로 출현한 경우, 연대미상이라 하더라도 ‘19세기경으로 추정되는 문헌’, 또는 ‘18~19세기로 추정되는 문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술한다.

예) 17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닷-’은 종성 ‘ㄷ’을 ‘ㅅ’으로 표기하던 당시의 경향에 따른 것이다.

→ 17세기의 ‘닷-’은 종성 ‘ㄷ’을 ‘ㅅ’으로 표기하던 당시의 경향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달다’)

예) 근대 국어 후기에 ‘자’와 ‘ㅈ’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면서 20세기 이후 ‘뒷자락’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뒷자락’)

예) 16세기에 종성 ‘ㄷ’과 ‘ㅅ’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면서 ‘멧’이 후행하는 ‘ㄴ’에 동화되어 20세기에 ‘면내다’가 나타나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면내다’)

예) 근대 국어 시기에 나타난 모음 ‘ㅣ’나 반모음 ‘ㅣ’[j] 앞의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로 인해 17세기에 ‘명지’로 나타난다. (‘명주’)

예) 근대 국어 시기에 나타난 모음 ‘ㅣ’나 반모음 ‘ㅣ’[j] 앞의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로 인해 18세기에 ‘뒤지-’가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뒤지다’)

예) 근대 국어 시기에 ‘ㅅ, ㅆ, ㅊ’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ㅣ’로 바뀌는 전설 모음화에 따라 ‘그르츠다’도 18세기에 ‘그르치다’가 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그르치다’)

예) ‘너력바위’는 19세기경으로 추정되는 문헌부터 ‘너력바위’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너력바위’)

마. 기타

- 1) 변화를 설명하면서 음절의 위치를 나타낼 때는 ‘제1음절, 제2음절, 제3음절...’이라고 표현한다.

- 2) ㅇ[ŋ] → ㅇ, ㅇ[ŋ]

☞ 그대로 자모 ‘ㅇ’만 써도 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ㅇ[ŋ]’을 써도 된다.

3) 반모음 'j'의 경우, IPA에 따라 'j'를 취하고 'y'를 버린다.

예) 16세기에 제1음절의 모음 'ㅈ' [aj]에서 반모음 'j' [j]가 탈락하여 '나중'이 되었다.('나중')

예) 15세기에 나타나는 '늑실'은 '늑실'의 'ㅣ' [aj]에서 반모음이 탈락한 형태이고('내일')

4) 비어두 음절 → 제2음절 이하

5) 어두 음절 → 제1음절

□ 부록 2: 기술 문장 사례

위치	기술 내용	기술 문장
2.2.최초 출현형	최초 출현형=현대 국어 어형, 다른 이형태 없음	'A'는 B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예) '나'는 15세기부터 '나'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2.2.최초 출현형	최초 출현형=현대 국어 어형, 다른 이형태 있음	'A'는 B세기부터 나타난다. 예) '거두다'는 15세기부터 나타난다. 예) '벗다'는 15세기부터 '벗다'와 '밧다'로 나타난다.
2.2.최초 출현형	최초 출현형≠현대 국어 어형	'A'의 옛말인 'B'는 'C'세기부터 나타난다. 예) '메밀'의 옛말인 '모밀'은 16세기부터 나타난다. 예) '깨'의 옛말인 '뻬, 켜'는 15세기부터 나타난다.
2.2.최초 출현형	'미상' 시기	예) '너력바위'는 19세기경으로 추정되는 문헌부터 '너력바위로'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2.2.최초 출현형	한자 표기가 한글 표기보다 먼저 나타남	'A'는 B세기에 한자로 표기된 'C'로 나타나고 D세기부터 한글로 표기된 'E'로 나타난다. 예) '별세하다'는 18세기에 한자로 표기된 '別世하다'로 나타나고 19세기부터 한글로 표기된 '별세하다'로 나타난다. 예) '갈건'은 15세기에 한자로 표기된 '葛巾'으로 나타나고 19세기부터 한글로 표기된 '갈건'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2.2.최초 출현형	한글 표기가 한자 표기보다 먼저 나타남	'A'는 B세기부터 한글로 표기된 'C'로 나타나고 D세기부터 한자로 표기된 'E'도 나타난다. 예) '기미'는 19세기부터 한글로 표기된 '기미'로 나타나고 20세기부터 한자로 표기된 '氣味'도 나타난다.
2.2.최초 출현형	한자 표기와 한글 표기가 같은 세기에 나타남	'A'는 B세기에서부터 한글로 표기된 'C'나 한자로 표기된 'D'가 나타난다. 예) '와사등'은 19세기에서부터 한글로 표기된 '와사등, 와스등'이나 한자로 표기된 '瓦斯燈'이 나타난다.
2.2.최초 출현형	한자어이지만 한글 표기만 나타남	"A'는 한자어 'B'를 한글로 표기한 것이다."를 덧붙인다. 예) '걸귀'는 19세기부터 '걸귀'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걸귀'는 한자어 '乞鬼'를 한글로 표기한 것이다.
2.2.최초 출현형	최초 출현형의 이형태 제시-용언	예) 가깝다: '가깝다'의 옛말인 '갓깝다'는 15세기부터 나타난다. '갓깝-'은 자음 어미 앞에서는 '갓깝-', 모음 어미 앞에서는 '갓갈-'으로 나타난다. 15세기 중반 이후 '빙'이 반모음 [w]로 변하여 '갓갈-'은 '갓가오-'로 나타나게 되어 '갓깝-/갓가오-'의 교체를 보이는 불규칙 용언이 되었다. 예) 밝다: '밝다'는 자음 어미 앞에서는 '뵤-'으로, 모음 어미 앞에서는 '뵤-'으로 나타난다. 15세기 중반 이후 '빙'이 반모음 [w]로 변하여 '뵤-'은 '뵤오-'로 나타나게 되어 '뵤-/뵤오-'의 교체를 보이는 불규칙 용언이 되었다. 18세기부터 자음 어미 앞에서만 나타났던 '뵤-'이 '뵤아', '뵤을'과 같이 모음 어미 앞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여 규칙 용언으로 바뀌게 되었다. 18세기에 보이는 '뵤을(뵤오-+-리), '뵤을(뵤우

		--리)은 이전 시기의 표기 방식이 남아 있는 것이다. 예) 붓다: ‘붓-’은 자음 어미 앞에서는 ‘붓-’, 모음 어미 앞에서는 ‘붓-’으로 나타난다. 16세기 이후 ‘△’이 소실되어 ‘붓-’이 ‘브-’로 나타나게 되어 ‘붓-/브-’의 교체를 보이는 불규칙 용언이 되었다. 예) 심다: ‘시므-’는 자음 어미 앞에서는 ‘시므-’, 모음 어미 앞에서는 ‘심-’으로 나타난다. 제1음절이 중성 모음인 ‘ㅣ’일 때는 어간의 제2음절이 음성 모음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양성 모음인 ‘ㅏ’가 나타난 ‘시ㅎ-’도 보인다. 19세기부터 자음 어미와 모음 어미 앞에 ‘심-’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예) 길다: ‘길-’은 15세기에는 ‘ㄴ, ㄷ, △’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기-’로 나타난다. 예) 길다: ‘길-’은 자음 어미 앞에서는 ‘길-’, 모음 어미 앞에서는 ‘길-’로 나타나 ‘길-/길-’의 교체를 보였다. 이러한 교체 양상 또한 15세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2.2.최초 출현형	최초 출현형의 이형태 제시-체언	예) 나모: 자음 조사 앞에서는 ‘나모’, 모음 조사 앞에서는 ‘냘’으로 나타난다. 예) 여우: 자음 조사 앞에서는 ‘여쑤’, 모음 조사 앞에서는 ‘엿ㅇ’으로 나타난다. 예) 숲: 자음 조사 앞에서는 ‘쑤’, 모음 조사 앞에서는 ‘쑤’으로 나타난다. 예) 망울: 모음 또는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에는 ‘몽을ㅎ’, 그 밖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단독으로 쓰일 때는 ‘몽을’로 나타난다.
2.3.최초 출현형 어원적 설명	형태적 구성에 대한 정보(형태소 2개 결합)	• ‘A’는 “B”를 뜻하는/뜻인 ‘C’와 “D”를 뜻하는/뜻인 ‘E’가 결합한 것이다. 예) ‘뚫쁘다’는 “뚫다”를 뜻하는 ‘뚫-’과 “사이가 벌어지다”를 뜻하는 ‘쁘-’가 결합한 것이다. 예) ‘근엿-’은 “끝”을 뜻하는 명사 ‘P’을 소리대로 표기한 ‘근’과 형용사 ‘엿-’이 결합한 것이다. ‘P’이 17세기에 제1음절 초성 ‘ㄱ’이 된소리화된 ‘쑤’이 나타나는 것처럼 ‘근엿-’도 18세기에 ‘쑤엿-’이 나타난다.
2.3.최초 출현형 어원적 설명	형태적 구성에 대한 정보(형태소 3개 이상 결합)	• ‘A’는 “B”를 뜻하는/뜻인 ‘C’와 ‘D’가 결합한 ‘E’에 “F”를 뜻하는/뜻인 ‘G’가 결합한 것이다. 예) ‘드리빠다’는 “들어가다” 혹은 “들어오다”를 뜻하는 ‘들-’과 접미사 ‘-이-’가 결합한 ‘드리-’에 “당기다”를 뜻하는 동사 ‘빠-’가 결합한 것이다. 예) ‘긱여가-’는 “기다”를 뜻하는 ‘긱-’와 반모음 ‘ㅣ’[j] 뒤에서 어미 ‘-여’를 소리대로 표기한 ‘-여’가 결합한 ‘긱여’에 동사 ‘가-’가 결합한 것이다. 예) ‘막난이’는 “바로 지금”을 뜻하는 ‘막’과 “태어나다”를 뜻하는 동사 ‘나-’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한 ‘막난’에 의존 명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2.3.최초 출현형 어원적 설명	관형사형 어미	예) ‘관솔’은 진이 많음을 뜻하는 형용사 ‘관-’과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한 ‘관’에 소나무를 뜻하는 명사 ‘솔’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다. 예) ‘작은아버지’는 ‘작은’과 ‘아버지’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다. 이때, ‘작은’은 형용사 ‘작-’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한 것이다.
2.3.최초 출현형 어원적 설명	ㅅ	예) ‘늙病’은 ‘늙’과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늙’에 한자어 ‘病(병)’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다.
2.3.최초 출현형 어원적 설명	한자어-한글 표기만 문헌에 나타남	• ‘한자어 ‘B’를 한글로 표기한 ‘C’ 예) ‘광패하다’는 한자어 ‘狂悖(광패)’를 한글로 표기한 ‘광패’에 현대어 ‘하다’로 이어지는 ‘-ㅎ-’가 결합한 것이다. 예) ‘글귀’의 옛말인 ‘긱구’는 16세기부터 나타난다. ‘긱구’는 명사 ‘글’

		과 관형격 조사 ‘스’이 결합한 ‘G’에 한자어 ‘匂(구)’를 한글로 표기한 ‘구’가 결합한 것인데, ‘스’ 앞에서 ‘르’이 탈락하여 나타난 형태이다.
2.3.최초 출현형 어원적 설명	한자어-한자 표기와 한글 표기가 문헌에 같이 나타남	• ‘A’는 한자어 ‘B’에 ‘C’가 결합한 것이다. 예) ‘別世ᄃᆞ다’는 한자어 ‘別世(별세)’에 현대어 ‘하다’로 이어지는 ‘-ᄃᆞ-’가 결합한 것이다. 예) ‘기망ᄃᆞ다’는 한자어 ‘欺罔(기망)’의 옛 표기인 ‘기망’에 현대어 ‘하다’로 이어지는 ‘-ᄃᆞ-’가 결합한 것이다. 예) ‘門툼’은 한자어 ‘門(문)’에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를 뜻하는 명사 ‘툼’이 결합한 것이다.
2.3.최초 출현형 어원적 설명	설명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 ~을 뜻하는 ‘A’ / ~라는 뜻인 ‘A’ / 현대어 ‘A’로 이어지는 ‘B’ •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 ‘A’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나 • 현대어 ‘하다’로 이어지는 ‘-ᄃᆞ-’ • 동사/형용사 ‘A’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한 ‘B’에 • ~을 뜻하는 접미사/접두사 ‘A’ • ~을 뜻하는 의태어/의성어 부사/어근 ‘A’ • 사동 접미사 ‘-이-’/‘-히-’/‘-오-’, 형용사 파생 접미사 ‘-ㅁ-’, 부사 파생 접미사 ‘-이’ • 관형격 조사 ‘스’, 보조 용언 ‘디-’, 연결 어미 ‘-아’, 연결 어미 ‘-어’, 의존 명사 ‘이’
2.3.최초 출현형 어원적 설명	다른 언어로부터 온 말	• ‘A’는 ㅇㅇ어로부터 들어온 말이다. 예) ‘갈지게’는 몽골어로부터 들어온 말이다.
2.4. 변화 단계 설명	중간에 어형 교체	예) 19세기까지 ‘광장이’만 나타나다가 20세기에 ‘광저기’가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광장이’가 ‘광저기’로 바뀐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2.4. 변화 단계 설명	언어 변화 시기 ≠ 문헌 출현 시기	예) 19세기에 자음 뒤에서 모음 ‘ㄴ’이 ‘ㄷ’로 바뀌는 현상에 따라 20세기에 ‘기망’이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기망’) 예) 18세기 이후 나타난 ‘ᄃᆞ’가 ‘ᄃᆞ’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ᄃᆞ’가 ‘자’로 변화였고, ‘글ᄃᆞ’의 ‘ᄃᆞ’도 이러한 변화를 겪어 19세기에 ‘글자’로 나타나게 되었다. (‘글자’)
2.6. 설명 마무리	현대어와 동일한 표기 등장	• 현재까지 이어진다. 예) 제3음절의 ‘ㄴ’이 ‘ㄷ’로 변하고 ‘스’가 ‘ㅁ’으로 변하여 ‘그저께’가 되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2.6. 설명 마무리	현대어 표기 미확인	• 20세기에 ‘A’가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예) 20세기에 ‘밤기운’이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예) 20세기에 ‘스’이 들어간 ‘꺄뭇’이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2.6. 설명 마무리	현대어와 동일한 표기가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고 맞춤법 규정에 의해 표기가 정리된 경우	• 현대 맞춤법에서 ‘A’(예, ‘저’)는 ‘B’(예, ‘저’)로 적기로 함에 따라 ‘B’로 표기하게 되었다. • 현대 맞춤법에서 원형을 밝혀 적도록 함에 따라 ‘A’로 표기하게 되었다. • 현대 맞춤법에서 소리대로 적도록 함에 따라 ‘A’로 표기하게 되었다. • 현대 맞춤법에서 된소리는 같은 글자를 반복하여 적도록 함에 따라 ‘A’로 표기하게 되었다. • 현대 맞춤법에서 부사 ‘-이’와 ‘-히’는 구별하여 적도록 함에 따라 ‘A’로 표기하게 되었다. • 현대 맞춤법에서 한자어는 두음 이외에는 본음대로 적도록 함에 따라 ‘A’로 표기하게 되었다.
2.6. 설명 마무리	20세기 전반기까지 여러 형태 사용된 경우	• 20세기까지 ‘A’, ‘B’, ‘C’ 등 여러 형태가 쓰였으나 ‘A’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 예) 20세기까지 “濱ᄃᆞ”, ‘미다’, ‘무이다’ 등 여러 형태가 쓰였으나 ‘미다’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
2.6. 설명	굳어진 시기가 명	예) 1936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서 표준어로 선택하여 현

마무리	확한 경우	재까지 이어진다. 예) 1988년 <표준어 규정>에서 새로 표준어로 인정하여 현재까지 이어진다. 예) 1957년에 완간된 《큰사전》에서 표준어로 올려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	-------	---

□ 부록 3: 현상 설명을 위한 표현 사례

유형	기술 문장
아래아 소실과 표기 변화	16세기 이후 나타난 제2음절 이하의 ‘ㆍ’가 ‘ㅡ’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으로 인해) 16세기 이후 나타난 제2음절 이하의 ‘ㆍ’가 ‘ㅡ’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ㅣ’도 ‘ㄴ’로 변하면서 18세기 이후 나타난 제1음절의 ‘ㆍ’가 ‘ㅏ’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으로 인해) 18세기 이후 나타난 제1음절의 ‘ㆍ’가 ‘ㅏ’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ㅣ’도 ‘ㅑ’로 변하면서
아래아 소실과 표기 변화	‘ㆍ’가 ‘ㅏ’로 표기된 ‘C’가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ㆍ’와 ‘ㅏ’가 표기에서 섞여 쓰이면서
어두 자음군	예) 17세기에 등장한 ‘츙술, 츙쌀’ 형태는 ‘쌀’의 초성인 어두 자음군 ‘ㅁ’[ps]에서 ㅂ이 앞 음절의 종성으로 이동한 것이다. 근대 국어 시기에 어두 자음군이 사라지고 된소리로 바뀌면서 ‘쌀’의 초성 역시 ‘ㅅ’의 된소리로 바뀌었으나 표기상으로는 19세기까지도 ‘쌀’과 함께 ‘쌀’의 예가 나타났다. 예) 15세기~17세기에는 ‘쓰-’와 함께 ‘스-’가 공존하였는데, 이는 1465년 《원각경언해》 간행 때부터 ‘ㅅ’을 표기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근대 국어 후기에 ‘ㅅ’을 ‘ㅈ’으로 적게 되는 경향에 따라, 19세기에 ‘꿀꿀’이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어두 경음화	‘A’의 제1음절 초성 ‘B’가 된소리화된 ‘C’가 나타난다.
△ 소실	16세기 이후 (‘A’의) ‘△’이 소실되어
병> [w]	(15세기 중반 이후) ‘병’이 반모음 [w]로 변하여
병 소실	(15세기 중반 이후) ‘병’이 사라지면서
ㄷ 구개음화	(근대 국어 시기에 나타난 모음 ‘ㅣ’나 반모음 ‘ㅣ’[j] 앞에서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에 따라/로 인해)
ㄱ 구개음화	17세기 이후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ㅣ’모음이나 반모음 ‘ㅣ’[j] 앞에서 ‘ㄱ, ㅋ, ㆁ’이 ‘ㅈ, ㅊ, ㆁ’으로 바뀌는 ㄱ 구개음화(에 따라/로 인해) ‘ㅇㅇ’으로 바뀌었다.
ㅎ 구개음화	모음 ‘ㅣ’나 반모음 ‘ㅣ’[j] 앞에서 ‘ㅎ’이 ‘ㅈ’으로 바뀌는 ㅎ 구개음화(에 따라/로 인해)
ㅣ 역행 동화	18세기에 모음 ‘ㅏ, ㅑ, ㅓ’가 뒤따르는 ‘ㅣ’모음의 영향으로 ‘ㅣ, ㅑ, ㅓ’가 되는 ‘ㅣ’ 역행 동화(에 따라/로 인해)
원순 모음화	근대 국어 시기에 양순음 ‘ㅁ, ㅂ, ㅍ, ㅃ’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ㅜ’로 변하는 원순 모음화(에 따라/로 인해)
전설 모음화	(근대 국어 후기에/19세기에) ‘ㅅ, ㅈ, ㅊ’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ㅣ’로 바뀌는 전설 모음화(에 따라/로 인해)
이중 모음의 단모음화: 의>이	(근대 국어 후기에/19세기에) 자음 뒤에서 모음 ‘ㅣ’가 ‘ㅣ’로 바뀌는 현상(에 따라/으로 인해)
이중 모음의 단모음화: ㅑ, ㅓ	- 근대 국어 시기에 이중 모음 ‘ㅑ’[aj]가 [e]로 단모음화하여 - 근대 국어 시기에 이중 모음 ‘ㅓ’[ej]가 [e]로 단모음화하여
이중 모음의 단모음화: ㅕ, ㅖ, ㅗ, ㅛ	근대 국어 시기에 ‘ㅅ, ㅈ, ㅊ’ 아래에서 이중 모음 ‘ㅕ, ㅖ, ㅗ, ㅛ’가 ‘ㅕ, ㅖ, ㅗ, ㅛ’로 단모음화하는 현상에 따라

ㅏ → ㅑ	• 근대 국어 시기에 양성 모음 ‘ㅏ’가 음성 모음 ‘ㅑ’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로 인해) ㅐㅓ세기에 ‘ㅐㅓ’로 나타난다.
ㄱ의 유성 후두 마찰음화	• (‘A’ 뒤에서) ‘ㄱ’이 약화되어 유성 후두 마찰음 ‘ㅇ’[h]으로
유성 후두 마찰음 소실	• 유성 후두 마찰음 ‘ㅇ’[h]이 사라지면서
ㅎ의 약화	• (근대 국어 시기에) 1) ‘ㄴ’과 모음 사이에서 2) ‘ㄹ’과 모음 사이에서 3)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ㅎ’이 탈락하는 현상에 따라
니>이	• 근대 국어 시기에 두음 법칙에 따라 모음 ‘ㅣ’나 반모음 ‘ㅣ’[j] 앞에 ‘ㄴ’이 올 수 없게 되어 예) ‘딕히다’의 ‘ㄱ’과 ‘ㅎ’이 축약되어 ‘ㅋ’으로 표기된 ‘디”다’가 나타나고 예) 20세기에 ‘가음’이 한 음절로 축약된 ‘감’으로 나타나 예) 18세기에 ‘개야미’의 제1음절과 제2음절이 축약된 ‘개미’가 나타나
종성 ㅇ 표기의 변화	• 16세기부터 종성의 ‘ㅇ’이 ‘ㅇ’으로 표기되면서
중세 국어의 종성 표기	• 소리대로 적는 표기법에 따라
종성 ㄷ과 ㅅ 표기의 혼동	• (16세기에) 종성 ‘ㄷ’과 ‘ㅅ’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된 (이후에 표기가 섞여 쓰 이면서)
‘ㅅ, ㅈ, ㅊ’ 아래 단모음→이중 모음	• 근대 국어 시기에 ‘A’와 ‘B’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어 표기가 섞여 쓰인/쓰 이면서 예) 19세기에 보이는 ‘술독’은 근대 국어 시기에 ‘수’와 ‘슈’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 게 되어 표기가 섞여 쓰이면서 나타난 것이다.
반모음 표기 이동	• C세기에 ‘A’는 ‘B’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A’와 ‘B’는 표기만 다를 뿐 실제 발음 은 ([j]으로) 동일했다. 이는 반모음 ‘ㅣ’[j]의 위치가 달리 나타난 표기일 뿐이다.
연철/분철/중철 표 기	• 연철/분철/중철 표기/표기한/표기된/표기되어 예) 제3음절의 끝소리 ‘ㄹ’이 연철 표기되어, 2음절의 끝소리 ㄹ이 연철 표기된 것 이다. 분철 표기한 것이다. 중철 표기이다
‘ㄹㄹ/ㄹㄴ’ 표기	• (근대 국어 시기에) ‘ㄹㄹ’을 ‘ㄹㄴ’으로 적던 경향에 의해 예) ‘그슬니다’는 근대 국어 시기에 ‘ㄹㄹ’을 ‘ㄹㄴ’으로 적던 경향에 의해 나타난 형태이다.
재음소화 표기	• ‘A’를 ‘B’와 ‘C’로 나누어 표기한 예) 19세기의 ‘눈빛ㅎ’은 ‘ㅈ’을 ‘ㅅ’과 ‘ㅎ’으로 나누어 표기한 것이다.
과도 교정	• ‘A’를 구개음화를 겪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B’로 과도 교정하면서 ‘C’로 나타 나게 되었다.

□ 부록 4: 집필 예시

17. 들뜨다

형태· 표 기 변화	16,17 세기 : 들뽀다 17 세기 : 들뜨다 20 세기 : 들뜨다
언 어 내 적 정보	‘들뜨다’의 옛말인 ‘들뽀다’는 16세기부터 나타난다. ‘들뽀-’는 “뽀다”를 뜻하는 ‘뽀-’ 과 “사이가 벌어지다”를 뜻하는 ‘뽀-’가 결합한 것이다. 근대 국어 시기에 어두 자음군이 사라지고 된소리로 바뀌면서 ‘뽀’의 초성 역시 ‘ㅅ’의 된소리로 바뀌고, ‘들뽀다’의 종성 ‘ㄹ뽀’에서 ‘뽀’이 탈락함에 따라 17세기에는 ‘들뜨-’로 나타난다. 20세기 이후

	된소리 표기 ‘ㄷ’이 ‘ㅌ’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들뜨-’로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18세기의 ‘들뜨-’는 ‘들쁘-’의 된소리 표기 ‘ㅌ’을 ‘ㄷ’으로 바꾼 것이다. 같은 시기의 ‘들드-’는 ‘들뜨-’ 혹은 ‘들쁘-’의 제2음절 초성을 예사소리 ‘ㄷ’으로 표기한 것이다.
언어 외적 정보	
기타 어원 설명	
세 기 별 용례	의미: 16세기: (들쁘-) 들쁘디 아니타 《1517 노박집람 단자해:3ㄴ》 현대어역 : 들뜨지 않다 17세기: (들쁘-, 들뜨-) 여러 번 비를 마즈면 다 들쁠 양이로다 《1677 박통사언해 중:25ㄴ》 원문 : 著了幾遍雨時、都走了樣子 현대어역 : 여러 번 비를 맞으면 다 들뜬 모습이구나 李大의 갓이 모양이 곱고 들쁘디 아니케 민드랏고 《1677 박통사언해 중:26ㄴ》 원문 : 李大的帽兒樣可喜, 不走作 현대어역 : 이대(李大)의 갓이 모양이 곱고 들뜨지 않게 만들었고 들떠 너르며 크고 머리 업슨니는 그 지막이 상흠이니 《17세기 마경초집언해 하:101ㄱ》 원문 : 浮而洪大無頭者는 傷其膜이니 현대어역 : 들떠 넓으며 크고 머리 없는 것은 그 지막이 상한 것이니 18세기: (들뜨-, 들드-) 湯水和 酒醋를 써 그 屍의 우희 덮흐면 손상흔 곳은 들뜬 갓치 만히 희고 《1790년대 증수무원록언해 1:35ㄴ》 원문 : 用湯水酒醋하야 罨着其屍上하면 損處는 浮皮多白하고 현대어역 : 탕수(湯水)와 주초(酒醋)를 써 그 주검 위에 덮으면 손상된 곳은 들뜬 가죽이 많이 희어지고 暑時에 덮흐면 갓치 좃무르고 들더 희여디니 《1790년대 증수무원록언해 1:36ㄱ》 원문 : 暑時에 罨則皮爛浮白하니 현대어역 : 서시(暑時)에 덮으면 가죽이 짓무르고 들떠 하얘지니 19세기: (들뜨-) 들뜨다 《1880 한불자전:481》 20세기: (들뜨-, 들뜨-) 허풍에 들떠서 분주히 지나가되 《1904 신학월보 4:291》 현대어역 : 허풍에 들떠서 분주히 지나가되 아즉 유치한 보통학교 아동으로서 공연히 풍조에 들떠 가지고 <1923 동아일보 5월 13일 3면>
이 형 태 / 이 표	들쁘-, 들뜨-, 들쁘-, 들드-, 들뜨-

18. 깨

형태·표기 변화	15,16,17 세기 : 깨 15,16,17,18,19,20 세기 : 깨 19,20 세기 : 깨
언어 내적 정보	‘깨’의 옛말인 ‘뻬, 깨’는 15세기부터 나타난다. 단독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16세기부터지만, ‘뻬’가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복합어를 이루는 구성이 15세기부터 확인된다. 18세기 이후부터는 주로 ‘깨’로 나타난다. 18세기에 나타나는 ‘씨’는 ‘ㅅ’와 ‘ㅞ’가 표기에서 섞여 쓰이면서 나타난 표기이다. 19세기에 된소리 표기가 ‘ㅅ’에서 ‘ㅈ’으로 바뀌어 ‘깨’로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언어 외적 정보	
기타 어원 설명	
세기 별 용례	의미: 15세기: (뻬, 깨) 새 {참뻬} 서 흡과 ≪1489 구급간이방 1:11 ㄱ-ㄴ≫ 원문 : 胡麻【{참뻬} 三合新者】 현대어역 : 새 참깨 세 흡과 {참뻬를} 붓가 므르거든 ㄱ라 등잔 기름에 므라 불로디 ≪1489 구급간이방 7:80 ㄱ≫ 원문 : 芝麻참뻬炒焦研如泥燈盞調塗 현대어역 : 참깨를 볶아 마르거든 갈아서 등잔 기름에 말아 바르되 蘇油는 {두리새} 기르미라 ≪1459 월인석보 10:120 ㄱ≫ 현대어역 : 소유(蘇油)는 들깨 기름이다 16세기: (뻬, 깨) 蘇 초소기 소 俗呼紫蘇又{들뻬} ≪1527 훈몽자회 상:8 ㄱ≫ 원문 : 蘇 차조기 소. 민간에서 자소(紫蘇)를 또한 들뻬라고 부른다. 或呼蘇子其油曰重油又{참새} ≪1527 훈몽자회 상:7 ㄱ≫ 현대어역 : 혹은 차조기의 씨[蘇子]의 기름을 중유(重油) 또는 참새라고 부른다. {뻬} 닐굽 말 빅미 단 마리라 ≪16세기 말 순천김씨묘출토연간 98≫ 원문 : 깨 일굽 말 백미 단 말이다 17세기: (뻬, 깨) 荏子 {들뻬} ≪1613 동의보감탕액편 2:34 ㄱ≫ 胡麻油 거든 {참뻬} 기름 ≪1613 동의보감탕액편 1:20 ㄴ≫ 현대어역 : 胡麻油 검은 참깨 기름 {참새} 므틴 쇼병과 ≪1677 박통사언해 하:33 ㄱ≫ 원문 : 芝麻燒餅 현대어역 : 참깨 문힌 소병과

18세기: (깨, 쪼)

芝麻 {참깨} ≪1748 동문유해 하:3ㄱ≫

蘇子 {들깨} ≪1748 동문유해 하:3ㄱ≫

{참깨} 무친 燒餅과 ≪1765 박통사신석언해 3:36ㄱ≫

원문 : 芝麻燒餅

현대어역 : 참깨 문힌 소병과

{깨} 속읏 기름이 흠 속에 스'ㅈ㉠ 드러 곳 人形이 되디 ≪1790년대 증수무원록언해 3:94ㄴ≫

원문 : 麻內之油 沁入土中하야 卽成人形호디

현대어역 : 깨 속의 기름이 흠 속에 스며들어 사람의 형상이 되되

거른 {쪼}를 석거시며 반찬 담은 칠흔 그릇 전혀 중의 풍속이라 우스오나 ≪1764년 이후 일동장유가 2:29ㄴ≫

현대어역 : 검은 깨를 섞었으며 반찬 담은 칠한 그릇은 모두 중의 풍속이라 우습지만

19세기: (깨, 깨, 쪼)

荳 {깨} 잎 ≪1896 국한회어 곤:15≫

{들깨} 水荳 ≪1896 국한회어 곤:87≫

{참쪼을} 물에 반 일만 다마 부부여 보아 허물이 벗거든 속고리에 건져 절구에 붓고 실현 {쪼을} 체에 ㄷ마 ㅎ로밤 지와 ≪1869 규합총서 16ㄱ≫

현대어역 : 참깨를 물에 반 일만 담아 비벼 보아 허물이 벗겨졌거든 소쿠리에 건져 절구에 붓고 실한 깨를 체에 담아 하룻밤 재워

20세기: (깨, 켜, 깨)

이러케 {참깨} 갓흔 글시도 읽을 슈 잇습논잇가 ≪1908 설중매 26≫

현대어역 : 이렇게 참깨 같은 글씨도 읽을 수 있습니까

麻 {참깨} 마 삼 마 ≪1913 부별천자문 23ㄱ≫

荳 {쪼} 잎 ≪1918 초학요선 85≫

양털통 속에다 {들깨를} 잔득 늦코 <1924 동아일보 2월 18일 2면>

누님과 어머니는 東山(동산)에 훗이불을 펴고 {깨를} 떨엇다 <1934 동아일보 11월 6일 3면>

이
형
태
/
이
표
기

깨, 깨, 쪼, 켜, 깨

19. 겹다

형태·
표 기
변화

15,16,17,19,20세기: 계우다

15세기: 계오다

20세기: 겹다

언 어
내 적
정보

‘겹다’의 옛말인 ‘계우다, 계오다’는 15세기부터 나타난다. 현대 국어에서 ‘겹다’의 활용형으로 주로 쓰이는 ‘겨워’, ‘겨우니’와 15세기 국어의 ‘계워’, ‘계우니’의 활용형이

	기본적으로 같으므로 어간이 ‘계우->겨우-’와 같이 달라진 것이다. ‘계우-’나 ‘계오-’는 현대 국어 ‘겹다’와의 관련성을 생각하여 보면 ‘병’을 끝소리로 하는 어간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병’을 끝소리로 하는 어간이라면 15세기에는 자음 어미 앞에서는 ‘겹-’, 모음 어미 앞에서는 ‘계우-’ 또는 ‘계오-’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런데 15세기에서 자음 어미 앞에 쓰인 예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어간이 ‘겹-’이었는지 알 수 없다. 19세기에 ‘겨우-’가 나타나고 20세기에 ‘겹-’이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언어 외적 정보	
기타 어원 설명	
세 기 별 용례	의미: 15세기: (계우-, 계오-) 藥이 하늘 {계우니} 아바님 지ᄃᆞ신 일흠 엇더ᄃᆞ시니 ≪1447 용비어천가 9:43ㄱ≫ 현대어역 : 약이 하늘의 뜻을 못 이기니 아버님 지으신 이름이 어떠하십니까 원문: 厥考所名 果如何焉 調達인 곁갈을 밧고 五逆 ㅁ슴을 {계와} 阿鼻地獄애 드러가니 ≪1447 월인천강지곡 상:47ㄴ≫ 현대어역 : 조달이는 곁갈을 밧고 오역의 마음을 못 이겨 아비지옥에 들어가니 탐탁ᄃᆞ 婆羅門이 제 가술 {계와} 太子스ᄃᆞ 나사오습ᄃᆞ니 ≪1459 월인석보 20:46ㄴ≫ 현대어역 : 탐탁한 바라문이 제 여인을 못 이겨 태자께 나아오시니 16세기: (계우-) 엇디 상네 사름미 성 {계워} 죠고맛 측호매 즉재 불로를 내며 ≪1518 정속언해 26ㄴ≫ 현대어역 : 어찌 항상 사람이 성질을 못 이겨 조그만 섭섭함에 즉시 화를 내며 제 미련ᄃᆞ 일란 헤디 'ㅁᄃᆞ고 자내를 {계워} ᄃᄃᆞ ≪16세기말 순천김씨묘출토언간 161≫ 현대어역 : 제 미련한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를 못 이겨 하데. 17세기: (계우-) 三春의 興을 {계워} 徒步 上京ᄃᆞ야 ≪1639 위군위친통곡가 19ㄱ≫ 현대어역 : 삼춘의 흥을 못 이겨 도보로 상경하여 기운이 곤ᄃᆞ야 조오름 {계워} ᄃᄃ 작시면 ≪17세기후기 두창경험방 66ㄱ≫ 원문 : 亦有之氣困而耽睡者 현대어역 : 기운이 곤하여 졸음 못 이겨 할 적이면 입때에 ᄃᄃ 조오름을 {계워} 불러도 디답 아니ᄃᆞ고 ≪17세기후기 두창경험방 66ㄴ≫ 현대어역 : 이때에 ᄃᄃ 졸음을 못 이겨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19세기: (계우-, 겨우-) 夕陽에 자나는 객이 눈물 {계워} ᄃᄃ노라 ≪1876 가곡원류 38≫ 현대어역 :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 겨워 하노라 미양 제 힘에 {겨운} 고로 사름마다 제 던디가 만ᄃᆞ니 ≪1899 경향신문 10월 19일 1면≫ 현대어역 : 매번 제 힘에 겨운 고로 사람마다 제 전지가 많으니

	20세기: (계우-, 겨우-, 겁-) 동정호로 들어갈 제 석양에 취흥을 {계워} 도도이 노리허미 <1903 토끼전 25> 현대어역 : 동정호로 들어갈 적에 석양에 취흥에 겨워 도도히 노래하매 각식 새는 흥을 {겨워} 노래하는도다 <1903 신학월보 3:142> 현대어역 : 각색 새는 흥에 겨워 노래하는도다 겁다 <1940 조선어사전>
이 태 / 이 표 기	계우-, 계오-, 겨우-, 겁-

20. 끝장

변화 정보

형태· 표 기 변화	20 세기 : 끝장 19 세기 : 쫓장
언 어 내 적 정보	‘끝장’의 옛말인 ‘쫓장’은 19세기부터 나타난다. ‘쫓장’은 "끝"을 뜻하는 명사 ‘쫓’과 ‘장’이 결합한 것이다. 20세기에 원형을 밝혀 적은 ‘끝장’이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언 어 외 적 정보	
기 타 어 원 설명	‘쫓장’의 ‘장(場)’은 "상황" 또는 "장면"을 뜻하는 한자어 ‘장(場)’일 가능성도 있다. ‘場’의 음은 역사적으로 ‘당>장>장’의 변화를 겪었는데, ‘쫓장’에서 이 ‘장’이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세 기 별 용 례	의미: 19세기: (쫓장) {쫓장} 보다 <1896 국한회어 곧:48> 원문 : 끝장 보다 20세기: (쫓장, 끝장, 쫓장) 엇재든지 지금 와서는 {쫓장을} 내갠다 <1924 동아일보 1월 3일 1면> 昌慶苑 꽃놀이도 {끝장을} 보앗스니 인제는 獎忠壇 숲 놀이? <1932 동아일보 5월 3일 1면> 에그 지긋지긋한 세상! 날만 새면 {쫓장이} 나눈고나. <1936 조선일보 3월 19일 5면>
이 태 / 이 표 기	쫓장, 쫓장, 끝장, 쫓장

부가 정보

관 련 어	끝
참 고 문헌	

21. 어리다

형태·표기변화	15,16,17,18,19,20 세기 :어리다
언어내적정보	‘어리다’는 15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어리-’는 15세기 국어와 똑같은 형태가 현재까지 쓰이고 있으나 의미는 변하였다. 즉 15세기에는 “어리석다”의 의미로 쓰인 예만 나타나는데 16세기 이후에는 “나이가 적다”의 의미로 쓰인 예도 나타난다. 이 두 의미로 쓰인 예는 19세기까지 보인다. 현재의 ‘어리-’는 “어리석다”의 의미로는 쓰이지 않고 “나이가 어리다”의 의미로만 쓰인다. 18세기 이후 분철 표기 경향이 심해짐에 따라 ‘얼이다’라는 표기가 나타나기도 했다.
언어외적정보	
기타어원설명	
세기별용례	의미: 어리석다 15세기: (어리-) 長者ㅣ 아드리 {어리고} 좁고 사오나와 내 말 믿티 아니흐며 ≪1463 법화경언해 2:240ㄴ≫ 원문 : 長者 知子の 愚癡狹劣호야 不信我言호며 현대어역 : 장자의 아들이 어리석고 좁고 열등하여 내 말 믿지 않으며 天王釋이 닐오디 그딕 7장 {어리도다} ≪1459 월인석보 20:116ㄴ≫ 현대어역 : 천왕석이 말하기를, “그대 아주 어리석구나.” 네 이 사록물 보라 {어리녀} 슬가오녀 ≪1462 능엄경언해 4:36ㄱ≫ 원문 : 汝 觀是人호라 爲愚아 爲慧아 현대어역 : 너, 이 사람을 보라. 어리석냐, 슬기로우냐? 16세기: (어리-) 제 걱질리 총명호니도 글 비호디 아니티 '口홀 거시며 {어리고} 사오나온 놈도 혼 지

죄나 아니티 '口홀 거시라 <1518 정속언해 7ㄴ>

현대어역 : 제 기질이 총명한 자도 글 배우지 않지 못할 것이며, 어리석고 덜떨어지는 사람도 한 재주를 배우지 않지 못할 것이다.

{어린} 시절레 煩惱하나 아는 ㅁ속몬 번뇌 아니며 ㅁ속 안 시절레 神變하나 아는 ㅁ속몬 신변 아니니 <1522 법집별행록 8ㄴ-9ㄱ>

원문 : 迷時에 煩惱나 知는 非煩惱며 悟時에 神變이나 知는 非神變이니

현대어역 : 어리석은 시절에 번뇌하나 아는 마음은 번뇌 아니며 깨달은 시절에 신변하나 아는 마음은 신변 아니니

17세기: (어리-)

麻藥 사름 먹여 {어리게} ㅎ는 약 <1690 역어유해 하:48ㄱ>

현대어역 : 마약: 사람에게 먹여 어리석게 하는 약

18세기: (어리-)

ㅁ을 사름이 다 그 {어리물} 비웃더라 <1758 종덕신편언해 중:44ㄱ>

원문 : 鄉人嗤其愚逮

현대어역 : 마을 사람이 다 그 어리석음을 비웃더라.

{어린} 계집의 禍를 惹히야 몸의 臨ㅎ를 비호디 말올찌니라 <1736 여사서언해 2:21ㄴ-22ㄱ>

원문 : 莫學愚婦의 惹禍臨身이니라

현대어역 : 어리석은 여자의 화를 이끌어 몸의 임함을 배우지 말 것이다.

19세기: (어리-)

이 약 쓸 줄을 아지 못ㅎ느뇨 {어리도다} <1890년대 성경직해 2:15ㄴ>

현대어역 : 이 약 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리석구나.

의미:

나이가 적다

16세기: (어리-)

{어린} 제 길로미 단정티 아니히고 쯔라 더욱 부탕되며 사치히야 <1588 소학언해 1:제사 3ㄴ-4ㄱ>

원문 : 蒙養弗端하고 長益浮靡히야

현대어역 : 어릴 때 기른 것이 단정치 않고 자라 더욱 진실이 없고 사치하여

17세기: (어리-)

형유왜란의 {어린} ㅁ식 데리고 집 뒤히 수밧더니 도적이 와 범코져 ㅎ거늘 <1617 동국신속 삼강열녀도 8:32ㄴ>

원문 : 丁酉倭亂率稚子隱于家後 賊至欲犯之

현대어역 : 정유왜란에 어린 자식 데리고 집 뒤에 숨어 있더니, 도적이 와 범하고자 하거늘

시러곰 다시 아히며 {어리다} 니르디 '口홀디니라 <1632 가례언해 2:27ㄱ>

원문 : 不得復言童幼矣니라

현대어역 : 다시 아이며 어리다 말하지 못할 것이니라.

18세기: (어리-)

웃 굴으디 아니라 내 魯君이 늙고 太부 {어리물} 근심ㅎ노라 <1736 여사서언해 4:58>

ㄴ 》

현대어역 : 여인이 말하되, 아니다. 내 노균이 늙고 태자가 어림을 근심하노라.

아으는 나히 {어리고} 부되 스랑히시고 또 당가 못 드러시니 <1797 오륜행실도 4형 제도종족도:15ㄴ 》

원문 : 弟年幼 父母所憐愍 又未聘娶

현대어역 : 아우는 나이 어리고 부모가 사랑하시고 또 장가 못 들었으니

19세기: (어리-, 얼이-)

아위 나히 {어리고} 또 조식 업스니 <1852 태상감응편도설언해 4:44 ㄱ 》

원문 : 弟未有子

현대어역 : 아우가 나이 어리고 또 자식이 없으니

대더 사름마다 무론 남녀로소하고 권리가 잇서 외국 사름들은 {어린} 으히라도 제 권리를 제가 능히 차즈되 대한에서는 사름마다 제 권리를 놈의게 빼앗긴다더니 <1898 협성회회보 4월 2일 53면>

현대어역 : 대저 사름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권리가 있어 외국 사름들은 어린 아이라도 제 권리를 스스로 찾되 대한에서는 사름마다 자기 권리를 남에게 빼앗긴다더니

못 사름이 비불우게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날굽 광지에 치우니 먹은 자 녀인과 {얼인} 것 외에 사천 인이다라 <1887 예수성교전서 45>

현대어역 : 못 사름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일곱 바구니에 채우니 먹은 자, 여인과 어린 것 외에 사천 인이더라.

20세기: (어리-, 얼이-)

빌네셋 사람이 # 돌러 보다가 # 짜윗을 보고 # 그를 업수이 녀임은 그가 {어리고} 암전하며 # 고흔 얼굴임이니라 <1903 신학월보 3:452>

현대어역 : 빌네셋 사람이 돌러 보다가 다윗을 보고 그를 업신여김은 그가 어리고 암전하며 고운 얼굴임이니라

즉시 후회히시되 {얼인} 아히를 속이는 법을 가르쳤다 하고 그 고기를 사다가 먹이신 일이 잇고 <1910 자유종>

현대어역 : 즉시 후회하시되 어린 아이를 속이는 법을 가르쳤다 하고 그 고기를 사다가 먹이신 일이 잇고

오냐 나도먹으려니와 너도어서 먹어라 {어린} 것이 비가 좀 곱흐겠느냐 <1911 모란 병>

현대어역 : 오냐, 나도 먹으려니와 너도 어서 먹어라. 어린 것이 배가 좀 곱프겠느냐.

이형태
/ 이표
기

어리-, 얼이-

22. 벋다

형 태 ·
표 기 변

15,16,17,18,19,20 세기: 벋다

화	15,16,17 세기: 밧다
언어 내적 정보	‘밧다’는 15세기부터 ‘벗다’와 ‘밧다’로 나타난다. ‘벗-’은 추상 명사를 목적어로 하고 ‘밧-’은 구체 명사를 목적어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16세기 이후 이런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벗-’과 ‘밧-’이 함께 쓰였는데, 근대 국어 시기에 ‘밧-’이 소멸된 후 ‘벗-’만이 남아 현재까지 이어진다. 16~17세기에 나타나는 ‘받-’과 ‘번-’은 16세기에 종성 ‘ㄷ’과 ‘ㅅ’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된 이후에 표기가 섞여 쓰이면서 나타난 표기이다. 19~20세기에 나타나는 ‘벗스-’은 중철 표기이다.
언어 외적 정보	
기타 어원 설명	
세기별 용례	의미: 15세기: (벗-, 밧-) 드틀와 삐왓 시르믈 {벗고져} 헝시는 전치라 ≪1447 석보상절 20:12ㄱ≫ 현대어역 : 티끌과 때의 걱정을 벗고자 하시는 까닭이다. 옷 {바순} 사르미 옷 어둡 곧ㅎ며 ≪1447 석보상절 20:24ㄴ≫ 현대어역 : 옷을 벗은 사람이 옷을 얻음과 같으며 닐?닐 {벗고} 새예 갈씨니 ≪1461 능엄경언해 7:83ㄴ≫ 원문 : 脫故趣新也 니 현대어역 : 낡은 것을 벗고 새것으로 가는 것이니 16세기: (밧-, 벗-, 받-) 도즈기 노ㅎ야 갈 싸야 옷 {바스라} 꾸지즌대 ≪1514 속삼강행실도 충신도:1ㄱ≫ 원문 : 賊怒。援刀叱解衣。 현대어역 : 도적이 노하여 칼을 빼어 옷을 벗으라고 꾸짖으니 가난ㅎ고 궁박ㅎ여 옷 {벗고} 밧 {머서} 고공 돈녀 써 어미를 공양호디 ≪1588 소학언해 6:18ㄴ-19ㄱ≫ 원문 : 貧窮裸跣ㅎ야 行傭以供母호디 현대어역 : 가난하고 궁박하여 옷을 벗고 밧을 벗어 고공을 다녀서 어머니를 공양하되 거상 {밧고} 분몯 겨퉁 손지 사더니 ≪1579 삼강행실도 동경대본 효자도:25ㄱ≫ 현대어역 : 거(居喪)을 벗고 분묘의 옆에서 오히려 살더니 간난ㅎ야 옷 {받고} ㄴ'ㅈ 일 ㅎ야 어미를 이바드며 ≪1579 삼강행실도 동경대본 효자도:6ㄱ≫ 현대어역 : 가난하여 옷을 벗고 남의 일을 하여 어머니를 봉양하며 내의 악어비 잇스오니 그를 뉘이쳐 버리고 죄를 {벗고져} ㅎ야 ≪1599 장수경언해 7ㄴ≫ 원문 : 我有惡業 求欲懺悔 현대어역 : 나의 악업이 있사오니 그것을 뉘우쳐 버리고 죄를 벗고자 하여 17세기: (벗-, 밧-, 번-, 받-) 상복을 {밧디} 아니ㅎ더라 ≪1617 동국신속 삼강효자도 4:5ㄴ≫ 원문 : 不脫經帶

현대어역 : 상복을 벗지 아니하더라.

고기와 마늘과 먹디 아니하며 옷 {바사} 자디 아니하더니 ≪1617 동국신속 삼강열녀도:1ㄴ≫

원문 : 不食肉不茹葷不脫衣服而寢

현대어역 : 고기와 마늘을 먹지 않으며 옷을 벗고 자지 않더니

거상 {벗고} 흰옷을 {벗디} 아니코 ≪1617 동신속 삼강열녀도 6:3ㄴ≫

원문 : 服闋不脫素衣

현대어역 : 거상(居喪)을 벗고 흰옷을 벗지 않고

아버지 죽거늘 슬허호물 레예 너무 허야 거상 {받드록} 죽 머그며 ≪1617 동국신속 삼강효자도:30ㄴ≫

원문 : 父歿哀毀過禮 啜粥終喪

현대어역 : 아버지가 죽거늘 슬퍼함을 예법에 넘게 하여 거상(居喪)을 벗을 때까지 죽을 먹으며

18세기: (벗-)

脫孝 거상 {벗다} ≪1748 동문유해 하:10ㄴ≫

현대어역 : 거상 벗다

貂蟬이 옷을 벗지 아니코 ≪1774 삼역총해 1:8ㄴ≫

현대어역 : 초선이 옷을 벗지 않고

관을 {벗고} 마리를 두드려 피 흐르도록 드툰대 ≪1797 오륜전비언해 2:15ㄴ≫

원문 : 免冠叩頭流血爭

현대어역 : 관을 벗고 머리를 두드려 피가 흐르도록 다투니

19세기: (벗스-, 벗-)

괴독도 십자가에 다다라 죄 짐을 {벗스니} 텃스가 흰옷을 낄히다 ≪1895 천로역정 1:38ㄴ≫

현대어역 : 기독교 교도가 십자가에 다다라 죄의 짐을 벗으니 천사가 흰옷을 입혔다. 그 동생은 수갑을 {벗고} 도망하였시나 ≪1895 치명일기 139ㄱ≫

현대어역 : 그 동생은 수갑을 벗고 도망하였으나

현 옷을 {벗고} 고은 옷을 낄어 ≪1890년대 성경직해 6:22ㄴ≫

현대어역 : 현 옷을 벗고 고은 옷을 입어

20세기: (벗-, 벗스-)

물 밧그로 떠나간 적은 버레가 임의 썩질을 {벗고} 변화허야 ≪1902 신학월보 2:373≫

현대어역 : 물 밖으로 떠나간 작은 벌레가 이미 썩질을 벗고 변화하여

이는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옛 법의 심히 압제하는 굴네를 {벗게} 하심인고로 ≪1904 신학월보 4:337≫

현대어역 : 이는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옛 법이 심히 압제하는 굴레를 벗게 하심인고로

버선 {버슨} 발에 나막신 신고 나가서 ≪1908 은세계 16≫

현대어역 : 버선 벗은 발에 나막신 신고 나가서

조끼가 스스로 옷옷을 {벗고} 버선도 {벗슨} 후 ≪1908 보감 2:61ㄱ≫

	현대어역 : 자기가 스스로 옷을 벗고 버선도 벗은 후
이형태 / 이표 기	벗-, 밧-, 받-, 벌-, 벗스-

어원사전 집필지침

<차례>

1. 일반 사항
2. 집필 범위
3. 원고 집필 기준
4. 《우리말샘》 집필기 사용 방법
5. 어원사전의 구조
 - 5.1. 기본 정보
 - 5.2. 변화 정보
 - 5.2.1. 형태·표기 변화
 - 5.2.2. 언어 내적 정보
 - 5.2.3. 언어 외적 정보
 - 5.2.4. 기타 어원 설명
 - 5.2.5. 세기별 용례
 - 5.2.6 이형태/이표기
 - 5.3. 부가 정보
 - 5.3.1. 관련어
 - 5.3.2. 참고 논저
 - 5.4. 기타 정보
 - 5.4.1. 메모 작성
6. 부록: 현상 설명을 위한 표현
 - 6.1. 음운 변화에 관련된 표현
 - 6.2. 형태 등의 변화
 - 6.3. 표기 변화에 관련된 표현
 - 6.4. 기타 표현

1. 일반 사항

- 어원사전 집필은 《우리말샘》 입력 시스템을 사용한다.
- 어원사전 집필에 활용하는 말뭉치는 집필관리자가 제공하는 모든 말뭉치 및 네이버 뉴스라이브리(1950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 세부 항목 중에서 기술할 것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두지 말고 반드시 ‘%’를 기입한다. 이는 실수로 기입하지 않은 것인지, 의도적으로 기입하지 않은 것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다.
- 어원사전의 모든 내용은 교양을 갖춘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기술되어야 한다.
- 집필에 사용하는 문법 용어는 학교 문법 용어를 사용한다.
예) ‘관형사형 어미’를 취하고 ‘관형형 어미’를 버린다. ‘관형격 조사’를 취하고 ‘속격 조사’를 버린다. ‘서술격 조사’를 취하고 ‘계사’를 버린다.

2. 집필 범위

- 집필자는 자신에게 배정된 표제어를 집필하여야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집필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아 추가로 집필할 수 있다.
 - ❖ 집필 대상 목록에 없으나 어원 정보를 기술할 필요가 있는 단어를 발견한 경우. 다만, 해당 단어는 《우리말샘》에 등재된 표제어여야 하며, 고어, 방언, 북한어 등이 아니어야 한다.
- 자신에게 배정된 표제어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표제어의 경우
 - ❖ 주표제어와 부표제어(‘낭패하다’를 집필할 때 ‘낭패’도 집필)
 - ❖ 집필 표제어로 시작되는 합성어와 파생어 또는 일부 집필 표제어가 포함되는 합성어와 파생어(‘물약’을 집필할 때, ‘물’과 ‘약’도 함께 집필)
- 집필 표제어의 동음이의어(집필 대상이 되는 동음이의어는 원칙적으로 한 집필자가 모두 집필한다.)
- 추가 집필 대상으로 삼는 표제어는 19세기 전반기 이전에 용례가 보이는 단어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낮밤’은 《우리말샘》에 역사정보가 없으나, 15세기부터 등장하며, 집필 대상이 될 수 있다.
예) ‘밤참’, ‘밤이슬’ 등은 문헌에 나타나나 19세기 후반부터 나타나므로 집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개화기 무렵에 등장한 개념, 사물을 가리키는 표제어는 19세기, 20세기(1945년 이전까지)의 용례만 있어도 추가 집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3. 원고 집필 기준

- 《우리말샘》에서 상위 표제항으로 묶여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하나의 어원 정보만을 기술한다. 그러나, 하위 표제항 중 일부의 어원 정보로 별도로 집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필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추가 기술할 수 있다.

예) ‘그’의 경우

그 [그 ㉠]

- 그 「001」 「대명사」 말하는 이와 듣는 이와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였거나 듣는 이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주로 남자를 가리킬 때 쓴다. **제안**
- 그 「002」 「대명사」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였거나 듣는 이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 그 「003」 「관형사」 듣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듣는 이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
- 그 「004」 「관형사」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
- 그 「005」 「관형사」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밝히고 싶지 아니한 일을 가리킬 때 쓰는 말.

그 「001」부터 「005」는 상위 표제항으로 묶여 있으므로, 하나의 어원 정보만을 기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집필자가 ‘그’에 대해 대명사와 관형사 용법을 구별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필 관리자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 항목을 구별하여 기술할 수 있다.

- 《우리말샘》을 기준으로, 상위 표제항이 달리 설정되어 있는 항목의 어원 정보는 별도로 집필한다. 같은 상위 표제항으로 묶여야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원칙에 따라 별도 기술하고 ‘메모’란에 집필자 의견을 밝힌다.

법석 [법석 ㉠] 법석만 [법생만]

- 법석 「001」 「명사」 소란스럽게 떠드는 모양.

법석(法席) [법석 ㉡] 법석만 [법생만]

- 법석 「002」 「명사」 『불교』 설법, 독경, 강경(講經), 법화(法話) 따위를 행하는 자리.

예) 《우리말샘》에 ‘법석001’과 ‘법석002’는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어라서 하나의 상위 표제항으로 묶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말샘》에 별도의 상위 표제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칙에 따라 따로 집필한다. ‘법석001’의 어원 정보를 기술할 때는 ‘법석002’에서 온 말임을 기술한다.

4. 《우리말샘》 집필기 사용

- 어원사전의 각 항목을 집필할 때는, 《우리말샘》 집필기를 활용한다.
- ‘집필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 개인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우리말샘》에 로그인한다.

6) 지금의 예는 ‘언어 내적 정보’와 ‘기타 어원 설명’의 학설 중에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다. 추후 수정 예정.

우리말샘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우리말 사전

- 로그인한 후, ‘어원사전’ 탭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가’와 ‘편집/검증’ 메뉴가 나타난다.



- 기존에 역사 정보가 이미 기술되어 있는 경우, 이를 수정/보완하는 것이기에 ‘편집/검증’ 항목을 클릭하여 진행한다. 만일, 기존에 역사 정보가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항목을 클릭하여 진행한다.
- (집필기의 자세한 사용법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 예정)

5. 어원사전의 구조

- 어원사전의 미시구조는 아래와 같다. 이는 집필기에서 입력 요구되는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표제어	
1) 기본 정보	어휘, 구분, 품사, 원어, 고유어 여부, 뜻풀이
2) 변화 정보	형태·표기 변화
	언어 내적 정보
	언어 외적 정보
	기타 어원 설명
	세기별 용례
3) 부가 정보	이형태/이표기
	관련어
4) 기타 정보	참고 논저
	메모

■ 5.1. 기본 정보

편집기에서 《우리말샘》의 정보가 자동 이관된다. ‘기본 정보’ 항목은 수정하지 않는다. ‘기본 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메모’란에 의견을 기술한다.

■ 5.2. 변화 정보

■ 5.2.1. 형태·표기 변화

추가	
☐ 15세기 ☐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미상 ☐ 20세기 찢찢하다	☐ 노출 제외 삭제 ▲ ▼
☐ 15세기 ☐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미상 ☒ 20세기 찢찢하다	☐ 노출 제외 삭제 ▲ ▼
☐ 15세기 ☐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미상 ☐ 20세기 찢찢하다	☐ 노출 제외 삭제 ▲ ▼
☐ 15세기 ☐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미상 ☒ 20세기 찢찢하다	☐ 노출 제외 삭제 ▲ ▼
☐ 15세기 ☐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미상 ☒ 20세기 따뜻하다	☐ 노출 제외 삭제 ▲ ▼

- ‘형태·표기 변화’에서는 최초출현형으로부터 현대어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어형만을 제시한다. 단, ‘이형태/이표기’ 항목에서는 문헌에 나타나는 모든 어형을 제시한다.

예) ‘미늘’의 경우, 문헌 자료에 ‘미늘’, ‘미늘’, ‘미늘’, ‘미날’의 네 가지 어형이 나타난다. 그런데 최초출현형 ‘미늘’과 현대형 ‘미늘’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미늘’과 ‘미늘’로 충분하므로, ‘미늘’과 ‘미날’은 형태·표기 변화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단, ‘이형태/이표기’ 항목에서는 문헌에 나타나는 모든 이형태 및 어형을 다 제시한다.

예) ‘따뜻하다’의 경우, 문헌 자료에는 ‘찢찢하다’, ‘찢찢하다’, ‘찢찢하다’, ‘따뜻하다’, ‘따뜻하다’ 등의 어형이 나타난다. 그런데 최초출현형 ‘찢찢하다’에서 현대형 ‘따뜻하다’로의 변화를 설명할 때 ‘찢찢하다’, ‘찢찢하다’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형태·표기 변화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단, ‘이형태/이표기’ 항목에서는 문헌에 나타나는 모든 이형태 및 어형을 다 제시한다.

- ‘형태·표기 변화’에서, 용언은 기본형(‘-다’)의 형태로 제시한다. (예: ‘깊다’)
- 특수어간교체 또는 현대 국어의 불규칙교체(‘ㅂ’ 불규칙, ‘ㅅ’ 불규칙)를 보이는 어형들도 ‘-다’의 어형으로만 제시하고, 상세한 교체형은 ‘언어 내적 정보’에서 제시한다.
 예: ‘심다’의 경우, 15세기 어형을 ‘시므다’로 적는다. (‘심거’와 같은 활용형은 ‘언어 내적 정보’

에서 설명한다.)

예: ‘어지럽다’의 경우, 15세기 어형을 ‘어즈럽다’로 적지 않는다. (‘어즈러벼’와 같은 활용형은 ‘언어 내적 정보’에서 설명한다.)

예: ‘웃다’의 경우, 15세기 어형을 ‘웃다’로 적지 않는다. (‘우셔’와 같은 활용형은 ‘언어 내적 정보’에서 설명한다.)

- ‘형태·표기 변화’에서, 체언은 기저형을 밝혀 적는다. (예: ‘갯’, ‘냇’)

예: ‘잎’의 경우, 15세기 어형을 ‘냇’으로 적는다. (‘납’으로 적지 않는다.)

- 단, ㅎ말음 체언의 경우 ‘ㅎ’은 따로 적는다.

예: ‘나라’의 경우, 15세기 어형을 ‘나라ㅎ’으로 적는다.

- 출현 세기는 각 어형이 문헌에서 발견되는 세기를 클릭한다. (A를 취하고 B를 버린다.)

A: 바른 예

☐ 15세기 ☐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미상 ☒ 20세기
쫓쫓ㅎ다

☐ 15세기 ☐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미상 ☐ 20세기
쫓땃ㅎ다

B: 잘못된 예

☐ 15세기 ☐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미상 ☐ 20세기
쫓쫓ㅎ다, 쫓땃ㅎ다

- 표제어에는 올라와 있으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클릭하지 않는다.

예: ‘방망이꾼’의 경우,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어원사전 집필 말뭉치에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20세기도 클릭하지 않는다.

■ 5.2.2. 언어 내적 정보

- ‘언어 내적 정보’에서는 최초출현형, 어원, 형태 정보, 형태적/의미적 변천 등을 언어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 언어 내적 정보의 기술 순서는 다음과 같다.

최초 출현형에 대한 설명

- 최초 출현형에 대한 어원적 설명(필요할 때)
- 역사적 변화 단계 설명 / 의미 변화에 대한 설명(필요할 때)
- 변화 설명 마무리(필요할 때)

● 최초 출현형에 대한 설명

- 최초 출현형은 (1) 현대 국어와 어형이 동일한 경우, (2) 현대 국어와 어형이 다른 경우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 (1)-1 최초 출현형과 현대 국어 어형이 동일하고, 다른 이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A’는 B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예) ‘나’는 15세기부터 ‘나’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 ❖ (1)-2 최초 출현형과 현대 국어 어형이 동일하고, 다른 이형태가 나타나는 경우: ‘A’는 B세기부터 나타난다.

예) ‘거두다’는 15세기부터 나타난다. (17세기에는 ‘거도다, 거두우다’의 어형이 보이나 현재에는 여전히 ‘거두다’가 사용된다.)

- ❖ (2) 최초 출현형과 현대 국어 어형이 다른 경우: ‘A’의 옛말인 ‘B’는 ‘C’세기부터 나타난다.

예) ‘메밀’은 16세기부터 ‘모밀^ㅎ’로 나타난다.

- 최초 출현형은 한자 표기와 한글 표기를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1) 한자 표기와 한글 표기가 세기를 달리하여 나타나는 경우, (2) 한자 표기와 한글 표기가 같은 세기에 나타나는 경우를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 (1) ‘A’는 B세기에서 한자로 표기된 ‘C’로 나타나고 D세기부터 한글로 표기된 ‘E’로 나타난다.

예) ‘별세하다’는 18세기부터 한자로 표기된 ‘別世^ㅎ다’로 나타나고 19세기부터 한글로 표기된 ‘별세^ㅎ다’로 나타난다.

- ❖ (2) ‘A’는 B세기에서부터 한글로 표기된 ‘C’나 한자로 표기된 ‘D’가 나타난다.

예) ‘와사등’은 19세기부터 한글로 표기된 ‘와사등, 와스등’이나 한자로 표기된 ‘瓦斯燈’이 나타난다.

- 최초 출현형으로 제시되는 기본형이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설명을 덧붙인다.

예) 'ㄱ랏'은 문헌에서 'ㄱ랏'으로만 나타나는데 이것은 소리대로 표기된 것이다.

- 최초출현형의 이형태는 불규칙이나 특수어간교체 등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술한다.

- 1) 용언의 경우

예) 갓잡다: 자음 어미 앞에서는 '갓잡-', 매개모음 어미나 모음 어미 앞에서는 '갓갈-'으로 나타난다.

예) 놀다: 자음 어미 앞에서는 '놀-'으로, 매개모음 어미나 모음 어미 앞에서는 '놀-'으로 나타난다.

예) 밝다: 1460년대 이전에는 자음 어미 앞에서는 '불-', 매개모음 어미나 모음 어미 앞에서는 '불-'로 나타난다. 이후에는 자음 어미 앞에서 '불-', 매개모음 어미나 모음 어미 앞에서는 '불오-'로 나타난다.

예) 심다: 자음 어미, 매개모음 어미 앞에서는 '시므-', 모음 어미 앞에서는 '심-'으로 나타난다.

- 2) 체언의 경우

예) 나모: 자음 조사 앞에서는 '나모', 매개모음 조사나 모음 조사 앞에서는 '남'으로 나타난다.

예) 여우: 자음 조사 앞에서는 '여쑤', 매개모음 조사나 모음 조사 앞에서는 '엿오'으로 나타난다.

예) 숲: 자음 조사 앞에서는 '숯', 매개모음 조사나 모음 조사 앞에서는 '쑤'으로 나타난다.

예) 망울: 모음 또는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에는 '몽울ㅎ'로 그 밖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나 단독으로 쓰일 때는 '몽울'로 나타난다.

- 최초 출현형에 대한 어원적 설명

- 복합어나 파생어의 경우 형태적 구성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기술한다.

'A'는 B를 뜻하는/뜻인 'C'와 D를 뜻하는/뜻인 'E'가 결합한 것이다.

'A'는 B를 뜻하는/뜻인 'C'와 'D'가 결합한 'E'에 F를 뜻하는/뜻인 'G'가 결합한 것이다.

예) '물약'은 19세기부터 나타난다. '물약'은 '물'과 한자어 '약(藥)'이 결합한 것이다.

- 단, 관형사형 어미 '-은, -을',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예) '관솔'은 진이 많음을 뜻하는 형용사 어간 '관-'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관'에 소나무를 뜻하는 명사 '솔'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다.

예) ‘작은아버지’는 ‘작은’과 ‘아버지’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다. 이때, ‘작은’은 형용사 어간 ‘작-’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한 것이다.

예) ‘눈病’은 ‘눈’과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눈’과 한자어 ‘病(병)’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다.

-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나 파생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한글 표기만 문헌에 나타나는 경우: ‘A’는 한자어 ‘B’를 한글로 표기한 ‘C’에 현대어 ‘하다’로 이어지는 ‘-ㅎ-’가 결합한 것이다.

예) ‘광패ㅎ다’는 한자어 ‘狂悖’를 한글로 표기한 ‘광패’와 현대어 ‘하다’로 이어지는 ‘-ㅎ-’가 결합한 것이다. (‘광패하다’)

❖ 한자 표기가 문헌에 먼저 나타나는 경우: ‘A’는 한자어 ‘B’와 현대어 ‘하다’로 이어지는 ‘-ㅎ-’가 결합한 것이다.

예) ‘별세하다’는 18세기에 한자로 표기된 ‘別世ㅎ다’로 나타나고 19세기부터 한글로 표기된 ‘별세ㅎ다’로 나타난다. ‘別世ㅎ다’는 한자어 ‘別世(별세)’와 현대어 ‘하다’로 이어지는 ‘-ㅎ-’가 결합한 것이다. (‘별세하다’)

☞ 한자어는 한자 표기와 한글 표기가 모두 나타날 경우, 함께 기술한다. 설명에서 한자가 처음 제시될 때, “한자(한자음)”의 방식으로 한자음을 밝힌다.

예: ‘別世ㅎ다’는 한자어 ‘別世(별세)’와 현대어 ‘하다’로 이어지는 ‘-ㅎ-’가 결합한 것이다.

- 형태적 구성을 이루는 각 성분을 제시할 때 그 성분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간략한 풀이나 문법 정보를 제시한다. 현대어와 형태가 동일할 경우에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때 《우리말샘》의 풀이를 참고할 수 있다.

- 다만, 현대어와 형태가 동일하고, 표제어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거나, 동음어가 없어서 무슨 의미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예) ‘관솔’은 진이 많음을 뜻하는 형용사 어간 ‘관-’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관’에 소나무를 뜻하는 명사 ‘솔’이 결합한 것이다.(‘관솔’)

예) ‘깨어디-’는 조각이 나게 함을 뜻하는 ‘깨-’에 연결어미 ‘-어’, 보조 용언 ‘디-’가 결합한 것이다.(‘깨어지다’)

예) ‘말재’는 끝을 뜻하는 한자 ‘末(말)’의 한글 표기인 ‘말’과 차례를 뜻하는 접미사 ‘-재’가 결합한 것이다.(‘말째’)

예) ‘막난이’는 바로 지금을 뜻하는 ‘막’과 태어남을 뜻하는 동사 어간 ‘나-’에 관형사형 어미 ‘-

ㄴ'이 결합한 '막난'에 의존 명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망나니’)

예) ‘검딤영’은 겁다는 뜻인 ‘검-’과 ‘-딤영’이 결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딤영’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검댕’)

❖ 설명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아래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

- ~을 뜻하는 ‘A’ / ~라는 뜻인 ‘A’ / 현대어 ‘A’로 이어지는 ‘B’
-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 ‘A’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 현대어 ‘하다’로 이어지는 ‘-ㅎ-’
- 동사/형용사 어간 ‘A’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B’에
- ‘~을’ 뜻하는 접미사/접두사 ‘A’
- 사동 접미사 ‘-이-’/‘-히-’/‘-오-’ / 형용사 파생 접미사 ‘-ㅁ-’ / 부사 파생 접미사 ‘-이’
- 관형격 조사 ‘ㅅ’ / 보조 용언 ‘ㄷ-’ / 연결 어미 ‘-아’/ 연결 어미 ‘-어’ / 의존 명사 ‘이’

- 최초 출현 형태가 한자와 결합한 것일 때는 설명 부분에 ‘한자(현대 한자음)’의 형식으로 제시한다.

예) ‘눈病’은 ‘눈’과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눈’과 한자어 ‘病(병)’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다.(‘눈병’)

- 한자어이지만 문헌에서 한글로 표기된 예만 나타나면 “‘A’는 한자어 ‘B’를 한글로 표기한 것이다.”라고 제시한다.

예) ‘등신’은 한자어 ‘等神(등신)’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다.(‘등신’)

- 다른 언어로부터 온 말은 “‘A’는 ○○어로부터 들어온 말이다.”라고만 밝힌다.

예) ‘갈지개’는 몽골어로부터 들어온 말이다.(‘갈지개’)

☞ 다른 언어에서의 용법이나 형태, 의미 변화나 서구어가 일본어를 통해 간접 차용한 경우, 불교 용어의 변화나 의미 등과 같은 자세한 설명은 ‘기타 어원 설명’에서 밝힌다.

● 역사적 변화 단계 설명

- 최초 출현형 이후 현대어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설명한다.
- 용례에 제시된 이표기 및 변화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 문헌에 나타난 순서대로 설명을 하되 변화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거나 예외적인 표기는 시기를 밝히지 않고 뭉뚱그려 설명할 수 있다.

예) 벗어나다

‘벗어나다’는 15세기부터 ‘버서나다’로 표기되어 나타난다. ‘버서나다’는 몸에서 떼어 낸다는 뜻인 ‘벗-’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한 ‘버서’에 밖으로 나온다는 뜻인 ‘나-’가 결합한 것이다. 19세기 에 나타나는 ‘벗서나다’는 ‘버서나다’의 중철 표기이다. 19세기와 20세기에 나타나는 ‘버서나다’는 근대 국어 시기에 ‘ㅅ’ 아래에서 ‘서’와 ‘셔’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면서 표기가 혼동되어 나타난 것이다. 19세기에 나타나는 ‘버서ㄴ다’와 ‘버셔ㄴ다’는 ‘ㄴ’ 소리가 없어졌지만 ‘ㄴ’과 ‘ㅅ’가 표기에서 섞여 쓰이면서 나타난 표기이다.

예) 꾸짖다

‘꾸짖다’는 15세기부터 ‘구짖다’로 표기되어 나타난다. ‘구짖-’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구짖-’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구짖-’으로 교체되었다. 16세기에 어두의 초성 ‘ㄱ’이 된소리가 되어 ‘꾸짖-, 꾸짖-’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18세기와 19세기에는 ‘ㄱ’의 된소리 표기가 ‘ㅅ’에서 ‘ㅈ’으로 바뀐 ‘꾸짖-, 꾸짖-’이 나타나기도 한다. 15세기에서 종성 ‘ㅈ’이 ‘ㄷ’으로 표기되는 ‘구짖-’도 나타나는데 17세기에서는 여기에서 초성 ‘ㄱ’이 된소리로 바뀐 ‘꾸짖-’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외에도 ‘짖’의 종성 ‘ㅈ’이 ‘ㄷ’으로 나타나는 ‘구짖-, 꾸짖-’과 ‘짖’의 초성 ‘ㅈ’이 ‘ㄷ’으로 나타나는 ‘꾸짖-, 꾸짖-’, ‘꾸’의 ‘ㅅ’이 ‘ㅂ’으로 나타나는 ‘꾸짖-’ 등의 표기도 나타난다.

- 중간에 어형이 교체된 경우에는 그에 맞춰 기술한다.

예) 광저기

‘광저기’는 16세기부터 ‘광장이’로 표기되어 나타난다. 16세기부터 종성의 ‘ㅇ’이 ‘ㅇ’으로 표기되면서 ‘광장이’도 표기가 변하였을 것이나 17세기에서 ‘광장이’가 확인된다. 19세기 까지 ‘광장이’만 나타나다가 20세기에 ‘광저기’가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광장이’가 ‘광저기’로 바뀐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 방언에 대한 기술은 역사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기술하며, 방언의 영향이 분명한 경우에만 ‘방언의 영향’이라고 기술한다.

예) 16세기에는 ‘구령이’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구령이’가 ‘구령이’의 단순한 오기인지 방언형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구령이’)

예) 이 ‘솔’은 근대 국어 시기에 볼 수 있는 ‘솔’의 다른 형태로 현재 몇몇 방언에 남아 있다.
(‘솔’)

예) 16세기에는 ‘갓가브리니’처럼 규칙 변화를 하는 ‘갓갑다’가 일부 발견되기도 하나 방언의 영향으로 보인다.(‘가갑다’)

● 의미 변화에 대한 설명

- 현대어와 의미가 다르거나 옛말에서 현저하게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경우 의미 변화를 기술하고 ‘세기별 용례’에서 용례도 각각 제시한다.

예) 현대 국어 ‘어리다’는 15세기부터 ‘어리다’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어리다’는 15세기 국어와 똑같은 형태가 현재까지 쓰이고 있으나 의미는 변하였다. 즉 15세기에는 “어리석다”의 의미로 쓰인 예만 나타나는데 16세기 이후에는 “나이가 어리다”의 의미로 쓰인 예도 나타난다.

이 두 의미로 쓰인 예는 19세기까지 보인다. 현재의 ‘어리다’는 “어리석다”의 의미로는 쓰이지 않고 “나이가 어리다”의 의미로만 쓰인다. (‘어리다’)

☞ 다의어의 개별 의향(sense)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원칙적으로 기술하지 않는다.

● 변화 설명 마무리

- 현대어와 동일한 표기가 등장한 이후 다른 이표기 및 변화형이 문헌에 나타나지 않으면 “현재까지 이어진다.”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예) 제3음절의 ‘ㄴ’이 ‘ㄷ’로 변하고 ‘ㅅ’이 ‘ㅈ’으로 변하여 ‘그저께’가 되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 현대어와 동일한 표기가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20세기에 ‘A’가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 집필 대상이 되는 단어는 모두 20세기 문헌에서 확인되어 사전에 올라간 것이므로 20세기 문헌에서 예를 발견할 수 없을 때는 이처럼 기술하도록 한 것이다.

예) ‘밤기운’의 옛말인 ‘밤긔운’은 18세기부터 나타난다. ‘밤긔운’은 어둑한 동안을 뜻하는 ‘밤’과 현대 국어 ‘기운’으로 이어지는 ‘긔운’이 결합한 것이다. 20세기에 ‘밤기운’이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밤기운’)

예) 19세기에는 ‘ㄱ’의 된소리 표기가 ‘ㅅ’에서 ‘ㅈ’으로 변하고, ‘ㄴ’이 ‘ㄷ’로 변한 ‘깨묵’이 확인된다. 20세기에 ‘ㅅ’이 들어간 ‘꺄묵’이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꺄묵’)

- 현대와 동일한 표기가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으면서 맞춤법 규정에 의해 표기가 정리된 경우 그에 맞는 설명을 덧붙인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 맞춤법에서 ‘A’(예, ‘저’)는 ‘B’(예, ‘저’)로 적기로 함에 따라 ‘B’로 표기하게 되었다.• 현대 맞춤법에서 원형을 밝혀 적도록 함에 따라 ‘A’로 표기하게 되었다.• 현대 맞춤법에서 소리대로 적도록 함에 따라 ‘A’로 표기하게 되었다.• 현대 맞춤법에서 된소리는 같은 글자를 반복하여 적도록 함에 따라 ‘A’로 표기하게 되었다.• 현대 맞춤법에서 부사 ‘-이’와 ‘-히’는 구별하여 적도록 함에 따라 ‘A’로 표기하게 되었다.• 현대 맞춤법에서 한자어는 두음 이외에는 본음대로 적도록 함에 따라 ‘A’로 표기하게 되었다. |
|--|

☞ 맞춤법은 1912년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부터 1988년 한글 맞춤법까지 몇 차례 정해졌기 때문에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처럼 특정 맞춤법을 언급하려면 맞춤법 규정들을 확인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현대 맞춤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예) 20세기 전반기까지 혼용되어 쓰이던 ‘그전’과 ‘그전’은 현대 맞춤법에서 ‘저’는 ‘저’로 적기로 함에 따라 ‘그전’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예) 현대 맞춤법에서 원형을 밝혀 적도록 함에 따라 ‘한결같이’로 표기하게 되었다.

예) 현대 맞춤법에서 된소리는 같은 글자를 반복하여 적도록 함에 따라 ‘걸러뒀다’로 표기하게 되었다.

예) 현대 맞춤법에서 된소리는 같은 글자를 반복하여 적도록 함에 따라 ‘깜짝’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 ❖ 다만, 최초의 문헌 예가 맞춤법에 따른 예이고 중간 시기에 표기가 일시적인 혼동을 보인 것이면 설명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그적’은 15세기에서부터 나타난다. 19세기에 나타나는 ‘그적’은 근대 국어 시기에 처음 ‘ㅈ’이 구개음으로 바뀌어 ‘적’과 ‘적’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면서 표기가 혼동되어 나타난 것이다. ‘크적’과 ‘크적’은 현대 맞춤법에서 ‘저’는 ‘저’로 적기로 함에 따라 ‘크적’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 20세기 전반기까지 여러 형태가 사용되면 “20세기까지 ‘A’, ‘B’, ‘C’ 등 여러 형태가 쓰였으나 ‘A’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예) 20세기까지 ‘밋다’, ‘미다’, ‘무이다’ 등 여러 형태가 쓰였으나 ‘미다’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

예) 20세기까지 ‘두루막이’, ‘두루마기’, ‘두루매기’, ‘두루막’ 등 여러 형태가 쓰였으나 ‘두루마기’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

- ❖ 어느 한 표기로 굳어진 원인이나 시기가 명확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예시) 1936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서 표준어로 선택하여 현재까지 이어진다. / 1988년 〈표준어 규정〉에서 새로 표준어로 인정하여 현재까지 이어진다. / 1957년에 완간된 《큰사전》에서 표준어로 올려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 특수한 사례들의 기술

- 쌍형 어간(doublet)

- ❖ 현대어에 쌍형 어간의 어느 한쪽만이 남은 경우: 해당 표제항의 역사 정보에서 쌍형을 모두 기술한다.

예) 벗다: 중세 국어에 나타나는 ‘벗다/뵈다’ 둘이 나타나는 양상 기술. ‘벗다’만 나타나게 된 시기 등과 같은 변화 정보도 기술.

- ❖ 쌍형이 나중에 분화해서 《우리말샘》에 둘 다 표제어로 등재된 경우: 같은 의미로 사용된 시기에는 쌍형 모두에서 같이 기술하고 의미 분화된 이후에는 각 표제어에 관한 것만 기술한다.

- 어형 분화

- ❖ 어원적으로 같은 형태로 다의어였으나 후대에 별개의 단어로 형태가 달리 분화한 경우에는 다의어였음을 밝히고 앞부분에서 같이 기술하고, 형태가 분화된 이후에

는 분화된 표제어에 관한 것만 기술한다.

예) ‘가르치다’와 ‘가리키다’

● 내적 정보를 기술할 때 주의할 사항

- 문헌에 나타난 예로만 설명한다.

예) 물약: 문증되지 않는 어형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는다.

‘물약’은 19세기부터 나타난다. 이 단어는 ‘물’과 한자어 ‘약(藥)’이 결합한 것이다. 18세기의 ‘ㅅ’ 아래의 ‘ㄱ’이 ‘ㄴ’로 바뀌는 현상(원순모음화)에 따라 ‘물’이 ‘물’로 바뀌었으므로 19세기 이전에 ‘물약’의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지만 예가 확인되지 않는다.

- ❖ 단,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문헌에 나타나지 않은 예를 설명할 수 있다.

‘관디’는 16세기부터 ‘관디’로 표기되어 나타난다. 16세기 후반에 제2음절 이하의 ‘ㄷ’은 ‘ㄴ’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이중 모음 ‘ㄴ’도 ‘ㄴ’로 변하면서 ‘관디’는 ‘*관디’가 되었을 것이나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근대 국어 후기에 이중 모음 ‘ㄴ’이 ‘ㄴ’로 변화하여 ‘관디’로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관디’)

- 합성어나 파생어의 경우 그 구성 성분 각각의 어원 관련 정보는 기술하지 않고 구성 성분에 대응하는 해당 표제어에서 기술한다.

‘물방아’의 옛말 ‘물방하’는 18세기부터 나타난다. ‘물’과 ‘방아’의 옛말인 ‘방하’가 결합한 형태이다. ‘방하’는 본래 ‘방하’의 형태로 쓰였으나 ‘ㅇ’이 소멸하여 ‘방하’의 형태가 되었고, 이후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ㅇ’이 탈락하여 현재의 ‘물방아’가 되었다. 19세기에 ‘물방ㅇ’란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ㅇ’의 소멸에 따른 ‘ㅏ’와 ‘ㅑ’의 표기 혼란에 의한 것이다. ‘물’의 옛말인 ‘물’과 ‘방아’의 옛말인 ‘방하, 방하’ 등이 결합한 어형은 확인되지 않는다.

- ❖ 구성 성분의 어원 관련 정보를 밝혀야 하나 구성 성분 표제어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자리(‘기타 어원 설명’이나 ‘관련어’)에서 구성 성분의 어원 관련 정보를 밝힐 수 있다.

-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으나 미등재, 방언 등의 이유로 별도로 어원이 집필되지 않는 단어의 어휘 역사 정보는 기술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언어 내적 정보’가 아니라 ‘기타 어원 설명’에서 제시한다.

예) 단추: ‘돌마기’는 현대로 이어지지 않고 어원적으로도 무관하므로 ‘기타 어원 설명’에서 기

술

기타 어원 설명	‘단초’와 같은 의미인 ‘돌마기(紐子)’<1517 사성통해 :48L>는 16세기부터 보인다.
----------	---

- ❖ 별개의 표제어로 《우리말샘》에 올라 있는 항목은 해당 표제어에서 어원 정보를 기술하고 ‘관련어’에 해당 표제어를 제시한다.

예) 단오: ‘수릿날’은 별개의 표제어로 있으므로 ‘단오’에서 기술하지 않는다.

‘단오’는 18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단오’는 한자어 ‘단오(端午)’의 한글 표기이다.

~~‘단오(端午)’의 고유어인 ‘수릿날’ 역시 15세기부터 나타난다((수릿날) 자본 발 불근 자네 (端午枚赤足者) <救簡6:53a>).~~

예) 방문: ‘지계문’은 별개의 표제어로 있으므로 ‘언어 내적 정보’에서 기술하지 않는다. 19세기 이전 문헌에서 예가 있으므로 별도 집필 대상이 된다.

‘옛날식 가옥에서, 마루와 방 사이의 문이나 부엌의 바깥문’을 뜻하는 ‘지계’ 또는 ‘지계문’도 있었다.

戶 지계 *又 房門<1748 동문類解 上 35b>

房門 지계문<1778 방유 2:20a>

지계^ㄷ 門 ㅅ만 열고 밤드도록 기다리니<1876 歌曲源流 40>

- 역사적 변화를 설명할 때 원칙적으로 문헌에서의 인용 예를 제시하면서 설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예) 16세기에 규칙 변화를 하는 ‘갓갑다’가 일부 발견되기도 하나(어려흔 뺨 나르러는 카 어로 마 {갓가브리니} 또 막속물 가져 어로물 거들우마 물흔러라 <<1577 몽산 송광사 21ㄴ>>), 이것은 방언의 영향으로 보인다. → 16세기에는 ‘갓가브리니’처럼 규칙 변화를 하는 ‘갓갑다’가 일부 발견되기도 하나 방언의 영향으로 보인다.

- ❖ 특수한 사례이거나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례에서 다른 예들이 있음을 밝힐 때는 어형 중심으로 간략하게 인용할 수 있다.

예) 17세기에는 ‘먹빔’으로도 나온다. 근대 국어 시기에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y) 앞에서 ‘ㅈ, ㅊ’으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면서 ‘먹빔’의 ‘ㅈ’이 ‘ㅌ’에서 변화한 것으로 오해하여 교정을 한 결과 ‘먹빔’과 같은 형태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런 예는 ‘겉(<겻>’, ‘팍(<팍>’ 등에 서도 보인다.(‘먹빔’)

예) ‘기천’의 ‘기’를 “물가”를 의미하는 한자어 ‘개(浦)’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浦 개 보 <<1527훈몽자회 상:3ㄱ>>에서 보는 것처럼 16세기 ‘포(浦)’의 훈은 ‘기’가 아니라 ‘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개천’)

- 단어의 의미를 설명할 때는 동의어나 다른 말로 풀어서 기술하며 한자로 제시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예) ‘ㄱㄹ비’는 ‘ㄱㄹ[霧]+비[雨]’로 구성된 말이기 때문에 → ‘ㄱㄹ비’는 안개를 뜻하는 ‘ㄱㄹ’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구성된 말이기 때문에

- 용례를 제시할 때 용언 중 논항이 변하는 경우는 이를 유의하여 제시하고 ‘설명’에 이와 관련된 설명을 덧붙인다.(‘역사정보’ 지침)

예) 곤ㅎ다

- 설명은 표기 위주로 한다. 음가의 변화는 설명하지 않는다.

→ ‘역사정보’ 지침에서는 “‘ㄱ, ㄱ, ㄴ’ 등과 관련하여 변화를 설명할 때 15세기에는 이중 모음이었으며 근대 국어 시기를 지나면서 표기는 같으나 발음은 다르다는 설명을 붙인다. 이때 추정되는 발음을 [ay]와 같이 한글 옆에 덧붙인다.”라고 되어 있으며 현재 그렇게 기술된 경우가 많다. 이번 작업에서는 표기 위주로 설명하므로 이중 모음이 단모음으로 변했다는 기술은 역사적 변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하지 않는다.

- 가급적 쉬운 표현을 사용한다.

예) 산견된다 → 간혹 보인다.

예) 문증된다 → 문헌에서 확인된다. / 문헌 자료에 나타난다.

예) ‘그스ㅎ다, 그스다’, ‘그스근’ 등과 같이 ‘-ㅎ-’가 수의적으로 탈락하기도 하였다.

→ ‘수의적’으로라는 표현을 빼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성조(혹은 방점)은 원칙적으로 기술하지 않으나 동음어 구별 등 역사적인 변화와 관련해서 설명할 가치가 있으면 해당 단어의 성조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예) ‘밤’은 15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장음으로 발음되는 ‘밤’은 15세기 문헌에서 글자 왼쪽 옆에 두 점을 찍는 ‘상성’으로 표시되었다.

■ 5.2.3. 언어 외적 정보

- 문화사적 정보, 유입경로 등을 기술한다.
- 외래어 혹은 귀화어의 경우 다른 언어에서의 정보를 기술한다.

예) ‘빵’이 포르투갈어 ‘pão’가 일본어를 거쳐 들어온 말임을 기술

예) 16세기에 나타난 ‘갈지게’는 중세 몽골어에서 매의 일종인 누런 매를 가리키는 ‘qarčiyai’에서 온 차용어이다. 원나라의 지배를 받던 고려 시기에는 매와 관련된 몽골어 어휘가 많이 차용되었는데 ‘갈지게’ 또한 그 중의 하나이다.(‘갈지개’)

예) ‘마고즈’는 중국어의 ‘마괘자(馬褂子)’에서 차용된 단어이다. 1778년에 간행된 《방언유석》에 ‘馬褂子’를 ‘마상에 낚는 자른 옷’으로 기록하고 있어 ‘마고즈’의 차용 시기는 18세기 말 이후로 추정된다.(‘마고자’)

☞ (마)에서 다른 언어로부터 온 말임을 언급한 경우에 (바)에서 기술한다. 밑줄 친 부분

은 (마)로 옮겨 기술해야 한다.

예) 정약용(丁若鏞)의 《아언각비(雅言覺非)》를 살펴보면 ‘鼈頭’ 조(條)에 ‘鼈頭誤飜甘土, 華音本감투’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를 통해 그 한자 어원을 확인할 수 있다. ‘감토’에서 ‘감’은 한자 ‘鼈’의 근대 한음(漢音)과 중세 한국 한자음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한자음으로 읽힌 것인지, 한음(漢音)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토’는 ‘頭’의 근대 한음(漢音)인 */thəu/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감투’)

● 어원과 관련하여 문화사적으로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면 기술할 수 있다.

예) 샤프펜슬이 세상에 나온 시기와 한국에서 등장한 시기와 그에 얽힌 이야기

예) 돈가스가 일본에서 만들어진 음식으로 ‘돈가스’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

예) 한자 표기가 변하거나 다양하게 나타나는 양상 (‘생각’이 고유어인데, ‘生覺’이라고 적는 경우 등)

❖ 표제어에 대응하는 다른 언어의 예도 기술할 가치가 있으면 기술할 수 있다.

예) 한편, 중국명 ‘白斂(bái liǎn)’은 뿌리의 속이 흰 덩굴로서 오직 염창(斂瘡)을 치료하는 약이라는 뜻이다.(‘가위톱’)

☞ 삭제한 부분은 어원설에 관한 것이므로 (사)에서 기술. 《우리말샘》에서 ‘白斂’을 제시했으나 ‘白斂’이라고도 나옴. 중국명으로만 볼 것인지에 대한 기술도 포함하면 좋을 듯함.

● 선인들의 기록에서 해당 표제어와 관련된 흥미로운 기록은 기술할 수 있다. 최대한 간결하게 기술한다.

예) 유희의 《물명고》에서는 ‘斑猫’에 대해 때에 따라 이름이 바뀐다고 하였다. 7~8월에 콩잎 위에 있으면서 얼룩덜룩한 등껍데기인 것을 ‘오색가뢰’라 하고, 봄에 원화(荊花)에 있으면서 푸른색을 띠는 것을 ‘청가뢰’라고 하였다.(‘가뢰’)

예) 『사류박해(事類博解)』에서는 ‘加佐味’(가자미), ‘鰾魚’(검어), ‘魴魚’(개어), ‘三魚’(삼어), ‘比目魚’(비목어), ‘鏡子魚’(경자어)라고 했고 -생략- 『이아(爾雅)』에는 “동방(東方)에 비목어(比目魚)가 있으니, 나란히 하지 않으면 가지를 못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세속에서는 접(鰈)을 가자미[加佐魚]라고들 한다고 하여, 접, 비목어, 가자미가 같은 것임을 설명하였다. 17세기 조선의 시인이었던 이응희(李應禧: 1579-1651)는 이러한 동방의 가자미를 두고 아래와 같은 시를 지어 『옥담시집(玉潭詩集)』에 실었다. 가자미의 맛을 묘사한 그의 시에 등장하는 가자미 구이는 주로 자반가자미로 만들었던 음식이다. -생략- 사실 가자미는 맛이 담백하고 살이 연하며, 비린내도 적어서 한국인들이 즐겨 먹어 온 어종이다.(‘가자미’)

예) 『해동농서』에는 ‘荊杷 굴기’라고 하였으며 “벼 고갱이를 따로 모으는 연장으로 쓰리나무를 구부려 만든 것으로 타작마당에 긴요하며 큰 솔가리 나무를 할 때에도 쓴다(疏剔禾稈之器也 揉荊編成列齒場圃間不可無者亦爲樵蘇所用).”라고 기록하였다.(‘갈퀴’)

예)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에서는 ‘마가목(馬櫃木)’으로 기록되어 있다. 《청장관전서》에서 원약허에게 보내는 편지에 ‘속칭 마가목(馬櫃木)은 원래 무슨 글자를 쓰는가요’(俗稱馬櫃木. 原號何字.)하는 질문에 ‘마가목은 채찍이나 지팡이를 만드는 줄만 알 뿐 무슨 물건인지 모르겠습니다.’(馬櫃木只知爲鞭與杖. 而不知爲何物.)라고 답하는 대목이 있다. ‘櫃’는 회초리를 뜻하므로 나무의 쓰임새에 따라 지어진 이름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김경선의 《연원직지》와 박지원의 《열하일기》에는 ‘마가목(馬家木)’으로 《홍재전서》에는 ‘마가목(馬加木)’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름의 유래를 확정하기 쉽지 않다. ‘마가목’의 한자를 ‘마아목(馬牙木)’으로 제시하며 마가목의 새싹이 말의 이빨처럼 보여서 이름 붙여진 것이라는 설명이 널리 알려진 듯하나 ‘마아목(馬牙木)’은 일본에서 ‘마아목(馬牙木)’이라고 부르는 것을 참고하여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마가목’)

- 국어정책적으로 말이 정리된 것을 기술할 수 있다.

예) ‘가르치다’와 ‘가리키다’를 구별해서 쓰게 된 배경

예) 가락국수가 우동의 순화어로 등장했지만 별개의 의미로 쓰이게 된 것

- 집필을 하면서 발견한 자료를 반영하여 작성하되 참고문헌을 밝혀둔다. 정보의 정확성은 감수진과 집필관리자가 추후에 검토한다.

- 다음과 같은 정보는 ‘언어 외적 정보’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예) [의학용어] 서혜부 림프선이 부어오른 것을 말하며 허벅다리 윗부분의 림프절이 부어 생긴 명울을 의미한다.

예) 총을 목표물에 조준할 때 이용하는 장치를 ‘가늌-쇠’라 한다.

예)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8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는 정신에 따라 ‘그름’은 ‘그을음’으로 표기가 고정되었다.(‘그을음’)

예) ‘中’의 15세기 한자음은 ‘둥’이므로 이 단어가 더 이전에 쓰였다면 ‘빅둥’의 형태로 표기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문헌에 나타나지 않은 표기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 ‘말’은 만주어 morin, 몽골어 mori, 중국어 馬 mǎ, 일본어 uma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말’의 이형태 ‘ㅁ’와 관련해서 중국어 mǎ와 일본어 uma를 참고할 수 있다.(‘말’)

☞ 다른 언어와의 비교는 알타이어 비교까지 포함되어야 할 수도 있어 작업 범위가 커지고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다른 언어와의 비교까지로 기술 범위를 넓히지 않는다.

- ‘언어 외적 정보’가 아닌 ‘언어 내적 정보’에서 기술할 내용

예) 19세기 이후 ‘그저’의 여러 이표기들은 1936년 표준어 사정 때 ‘그저’라는 표기는 “그냥” 등의 의미를, ‘거저’라는 표기는 “공짜로” 등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정리되고, 나머지 ‘그저’, ‘거저’ 등의 표현은 사라지게 되었다.(‘그저’)

예) ‘밴댕이’의 ‘댕’은 뒤에 붙은 접미사 ‘-이’의 영향을 받아 원래의 ‘당’이 ‘댕’으로 되었다는 것 이외에 ‘반당’의 어원은 알 수 없다.(‘밴댕이’)

예) ‘너울’은 여자들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 쓰던 전통적인 쓰개의 일종인데, 이러한 전통 예법이 사라진 20세기 초에는 서양식 결혼 예복에 맞추어 신부가 쓰는 ‘면사포’를 가리키기도 하였다.(‘너울’)

■ ‘언어 외적 정보’가 아닌 ‘기타 어원 설명’에서 기술할 내용

예) 물벌의 ‘물’은 한자와의 대응을 고려하면 ‘馬’의 직역어일 가능성이 있다.(‘말벌’)

예) ‘미늘’은 물(水)의 고대음 [미]와 늘(늘(刀)의 합성어로서 ‘물속에서 쓰이는 날’이라는 뜻인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미늘’)

예) 《우리말샘》에 ‘미달이’의 방언으로 나오는 ‘밀창’은 18세기 문헌 자료에 나타난다(원첩호로-밀창하야 그라로 들게 호교<1764년 이후 일동 :24>». 즉, ‘미달이’의 옛말인 ‘미다지’보다 더 이른 시기에 나온다. 이로 보아 ‘옆으로 밀어서 열고 닫는 문이나 창’을 일컫는 것으로 18세기에 ‘밀창’이 쓰이다가 19세기에 ‘미다지’ 어형이 등장하면서 세력이 약화된 것으로 짐작한다. 19세기 자료인 《국한회어》에서는 ‘미달이 推窓’으로 나오며, 《한불자전》과 《광재물보》에서는 ‘밀창 推窗’으로 나온다. 당시 두 어휘가 동일 사물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 이후 1940년 《조선어사전》에 ‘밀창’이 ‘미달이’의 사투리로 설명하고 있다.(‘미달이’)

예) ‘명석’은 ‘網席’의 한글 표기인 ‘망석’과 의미상 같기 때문에 서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명석’)

예) 15세기 어형인 ‘뭍-’은 어원적으로는 ‘물[水]’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명사 ‘물’에서 형용사 ‘물-[淡]’이 파생되고, ‘물-’의 모음이 교체되어 ‘뭍-’이 파생된 것이다. ‘뭍-’은 현대국어의 ‘물-’으로 이어지고, ‘뭍-’은 ‘뭇-’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불[火]’에서 ‘붉-[赤]’이 파생되고, ‘붉-’의 모음 교체로 ‘뽇-’이 파생되어 현대어의 ‘뽇-’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뽇다’)

■ 5.2.4. 기타 어원 설명

- 학계에서 널리 인정되지 않는 어원, 즉 민간 어원, 여러 설이 공존하는 어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어원 등을 기술한다.
- 어느 한 학설이 널리 인정되지 않은 채 여러 학설이 공존하는 경우에 ‘기타 어원 설명’에서 기술한다.

예) ‘가초’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공존한다면 ‘기타 어원 설명’에서 기술

언어 내적 정보	‘갓추’는 15세기 문헌에서부터 ‘ㄱ초’의 형태가 나타난다. 16세기 이후로는 ‘ㄱ초’와 함께 이를 중철 표기한 ‘갓초, 곧초’의 예도 나타난다. -생략-
기타 어원 설명	‘ㄱ초’의 구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용언 ‘갓-’에 파생접미사 ‘-호-’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동사 ‘ㄱ초-’의 어간이 그대로 부사로 파생되어 쓰였다는 견해와 용언 ‘갓-’에 부사파생접미사 ‘-호’가 결합하여 부사 ‘ㄱ초’가 만들어졌다는 견해가 있다. -생략-

- 널리 인정되는 학설과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학설이 있으면 ‘언어 내적 정보’와 ‘기타 어원 설명’에 나누어 기술한다.

예) ‘가재’에 대한 견해⁶⁾

언어 내적 정보	현대 국어 ‘가지’의 옛말인 ‘갓’은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 ‘갓’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가지’가 된 것인데, 이는 15세기에 처격 조사가 결합한 ‘가재’를 통해 알 수 있다. -생략-
세기별 용례	이기문(1998:165)에서는 15세기의 ‘가재’(가지에)를 ‘가지’에서 ‘ㅣ’가 탈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비(아비+이)’, ‘아가(아기+아)’처럼 말이 ‘ㅣ’인 체언들이 특히 속격과 호격에서 그 말을 탈락시킨 예들이 있다. 또한 나무의 줄기를 뜻하는 ‘가지’의 처격형 ‘가재’의 예도 있다.

- 명확하지는 않으나 어원사전 등에서 언급하였거나 널리 언급되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 기술한다.

예) ‘가시’의 어원을 명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부부의 낮춤말인 ‘가시버시’의 ‘가시’와, “장인”, “장모”를 뜻하는 ‘가시아비’, ‘가시어미’의 ‘가시’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가시아비’와 ‘가시어미’의 ‘가시’는 ‘갓’(여자, 아내)에 속격 조사 ‘이’가 결합된 어형인 ‘가시’가 변화를 겪은 ‘가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가시아비’)

예) ‘범아귀’는 ‘손아귀’의 뜻인 중국어 ‘虎口’의 번역 차용어로 추정된다.(‘범아귀’)

예) 김무림(2020:472)는 방언형 ‘버버리’를 고려하여 15세기의 *버우-가 원래 *버브-였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에 따르면 ‘버워리’는 *버브어리 > *버브어리 > 버워리의 변화를 겪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병어리’)

- 민간 어원이나 어원 관련 설화 등을 기술할 수 있다.

예) ‘강낭이’가 ‘江南+이’라는 어원

예) ‘물레’가 문래(‘文萊’ 또는 ‘文來’)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생긴 이름이라는 어원

예) 옛날에 어떤 집에 달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자 주인이 피를 내어 “가라고 가랑비 오네.”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손님은 “있으라고 이슬비 오네.”라고 응수하며 버티었다고 하는 데서 ‘가랑비’와 ‘이슬비’가 생겼다는 민간어원설이 있다.(‘가랑비’)

☞ 개인의 학설이어서 특별히 밝혀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출처는 ‘참고 논저’에서 밝히

는 것으로 대신하고 ‘기타 어원 설명’에서는 밝히지 않는다.

예) ‘갈보’의 어원과 관련하여 ‘蠍婦(갈부)’에서 온 것으로 보기도 하였으나 이는 의미를 고려하여 고유어 ‘갈보’와 유사한 한자음을 가져다 쓴 것에 불과하다. 한편 ‘갈보’의 어원을 1920~1930년대에 활약한 영화배우 ‘가르보’에서 찾기도 한다. ‘가르보’라는 영화배우가 아름다운 용모와 빼어난 연기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다가 ‘갈보’로 줄어들었고, 이어서 ‘웃음과 몸을 파는 여자’를 가리키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설에 그친다.(‘갈보’)

- 관련이 있는 다른 표제어와의 특이한 역사적 관계를 기술할 수 있다.

예) ‘간섭하다’는 명사 ‘간섭’에 ‘하다’가 결합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干涉하다’는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나고 한글 표기인 ‘간섭하다’는 17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나 ‘간섭’보다 출현하는 시기가 빠르다. 문헌에서 나타나는 예로만 본다면 동사 ‘干涉하다’, ‘간섭하다’의 쓰임이 명사 ‘간섭’의 쓰임보다 앞서고 있다.(‘간섭’)

예) ‘어숙’은 ‘어숙하다<1880 한불 :24>’의 ‘어숙’과 관련이 있다. (‘어숙비숙’)

-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으나 별도의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단어의 어휘 역사 정보는 기술할 수 있다.

예) ‘단추’ 항목에서 ‘돌마기’를 기술함.

예) 현재 ‘너비아니’의 비규범 표기인 ‘너브할미’는 《한불사전》(1880)에 ‘너부할미’로 나타난다. ‘너부할미’는 ‘너브할미’의 제2음절 모음 ‘ㅡ’가 양순음 ‘ㅂ’ 아래에서 ‘ㄴ’로 바뀐 것이다. 문세영의 《조선어사전》(1940)에서는 ‘너브할미’를 ‘너비아니’의 방언으로 설명하였지만, 《조선일보》(1936. 11. 28.)에 실린 <조선어 표준말 모음 (21)>에서는 ‘너비아니’와 ‘너브할미’를 동의어로 설명하였다.(‘너비아니’)

☞ ‘언어 내적 정보’의 ‘내적 정보를 기술할 때 주의할 사항’ 참조

- 다음과 같은 정보는 ‘기타 어원 설명’에서 기술하지 않는다.

- 동음이의어 혹은 단순히 관련이 되는 다른 단어는 기술하지 않는다.

예) 15세기 ‘ㄱ장’에는 동음이의어로 “끝”을 뜻하는 명사도 있었는데 이 단어는 ‘가장자리’에 흔적이 남아 있다. 또한 명사 ‘ㄱ장’이 관형사형 어미 뒤나 명사 뒤에서 쓰인 경우 “까지,껏”의 의미를 지니기도 했다.(‘가장’)

예) 15세기에는 동음어로서 “베짱이”의 뜻인 ‘뵤짱이’와 “질경이”의 뜻인 ‘뵤짱이’가 있었다.(‘베짱이’)

☞ ‘ㄱ장’은 《우리말샘》에 동음이의어가 구분되어 실려 있으므로 ‘기타 어원 설명’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뵤짱이’는 ‘베짱이’의 뜻만 실려 있다. 이런 경우는 ‘기타 어원 설명’이 아닌 ‘메모’에 추가할 표제어로 남겨야 한다.

예) 어근 ‘갑작’은 ≪1880 韓佛字典 132≫에 나온 ‘갑작부리’, ‘갑작쓰레[猝然]’에서 볼 수 있다. ‘갑작스럽다’는 ≪1940 修正增補朝鮮語辭典≫에서처음 등장한다.(‘갑자기’)

예) 15세기 문헌에서 ‘밥의 값’이 확인되는 것을 고려하면 15세기에는 ‘밥값’이 한 단어가 아니라 명사구였다고 할 수 있다. 더 ㅼ 閻羅老子 | {밥의 갑슬} 헤리니<1467 사법 05 ㄱ> (번역: 다른 때에 염라노자가 밥값을 셀 것이니)

☞ 집필자는 구에 대한 판단을 내린 후 용례를 찾는 것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사구였다는 식의 기술은 할 필요가 없다.

■ 최초 출현형 이전 어형에 대한 추정

☞ 한글 창제 이전의 차자 표기 문헌에서 나타나는 어형에 대한 기술은 나중에 현재의 집필과 별도로 검토가 진행될 계획이므로 따로 집필하지 않는다.

■ ‘기타 어원 설명’이 아닌 ‘언어 내적 정보’에서 기술할 내용

예) 15세기의 부사 ‘ㄱ장’에는 “모두, 다” 정도로 쓰인 예도 보인다.(‘가장’)

예) ‘뵤-’에 결합하던 사동파생접사가 ‘-이-’에서 ‘-히-’로 변화하였다.(‘뵤히다’)

예) ‘뵤-’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느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그 어형을 바꾸는 동사이다. 1450년대까지는 ‘뵤-/뵤뵤-’, 1460년대부터는 ‘뵤-/뵤오-’와 같은 이형태를 가지는 ‘뵤’ 불규칙 용언이었다. 이후 ‘뵤고, 뵤디’와 같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나타나던 ‘뵤-’이 ‘뵤아, 뵤을’과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도 ‘뵤-’으로 바뀌었다. 이로써 ‘뵤-’은 자음이든 모음이든 어미 앞에서는 항상 ‘뵤-’으로 나타나는 규칙 용언이 되었다.(‘뵤다’)

예) 15세기에는 연철표기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15세기의 ‘갈아디-’는 예외적 표기이다. 15세기에는 ‘다르-(異), 오르-(上) 등’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는 ‘달ㅇ-, 올ㅇ-’과 같이 분철로 표기되는 몇몇 용언이 있다. 이때 ‘ㅇ’은 자음으로, 유성 후두 마찰음 ‘ㅇ’[h]이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는 ‘다르-, 오르-’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가르-’ 역시 이런 교체를 보이는 유형에 속한다. 15세기 문헌 등에서 활용형 ‘갈아’만 보일 뿐 ‘가르-’에 자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결합한 형태는 나타나지 않지만, ‘갈아디-’, ‘갈아나-’ 등을 고려하면 ‘가르-’가 기본 어간으로 파악된다.(‘갈라지다’)

예) 16세기의 ‘기천’은 ‘기’와 ‘천(川)’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천(川)’은 “내”를 뜻하는 한자어인데 ‘기’는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다. ‘기천’의 ‘기’를 “물가”를 의미하는 한자어 ‘개(浦)’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浦 개 보 ≪1527훈몽자회 상:3 ㄱ≫’에서 보는 것처럼 16세기 ‘포(浦)’의 훈은 ‘기’가 아니라 ‘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개천’)

예) ‘비슷하다’가 ‘비슷하다’로 바뀌는 현상은 국어사에 있던 ‘ㄱ’과 ‘ㅅ’의 교체로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 ‘틀림없이 꼭’을 뜻하는 ‘반드기’가 ‘반드시’로 바뀌었는데, 이들은 ‘반독’, ‘반돏’에 접사 ‘-이’가 결합한 형태이다.(‘비슷하다’)

예) 문헌에서 확인되는 ‘밥풀’의 대부분은 ‘밥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飯粒兒’은 <방언유석>(1778)에서는 ‘밥알’이 제시되어 있다.(‘밥풀’)

■ ‘언어 내적 정보’가 아닌 ‘기타 어원 설명’에서 기술할 내용

예) ‘너울’은 한문으로 기록된 문헌들에서 ‘汝火’나 ‘羅兀’로 나타난다. 훈차(訓借) 표기인 ‘汝火’는 ‘*너블’로 재구되는데, ‘*너블 > *너블 > 너울’의 변화 과정을 거쳐 ‘너울’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羅兀’은 ‘너울’의 취음(取音) 표기이다. 문헌에서 처음 확인되는 시기는 비슷하지만 후대로 갈수록 ‘汝火’보다는 ‘羅兀’이 쓰였는데, ‘汝火’는 《선조실록》(선조 36년(1603) 5월 2일 기사), 18세기 중반 이전의 의궤들에서 확인되며 ‘羅兀’은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1614), 《속종실록》(숙종 14년(1688) 11월 12일 기사), 18세기 중반 이후의 의궤들에서 확인된다.(‘너울’)

■ ‘기타 어원 설명’이 아닌 ‘관련어’로만 제시할 내용

예) 18세기에 “눈을 깜작이-”를 의미하는 ‘눈 씌적이-’와 같은 구성이 나타나고, 20세기 사전에서도 동사 ‘꿈적이-’의 의미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다”를 예로 들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몸’을 움직이는 의미인 ‘꿈적이다001’와 ‘눈’을 움직이는 의미인 ‘깜작이다001’은 의미의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고은숙(2010)에서는 이러한 동사들을 15세기의 ‘곰죽-’류 용언에서 파생돼 나온 동일 기원어임을 논의하였다.(‘꿈적이다’)

■ 5.2.5. 세기별 용례

● 의미 변화가 있는 경우 의미별로 나누어 제시한다.

■ ‘언어 내적 정보’에서 의미 변화를 설명한 경우에 의미별로 나누어 의미를 먼저 제시하고 해당 의미에 맞는 용례를 제시한다.

■ 제시하는 의미 풀이는 최대한 간략하게 한다.(‘역사정보’ 지침)

예) ‘어리석다’ / ‘나이가 적다’

● 세기별로 3개 이상 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말뭉치에서 용례가 3개 이상 발견되지 않으면 3개보다 적게 제시할 수 있으며, 용례가 없는 세기는 당연히 제시하지 않는다.

■ 용례는 1945년 이전에 나온 문헌에서 발견된 것까지만 인용할 수 있다.

예) 할머니머러엔 검불과 {가서랭이} 터럭이 불성 사나웠읍니다. 《경향신문 1983.12.03. 8면》

☞ 1983년에 나온 기사이므로 인용할 수 없다.

- 용례, 출처, 한문 원문, 현대역을 제시한다.
 - ❖ 용례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길이 범위 내에서 제시한다.
 - ❖ 출처는 말뭉치에 제시된 그대로 제시한다.
 - ❖ 한문 원문은 말뭉치에 있는 경우에 한해 제시한다.
 - ❖ 현대역은 집필자가 번역하여 제시한다.

● 이표기 및 변화형 제시 방법

- 세기별로 말뭉치에서 확인되는 모든 이표기 및 변화형을 제시한다.
 - ❖ 세기가 다르면 앞선 세기에서 제시된 이표기 및 변화형이라도 다시 제시한다.

예) ‘그저께’

세기	☐ 15세기 ☒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미상 ☐ 20세기
표기	그적괴, 그것괴

세기	☐ 15세기 ☐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미상 ☐ 20세기
표기	그적괴, 그적씩, 그적괴, 그것괴

- 같은 세기 내의 이표기 및 변화형의 배열 순서는 용례에서 제시되는 순서대로 한다.
- 어간을 제시하되 체언은 조사를 제외한 부분, 용언을 어미를 제외한 부분을 제시한다. (‘형태·표기 변화’ 부분을 기술할 때와 표기법이 다르다. ‘형태·표기 변화’ 부분에서는 ‘다르다’로 제시한다면, 그 외의 부분에서는 ‘다르-’로 제시한다.)
 - ❖ 뒤에 오는 조사나 어미에 따라 이형태 교체가 생길 때는 이형태를 각각 제시한다.
예) 나무, 낚 / 노로, 놀ㅇ, 놀, 놀 (‘낚’과 ‘놀ㅇ’의 차이는 한 음절로 입력이 가능한가의 여부이다. 한 음절로 입력이 가능한 경우에는 겹받침으로 적되, 입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적는다. 예컨대, ‘엿ㅇ’은 한 음절로 입력할 수 없으므로 ‘엿ㅇ’과 같이 적는다.)
 - ❖ 용언의 경우 ‘다르-’와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형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형태에 줄표(-)를 표시한다.
예) 다르-, 달ㅇ-, 달르- / 갓잡-, 갓잡- / ㄱ르-, 굴ㅇ-, 가르-, 갈르-
 - ❖ 용언의 경우 중철 표기인 경우도 모든 이형태에 줄표(-)를 표시한다.
예) 갑표-, 갑-, 갓-
 - ❖ 후행하는 어미의 환경에 따른 이형태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줄표(-)를 표시한다.

예) 얹미이-, 얹ㅁ이-

- ❖ 체언의 경우에는 나타난 이표기대로 제시한다.

예) 용언 : 다ㄹ-, 달ㅇ-, 달ㄹ- / 갑ㅎ-, 갇-

체언 : 노ㄹ-, 놀ㅇ / 꽃ㅅ-, 꽃ㅎ

- ❖ ‘-ㅎ-’가 탈락한 경우에도 이표기로 제시한다.

예) 그속ㅎ다, 그속다

- ❖ ‘ㅎ’말음 체언의 경우에는 ‘ㅎ’을 받침에 표기하지 않고, 분리하여 적는다.

예) 암ㅎ, 수ㅎ, 나라ㅎ 등. (‘앓’, ‘술’, ‘나랏’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 20세기에는 다양한 이표기 및 변화형이 나타나므로 빈도가 적거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이표기 및 변화형은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예) ‘그을다’의 이표기 ‘그러서’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이표기로 보이므로 제시하지 않는다.

~~철근『콩크리트』삼층 건물은 오랜 풍상에 {그을} 대로 {그러서} 마치 고성(古城)과도 가튼
장중한 늦감을 준다. <조선일보 1936.05.29. 3면>~~

예) ‘궂전’이 이전 문헌부터 나타나고 ‘귀전, 귀쩐’은 표기의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용하지 않는다.

~~{귀전에} 박관찰이 었저고 ㅎ는 말이 들닌다. <조선일보 1920/07/21, 4>
軍縮의 空砲聲 쯤어야 {귀쩐에나} 들릴 줄이 앓으랴. <동아일보 1933/11/19, 1>~~

- 20세기에는 대부분의 단어에 대한 쓰임이 확인되므로 복합어의 일부 성분으로 쓰인 예를 제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깜박깜박’의 예에서 ‘깜박깜박하다’의 예를 제시하지 않는다.

~~외로운 등잔불이 {깜박깜박ㅎ는} <1922년_고목화 유형=main 언어=kor 장치=68a:1 입력
저본=韓國 開化期 文學叢書, 1: 新小説*巖安(譯)小説 6>~~

● ‘세기별 용례’ 기술 방법

- 용례는 같은 세기 내에서는 연대순으로 제시한다.
- 연대미상 자료의 경우, 19세기와 20세기 사이에 제시한다.
- 같은 세기의 용례는 가능한 다양한 형태를 보일 수 있도록 제시한다.
- 한자어의 경우 번역문이나 본문에 한자 표기 어형이 출현하면 제시한다. 한문 원문에
만 나오는 것은 제외한다.

언어 내적 정보	‘별세하다’는 18세기 문헌에서 한자 표기인 ‘別世하다’로 나타나고 19세기 문헌에서부터 한글 표기인 ‘별세하다’로 나타난다.
세기별 용례	18세기 : (別世하다) 내 父親은 불셔 {別世하여} 계오시되 ≪1790 인어대방 3:28ㄱ≫ (번역: 내 부친은 벌써 별세하여 계시되) 19세기 : (별세하다) {별세하다} 別世 ≪1880 한불사전 323≫ 그 남편은 먼저 {별세하교} ≪1899 매일신보 3월 17일~4월 3일≫ (번역: 그 남편 -하락-)

- 인용 문헌의 경우, 갖은 이름을 밝힌다. (‘석상’을 버리고 ‘석보상절’을 취한다. 단, 1차년도 사업에서 다른 양식으로 기집필된 경우 수정을 보류한다.)
- 20세기의 경우에는 말뭉치에서 예가 없으면 다음과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여 예를 찾을 수 있다.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newslibrary.naver.com) / 연세 20세기 한국어 말뭉치 (<https://ilis.yonsei.ac.kr/corpus/#/search/TW>)
 - 신문의 경우에는 ‘연도+신문명+월일+면수’로 표시한다. (단, 1차년도 사업에서 다른 양식으로 기집필된 경우 수정을 보류한다.)
예) 1924 조선일보 5월 15일 3면
- 말뭉치 혹은 원문에 나타난 표기 그대로 인용하되 띄어쓰기만 현대의 띄어쓰기 규정을 준용한다.
 - 원문에 한자가 노출되면 한자 그대로 인용하고 한자(한글), 한글(한자) 형식인 경우에도 그대로 인용한다.
예) 萬頃 大東團, 白□ A團, 白鵠 B團 等이었는데 第二日인 決勝戰에 이르러<1925 조선일보 9월 2일 4면> 번역: 만경 대동단 백□ A단, 백합 B단 등이었는데 제2일인 결승전에 이르러(‘백합’)
 - 신소설, 독립신문 등에는 띄어쓰기가 이미 되어 있으나, 현대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에 맞추어 수정해야 한다.
 - 말뭉치에서 용례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말뭉치에 있는 띄어쓰기 오류, 명백한 오타 등을 발견하게 될 경우, 용례를 인용하면서 수정하고 ‘우리말샘’ 사이트의 게시판에 기록을 남겨 말뭉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말뭉치 정비에 매우 중요하다.
 - ‘-ㄹ씨-’의 경우, 말뭉치 구축 지침에서 처리한 것과 같이 붙여 쓴다. (‘-을씨라’를 취하고 ‘-을 씨라’를 버린다.)

- 용례 중에 나오는 표제어는 { }를 사용하여 어절 단위로 표시한다.

예) {나모와} (×), {나모와} (○)

● 용례 번역

- 19세기 전반기 이전 문헌에 나타난 용례까지만 현대어로 번역한다.
 - ❖ 단, 19세기 후반기 이후 문헌에 나타난 용례 중에서 한자가 많이 노출된 경우에는 현대어로 번역한다.

예) 萬頃 大東團, 白□ A團, 白鵠 B團 等이었는데 第二日인 決勝戰에 이르러<1925 조선일보 9월 2일 4면> 번역: 만경 대동단 백□ A단, 백합 B단 등이었는데 제2일인 결승전에 이르러(‘백합’)

- 표제어에 대응하는 예만 있는 어휘집의 용례는 번역하지 않는다.

예) 兩臉骨 {광디뼈} <1690 역어유해 상:33ㄴ> (번역: 광대뼈)

- 번역을 할 때 설명과 일치되도록 유의한다.

예)네 代官의 가 내 말로 {그적기} 여기 내려와 어제라도 오을 거슬 路次의 굿브매 이제야 문까지 왔습니 → 너의 대관에게 가 내 말로 “그저께 여기 내려와 어제라도 올 것을, 도중에 피곤하여 이제야 문까지 왔습니다.” <1676 첩해신어 초간본 1:1ㄱ-1ㄴ>

☞ 어원 설명에서는 이 당시의 문헌이 ‘그저께’의 뜻이 아니라 ‘며칠 전’의 의미라고 설명했으나 ‘그저께’로 번역해서 설명과 맞지 않는다.

- 어원적으로 같은 형태로 다의였으나 후대에 별개의 단어로 형태가 달리 분화한 경우에는 현대어로 번역할 때 각각의 의미에 맞는 단어를 선택하여 번역한다.

예) ‘가르치다’와 ‘가리키다’

■ 5.2.6 이형태/이표기

- 세기, 제시 순서로 이형태와 이표기를 모두 제시한다.
 - 앞선 세기에서 나온 이표기나 변화형은 중복하여 제시하지 않는다.

예) 밤나모, 밤남, 밤남오, 밤나무(‘밤나무’)

■ 5.3. 부가 정보

■ 5.3.1. 관련어

- 형태 분석 정보 및 어원과 관련된 단어를 제시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관련어로 제시하지 않는다.
 - 단순히 형태론적으로 관련된 복합어나 합성어
 - 단순히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
 - ☞ 단,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 각각 어원 설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 5.3.2. 참고 논저

- 집필에 참고한 논저를 제시한다. 논저의 내용이 집필에 포함된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내용이 있어 참고한 논저까지 포함된다.
- 참고 논저 제시 방식은 학술 논저의 일반적인 제시 방식을 따르며, 단행본과 논문을 구별하여 기술한다.
 - 예) 황선엽(2009), ‘명아주’(藜)의 어휘사, 《국어학》 55, 국어학회, 213-238.
 - 예) 조항범(2022), 《말과 글의 달인이 되는 법: 우리말 어원 사전》, 태학사.

■ 5.4. 기타 정보

■ 5.4.1. 메모 작성

- 위에서 기술할 수 없는 내용, 어휘 역사 정보와 관련 없는 《우리말샘》 사전 기술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 집필자의 추가 의견, 검토하거나 논의할 내용 등을 기술한다.
 - 어원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동음어의 재분류 등 어원과 관련하여 수정이 필요한 사전 기술
 - 용례에서 발견된 말뭉치의 오타기, 띄어쓰기 오류
 - 예) 남광우 《고어사전》에서는 ‘발마보다’를 표제항으로 다루고 있다.(‘뺨다’)
 - 동음어인데 《우리말샘》에 오르지 않은 옛말
 - 예) 15세기에는 동음어로서 “베짖이”의 뜻인 ‘뽕짖이’와 “질경이”의 뜻인 ‘뽕짖이’가 있었다.(‘베짖이’)
 - 용례 검색 중에서 추가로 용례를 발견한 단어인데, 북한어로 되어 있는 표제어
 - 예) ‘배배하다’의 관련어인 ‘비비하다’는 북한어로 등재되어 있음.

6. 부록: 현상 설명을 위한 표현

■ 6.1. 음운 변화에 관련된 표현

☞ 음운 변화에 대해 기술할 때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한다. () 속의 내용은 생략하거나 적절히 바꿔 쓸 수 있다.

● 아래아 소실

- 16세기 이후 나타난 제2음절 이하의 ‘ㆍ’가 ‘ㅡ’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으로 인해)
- 16세기 이후 나타난 제2음절 이하의 ‘ㆍ’가 ‘ㅡ’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어중-모음 ‘ㆍ’도 ‘ㅡ’로 변하면서
- 18세기 이후 나타난 제1음절의 ‘ㆍ’가 ‘ㅏ’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으로 인해)
- 18세기 이후 나타난 ‘ㆍ’가 ‘ㅏ’로 변하는 현상에 영향을 받아 ‘ㆍ’도 ‘ㅏ’로 변하면서

예) 18세기 이후 나타난 ‘ㆍ’가 ‘ㅏ’로 변하는 현상에 영향을 받아 ‘ㆍ’도 ‘ㅏ’로 변하면서 ‘광디ㅏ’의 ‘디’도 이러한 변화를 겪어 18세기부터 ‘광대ㅏ’로 나타나게 되었다.

● 어두 자음군

예) ‘뽕-’의 첫소리인 ‘ㅂ’은 어두 자음군이 사라지면서 된소리로 변하여 ‘ㅃ’에서 ‘ㅍ’으로 변함에 따라 현재에 이르렀다.→ ‘뽕-’의 첫소리인 ‘ㅂ’은 된소리로 변하였고 현대 맞춤법에서 된소리는 같은 글자를 반복하여 적도록 함에 따라 “걸러뽕다”로 표기하게 되었다.

예) ㅅ의 초성 ‘ㅅ’은 중세 국어에서 ‘ㅅ’과 ‘ㅆ’이 모두 발음되는 어두 자음군이였다. 근대 국어 이후 된소리로 바뀌고, ‘ㅅ’을 ‘ㅆ’으로 표기하게 됨에 따라 20세기 이후 ‘누에ㅅ’로 나타나 현재에 이르렀다.(예: 누에ㅅ) -> 예) 제1음절의 ‘ㅅ’은 근대 국어 시기에 된소리 ‘ㅆ’로 발음되었고 ‘ㅅ’과 ‘ㅆ’로 표기되었는데 점차 ‘ㅆ’으로 굳어져 현재의 ‘ㅆ’이 된다.(예: ㅅ)

☞ 된소리 표기와 관련된 어두 자음군에 대한 설명은 ‘표기 변화에 관련된 표현’ 참조

● △

■ △ 소실

예) 16세기에 ‘ㄱ’의 끝소리인 유성 마찰음 ‘ㄱ’[z]이 소실되어 ‘ㄱ’[t]이 되었다.(‘가없다’)

예) ‘ㄱ’[t]은 16세기 이후 ‘ㄱ’[t]이 소실됨에 따라 ‘ㄱ’[t]이 되었다(‘가말다’)

예) 16세기 이후 ‘ㄱ’[t]이 소실되면서 ‘그옥ㅎ다’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그옥하다’)

예) 16세기 이후 ‘ㄱ’[t]이 소실되거나 ‘ㅅ’으로 변화하였는데, 전자의 경우 ‘*그으리-’로, 후자의 경우 ‘*그스리-’로 변화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그슬리다’)

예) 16세기 이후로 ‘ㄱ’[t]이 소실될 때 대개는 ‘ㄱ>ㅇ’으로 변화하였으나, ‘ㅅ’[t]과 ‘ㅅ’[t]의 경우 ‘*그으리-’로, 후자의 경우 ‘*그스리-’로 변화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그슬리다’)

예) ‘ㄱ’[t]은 16세기에 소실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어휘에서는 ‘ㅅ’, ‘ㅆ’으로 변하기도 하였

다.('느시')

● ㅼ ㅅ

■ ㅼ > [w]

예) 15세기에 'ㅼ'이 반모음 [w]로 ㅅ하여 '겡와시, 겡위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우리말샘 '거지')

예) 16세기 문헌에서 나타나는 '갈웁'은 본래 *갈뵍의 'ㅼ'이 반모음 [w]로 ㅅ하여 ㅅ형성된 것이다.('갈뵍')

■ ㅼ 소실

예) 15세기 중반 이후 'ㅼ' 소리가 사라지면서 '갓가비'는 '갓가이'로 ㅅ화하였다.('가까이')

예) 15세기 중엽 이후 'ㅼ'은 반모음 [w]로 ㅅ화하였는데 접미사 '-이' 앞에서는 'ㅇ'로 ㅅ함에 따라(예: 가까이하다)

15세기 중반 이후 ㅼ 소리가 반모음 [w]로 ㅅ화하면서(예: 가깝다)

15세기 중엽에 'ㅼ'이 반모음 [w]로 ㅅ화하면서 '어들-'은 '어드우-'로 ㅅ화하여 '어듭-/어두우-'의 교체를 보이는 불규칙 용언이 되었다.(예: 어듭다)('역사정보' 지침)

● 구개음화

- (근대 국어 시기에 나타난 모음 'ㅣ'나 반모음 'ㅣ' [j] 앞의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에 따라/로 인해)

예) 근대 국어 시기에 나타난 'ㅣ' 모음 앞의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로 인해 '부터'가 '부쳐'가 되고

● ㅣ ㅅ

- 18세기에 모음 'ㅅ, ㅅ, ㅅ'가 뒤따르는 'ㅣ' 모음의 ㅅ향으로 'ㅅ, ㅈ, ㅊ'가 되는 ㅣ ㅅ 동화(에 따라/로 인해)

※ 18세기에 단모음 'ㅅ, ㅅ, ㅅ'를 지닌 단어는 후행하는 'ㅣ' 모음의 ㅅ향으로 각각 'ㅅ, ㅈ, ㅊ'가 되는 'ㅣ' 모음 ㅅ행 동화를 겪었다. ('역사정보' 지침)

예) 18세기에 모음 'ㅅ, ㅅ, ㅅ'가 뒤따르는 'ㅣ' 모음의 ㅅ향으로 'ㅅ, ㅈ, ㅊ'가 되는 ㅣ ㅅ 동화에 따라 '괘씸하다'가 *괘씸하다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 18세기에 모음 'ㅅ, ㅅ, ㅅ'가 뒤따르는 'ㅣ' 모음의 ㅅ향으로 'ㅅ, ㅈ, ㅊ'가 되는 ㅣ ㅅ 동화에 따라 '달팡이>달팽이'로 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달팽이'는 이 '달팽이'가 'ㅈ'와 'ㅅ'의 표기가 혼동되면서 나타난 것이다.

☞ “ㅈ [ay]가 [ε]로 단모음화한 후”처럼 표기와 무관한 소리의 ㅅ화는 기술하지 않는다.

● 원순 모음화

• 근대 국어 시기에 순음 ‘ㄹ, ㄴ, ㅍ’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ㅓ’로 변하는 원순 모음화(에 따라/로 인해)

예) 근대 국어 시기에 ‘ㄹ’ 뒤에서 ‘ㅡ’가 ‘ㅓ’로 변화하는 원순 모음화가 있었는데, ‘눈물’에는 이러한 변화가 좀 더 일찍 적용되어 16세기에 ‘눈물’로 나타나 현재에 이르렀다.(‘눈물’)

예) 18세기에는 ‘ㄴ’ 아래의 ‘ㅡ’가 ‘ㅓ’로 바뀌는 원순 모음화의 영향에 따라 ‘밋부다’로 바뀌었다.(‘미쁘다’)

예) 한편 근대국어 시기에는 ‘밋부다’ 형태도 보이는데 이는 ‘ㄴ’ 아래에서 ‘ㅡ’가 ‘ㅓ’로 바뀌는 원순모음화 현상을 반영한 것이며(‘바쁘다’)

예) 근대국어 시기에 ‘ㅍ’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ㅓ’로 원순모음화 됨에 따라 18세기에 ‘거꿀’이 나타나게 되었다.(‘꺼풀’)

예) 근대국어 시기에 ‘ㄹ, ㄴ, ㅍ’ 아래에서 모음 ‘ㅡ’는 ‘ㅓ’로 변하는 원순모음화가 일어났는데 ‘검붉다’도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18세기에 나타나는 ‘검붉다’는 17세기에 발생한 원순모음화를 경험한 형태로 18세기에 ‘검붉다’와 ‘검붉다’가 공존하다가 ‘검붉다’가 정착되면서 현재 이른 것이다.(‘검붉다’)

● 전설 모음화

• (근대 국어 후기에/ 19세기에) ‘ㅈ’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ㅣ’로 바뀌는 전설 모음화가 일어났다.

예) 19세기에 치찰음 ‘ㅈ, ㅉ, ㅊ’ 뒤에 오는 모음 ‘ㅡ’가 ‘ㅣ’로 변하는 전설모음화가 일어나 ‘뉘우츠며, 뉘우츠니’ 등이 ‘뉘우치며, 뉘우치니’로 변화하였다.(‘뉘우치다’)

예) 근대 국어 후기에 ‘ㅈ’ 아래의 ‘ㅡ’가 ‘ㅣ’로 변화하는 전설모음화가 나타났는데, 이 영향으로 20세기 이후 ‘느직이’로 나타나 현재에 이르렀다.(‘느직이’)

예) 이후 ‘ㅈ’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ㅣ’로 바뀌는 전설모음화에 따라 ‘*ㄱ지론이’가 된 후(‘가지런히’)

예) 19세기 이후 ‘ㅈ’ 아래에서 ‘ㅡ’가 ‘ㅣ’로 동화되는 현상으로 인해 ‘지리-’로 변화되어 현재에 이르렀다.(우리말샘 ‘지리다’)

● 이중모음 '의'의 단모음화: 의>이

• (근대 국어 후기에/19세기에) 자음 뒤에서 모음 ㅛ가 ㅣ로 바뀌는 현상(에 따라/으로 인해)

예) 근대 국어 후기에 이중 모음 ‘ㅛ’가 ‘ㅣ’로 단모음화하여 ‘관디’로 나타난다.

● ㅛ → ㅣ

• 근대 국어 시기에 양성 모음 ‘ㅛ’가 음성 모음 ‘ㅓ’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로 인해) ○○세기 문헌에서 ‘○○’로 나타난다.

예) 근대 국어 시기에 양성 모음 ‘ㅛ’가 음성 모음 ‘ㅓ’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17세기 문헌에서 ‘광주리’로 나타난다.

● ㄱ의 약화

• ㄱ이 약화된 형태, 유성 후두 마찰음 ㅇ[h]

예) ‘궤애’는 기원적으로 “자르다, 베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 ‘궤-’와 도구를 뜻하는 접미사 ‘-개’의 결합인 ‘*궤개’에서 ㄱ이 약화된 형태로 추정된다. 16세기에 유성 후두 마찰음 ㅇ[h]이 사라지면서 ‘궤애’는 ‘궤새’가 되었고.(우리말샘 ‘가위’)

예) ‘걸이다’는 동사 ‘걸-’과 피동접미사 ‘-기-’가 결합한 것으로, 접미사 ‘-기-’의 ‘ㄱ’이 어간 말음 ‘ㄹ’ 뒤에서 약화되어 유성 후두 마찰음 ‘ㅇ’[h]으로 실현되면서 ‘걸이다’로 나타난 것이다.(우리말샘 ‘걸리다’)

예) ‘걸오-’는 동사 ‘걸-’에 접미사 ‘-고-’가 결합한 것으로 ‘ㄹ’ 뒤에서 ‘ㄱ’이 약화되어 유성 후두 마찰음 ‘ㅇ’으로 실현된 것이다.(우리말샘 ‘걸우다’)

예) ‘걸음’이 ‘*거름’과 같이 연철 표기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의 ‘ㅇ’은 ‘*ㄱ’이 약화된 유성 후두 마찰음 [h]이거나 ‘*ㄱ’이 탈락한 ‘흔적’으로 설명되고 있다.(‘거름’)

※ ‘ㄹㅇ’ 연쇄의 변화: 16세기의 ‘걸음’은 ‘*거름’을 거쳐 ‘거름’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6세기의 ‘걸음’이 ‘거름’으로 연철 표기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2음절의 첫소리 ‘ㅇ’이 유성 후두 마찰음이었음을 알 수 있다. 16세기에 유성 후두 마찰음의 ‘ㅇ’이 소멸하면서 ‘걸음’의 제1음절 끝소리인 ‘ㄹ’이 연철 표기 되어 ‘*거름’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역사정보’ 지침)

※ 16세기에 유성 후두 마찰음 ‘ㅇ’[h]이 소멸하면서 제1음절의 말음 ‘ㄹ’이 연철 표기 된 ‘구레’가 나타나게 되었다.(‘역사정보’ 지침)

● ㅎ의 약화

예) 근대 국어 시기에 모음 사이에 있는 ‘ㅎ’이 약화된 후 결국 탈락하게 되었는데 ‘가희툽’ 또한 이러한 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우리말샘 ‘가위툽’)

예 ‘ㄱ즈론이’는 형용사 ‘ㄱ즈론ㅎ’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ㄴ’과 모음 사이에서 ‘ㅎ’이 약화된 것이다.(우리말샘 ‘가지런히’)

예) 16세기에는 모음 사이에서 ‘ㅎ’이 약화되어 탈락한 후 음절이 축약된 ‘개[kay]’ 형태가 등장하였다.(우리말샘 ‘개’)

예) ‘즐히-’는 어종의 ‘ㅎ’이 약화된 후 탈락하여 ‘즈리-’로 변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우리말샘 ‘지리다’)

예) 근대 국어 시기에 ‘ㄴ, ㄹ’ 등의 자음이나 모음과 모음 사이에 존재하는 ‘ㅎ’이 약화되어 탈락되었는데 ‘견호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겪어 ‘*겨노다’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우리말샘 ‘겨누다’)

● ㄴ>ㅇ

19세기에 ‘ㅣ’ 모음 앞에 ‘ㄴ’이 올 수 없게 됨에 따라 ‘니’가 ‘ㅇ’으로 바뀌었다.

● ㄹ 첨가

● 축약

예) ‘굳히’의 ‘ㄷ’과 ‘ㅎ’이 축약되어 ‘ㄱ티’로 통합되고(우리말샘 ‘같이’)

예) ‘구티-’는 동사 ‘굳-’에 사동 접미사 ‘-히-’가 결합하여 축약된 것이다.(우리말샘 ‘굳히다’)

예) ‘딕히다’의 제1음절 종성 ‘ㄱ’과 제2음절 초성 ‘ㅎ’이 축약되어 ‘ㅋ’으로 소리 나는데 이를 반영하여 ‘딕키텔’, ‘딕키텔’가 나타난다.(우리말샘 ‘지키텔’)

예) 19세기 후반 이후 ‘가음’이 한 음절로 축약되어 오늘날과 같은 형태인 ‘감’이 되었다.(우리말샘 ‘감’)

예) 19세기에 ‘기음’이 축약되어 ‘김’으로 나타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우리말샘 ‘김’)

예) ‘가이다’에서 축약된 형태인 ‘개다’ 역시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우리말샘 ‘개다’)

예) ‘개야미’의 제1음절과 제2음절이 축약되어 ‘개미’ 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다.(우리말샘 ‘개미’)

예) 20세기 이후에 ‘거어지’의 제1음절 모음과 제2음절 모음이 축약되어 ‘거지’가 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우리말샘 ‘거지’)

예) 모음 ‘고’의 연속으로 제1음절과 제2음절이 축약되어 ‘고-’가 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우리말샘 ‘고다’)

예) ‘구울다’는 제1음절의 모음 ‘구’와 제2음절의 모음 ‘구’로 동일 모음이 반복되어 축약되면서 ‘굴다’가 되었다.(우리말샘 ‘굴다’)

예) 18세기에는 제1음절과 제2음절의 모음인 동일 모음 ‘ㅡ’가 축약된 ‘ㅡ’이 공존하였다.(우리말샘 ‘ㅡ’)

예) 19세기 이후 제2음절과 제3음절이 축약되어 ‘금세’로 나타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우리말샘 ‘금세’)

■ 6.2. 형태 등의 변화

● 특수 어간 교체

- 체언: ‘○○’은 단독으로 쓰이거나 조사 ‘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에는 ‘○○’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에는 ‘○○’으로 교체를 하였다.
- 용언: ‘○○’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으로 교체를 하였다.

예) ‘구무’는 단독으로 쓰이거나 조사 ‘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에는 ‘구무’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에는 ‘구’으로 교체를 하였다.

예) ‘다^ㄹ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다^ㄹ-’,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달^ㅇ-’으로 교체를 하였다.

● **ㅎ 말음 체언**

예) ‘몽^ㅇ울^ㅎ’은 모음 또는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에는 종성 ‘ㅎ’이 나타나지만, 그 밖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나 단독으로 쓰일 때는 말음 ‘ㅎ’이 탈락하는 ‘ㅎ 말음 체언’이다. 이후 종성 ‘ㅎ’이 탈락하여 17세기에 ‘몽^ㅇ울’로 나타난다.(‘망^ㅇ울’)

● **과도 교정**

예) 18세기에 ‘가^ㄹ락^디’로 나타난 예도 있는데 이는 구개음화와 관련된 것이다. 18세기에 ‘ㄷ, ㅌ’이 ‘ㅣ’ 모음 앞에서 ‘ㅈ, ㅊ’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났는데, 이 변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본래 ‘지’였던 것을 ‘디’로 표기하는 과도교정 현상이 나타났다. 본래 ‘가^ㄹ락^지’였던 것을 18세기에 ‘가^ㄹ락^디’로도 표기한 것은 이와 같은 과도교정 현상에 의한 것이다.(우리말샘 ‘가^ㄹ락^지’) → 18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가^ㄹ락^디’는 과도 교정에 의한 것이다. 18세기에 ‘ㄷ, ㅌ’이 ‘ㅣ’ 모음 앞에서 ‘ㅈ, ㅊ’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났는데, ‘가^ㄹ락^지’도 ‘가^ㄹ락^디’에서 변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도하게 교정한 것이다.(?)

예) 18세기에 나타난 ‘곤^당’은 ‘ㄷ, ㅌ’이 ‘ㅣ’나 ‘ㅣ’ 반모음 앞에서 ‘ㅈ, ㅊ’으로 변하는 구개음화와 관련된 것으로 ‘곤^장’이 ‘곤^당’에서 변한 것이라고 간주하여 나타난 과도 교정형이다.(우리말샘 ‘간^장’)

예) 한편 18세기에 보이는 ‘똥’은 ㄷ구개음화를 의식한 과도 교정 형태이다.(우리말샘 ‘중’)

예) 근대 국어 시기에 ‘ㄱ, ㅋ’이 ‘ㅣ’나 ‘ㅣ’ 반모음 앞에서 ‘ㅈ, ㅊ’으로 변한 구개음화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변화를 의식하여 ‘가^ㄹ르^치-’의 제 3음절의 첫소리 ‘ㄷ’을 ‘ㅋ’이 구개음화를 겪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과도 교정하여 ‘가^ㄹ리^기-’로 나타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우리말샘 ‘가^ㄹ르^치다’) / ‘ㄱ^ㄹ르^타’, ‘ㄱ^ㄹ르^타’는 구개음화 현상을 의식하여 본래 ‘ㄷ’인 것을 ‘ㅌ’로 고친 과도 교정이 나타난 것이다.(정연주 1차 ‘가^ㄹ르^치다’)

예) 18세기에 ‘*지^애’의 제2음절 ‘애’는 한자 ‘와(瓦)’에 이끌려 ‘와’로 나타나고, 제1음절의 ‘지’는 근대 국어 시기에 ‘ㄱ’이 ‘ㅣ’나 ‘ㅣ’ 반모음 앞에서 ‘ㅈ’로 변한 구개음화를 의식하여 ‘지’를 ‘기’가 구개음화를 겪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기’로 과도 교정하면서 ‘기^와’로 나타나게 되었다.(우리말샘 ‘기^와’)

예) 18세기의 ‘구^환’은 근대 국어 시기에 모음과 모음 사이에 존재하는 ‘ㅎ’이 탈락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를 의식하여 ‘구^완’이 ‘구^환’에서 변화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과도 교정한 것으로 이해된다.(우리말샘 ‘구^완’)

※ 과도 교정 표기 : 근대 국어 시기에 ‘ㄷ, ㅌ’이 ‘ㅣ’나 ‘ㅣ’ 반모음 앞에서 ‘ㅈ, ㅊ’으로 변한 구개음화를 의식하여 ‘훑’의 ‘ㄷ’을 ‘ㅌ’이 구개음화를 겪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과도 교정한 결과이다. ➡ 근대 국어 시기에 ‘ㄱ’이 ‘ㅣ’나 ‘ㅣ’ 반모음 앞에서 ‘ㅈ’으로 변한 구개음화를 의식하여 ‘어^ㄹ러^지’의 ‘ㄷ’을 ‘ㄱ’이 구개음화를 겪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과도 교정 하여 ‘어

루러기'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예: 어루러기) ('역사정보' 지침)

❖ 아래의 경우는 과도 교정이 아니라 표기의 혼동으로 보도록 한다.

예) 근대 국어 후기에 'ㅅ' 뒤에서 이중모음 'ㅈ, ㅊ, ㅊ, ㅊ' 등이 반모음 탈락으로 단모음화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19세기 문헌에 보이는 '술독'은 이에 대한 과도 교정으로 나타난 표기이다.(우리말샘 '술독') → 근대 국어 후기에 'ㅅ' 뒤에서 이중모음 'ㅈ, ㅊ, ㅊ, ㅊ' 등이 반모음 탈락으로 단모음화하는 현상이 생겨 표기가 혼동되었는데 19세기 문헌에 보이는 '술독'은 표기가 혼동된 예이다.

예) 19세기에 나타나는 'ㄱ오리'는 18세기 이후에 제1음절에서 일어난 'ㅇ>ㅏ'의 변화에 대한 과도 교정 표기이다.(우리말샘 '가오리') → 19세기에 나타나는 'ㄱ오리'는 18세기 이후에 제1음절에서 일어난 'ㅇ>ㅏ'의 변화에 따라 'ㅇ'와 'ㅏ'가 표기상 혼동되어 나타난 형태이다.

예) '굴이'는 18세기 제1음절 모음에서 일어난 'ㅇ>ㅏ'의 변화에 대한 과도 교정 표기이기도 한다.(우리말샘 '갈기') → 굴이'는 18세기 제1음절 모음에서 일어난 'ㅇ>ㅏ'의 변화에 따라 'ㅇ'와 'ㅏ'가 표기상 혼동되어 나타난 형태이다.

예) 18, 19세기에 나타나는 '거품'은 근대 국어 시기에 'ㅍ' 뒤에서 모음 'ㅡ'가 'ㅜ'로 변한 원순 모음화를 인식하여 '거품'이 '거품'에서 온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과도 교정한 표기이다.(우리말샘 '거품') → 18, 19세기에 나타나는 '거품'은 근대 국어 시기에 'ㅍ' 뒤에서 모음 'ㅡ'가 'ㅜ'로 변한 원순모음화에 따라 'ㅡ'와 'ㅜ'가 표기상 혼동되어 나타난 형태이다.

● 변화 원인을 설명할 수 없을 때

○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나

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나 18세기 문헌에서 '불히'의 마지막 음절 '히'가 탈락하여 '귀ㅅ불'로 나타난다.

■ 6.3. 표기 변화에 관련된 표현

● 아래아 표기의 변화

○ 20세기 문헌에서 'ㅇ'가 'ㅏ'로 표기된 'ㅇㅇ'가 나타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 'ㅇ' 소리가 없어졌지만 'ㅇ'와 'ㅏ'가 표기에서 섞여 쓰이면서

예) 20세기 문헌에서 'ㅇ'가 'ㅏ'로 표기된 '괘씸하다'가 나타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예) 19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버셔늬다'와 '버셔늬다'는 'ㅇ'와 'ㅏ'가 표기에서 섞여 쓰이면서 나타난 표기이다.(‘벗어나다’)

● 종성 ㅇ(옛이응) 표기의 변화

- 16세기부터 종성의 ‘ㅇ’이 ‘ㅇ’으로 표기되면서 ‘ㅇㅇ’도 ‘ㅇㅇ’으로 나타난다.
- 16세기부터 종성의 ‘ㅇ’이 ‘ㅇ’으로 표기되면서 ‘ㅇㅇ’도 표기가 변화했을 것이나 17세기 문헌에서 ‘ㅇㅇ’이 확인된다.

예) 16세기부터 종성의 ‘ㅇ’이 ‘ㅇ’으로 표기되면서 ‘광조리’도 ‘광조리’로 나타난다.

예) 16세기부터 종성의 ‘ㅇ’이 ‘ㅇ’으로 표기되면서 ‘광대’도 표기가 변화했을 것이나 17세기 문헌에서 ‘광대’가 확인된다.

● 팔종성법에 따라 -> 소리대로 적는 표기법에 따라

예) ‘밧쁘다’는 “바빠하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 ‘밧-’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쁘-’가 결합한 것으로, 이 때 ‘밧-’은 소리대로 적는 표기법에 따라 ‘밧-’으로 표기되었다.(‘바쁘다’)

예) ‘걸맏다’는 종성에서 소리대로 적는 표기 전통에 따라 적은 것이다. 현대 맞춤법에서 어법에 따라 적도록 하여 지금은 ‘걸맏다’로 적는다.(‘걸맏다’)

● 종성 ㄷ과 ㅅ 표기의 혼동

- 16세기에 종성 ‘ㄷ’과 ‘ㅅ’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된 (이후에 표기가 섞여 쓰이면서)

예) 18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갑읇’은 16세기에 종성 ‘ㄷ’과 ‘ㅅ’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된 이후에 표기가 섞여 쓰이면서 나타난 것이다.(‘갑읇’)

예) 첫째, 종성의 ㄷ과 ㅅ은 소리가 구별되지 못하게 되었다.(‘갓’) → 첫째, 중세 국어 시기에는 본래 종성의 ㄷ과 ㅅ의 소리가 구별되었으나 16세기에 종성 ‘ㄷ’과 ‘ㅅ’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었다.

예) 16세기 말부터 종성의 ‘ㄷ’과 ‘ㅅ’ 표기가 혼란되었는데 17세기에 와서 ‘간모’의 제1음절 종성 ‘ㄷ’도 ‘ㅅ’으로 적히기 시작하였다. 19세기까지 ‘갓모’로 나타났는데 17세기 이후 나타나는 ‘갓모’는 ‘간모’와 실제 발음은 같은 것이다.(‘갈모’)

※ 근대 국어 시기에는 음절 말 ‘ㄷ’을 ‘ㅅ’으로 표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역사정보’ 지침)

● 구개음 표기의 혼동

- (근대 국어 후기에/19세기에) ‘저’와 ‘저’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면서 (표기가 혼동되어 나타난 것이다.)

☞ “저이”, “저와 저”는 설명하는 단어에 맞춰 해당하는 자모와 글자로 바꾼다.

예) 18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그저’는 근대 국어 후기에 ‘저’와 ‘저’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면서 표기가 혼동되어 나타난 것이다.

예) 19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그적’은 ‘적’과 ‘적’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면서 표기가 혼동되어 나타난 것이다.

예) 근대 국어 시기에 나타난 ‘ㅣ’ 모음 앞의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로 인해 ‘부터’가 ‘부쳐’가 되고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하지 않게 되면서 18세기에는 ‘눈부쳐’로 나타난다. 근대 국어 후기에 ‘처’와 ‘쳐’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면서 20세기 문헌에서 ‘눈부쳐’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눈부쳐’)

예) 18세기에는 제1음절의 ‘ㄷ’가 ‘ㅌ’로 변하였는데 ‘굴청’ 또한 이 변화를 겪어 ‘갈청’이 되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처’와 ‘쳐’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면서 ‘청’이 ‘청’으로 나타나게 되어 현재의 ‘갈청’이 된 것이다.(우리말샘 ‘갈청’)

● ㅅ 아래 단모음과 이중 모음의 표기 혼란

- (근대 국어 후기에/19세기에) ‘ㅅ’ 아래에서 ‘서’와 ‘셔’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면서 (표기가 혼동되어 나타난 것이다.)
- 근대 국어 후기에 ‘ㅅ’ 뒤에서 이중 모음 ‘ㅑ, ㅓ, ㅕ, ㅗ’ 등이 반모음 탈락으로 단모음화하는 현상에 따라 ‘셔’가 ‘서’로 바뀌었다.(‘역사정보’ 지침)

예) 19세기와 20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버셔나다’는 근대 국어 시기에 ‘ㅅ’ 아래에서 ‘서’와 ‘셔’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면서 표기가 혼동되어 나타난 것이다.(‘벗어나다’)

예) 현대 국어 ‘소’의 옛말인 ‘쇼’는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났다. 근대국어 후기에 자음 ㅅ 뒤에서 모음 ㅑ, ㅓ, ㅕ, ㅗ가 ㅏ, ㅓ, ㅗ, ㅜ로 바뀌는 현상에 따라 19세기에는 현대 국어와 같은 ‘소’가 등장하였다.(우리말샘 ‘소’)

● 연철/분철/중철 표기

예) 제3음절의 끝소리 ‘ㄹ’이 연철 표기 되어 ‘광대싸리’로 나타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광대싸리’)

예) 근대 국어 시기에는 ‘그슬나-’라는 표기가 나타나는데, 이는 ‘ㄹㄹ’을 ‘ㄹㄴ’으로 적던 표기 습관에 의한 것이다.(‘그슬리다’)

예) 18세기의 ‘걸나다’는 어중에서 ‘ㄹㄹ’이 연속되어 나타나는 경우 ‘ㄹㄴ’으로 적는 표기 경향에 의한 것이다.(‘걸리다’)

예) 19세기에 ‘눈빛ㅎ’과 같이 ‘ㅎ’가 ‘ㅅ+ㅎ’으로 표기된 것은 ‘빛히’, ‘금빛히’ 등 18세기 이후의 사례들에서도 확인된다.(‘눈빛’)

예) 갓탈’은 ‘가탈’을 중철 표기한 것으로 종성의 표기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7개 자음만을 사용하는 근대 국어 시기의 표기 방식에 따라 ‘ㅅ’으로 표기한 것이고(‘가탈걸음’)

※ 어중 ‘ㄹㄹ’ 표기: 어중에서 ‘ㄹㄹ’이 연속되어 나타나는 경우 ‘ㄹㄴ’으로 적는 표기 경향이 있었다.(‘역사정보’ 지침)

※ 재음소화 표기: 18세기 이후 나타나는 ‘무릅ㅎ’과 같이 말자음 ‘ㅍ’이 ‘ㅂ’과 ‘ㅎ’으로 나뉘어 표기된 재음소화 표기도 보인다. (‘역사정보’ 지침)

※ 중철 표기: 17세기~19세기 문헌에 보이는 ‘갓티다’는 ‘가티다’를 중철 표기 한 것이고,
18~19세기 문헌에 보이는 ‘갓치다’는 ‘가치다’를 중철 표기 한 것이다.(‘역사정보’ 지침)

■ 6.4. 기타 표현

- 띄어쓰기는 《우리말샘》의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한다.
 - 《우리말샘》에서 ‘^’로 표시된 부분은 띄어 쓴다.
예)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원순^모음화, 이^모음^역행^동화
- 부호의 사용(‘역사정보’ 지침)
 - ❖ 형태나 자모일 때는 ‘ ’, 뜻을 나타낼 때는 “ ”를 사용한다.
 - ❖ 의존 형태소인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를 표시한다.
 - ❖ 문증되지 않은 형태인 경우에는 *를 사용하여 ‘*두을’과 같이 표시한다.
- 언어 현상을 설명할 때는 ‘중세 국어(에/에서), 15세기(에/에서)’ 등으로 표현하고
문헌에서 출현형을 설명할 때는 ‘15세기 문헌(에/에서, 16세기 문헌(에/에서), 15
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등으로 표현한다.
예) 17세기의 ‘닷다’는 종성 ‘ㄷ’을 ‘ㅅ’으로 표기하던 당시의 경향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
17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닷다’는 종성 ‘ㄷ’을 ‘ㅅ’으로 표기하던 당시의 경향에 따른 것이다.
- 변화를 설명하면서 음절의 위치를 나타낼 때는 ‘제1음절, 제2음절, 제3음절……’이
라고 표현한다.
- 설명에서 자음, 모음의 개별 음소를 제시할 때 ‘ ’를 사용한다.
예) ‘ㄷ’가 ‘ㅌ’로 변하였다.
- 기타
 - ㅅ[ɲ] → ㅅ, ㅅ[ɲ]
☞ 그대로 자모 ‘ㅅ’만 써도 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ㅅ[ɲ]’을 써도 됨
 - 비어두 음절 → 제2음절 이하(‘역사정보’ 지침)
 - 어두 음절 → 제1음절(‘역사정보’ 지침)
 - ‘순음’은 ‘양순음’으로 통일한다.

2.6.1. 집필의 몇 사례 (1)

2.6.1.1. 하릅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의 ‘하룻강아지’가 사실은 ‘하릅강아지’라는 것을 문헌의 출현형을 통해 알 수 있다.

표제어	하릅
품사	명사
뜻풀이	나이가 한 살 된 소, 말, 개 따위를 이르는 말.
원어	%
형태 변화	17 세기 : 𪛗릅 19 세기 : 𪛗릅 20 세기 : 하릅
내적 정보	‘하릅’의 옛말인 ‘𪛗릅’은 17세기부터 나타난다. 16세기 이후 나타난 제2음절 이하의 ‘·’가 ‘ㅡ’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19세기부터 ‘𪛗릅’이 나타난다. 19세기에는 ‘𪛗릅’도 보인다. 18세기 이후 나타난 제1음절의 ‘·’가 ‘ㅏ’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20세기에 ‘하릅’이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20세기에는 ‘하랍’도 나타난다.
외적 정보	%
기타 어원	1. 조선 후기 문인 정학유가 《시경》에 나오는 생물 등을 고증하여 편찬한 《시경다식(詩經多識)》에 한자 ‘縱’(종)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주자가 말하였다. 한 살 된 것은 ‘종’이라 하니 또한 어린 ‘시’(돼지)이다”(朱子曰 一歲曰縱 亦小豕也). 흔히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로 알려진 ‘하룻강아지’는 ‘하릅강아지’의 잘못이다.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강아지가 아니라 한 살 먹은 강아지 즉 하릅강아지인 것이다. 2. ‘하릅강아지’는 19세기 이후 문헌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 문헌에서는 1910년대부터 ‘하로강아지’, ‘하루강아지’, ‘하룻강아지’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하릅강아지’라는 어휘가 잊혀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로강아지 나가 잤바 지듯 전신이 불스덩이가 되어 세굴세굴 굴며 죽겠다고 소리를 벽력갓치 지르니’〈1911 목단화 70〉(현대역: 하릅강아지는 나가서 자빠지듯 전신이 불덩이가 되어 떼굴떼굴 굴며 죽겠다고 소리를 벼락같이 지르니) ‘마치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것처럼’〈1926 조선일보 8월 23일 3면〉 ‘이놈 봐라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몰으구 이놈아’〈1934 조선일보 3월 2일 3면〉
용례	17세기: (𪛗릅) 縱 { 𪛗릅 } 돈 ≪1613 시경언해 1: 목록_4ㄴ≫ 현대어역 : 하릅 돼지 19세기: (𪛗릅, 𪛗릅)

	{하릅}[一年] 《1880 한불사전 87ㄱ》 현대어역 : 하릅 {하릅} {하릅강아지} 《1897 한영사전 PART1: 132》 현대어역 : 하릅, 하릅강아지 {하릅} Also {하릅} 《1897 한영사전 PART1: 132》 현대어역 : 하릅 20세기: (하릅, 하랍) 검방지다 꺾덕대다 하는 것은 {하릅송아지가} 큰 소인 체 한다는 말이다 《1935 조선일보 8월 29일 1면》牛馬의 나이를 세일때 一齡을 {『하랍』} 二齡을 『이듭』이라 하니 《1938 조선일보 7월 31일 5면》{하릅} 「名」 「한습」과 같음 《1940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이표기	하릅, 하릅, 하릅, 하릅, 하랍
관련어	하릅강아지, 하릅송아지, 한습, 이듭, 사릅
참고 논저	정학유 지음, 허경진, 김형태 옮김, 2007, 시명다식, 한길사
의견	%

2.6.1.2. 생각

‘생각’을 한자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생각’은 15세기부터 사용된 고유어이다.

표제어	생각 001
품사	명사
뜻풀이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
원어	%
형태 변화	15 세기 :싱각 16,17,18,19,20 세기 :싱각 18,19,20 세기 :생각
내적 정보	‘생각’의 옛말인 ‘싱각’은 15세기부터 나타난다. 16세기부터 종성의 ‘ㅇ’가 ‘ㅇ’로 표기되면서 16세기부터 ‘싱각’이 나타나 20세기까지 이어진다. 18세기 이후 나타

	난 제1음절의 ‘·’가 ‘ㅏ’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ㅓ’도 ‘ㅕ’로 변하면서 18세기에 ‘생각’이 나타난다. 20세기까지 ‘생각’, ‘싱국’, ‘싱각’, ‘싱각’, ‘생국’ 등 여러 형태가 쓰였으나 ‘생각’으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 ‘싱각’에서 제1음절의 종성 ‘ㅇ’이 떨어진 ‘식각’을 18세기와 20세기에 볼 수 있다.
외적 정보	%
기타 어원	1. ‘싱각>생각>생각’은 15세기에서부터 “생각하다”를 뜻하는 한자 ‘憶’(억), ‘思’(사), ‘念’(념)의 번역어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온 고유어이다. 그런데 18세기 <몽어노결대> 이후에 한자로 표기된 ‘生覺’(생각), ‘生覺하다’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싱각’을 한자어로 생각하여 비슷한 음의 한자음을 빌려서 표기한 것이다. ‘제 生覺에 허리에 썸 纏帶엿 거시 도훈 財物인가 햏야 生覺햏고 사오나온 ㅁ음 내야’(1741 몽어노결대 2: 12ㄱ)(현대어역: 제 생각에 허리에 띠 전대가 좋은 재물인가 생각하고 나쁜 마음을 내어) 2. 15세기의 한문 원문에 ‘生覺’이 보이는데 언해문에 “얹이 난다”와 같이 번역되어 있다. ‘舌은 글 업슨 게 드논 디 아니라 마슬 困햏야사 아로미 나느니’(舌은 非入無端이라 困味햏야사 生覺了햏느니)(1461 능엄경언해 6: 57ㄴ)(‘햏’는 끝 없는 곳에 드는 것이 아니라 맛을 인하여 얹이 나니)
용례	15세기: (싱각) {싱각과} 니좁괘 햏나 곧 햏야 반드기 이 고대 住햏야 ≪1462 능엄 9:50ㄴ≫ 원문 : 憶忘이 如一 햏야 當住此處햏야 현대어역 : 생각함과 잊음이 같아서 반드시 이곳에 머물러 {싱각과} 니주미 다 업다가 後에 忽然히 알뵈 奇異를 다시 보고 싱각햏미 번득햏야 잠간도 일티 아니햏노노 ≪1462 능엄 10:83ㄴ≫ 원문 : 憶忘이 俱無햏다가 於後에 忽然覆觀前異햏고 記憶이 宛然햏야 曾不遺失오 현대어역 : 생각함과 잊음이 다 없어졌다가 후에 홀연히 앞의 기이함을 다시 보고 생각함이 뚜렷하여 잠간도 잃지 않느나 16세기: (싱각) 思 {싱각} 소 뜯 소 ≪1576 신험 하11ㄱ≫ 현대어역 : 생각 사, 뜯 사 念 {싱각} 념 ≪1576 신험 하17ㄱ≫ 현대어역 : 생각 념 정시니 아모드려 간 동 업시 안자셔 아모 일도 겨오 츠리고 이시니 눈 밧긔 이리야 {싱각도} 묻햏노라 ≪16세기 말 순김 012≫ 현대어역 : 정신이 어디 간지 몰라 앉아서 아무 일이라도 겨우 차리고 있으니 눈

	밖의 일이야 생각도 못한다 나는 병 업시 도히 가니 날란 {싱각} 말오 너희 만흔 주식도리 도히 잇거스라 ≪16세기 말 순김 065≫ 현대어역 : 나는 병 없이 잘 가니, 나는 생각하지 말고 너희 많은 자식들이 잘 있거라 17세기: (싱각) 思 {싱각} 수 ≪1661 천자_칠 9b≫ 현대어역 : 생각 사 이란 전초로 디골이 알푸고 머리 어즐하고 음식 {싱각} 아니호느니라 ≪1670 노언 하:36⁷≫ 원문 : 因此上腦痛頭眩不思飲食 현대어역 : 이런 까닭으로 대가리가 아프고 머리가 어질하고 음식 생각 아니한다 오늘은 {싱각} 밋기 술술이 무초니 大慶이옵도쇠 ≪1676 첩신-초 4:05⁷-05^ㄴ≫ 현대어역 : 오늘은 생각 외로 술술 마치니 큰 경사이네 자니네 걸터 니루심과 우리 {싱각과} 그 어괴미 天地 곳거니와 ≪1676 첩신-초 4:14⁷-14^ㄴ≫ 현대어역 : 당신네가 여러 번 말하심과 우리 생각의 그 어긋남이 하늘과 땅의 차이 같으니 18세기: (싱각, 시각, 생각) 思 {싱각} 수 ≪1700 천자_영 9b≫ 현대어역 : 생각 사 나 혼 婆娘이 三十年 편코져 함을 위하여 千萬年香火를 쓴즈면 7장 {싱각} 업습이라 ≪1721 오륜전비 6:04⁷≫ 원문 : 爲我一個婆娘 要三十年自在絶了千萬年香火 好沒思量 현대어역 : 나 한 늙은 여자가 삼십 년 편하고자 함을 위하여 천만 년 향화를 끊으면 가장 생각이 없는 것이다 思 {시각} 수 ≪1730 유합_송 23a≫ 현대어역 : 생각 사 {싱각이} 이에 밋주오매 모골이 다 서늘호도소이다 ≪1756 천의:1:55^ㄴ≫
--	---

	현대어역 : 생각이 이에 미치 모골이 다 서늘합니다 遼東의 다듯도록 텅하의 빗겨 무옴으로 헝헝는 거시 진짓 큰 사나희 {생각이라} ≪ 1774 삼역 8:16ㄱ≫ 현대어역 : 요동에 다다르도록 천하에 비껴 마음으로 향하는 것이 진짜 큰 사나이 생각이다 19세기: (싱각, 생각) 몸을 슈고로이 헝고 {싱각을} 불붓드시 헝샤 ≪1832 십구 1:20ㄱ≫ 원문 : 勞身焦思헝샤 현대어역 : 몸을 수고롭게 하고 생각을 불붓듯이 하시어 이리 {싱각} 저리 {싱각} 아모리 싱각헝여도 ≪1848 삼설:04ㄱ≫ 현대어역 :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하여도 思 {생각} 사 ≪1884 정몽 28a≫곰곰 {생각} 深深思量. 左思右想 ≪1896 국한 곤:29≫ 현대어역 : 곰곰 생각 20세기: (싱각, 생각, 싱국, 식각, 싱각, 생국) 데주들이 이 말 듯고 무슴 {싱각이} 잇섯느뇨 ≪1900 신월 1:39≫ 현대어역 :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 살모이 {생각에} 이리가 부르논 줄 알고 이리의게 가매 ≪1903 신월 3:86≫ 현대어역 : 살모이 생각에 이리가 부르는 줄 알고 이리에게 가므로 그 형테를 금과 은과 돌 곱흔 거스로 사룸이 공교히 삭여 문돌 {생각을} 못홀 거시 나라 ≪1903 신월 3:133≫ 현대어역 : 그 형체를 금과 은과 돌 같은 것으로 사람이 공교히 새겨 만들 생각을 못할 것이다 그 남주가 못싱긴 마음에 어긔똥흔 {싱국이} 나셔 ≪1907 혈의누 pb n=5≫ 현대어역 : 그 남자가 못생긴 마음에 어긔똥한 생각이 나서 죽으려 헝여도 죽지도 못헝는 그 부인 {생각은} 엇뎃타 형용홀 슈 업논 터이라 ≪ 1907 혈의누 pb n=6≫ 현대어역 : 죽으려 하여도 죽지도 못하는 그 부인 생각은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는 터이다
--	--

	이후에 주손 보전하고 십푼 {싱각} 잇거던 나라를 위하여라 <1907 혈의누 pb n=27> 현대어역 : 이후에 자손을 보존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나라를 위하여라 김관일의마음에 정녕 니꼴이라고 {시각} 아니홀 슈도 업논지라 <1907 혈의누 pb n=70> 현대어역 : 김관일의 마음에 정녕 내 딸이라고 생각 아니할 수도 없다 그 남자는 아모리 비범한 사람이라도 지금은 결혼할 {생각이} 업사오며 <1908 설 중매55> 현대어역 : 그 남자가 아무리 비범한 사람이라도 지금은 결혼할 생각이 없으며
이표기	싱각, 싱각, 시각, 싱국, 생국, 생각
관련어	%
참고 논저	김민수 편, 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의견	%

2.6.1.3. 서방

‘서방’의 유력한 어원으로 여겨지는 ‘조선왕조실록’ 기사를 바탕으로 한 설명을 하였다.

표제어	서방(書房)
품사	명사
뜻풀이	‘남편’을 낮잡아 이르는 말.
원어	%
형태 변화	15,16 세기 :서방 16,17,18,19,20 세기 :서방 19,20 세기 :서방
내적 정보	‘서방’은 15세기부터 한글로 표기된 ‘서방’으로 나타나고 18세기부터 한자로 표기된 ‘書房’도 나타난다. 15세기의 ‘서방’은 ‘西房’(서방)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西房’과의 관련성이 희미해져 근대 국어 시기에 ‘書房’과 연결된 것으로 이해된다. 16세기부터 종성 ‘ㅇ’이 ‘오’으로 표기되면서 16세기부터 ‘서방’이 나타난다. 근대 국어 시기에 ‘ㅅ, ㅈ, ㅊ’ 아래에서 이중 모음 ‘ㅈㅅ, ㅈㅊ, ㅊㅅ’가 ‘ㅈ, ㅊ, ㅅ’로 단모음화하는 현상에 따라 19세기에 ‘서방’이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외적 정보	%
기타 어원	1. ‘서방’의 어원에 대해서는 고유어 어원설과 한자어 어원설이 있다. ‘서방’을 고유어로 보는 견해는 ‘*순(장정)’과 다른 요소의 결합, ‘식/새’(새로움)과 다른 요소의 결합으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지는데 그리 믿음직하지 않다. 한자어에서 왔다고 보는 견해는 ‘書房’(서방)과 ‘西房’(서방)을 그 바탕으로 두고 있다. 18세기부터 ‘書房’으로 표기된 예가 나타나기 때문에 ‘書房’에서 ‘서방’이 나왔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고 이것이 사전들에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 ‘西房’을 ‘사위’와 관련짓는 기사가 보인다. ‘조선왕조실록’이 가지는 무게감을 고려하면 ‘西房’을 ‘서방’으로 어원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의 ‘문종실록’과 ‘세조실록’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1) 문종 1년(1450) 4월 15일의 문종실록 1권 ‘우리 나라 풍속에 새 사위[新婿]를 존칭해서 ‘서방(西房)’이라고 한다’(國俗尊稱新婿謂西房) (2) 세조 13년(1467) 4월 5일의 세조실록 42권 ‘속담에 사위는 서방(西房)에서 묵으니, 따라서 사위를 서방(西房)이라고 부른다’(俗館甥於西房, 因號女婿爲西房) 다만 문종실록에서는 ‘西房’을 존칭의 말이라고 하여 ‘남편’을 낮잡아 이르는 현재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실록 기록만 있고 다른 문헌에서 예를 볼 수 없다.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고려하면 같은 시기인 15세기의 ‘서방’은 ‘西房’의 한글 표기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 2. <한불자전>(1880)의 ‘서방’ 관련 어휘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방[書房]’, ‘서방님[書房主]’을 젊은 남자에게 붙이는 칭호라고 적고 있고 ‘남편’으로 보고 있지 않아 흥미롭다. ‘서방’을 ‘書房’과 관련짓는 견해가 아직 정착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서방맞치다[作夫]’의 ‘서방’, ‘새서방[新郎]’에 ‘남편’이라는 의미가 있다.
용례	15세기: (서방) 당가들며 {서방} 마조물 다 婚姻ᄃᆞ다 ᄃᆞ니라 ≪1447 석상 6:16^ㄴ≫ 현대어역 : 장가 들며 서방 맞음을 다 혼인한다고 한다 16세기: (서방, 서방) 녹 툰 그믐 주어 결속ᄃᆞ야 {서방} ᄃᆞ게 ᄃᆞ더라 ≪1518 번소 10:15^ㄱ≫ 원문 : 出俸金ᄃᆞ야 爲資裝ᄃᆞ야 嫁之ᄃᆞ더라 현대어역 : 녹으로 탄 금을 주어 인연을 맺어 서방을 맞게 하더라 夫人이 呂氏에 {서방} 마자 오나ᄃᆞ ≪1588 소언 6:06^ㄴ≫ 원문 : 夫人이 嫁呂氏ᄃᆞ야ᄃᆞ 현대어역 : 부인이 여씨에게 혼인하여 와서는 나히 열여스신 제 {서방} 마자 주식이 잇디 못ᄃᆞ엿더니 ≪1588 소언 6:50^ㄴ≫ 현대어역 : 나이가 열여섯일 때 서방을 맞아 자식이 있지 않더니

	강 {서방손디} 가는 준 디히를 엇디 그리 차망되게 하여 보내시논고 <<16세기 말 순김 002>> 현대어역 : 강 서방에게 가는 작은 김치를 어찌 그렇게 소홀하게 하여 보내시는가 민 {서방} 안해 서방님 나간 제 데려다 내 유무 보여라 <<16세기 말 순김 042>> 현대어역 : 민 서방 아내에게는 서방님 나갔을 때에 데려다가 내 편지를 보여라 17세기: (서방) 최씨는 영암 선비연 사름 인우의 딸이라 진주 호당 명만에게 {서방} 마잔터니 <<1617 동삼열:02ㄴ>> 원문 : 崔氏靈巖士人仁祐女也適晉州戶長鄭滿 현대어역 : 최씨는 영암 선비인 인우의 딸이다 진주 호장 정만과 혼인을 했더니 {서방의} 밥뿌른 엇디 저의 딸로 혼단 마린고 <<17세기 전기 진주하 008>> 현대어역 : 서방의 밥쌀은 어찌 저의 딸로 한다는 말인가 네 딸 {서방은} 언제나 마치고 온다 <<1658 경민-개:40ㄱ>> 현대어역 : 네 딸의 남편은 어느 때에 맞이하느냐 招女婿 사희 엇다 嫁與人 {서방} 맞다 配與人 {서방} 맞다 <<1690 역해 상:41ㄴ>> 현대어역 : 사위를 얻다, 서방을 맞다 18세기: (書房, 서방) 건넌집 차근 金 {書房을} 눈 기야 불리너여 두 손목 마조 덤석 쥐고 슈근슈근 말 하다가 <<1728 청구영언 진본 68ㄴ>> 현대어역 : 건넌집 작은 김서방을 눈짓하여 불리내어 두 손목을 마주 덤석 쥐고 새악시 {書房} 못 마자 애쓰다가 주근 靈魂 <<1728 청구영언 진본 56ㄴ>> 현대어역 : 색시 서방 못 맞아 애쓰다가 죽은 영혼 {서방} 마자 사름의 안해 되매 <<1736 여사 2:05ㄱ-05ㄴ>> 원문 : 嫁爲人婦 하야 현대어역 : 혼인을 하여 사람의 아내가 되므로 네 무어슬 슬허하논다 {서방} 못 마즘을 근심하논다 <<1736 여사 4:58ㄴ>> 현대어역 : 네가 무엇을 슬퍼하느냐 서방 못 맞음을 근심하느냐
--	---

嫁 {서방} 마칠 가 췌 장가 드릴 취 ≪1780년대 왜해 상:41^ㄴ ≫ 현대어역 : 서방 맞을 가, 장가 드릴 취 그 딸을 {서방} 마쳐 보내니라 ≪1797 오륜 5:15^ㄴ ≫ 원문 : 又嫁其女 현대어역 : 그 딸을 서방을 맞아 보냈다. 19세기: (서방, 書房, 서방) 남원 췌희 드리 가면 춘향의 {서방} 되리로다 ≪1840 춘향:27^ㄱ ≫ 현대어역 : 남원 땅에 들어가면 춘향의 서방이 되겠구나 어제 니 {서방이} 우리 집의 왔는디 그런 꼴이 어디 이슬가 ≪1840 춘향:35^ㄱ ≫ 현대어역 : 어제 이 서방이 우리 집에 왔는데, 그런 꼴이 어디 있을까 平生에 나의 願하기는 말 잘하고 글 잘하고 人物 기자하고 품조리 가장 알쁘리 잘 하는 젊은 {書房인가} 호노라 ≪1876 가곡:89≫ 현대어역 : 평생에 나의 소원은 말 잘하고 글 잘하고 인물 좋고 살림을 가장 알뜰 히 잘하는 젊은 서방인가 한다 白髮에 歡陽 노는 년이 젊은 {書房을} 맞초아 두고 센 머리에 먹틸하고 ≪1876 가 곡:110≫ 현대어역 : 백발에 환양 노는 년이 젊은 서방을 맞아 두고 희게 센 머리에 먹칠하 고 서방[書房] {서방} 맞치다[作夫] 서방님[書房主] ≪1880 한불:405≫{서방} 書房 ≪ 1896 국한 곤:174≫ 20세기: (서방, 서방, 書房)성명도 모르는 김 {서방} 박 {서방을} 친동생보다 더 스 랑하야 ≪1902 신월 2:425^ㄱ ≫ 현대어역 : 성명도 모르는 김서방 박서방을 친동생보다 더 사랑하여 {서방이} 계집 부르는 소리 계집이 {서방} 부르는 소리 이러케 스름 찾는 소리뿐이 라 ≪1907 혈의누 pb n=10-11≫ 현대어역 : 서방이 계집 부르는 소리 계집이 서방 부르는 소리 이렇게 사람 찾는 소리뿐이다 여보 최 {서방} 니 지췌 좇치, 밭서 저녁 치르고, 설거지, 다, 하얏소 ≪1908 귀의 성1511-1512≫ 현대어역 : 서방이 계집 부르는 소리 계집이 서방 부르는 소리 이렇게 사람 찾는 소리뿐이다

	여보 최 {서방} 니 지쥬 좇치 밍서 저녁 치르고 설거지 다 하얏소 ≪1908 귀의성 1511-1512≫ 현대어역 : 여보 최 서방 나 재주 좋지 벌써 저녁을 치르고 설거지 다 하얏소 태산북두긔치 밍고 브랏더니 {서방님書房任은} 더 모양이 되고 아모 변통 업는 모양이니 ≪1913 약산동대 161≫ 현대어역 : 태산북두같이 밍고 바랏더니 서방님은 저 모양이 되고 아무 변통 없는 모양이니 이것은 十七歲의 村 {새書房이} "自己의 過失이 綻露되어 아버지께 걱정이나 들으면 엇저나-" 하고 두려하든 겁결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닐가 ≪1924 동아일보 9월 8일 4면≫{서방은} 김 {서방} 박 {서방의} {서방으로} 그 역시 書房에 다니는 남자를 가르치든 말 갖고 ≪1934 조선일보 5월 30일 6면≫그 {서방이란} 말이 이리 변지고 저리 변지어 오늘날 와서는 남편이라는 意味로도 쓰이고 既婚者의 表示로도 쓰이어 그 根本 出處와는 距離가 멀어도 짓거니와 ≪1938 조선일보 1월 22일 5면≫
이표기	서방, 서방, 書房, 서방
관련어	서방님, 새서방
참고 논저	김무림, 2020, 국어 어원사전, 지식과 교양 김민수 편, 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의견	%

2.6.1.4. 방불하다

“비슷하다”를 뜻하는 ‘방불하다’가 15세기~17세기까지는 “희미하다, 흐릿하다”를 나타내었다.

표제어	방불-하다(彷彿하다, 髣髴하다)
품사	형용사
뜻풀이	「001」 거의 비슷하다. 「002」 흐릿하거나 어렵뜻하다.
원어	%
형태 변화	15,17 세기 : 髣髴하다 18,19,미상,20 세기 : 방불하다 20 세기 : 방불하다
내적 정보	‘방불하다’는 15세기부터 한자로 표기된 ‘髣髴하다’로 나타나고 18세기부터 한글로 표기한 ‘방불하다’로 나타난다. ‘髣髴하다’는 한자어 ‘髣髴(방불)’과 현대어 ‘하다’로 이어지는 ‘-하-’가 결합한 것이다. 18세기부터는 ‘彷彿(방물)하-’도 나타난다. 20세

	기에 ‘ㅎ’가 ‘하’로 표기된 ‘방불하다’가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19세기에 ‘방불허-’와 같은 형태도 보인다.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髣髴ㅎ다’는 “희미하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18세기 이후에는 “비슷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외적 정보	%
기타 어원	%
용례	15세기: (髣髴ㅎ-) 귀에 글 읽는 소리를 드로니 殺伐ㅎ는 災害는 {髣髴ㅎ도다} ≪1481 두시-초 6:22b≫ 원문 : 耳聞讀書聲殺伐災髣髴 현대어역 : 귀에 글 읽는 소리를 들어 보니까 살벌한 재해는 희미해졌구나 {髣髴ㅎ야} 보매 잇는 듯ㅎ며 ≪1482 금삼 1:函序1a≫ 원문 : 髣髴焉ㅎ야 看似有ㅎ며 현대어역 : 희미하여 보니 잇는 듯하며 17세기: (髣髴ㅎ-) 귀에 글 읽는 소리를 드로니 殺伐ㅎ는 災害는 {髣髴ㅎ도다} ≪1632 두시-중 6:22b≫ 원문 : 耳聞讀書聲 殺伐災髣髴 현대어역 : 귀에 글 읽는 소리를 들어 보니까 살벌한 재해는 희미해졌구나 18세기: (彷彿ㅎ-, 방불ㅎ-) 彷彿 {彷彿ㅎ다} ≪1748 동문 하:52b≫ 현대어역 : 방불하다 彷彿 {방불ㅎ다} ≪1778 방유 4:32ㄱ≫ 현대어역 : 방불하다 19세기: (방불ㅎ-, 방불허-) 그 용모 기질이 쏘흔 쇼저와 {방불흔지라} ≪1851 금향 03ㄴ≫ 현대어역 : 그 용모와 기질이 또한 아가씨와 방불해서 꽃치 말힐진디 쇼저와 {방불헐} 듯ㅎ되 ≪1851 금향 03ㄴ≫ 현대어역 : 꽃이 말을 한다면 아가씨와 방불할 듯하되

	천연 주질은 녹주와 {방불하고} 풍화식티는 홍불기로 병렬홀지라 《1856 징세 04^ㄴ》 현대어역 : 천연 자질은 녹주와 방불하고 풍화세태는 홍불기로 나란하므로 이제 귀직을 보오미 우리 주인의 형과 {방불흔} 고로 《1858 월봉 09^ㄱ》 현대어역 : 이제 귀객을 보니 우리 주인의 형과 비슷하므로 미상: (방불하-, 彷彿하-) 문탑文塔 은탑銀塔 여러 탑은 돌 모양이 {방불彷彿하되} 《연대미상 금강별곡:528》 현대어역 : 문탑 은탑 여러 탑은 돌 모양이 서로 비슷하다 물 가온디 칠성봉七星峰이 쇼금썸이 {방불彷彿하되} 《연대미상 금강별곡:539》 현대어역 : 물 가운데 칠성봉이 쇼금섬 방불하다 內外山 八潭이 恰然이 {彷彿하되} 《연대미상 금강 04^ㄱ》 현대어역 : 내외산 팔담이 마치 방불하다 핍손군부貶損君父는 일호一毫나 근사하며 降黜 國統은 적으나 {彷彿한가} 《미상 북관곡 306》 현대어역 : 핍손군부는 일호나 근사하며 강출 국통은 적으나 방불한가 20세기: (방불하-, 彷彿하-, 彷彿하-, 髣髴하-, 방불하-) 하느님이 사람을 주시 형상과 {방불하계} 지으샤 《1900 신월 1:363》 현대어역 :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과 방불하게 지으시 이목耳目과 슈족手足이 산 것 곱고 사람의 형용形容과 {방불彷彿흔지라} 《1907 신월 5:152》 현대어역 : 이목과 수족이 산 것 같고 사람의 형용과 방불하다 상의 지조가 각覺과 스思의 지조로 서로 {방불彷彿하되} 특별히 허실虛實을 분간할 뿐이라 《1911 성산명경 60》 현대어역 : 상의 재주가 각과 사의 재주로 서로 방불하되 특별히 허실을 분간할 뿐이다 汝의 能力은 公義로써 復活한 者と {彷彿하도다} 《1920 동아일보 4월 29일 4면》 현대어역 : 너의 능력은 공의로써 부활한 자와 방불하도다 또한 日露戰後의 熱狂的 時代의 人心과 {髣髴하다} 《1920 동아일보 6월 15일 1면》 현대어역 : 또한 일러전쟁 후의 열광적 시대의 인심과 방불하다
--	--

	어엿브리 빙합솟에 {방불한} 나히 어리고 입살 붉은 아기씨네들은 ≪1920 동아일보 8월 27일 3면≫
이표기	髣髴ㅎ-, 彷彿ㅎ-, 방불ㅎ-, 방불허-, 彷彿하-, 髣髴하-, 방불하-
관련어	%
참고 논저	%
의견	%

2.6.2. 집필의 몇 사례 (2) - 한불자전

올해 작업에서는 《1880 한불자전》의 1,000개의 항목을 다섯 명의 집필자가 집필하기로 하였다. 아래는 실제 <한불자전> 팀에게 배정되어, 집필된 몇 예이다.

(1) 특정 용언과 함께 나타난 고유어

표제어 1	아퀴
품사	명사
뜻풀이	일을 마무리는 끝매듭.
원어	%
형태 변화	19,20세기 : 악퀴 20세기 : 아퀴
내적 정보	‘아퀴’의 옛말인 ‘악퀴’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악퀴’는 ‘아퀴’가 중철 표기된 것이다. 20세기부터 ‘아퀴’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주로 동사 ‘짓다’와 함께 나타난다.
외적 정보	%
기타 어원	〈한영자전〉(1897), 〈수정증보 조선어사전〉(1940), 〈큰사전〉(1957) 등 사전류에는 ‘아퀴’ 이외에도 ‘악퀴짓다’, ‘아퀴짓다’가 실려 있어 ‘아퀴’와 ‘짓다’가 함께 나타나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용례	19세기 : (악퀴) {악퀴짓다} (지여:진) See 귀정하다 《1897 한영자전 PART1:3》 현대어역 : 아퀴 짓다, 귀정하다 규정짓다 規定 (법) (명홀) (지여:진) See {악퀴짓다} 《1897 한영자전 PART1:297》 현대어역 : 규정짓다, (법), (정할) 아퀴 짓다 20세기 : (아퀴, 악퀴) 아버지가 내려오거든 아주 보고 {아퀴를} 짓고 가시오 《1934 조선일보 5월 15일 3면》 그래서 굼굼히 여기실 줄은 알면서도 {아퀴를} 지을 량으로 더리고 다니지 안헛읍니까 《1935 동아일보 1월 18일 5면》 {아퀴} 歸決 《1936 조선일보 12월 20일 5면》 방 문제는 아주 {아퀴를} 짓고 《1937 조선일보 4월 16일 3면》

	{악퀴짓다} 「他」 「아퀴짓다」에 보라. 《1940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아퀴} 「名」 일을 마감하는 것. 《1940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아퀴짓다} 「他」 ㅅ변 -지어, -지은 일의 끝을 아물리다. 일을 마감하다. 가부를 결정하다. 《1940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이표기	악퀴, 아퀴
관련어	%
참고 논저	%
의견	%

(2) 최초 출현형의 한자음이 현대 한자음과 다른 한자어

표제어 2	억장(億丈)
품사	명사
뜻풀이	썩 높은 것. 또는 그런 높이.
원어	%
형태 변화	19세기 : 억정 20세기 : 억정 20세기 : 억장
내적 정보	‘억장’의 옛말 ‘억정’은 19세기부터 나타난다. ‘억정’은 한자어 ‘億丈’을 한글로 표기한 것으로, ‘높은 성’이란 뜻의 ‘억장지성(億丈之城)’이란 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자어 ‘丈’은 중세 국어 시기의 발음이 ‘당’이었으나, ‘억정’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모음이 ‘ㅈ’에서 ‘ㄷ’로 바뀌어 ‘정’으로 표기되었다. 근대 국어 시기에 ‘ㅅ, ㅈ, ㅊ’ 아래에서 이중 모음 ‘ㅈ, ㅊ, ㅊ, ㅈ’가 ‘ㅈ, ㅊ, ㅈ, ㅈ’로 단모음화하는 현상에 따라 ‘억정’이 되었고, 이후 ‘억장’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외적 정보	%
기타 어원	〈수정증보 조선어사전〉(1940)에 ‘억장지성(億丈之城)」「名」 썩 높은 성’이 나온다.

용례	19세기 : {억정} {억정} 문어지다 ≪1880 한불사전 19≫ 현대어역 : 억장 무너지다 20세기 : {억정, 억장} 주린 거름을 빨리해야 집에 도라왔다가 먹이가 업서 몇 시간을 기대리게만 되야도 {억정이} 무너지거든 ≪1930 조선일보 9월 5일 6면≫ 압흐로는 어찌케 지낼 방책이 잇습니까 하고 물음에 말하든 로파는 {억장이} 문혀 지는 듯이 ≪1930 동아일보 9월 19일 7면≫ 아— 얼마나 {억장이} 맥키는 애달은 消息이냐! ≪1933 조선일보 4월 28일 7면≫ 약 삼만 원이란 대금을 이리저리 모아서 집어삼키고서는 갑하 줄 힘이 업스니 배나 따가라고 배스장만 내밀므로 이에 {억장이} 문혀진 부녀 취리계는 망지소조하야 어찌할 줄을 모를 형편에 ≪1935 조선일보 8월 31일 2면≫ 안라는 {억정이} 문혀져 ≪1936 동아일보 6월 14일 7면≫
이표기	억정, 억정, 억장
관련어	%
참고 논저	%
의견	%

(3) ‘우리말샘’의 표제어에 쓰인 한자가 아닌 한자가 나온 경우

표제어 3	악수(握手)
품사	명사
뜻풀이	「001」운명한 다음 날, 시신에 수의를 갈아입히고 이불로 싸 때에 시체의 손을 싸는 형궤.
원어	%
형태 변화	17,19,20세기 : 握手 19,미상,20세기 : 악슈 20세기 : 악수
내적	‘악수’는 17세기부터 한자로 표기된 ‘握手’로 나타나고 19세기부터 한글로 표기된

정보	‘악수’로 나타난다. "시체의 손을 싸는 형궤"를 뜻하는 ‘악수’는 한자어 ‘握手’(악수)로 쓰이나 문헌에서는 ‘握手’(악수)로 나타나고 있다. 근대 국어 시기에 '스, 스, 스' 아래에서 이중 모음 'ㅏ, ㅑ, ㅓ, ㅕ'가 'ㅏ, ㅑ, ㅓ, ㅕ'로 단모음화 하는 현상에 따라 20세기에 ‘악수’가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외적 정보	%
기타 어원	%
용례	17세기 : (握手) {握手}는} 玄과 纁을 쓰니 長이 자 두 치오 廣이 다섯 치니 써 손을 찰 바 者}라 《1632 가례언해 5:12ㄱ》 원문 : 握手 用帛 長尺二寸 廣五寸 所以裹手者也 현대어역 : 악수는 검은 형궤와 붉은 힘궤를 쓰니 길이가 자 두 치이고 넓이가 다섯 치니 손을 싸는 것이다 이에 深衣 니피고 大帶 띠고 {握手를} 設히고 이에 니블로써 더프라 《1632 가례언해 5:16ㄴ》 원문 : 乃襲深衣 結大帶 設握手 乃覆以衾 현대어역 : 이에 심의를 입히고 큰 띠를 매고 악수를 놓고 이에 이불로 덮으라 19세기 : (握手, 악수) {악수} 握手 《1880 한불사전:3ㄱ》 미상 : (악수) 육진포 심의와 통단 면건이며 면모 {악수} 다 가춘 후 《미상 속회심곡:154ㄱ》 현대어역 : 육진포 심의와 통대단 면건이며 면모(면목) 악수 다 갖춘 후 20세기 : (握手, 악수, 악수) 떡목 {악수} 幘目握手 《1909 언문:52》 현대어역 : 떡목 악수 香湯으로써 屍體를 洗拭하고(浴巾을 使用함) 口衣 (幅巾 『女는 掩』充耳 幘目 {握手} 衣袴 周衣 『女는 裳』襪)를 着케 함 《1934 동아일보 11월 11일 4면》 현대어역 : 향탕으로써 시체를 닦고 (목욕용 수건을 사용함) □의(머리에 쓰는 수건, '여자는 가린다) 귀를 솜으로 채우고 얼굴과 손을 천으로 감싸고 저고리 바지 옷 (여자는 '치마') 버선을 입고 신게 함. {악수(握手)} 「名」 소렴 때에 시체의 손을 싸는 검은 형궤. 《1940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이표기	握手, 악수, 악수
관련어	%

참고 논저	%
의견	%

(4) 20세기까지 다양하게 표기된 고유어

표제어 4	아가리
품사	명사
뜻풀이	‘입’을 속되게 이르는 말.
원어	%
형태 변화	19,20세기 : 아갈이 19,20세기 : 아가리
내적 정보	‘아가리’의 옛말인 ‘아갈이’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아갈이’는 ‘입’을 뜻하는 ‘*악’과 접미사 ‘-아리’가 결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악’은 ‘아귀’가 줄어든 것으로 여겨진다. 19세기부터 연철 표기된 ‘아가리’가 나타난다. 20세기에는 분철 표기된 ‘악아리’, ‘·’와 ‘ㅏ’가 표기에서 섞여 쓰이면서 나타난 ‘으가리’도 보인다. 20세기까지 쓰인 여러 형태 중에서 ‘아가리’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
외적 정보	%
기타 어원	%
용례	19세기 : (아갈이, 아가리) {아갈이}[喙] 《1880 한불사전 2》 {아가리} 口 (입-*구) See 입 《1897 한영사전 PART1: 2》 현대어역 : 아가리 (입 구) 입 입 口 (*구) See {아가리} 《1897 한영사전 PART1: 64》 현대어역 : 입 (구) 아가리 그 싱선 아감지와 창즈를 내여 브리고 솟가로틀 싸아 그 비와 {아갈이에} 잔득 넛코 《1899 경향신문 11월20일 3면》 현대어역 : 그 생선 아가미와 창자를 내버리고 솟가루를 빵아 그 배와 아가리에 가득 넣고 20세기 : (아갈이, 악아리, 아가리, 으가리) 눔이 밤장스인지 막걸닌지 흐면 {아갈이나} 닥치고 흐거나 고약하게 말을 너아노아

	너 낫을 적지 안이 씹기게 흥닛가 《1908 빈상설 42》 현대어역 : 놈이 밤장사인지 막걸리인지 하면 아가리나 닥치고 하거나 고약하게 말을 내어놓아 내 낫을 적지 않게 깎이게 하니까 드뭇드뭇한 흥얀 이빠리가 잉크렛케 드러나도록 {악아리를} 버리고 《1908 은세계: 663》 현대어역 : 드문드문한 하얀 이빨들이 잉클어지게 드러나도록 아가리를 벌리고 최가가 간이 썰리졌는지 염통이 쏘다졌는지 {아가리로} 피를 퍽퍽 토하면서 《1908 귀의성 하:104》 현대어역 : 최가가 간이 떨어졌는지 염통이 쏟아졌는지 아가리로 피를 퍽퍽 토하면서 이년아 {아가리} 짓찌기 전에 죠동이 닥쳐라 《1911 목단화 36》 현대어역 : 이년아, 아가리 짓쪼기 전에 주둥이를 닥쳐라 그것도 {으가리} 버릇을 함부로 별려가지고 뭐 마질 쇼리를 흥느냐? 《1921 조선일보 5월 1일 4면》 좀 싱각을 하여보고 {아가리를} 별여라 이 못된 놈 《1922 동아일보 3월 7일 4면》 역시 가난의 {악아리를} 벗어나지 못하여 술장사까지 하게 되었다고 《1935 동아일보 12월 12일 2면》
이표기	아갈이, 아가리, 악아리, 으가리
관련어	%
참고 논저	김민수 1997 어원사전 태학사
의견	%

(5) 고유어 용언

표제어 5	알아채다
품사	동사
뜻풀이	낌새를 미리 알다.
원어	%
형태 변화	19,20세기 : 아라치다 20세기 : 알아치다

	20세기 : 알아채다
내적 정보	‘알아채다’의 옛말인 ‘아라치다’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아라치-’는 동사 ‘알-’과 연결 어미 ‘-아’가 결합한 ‘아라’에 “깨닫다”를 뜻하는 동사 ‘치-’가 결합한 것이다. 20세기에 ‘아라치-’를 분절 표기한 ‘알아치-’가 나타났으며, 18세기 이후 나타난 제1음절의 ‘·’가 ‘ㅏ’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ㅏ’가 ‘ㅓ’로 변하면서 ‘알아채다’가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외적 정보	%
기타 어원	%
용례	19세기 : (아라치-) {아라치다} ≪1880 한불자전 9ㄱ≫ 20세기 : (아라치-, 알아치-, 알아채-) 그년이 바람 높흔 기색을 미리 {아라치웁고} ≪1908 구마검 73≫ 현대어역 : 그년이 바람 높은 기색을 미리 알아채고 눈치 빠른 금분이가 발서 {아라치고} ≪1908 빈상설 26≫ 현대어역 : 눈치 빠른 금분이가 벌써 알아채고 네가 참 잘 {아라치다} ≪1908 은세계 45≫ 현대어역 : 네가 참 잘 알아챘다. 저놈이 나를 발서 {알아치고} ≪1911 쌍옥적 16≫ 현대어역 : 저놈이 나를 벌써 알아채고 신 마마가 그 말을 듯더니 사람 만이 잡아먹은 범 모양으로 발서 {알아채고} 벌떡 니러나며 ≪1912 산천초목 25≫ 현대어역 : 신 마마가 그 말을 듣더니 사람을 많이 잡아먹은 범 모양으로 벌써 알 아채고 벌떡 일어나며
이표기	아라치-, 알아치-, 알아채-
관련어	알다, 채다
참고 논저	%
의견	%

(6)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

표제어 6	앞참(앞站)
----------	--------

품사	명사
뜻풀이	다음에 머무를 곳.
원어	%
형태 변화	18,19,미상,20세기 : 압참 20세기 : 앞참
내적 정보	‘앞참’의 옛말인 ‘압참’은 18세기부터 나타난다. ‘압참’은 “미래”를 뜻하는 ‘앞’과 “관리들에게 말 등을 공급하는 곳”을 뜻하는 한자어 ‘站(참)’을 한글로 표기한 ‘참’이 결합한 것으로, ‘앞참’을 소리대로 표기한 것이다. 현대 맞춤법에서 원형을 밝혀 적도록 함에 따라 ‘앞참’으로 표기되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와 ‘ㅏ’가 표기에서 섞여 쓰이면서 ‘압참’도 나타난다.
외적 정보	%
기타 어원	%
용례	18세기 : (압참) 우리는 가마 타고 {압참ㄹ디} 가느디라 ≪1764년이후 일동장유가 3:28ㄴ≫ 현대어역 : 우리는 가마를 타고 앞참까지 가는 것이다. 19세기 : (압참) (압참) 덕부인 마노라님이 {압참의셔} 도련님을 좇으신다 ≪1864 남원고사 2:37ㄴ≫ 현대어역 : 대부인 마누라님이 앞참에서 도련님을 찾으신다. {압참} 前站 ≪1880 한불사전 8ㄱ≫ {압참} 前站 (압-전) (참-참) ≪1897 한영사전 PART1:11≫ 현대어역 : 앞참 (앞 전) (참 참) 미상 : (압참)(압참) 이러므로 통인들이 다 {압참으로} 나와 ≪미상 을병연행록 1:24ㄴ≫ 현대어역 : 그러므로 통인들이 다 앞참으로 나와 이러므로 {압참으로} 마조 와 ≪미상 을병연행록 3:59ㄱ≫ 현대어역 : 그러므로 앞참으로 마중 나와 {압참의} 들미 또 주인의 고두쇠를 도적하면 ≪미상 을병연행록 10:33ㄴ≫ 현대어역 : 앞참에 들때 또 주인의 고두쇠를 도적하면 20세기 : (압참, 앞참) 오늘 하루 비어 때리고서 잡어 {압참을} 세우고 ≪1938 조선일보 3월 29일 4면≫ {앞참} 「名」 다음에 있는 참. 前站. ≪1940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앞참} -站 「이」 다음에 머무를 곳. (전참=前站) 《1957 큰사전》
이표기	압참, 압츰, 앞참
관련어	전참
참고 논저	%
의견	%

(7) 사전의 표제어로 쓰인 예만 보이는 경우

표제어 7	덧치기
품사	명사
뜻풀이	새를 잡는 데 쓰는 큰 그물.
원어	%
형태 변화	19,20세기 : 덧치기 20세기 : 뎡치기
내적 정보	‘덧치기’의 옛말인 ‘덧치기’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덧치기’는 동사 ‘덧치-’와 명사 파생 접미사 ‘-기’가 결합한 것으로, ‘덧치기’를 소리대로 표기한 형태이다. 20세기에 원형을 밝혀 표기함에 따라 ‘덧치기’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덧치기’는 19세기 〈한불자전〉에는 “짐승들(새, 쥐 등)을 잡기 위한 덧, 함정”으로 뜻풀이가 되어 있는데 20세기 사전들에는 “새를 잡는 그물”로 뜻풀이가 되어 있어 ‘덧치기’를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외적 정보	‘덧치기’는 우리말샘에서 ‘덧’의 방언으로 처리되어 있다. ‘덧치기’를 묘사하고 있는 신문 기사에서 ‘덧치기’가 지니는 ‘덧’, ‘그물’의 특성을 모두 볼 수 있다. ‘어느 것이나 덧을 놓아서 잡는데 새는 새 덧치기라고 말하고 족제비는 족제비 차위라고 불렀다 … 뽕나무 가지를 불에 슬쩍 구워 U자형으로 구부린 다음 가는 새끼로 망을 뜨고 다시 커다란 뽕나무 활에 끼워 바닥을 짚으로 엮은 다음 활시위의 반동 탄력을 이용해서 모이를 쪼는 순간 덧치기 망이 덧쳐서 새가 잡히게 돼 있었다.’〈1981 매일경제 1월 5일 8면〉
기타 어원	‘덧치기’와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는 ‘덧치그물’도 20세기에 볼 수 있다. ‘뽕 덧치그물’〈20세기 초 광재물보 4: 33ㄴ〉
용례	18세기 : (덧치기) {덧치기} [攫取] 《1880 한불자전 470》

	20세기 : (덥치기, 똥치기) {덥치기} 「名」 「똥치기」 에 보라. 《1940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똥치기} 「名」 새를 잡는 데 쓰는 큰 그물. 《1940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똥치기} 「이」 새를 잡는 데 쓰는 큰 그물. 《1957 큰사전》
이표기	덥치기, 똥치기
관련어	%
참고 논저	%
의견	%

(8) ‘하다’가 결합한 용언

표제어 8	이들이들하다
품사	형용사
뜻풀이	번들번들 윤기가 돌고 부들부들하다.
원어	%
형태 변화	19세기 : 이들이들ㅎ다 20세기 : 이들이들하다
내적 정보	‘이들이들하다’의 옛말인 ‘이들이들ㅎ다’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이들이들ㅎ-’는 “윤기가 돌고 부들부들한 모양”을 뜻하는 부사 ‘이들이들’에 현대어 ‘하다’로 이어지는 ‘-ㅎ-’가 결합한 것이다. 19세기에 ‘·’가 ‘ㅏ’로 표기된 ‘이들이들하다’가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20세기에는 ‘이들이들허-’도 보인다.
외적 정보	%
기타 어원	%
용례	19세기 : (이들이들ㅎ-, 이들이들하-) {이들이들ㅎ다} 《1880 한불사전 46》 {이들이들하다} 穠熟穠熟 《1896 국한회어 곤:235》 {이들이들ㅎ다} See 이드를ㅎ다 《1897 한영사전 PART1:74》 현대어역 : 이들이들하다, 이드를하다

	20세기 : (이들이들하-, 이들이들허-) 주인 최씨가 나히 오십이 넘은 오늘에도 정력이 {이들이들하야} 보이는 부대한 몸 에 늘어 가는 것이 벼슬 탐이오 《1931 동아일보 3월 15일 3면》 어이구 그 {이들이들허구} 오동통한 젓가슴 《1931 동아일보 5월 16일 3면》 그재에 조금 물기를 가하야 풀같이 {이들이들하계} 만들고 《1933 동아일보 10월 25일 6면》
이표기	이들이들헉-, 이들이들하-, 이들이들허-
관련어	이들이들
참고 논저	%
의견	%

2.7. 특별 항목 집필 및 감수

2.7.1. 집필 목적

특별 항목은 어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대표 표제어를 선별하여, 이에 대하여 일반 항목보다 풍부하게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특별 항목은 관련 학설이나 민간 어원 등이 풍부하여 흥미로운 어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항목 200개를 선정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2.7.2. 집필 후보 항목 선정

올해 집필 후보 항목으로는 총 270여 개를 선정하였다.

〈표 1〉 2024 특별 항목 집필 후보 항목

고유명	거란, 독일, 미국, 불란서,...
과거문물	고구마, 고인돌, 고추, 곶국, ...
과거어	동무, 서울, 알나리깁나리, 염병,...
과거제도	기생, 나인, 내시, 양반,...
관용표현	고려공사 사흘, 낙동강 오리알,...
국어	국어, 국문, 한글, 훈민정음, ...
근대문물	건빵, 고무, 구두, 껌, ...
근대제도	간호부, 다방, 대통령, 요정, ...
동식물	고등어, 도루묵, 땅콩, 양귀비, ...
음식	김밥, 단무지, 막국수, 만두, ...
한국한자어	감기, 공부, 복덕방
현대어	개인, 국민, 포라이, 삼팔따라지, ...

여기에서의 ‘분류’는 집필자들의 항목 선택 편의를 위해 임의로 나눈 것일 뿐이며, ‘관용표현’의 경우 집필 시스템에 입력이 불가능하여 2024년 집필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물론 일반 항목도 집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특별 항목은 집필의 전문성이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집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집필자들에게 ‘집필 후보 항목’을 제시하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집필 후보 항목’에 없어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집필 후보 항목’에 없는 110여 개 추가되었다. 그리고, 2023년에 집필된 항목 중에서 일부 항목(‘서울’, ‘만두’ 등 9개)은 집필 대상에 포함하였다.

2.7.3. 집필에서의 문제점

특별 항목 집필의 경우, 국어사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한문 자료 등 다양한 역사 자료를 찾아야 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사전에 기술하기 위해서는 정확도의 확보를 위하여 원문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원문 확인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이미 논의가 있었던 항목을 가급적 집필 대상으로 삼아 자료 확보의 어려움을 덜고자 하였다.

또한, 특별 항목으로 선정해 집필했지만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일반 항목 논의 범위에 속하는 것도 있었다. 따라서 집필이 끝나면 팀장이 특별 항목, 일반 항목 집필을 구분하여 판단하였다. 한편, 집필 과정에서 추가로 집필이 가능한 항목이 나오기도 하였으며 일반 항목의 경우처럼 예를 찾는 과정에서 관련 단어의 예도 발견되는 경우 추가 집필하였다.

2.7.4. 특별 항목 집필 예시

표제어	돈-가스
품사	명사
뜻풀이	빵가루를 묻힌 돼지고기를 기름에 튀긴 서양 요리.
원어	ton[豚]kasu
형태· 표기 변화	20 세기 :돈가스 20 세기 :돈까스 20 세기 :톤카츠
언어 내적 정보	‘돈가스’는 ‘톤카츠’라는 표기로 20세기부터 나타난다. ‘톤카츠’는 일본어에서 온 말이다. 일본어 발음을 한글로 적을 때 여러 가지 글자로 적을 수가 있어서 ‘톤카츠’ 이외에도 ‘돈가스, 돈까스, 돈카츠, 돈카트, 동까스, 동까쓰’ 등 다양한 표기가 나타났다. ‘동까스, 동까쓰’는 제1음절의 ㄴ이 제2음절의 ‘ㄱ’의 영향을 받아 ‘ㄱ’과 같은 위치에서 발음이 나는 ‘ㅇ’으로 소리가 바뀌면서 나타난 표기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돈까스’와 ‘돈가스’로 주로 적다가 ‘돈가스’로 정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
외적 정보	‘돈가스’는 일본어에서 온 말이다. 일본어에서는 ‘とんかつ’, ‘とんカツ’, ‘トンカツ’, ‘豚かつ’ 등 여러 가지로 표기가 된다. 그렇지만 표기 방식만 다를 뿐 발음은 같다. ‘돈가스’에서 ‘가스’는 ‘かつれつ’(가쓰레쓰)가 줄어든 말로 ‘かつれつ’는 영어 ‘cutlet’(커틀릿) 또는 프랑스어 ‘côtelette’(코틀레트)에서 온 말로 보고 있다. 소고기나 닭고기 등으로 만드는 커틀릿에 비해 일본에서는 돼지고기를 사용하여 커틀릿 비슷하게 만든 음식을 ‘ポークカツレツ’(포쿠 가쓰레쓰)라 하기도 하였는데 시간이 흐르고 조리 방법에도 변화가 생겨 돼지고기로 만든 ‘かつれつ’라 하여 앞에 돼지를 의미하는 ‘豚(돈)’ 자를 붙여서 ‘とんかつ’라고 하게 되고 이 말이 굳어져 쓰이게 되었다. ‘커틀릿’이 고기를 기름에 돌려 익힌 것이라면 ‘돈가스’는 고기를 기름에 푹 잠기게 하여 익힌 것이라는 점 등 여러 가지로 다르게 요리하는 음식으로 커틀릿을 토대로 하여 일본에서 새로이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돈

	가스' 요리법이 완성된 것은 1929년으로 보고 있지만 그전부터 이미 간이식당 등에서 'とんか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한다. 한국에 '톤카츠'라는 이름으로 처음 소개된 것이 1930년이므로 한국에 빨리 전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39년에 발간된 신문에서는 '포크-가쓰레쓰'라는 이름으로 요리법이 소개되기도 했다. '포크-가쓰레쓰'는 'ポークカツレツ'를 한글로 적은 것이다. 또한 1930년에 발간된 신문 연재소설에서는 '가쓰레쓰'라고 나온다. 1932년에 간행된 잡지 《별건곤》 57호에 실린 '백화점 견학'이라는 만평에는 '가쓰레쓰'라는 음식이 진열된 모습도 있다. 이로 보면 당시 백화점에서 '가쓰레쓰'라는 이름의 음식을 팔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음식에 대한 설명이 없어 '돈가스'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처럼 '돈가스'와 관련된 단어들이 1930년대부터 보이지만 그후로도 한글로 적을 때 여러 표기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잘 알려진 음식 이름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 소개된 시기보다 훨씬 뒤에야 대중적인 음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타 어원	대사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돈가스'가 처음 사전에 실린 것은 1991년에 초판이 나온 《금성판 국어대사전》이다. 그런데 '돈가스'를 올리기는 했지만 '포크 커틀릿'으로 가라고 하여 아직 표준적인 단어로 인정을 하지는 않았다. '돈가스'가 1930년대부터 한국어에 나타나는 음식 이름인데도 사전에 이처럼 늦게 올라간 이유로는 '돈가스'가 일본어에서 온 말이라는 거부감 때문일 듯하다. '돈가스'라는 말을 사용하는 데 대한 거부감은 종종 표출되었다. 1949년에 한글학회에서는 '제육 카트레트'로 바꾸라고 했고, 1972년 11월 13일 서울시에서는 음식점 용어를 우리말로 쓰도록 지시하면서 '돈가스'는 '포크스틱'으로 바꾸라고 하였다. '포크스틱'은 다른 데서 용례를 찾기 어려운데 '비프스틱'(비프스테이크)이라는 말에 영향을 받아 '포크스틱'이라고 한 듯하다. 또한 '돼지고기너비튀김', '돼지고기너비튀김밥', '돼지고기튀김', '돼지고기튀김밥'과 같은 순화어가 제안되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금성판 국어대사전》에서 '돈가스'를 올리기는 했지만 '포크 커틀릿'을 바른말로 보았다. '포크 커틀릿'이라는 말도 1980년대야 예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빵꾸'를 '핑크'라고 본래의 서구어 발음으로 바꾸어 썼듯이 '포크 가쓰레쓰'라는 일본어를 서구어 발음으로 '포크 커틀릿'이라 한 것으로 보인다. '돈가스'가 이미 널리 쓰이는 말이라서 사전에 올리기는 하지만 쓰지는 말라는 뜻을 담은 것이다. 1961년에 초판이 간행된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의 경우에는 1995년 3월에 간행된 3판 2쇄에서 '돈까스'를 '포크 커틀릿'의 동의어로 실었음이 확인된다. 풀이는 '포크 커틀릿'에서 되었다. 이처럼 '돈가스', '돈까스'가 당시에 주로 쓰였는데 1995년 5월 11일에 열린 정부언론외래어공동심의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돈가스'를 인정하고 '포크 커틀릿'을 동의어로 처리하여 '돈가스'로 표기가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에 나온 《금성판 국어대사전》 2판에서는 '돈가스'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풀이도 더 상세하게 하였으며 '포크 커틀릿'은 '돈가스'의 동의어라는 정보만 제시하였다.
용례	20세기: (톤카츠, 동까스, 돈까스, 동까쓰, 돈까츠, 돈카트, 돈가스, 돈까쓰, 돈카츠, 돈카쓰)

	{돈카츠}: 豚カ츠레츠란 말인데 일반으로 下等 洋食의 대명사. <1930 《별건곤》 31, <신어사전>(5)>> 현대어역 : 돈가스: 돈가쓰레쓰란 말인데 일반적으로 하등(下等) 양식(洋食)의 대명사. 또 한글날 한글학회에서는 상용되는 왜말을 고치는데 소위 {「동까스」라고} 부르던 것을 「제육 카트레트」라고 하라고. <1949 조선일보 10월 11일 2면> 五. 各飲食物及料理價格表 ... {돈까스} 二,五〇〇 <1951 동아일보 12월 2일 2면> 현대어역 : 5. 각 음식물 및 요리 가격표 ... 돈가스 2,500 {동까쓰} 그릴 太極 <1953 경향신문 6월 29일 1면 광고> 아버지는 요즘엔 날이 더워서 아침 세 시에 일어나 글을 쓴다는 이야기며 {「돈카츠」를} 잘 만든다는 이야기도 했다. <1955 조선일보 8월 14일 4면> 「토마토·케찹」과 「우스터소스」를 같은 분량으로 섞어서 「프라이」판에 데우면 「{돈카트} 소스」가 되기도 한다. <1964 경향신문 10월 12일 7면> 명동 어귀 한일은행 앞에 있었던 <태극> 그릴은 {돈가스}, 지금의 <금강산> 자리에 있던 <지미(地美)> 그릴은 <스프> 맛으로 <1965 조선일보 10월 14일 5면> 아마자끼 부인은 가족들이 생선회를 좋아하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신 값싼 수입 돼지고기를 사서 {「돈까쓰」를} 만들어 밥상에 올려 놓는다. <1978 경향신문 4월 15일 5면> 매일의 점심은 학교 구내의 生活 협동조합 식당에서 2백50엔짜리 곱배기 라면이나 3백엔의 카츠동({돈카츠를} 밥 위에 얹은 것), 맛 없으나 밖에는 안 나간다. <1978 조선일보 8월 25일 3면> 설렁탕 냉면 {돈까쓰} 등 음식 이름을 커다랗게 써붙여 놓은 것이 눈에 띈다. <1982 동아일보 7월 26일 9면>
이표기	톤카츠, 동까스, 돈까스, 동까쓰, 돈까츠, 돈카트, 돈가스, 돈까쓰, 돈카츠, 돈카쓰
관련어	%
참고 논저	오카다 데쓰 저, 정순분 역(2006), 《돈가스의 탄생: 튀김옷을 입은 일본근대사》, 뿌리와이파리. 김세중(1997), <외래어 표기 용례집-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결정(제1차 ~ 제19차)>, 국립국어연구원.
의견	%

표제어	비빔-밥
품사	명사
뜻풀이	고기나 나물 따위와 여러 가지 양념을 넣어 비벼 먹는 밥.
원어	%
형태· 표기 변화	19세기: 브뷔음 19, 20세기: 부빔밥 19, 20세기: 부빔밥 19, 20세기: 비빔밥 19, 20세기: 부빔밥
언어 내적 정보	‘비빔밥’의 옛말인 ‘브뷔음’은 19세기부터 나타난다. ‘브뷔음’은 ‘밥’이 결합하지 않은 형태인데, 19세기 말 편찬된 조리서인 《시의전서》에는 ‘밥’이 결합한 ‘부빔밥’, 부빔밥, ‘부빔밥’의 형태로 나타난다. ‘브뷔음’의 ‘브뷔-’나 ‘부빔밥’의 ‘부뷔-’는 ‘비비다’의 옛말인 ‘비뷔-’가 ‘ㅂ’ 아래 모음 ‘ㅡ’가 ‘ㅜ’로 바뀌는 원순모음화에 영향을 받아 바뀐 것이다. ‘브뷔음’은 ‘브뷔-’에 명사형 어미 ‘-ㅁ’이 결합한 것이다. ‘부빔밥’은 ‘부뷔-’에 명사형 어미 ‘-ㅁ’이 결합한 후 다시 명사 ‘밥’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부빔밥’도 원순모음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이며 ‘부빔밥’은 19세기 이후 자음 뒤에서 모음 ‘ㄴ’이 모음 ‘ㅣ’로 바뀌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다. 20세기에는 ‘부빔밥’과, ‘비빔밥’이 많이 쓰이는데 동사 ‘비뷔-’가 대표 형태로 자리잡게 되면서 ‘비빔밥’이 표준어로 인정되어 현재에 이른다. 한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비빔밥’에 해당하는 말로 명사형 어미만 결합한 ‘부뷔’, ‘브뷔음’과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부뷔밥’, ‘부뷔밥’, ‘부뷔밥’, 그리고 ‘부뷔밥’의 형태도 나타난다.
외적 정보	1809년(순조 9)에 빙허각 이씨가 편찬한 《규합총서》에는 약밥, 팔물밥, 오곡밥 등에 대하여는 설명하면서도 비빔밥에 대한 언급은 없다. 1810년에 나온 《몽유편》에는 ‘브뷔음’으로만 나온다. ‘부빔밥’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만드는 방법까지 소개한 것은 19세기 말 편찬된 조리서인 《시의전서》이다. 그리고 ‘비빔밥’에 상응하는 단어가 1798년에 편찬된 《재물보》에는 나오지 않다가 19세기에 증보된 《광재물보》에 추가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비빔밥이라는 음식이 19세기에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그보다 앞서 이 음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말들이 확인된다. 17세기 무렵 박동량(朴東亮)이 편저한 《기재잡기(寄齋雜記)》에 ‘혼돈반(混沌飯)’이 나타나고, 권상일(權相一)의 일기인 《청대일기(淸臺日記)》에 ‘골동반(汨董飯)’이 나타난다. 이 ‘혼돈반’과 ‘골동반’을 비빔밥을 가리키는 한자 표기로 보고 있다. ‘혼돈반’과 달리 ‘골동반’은 20세기에 들어서도 비빔밥을 가리키는 말로 자주 문헌에 나타났다. 1870년에 만들어진 《명물기략》에는 ‘桴排飯(부배반)’이라고 ‘부빔밥’과 음이 비슷한 한자로 표기한 예도 나온다. 지금은 ‘비빔밥’을 주로 사용하지만 용례에서 보듯이 문헌에서 다양한 표기가 확인된다. 널리 알려진 말이었는지 19세기 말부터 어휘를 모은 사전이나 자료집 등에도 예가 보인다. 1880년에 간행된 《한불자전》에는 ‘부뷔’이 보인다. 의미를 다르게 풀이했지만 ‘부뷔염’, ‘부뷔’도 보이며 ‘골동반’도 보인다. 1897년에 간행된 《한영자전》에서도 ‘부뷔’이 확

	인된다. '골돌반'도 확인된다. 같이 제시된 한자가 '骨董飯'이므로 '골동반'을 다르게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골돌반'의 풀이에서 '부빔밥'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부빔밥'을 따로 항목으로 올리려 했지만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1895년에 편찬된 《국한회어》에는 '비빔밥'이 나온다. 1920년에 간행된 《조선어사전》에는 '부빔밥, 부빔밥'과 함께 의미를 다르게 풀이한 '부빔'도 올렸다. 우리말의 어법에서는 '비빔밥'보다는 '비빔밥' 정도가 자연스럽다는 지적이 있는데 《조선어사전》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부빔밥'을 택한 것이다. 20세기 초까지 '부빔밥'과 '비빔밥'이 함께 쓰였지만 조선어학회에서 '비빔밥'을 표준어로 선택하였다. 1936년에 발표한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서 같은 말이지만 'ㄴ'과 'ㅣ'가 통용되는 말 중에서 'ㅣ'를 택한 것에 '비빔밥'이 들어 있다. 즉, 조선어학회에서 '부빔밥'과 '비빔밥' 중에서 '비빔밥'을 표준어로 선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8년에 간행된 문세영 편 《조선어사전》에서는 '비빔밥'을 '부빔밥'의 사투리로 올렸다. 광복 후에 간행된 《표준조선말사전》부터는 '비빔밥'을 표준어로 올리면서 그 이후에는 '비빔밥'이 표준어로 굳어지게 된다.
기타 어원	%
용례	19세기: (브뷔음, 부빔밥, 부빔밥, 부빔밥, 부빔, 부빔밥, 비빔밥) 骨董飯 {브뷔음} ≪1810 몽유편(蒙諭篇) 상 8ㄴ≫ 汨董飯 {부빔밥} 밥을 정히 짓고 고기 지여 복가 녀코 간랍 부쳐 썬허려 녀며 각 색 나무식 복가 녀코 죠흔 다시마튀각 튀여 부썬 녀코 고춧가루 깨소금 기름 만히 녀코 뷔비여 그릇식 담아 우희난 즈탕거지쳐로 계란 부쳐 골픽쪽만치 썬허려 언고 완즈난 고기 곱게 다져 줄 지여 구실만치 부뷔여 밀가루 약간 무쳐 계란 썬워 부쳐 언난니라 {부빔밥} 상에 중국을 즈탕국으로 흥여 노난니라 ≪19세기 시의전서 상 汨董飯 부빔밥≫ 현대어역: 골동반 비빔밥: 밥을 잘 짓고, 고기는 재웠다가 넣고 간납을 부쳐 썰어 넣고, 각색 채소도 볶아 넣고, 좋은 다시마튀각도 튀겨 부썬 넣고, 고춧가루, 깨소금, 기름을 많이 넣어 비벼서 그릇에 담는다. 위에는 잡탕거리처럼 달걀을 부쳐 골픽쪽만 하게 썰어 얹고, 완자는 고기를 곱게 잘 재워 구슬만 하게 빚어 밀가루를 약간 묻히고 달걀을 썬워 부쳐 얹는다. 비빔밥 상에 장국을 잡탕국으로 하여 놓는다. 완즈법은 {부빔밥} 방문이 보라 ≪19세기 시의전서 상 雜湯 즈탕≫ 현대어역 : 완자 만드는 법은 비빔밥 방문(만드는 방법)에서 보라. *골돌반 骨董飯 (쌔) (풀) (밥) A mixed dish (Comp.) See {부빔밥} ≪1897 한영사전 PART1:272≫{부빔} s. Mixed dishes - of food. ≪1897 한영사전 PART1:444≫ 현대어역 : 비빔밥 s(첫음절 다음) 섞은 음식.

	饘 밥 국의 말다 骨董飯 {부빔밥} 炊湯 숙낭 <<19세기 광재물보 2:30나>> 骨董飯골동반 取飲食雜和飯 俗言桴排飯{부빔밥} 又曰谷董 <<1870 명물기략(名物紀略)>> 미상: (비빔밥){비빔밥} 불근 설기 음식도 유명터라 <<규방가사 망월사친가 외 8종 201나>> 현대어역 : 비빔밥, 붉은 설기 음식도 유명하더라. 20세기: (부빔밥, 부빔밥, 뷔빔밥, 부빔밥, 부빔밥, 부빔밥, 비빔밥, 비빔밥) 그 오히 나오며 호는 말이 나눈 어서 가서 우리 할머니 도라가시거든 {부빔밥에} 당초가로나 만히 너히 먹겠다 호더라 <<1909 대한매일신보 4월 2일 3면>> 현대어역 : 그 아이 나오며 아는 말이 "나는 어서 가서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면 비빔밥에 고춧가루나 많이 넣어 먹겠다."라고 하더라. 로소남녀가 타기도 호고 짓기도 호고 치마도 쓰고 장옷도 쓰고 손등도 들고 사방등도 들고 서로 {부빔밥이} 되야 와글와글호니 금जू가 겁이 나서 저의 부친의 손목을 꼭쥐고 싸라가더니 <<1912 옥호기연4>> 서울 일판이 뒤죽박죽에 {뷔빔밥} 텃디가 되엇더라 <<1912 마상루 1>> 차가 덩거장에 와 짝 서며 슈다흔 사람들이 제각기 먼저 너리랴고 너 나아오리 나 나아오리 {부빔밥이} 한참 되야 <<1911 쌍옥적 21>> {부빔밥} <<1920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 {부빔밥} <<1920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 안에 가득 들엇던 사람이 혼디 {부빔밥이} 되야 갑오 이전 과거 퇴일 시절에 춘당디 부문 통이나 일반이라 <<1922 고목화 125나>> 현대어역 : 안에 가득 있던 사람이 함께 비빔밥이 되어 갑오년 이전 과거 볼 시절에 춘당대에 (선비들이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물려드는 통과 일반이다. 이 차 안에는 증기란로와 식당이 잇서 양식과 {부빔밥을} 마음대로 가리어 먹도록 하고 <<1921 동아일보 10월 08일 3면>> 아마 령검할 뜻한 것을 다 모와다가 귀신 {비빔밥을} 만들어 노은 것이 삼신당인심이다. <<1924 동아일보 1월 3일 3면>>
--	---

	너름 뱃병에 조선 사람은 생정구지를 쓸어 너코 셋빨간 고초장 『{부빔밥}』을 해 먹는 료법이 잇는 것도 한 비방이 될지 모른다 <1931 조선일보 12월 17일 5면> {부빔밥} 밥에 어육·채소 들을 섞고 갖은 양념을 하여 부빈 밥. <1938 조선어사전 647> 디방 청년이 방문한 때가 잇섯다는데 화투를 가지고 {비빔밥} 내기를 한다 하며 본 데도 안이하더라 <1923 조선일보 10월 6일 3면> {비빔밥}: {「부빔밥」의} 사투리 <1938 조선어사전 682> {비빔밥} 밥에 양념과 고명을 한데 섞어서 비빈 음식. <1948 표준 조선말 사전(재판) 375> {비빔밥}: 고기불이와 나물불이를 섞고 온갖 양념과 고명을 더하여 비쳐서 맛있게 만든 밥.({부빔밥}, 골동반=骨董飯) <1957 큰사전3 1483>
이표기	브뷔음, 부빔밥, 부빔밥, 부빔밥, 부빔, 부빈밥, 비빔밥, 부빈밥, 부빈밥, 부빔ㅅ밥, 뷔빔밥, 비빔ㅅ밥
관련어	%
참고 논저	이성우(1985), <한국요리문화사>, 교문사. 이효지 외(2004), <시의전서-우리음식 지킴이가 재현한 조선시대 조상의 손맛->, 신광출판사. 정경란(2015), 비빔밥의 역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1. 이은령 외(2014), <현대 한국어로 보는 한불사전>, 소명출판. 조항범(2022), <우리말 어원 사전>, 태학사. 한성우(2016), <우리 음식의 언어>, 어크로스. 이윤정, 윤예리(2020), 비빔밥의 명칭·향유계층·조리법의 변화과정 연구, <외식경영연구> 23-5. 권대영 외(2017), <고추 전래의 진실>, 자유아카데미.
의견	%

표제어	골동-반
품사	명사
뜻풀이	고기나 나물 따위와 여러 가지 양념을 넣어 비벼 먹는 밥.
원어	%
형태·표기 변화	19 세기 :골돌반 20 세기 :골동반
언어 내적 정보	‘골동반’의 옛말인 ‘골돌반’은 19세기부터 나타난다.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 ‘골돌반’이라는 표기를 찾아볼 수 없고 ‘골돌반’ 옆에 한자로 ‘骨董飯’을 제시한 것을 보면 ‘골동반’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20세기부터 ‘골동반’이 나타나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외적 정보	‘골동반’은 ‘비빔밥’을 한자로 적기 위해 사용되었다. ‘骨董飯’이라고 적거나 음은 같은 ‘汨董飯’으로 적었다. ‘骨董飯’이라는 한자 자체는 중국에서 명나라 시기에 출판된 문헌에 나타나므로 중국에서 먼저 사용된 말이다. 또한 《승정원일기》 1799년 5월 12일 기사에는 ‘江南 汨董飯(강남 골동반)’이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여기서 ‘강남’은 중국을 가리키므로 ‘골동반’이 중국에서 유래한 음식으로 본 듯하다. 그렇지만 중국에서 말하는 ‘骨董飯’은 비빔밥과 만드는 방식이 다른 음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섞은 것을 ‘骨董(골동)’이라고 하는 것에 착안하여 ‘비빔밥’을 한자로 적기 위하여 ‘骨董飯’이라는 한자를 빌려 적은 것으로 보인다. 한문으로 기록된 문헌에서는 ‘骨董飯’보다 ‘汨董飯’이 먼저 보인다. 《청대일기》 1724년 8월 30일 일기에서 ‘汨董飯(골동반)’이 처음 보이고 《청장관전서》, 《승정원일기》에서도 나타난다. ‘汨董飯’은 중국어 사전에 없는 것을 보면 ‘비빔밥’을 한자로 적기 위해 ‘骨董飯’ 대신 음이 같은 ‘汨董飯’도 사용하는 관습이 생긴 듯하다. ‘汨董飯’도 20세기까지 사용된 예가 보인다. 처음에는 말을 할 때는 ‘비빔밥’이라고 하지만 글로 적을 때는 ‘汨董飯’이나 ‘骨董飯’이라고 하다가 점차 말을 할 때도 ‘비빔밥’과 함께 ‘골동반’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1810년에 간행된 《몽유편(蒙諭篇)》에서는 “骨董飯 브뷔음”, 《시의전서》에서는 “汨董飯 부뷔밥”이라고 한자를 제시하고 고유어 ‘비빔밥’에 해당하는 고유어를 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골동반’이라는 말은 사용 빈도가 낮기는 하지만 최근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비빔밥’이 여러 재료를 섞어 만드는 것이어서 ‘골동반’도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을 비유할 때도 사용되었다. 1799 《승정원일기》는 여러 원인이 뒤섞여 기록된 것을 지적할 때 사용하였으며, 1910년 《대한매일신보》는 잡다한 기사를 모은 난의 제목으로 ‘汨董飯’을 사용하였다.
기타 어원	%

용례	19세기: (골돌반) {골돌반} 骨董飯 (쌈) (풀) (밥) A mixed dish (Comp.) See 부빔밥 <1897 한영사전 PART1:272> 20세기: (汨董飯, 骨董飯, 골동반) 그리고 地方 都市에 賣食으론 開城 湯飯과 平壤 冷麵과 또는 全州 {骨董飯}(비빔밥) 가튼 것이 거의 代表的 名食物이엇섯다. <1936 조선일보 8월 27일 5면> 원문 : 그리고 지방 도시에 파는 음식으론 개성 탕반과 평양 냉면과 또는 전주 골동반(비빔밥) 같은 것이 거의 대표적으로 이름난 먹을거리이엇었다. {汨董飯} <1910 대한매일신보 2면> {골동반}(비빔밥) 같은 음식은 다양한 채소와 육류를 한꺼번에 취할 수 있는 영양식 이고요. <1995 경향신문 5월 27일 47면>
이표기	골돌반, 骨董飯, 汨董飯, 골동반
관련어	비빔밥, 혼돈반
참고 논저	주영하(2010), '비빔밥'의 진화와 담론 연구, 《사회와 역사》 87 정경란(2015), 비빔밥의 역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1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
의견	%

표제어	고무
품사	명사
뜻풀이	고무나무의 껍질에서 분비하는 액체를 응고시켜 만든 생고무를 주원료로 하는 물질. 탄력성이 강하고 신축성이 좋으며 전기나 물, 가스를 통과시키지 않아 공업용품이나 생활용품으로 널리 쓰인다.
원어	%
형태·표기·변화	20 세기 : 고무
언어 내적 정보	‘고무’는 20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고무’는 일본어에서 온 말이다. 주로 ‘고무’로 쓰였으나 첫음절을 된소리로 적은 ‘꼬무’나 ‘꼬무’도 나타난다. 간혹 ‘고므’로도 쓰였는데 양순음 ‘ㄱ, ㄴ, ㄷ, ㅌ’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ㅜ’로 변하는 원순 모음화를 의식하여 ‘무’가 ‘므’에서 변화된 것으로 보고 ‘므’로 적은 것이다.
외적 정보	‘고무’는 일본어 ‘ゴム(고무)’에서 온 말이다. 일본어의 ‘ゴム’는 19세기 초 네덜란드어 ‘gom’을 일본식 발음으로 적은 것으로 한자로는 ‘護謨(호모)’라고 적었다. 한국에서 ‘고무’라는 단어는 1920년대에 고무신이 인기를 얻으며 널리 확산되었지만 그전에도 다른 어형으로 쓰인 바 있다. 일찍이 고무는 근대 초기 외국과의 통상 조약문에 수입품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1884년 영국과의 통상조약문 <아국여영국 통상조약(我國與英國通商條約)>의 관세품 목록에 고무가 ‘Indian rubber’의 번역어인 ‘印度膠(인도교)’로 쓰였고, 이후 프랑스, 덴마크 등과의 통상조약문에도 같은 단어가 쓰였다. 1880년대 《한성순보(漢城旬報)》에는 고무를 뜻하는 말로 ‘象皮(상피)’가 쓰였는데 이는 고무의 질긴 재질을 코끼리의 피부에 비유한 중국어 단어를 빌려 쓴 것이다. 한국에서 고무는 ‘인도고(印度膏)’로도 불렸는데, 1884년 《한성순보》 4월 6일자 기사에서는 나무에서 나오는 액체를 응고시켜서 가죽처럼 만들어 바퀴에 씌우는 아주 튼튼하고 질긴 껍질이라고 고무를 설명하고 이것이 인도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인도고’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1897년 6월 1일자 《독립신문》에서 미국 수입품을 설명하며 ‘싱인도고 나무껍질’이라고 한 것이나, 1907년 9월 8일자 《대한매일신보》 광고에서 ‘각종 인도고 장화’라고 한 것처럼 ‘고무’라는 말이 널리 퍼지기 전까지는 고무를 주로 ‘인도고’라고 불렀다. 1919년 경성에 한국 최초의 고무 제품 제조 공장인 대륙고무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 고무신이 큰 인기를 끌게 되며 ‘고무’라는 어형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1920~1930년대에는 한글로는 ‘고무’로 적지만 한자로는 일본식 한자어인 ‘護謨(호모)’로 적은 경우가 많았는데, ‘護謨(호모)’는 1945년 이후에는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다. 문세영의 《조선어사전》(1938)과 한글학회의 《큰사전》(1957)에 고무를 나타내는 말로 ‘고무’ 외에도 ‘인도고’를 수록한 것처럼 20세기 전반기에는 두 단어가 모두 널리 쓰였으나 ‘인도고’는 현대로 오며 사라지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고무’만 쓰인다.
기타 어원	%
용례	20세기: (고무, 꼬무, 고므, 꼬무)

	영국 사람 「해니들리 페지」 씨는 비행기의 날개에 대하여 새로운 의장(意匠)을 발표 하얏는데 씨의 발명은 육상교통기관에 사용하는 차바퀴에 {「고무」를} 붙치어서 바퀴를 개량한다는대 비행기 개량에 막대한 공적이 되리라 하며 ≪1920 동아일보 5월 20일 3면≫ 현대어역 : 영국 사람 핸들리 페이지 씨는 비행기의 날개에 대하여 새로운 의장을 발표하였는데 씨의 발명은 육상 교통 기관에 사용하는 차 바퀴에 고무를 붙여서 바퀴를 개량한다는대 비행기 개량에 막대한 공적이 되리라 하며 受驗者는 鉛筆 {「고무」} 小刀만 携帶함이 可하고 ≪1921 조선일보 3월 15일 4면≫ 현대어역 : 시험을 보는 사람은 연필, 고무, 작은 칼만 휴대할 수 있고 엇더한 {「고무」} 공장에 단이는 여직공의 탄식을 들으면 ≪1923 조선일보 6월 21일 3면≫ 현대어역 : 어떠한 고무 공장에 다니는 여직공의 탄식을 들으면 지난 여름 고무 대파업의 부산물로 빈약한 직공의 피눈물 나는 돈을 모아 창립을 본 평양의 공제생산조합(共濟生産組合) {고무} 공장은 개업 이래 각 방면의 만흔 주의를 끌게 되어 근일의 불황 중에도 주문이 만혀 동 공장에서는 제품에 분주한 터인데 ≪1930 조선일보 12월 18일 3면≫ 현대어역 : 지난 여름 고무 대파업의 부산물로 빈약한 직공의 피눈물 나는 돈을 모아 창립을 본 평양의 공제생산조합 고무 공장은 개업 이래 각 방면의 많은 주의를 끌게 되어 근일의 불황 중에도 주문이 많아 동 공장에서 제품에 분주한 터인데 發明王 의디손 翁 人造 護謨 製造 發明 {고무} 生産의 大打擊 價格의 變動 ≪1931 조선일보 6월 26일 3면≫ 현대어역 : 발명왕 에디슨 옹 인조 호모 제조 발명 {고무} 생산의 대타격 가격의 변동 처음 조선서는 {고무를} 인도고라고 하고 사람의 껍질로 만들었다고 알아서 잘들 쓰기를 조하하지 안하얏더랍니다. ≪1936 조선일보 2월 17일 3면≫ 현대어역 : 처음 조선에서는 고무를 인도고라고 하고 사람의 껍질로 만들었다고 알아서 잘들 쓰기를 좋아하지 않았더랍니다.
이표기	고무, 고무, 고무, 고무
관련어	껌
참고 논저	%
의견	%

표제어	고들-빼기
품사	명사
뜻풀이	국화과의 두해살이풀. 높이는 60cm 정도이며, 붉은 자줏빛을 띤다.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노란 두상화가 많이 피고 열매는 수과(瘦果)를 맺는다. 어린잎과 뿌리는 식용한다.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데 한국,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원어	%
형태·표기 변화	17 세기 :고좃바기 18 세기 :고돌박이 19 세기 :고들쌩이 19 세기 :고돌비 20 세기 :고들빼기
언어 내적 정보	‘고들빼기’의 옛말인 ‘고좃바기’는 17세기부터 나타난다. ‘고좃바기’는 ‘고좃’에 접미사 ‘-바기’가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고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바기’는 기원적으로 ‘-박이’와 연관된 것으로 ‘박혀 있다’의 의미가 들어 있다. 18세기에는 ‘고돌박이’가 나타나고 19세기에는 ‘고돌비’가 나타난다. ‘고돌박이’와 ‘고돌비’에서는 ‘고돌’이 보이는데 ‘고좃’이 ‘고돌’로 바뀐 것을 설명하기 쉽지 않다. 다만 《동의보감》, 《재물보》, 《물명고》, 《명물기략》에서는 ‘고채(苦菜)’라고 하였고 특히 《명물기략》에는 고채는 ‘고도(苦荼)’라고도 하면서 ‘고독바기’와 연결시켰다. ‘고좃바기’이든 ‘고돌박이’, ‘고돌비’이든 한자어와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古堦朴(고돌박)’, ‘古堦朴只(고돌박지)’, ‘古突朴伊(고돌박이)’와 같이 한자를 빌려 적은 표기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미 ‘고들빼기’는 고유어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에는 ‘고들쌩이’가 나타나고 20세기에 ‘고들빼기’가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고들빼기’는 ‘고들쌩이’가 모음 ‘·, ㅣ, ㅏ’가 뒤따르는 ‘ㅣ’ 모음의 영향으로 ‘ㅣ, ㅐ, ㅑ’가 되는 ‘ㅣ’ 역행 동화의 영향을 받고, 된소리를 같은 글자로 적으면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원칙에 따라 ‘쌩이>빼기’로 변한 결과이다. ‘고들빼기’가 현재의 쓰임으로 굳어지는 과정은 다소 복잡하다. 후대로 갈수록 ‘고들빼기’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데 1920년에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조선어사전》에 ‘고좃바기’의 후대형으로 보이는 ‘고좃바기’가 나타난다. 그리고 ‘쌔바귀’와 같은 말로 보았다. 이 사전은 ‘고들쌩기’도 ‘쌔바귀’와 같은 말로 보았다. 즉 지금과 달리 ‘고들빼기’를 ‘쌔바귀’와 같은 뜻을 가진 단어로 본 것이다. 1936년에 조선어학회에서 간행된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서는 ‘쌔바귀’와 ‘고들빼기’를 비슷한 말로 분류하여 둘을 각각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8년 문세영 편 《조선어사전》에는 ‘고들빠기’, ‘고들비’, ‘고자빠기’가 올랐는데 모두 ‘쌔바귀’의 사투리로 처리하였다. 이 사전에서의 처리를 감안하면 앞선 시기에 나온 ‘고좃바기’, ‘고돌비’, ‘고돌박이’는 서로 다른 방언으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1947년 조선어학회 편 《조선 말 큰 사전(1)》은 또 다르게 처리하였다. ‘고들빼기’만 ‘쌔바귀’와 다른 표준어로 인정하였고 ‘고들비’는 ‘쌔바귀’의 사투리, ‘고자빠기’는 ‘고들빼기’의 사투리로 보았다.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따라 《조선 말 큰 사전(1)》에서 ‘고들빼기’만 표준어로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이다.
언어 외적 정보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18년간 유배생활을 했던 정약용(丁若鏞)의 차남인 정학유(丁學游, 1786~1855)가 지은 장편가사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에는 2월에는 고들빼기, 씀바귀, 소루쟁이, 물쭉 등의 들나물을 캐어 먹는다고 하였다.
기타 어원	○ ‘고들빼기’라는 특이한 이름의 유래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전설이 전한다. 전라도 전주에 살던 고씨 두 형제와 그들의 친구 이씨, 백씨 네 명이 어느 날 산에 놀러 갔다가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다. 그들은 길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며칠 동안 산속에서 밤을 지새우게 되었다. 네 사람은 준비해 온 먹을 것도 이미 다 떨어졌고 굶주리게 되자 시장기를 면하기 위해 산에서 나는 야생풀이라도 뜯어 먹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그 산속에 이름 모를 풀이 잔뜩 있는 것을 보고 풀을 뜯어 먹어보니 맛이 씹쌀하면서도 좋았다. 다행히도 네 사람은 산 속에서 화전민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 화전민에게 맛이 좋았던 풀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으나 이름이 없는 풀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네 사람은 마을로 돌아올 때 그 풀을 캐내어 가져왔다. 그 풀을 본 마을 사람들은 고씨 형제와 이씨, 백씨가 발견한 풀이라는 뜻에서 ‘고들백이’라고 불렀고 여기서 오늘날 ‘고들빼기’가 되었다는 전설이다. 그렇지만 이 전설은 전설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고들빼기는 들녘이나 낮은 산자락에 사는 풀이기 때문에 깊은 산에서 났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 ‘고들빼기’가 ‘苦蕒菜(고들채)’에서 왔다고 보기도 한다. 만주 지역에서 ‘고들빼기’를 아주 쓴 뿌리 나물이라는 뜻으로 ‘苦蕒菜’라 하는데 이것이 변해서 ‘고들빼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苦蕒菜’라는 표기 자체를 문헌에서 찾기가 어렵고 ‘苦蕒菜 > 고들박이’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용례	17세기: (고춧바기) 苦菜 {고춧바기} 《1613 동의 2:30ㄴ》 18세기: (古疋朴, 古疋朴只, 고들박이) {古疋朴} 每升 價五分 《1796 일성록 2월 11일》 원문 : 고들빼기 매 되 값 5푼 {古疋朴只} 艾芥生菜 《17XX 원행음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 권4, 찬품(饌品) 13ㄴ》 현대어역 : 고들빼기, 쑥, 갓 무친 나물 {고들박이} 《17XX 명니의궤 32:46ㄱ》 19세기: (고독바기, 고들쌩이, 고들비, 고들싸귀, 고들쌩이) {고들쌩이} 菜 《1895 국한 25》苦菜고척 俗言苦茶 轉訓 {고독바기} 《1870 명물기략》 현대어역 : 고채 세속에서 고도(苦茶)라고 하는데 이것이 ‘고독바기’가 되었다.

	{고들싸귀} ≪1880 한불사전 196ㄱ≫{고들싸이} ≪1897 한영사전 PART1: 275≫ 苦菜 {고들비} ≪18XX 광재물, 采柔, 1b≫多取苦菜而來。俗名{古突朴伊} ≪18XX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만물편(萬物篇) 조수류(鳥獸類) 웅비변증설(熊 羆辨證說)≫ 현대어역 : 고채(속명은 고들빼기)를 많이 캐서 왔다. 松起ㄷ 썩 콩 佐飯 뫼호로 티다라 싱검초 습듀 고소리며 들밧호로 나리다라 곱달니 {고들싸이} 두루 키야 ≪1876 가곡원류 530≫ 현대어역 : 송기떡 콩자반 산으로 치달아 승검초 삼주 고사리며 들밭으로 내달아서 곱달래 고들빼기 두루 캐어 20세기: {고들싸기, 고갯바기, 고들빠기, 고들비, 고자빠기, 고들빼기, 고자빼기} {고들싸기} 「쌈바귀」に同じ ≪1920 조선어사전 69≫ 현대어역 : 고들빼기 「쌈바귀」와 같음 {고갯바기} 「쌈바귀」に同じ ≪1920 조선어사전 71≫ 현대어역 : 고들빼기 「쌈바귀」와 같음 {고들빠기} 「쌈바귀」의 사투리. ≪1938 조선어사전 115≫{고들비} 「쌈바귀」의 사투 리. ≪1938 조선어사전 115≫{고자빠기} ① 「쌈바귀」의 사투리. ② 「뿌리」①의 사투리. ③ 「썩은 그루」의 사투리. ≪1938 조선어사전 123≫{고들빼기} 葉鞘廣根 肥 ≪1936 조선일보 12월 13일 5면≫{고들빼기} 【이】≪식≫ 국화과(菊花科)에 딸 린 다년생(多年生) 풀. 조선과 만주에서만 남. 쌈바귀보다 잎이 조금 넓고 뿌리가 살이 짐. ≪1947 조선 말 큰 사전(1) 252≫≡{고들비}【이】≪식≫ =쌈바귀 ≪ 1947 조선 말 큰 사전(1) 252≫ 현대어역 : 고들비【명사】≪식물≫ 쌈바귀의 사투리. ≡{고자빼기}【이】≪식≫ =고들빼기 ≪1947 조선 말 큰 사전(1) 274≫ 현대어역 : 고자빼기【명사】≪식물≫ 고들빼기의 사투리.
이표기	고갯바기, 고들싸이, 고들비, 고들빼기
관련어	%
참고 논저	이화숙(2009), 조선시대 한글 의궤의 국어학적 연구-《조경년진작정례의궤》와 《 명년의궤》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논문. 오창명(2001), 물명의 차자표기 연구(1) -『원행음모정리의궤』를 중심으로, 《영주어 문》 3. 이재능(2014), 《꽃들이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01-어디서나 피는 꽃》, 신구문화사. 조민제 외(2021), 《한국 식물 이름의 유래》, 심플라이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고들빼기
의견	%

표제어	냉면
품사	명사
뜻풀이	차게 해서 먹는 국수. 흔히 메밀국수를 냉국이나 김치국 따위에 말거나 고추장 양념에 비벼서 먹는데, 예전부터 평양의 물냉면과 함흥의 비빔냉면이 유명하다.
원어	%
형태· 표기 변화	18,19,20 세기 :팅면 19,20 세기 :닝면 20 세기 :냉면
언어 내적 정보	‘냉면’의 옛말인 ‘팅면’은 18세기부터 나타난다. 19세기에는 두음법칙이 적용된 ‘닝면’도 함께 나타난다. 20세기에도 ‘팅면’, ‘닝면’이 계속 나타나지만 두음법칙이 표기에 정착되고, ‘·’가 표기되지 않게 됨에 따라 ‘냉면’으로 굳어져 현재에 이른다.
언어 외적 정보	한글로 표기된 ‘팅면’은 18세기부터 나타나지만 한문 문헌에서는 이보다 먼저 나타난다. 17세기 장유(張維, 1588-1638)의 문집인 《계곡집(谿谷集)》의 ‘紫漿冷麪’이라는 한시 제목에서 ‘冷麪’이 보인다. 제목을 풀이하면 ‘자줏빛 오미자 국물에 만 냉면’이라는 뜻이다.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에서는 ‘戲贈瑞興都護林君性運(희증서흥도호임군성운)’라는 제목의 시의 내용에 ‘冷麪’이 보인다. 1849년에 편찬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11월조에는 “用蕎麥麵沈沈菴菹菹和豬肉(용교맥면침침청저승저화저육) 名曰(冷麪)(명왈냉면) 關西之最良(관서지최량)(메밀국수를 무김치, 배추김치에 말고 돼지고기를 얹은 것을 냉면이라 한다. 관서의 냉면이 최고이다.)라고 냉면의 모습까지 기술하였다. ‘한자 표기 ‘冷麪’은 ‘冷麵’으로도 나타나며 19세기 이후에는 주로 ‘冷麵’으로 나타나는데, 20세기 근대 신문에서도 이러한 한자 표기는 많이 사용되었다. 《두시언해》 권16에는 ‘槐葉冷淘(괴엽냉도)’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재물보》와 《광재물보》에 ‘팅면(닝면)’의 대응 한자어가 ‘冷淘(냉도)’로 되어 있어서 두보의 시에 이미 ‘냉면’이 등장한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재물보》의 주석을 보면 “두보의 시에 나오는 ‘괴엽 냉도’는 (팅면과) 비슷하지만 이것은 (팅면)이 아니다. (杜詩槐葉冷淘似非是)”라는 설명이 있어서 두보의 시에 등장하는 ‘냉도’는 ‘냉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시의 내용을 보면 ‘괴엽냉도’는 해나무 잎의 즙을 밀가루와 섞어 만든 국수(떡으로 보기도 함)로 냉면과 마찬가지로 차게 먹는 음식이다. 밀은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잘되지 않아 중국에서 많이 수입하였기 때문에 예전부터 귀한 편이었다. 그래서 국수 재료로는 메밀이 주로 이용되었다. 17세기 중엽 경북 지역의 안동 장씨가 지은 조리서인 《음식디미방》에 면 요리는 ‘면’과 ‘식면(세면(細麵) 또는 사면(絲麵)으로 추정)’ 두 가지가 소개되는데, ‘면’은 메밀에 녹두를 약간 섞어 찼은 가루를 반죽하여, ‘식면’은 주재료인 녹두 가루를 밀가루죽에 반죽하여 만든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17세기 중엽 경상도 지역에는 ‘냉면’으로 불리는 음식이 따로 없었고, 밀이 아닌 메밀을 주원료로 하는 국수가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메밀은 척박한 북쪽 산간 지방에서도 잘 자랐기 때문에 평안도를 위시한 지역에서 메밀가루로 국수를 만들어 먹는 문화가 발달하였다. 평안도에서 냉면은 이러한 문화에서 발달한 음식이며 메밀국수의 한 가지로 그냥 국수로도 불리다가 외식

	메뉴로 유행하게 되는 등의 어떠한 계기에 의해 ‘냉면’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백석의 시에서도 ‘국수’는 냉면을 가리키고 있다. 18세기 후기 평양 일대의 지도인 《기성전도(箕城全圖)》에는 평양성 대동문 아래쪽에 냉면을 파는 음식점인 ‘냉면가(冷麵家)’가 표시되어 있어 이미 18세기에 평양에서는 냉면이 외식 메뉴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득공(1748-1807)이 평양을 여행하고 평양의 풍속을 시로 지은 《서경잡절(西京雜絕)》에 ‘냉면에 넣을 돼지고기 값이 오르기 시작하네(冷麵蒸豚價始騰)’라는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냉면은 점차 서울 한양에서도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 19세기 초에는 임금도 궁궐 밖에서 냉면을 사 오게 하여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20세기 초 신문 기사나 문학 작품에서도 대표적인 외식 메뉴로 냉면이 자주 등장한다. 19세기 말에 집필된 《시의전서(是議全書)》의 ‘중국 냉면-고기 중국 쓸히여 썩느러키 식혀(고기 장국 끓여 서늘하게 식혀)’를 참고하면 19세기 말 무렵에는 고기 육수를 사용하는 냉면이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21년에 처음 간행된 《조선요리제법》에는 ‘여름 냉면’ 항목이 없고 동치미 국물에 말아 먹는 냉면만 나오는 반면, 1934년 증보판 《조선요리제법》에는 “여름 냉면-기름 없는 살코기로 맑은 장국을 끓여서 식히고...”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고기 육수를 사용하는 냉면이 20세기 초기까지는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냉면’을 표제어로 올린 문세영 편 《조선어사전》에서도 “국수를 김치국 또는 냉국에 말고 저육·편육 기타 여러가지 약념을 넣은 음식”이라고 풀이하였다. 한편 1930년 무렵의 여러 신문 기사를 보면 여름에 먹는 냉면에는 고기 육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일본의 화학 조미료(아지노모토)를 고기 육수 맛을 내는 데 사용하게 되면서 고기 육수 냉면이 보편화되었다. 한편 비빔냉면은 19세기 후반 <주식시의(酒食是儀)>의 ‘국수 부비음’의 내용을 참조하면 함흥냉면으로 알려지기 전인 19세기에 이미 비벼 먹는 경우도 냉면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기타 어원	%
용례	18세기: (링면) 冷淘(냉면) {링면} [杜詩槐葉冷淘似非是(두시괴엽냉도사비시)] <1798 재물보6(物譜 1) 食飲> 현대어역 : 냉면 냉면 [두보의 시에 나오는 ‘괴엽냉도’는 (냉면과) 비슷하지만 이것 (냉면)이 아니다 . 19세기: (링면, 랭면, 닝면, 冷麵, 冷麵, 冷麵) 동침이국의 7난 국수를 너코 무오 비 유주를 혼가지로 겸여 언고 제육과 계란 분친 거술 치 쳐 훗고, 호초와 빅주를 흐트면 명왈 {닝면이니라} <19세기 초반 규합총서(장서각 소장 필사본)> 현대어역 : 동치미국에 가는 국수를 만 다음, 무, 오이, 배, 유자를 저며 함께 엷고, 돼지고기와 계란 부친 것을 채 쳐 넣고 후추와 잣을 훌뿌리면 곧 냉면이다.

	심추와 심동의도 더운 음식 먹고 {닝면}을 먹으면 심신희기 온면보다 나으니라 《1854 음식법》 현대어역 : 늦은 가을과 한겨울에도 더운 음식을 먹고 냉면을 먹으면 기운을 돋우기에 온면보다 낫다. {닝면법} ○○ 승진 무김치국의다? 화청히서 국수를 말고 저육을 줄 살마 썰어 너코 비와 밤과 복성을 얹게 접어 너코 온갓 쓰리노이라 《1896 규곤요람》 현대어역 : 냉면 만드는 법 ○○ 싱거운 무김치국에다가 꼴을 타서 국수를 말고 저육을 잘 삶아 썰어 넣고 배와 밤, 복숭아를 얹게 저며 넣고 갓알을 띄운다. 국수를 고이 만드려 ... 각각 보 썰여 원쫓 넛코 초장 맛있게 꾸미 약념 갓초 갓가로 너어 썬지 안이히고 국수 장의 노으면 혹 {닝면으로도} 먹고 그디로도 먹고 ... 《19세기 후반 주식시의 (酒食是儀)》 현대어역 : 국수를 곱게 만들어 ... 각각 보자기를 펴서 갓알 넣고 초장 맛있게 꾸미, 약념 갖추어 갓가루 넣고 (보자기를) 썬지 않고 국수 장에 놓으면 혹 냉면으로도 먹고 그대로도 먹고 ... {냉麵} 청신희 나박김치나 죠흔 동침이 국에 말되 화청히고 우희난 양지머리 뵈 죠흔 비초 통김치 세 가지 다 쳐서 언고 고춧가루와 실빅즈 흐터 쓰라 《19세기 시의전서(是議全書) 상》 현대어역 : 냉면 청신희 나박김치나 좋은 동침이 국에 말되 꼴을 넣고, 위에는 양지머리, 배, 좋은 배추 통김치 세 가지를 모두 채 쳐서 얹고 고춧가루와 갓을 뿌린다. 중국 {닝면} 고기 중국 썰히여 썬느리키 식혀 국수 말고 우희난 외 치 쳐 소곰에 잠간 저리여 썬라 썬저 살죽 복가 썬소곰, 고춧가루 유중에 뭍친 것과 양지머리 치 쳐 썬저 언고 실고춧 썬이 계란 부쳐 치 쳐 언저 쓰라 호박도 외와 갓치 복난니라 《19세기 시의전서(是議全書) 상》 현대어역 : 중국 냉면 고기 중국을 썰여 서늘하게 식혀서 국수를 만든다. 위에는 오이를 채 쳐 소곰에 잠간 절였다가 행구어 썬 다음에 살짝 볶아 깨소금, 고춧가루, 유장에 무친 것과 양지머리 채 썬 것을 섞어 얹고 그 위에는 실고추, 석이, 계란 부친 것을 채 쳐서 얹는다. 호박도 오이와 같이 볶는다. {팅면} [冷麵] 《〈1880 한불사전 272〉》{랭면} 冷麵 《1896 국한회어 곧:92》 {팅:면} {冷麵}(찰)(국수)≠온면 《1897 한영사전》 20세기: (팅면, 닝면, 냉면, 冷麵) 어름 {팅면} 먹기 닝기 칠팔빅 랑 간디업고 《1900 제국신문 3월 6일》 현대어역 : 얼음 냉면 먹기 내기 간데없고
--	---

	黃海道 海州 警務署 總巡 全鳳薰씨가 今陰曆 五月五日 端午節에 本署 獄內에 入亨야 … 一百五拾餘名 罪囚을 각其 {冷麵} 一器式 買饋亨앗다더라 《1907년 대한매일신보 06월 27일 2면》 현대어역 : 황해도 해주 경무서 총순 전봉훈씨가 올해 음력 5월 5일 단오절에 본서 감옥에 와서 … 150여명 죄인에게 각기 냉면 한 그릇씩 사 먹였다더라. 적벽딕점 분안기의 {냉면} 조차 비벼 노코 《20세기 초 열녀춘향수절가 상: 24ㄴ》 현대어역 : 적벽대접 분안기에 냉면 함께 비벼 놓고 {평양냉면집은} 이 파업으로 인하여 막국수집 사오 개소를 내노코는 거진 문을 다 다 버렸더라 《1925 조선일보 5월 3일 2면》 현대어역 : 평양냉면집은 이 파업으로 인하여 막국수집 사오 개소를 빼고는 거의 문을 닫아 버렸더라. [平壤] 평양의 명물 {냉면} 먹고 일 명 사망 십 명 중독, 원인은 상한 제육을 느은 까탁 … 부내 선교리(府內 船橋里)에서 소위 막국수(黑麵)을 먹고 八명이 중독(中 毒)된 사건이 있다. 《1934 매일신보 7월 13일 4면》
이표기	링면, 닝면, 냉면, 랭면, 冷麪, 冷麵, 冷麵
관련어	골동면
참고 논저	김남천, 백석, 최재영 외(2018), 《평양냉면》, 가갸날. 이병기(2017), 음식명에 붙는 접두사 ‘막-’에 대하여, 《어문연구》 45, 한국어문교육 연구회. 이효지 외(2004), 《시의전서-우리음식 지킴이가 재현한 조선시대 조상의 손맛-》, 신광출판사. 육숙자 외 역음(2020), 《동국세시기-1800년대 음식으로 들여다보는 선조들의 세시 풍속》, 백산출판사. 강명관(2010), 《조선풍속사②-조선 사람들, 풍속으로 남다》, 푸른역사. 박채린, 권용석, 정혜정(2011), 냉면의 조리사적 변화 양상에 관한 고찰-1800년 대~1980년대까지 조리법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26(2), 한국식생 활문화학회. 백현석, 최혜림(2014), 《냉면열전》, 인물과사상사. 특허청, 한국전통지식포털(https://koreantk.com/ktkp2014/)
의견	%

2.8. 집필·감수팀 회의록 정리본

집필/감수팀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정해진 사항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처음 집필에 참여하는 집필진을 해당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전체 집필/감수팀이 집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이해가 동일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에, 다음과 같이 전체 회의록 정리본을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공유하였다.

어원사전 회의록 정리본

기존의 회의록이 각각의 파일로 배포되어 검색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듯합니다. 이에 기존 회의록의 내용을 모두 한 파일에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확인해 주십시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필 지침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2. 집필 지침에 나와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
3. 집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4. 집필 대상인지 판정하는 문제
5. 집필기 관련 문제

특히, “1. 집필 지침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는 집필 지침을 당장 수정할 수는 없으나 추후 집필 지침을 수정하기 위해 결정된 사항이므로 주요하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집필 지침에 나와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주요하게 살펴봐 주세요.

가장 최근에 회의한 내용이 가장 위에 올라오도록 배치하겠습니다.

1. 집필 지침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Q.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다람쥐’의 어원으로 ‘다람쥐’ 외에 ‘다람쥐’가 ‘다라미’로부터 왔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원사전에서 ‘날다람쥐’를 서술할 때, ‘날다라미’를 어떤 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을까요?

- 1) ‘날다람쥐’에서 ‘날다라미’를 관련 어형으로 서술한다.
- 2) ‘날다람쥐’에서는 ‘날다라미’를 언급하지 않는다. (‘날다라미’는 문증됩니다.)

→ 첫째, ‘날다라미’가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올라와 있지 않으므로, ‘날다라미’라는 항목을 따로 집필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 경우, ‘날다람쥐’를 기술할 때, ‘날다라미’에 해당하는 정보는 모두 기술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다람쥐’나 ‘날다람쥐’를 기술을 할 때 ‘다라미’나 ‘날다라미’에 대해서 **‘기타어원정보’가 아닌 ‘언어내적정보’에서 기술해 주세요.** (240620)의 ‘방하아비’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한, 최초 출현형의 경우 아래의 새로 추가되는 지침에 따라서 ‘날다람쥐’의 최초 출현형을 ‘**날다라미**’로 기술해 주세요.

“형태가 부분적으로 달라 해당 표제어의 직접 소급형은 아니라도 형태적으로나 어원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어가 먼저 나타나고, 또 먼저 나타나는 단어의 직접적인 후대형이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나타나는 단어를 해당 표제어의 최초출현형으로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날다람쥐’의 옛말인 ‘늪드라미’는 15세기부터 나타난다.”로 기술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방아깨비’와 ‘방하아비’의 문제도 이와 유사합니다. ‘방하아비’가 ‘방아깨비’의 직접적인 선대형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 있지만, ‘방하아비’나 ‘방하아비’의 직접적인 후대형이 《표준》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형태적으로나 어원적으로 관련이 되므로 ‘방아깨비’의 최초 출현형을 ‘방하아비’로 제시합니다. 이 경우 기술은 “‘방아깨비’의 옛말인 ‘방하아비’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구분되어야 하는 사례로 ‘괴’와 ‘고양이’, ‘날개’와 ‘나래’, ‘단추’와 ‘달마기’가 있습니다. ‘괴’와 ‘고양이’, ‘날개’와 ‘나래’는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이’를 기술할 때는 ‘괴’에 대한 용례를 인용하지 않고, ‘나래’를 기술할 때는 ‘날개’에 대한 용례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각각의 항목에서 기술하면 됩니다. ‘단추’와 ‘달마기’는 지시물은 같으나 어형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역시 각각의 항목에서 기술합니다. (240911)

Q.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의 연대가 1940년과 1944년으로 혼동스럽습니다.

→ 지난 회의에서 정리한 대로,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은 1940년으로 인용합니다. 낱짝 새에서 사전 검색을 하면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이 1944년으로 나오고, 집필지침에도 1944년으로 인용된 예가 있습니다.

5.4.6.6. 사전의 경우에는 ‘연도+사전이름’ 방식으로 제시한다.

예) 1920 조선어사전 / 1944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 1947 표준조선말사전 / 1957 큰사전

이에 대해서는 모두 1940년으로 통일합니다. 추후 집필지침도 수정하겠습니다. (240911)

Q 용례를 현대어역할 때 문장부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지침에 명확히 해 두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현대어역을 할 때는 문장부호를 사용합니다. 용례를 인용할 때는 원문에도 문장부호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문장부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어역은 현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곳에 문장부호를 사용합니다. 다만, 현대어역을 할 때 문장부호를 넣는 것이 좋을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집필자의 판단대로 합니다. (240821)

Q. 집필지침에 아래와 같은 예가 있는데 18세기에 ‘ㅅ’을 관형격 조사로 지칭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듯합니다.

예) ‘깃대’의 옛말인 ‘긔스대’는 18세기부터 나타난다. ‘긔스대’는 한자어 ‘旗(기)’를 한글로 표기한 ‘긔’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긔’에 “막대”를 뜻하는 명사 ‘대’가 결합한 것이다.

(‘깃대’)

→ 15세기와 16세기까지는 ‘ㅅ’을 관형격 조사로 쓰고, 17세기부터는 ‘ㅅ’에 대해 관형격 조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사이시옷으로 지칭하거나, 굳이 지칭할 필요가 없다면 지칭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을 수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예) ‘깃대’의 옛말인 ‘긔ㅅ대’는 18세기부터 나타난다. ‘긔ㅅ대’는 한자어 ‘旗(기)’를 한글로 표기한 ‘긔’에 사이시옷 ‘ㅅ’이 결합한 ‘긔’에 “막대”를 뜻하는 명사 ‘대’가 결합한 것이다. (‘깃대’)

예) ‘깃대’의 옛말인 ‘긔ㅅ대’는 18세기부터 나타난다. ‘긔ㅅ대’는 한자어 ‘旗(기)’를 한글로 표기한 ‘긔’에 ‘ㅅ’이 결합한 ‘긔’에 “막대”를 뜻하는 명사 ‘대’가 결합한 것이다. (‘깃대’)

(240821)

Q. 집필지침에서 최초 출현형을 둘로 나누어서 기술하고 있는데 이를 하나로 합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1)-1 최초 출현형과 현대 국어 어형이 동일하고, 다른 이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A’는 B세기부터 ‘A’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예) ‘나’는 15세기부터 ‘나’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1)-2 최초 출현형과 현대 국어 어형이 동일하고, 다른 이형태가 나타나는 경우: ‘A’는 B세기부터 나타난다.

~~예) ‘거두다’는 15세기부터 나타난다.~~

→ (1)-2의 경우, “‘A’는 B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예문은 “**‘거두다’는 15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이후 집필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821)

Q. 한자 표기를 형태·표기변화에 넣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예컨대, ‘기망하다’의 경우에는 한자 표기가 후대에 나타나는데 이 경우는 형태·표기변화에 넣지 않았고, ‘별세하다’의 경우에는 최초 출현형이 한자 표기인데 이때는 형태·표기변화에 넣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지침에는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최초출현형이 한자로 나타난 ‘別世하다’의 경우에는 한자 표기를 형태·표기변화에 넣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후대에 한자 표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형태·표기에 넣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40821)

2. 집필 지침에 나와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

집필에서 자주 틀리는 문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러리 검색 관련: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은 뉴스라이브러리의 예가 없는 경우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 안에 한자나 한글 표기는 원문에 없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서 지워야 합니다.

- (2) 용언의 경우 활용형을 이용하면 예를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감수자가 집필 지침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집필 항목을 집필하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음이의어에 집필한 경우가 다섯 개 이상 보였습니다. (241002)

Q. 한자어가 한자 표기로 나타나다가 후대에 한글 표기가 나타날 때 ‘형태 표기 변화’에서 한글 표기만을 대상으로 해야 할까요? ‘庫房’ 항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고방⁴ (庫房) 
 발음 [고방]

「명사」

‘광’의 원말.

‘고방’에 대해 “‘광’의 원말”로 기술되어 있기는 하나, 비표준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아래 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준말처럼 어원을 공유하는 현대어가 여럿 있을 때는 각각 해당 어형을 기준으로 기술한다.

즉 ‘고방’에서 ‘고방’에 대해 어원 기술을 하고 ‘광’에서는 ‘고방’에서 온 말임을 기술하고 관련어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또한, 한자 표기 ‘庫房’이 먼저 나타나고 한글 표기의 ‘고방’이 뒤에 나타난다면 지침에 따라서 한자로 표기된 예도 최초출현형, 기술에 반영을 합니다. 다만, 이때는 언해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한문 원문에 해당 어형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기술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41016)

Q. 자서 관련 번역에 대한 지침 강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필 원고를 보면 ‘上樑 {ㄹㄹ} 었짜’, ‘疹痘 현허물렛 미듭’ 등 표제어 이외에 다른 단어 등이 있을 때도 번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5.2.1. 단, 어휘집의 용례라 하더라도, 구나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현대어로 번역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집필 지침에 안내되어 있는 대로, 표제어가 어휘집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현대어역하지 않지만, 표제어가 포함되어 구나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현대어로 번역해 주세요. (240911)

Q. 작년도 집필 완료 어휘의 풀이와 용례 안에 올해 집필 대상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구체적 사례 1」 발보이다(2023년도 집필 완료, 대부분 ‘발뵈다’의 예문이 들어가 있음)
 발뵈다(2024년도 집필 대상)

「구체적 사례 2」 벌거숭이(2023년도 집필 완료, ‘붉아숭이’의 예 포함 집필)
 발가숭이(2024년도 집필 대상)

⇒ 작년도 집필 완료 어휘(예: 발보이다, 벌거숭이)의 ‘언어 내적 정보’와 ‘세기별 용례’에 올해 집필 대상 어휘(예: 발뵈다, 발가숭이)의 예문이 함께 제시되어 있음. 이 경

우 지침에 따르면 두 단어가 현대에 공존하고 있으므로 각자의 형태에 맞추어 예문 제시와 ‘언어 내적 정보’ 기술이 이루어져야 함.

「참고 지침」 2.2.6. 준말처럼 어원을 공유하는 현대어가 여럿 있을 때는 각각 해당 어형을 기준으로 기술한다.

예) ‘깨지다’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깨지-’는 ‘깨어지-’가 축약된 형태이다.

☞ ‘깨여디다’는 표제어 ‘깨어지다’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어원적으로 관련이 된 단어이므로 ‘관련어’에서 ‘깨어지다’를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질문」 지침대로 하자면 작년도 집필 완료 어휘의 기술에 수정이 필요함.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현 집필자는 작년도 어휘에 대해서는 메모만 남겨 두고 올해 집필 대상 어휘만 지침에 맞게 기술하면 되는지?

→ 위의 지침은 2024년 2월에 집필지침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렇게 집필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집필된 내용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현 집필자는 올해 어휘를 집필하시다가 작년도 기집필된 항목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올해 어휘 항목에서 작년 기집필 항목이 이러한 점에서 고쳐야 한다고 메모를 남겨 주세요. 또, 메모를 남기신 이후에 팀장님께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팀장님께서서는 이러한 항목들을 수합하시어 팀장 회의에 알려주세요. 추후 일괄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240725)

3. 집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Q. 종성 표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지침에서는 중세 국어의 종성 표기에 대해 ‘8종 성법에 따라’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 표기법에 따라’로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예와 같이 중세 국어의 예가 아닐 경우 음절말 중화(음절말 평파열 음화)에 따라 ‘ㄷ’으로 소리 난 것을 ‘ㅅ’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소리대로 적는 표기법에 따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는 지침에 있는 ‘소리대로 적는 표기법에 따라’와 ‘종성 ㄷ과 ㅅ 표기의 혼동’을 함께 써서 설명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 아래의 ‘보라빋’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 될까요?

→ ‘보라빋’은 ‘보라빋’을 소리대로 적으려던 것인데 근대 국어 이후 종성 ‘ㄷ’과 ‘ㅅ’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된 이후에 표기가 섞여 쓰이면서 나타난 것이다.

(참고: 낮, 낫 등은 뉴스라이브리에서 ‘낫’으로 나오는 경우가 ‘날’으로 나오는 경우보다 많습니다.)

→ 지침에서 아래에 예로 제시한 것에 따르면 16세기가 지난 이후에도 ‘종성 ㄷ과 ㅅ 표기의 혼동’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원칙입니다. 엄밀하게 기술한다면 위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맞지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겉맞다’는 소리대로 적는 표기법에 따라 적은 것이다. 현대 맞춤법에서 원형을 밝혀 적도록 하여 지금은 ‘겉맞다’로 적는다. (‘겉맞다’)

그래서 위의 예에 따라 “‘보라빋’은 ‘보라빋’을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로 간단하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016)

Q. 《한영자전》 말뭉치 관련하여 확인 요청드립니다. 기존 말뭉치에서 ‘뵈아타’, ‘뵈아타’

를 검색하면 예가 나오나, 현재 낱말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말뭉치와 저본상의 차이가 있는지요?

→ 작년에 말뭉치 작업을 할 때, 《한영사전》이 모두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영사전》뒤쪽 부분은 아직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기에, 개인적으로 찾은 경우에는 페이지만 수정하여 넣으시면 됩니다. (241016)

Q. ‘소르르’와 같은 의태어의 경우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라는 표현은 어색한데 어떻게 이런 의태어가 쓰이게 됐는지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기술하면 좋은지?

→ 설명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성어든 의태어든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라고 기술하면 됩니다. 예컨대 ‘울긋불긋’의 경우는 국어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텐데 이 경우에는 기술해 주면 되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기술하면 됩니다. (241016)

Q. ‘소쿠리’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 “소코리<계축>/속고리<계축>”와 같은 어원 정보가 나오고 유니콧 말뭉치를 이용하여 검색하면 실제로 검색이 되는데 낱말에서는 검색이 안 됩니다.

→ 현재 《계축일기》는 낱말 파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낱말에서는 ‘소쿠리’는 《서궁일기》에서 검색이 되고, ‘속고리’는 《규합총서》에 검색이 되어 일단 낱말이 담당할 수 있는 예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최초출현형을 《계축일기》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축일기》를 최초출현형으로 하는 것은 당시 17세기 자료로 보았기 때문이고, 지금은 《계축일기》를 연대 미상으로 처리하여야 할 듯합니다.

《계축일기》의 예를 인용한다면 ‘메모’에 간단하게 내용을 남겨 주세요. (241016)

Q. 비자립 어근의 반복합성어의 경우 어근과 합성어를 따로 기술해야 할까요? ‘고붓고붓, 고분고분, 고불고불’ 등이 있는데, 이때 내적 정보에서 ‘고분>고붓’을 참고하여 확실하지 않은 접미사 ‘-은’을 설정해도 될까요?

→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접미사에 대한 분석은 ‘기타 어원 설명’에서 제시하면 될 듯합니다. 다만 확정할 수 없는 접미사를 ‘언어 내적 정보’에 기술하는 것은 지양해 주세요. (241016)

Q. 《규방가사》(미상)와 20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고명딸’의 경우 ‘언어 내적 정보’에 20세기부터 나타난다고 기술하고 말기에는 부족한 느낌이고 《규방가사》가 실제로 20세기에 쓰여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어서, 감수하며 언어 외적 정보에 “《규방가사》는 연대 미상의 문헌이지만 19세기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고려하면 ‘고명딸’은 20세기 이전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기술을 추가하였는데 이러한 처리가 괜찮을까요?

→ 《규방가사》가 19세기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집필자가 판단한다면, ‘19세기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도의 표현을 넣어서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규방가사》는 여러 시기에 기술되어 있는 가사들이 모여 있는 것이므로 연대미상으로 해야 합니다. (241016)

Q. 말뭉치 자료 중에서 18-19세기 자료로 되어 있는 ‘은진송씨송별필가언간, 의성김씨학봉종가언간, 추사가언간’ 등을 이용할 때는 18세기로 처리할지 19세기로 처리할지 애매합니다. 현재 다른 작업자분들도 해당 출전의 예들을 18세기 또는 19세기로 처리하는데, 전체 회의에서 정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세 언간 모두 말뭉치를 열어 보시면 언간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신문 또한 일자를 확인하셔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뭉치를 확인하시어 언간의 작성 연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002)

```
<letter id="01" sender="송병필(남편)" writer="송병필(남편)" receiver="전주이씨(아내)" year="1886년">

<sent type="envelop" lang="kor" page="01" id="01">상한</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 id="01">만편은 졸졸 잇시느 호 순도 달할 못보오니 섭섭후오며</sent><--뒤에 오는 '졸'은 재첩(*)으로 표기되어 있음--><--뒤에 오는 '섭'은 재첩(*)으로 표기되어 있음-->
<sent type="main" lang="kor" page="01" id="01">날로 소식 막연후에 글로 달달후를 주의 후인 한 주세하 드문축</sent><--뒤에 오는 '달'은 재첩(*)으로 표기되어 있음-->
<sent type="main" lang="kor" page="01" id="01">아직들은 무말후 두 후니 개정후오</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 id="01">산장은 종사 형제 못되신 일 뵈오 잇서 심여 답답후오이다</sent><--뒤에 오는 '답'은 재첩(*)으로 표기되어 있음-->
<sent type="main" lang="kor" page="01" id="01">돌로 조수 삼면 할 절절후이다</sent><--뒤에 오는 '절'은 재첩(*)으로 표기되어 있음-->
<sent type="main" lang="kor" page="01" id="01">마곳은 호 모양 지니모~ 세자를 달후에 각하 다독 신산후오이다</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 id="01">단물 재첩과 계속 달란후오니 참이롭~이다</sent>
```

Q. ‘-어디-’, ‘-어지-’의 처리에 대한 지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체로 ‘-어+디-’와 같이 분석했는데 드물지만 ‘-어디-’를 하나로 처리한 경우가 보이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분석이 가능하므로 ‘-어+디-’로 분석하는 게 맞을 듯합니다. ‘-어디-’가 결합했다고 기술하지 마시고, ‘-어’에 ‘디-’가 결합한 것이라고 기술해 주세요. (241002)

Q. ‘보람’에 대해 기술해야 하는데, 20세기 예를 찾을 수 없고 <1957 큰사전>에만 예가 나타납니다. 큰사전에서는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인용해야 할까요?

보람 「이」 「1」 조금 드러나 보이는 표적(表迹). 「2」 다른 물건과 구별을 하거나 혹은 잊어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두드러지게 하는 안표(眼標). 「3」 한 일에 대하여 생기는 좋은 공효(功效). (효력=効力) {-하다} 「제」 (여벗) 다른 물건과 구별을 하거나 혹은 잊어 버리지 않으려고 안표를 하다. <1957 큰사전>

→ 어쩔 수 없이 사전의 내용을 인용해야 할 때는 사전의 뜻풀이를 그대로 인용하지 말고, ‘{-하다}’ 부분만을 간결하게 인용합니다. 아래와 같이 작성해 주세요.

보람 … {-하다} <1957 큰사전> (241002)

Q. 최초 출현형이 복수의 형태로 문증되며, 그중 하나가 현대 국어 어형과 동일한 경우 기술 방법이 조금 애매합니다. “어원사전 회의록 정리본(~240911) (240919 수정)” 3쪽에 보면 기존의 2.2.2.1과 2.2.2.2를 통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매한 부분이 바로 “(1)-2 최초 출현형과 현대 국어 어형이 동일하고, 다른 이형태가 나타나는 경우: ‘A’는 B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수정된 것)입니다.

가령, 제가 담당한 항목 중 하나인 ‘부티’(「001」 「명사」 베를 짤 때, 베틀의 말코 두 끝에 끈을 매어 허리에 두르는 넓은 띠. 나무나 가죽 또는 베불이 따위로 만든다.)는 20세기부터 ‘부턱, 부티’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1)-2에 따르면 당연히 “‘부티’는 20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부턱 > 부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듯한데, 이러한 통시적 변화

를 (1)-2 기술로 담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세기별 용례에서 등장하는 형태는 언어 내적 정보에서 모두 기술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므로 ‘부퉁’을 어떻게든 설명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다른 이형태’가 현대 국어 어형보다 시기적으로 앞설 경우, 이를 어떻게 기술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부퉁’은 20세기부터 ‘부퉁’과 ‘부티’로 나타난다. 다만, ‘부퉁’이 더 고품으로 생각된다.”와 같이 작성해 주세요. 최초출현형이 같은 세기에 여러 어형으로 나타나는 경우, 모든 어형을 다 제시하되, 뒤에 어느 쪽이 더 고품이라고 생각되는지를 서술해 주세요. (241002)

Q. 최초 출현형이 복수의 형태로 문증되며, 그중 어느 것도 현대 국어 어형과 동일하지 않다면 어찌 기술해야 할까요? 예컨대, 제가 담당한 항목 중 하나인 ‘부추기다’(「001」 「동사」 【…을】 【…에게 -고】 남을 이리저리 들쭉서서 어떤 일을 하게 만들다.)는 18세기부터 ‘부촉이다’, ‘부촉이다’, ‘부츠키다’로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형태 중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이것은 현행 지침 2.2.2.3. “(2) 최초 출현형과 현대 국어 어형이 다른 경우: ‘A’의 옛말인 ‘B’는 C세기부터 나타난다.”로 처리해야 할 듯한데, ‘부추기다’의 옛말인 ‘B’를 무엇으로 정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기준이 없는 듯하여 여쭙습니다.

→ 같은 세기에 여러 가지 어형이 나타난다면 모두가 최초 출현형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를 골라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부촉이다’, ‘부촉이다’, ‘부츠키다’로 나타난다.”라고 기술하면 됩니다. 다만, ‘부촉이다’와 ‘부츠키다’는 표기법의 차이만 있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어형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반영하여 기술하여 주세요. (241002)

Q. 1957년 《큰사전》에 용례가 있어 집필한 항목이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의 ‘뉴스라 이브러리’의 용례를 보여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만, 용례가 《큰사전》의 것으로 하나만 있는 경우에 이들 용례를 보여 주는 것이 (선택적으로) 가능할지요?

→ 지침에는 1945년 이전 자료만 인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1945년 이전의 용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용례도 인용을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용례가 없음에도 기술할 만하다고 판단이 된 경우에 한하여 그렇습니다. 1945년 이전 예가 발견된다면 그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240911)

Q. 집필하려고 보니 용례와 출전이 일부 입력되어 있는 항목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우리말샘 역사 정보가 있는 항목이 배정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말샘 역사 정보가 있는 항목을 우선 집필하였으나 집필되지 않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올해 그러한 항목을 배당받았을 경우 일부 입력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작년 작업과 마찬가지로 수정·확대하여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240821)

Q. ‘놀러들다’를 기술하여야 하는데, 20세기에 ‘놀너들다’는 나오지만 ‘놀러들다’라는 어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기술하여야 할까요?

→ 집필 대상은 최소한 국어사전에 실려 있는 것이므로, 해당 형태를 보이는 용례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20세기에 쓰인 것은 확실하다고 간주합니다. 즉 ‘눌러든다’라는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타났다고 간주하여, “20세기까지 ‘A’, ‘B’, ‘C’ 등 여러 형태가 쓰였으나 ‘A’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에 준하여 기술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즉, “20세기까지 ‘눌너든다’, ‘눌러든다’ 등 여러 형태가 쓰였으나 ‘눌러든다’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로 기술해 주십시오. (240821)

Q. ‘형태표기변화’에 입력하는 형태의 정확도를 어느 정도까지 기술하여야 할까요? 예를 들어, ‘뉘웃다’의 경우 세기별로 나타나는 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5세기 : 뉘웃-, 뉘웃-

16세기 : 뉘웃-, 뉘웃-, 뉘웃-, 뉘웃츠-, 뉘웃-, 뉘웃츠-, 뉘웃-

17세기 : 뉘웃-, 뉘웃-, 뉘웃-, 뉘웃츠-

18세기 : 뉘웃츠-, 뉘웃-, 뉘웃-, 뉘웃츠-, 뉘웃-, 뉘웃츠-, 뉘웃츠-

이때, ‘뉘웃다’는 15, 16세기에만 체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7, 18세기까지 체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뉘웃-’과 ‘뉘웃-’의 문제로 보입니다. ‘뉘웃-’이 나타나는 것이 15, 16세기까지이고 17, 18세기에는 ‘뉘웃-’으로 형태가 바뀌므로 15, 16세기까지만 체크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깃다’도 이와 유사한 문제이니 함께 참고해 주세요. (240821)

Q. ‘주요 어형’이, 해당 단어의 예문이 출현한 모든 세기를 아우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형태·표기 변화’ 부분은 “최초출현형으로부터 현대어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어형만을 제시(지침 1.1.1.)”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 지침에 예로 제시된 ‘깃다’의 경우, ‘깃다’는 단어의 통시적인 형태 변화를 보여 주는 주요 어형이 아니므로 형태·표기 변화에서는 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8, 19세기에는 ‘깃-’의 형태로만 등장하여 결과적으로 형태·표기 변화가 아래와 같이 제시되었습니다. (향후 20세기가 추가로 체크되리라 생각됨) 이처럼 용례는 15~19세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인되는데, ‘형태·표기 변화’에 제시한 주요 어형은 그 세기를 모두 아우르지 못해도 괜찮은지요?

형태·표기변화	15,16,17 세기 : 깃다
---------	------------------

→ 문헌에 나타나는 대로만 기술합니다. 18, 19세기에 ‘깃-’이라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깃-’이라는 형태만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깃-’이 ‘깃-’으로 바뀌었다고 기술할 수도 없으므로, 15, 16, 17세기에는 ‘깃-’만 문헌에 나타나고, 18, 19세기에 ‘깃-’만 문헌에 나타난다면 ‘형태·표기 변화’에서는 문헌에 나타난대로만 표시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언어 내적 정보’에서 기술합니다.

유사하게, 용례가 별로 없는 단어의 경우 15세기에 나타나고 16, 17, 18세기에 나타나지 않다가 19세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단어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계속해서 쓰였겠지만, 문헌에서 용례를 찾을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15세기와 19세기만 표시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16-18세기에 안 쓰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용례가 15세기와 19세기에만 있었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40821)

Q. { } 위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절 단위로 표시를 하는데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의 경우를 인용할 때 여러 가지 기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피다 他 「눅히다」에 보라.

→ 우선, 가능한 한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을 포함한 사전류는 예문으로 인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인용을 합니다. 이때 뜻풀이에 있는 내용을 인용할 때는 기호까지 포함하여 어절 전체에 { }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 제시한 예문의 경우 “{「눅히다」에}”와 같이 표시를 합니다. 단, 이는 표제항이 아니라 예문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40821) 이와 관련해서 바로 아래의 (240725) 질의응답을 참고해 주세요.

Q. <6개사전>의 말뭉치에는 여러 기호(장음 등)가 있는데, 이런 기호도 그대로 인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삭제하고 인용해야 하나요?

→ 표제어의 경우에만 삭제하고 인용합니다. 예를 들어,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에 “거산:-하다(擧散) 집안 식구가 서로 흩어지는 것.”와 같이 되어 있을 때 ‘거산하다’를 인용할 경우에는 “{거산하다}”와 같이 기호는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他 「눅히다」에 보라.”와 같이 예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他 눅히다에 보라.”와 같이 하지 않고 기호 그대로 인용합니다. (240725)

Q. 20세기에서부터 ‘修羅場’, ‘수라장’이 나타나는 경우, ‘형태·표기변화’ 및 ‘내적정보제시’에 다른 이형태들 취급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까요?

修羅場: 20세기 체크

수라장: 20세기 체크

→ 지침에 따라, “‘수라장’은 20세기에서부터 한자로 표기된 ‘修羅場’, 한글로 표기된 ‘수라장’으로 나타난다. ‘修羅場’은 ‘阿修羅’의 준말인 ‘修羅’와 “장소”를 뜻하는 접미사 ‘-場’이 결합한 것이다.”로 기술하면 됩니다. 다만, “20세기까지 ‘修羅場’, ‘수라장’ 등 여러 형태가 쓰였으나 ‘수라장’으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와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이어진다”와 같은 표현은 한글 표기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240821)

Q. 현재 말뭉치에서는 6개 사전이 약호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인용할 때는 갯은이름으로 인용해야 하나요?

→ 6개 사전을 인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서지사항을 밝혀 주세요.

- . 금성: 1992년에 발간된 금성출판사 《국어대사전》
- . 민중: 1995년에 발간된 민중서림 《국어대사전》(3판)
- . 삼성: 1991년에 발간된 삼성출판사 《새우리말큰사전》(7판)

- 한글: 1992년에 발간된 한글학회 편 《우리말 큰사전》
- 선대: 1992년에 발간된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 선말: 1962년에 발간된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사전》

다만, 6개 사전 목록에 수록되어 있다고 제시된 것을 바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정리 과정에서 오류가 다수 있어 해당 사전 수록 여부는 반드시 종이 사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240725)

Q. 20세기 이후의 용례를 인용할 때 <6개사전>(및 <사전류>)의 용례를 중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맥락을 보여주는 출전 용례(특히 <뉴스라이브리>)를 중시해야 하나요?

6개 사전이나 사전류의 용례보다는 뉴스라이브리 용례를 먼저 인용하여야 하고, 더 중시되어야 합니다. (240725)

Q. ‘꺼병하다’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꺼병하다’의 용례는 6개 사전 외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꺼병이’는 용례가 발견되고, ‘꺼병하다’가 기존 어원사전에 서술된 내용이 있다는 점입니다.

ㄱ. 우리 사전의 집필 원칙을 1945년 이전 말뭉치, <큰사전>에 용례/표제어가 확인되는 경우로 한한다(원칙).

ㄴ. ‘꺼병+ -이’로 형태 구성을 확정할 만한 근거가 선명하지 않다면, ‘꺼병이’를 근거로 ‘꺼병하다’를 서술할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ㄷ. 용례 부족에도 불구하고, ㄴ)의 가능성들을 바탕으로 어원 집필을 하는 것으로 집필자께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꺼병이’는 1957년 《큰사전》에 올라 있습니다. ‘꺼병하다’는 1961년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에 올라 있습니다. ‘꺼병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 있습니다. 또한 ‘꺼병하다’는 조선말사전에도 올라 있습니다.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과 조선말사전은 서로 영향관계가 없다 보아야 하므로 이 말이 남북에서 모두 쓰이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또한 뉴스라이브리에서 1932년에 ‘꺼병스럽다’의 예가 보이는 것까지 고려하면 ‘꺼병하다’는 1945년 이전에 이미 쓰이고 있던 말이었으나 1960년대에 사전에 올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꺼병이’가 부산일보 1981년 7월 31일 기사에 쓰이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비로소 오른 것을 감안하면 1969년부터 시작된 만화 ‘꺼병이’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항범(2022)에서는 ‘꺼병이>꺼병하다’로 보았지만 사전의 순서로 보면 반대입니다.

예가 늦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꺼병이’, ‘꺼병하다’는 어원에 관한 논의가 인터넷에서 검색되므로 어원 정보를 제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할 내용을 고려하면 일반 항목에서 집필하기보다는 특별 항목에서 집필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발견하신다면 팀장님께 보고하시어 팀장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40725)

Q. <깜짝새>에서 <어원사전(1997)>, <일본어 유래 한국어(이한섭)>은 참고 정보가 정확히 제시되지 않아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원 관련 논저DB>처럼 상세 정보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

→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세요.

김민수 외(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이한섭(2014), 《일본어에서 온 우리말 사전》, 고려대학교 출판부. (240725)

Q. 한자가 없어서 구분이 어려운 어휘는 어떻게 기술해야 할까요? 예컨대, “무지하다 001(무지하게 형으로 주로 쓰이는 단어)/002(-에 무지하다)/004(무지한 백성)”과 관련하여, “무지하다002와 무지하다004” 의미 차이가 별로 커 보이지 않습니다. 한자 정보가 없으면 구분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이러한 예들이 종종 있고, 한자로 쓰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최대한 뜻을 감안하여 집필자가 판단하여 예를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메모로 남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있으나, 어떠한 기준을 제시해 드리기는 어렵고 집필진 선생님께 부탁드릴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240725)

Q. 기존 어원사전의 지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예컨대, 무좀에 대해서 김민수 편 《어원사전》에서는 물과 쯤의 합성으로 보고 있는데 코퍼스상에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바: 언어외적정보)나 (사: 기타어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지 확인이 불가해도 어원사전상의 기술은 코퍼스에서 기술된 것과 같은 수준에서 정리를 해야 할지 갈등됩니다.

A. ‘물쯤’의 형태가 말뭉치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어원의 경우 말뭉치에서 그 형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말뭉치의 확인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어원이 신빙성이 있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신빙성이 있다면 ‘언어 내적 정보’에서 기술하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기타 어원 설명’에서 기술해야 합니다. 여러 어원 사전에서 기술이 되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도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언어 내적 정보’에서 기술합니다. (240725)

Q. 입력기에서 붙어로 된 책 이름을 적으려고 했는데, 알파벳 이외의 철자가 들어가니 입력된 단어가 인식이 안 됩니다.(예: 상아탑)

→ 인용을 해야 하거나 할 때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장음 표기 등은 표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프랑스어의 악센트 표시 등은 그대로 옮겨야 할 듯합니다. 현재 입력기에서 입력이 안 된다면, 입력이 안 된다는 것을 메모에 남겨 주세요. 이 부분도 추후 입력기를 개발할 때 수정하려 합니다. (240725)

Q. 작년 집필 항목을 수정하는 중에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망이꾼’의 경우 2023년이라면 20세기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나(사전류 이외 말뭉치에서 나타나지 않음), 2024년부터는 20세기를 선택하는(최소한 사전류에 나타났기에 집필 대상이 되었으므로) 것으로 지침이 수정되었습니다.

20세기를 선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0세기를 선택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기별 용례>도 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20세기를 선택하게 된다면 <세기별 용례>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사전류 이외 말뭉치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용례를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 2023년 기집필된 항목을 수정하실 때, 20세기가 선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침이 변경되었기에 20세기를 선택하는 것으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20세기를 선택하지 않았던 것은 용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만약 말뭉치 목록이 달라져서 작년에는 찾지 못했던 용례를 찾는 경우라면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용례가 없다면 20세기만 선택하고 <세기별 용례>는 넣지 않습니다.

해당 표제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었는지는 추후 일괄 수정할 예정입니다. (240725)

Q. 용례를 검색했을 때 <깜짝새>에서 검색되는 용례가 없는 경우,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검색하여 용례를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검색하여 나온 용례가 1945년 이후의 것인 경우, 해당 용례를 넣어 집필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필할 필요가 없는지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월 회의록에서는 “어쩔 수 없이 1945년 이후에 나오는 문헌을 인용하여야 하고,”라고 하였고, 7월 회의록에서는 “1945년 이후에만 해당 용례가 발견되면 지금 단계에서는 용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집필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 회의록

Q. 용례 문제

→ ‘**집필 지침**’의 “V. 어원사전의 구조 및 주요 집필 정보”의 “사. 세기별 용례”를 보면, “용례는 원칙적으로 1945년 이전에 나온 문헌에서 발견된 것까지만 원칙적으로 인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 그러나 **첫 용례가 1945년 이후에 나오는 경우도** 있음. 예: ‘땡전, 폐돈’ 등

→ 이 같은 용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함.

A.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1945년 이후에 나오는 문헌을 인용하여야 하고, 1945년 이후에 나온 문헌에서도 용례를 발견할 수 없다면 사전 기술을 용례로 인용하여야 합니다.**

7월 회의록

Q. 근대어의 경우, 라이브러리에서 1945년 이후에만 해당 용례가 확인되는 경우 인용을 해도 되는지 한 번 더 확인 바랍니다.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19세기 말 이후 쓰임이 확실한 단어라면 1945년 이후에만 해당 용례가 확인되어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1945년 이후에만 해당 용례가 발견되면 지금 단계에서는 용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집필하지 않습니다.**

→ 회의록의 두 부분이 일견 모순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945년 이후에만 해당 용례가 발견되면 지금 단계에서는 용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집필하지 않

습니다.

그런데, 1945년 이후에 용례가 발견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집필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 단어는 집필할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팀장님께 보고하고, 팀장님께서도 집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1945년 이후에 첫 용례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기술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땡전, 떼돈’ 등은 1945년 이후에 용례가 발견되지만, 집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술하기로 결정된 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1945년 이후에 용례가 발견되더라도 집필합니다. 그렇지만 집필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945년 이후에만 용례가 발견되는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원칙에 따라 집필하지 않습니다.

만일, 1945년 전에도 용례가 많이 발견되는 경우라면 1945년 이후의 용례는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뭉치의 범위가 원칙적으로 1945년까지이기 때문입니다. (240725)

Q. 작년하고 연대가 달라진 문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광재물보》의 경우 작년에는 19세기로 되어 있고 올해는 20세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신소설의 경우 연대가 달라진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원칙은 “현재 kohico에서 검색되는 연대”로 작업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뭉치팀에서 말뭉치 작업을 할 때, 어떠한 이유로 간행 연대를 수정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대가 수정된 목록이나 그 이유에 대해 공유받아 전달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광재물보》는 20세기 자료로 작업해 주시면 되고, 수정하실 때도 20세기로 작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40711)

Q. 구급간이방언해의 경우 연대가 ‘1489(17세기) 구급간이방언해’와 같이 표시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kohico 말뭉치에서 위와 같은 형식으로 연대가 제시되는 경우, 1489년 초간본이 전해지지 않고 복각본만 전해지고, 복각본의 연대가 17세기로 추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자료를 기존에 15세기 자료로 다루어 왔다는 점과 사전 원고라는 점을 고려하여 ≪1489 구급간이방언해 1:1ㄱ≫과 같은 식으로 인용해 주세요. (240711)

Q. 근대어의 경우, 라이브러리에서 1945년 이후에만 해당 용례가 확인되는 경우 인용을 해도 되는지 한 번 더 확인 바랍니다.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19세기 말 이후 쓰임이 확실한 단어라면 1945년 이후에만 해당 용례가 확인되어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1945년 이후에만 해당 용례가 발견되면 지금 단계에서는 용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집필하지 않습니다. (240711)

Q. <표준>에서 한 표제어의 다의가 <우리말샘>에서는 별도 집필 항목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집필해야 하나요?

번개 [번개 ㉠]

- **번개 「001」 「명사」** 구름과 구름, 구름과 대지 사이에서 공중 전기의 방전이 일어나 번쩍이는 불꽃.
- **번개 「002」 「명사」** 동작이 아주 빠르고 날랜 사람이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번개 [번개 ㉡]

- **번개 「004」 「명사」** 예정에 없이 즉석에서 실제로 만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주로 인터넷 채팅상으로 만나던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는 데에서 유래되었다.

→ 번개의 경우, ‘001, 002’는 다의어, ‘001, 002’와 ‘004’는 동음이의어 관계입니다. 따라서 ‘001, 002’를 묶어서 하나로, ‘004’는 별개의 항목으로 기술합니다. “Ⅲ. 원고 집필 기준”의 b의 ‘법석’의 예 (지침 6쪽)”을 참고해 주세요. (240711)

Q. ‘삽사리’는 20세기에 출현하고 ‘청삽사리’는 19세기에 출현합니다. 19세기의 ‘청삽사리’를 ‘삽사리’의 예에서 다루었는데요, ‘청삽사리’(아직은 집필 대상이 아님)를 집필할 경우 예가 완전히 동일해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침 2.2.1.2.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가 동일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어 내적 정보에서 설명이 다릅니다. ‘청삽사리’에서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는 기술을 할 것이고 ‘삽사리’에서는 단독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20세기부터지만, ‘삽사리’가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복합어를 이루는 구성이 19세기부터 확인된다는 기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집필자가 ‘청삽사리’를 집필하겠다고 지원하고 ‘청삽사리’를 ‘삽사리’와 함께 집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삽사리’가 다른 집필진에게 배당되어 있을 수 있으니 집행부에 확인한 이후에 집필해 주세요. (240711)

Q. 참고문헌은 자유롭게 써도 되는지요? 한국고전번역DB에 한자어 관련 설명이 있어 활용했습니다.

→ 적극 권장합니다. 한국고전번역DB 외에도 실록DB 등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용하고 출전을 밝혀 주면 됩니다. (240711)

Q. 하나의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아주 드물게 이형태가 나타나는 경우 “‘나’는 15세기부터 ‘나’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를 활용해도 될까요?(이 표현은 최초 출현형과 현대 국어 어형이 동일하고, 다른 이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쓰는 표현임) 여러 형태가 쓰였으나 ‘A’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는 설명은 여러 형태들이 비교적 여러 가지가 나타나거나 경쟁하는 두 형태들이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경우에만 국한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어떤 단어인지 예를 제시했으면 좋을 듯합니다. “현재까지 이어진다”라고 표현하면 다른 이형태가 쓰인 경우가 없었을 것으로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형태를 제시하게 되면 “이건 뭐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까지 이어진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빈도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40711)

Q. 고도리, 고라 등과 같이 빼고도리, 고라말 등의 합성어로만 용례가 검색되는 경우, 합성어를 용례로 쓸 수 있나요?

→ 집필지침에서 ‘깨’가 이와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합성어로만 용례가 검색되는 경우에는 합성어를 용례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240711)

Q. 째새 말뭉치와 뉴스라이브리예 예가 없는 경우 사전을 이용한다고 했는데(예: 박쥐 나무) 1957년 <큰사전>의 표제어를 예로서 제시하고 집필하면 될까요(예: 샷팔이)?

→ 인용하면 됩니다. 다만 ‘샷팔이’의 경우에는 조선어사전 ‘삭팔이스군, 삭팔이하다’가 있으므로 거기에서부터 예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240711)

Q. ‘덤터기’의 이형태인 ‘덤테기’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말뭉치에는 나오지 않고 뉴스라이브리의 1980년대 기사에 처음 나옵니다. 이 경우에 1980년대의 자료를 반영할 수 있을까요? 예전 째새 자료의 20세기 전반기 말뭉치에는 다음과 같이 ‘덤테기’가 나옵니다.

내게 덤테기를 씨어 보시라는지도 모르겠지마는 <1932백구(염상섭),344>

자네가 가자고 하면 가봐두 좋지.» 하고 덤테기를 씨어 버렸다. <1948모란꽃필때,112>

암만해도 내가 덤테기를 쓰는거야 <1948모란꽃필때,117>

→ 신소설 이후의 현대소설 등은 인용하지 않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예문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2023년에 19세기까지만 방언형 등을 예문으로 제시하고, 20세기부터는 비표준어형, (중요하지 않은) 표기형 등은 기술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므로, ‘덤테기’는 비표준어형이기에 예문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240620)

Q. 해당 어휘가 째새에서 검색이 안 되고, 뉴스라이브리에서만 검색될 경우, “20세기에 ‘A’가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로만 기술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단꿈’이나 ‘단맛’의 경우, 째새에서는 검색이 안 되는데 용례가 없을 뿐이지 언어 사용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추정일 뿐이라 단정할 수는 없는데 찾을 수 있는 용례에 근거하여 기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올해부터 집필해야 하는 항목 중에는 역사자료말뭉치에서 용례가 발견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세기까지 말뭉치에서 검색이 되지 않으면 네이버 뉴스라이브리과 사전에서 검색한 후 해당 용례를 바탕으로 집필하여야 합니다. 올해 배당된 집필 항목은 사전에 올라와 있는 표제어를 바탕으로 선정한 것이기에, 최소한 사전에는 용례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큰사전》에까지 용례가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집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집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팀장님께 제보한 뒤 승인을 받아서 집필합니다. 이 경우에도 담당자에게 보고해 주세요. (240620)

Q. 대체로 객관적 근거 자료가 없을 경우, 지침서에 제시된 것과 같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 ‘A’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나”로 제시하면 될까요? 아니면 나름의 의견을 담아 기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의견을 담아 기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의견을 기술할 수는 있으나, 너무 개인적

인 의견으로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기술하면 됩니다. (240620)

Q. 연대미상 자료들을 필수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나요?

A. 다른 자료가 많다면 연대미상 자료는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19세기, 20세기 자료가 없다면 연대미상 자료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240620)

Q. 최초 출현형 및 ‘언어 내적 정보’에 포함되는 어형의 범위

(1) 형태론적 구성의 동일성 문제

최초 출현형과 ‘언어 내적 정보’에 기술되는 어형은, 현대 어형인 ‘표제어’와 형태론적 구성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만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피사동접사와 같이 기능이 동일한 접사의 형태만 달라진 경우는 최초 출현형 안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예: ‘밝히다’의 최초 출현형으로 ‘불기다’ 제시) 재확인하고 싶습니다.

→ 별도의 표제항이 없다면, 형태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경우뿐만이 아니고 형태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기술하여야 합니다.

Q. 만약 용례가 거의 없는 어휘의 경우, 기원적 구성요소가 다르고 어원적 관련성이 있는 어형이 가장 이른 시기에 나온다면, 이는 해당 표제어의 변화 설명에는 포함하지 못하고 ‘기타 어원 설명’에서 다루어야 하는지요?

(예) 방아깨비: 19세기 ‘방하아비’의 형태로 등장하며, ‘방아까비, 방아깨비’는 20세기에 등장함. 이때 ‘방하아비’는 ‘언어 내적 정보’가 아닌 ‘기타 어원 설명’에서 제시?

→ ‘방하아비’도 별도의 표제항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언어 내적 정보에서 제시합니다. 만일, ‘방하아비’가 별도의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면 나누어서 기술하여야 합니다. (240620)

Q. 어원을 공유하는 현대어가 둘 이상인 경우와 현대어가 하나인 경우, 기술의 차이가 있을 듯합니다. 지침의 2.2.6을 보면 “준말처럼 어원을 공유하는 현대어가 여럿 있을 때는 각각 해당 어형을 기준으로 기술한다.”고 하고 ‘깨어지다-깨지다’, ‘나-나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요는 ‘깨지다’에서는 ‘빠여디다’를 포함하지 않고 ‘나이’에서는 ‘나ㅎ’의 예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7.1에도 ‘쌍형’에 대해 유사 지침이 있음) 다만 서로 관련어로 제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은 “현대어가 여럿 있을 때”에 한정되는 것인지요? 만약 현대어에 ‘나이’만 있고 ‘나’는 사라졌다면, ‘나이’에서 ‘나ㅎ’의 예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피사동사의 경우 통시적으로 접사가 교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대어가 하나뿐인 ‘밝히다’의 경우 그 안에서 ‘-이-’ 결합형인 ‘불기다’의 예와 ‘-히-’ 결합형인 ‘불키다’의 예를 모두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벌다’에 ‘-이-’와 ‘-기-’가 결합한 후 대형인 ‘벌리다’와 ‘벌기다’는 현대어가 둘이므로 ‘벌리다’에서는 ‘버리다, 벌이다, 벌리다’ 등만, ‘벌기다’에서는 ‘벌기다’만을 포함하여 기술하는 것이 맞는지요?

→ 말씀하신 대로, 현대 한국어에까지 두 가지 어형이 남아서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으면 구분하여 기술하고, 하나의 어형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표제어에서 모두 기술합니다. (240620)

Q. 어원사전이나 어원 관련 논문들에서 용례가 제시되었는데, 코퍼스에서는 해당 예를 찾을 수 없고 원전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코퍼스에 다른 더 좋은 예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예가 최초 출현형이거나 변화에서 주목해야 할 만한 예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용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되는 말뭉치 이외의 경우에서 용례를 사용한 경우 메모에서 어떤 선행연구를 참조하였는지 서지사항을 밝혀 주시거나 어떤 말뭉치를 활용하셨는지 적어 주세요. (240620)

Q. '집필 지침'의 “V. 어원사전의 구조 및 주요 집필 정보”의 “사. 세기별 용례”를 보면, “용례는 원칙적으로 1945년 이전에 나온 문헌에서 발견된 것까지만 원칙적으로 인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첫 용례가 1945년 이후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땡전, 떼돈’ 등) 이 같은 용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1945년 이후에 나오는 문헌을 인용하여야 하고, 1945년 이후에 나온 문헌에서도 용례를 발견할 수 없다면 사전 기술을 용례로 인용하여야 합니다. (240620)

Q. 말뭉치에 나와 있는 신문 자료의 경우 구체적인 날짜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출처 표시에 나와 있는 문헌명만 제시하면 안 될까요?

A. 신문 자료의 경우에는 연도와 날짜를 밝히는 것으로 지침이 정해졌기에, 만일 문헌명만 제시하는 것으로 바꾸게 되면 기존 집필 내용을 전부 수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말뭉치에 오류가 있는지 찾아 보기 위해서도 구체적인 날짜를 적어 주셔야 합니다. 낱썩새 검색 결과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 “파일 내용 보기”에 들어가시면 말뭉치 원문이 나옵니다. 근대 신문 말뭉치의 경우 일자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으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찾아서 입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일자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신문 코퍼스가 있다면 제보해 주세요. (240620)

4. 집필 대상인지 판정하는 문제

Q. 용례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못도지, 무덤새, 무동, 무파래기, 무랍, 무렵다, 무릎디피무, 무자이’ 등이 그러한 예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원사전 편집기의 용례 항목을 비워 두고 메모를 통해 용례가 없다는 내용을 적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용례를 전혀 찾을 수 없는 목록은 집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국어사전에 올라와 있어서 정보가 제시된 것이라 집필 대상이 된 항목들이지만, 용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메모를 남기고 집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집필에서 제외할 때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911)

Q. 표제어가 단어가 아니라 ‘~줄어든 말’로 된 경우, 집필 대상에 해당하나요? 예컨대, “‘내’(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줄어든 말)”의 경우 집필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집필 대상에 해당합니다. (240911)

Q. 표제어가 어근인 경우, 예컨대 “‘나팔’(‘나팔거리다’의 어근)”은 집필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어근은 원칙적으로 집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용례가 발견되면 집필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어근이지만 용례가 발견되어 집필했습니다.” 정도의 메모를 남겨 주세요. 또, ‘나팔’에 해당하는 동음이의어 전체가 선생님께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동음이의어에 해당하는 다른 표제어가 미집필 상태라면 해당 표제어를 집필한다고 말씀해 주신 뒤 집필해 주세요. (240911)

Q. 동음이의어 중 하나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낙타(落墮)’는 배정되어 있고 ‘낙타(駱駝)’는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동음이의어는 무조건 한 집필자에게만 배분됩니다. 배정이 되지 않았어도 동음이의어는 용례가 발견되면 관리자에게 추가 집필하겠다고 알리고 집필하시면 됩니다. (240911)

Q. ‘나방’은 1957년에야 첫 용례가 검색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전의 논의대로 집필 대상에서 삭제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 집필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240911)

Q. 다른 문헌에서 용례가 확인되지 않고 6개 사전에서 처음 확인되는 단어는 기술해도 되나요?

→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집필하지 않고 집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특별 항목에서 집필하는 20세기에 등장한 단어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원칙적으로 1945년 이전에 용례가 발견되어야 집필 대상이 됩니다. 다만, 1945년 후에 용례가 발견되지만 집필할 가치가 있는 표제어라고 판단되는 경우 팀장님께 보고해 주시고 팀장님께서 집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승인해 주시면 집필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소한 1957년에 완간된 《큰사전》에는 등록된 단어이어야 집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어원의 변화와 관련해서 6개 사전에서 보이는 특이한 양상이 있을 경우에 한해(표기의 변경 등) 6개 사전을 인용합니다. 다만 《조선말대사전》과 《조선말사전》의 경우 북한에서 나온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240725)

Q. 색채어 등 자음·모음 교체형 표제어

① 용례 검토 중 집필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음·모음 교체형이 말뭉치에서 확인될 경우, 용례가 거의 없어도 모두 추가 집필 대상으로 의뢰해야 하는지?

「구체적 사례」

불그죽죽하다(집필자 A)	빨그죽죽하다(집필자 B)
벌그죽죽하다(×)	빨그죽죽하다(×)
불그족족하다(×)	빨그족족하다(×)
발그족족하다(집필자 C)	빨그족족하다(×)

현재 ‘불그죽죽하다’는 집필자 A에게, ‘빨그죽죽하다’는 집필자 B에게, ‘발그족족하다’는 집필자 C에게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용례로 ‘불고족족하다’가 확인이 되었

고, 그래서 ‘불그족족하다’를 추가 집필하는 것이 어떤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용례가 한두 개 있을 수 있고, 용례가 나온다고 이 계열 어휘들을 하나하나 기술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A. 우리말샘의 표제어를 기준으로 집필합니다. ‘발그족족하다’를 기술하기 위해 찾아보니까 ‘불고족족하다’의 용례가 발견이 되었고, 우리말샘 표제어에 ‘불그족족하다’가 있다면 ‘불그족족하다’를 추가 집필하겠다고 요청하시고 추가 집필하시면 됩니다.

예문이 한두 개라도 확인이 되고, 우리말샘에서 표제어가 서로 다른 표제어로 올라와 있다면 팀장님께 보고하고 새로운 집필항목으로 기술해 주세요. (240725)

Q. 말뭉치에서 확인된 자음·모음 교체형의 예문이 현대국어 어형 중 하나에 딱 들어맞지 않는 경우, 예문을 어떤 어형에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불고족족하다’와 같은 어형이 나온다면 어떤 표제어의 용례로 넣어야 할까요?

→ 결국 집필자의 판단입니다만, ‘불그족족하다’와 ‘불그족족하다’ 양쪽에 다 넣어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40725)

Q. 표제어 선정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6월 25일에 담당자에게 아래 내용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올해 받은 항목 중에 ‘눈007’, ‘눈빛002’ 등이 있는데, 이들과 다의 관계인 항목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눈001’이 다른 선생님께 배정되어 있고, ‘눈빛001’은 제가 작년에 집필을 했던 항목입니다. 말샘 기준으로 다의 관계인 항목들은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항목을 기준으로 집필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요?

임의로 검색해 본 ‘손’이나 ‘발’ 같은 항목의 경우 각각 대표 의미 하나씩만 표제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바람’의 경우는 ‘바람001, 002, 011’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경우 다의 관계인 19개는 모두 집필 후보가 되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다의 관계인 하위 항목이 많은 표제어의 용례를 입력할 때 배정받은 항목의 의미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작년에 감수자 선생님께 관련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 ‘눈’과 같이 하위 항목이 다수인 경우 이들의 의미를 모두 찾아 용례에 반영해야 하는지요?

6월 25일 메일 내용에서 해결되지 않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다의 관계인 하위 항목이 많은 표제어의 용례를 입력할 때 배정받은 항목의 의미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작년에 감수자 선생님께 관련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 ‘눈’과 같이 하위 항목이 다수인 경우 이들의 의미를 모두 찾아 용례에 반영해야 하는지요?

→ 다의는 따로 집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침 2.5. 중에 “다의어의 개별 의향(sense)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원칙적으로 기술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바람’이라는 항목을 보겠습니다.

바람 [바람 ㉠]

- 바람 「001」 「명사」 기압의 변화 또는 사람이나 기계에 의하여 일어나는 공기의 움직임.
- 바람 「002」 「명사」 공이나 튜브 따위와 같이 속이 빈 곳에 넣는 공기.
- 바람 「003」 「명사」 물래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가짐.
- 바람 「004」 「명사」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시적인 유행이나 분위기 또는 사상적인 경향.
- 바람 「005」 「명사」 ‘풍병(風病)’을 속되게 이르는 말.
- 바람 「006」 「명사」 작은 일을 불려서 크게 말하는 일.
- 바람 「007」 「명사」 남의 비난의 목표가 되거나 어떤 힘의 영향을 잘 받아 불안정한 일.
- 바람 「008」 「명사」 남을 부추기거나 얼을 빼는 일.
- 바람 「009」 「명사」 들뜬 마음이나 일어난 생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바람 「010」 「명사」 ((주로 ‘바람같이’, ‘바람처럼’ 꼴로 쓰여))매우 빠름을 이르는 말.
- 바람 「011」 「명사」 「북한어」 탈이 나서 배 속에 차는 가스.
- 바람 「012」 「명사」 「북한어」 사상이나 의식에 끼치는 나쁜 영향이나 작용.
- 바람 「013」 「명사」 「북한어」 살아가면서 겪는 풍파 또는 풍상.
- 바람 「014」 「명사」 「북한어」 급격하게 벌어져 사람들에게 공포를 일으키게 하는 사건이나 소란.
- 바람 「015」 「의존 명사」 무슨 일에 더뎠어 일어나는 기세.
- 바람 「016」 「의존 명사」 ((‘-는 바람에’ 구성으로 쓰여))뒷말의 근거나 원인을 나타내는 말.
- 바람 「017」 「의존 명사」 ((주로 의복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서 ‘바람으로’ 꼴로 쓰여))그 옷차림의 뜻을 나타내는 말. 주로 몸에 차려야 할 것을 차리지 않고 나서는 차림을 이룰 때 쓴다.
- 바람 「018」 「의존 명사」 「북한어」 ((지리와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쓰여))그곳의 풍습, 분위기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말.
- 바람 「019」 「의존 명사」 「북한어」 ((일부 명사 뒤에 쓰여))그 명사가 나타내는 사람이나 사물의 작용, 또는 움직이는 기운, 기세 따위를 이르는 말.

바람 [바람 ㉡]

- 바람 「020」 「명사」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우리말샘에서 ‘바람’을 찾아 보면 위와 같습니다. 이때 「001」부터 「019」까지가 하나의 표제어의 의항들이고, 「001」~「019」와 「020」은 동음이의어 관계입니다. 따라서 집필진 선생님께 배정이 될 때는 ‘바람 001’ 등으로 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바람 001’부터 ‘바람 019’의 의항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까지 자세히 기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용례에는 ‘바람 001’의 용례만을 모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 001’부터 ‘바람 019’까지의 의항이 가능한 한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용례를 제시해 주세요.

다의어와 관련하여 의항을 나누어서 기술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ㄱ르치-’의 경우에 현대어에서는 “가르치다”와 “가리키다”로 분화가 되었는데, 이때 어형이 언제부터 분화가 되었으며 그에 따라 의항이 변화하게 되었는지는 기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다의어의 의항 각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까지는 기술하지 않습

니다. (240725)

Q. 현재 저에게 배정된 항목 중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술해야 하나요?

다의어 '눈007'(자동차나 트랙터 따위의 앞 조명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여전히 말샘에 배정되어 있어 검토 필요함.

'눈썹001': 옛말이고, 작년에 '눈썹' 집필했기 때문에 검토 필요함.

'다마001'('다마사슴'의 북한어.): 용례가 나오지 않는 북한어여서 검토 필요함.

'누비혼인001': 깜짝새나 라이브러리에 용례가 나오지 않아 검토 필요함.

→ 위 설명대로라면 모두 집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북한어의 경우에는 실제 용례가 많이 나오는데 북한어로 처리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집필하고 메모를 남겨도 됩니다. (240725)

Q. 1945년 이후에도 용례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적어도 사전에는 나오는 항목이라고 했는데, 검색의 문제인지 몰라도 사전에도 안 나오는 항목도 있습니다.

→ 1957년에 완간된 한글학회 《큰사전》까지의 사전에서 나오지 않고 용례도 없다면 집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드물지만 《큰사전》에 용례가 없음에도 기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표제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팀장님께 문의하여 주시고 집필여부는 팀장님께서 결정해 주세요. 집필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경우, '집필완료' 단계로 보내지 마시고, 담당자에게 알려 주세요. (240711)

Q. 용례가 없거나, 다른 이유로 집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혼동스러운 점이 있어서 수정할 예정입니다.

배정된 표제어 중에서 검토 결과 용례가 발견되지 않아 집필할 것이 없으면 집필할 것이 없는 이유를 '메모'에 밝히는 것으로 집필을 끝낸다.

단, 다른 표제어에 잘못 집필한 것은 집필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아 맞는 표제어로 옮겨 집필한다.

용례가 없는 등 집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집필 완료 처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집필 완료'는 모든 절차를 밟아 집필이 완료된 상태를 뜻합니다. 이 경우는 집필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므로 담당자에게 통보해 주시면, 집필 대상에서 삭제처리하고자 합니다. 집필진께서 집필 완료 처리하시거나, 집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주지 않으시면 집행부에서 알 방법이 없으므로 반드시 통보 부탁드립니다. (240711)

Q. 집필 대상어에 접두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작업해야 하나요?

뒤-

• 뒤- 「015」 「접사」 ((일부 동사 앞에 붙어)) '몹시, 마구, 온통'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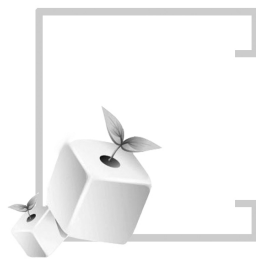
• 뒤- 「016」 「접사」 ((일부 동사 앞에 붙어)) '반대로' 또는 '뒤집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우리말샘>

→ 조사, 어미, 접사 등의 문법 요소는 현재는 집필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당받으신 항목에 조사, 어미, 접사가 있을 경우에는 보고해 주세요. (240711)

Q. 집필 지침에 '북한어', '방언'을 제외한다는 설명이 없습니다. 배정 받은 항목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은 집필해도 되나요?

→ 작년은 무조건 제외였으나, 올해는 원칙적으로는 제외하지만 만일 표제어로 배당이 되었거나, 집필자가 판단하기에 북한어나 방언의 집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집필 의사를 밝히시고 승인을 받으신 후 집필하실 수 있습니다. (240620)



제 3 장

말뭉치팀



제3장에서는 2024년 미정비 역사자료 말뭉치의 정비와 관리에 대해 기술하도록 한다.

3.1. 2024년 미정비 역사자료 말뭉치의 정비

3.1.1. 개요

(1) 역사자료 말뭉치 구축사 개관

□ 지금까지 이루어진 역사자료 말뭉치 구축 프로젝트와 그 성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과정	21세기 세종 계획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	2023년 ‘국어 어원사전 편찬’ 사업
시기	1994~1997년	1998~2007년	2014~2016, 2018년	2023년
분량	600만 어절	1,165만 어절 (기존 자료 포함)	700만 어절	410만 어절
비고	-	원시 말뭉치	• XML 형식으로 정제 • 언해 자료는 대응 한문 원문까지 포함	• 전면적 교정 및 XML 형식으로 정제

(2) 2023년 ‘국어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말뭉치 정비 사업

- ‘2023 국어 어원사전 편찬’ 사업의 말뭉치팀은 410만 어절의 말뭉치를 정비하였다.
- 국립국어원 제공 미정비 말뭉치 초기 목록 200개(작품이나 문헌 수와 일치하지 않음) 중 선별하여 79개의 목록 선정 후 정비하였다.
 - 신규 입수 말뭉치 중 선별하여 31개의 목록 선정 후 정비하였다.

(3) 2024년 ‘국어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말뭉치 정비 사업

□ ‘2024 국어 어원사전 편찬’ 사업의 말뭉치 정비 작업은 80만 어절의 말뭉치를 정비하기로 계획하였다.

- 책임연구원 1인, 공동연구원 2인, 보조연구원 10인으로 구성. 보조연구원 5명이 한 팀이 되고 공동연구원이 각 팀의 팀장을 맡아 작업을 관리하였다.
- 2023년 사업의 후속 작업으로 ‘① 2023년 정비 미완결 문헌 ② 가치 등급이 우수한 문헌 ③ 영인 상태가 좋지 않아 작업 보류된 가치 있는 문헌’ 가운데 선정하여 40만 어절 분량의 말뭉치를 정비하고, 추가 구축은 2023년 신규 입수 말뭉치 자료 중 선별하여 40만 어절 분량의 신규 말뭉치 자료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3.1.2. 대상 문헌의 선정

(1) 2023년 후속 작업

□ 2023년 사업에서 후속 작업을 계획한 문헌은 아래와 같다.

1) 2023년 정비 미완결 문헌

(예) 『변강쇠가_신재효판소리사설집(전)』, 『제국신문』(1901-1910), 『한영자전』(296-830쪽), 『속명의록언해』(한문)

2) 가치 등급이 우수한 문헌

(예) 『명주보월빙』(필사본), 『엄씨효문청행록_한국고대소설대계(三)』

3) 영인 상태가 좋지 않아 작업이 보류된 가치 있는 문헌

(예) 『강태공전(경판39장본)_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1』, 『금방울전(경판16장본)_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4』 등

□ 어원사전 편찬 기초자료로서의 문헌의 가치, 분량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문헌을 선정하였다.

연번	문헌명	저자(필자)	간행/필사 (추정) 시기		정비 전 어절 수
			세기	연도	
1	변강쇠가_신재효판소리사설집(전)		20C	19XX	9,325
2	한영자전(296~830쪽)	게일(Gale, J. S.)	19C	1897	301,785
3	속명의록언해	김치인 등	18C	1778	0(한문)

〈표 1〉 2023년 후속 작업 대상 문헌

□ <표 1>에 대한 특기 사항:

- [연번 1] 강한영 교주의 『신재효판소리사설집』 가운데 한 편으로 2023년 「춘향가」, 「심청가」, 「박타령」, 「적벽가」는 정비되었으나, 「변강쇠가」는 사업이 종료되면서 작업 배정을 하지 못해 미완결된 문헌이다. 2024년 사업에서 이 문헌을 우선적으로 작업 배정하여 정비를 완수하였다.
- [연번 2] 『한영자전』은 2023년 집필팀의 요청에 따라 미정비 말뭉치 목록에 추가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21세기 세종 계획」에서 구축한 말뭉치는 국어(한글+한자)로 작성된 부분만 입력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정비하도록 하였다. 2023년 정비 분량은 약 16만 어절에 해당하는, 1~295쪽까지로 우선 한정하였다. 2024년에는 296~1096쪽까지 추가 정비 작업을 진행하여 정비를 완수하였다.
- [연번 3] 『천의소감언해』, 『명의록언해』, 『속명의록언해』는 한문 원문 없이 언해문으로만 간행된 문헌으로 이 가운데 『천의소감언해』, 『명의록언해』는 2023년 사업 때 집필진의 요구에 따라 한문 원문을 추가 입력하여 병렬 말뭉치 형식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만 『속명의록언해』는 작업 분량의 초과로 한문 원문 입력 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는데, 2024년 한문 원문을 추가 입력하여 병렬 말뭉치 형식으로 변환하였다.

(2) 신규 문헌

1) 연간

- 2018년까지 기정비된 말뭉치에는 15~16세기 및 17세기 전기의 연간 5종만이 포함돼 있다.
- 2023년 사업 당시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 자료집』(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간, 개인 기증 연간 말뭉치 등 총 11종의 연간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정비하였다.

연번	문헌명	간행/필사 (추정) 시기		어절 수	
		세기	연도	정비 전	정비 후
1	숙명신한첩 연간	17C	1652~1688	3,413	6,481
2	숙취신한첩 연간	17C	1653~1696	2,192	4,102
3	진성이씨 이동표가 연간	17C	1658~1700	4,886	9,035
4	은진송씨 송규렴가 선찰 소재 연간	17~18C	1684~1709	10,706	16,043
5	의성김씨 학봉 종가 연간	18~19C	1765~1883	48,821	97,548
6	추사가 연간	18~19C	1754~1897	6,211	9,184
7	추사 연간	19C	1818~1844	6,221	9,395
8	흥은위 정재화가 연간	19C	1790~1905	12,471	21,234
9	은진송씨 송병필가 연간	18~19C	1863~1922	15,036	25,705
10	여흥민씨 민영소가 명성황후 연간	19~20C	1875~1895	4,521	9,219
11	순명효황후 연간	19C	1894~1904	875	1,373

〈표 2〉 2023년 정비 연간 목록

□ 2024년 사업에서는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 자료집』(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간 가운데 <표2>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아래 목록의 연간 자료를 대상으로 정비를 하였다.

연번	문헌명	간행/필사 (추정) 시기		건 수	어절 수
		세기	연도		
1	나주임씨가 『총암공수묵내간』 연간	17C	1611~1683	8	315
2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가 연간	17~18C	1640~1760	96	8,981
3	은진송씨가 송준길가 『선세연독』 연간	17~18C	1630~1764	40	4,011
4	해주오씨 오택주가 『어필』 소재 명안공주 관련 연간	17C	1665~1683	12	399
5	나주임씨가 『임창계선생묵보국자내간』 연간	17C	1649~1696	18	2,880
6	고령박씨가 『선세연적』 연간	17~19C	1660~1803	21	2,054
7	신창맹씨가 『자손보전』 소재 연간	18~19C	1704~19C 후반	20	1,822
8	『순원왕후어필』 연간	19C	1837~1852	25	3,526
9	조용선 편저 『봉서』 소재 연간	19~20C	19C 중반~20C 초반	40	1,852
10	순원왕후어필봉서 연간	19C	1841~1856	33	4,842
11	여흥민씨 민영소가 명성황후 궁녀 연간	19C	1883~1895	36	1,587

〈표 3〉 2024년 정비 연간 목록

□ <표 3>에 대한 특기 사항):

- [연번 1] 나주임씨(羅州林氏) 집안에 전하는 한글편지첩 2첩 가운데, 총암(叢巖) 임일유(林一儒, 1611~1684)와 관련하여 『叢巖公手墨內簡』에 수록된 한글편지 8건을 이른다.
- [연번 2] 송준길(宋浚吉) 후손가(後孫家)에 전하는 한글편지 가운데 송준길의 큰 며느리 배천조씨(白川趙氏, 1625~1683)로부터 5대손 송기연(宋起淵, 1727~1749)에 이르기까지 5대에 걸쳐 가려뽑은 편지 96건을 이른다.
- [연번 3] 은진송씨(恩津宋氏) 송준길(宋浚吉) 후손가(後孫家)에 전해 내려온 한글편지 가운데 『先世諺蹟』이라는 첩(帖)에 실려 전하는 40건의 한글편지를 이른다.
- [연번 4] 현종(顯宗)의 셋째 딸 명안공주(明安公主, 1665~1687)와 관련된 유물 중 『御筆』이라는 제목의 첩(帖) 속에 들어 있는 12건의 편지를 말한다.
- [연번 5] 나주임씨(羅州林氏) 집안에 전하는 한글편지첩 2첩 가운데, 창계(滄溪) 임영(林泳, 1649~1696)이 쓴 편지를 모아 만든 편지첩 『林滄溪先生墨寶國字內簡』에 수록된 한글편지 18건을 이른다.
- [연번 6] 고령박씨가(高靈朴氏家)에 전하는 한글편지첩 『先世諺蹟』에 수록된 한글편지 21건을 이른다.
- [연번 7] 신창맹씨가(新昌孟氏家)의 한글 서첩(書帖) 『子孫寶傳』에 수록되어 있는 34건 중 한글편지 20건을 이른다.
- [연번 8] 서울대 규장각에 전하는 순원왕후(純元王后, 1789~1857)의 한글편지 중 『純元王后御筆』이라는 서첩(書帖)에 수록된 편지 25건을 이른다.
- [연번 9] 조용선 편저 『봉서』(1997)에 수록된 왕비와 궁녀, 사대부가(士大夫家) 부인이 쓴 한글편지 40건을 이른다.
- [연번 10] 서울대 규장각에 전하는 순원왕후(純元王后, 1789~1857)의 한글편지 중 서첩(書帖) 속에 수록되지 않고 봉서(封書) 형태 그대로 전해 온 편지 33건을 이른다.
- [연번 11] 명성황후(明成皇后, 1851~1895)를 모시던 궁녀가 개인적 상황을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소(閔泳韶, 1852~1917)에게 알리기 위해 쓴 한글편지로서, 이기대(2007)에 원본 사진과 함께 판독문이 수록된 36건을 가리킨다.

2) 신소설

□ 신소설 문헌은 1905~1910년대 자료로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 2023년 사업 당시 국어원에서 받은 미정비 목록의 200건 말뭉치 가운데 25건 신소설은 모두 정비 작업이 되었다. 그리고 2018년 이전 기정비 말뭉치 가운데 1건의 신소설을 포함하면 정비 말뭉치 가운데 신소설은 총 26건이다. 2023년까지 정비된

7) 한국학중앙연구원(2003),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집』 1~3, 역락.

신소설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연번	문헌명	편저자(역자)	간행 연도	어절 수		비고
				정비 전	정비 후	
1	경세종	김필수	1908	5,519	10,866	
2	구의산	이해조	1912	24,632	41,836	
3	동각한매	현공렴	1911	4,574	7,811	
4	두견성	이해조	1912	39,206	70,004	
5	마상루	민준호	1912	10,556	17,844	
6	만인계	엣디워쓰 저; 최창선 역	1912	10,874	17,041	
7	명월정	박이양	1912	14,951	26,693	
8	목단화	김교제	1911	17,929	35,148	
9	비행선	김교제	1912	17,320	31,054	
10	산천초목	이해조	1912	10,674	18,976	
11	성산명경	존로스	1911	12,059	13,995	
12	송퇴금	육정수	1908	17,058	24,249	
13	쌍옥적	이해조	1911	15,753	36,739	
14	옥호괴연	미상	1912	8,049	16,885	
15	완월루	미상	1912	10,457	20,264	
16	원양도	이해조	1911	12,747	21,770	
17	월하가인	이해조	1911	18,333	32,025	
18	재봉춘	이상협	1912	20,998	37,111	
19	죽서루	현공렴	1911	8,103	14,368	
20	철세계	이해조	1908	13,883	23,470	
21	추풍감수록	이해조	1912	10,884	11,701	
22	행락도	민준호	1912	19,214	32,269	
23	현미경	김교제	1912	26,399	47,384	
24	홍도화	이해조	1912	28,352	29,540	
25	화중화	미상	1912	7,794	12,509	
26	고목화	이해조	1922		22,139	2018년 정비

〈표 4〉 기정비 신소설 말뭉치 목록

□ 말뭉치팀은 ‘연구자들이 두루 사용하는 신소설 말뭉치 목록’(52건)에 있으나 정비되지 않은 <혈의루>, <금강문> 등 주요 신소설에 대해 누락 여부와 점검을 집필팀으로부터 요청받았다.

□ ‘연구자들이 두루 사용하는 말뭉치 목록’ 가운데 신소설은 기정비 말뭉치 26건을 포함하여 총 52건이다. 이 중 미정비 신소설 말뭉치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말뭉치 목록 파일은 26건이지만 상하 분권이 된 자료는 다른 말뭉치 자료와 같이 분권하여 목록에 제시하여 총 28건이다.

□ 미정비 신소설 말뭉치의 서지 정보를 정리하고, 기정비 신소설 말뭉치 문헌의

작가와 중복 여부, 작품의 인지도, 말뭉치의 상태 등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작업 대상 문헌을 선별하였다. 선정 문헌은 아래 목록에 표시하였다.

연번	문헌명	저자(필자)	간행 연도	어절 수	비고
1	구마검	이해조	1908		제외
2	귀의성_상	이인직	1907	19,699	선정
3	귀의성_하	이인직	1908		선정
4	금강문	최찬식	1914	20,221	선정
5	금국화_상	김용준	1913	19,388	
6	금국화_하	김용준	1914		
7	금수회의록	안국선	1908	6,209	선정
8	금의쟁성	남궁준	1913	4,938	선정
9	눈물	이상협	1917	15,809	후순위
10	모란병	이해조	1911	10,748	선정
11	비파성	이해조	1913	17,356	
12	빈상설	이해조	1908	12,524	
13	설중매	구연학	1908	12,964	선정
14	세검정		1913	8,767	
15	안의성	최찬식	1914	12,890	선정
16	애국부인전	장지연 역	1907	5,640	
17	우중행인	이해조	1913	16,318	
18	은세계_상	이국초	1908	10,230	선정
19	자유종	이해조	1910	4,235	
20	추월색	노익형	1912	8,546	선정
21	추천명월	김홍제	1914	8,038	선정
22	치악산_상	이인직 역	1908	11,198	선정
23	치악산_하	김교제 역	1911	10,858	선정
24	한월_하	노익형[박승옥 원저]	1912	11,957	후순위
25	혈의루	이인직	1908	5,470	선정
26	화세계	이해조	1911	15,108	
27	화의혈	이해조	1912	10,398	
28	항금탑	김용준	1912	8,590	선정

〈표 5〉 미정비 신소설 목록

□ <표 5>에 대한 특기 사항:

- [연번 1] 『구마검』은 말뭉치 상태가 찍어쓰기가 전혀 안 되어 있으며, 동일 작가의 작품 가운데 기정비 말뭉치가 여러 개 있어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연번 24] 『눈물』, 『한월_하』는 상·하권 가운데 하권만 말뭉치가 있는 관계로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연번 18] 『은세계_상』은 하권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점과 작품의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연번 5, 6] 『금국화』, [연번 14] 『세검정』, [연번 26] 『화세계』, [연번 27] 『화의

형』 등 다른 여타의 문헌들은 2024년 작업 분량의 초과로 정비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차년도 사업에서 연속 작업이 필요한 문헌들이다.

3.1.3. 말뭉치의 정비

(1) 정비의 방법

□ 본 사업의 작업 지침은 2018년까지 진행한 ‘역사 자료 종합 정비’ 사업, 2023년 정비 사업의 작업 지침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 정비 사업의 작업 지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정비 또는 추가할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 보완하여 작업에 적용하였다.

『한영사전』 추가 작업 지침

- 표제어 뒤 장단음 표시가 “s. and l.”으로 되어 있는 경우, ‘&’ 부호를 이용하여 두 가지 표제어를 모두 제시한다.

예. <sent type="head" lang="kor" page="" n="">*쑥&쑥:</sent><!--원문에는 "s. and l."로 기술하여 단음과 장음이 모두 실현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l. and s.” 또한 순서에 맞게 ‘&’ 부호를 이용하여 장음 표제어와 단음 표제어를 나열한다.

- “contrast to 군조”와 같이 영어 뜻풀이에 한글 표기가 있으면 지침에 따라 약호를 이용하여 입력하고 주석 태그로 설명을 덧붙인다.

예. <sent type="ref" lang="kor" page="" n="">opp. 군조</sent><!--원문에서 ‘군조’는 영어 풀이에 ‘contrast to 군조’로 출현한다.>

- 벽자의 경우, 한자 유니코드 입력 시스템에서 확인 후 없으면 파자 후 합자하여 입력한다. 자세한 합자 입력 방법은 “신사전 입력과 관련된 자전류 지침(보완)”의 ‘벽자 간이 입력 지침’을 참고한다.

- 영어 뜻풀이 뒤에 (Epist.)라는 약어 표시는 당시 편지글에서 사용되던 단어를 가리키는 약어이다. 『한영사전』의 일러두기에는 소개되지 않은 약어 정보이나 당시 편지 형식에서 사용하던 단어들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입력한다.

(231123 기존 지침)

- (Prov.)는 방언을, (Comp.)는 문어(文語)를, (Dim.)은 지소형(指小形)을, (Respect)는 주체높임을, (Hon.)은 상대높임을, (Low)는 낮춤말을 의미합니다. 빠진 게 있으면 입력합니다.

(240501 수정 지침)

- (Prov.)는 방언을, (Comp.)는 문어(文語)를, (Dim.)은 지소형(指小形)을, (Respect)는 주체높임을, (Hon.)은 상대높임을, (Low)는 낮춤말을, (Epist.)는 서한(체)를 의미합니다. 빠진 게 있으면 입력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 ‘KOHICO’를 활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2) 작업 일정 및 관리

□ 전체 작업 일정은 아래와 같이 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변강쇠가							
속명의록언해							
한영자전	1만 어절×9	2만 어절×9					
미정비 추가문헌			11만 어절				
신규 문헌				9 - 10 만 어절	9 - 10 만 어절	9 - 10 만 어절	9 - 10 만 어절

□ 공동연구원 3인, 보조연구원 10인으로 구성하였다. 보조연구원 5명이 한 팀이 되고 공동연구원 중 2명이 각 팀의 팀장을 맡아 작업을 관리하였다.

월별 작업 일정

- 월 1일 작업분 배분 및 작업 지시
- 월 14일 중간 작업물 점검
- 월 15일 책임연구원·공동연구원 회의
 - 팀별 작업 상황 보고 및 관련 논의
- 월 29일 월말 작업물 마감
- 월 30일 책임연구원·공동연구원 회의
 - 팀별 작업 상황 보고 및 관련 논의, 차월 작업분 배분

□ 구글시트를 이용하여 작업 상황 및 진행률을 점검하였다.

□ 그룹채팅방 활용 작업 지시 및 공지사항 전달, 애로사항 청취하였다.

3.1.4. 2024년 정비 말뭉치 최종 목록

□ 앞서 밝힌 근거에 따라 선정한 문헌을 대상으로 말뭉치 정비 작업을 진행한 결과, 2024년 말뭉치 정비 목표량 80만 어절을 초과한 **84만여 어절**을 정비하여

105.6%의 달성률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속명의록언해』의 한문 입력은 완수하였으나 어절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6〉 2024년 정비 완료 목록

연 번	문헌명	저자(필자)	간행/필사 (추정) 시기		어절 수	
			세기	연도	정비 전	정비 후
1	변강쇠가_신재효판소리사설집 (전)		20C	19XX	9,325	18,127
2	한영자전(296~836쪽)	게일(Gale, J. S.)	19C	1897	301,785	306,698
3	속명의록언해	김치인 등	18C	1778	0(한문)	-
4	귀의성_상	이인직	20C	1907	19,699	33,783
5	귀의성_하	이인직	20C	1908		28,756
6	금강문	최찬식	20C	1914	20,221	47,804
7	금수회의록	안국선	20C	1908	6,209	11,443
8	금의쟁성	남궁준	20C	1913	4,938	16,997
9	모란병	이해조	20C	1911	10,748	30,128
10	설중매	구연학	20C	1908	12,964	21,744
11	안의성	최찬식	20C	1914	12,890	53,190
12	은세계_상	이국초	20C	1908	10,230	37,916
13	자유종	이해조	20C	1910	4,235	14,518
14	추월색	노익형	20C	1912	8,546	23,956
15	추천명월	김홍제	20C	1914	8,038	24,390
16	치악산_상	이인직 역	20C	1908	11,198	33,783
17	치악산_하	김교제 역	20C	1911	10,858	28,756
18	혈의루	이인직	20C	1908	5,470	23,315
19	황금탑	김용준	20C	1912	8,590	24,658
20	나주임씨가 『총암공수묵내간』 연간		17C	1611~1683	315	845
21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가 연간		17~18C	1640~1760	8,981	19,802
22	은진송씨가 송준길가 『선세연독』 연간		17~18C	1630~1764	4,011	8,440
23	해주오씨 오택주가 『어필』 소재 명안공주 관련 연간		17C	1665~1683	399	1,038
24	나주임씨가 『임창계선생목보국 자내간』 연간		17C	1649~1696	2,880	5,641
25	고령박씨가 『선세연적』 연간		17~19C	1660~180	2,054	3,953

연 번	문헌명	저자(필자)	간행/필사 (추정) 시기		어절 수	
			세기	연도	정비 전	정비 후
				3		
26	신창맹씨가 『자손보전』 소재 언 간		18~19C	1704~19C 후반	1,822	3,606
27	『순원왕후어필』 언간		19C	1837~1852	3,526	6,236
28	조용선 편저 『봉서』 소재 언간		19~20C	19C중반 ~20C 초반	1,852	4,200
29	순원왕후어필봉서 언간		19C	1841~185 6	4,842	7,897
30	여흥민씨 민영소가 명성황후 궁 녀 언간		19C	1883~189 5	1,587	3,780
합계(속명의록언해 제외)						845,40 0
달성률(%)						105.6

□ 2024년 작업 분량의 초과로 정비하지 못하였으나, 후속 사업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7> 후속 작업 필요 목록

연번	문헌명	저자(필자)	간행 연도	어절 수	비고
1	구마검	이해조	1908	미상	띄어쓰기 없음
2	금국화_상	김용준	1913	19,388	
3	금국화_하	김용준	1914		
4	눈물	이상협	1917	15,809	하권만 있음
5	비파성	이해조	1913	17,356	
6	빈상설	이해조	1908	12,524	
7	세검정		1913	8,767	
8	우중행인	이해조	1913	16,318	
9	한월_하	노익형[박승옥 원저]	1912	11,957	하권만 있음
10	화세계	이해조	1911	15,108	
11	화의혈	이해조	1912	10,398	

3.2. 2024년 역사자료 말뭉치의 관리

2014-2016, 2018년에 이루어진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에서는 작업자마다 오프라인으로 말뭉치를 구축하고 정비하였다. 그리고 ‘2023년 어원 사전 편찬’ 사업에서는 오프라인 구축 작업 시 발생한 형식 통일 및 효율성 측면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실시간으로 온라인상에서 말뭉치를 정비하고 XML 유효성(XML Validation)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위키 기반 플랫폼 ‘KOHICO(<https://kohico.kr>)’를 사용하였다.

작년 작업자들의 ‘KOHICO’ 사용자 경험(UX)을 바탕으로 ‘KOHICO’ 플랫폼의 이점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올해 사업에도 ‘KOHICO’ 플랫폼을 활용하여 말뭉치를 정비하였다. 다만 ‘KOHICO’ 플랫폼도 말뭉치 정비 사업에는 처음 이용된 플랫폼이어서 작업자들이 지적한 이용상의 불편함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2023년 사업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정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박진양 선생님이 개발한 ‘깜짝새(SynKDP) 1.0.0.5(이하 ‘깜짝새’)'가 집필팀에게 공개되었는데, 깜짝새는 ‘KOHICO’ 플랫폼과의 연동을 기반으로 하는 검색 프로그램이어서 집필팀과 말뭉치팀의 소통을 통한 말뭉치의 유지·보수의 측면에서 큰 발전이 있었다. 이하에서는 2024년 사업에서 역사자료 말뭉치의 정비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개선된 점들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3.2.1. 기구축 말뭉치의 정비

□ 문헌 서지 정보 변경(<teiHeader>의 하위 메타 정보의 형식 통일)

깜짝새(SynKDP)와 KOHICO가 연동되면서 KOHICO에 탑재된 말뭉치를 집필자가 실시간으로 다운받아 검색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문헌에서 서지 정보가 올바르게 출력되지 않는 문제를 발견하였다. 오류가 발생한 문헌을 살펴보니, KOHICO에 구축된 <teiHeader>의 특정 태그 정보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태그 구조의 문제였다. 이를 고려하여 본격적인 집필 작업이 진행되기 전인 올해 초에 <teiHeader>의 하위 메타 정보인 <titleStmnt> 정보의 태그 형식을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통일하였다(예시: 석보상절 권6).

```
<titleStmnt>
  <title lang="kor">석보상절</title> ①
  <title lang="chi">釋譜詳節</title>
  <full_name>석보상절</full_name> ②
  <nikl_name>석보상절</nikl_name> ③
```

```

<another_name>석보상절; 월인석보</another_name> ④
<abbre>[고]釋譜;[디]석보/석상;[우]석보-초;[이]석;[표]석상;</abbre> ⑤
<version>원간본</version><!--국립중앙도서관본--><!--금속활자본--> ⑥
<volume n="6"/> ⑦
<author>수양대군 외</author><!--신미, 김수온 등의 도움을 받음--> ⑧
<date>1447</date> ⑨
</titleStmt>

```

①기본 서명(<title>)

2023년 말뭉치 정비 시에는 <title> 태그에 언어 정보 속성을 포함시켜 한글과 한문으로 구별하여 2개의 태그로 분할하였지만, 2018년까지 구축된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의 말뭉치는 <title> 태그가 하나뿐이었다. 이로 인해 낱짝새 검색 시에 서명이 한글만 제시된 경우, 한문만 제시된 경우, ‘한글 서명(한문 서명)’과 같이 병기된 경우가 혼재되어 출력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여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의 말뭉치도 2023년 작업한 말뭉치와 동일하게 <title> 태그를 언어별로 분할하였다.

②전체 서명(<full_name>)

2023년 말뭉치 정비 시에는 <full_name> 태그를 추가하였지만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의 말뭉치는 <title> 태그가 하나뿐이었다. 『석보상절』과 같이 기본 서명과 전체 서명이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월인석보』나 『두시언해』와 같이 전체 서명과 차이가 있는 경우 전체 서명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여 기본 서명과 전체 서명이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말뭉치에 <full_name> 태그를 추가하여 태그 형식을 통일하였다. 또한 아래와 같이 ‘<!--주석 태그-->’를 추가하여 전체 서명 기입에 대한 관련 정보를 밝혔다.

```

<!--전체 서명은 책의 겉장 위에 표시된 표제(=외제) 내지 책의 본문 머리에 표시된 권수제(=내제)를 입력하되, 권차 정보는 제외한다(권차 정보는 volume 태그의 n 속성에 기재함). 외제와 내제가 다를 경우 내제를 입력하고, 외제는 주석 처리한다.-->

```

③국립국어원 제안 서명(<nikl_name>)

올해 사업에서 새로 추가한 태그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일러두기에 제시된 ‘조사 문헌’의 서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서명을 추가한 이유는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 말뭉치의 <title> 서명과 『표준국어대사전』의 ‘조사 문헌’ 서명이 서로 불일치한 문헌이 있었기 때문이다. 집필팀에서 이와 관련하여 서명을 통일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불일치한 서명 중에는 <title> 서명의 정보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헌도 있었다. 그 밖에 『표준국어대사전』에 미반영된 새로 추가된 문헌의 경우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서명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nikl_name> 태그를 추가하였고, 깜짝새에 노출되는 서명 정보를 사업의 취지에 맞게 <nikl_name>으로만 설정하여 집필팀의 서명 통일 요청 사항을 반영하였다.

④이칭(異稱) 내지 별칭(別稱) 정보(<another_name>)

디지털한글박물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글문헌통합정보’에 실린 ‘문헌 이칭’ 항목을 참고하여 서명을 작성하여 차후에 다른 서명으로 검색을 하더라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역시 아래와 같이 관련 정보를 주석 태그를 이용하여 밝혔다.

<!--'디지털한글박물관 한글문헌통합정보'에 실린 '문헌이칭'의 항목에서 약어를 제외한 이칭을 중심으로 기입하되, 옛말 사전류에 다른 이칭이 제시될 경우 추가함-->

⑤약어 정보(<abbre>)

2023년 사업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의 일러두기 속 ‘국어사 문헌 자료 출전 약호 목록’을 바탕으로 약어 태그를 추가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새로 추가된 문헌이나 연간류와 같이 약어와 관련된 통일 방안 논의가 필요한 문헌들이 다수 존재하여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 약어 정보 태그는 차후 통일된 약어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부가 정보로서 추가하였고 아래와 같이 주석 태그를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밝혔다.

<!--[고]: 고어사전 출전 약어, [디]디지털한글박물관 한글문헌통합정보, [우]: 우리말 큰사전 옛글 준이름 죽보기, [이]: 이조어사전 출전약호, [표]: 표준국어대사전 국어사 문헌 자료 출전 약호-->

⑥판본 정보(<version>)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와 같이 원간본과 중간본이 권별로 차이를 보이는 문헌이 존재하고, 『삼강행실도』와 같이 둘 이상의 이본이 말뭉치에 포함되어 비교 자료로 이용되기도 하는 까닭에 판본 정보가 필요한 문헌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간본과 중간본이라는 용어를 좀 더 명확하게 하여 검색자로 하여금 검색 결과에 대한 좀 더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판본 정보 역시 주석 태그를 이용하여 기입에 관한 정보를 밝혔다.

<!--초간본, 초각본, 원간본, 원각본, 초판본, 원판본 등의 동의어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원간본으로 통일한다.-->

<!--중간본은 번각본과 개간본을 통칭하는 명칭으로 언어 사실을 파악하는 데는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중각본/중간본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번각본과 개간본을 구별하여 제시한다. 천혜봉(2006:148), 『한국서지학』에 따르면, 우리나라 문헌에서는 번각본이라 일컫고, 일본인의 저서에는 복각본 내지 복간본이라고도 한다 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번각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⑦권차 정보(<volume>)

2023년 사업에서는 반영하였지만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의 말뭉치에는 <title> 정보 속에 권차 정보를 함께 기입한 문헌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헌을 포함하여 단권인 경우라도 모두 <volume> 태그를 추가하여 형식을 통일하였다.

⑧저자 정보(<author>)

2023년 사업에서는 반영하였지만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의 말뭉치에는 저자가 명확한 경우 중에도 누락된 경우가 있었고, 저자가 불명확한 경우는 해당 태그가 없었다. 이런 경우 <author> 태그를 모두 추가하여 형식을 통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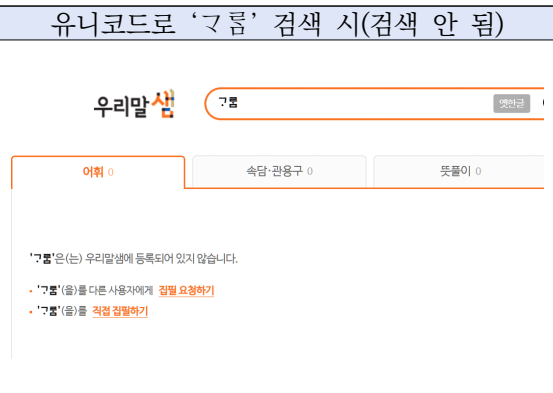
⑨간행연도(<date>)

간행연도의 경우 기존과 다름이 없지만 판본 정보를 바탕으로 원간본이 존재하지 않고 번각본만 존재할 경우 아래의 주석 정보를 밝히고 간행연도를 ‘원간연도(번각연도)’와 같이 제시하여 번각본만 현전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석보상절』과 같이 여러 권 중에 번각본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권은 번각본만 존재할 경우, 번각본은 '원간연도(번각연도)'와 같이 병기하여 제시한다.-->

□ 옛한글 코드의 변환 : 한양PUA → 유니코드 5.2

지금까지 한국어 역사 말뭉치의 옛한글 코드는 비표준 코드 체계인 ‘한양 PUA(Private Use Area)’ 옛한글 코드로 구축되었다. 그러한 까닭에 표준 코드인 유니코드 옛한글로 단어를 검색할 수 없었다. 단적으로 아래와 같이 우리말샘에서 ‘한양 PUA’ 옛한글 코드의 ‘ㄱ롬’은 검색이 되지만 유니코드의 ‘ㄱ롬’은 검색이 되지 않는다.

비표준 코드로 'ㄱ롬' 검색 시(검색 됨)	유니코드로 'ㄱ롬' 검색 시(검색 안 됨)
	

과거에는 표준 코드의 한계로 인해 부득이 비표준 코드를 사용하였다. 여전히 외국어의 한글 전사 표기와 같이 단모음이 둘 이상 결합하는 복모음이나 자음이 셋 이상 결합하는 합용병서자의 경우 일부 유니코드가 지원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한글이라는 문자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장기적으로 세계인들이 옛한글 문헌을 검색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아직 지원되지 못하는 옛한글이 일부 있더라도 옛한글 코드 표준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AI 검색이 세상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시대인 만큼 프로그래밍 검색에 제한이 있는 비표준 옛한글 대신 표준 옛한글 코드로의 전환은 꼭 필요하다.

깜짝새에는 기본적으로 비표준 코드인 한양PUA 옛한글 코드를 표준 코드인 유니코드 옛한글로 변환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KOHICO'는 현 시점이 '한양PUA' 비표준 옛한글 코드에서 '유니코드 옛한글' 표준 코드로 전환되어 가는 시기라고 판단하여서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버전의 말뭉치를 함께 구축해 놓았다.

□ 기구축 말뭉치의 유지 보수 방식 개선(집필팀 의견 실시간 반영)

2023년 어원 사전 편찬 사업에서는 <우리말샘>의 '말뭉치 오류 신고' 게시판을 이용하여 집필팀과 말뭉치팀의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 게시판을 통해 기구축 말뭉치의 오류를 집필팀이 발견하고 말뭉치팀이 수정하는 협업이 이루어졌다. 다만, '말뭉치 오류 신고' 게시판이 KOHICO 서버와 분리되어 있어서 집필팀과 말뭉치팀의 소통 과정이 다소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어원사전046님

등급:분과원

어원사전

말뭉치 오류 신고
집필기 기능 개선
지침 관리

어원사전

말뭉치 오류 신고

더 보기

집필기 기능 개선

더 보기

(1576백련-동 16a)	어원사전...(ety024)	아직 미집필된 원고에 미리 메..	어원사전...(ety004)
(1632 두서-중 14:23..	어원사전...(ety024)	말뭉치 연계 기능	어원사전...(ety004)
삼역총해 오류	어원사전...(ety036)	자침 보기 기능	어원사전...(ety004)
(우리말샘)에서 '매우다'가..	어원사전...(ety022)	내려받기 기능	어원사전...(ety004)
(1542분문-227-22..	어원사전...(ety024)	안해 기능	어원사전...(ety004)

2023년 사업의 《우리말샘》 말뭉치 오류 신고 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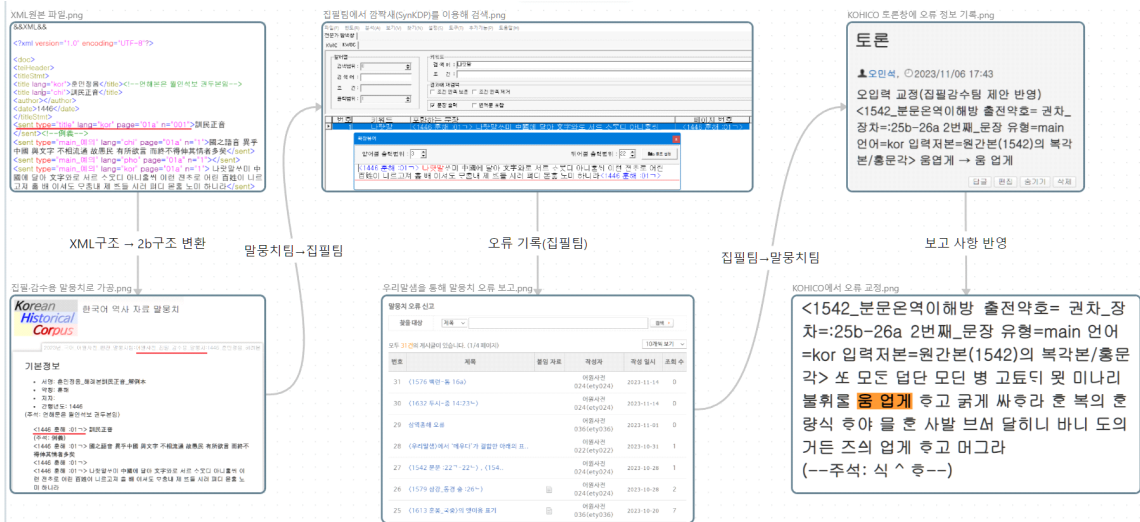
KOHICO를 이용한 기구축 말뭉치의 활용

- XML 형식의 기구축 말뭉치를
집필·감수용 말뭉치로 가공
- 집필팀에게 제공

- 집필팀에서 이용
- 오류 발견 후 우리말샘을
통해 KOHICO에 제보

- 제보받은 오류를 KOHICO에서
교정 및 관련 사항 기록
- KOHICO의 말뭉치를 업데이트

2023년 사업의 기구축 말뭉치 정비 과정



2023년 사업의 기구축 말뭉치 정비의 실제

2024년 어원 사전 편찬 사업에서는 이런 복잡한 과정이 간소화되었다. 먼저 감작새

에 ‘말뭉치 오류 신고’ 기능이 탑재되어, 오류를 신고하는 순간 실시간으로 KOHICO 관리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KOHICO에 저장된 해당 말뭉치의 토론창에 제보 내용이 자동 저장된다. 이로 인해 KOHICO 관리자가 《우리말샘》을 접속하고 말뭉치의 오류 위치를 찾는 과정이 생략되었다. 또한 제보 알림의 링크 정보를 통해 관리자가 해당 말뭉치로 이동하여 제보 내용을 점검하고 교정하는 작업을 즉각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정된 말뭉치는 KOHICO 관리자가 2b 형식의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 없이 깡썩새의 자동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 집필팀은 수정된 파일만 자동으로 다운받아서 검색에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KOHICO에서 제공하는 기존의 2바이트 통합 말뭉치와 집필·감수용 말뭉치의 비교(2023년 사업)

KOHICO의 통합 말뭉치(2022년 10월 버전).png

```
<1447_석보상절6 유형=title 언어=chi 장차=01a:1 입력저본=디지털한글박물관>
釋譜詳節 第六
<1447_석보상절6 유형=main 언어=kor 장차=01a:2 입력저본=디지털한글박물관>
世尊이 象頭山에 가사
[--- 저경 미확인 ---]
<1447_석보상절6 유형=main 언어=kor 장차=01a:3 입력저본=디지털한글박물관>
龍과 鬼神과 위하야 說法후더시다
[--- 저경 미확인 ---]
<1447_석보상절6 유형=anno 언어=kor 장차=01a:4 입력저본=디지털한글박물관>
龍鬼 위하야 說法후사미 부텃 나히 설흔돌히러시니
<1447_석보상절6 유형=anno 언어=kor 장차=01a:5 입력저본=디지털한글박물관>
穆王 여숫찰 히 乙酉 라
<1447_석보상절6 유형=section_begin 입력저본=디지털한글박물관>
○
<1447_석보상절6 유형=main 언어=chi 장차=01a:6 입력저본=디지털한글박물관>
爾時世尊告目健連
<1447_석보상절6 유형=main 언어=kor 장차=01a:6 입력저본=디지털한글박물관>
부테 目連이드려 니루사디
<1447_석보상절6 유형=main 언어=chi 장차=01a:7 입력저본=디지털한글박물관>
汝今往彼迦毘羅城
<1447_석보상절6 유형=main 언어=kor 장차=01a:7 입력저본=디지털한글박물관>
네 迦毘羅國에 가아
<1447_석보상절6 유형=main 언어=chi 장차=01a:8 입력저본=디지털한글박물관>
問訊我父闍頭檀王 并我姨母波闍波提
<1447_석보상절6 유형=main 언어=kor 장차=01a:8 입력저본=디지털한글박물관>
아바닐과와 아즈마닐과와
<1447_석보상절6 유형=anno 언어=kor 장차=01a:9 입력저본=디지털한글박물관>
아즈마니온 大愛道로 니르시니
<1447_석보상절6 유형=anno 언어=kor 장차=01a:1b:10 입력저본=디지털한글박물관>
大愛道 摩耶夫人 尼미시니
[---人^人^---]
```

어원사전 집필·감수용 말뭉치 Ver.1.0.png

```
<1447_석상 6:01 > 釋譜詳節 第六
<1447_석상 6:01 > 世尊이 象頭山에 가사
(주석: 저경 미확인)
<1447_석상 6:01 > 龍과 鬼神과 위하야 說法후더시다
(주석: 저경 미확인)
<1447_석상 6:01 > 龍鬼 위하야 說法후사미 부텃 나히 설흔돌히러시니
<1447_석상 6:01 > 穆王 여숫찰 히 乙酉 라
<1447_석상 > ○
<1447_석상 6:01 > 爾時世尊告目健連
<1447_석상 6:01 > 부테 目連이드려 니루사디
<1447_석상 6:01 > 汝今往彼迦毘羅城
<1447_석상 6:01 > 네 迦毘羅國에 가아
<1447_석상 6:01 > 問訊我父闍頭檀王 并我姨母波闍波提
<1447_석상 6:01 > 아바닐과와 아즈마닐과와
<1447_석상 6:01 > 아즈마니온 大愛道로 니르시니
<1447_석상 6:01 > 大愛道 摩耶夫人 尼미시니
(주석:人^人^)
```

2023년의 작업 방식(상단)과 달리
2024년 감작새(하단)는 프로그램에서
XML RAW DATA를 자동 다운로드 후
검색 시 서지 정보가 간결하게 자동 변환됨

2024년 사업의 감작새와 KOHICO의 연동 화면(KOHICO의 XML 말뭉치를 자동 다운로드하여 검색에 ...)

감작새 검색 화면(자동 변환된 간결한 출전 정보).png

감작새

말뭉치 검색 (1939)

결과 편집 | 방정 무시 | 원문 이미지 | 원문자료 | 문맥 돋보기 | 폰트 | A 폰트 크기 | 검색 대상 목록

검색 조건

검색어: 象頭山에 가사 | 앞 문맥 검색어: | 뒤 문맥 검색어: | 앞 문맥 어절 수: 5 | 뒤 문맥 어절 수: 5

☐ 조건 만족 보존 ☐ 조건 만족 제거 ☒ 검색 후 출전을 기준으로 정렬 ☐ 검색 결과 키워드를 어절 단위로 표시

검색 결과 (전체: 1개, 강조: 0개, 삭제: 0개)

번호	앞 문맥	키워드	뒤 문맥	출전	원문
1	釋譜詳節 第六 世尊이	象頭山에 가사	龍과 鬼神과 위하야 說法후더시다 龍鬼	1447 석보상절 6: 1	

문맥 돋보기

☐ 복사 | 앞 문맥 길이: 1 | 뒤 문맥 길이: 1 | 문맥 늘림 | 문맥 줄임 | 말뭉치 오류 신고

世尊이 象頭山에 가사 龍과 1447 석보상절 6: 1

XML RAW DATA를 별도의 변환 작업 없이 감작새에서 직접 이용하는 모습.png

[KOHICO: 영인대조]

말뭉치 검색 (1) | 파일 내용 [1447_석보상절_06]

파일명 | 크기

KOHICO: 영인대조

1_15세기 이전

2_15세기

1446_훈민정음_해례본.txt 384.0 KB

1447_석보상절_03.txt 125.6 KB

1447_석보상절_05.txt | 검색(KWIC) | 파일 내용 보기

1447_석보상절_09.txt | 검색(KWOC)

1447_석보상절_11.txt

1447_석보상절_13.txt

1447_석보상절_19.txt 92.8 K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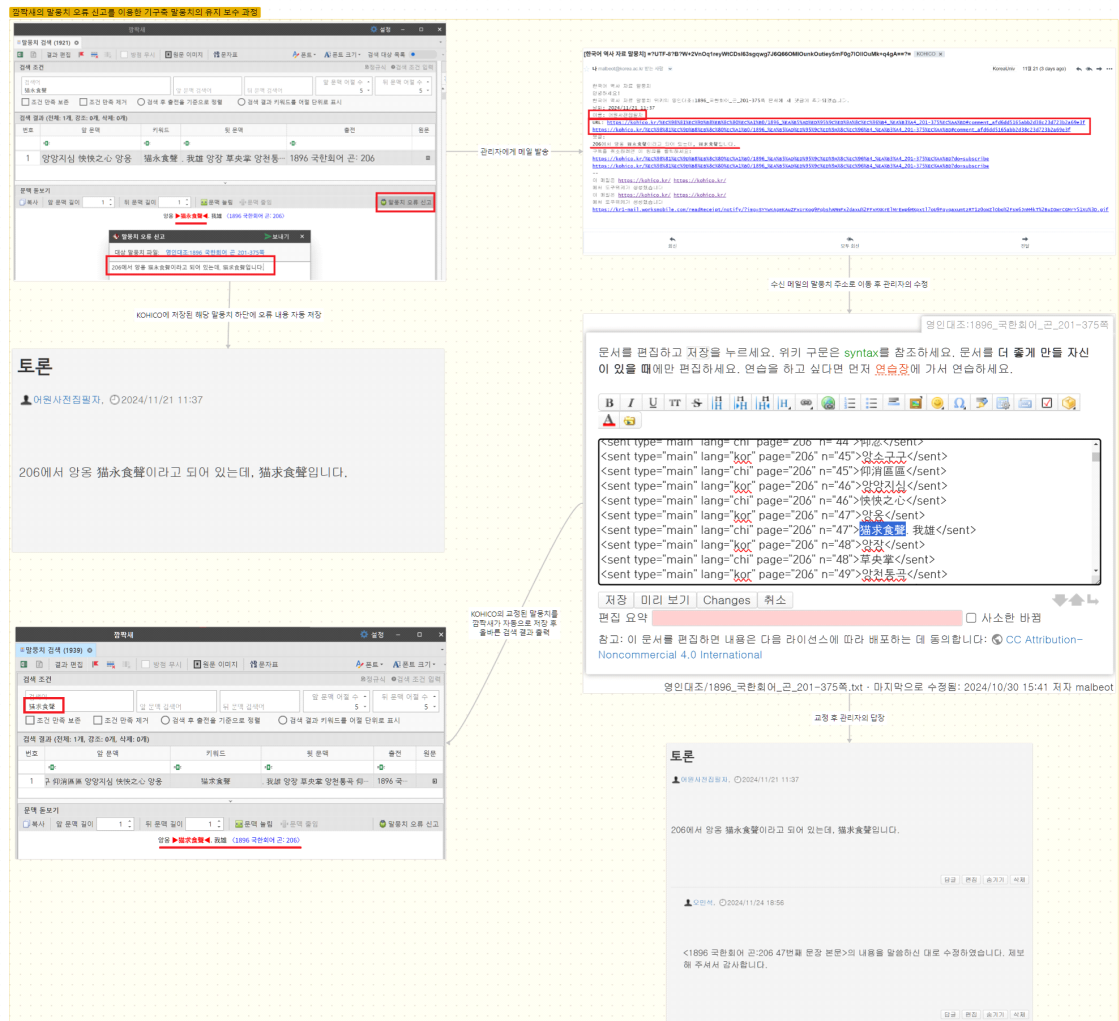
1447_석보상절_20.txt 120.9 KB

1447_석보상절_21.txt 147.6 KB

1447_석보상절_23.txt 138.2 KB

```
40 <pages n="01a">
41 <img n="01a">https://kohico.kr/_media/image/1447_석보상절06/01a.jpg</img>
42 <sent type="title" lang="chi" page="01a" n="1">釋譜詳節 第六</sent>
43 <sent type="main" lang="kor" page="01a" n="2">世尊이 象頭山에 가사</sent>[--- 저경 미확인 ---]
44 <sent type="main" lang="kor" page="01a" n="3">龍과 鬼神과 위하야 說法후더시다</sent>[--- 저경 미확인 ---]
45 <sent type="anno" lang="kor" page="01a" n="4">龍鬼 위하야 說法후사미 부텃 나히 설흔돌히러시니</sent>
46 <sent type="anno" lang="kor" page="01a" n="5">穆王 여숫찰 히 乙酉 라</sent>
47 <sent type="section_begin" lang="mark" page="01a" n="6">○</sent>
48 <sent type="main" lang="chi" page="01a" n="7">爾時世尊告目健連</sent>
49 <sent type="main" lang="kor" page="01a" n="7">부테 目連이드려 니루사디</sent>
50 <sent type="main" lang="chi" page="01a" n="8">汝今往彼迦毘羅城</sent>
51 <sent type="main" lang="kor" page="01a" n="8">네 迦毘羅國에 가아</sent>
52 <sent type="main" lang="chi" page="01a" n="9">問訊我父闍頭檀王 并我姨母波闍波提</sent>
53 <sent type="main" lang="kor" page="01a" n="9">아바닐과와 아즈마닐과와</sent>
54 <sent type="anno" lang="kor" page="01a" n="10">아즈마니온 大愛道로 니르시니</sent>
55 <sent type="anno" lang="kor" page="01a-1b" n="11">大愛道 摩耶夫人 尼미시니</sent>[---人^人^---]
56 </pages>
```

2023년 집필용 말뭉치 변환(수작업)과 2024년 집필용 말뭉치 변환(자동화) 비교



2024년 기구축 말뭉치의 개선된 유지 보수 과정(예: 양용[猫永食聲]→[猫求食聲])

그리고 집필팀에서 신고한 내용들이 말뭉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정리하여 집필팀에 다시 메일로 발송하여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교차 검증을 하였다. 아래는 메일로 발송한 수정 사항 중 일부이다.

파일명	토론
1896 국한회어 곤 201-375쪽	[댓글] 어원사전집필자, 2024/11/21 11:37, 206에서 양용 猫永食聲이라고 되어 있는데, 猫求食聲입니다. [답글] 오민석, 2024/11/24 18:56, <1896 국한회어 곤:206 47번째 문장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였습니다.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어원사전집필자, 2024/10/29 22:11, 281 '진솔옷'은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진솔옷'으로 붙여 써야 [답글] 오민석, 2024/10/30 15:45, <1896 국한회어 곤:281 16번째 문장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였습니다.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덧글] 어원사전집필자, 2024/10/14 17:55, 쥐통 □□ *“(□□)”는 '怪疾'입니다. '쥐통'도 콜레라를 가리키는 말이고 '괴질'도 콜레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답글] 오민석, 2024/10/14 23:06, <1896 국한회어 곤:276 24번째 문장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였습니다.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18 번역소학 10	[덧글] 어원사전집필자, 2024/11/15 15:03, 잔치→ 잔치 [답글] 오민석, 2024/11/18 13:41, <1518 번역소학 10:31ㄴ-32ㄱ 1번째 문장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였습니다.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899 경향신문 제1호-제52호	[덧글] 어원사전집필자, 2024/11/14 10:06, 4ㄱ '흰채 수염'은 '흰 채수염'으로 띄어 써야. '채수염'이 한 단어 [답글] 오민석, 2024/11/14 18:38, 말씀하신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덧글] 어원사전집필자, 2024/11/07 21:13, 1ㄱ '살아 생(아래아)전'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덧글] 어원사전집필자, 2024/08/18 10:15, 여러가지»여러 가지 [답글] 오민석, 2024/08/18 18:42, 해당 어절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장차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69 칠대만법	[덧글] 어원사전집필자, 2024/11/13 00:20, 가ㄹ미 > 사ㄹ미 원문은 ㅅ의 오른쪽 획이 탈각되었었고 왼쪽에 획처럼 보이는 것이 있으나 문맥상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답글] 오민석, 2024/11/13 03:34, <1569 칠대만법 22ㄴ 6번째 문장 주석>의 내용을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고 아래와 같은 주석을 달았습니다.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 '비흘 사ㄹ미'에서 'ㅅ'의 우측 획이 탈획됨. 『역주 칠대만법·권념요록』에 '비흘 사ㄹ미'로 판독한 것을 참고함.) [덧글] 신용남, 2024/09/06 16:46, 선생님, 4ㄱ의 3번째 문장이 중복되어 제시되어 있고 그다음 부분의 문장 '色과 空과 性이 두려이 노가 法界에 그 독호야'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답글] 오민석, 2024/09/08 17:55, <1569 칠대만법 04ㄱ 4번째 문장 주석>의 내용을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였습니다.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17 동국신속 신속열녀도 5	[덧글] 어원사전집필자, 2024/11/13 00:26, 덕희키늘 > 덕희기늘 [답글] 오민석, 2024/11/13 03:29, <1617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신속열녀도 5:51ㄴ 3번째 문장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였습니다.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2.2. 미정비 말뚝치의 정비

□ 서버 교체로 인한 말뚝치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 향상

작년 사업의 KOHICO 사용자 경험(UX) 중 KOHICO 사이트 자체의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립국어원의 지원으로 서버를 대여하여 기존의 서버보다 고사양으로 교체를 하였다. 인터넷은 KOHICO 서버만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을 하여 다른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간섭을 최소화하였다.⁸⁾

그 밖에 KOHICO의 FTP 서버와 깃썩새를 연동하여 집필자들이 깃썩새를 이용할 때마다 KOHICO의 전체 말뚝치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새로 업데이트된 파일만 자동으로 다운받게 하여 깃썩새 이용 시 다운로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속도 저하 문제도 최소화하였다. 아래는 새로 교체한 KOHICO의 서버 사양이다.

항목	제품명
NAS서버	시놀로지 DS923+
HDD(16T)	Synology HDD(HAT3300) 8TB × 2개
RAM(32G)	D4ES01-16G × 2개
SSD(1.6T)	읽기/쓰기 캐시용 M.2 SSD(SNV3410-800G) 800GB × 2개
LAN CARD(10Gbps)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E10G22-T1-Mini)
10기가 공유기	티피링크 10G ArcherAXE300
10기가 허브	NEXI 리버네트워크(NX-SX1005)

□ KOHICO를 통한 작업 분배 및 현황 파악

KOHICO 내에 2024년도 말뚝치팀의 작업 안내 페이지와 업무 분담표 페이지를 만들어 보조연구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작업 분량을 분배하였다. 작업 지침은 2023년도 사업의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한영자전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추가 사항이 발생하여 별도의 추가 지침을 보조연구원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그 밖에 보조연구원들이 필요한 자료들을 쉽게 다운받을 수 있게 수집한 자료들을 게시하였다. 아래는 말뚝치팀의 KOHICO 메인 화면 및 작업 분담표 페이지의 화면 일부이다.

8) 애초의 계획은 10기가 인터넷에 가입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서버의 위치가 10기가 인터넷 가입불가 지역으로 그 대안으로 500메가급의 KOHICO만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를 추가 가입하였다. 10기가 인터넷의 보급률이 올라가면 이 부분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국어 어원사전 편찬: 말뚝치팀

▪  [국어 어원사전 편찬 사업]네이버카페

편집

1. 작업 안내

- [작업안내](#)를 클릭해 주세요.
-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확장 마크업 언어\)](#)의 기본 구조
- [\[시\] 2023년 국어 역사자료 말뚝치 정비 작업 지침](#)
- [\[시\] 참고 2018 작업 지침.pdf](#)
- [\[디\] 공통 작업 지침 20230925.hwp](#)
- [\[디\] 연구보조원 안내 자료 20230428.hwp](#)
- [\[시\] 신자전 입력과 관련된 자전류 지침 보완.pdf](#)

편집

2. 연구원 구성

팀	팀장	팀원	소속 대학
1팀	정은영	강현주	경상대
		김준수	서울시립대
		정윤희	대구가톨릭대
		이찬식	대구가톨릭대
		김형진	대구가톨릭대
2팀	오민석	김진희(간사)	고려대
		배은혜	경북대
		강은진	전남대
		이광숙	서울시립대
		오필애	제주대

편집

편집

3. xml 형식별 예제 파일

- [언해류 입력 양식^{1\)}](#)([\[디\] hwp버전_언해류_xml_샘플파일](#) || [\[텍스트\] txt버전_언해류_xml_샘플파일](#))
- [산문류 입력 양식^{2\)}](#)([\[디\] hwp버전_산문류_xml_샘플파일](#) || [\[텍스트\] txt버전_산문류_xml_샘플파일](#))
- [언간류 입력 양식^{3\)}](#)([\[디\] hwp버전_언간류_xml_샘플파일](#) || [\[텍스트\] txt버전_언간류_xml_샘플파일](#))
- [자서류 입력 양식^{4\)}](#)([\[디\] hwp버전_자서류_xml_샘플파일](#) || [\[텍스트\] txt버전_자서류_xml_샘플파일](#))

편집

4. 업무 분담표

-  [작업 분배 구글 시트](#)
- [작업 분담표](#)
- [\[시\] 한영자전 정비 작업 지침](#)
- [\[시\] 한영자전 영인본 PDF](#)
- [\[시\] 한영자전_국립중앙도서관본 영인본 pdf](#)

편집

2024년 말뚝치팀의 KOHICO 메인 화면

작업분담표

8월 작업 일정표

⑤ 연간 작업 통합파일(txt파일형 파일, hwp 파일형 파일, image 일부)

Filter:

파일명	간행연도	문헌명	팀	담당자	6월 작업 분량	검수
17c-18c_연진송씨가송준길가선세인 독연간	17c-18c	연진송씨가송준길가선세인독연간	1팀	정원호	✓ [✓ 정원호, 2024-08-31] 완료	✓ [✓ 오민석, 2024-11-24] 완료
17c-18c_연진송씨동촌당송준길가연 간	17c-18c	연진송씨동촌당송준길가연간	1팀	정원호	✓ [✓ 정원호, 2024-08-31] 완료	✓ [✓ 오민석, 2024-11-24] 완료
17c_나주임씨가송임공수국내간연간	17c	나주임씨가송임공수국내간연간	1팀	정원호	✓ [✓ 정원호, 2024-08-31] 완료	✓ [✓ 오민석, 2024-11-24] 완료
17c_나주임씨가임항계선생목보국지 내간연간	17c	나주임씨가임항계선생목보국지내간연간	1팀	정원호	✓ [✓ 정원호, 2024-08-31] 완료	✓ [✓ 오민석, 2024-11-24] 완료
18c-19c_신정맹씨가자손보전소재연 간	18c-19c	신정맹씨가자손보전소재연간	1팀	강연주	✓ [✓ 정원호, 2024-08-31] 완료	✓ [✓ 오민석, 2024-11-24] 완료
19c_순원왕후어필봉서연간	19c	순원왕후어필봉서연간	1팀	김준수	✓ [✓ 정원호, 2024-08-31] 완료	✓ [✓ 오민석, 2024-11-24] 완료
17c_해주오씨오대주가이별소재명안 공주권연연간	17c	해주오씨오대주가이별소재명안공주권연연간	1팀	김준수	✓ [✓ 정원호, 2024-08-31] 완료	✓ [✓ 오민석, 2024-11-24] 완료
17c-19c_고령박씨가선세인작연간	17c-19c	고령박씨가선세인작연간	1팀	강현주	✓ [✓ 정원호, 2024-08-31] 완료	✓ [✓ 오민석, 2024-11-24] 완료
19c중반-20c초반_소월선비서봉서소 재연간	19c중반-20c초반	소월선비서봉서소재연간	1팀	김준수	✓ [✓ 정원호, 2024-08-31] 완료	✓ [✓ 오민석, 2024-11-24] 완료
19c_순원왕후어필연간	19c	순원왕후어필연간	1팀	강현주	✓ [✓ 정원호, 2024-08-31] 완료	✓ [✓ 오민석, 2024-11-24] 완료
19c_여흥민씨민영소가명성행후궁녀 연간	19c	여흥민씨민영소가명성행후궁녀연간	1팀	김준수	✓ [✓ 정원호, 2024-08-31] 완료	✓ [✓ 오민석, 2024-11-24] 완료
1914_추천명월	1914	추천명월	1팀	김영진	✓ [✓ 정원호, 2024-08-31] 완료	✓ [✓ 오민석, 2024-11-24] 완료
1910_자유총	1910	자유총	2팀	김진희	✓ [✓ 오민석, 2024-08-30] 완료	✓ [✓ 오민석, 2024-11-24] 완료
1914_글강본(101-184)	1914	글강본(101-184)	2팀	배은혜	✓ [✓ 오민석, 2024-08-31] 완료	✓ [✓ 오민석, 2024-11-24] 완료
1913_금의정선	1913	금의정선	2팀	정안진	✓ [✓ 오민석, 2024-08-31] 완료	✓ [✓ 오민석, 2024-11-24] 완료
1914_글강본(1-100)	1914	글강본(1-100)	2팀	이광숙	✓ [✓ 오민석, 2024-08-29] 완료	✓ [✓ 오민석, 2024-11-24] 완료
1912_황금함	1912	황금함	2팀	오필애	✓ [✓ 오민석, 2024-08-29] 완료	✓ [✓ 오민석, 2024-11-24] 완료
1778_숙명의록연해_1	1778	숙명의록연해_1	2팀	강은진	✓ [✓ 오민석, 2024-11-05] 완료	✓ [✓ 오민석, 2024-11-05] 완료
1778_숙명의록연해_2	1778	숙명의록연해_2	2팀	강은진	✓ [✓ 오민석, 2024-11-05] 완료	✓ [✓ 오민석, 2024-11-05] 완료

편집

6월 작업 일정표

⑤ 산소본_작업_통합파일(txt,hwp,image,일부자료)

Filter:

파일명	간행연도	문헌명	팀	담당자	6월 작업 분량	검수
1907_귀의성_상	1907	귀의성_상	1팀	강연주	✓ [✓ 오민석, 2024-07-13] 완료	✓ [✓ 오민석, 2024-11-24] 완료
1908_귀의성_하	1908	귀의성_하	1팀	김준수	✓ [✓ 오민석, 2024-07-13] 완료	✓ [✓ 오민석, 2024-11-24] 완료
1908_설종매	1908	설종매	1팀	정원호	✓ [✓ 오민석, 2024-07-13] 완료	✓ [✓ 오민석, 2024-11-24] 완료
1914_인의성	1914	인의성	1팀	이진석	✓ [✓ 오민석, 2024-07-13] 완료	✓ [✓ 오민석, 2024-11-24] 완료
1908_금수회의록	1908	금수회의록	1팀	김영진	✓ [✓ 오민석, 2024-07-13] 완료	✓ [✓ 오민석, 2024-11-24] 완료
1908_혈의누	1908	혈의누	1팀	김영진	✓ [✓ 오민석, 2024-07-13] 완료	✓ [✓ 오민석, 2024-11-24] 완료
1908_은세계	1908	은세계	2팀	김진희	✓ [✓ 오민석, 2024-07-07] 완료	✓ [✓ 오민석, 2024-11-24] 완료
1911_치악산_하	1911	치악산_하	2팀	배은혜	✓ [✓ 오민석, 2024-07-07] 완료	✓ [✓ 오민석, 2024-11-24] 완료
1908_치악산_상	1908	치악산_상	2팀	강은진	✓ [✓ 오민석, 2024-07-07] 완료	✓ [✓ 오민석, 2024-11-24] 완료
1907_애국부인전	1907	애국부인전	2팀	이광숙	✓ [✓ 오민석, 2024-06-15] 완료	✓ [✓ 오민석, 2024-11-24] 완료
1912_추월색	1912	추월색	2팀	이광숙	✓ [✓ 오민석, 2024-06-24] 완료	✓ [✓ 오민석, 2024-11-24] 완료
1911_모란봉	1911	모란봉	2팀	오필애	✓ [✓ 오민석, 2024-06-25] 완료	✓ [✓ 오민석, 2024-11-24] 완료

편집

2024년 말뭉치팀 작업 배정 및 현황 관리 화면

□ KOHICO를 이용한 미정비 말뚝치의 정비 과정

먼저 2023년 사업과 동일하게 KOHICO 관리자가 XML 태그를 부착하는 형식적 정비를 중심으로 1차 밑작업을 진행하고 나서 KOHICO의 작업 분담표 페이지에 업로드 하였다. 다음으로 1차 정비된 말뚝치를 보조연구원이 다운받은 후 내용적 정비를 마친 후 재업로드하면 공동연구원이 최종 검수하여 완료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다.

신규 말뚝치의 정비 과정(예: 신소설 『귀의성』 상권의 일부)

문장 단위로 분리, 미일련된 태그 내용 보충, 영인본 확인 후 내용 교정, 주석 추가

```
<pages n="1">
<img n="1">https://kohico.kr/_media/image/1907_귀의성_상/001.jpg</img>
<sent type="title" lang="kor" page="1" n="1">귀의성의 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2">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3">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4">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5">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6">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7">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8">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9">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10">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11">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12">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13">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14">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15">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16">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17">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18">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19">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20">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21">황</sent>
</pages>
```

1차로 KOHICO의 자이 보기 기능으로 정비 내용 점검, 2차로 필요에 따라 영인본 대조 검수

영인본	KOHICO
59: https://kohico.kr/_media/image/1907_귀의성_상/001.jpg <sent type="title" lang="kor" page="1" n="1">귀의성의 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2">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3">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4">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5">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6">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7">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8">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9">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10">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11">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12">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13">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14">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15">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16">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17">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18">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19">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20">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21">황</sent> </sent>	86: https://kohico.kr/_media/image/1907_귀의성_상/001.jpg <sent type="title" lang="kor" page="1" n="1">귀의성의 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2">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3">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4">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5">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6">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7">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8">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9">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10">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11">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12">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13">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14">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15">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16">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17">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18">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19">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20">황</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 n="21">황</sent> </sent>

미정비 말뚝치의 정비

□ 미정비 말뭉치의 실시간 업데이트와 집필팀의 이용

2023년 사업까지 말뭉치의 정비 작업은 형식 정비와 내용 정비가 모두 완료되기 전까지 집필팀에서 이용할 수 없었다. 반면 올해 사업에는 깜짝새에 XML 자동 변환 기능이 탑재되어 XML 구조의 형식을 갖춘 말뭉치라면 내용 정비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기정비 말뭉치와 동일하게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23년 사업에서 집필팀이 이용해 온 비정형 신소설 말뭉치에 대한 이용 요구가 올해에도 있었기에 말뭉치팀에서는 집필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XML 구조의 정형 데이터로 형식만 변환한 1차 밑작업 신소설 말뭉치를 KOHICO 서버에 올려 깜짝새 검색이 가능하게 하였다. 다만 말뭉치의 오류가 많을 것을 염려해 신소설 말뭉치의 오류를 보완할 수 있게 영인본 이미지를 연동시켜 집필자가 검토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말뭉치팀은 내용 정비 작업을 진행하였고,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1차 밑작업 말뭉치를 신규 말뭉치로 KOHICO에 업데이트하였고, 집필팀은 업데이트 즉시 신규 말뭉치를 검색에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sent: type="theme"·page="01a"·n="1">孝子圖</sent>¶
 <sent: lang="chi"·page="01a"·n="2">王中。登封人。</sent>¶
 <sent: lang="kor"·page="01a"·n="2">왕둥이논·
 등봉 사르미라 지비 녀름지이·하고 그를 모로디·
 성이·꺄장 효도롭더니·어미·죽거늘·삼년·시묘하야·덜옷·
 낚고·나날·죽·머그며·아침·나죄·울오·제하며·머리·비시와·옷·
 꺄라·낚디·아니터라·무덤·겨뒤·물·업서·우므를·네·길·나마·뜨되·
 므리·업거늘·우므를·훑도라·절하야·하늘씩·불러·빈대·므리·
 소사나거늘·모을히·호디·효성으로·그러타·하더라·
 홍무 저긔·홍문·세니라</sent>¶
 <sent: lang="chi"·page="01a"·n="3">家業農。未嘗知書。性至孝。</sent>¶
 <sent: lang="kor"·page="01a"·n="3"></sent>¶
 <sent: lang="chi"·page="01a"·n="4">母歿。廬墓三年。</sent>¶
 <sent: lang="kor"·page="01a"·n="4"></sent>¶
 <sent: lang="chi"·page="01a"·n="5">身被衰麻。日食飢粥。旦夕哭
 奠。未嘗櫛髮易衣。</s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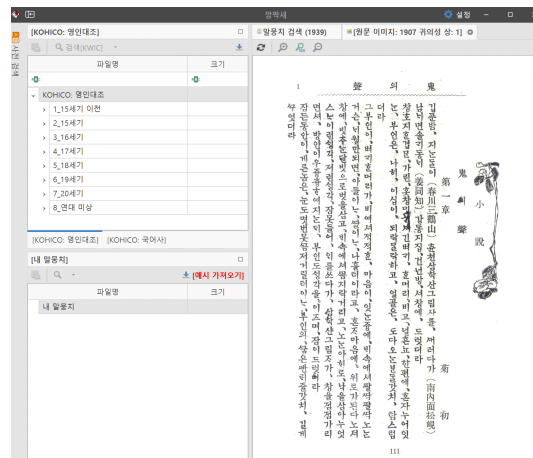
분할 작업이 필요한 기증말뭉치(속삼강행실도)

3.2.3. 말뭉치와 영인 자료 연동에 관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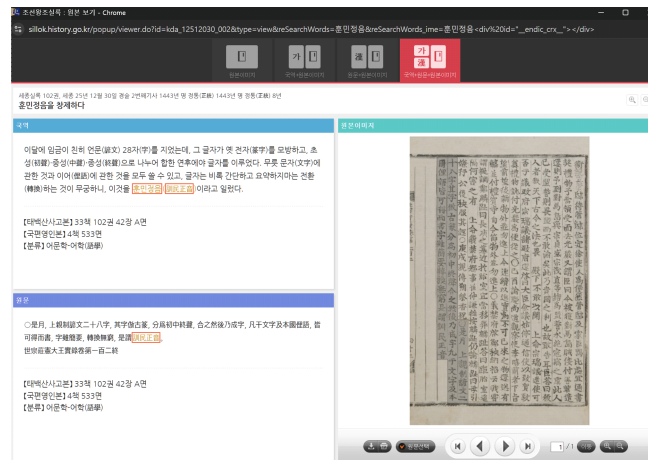
신소설 1차 밑작업 말뭉치를 영인 자료와 함께 집필팀이 이용하면서 영인 자료와 말뭉치의 연동 작업에 대한 집필팀의 요청이 있었다. 말뭉치와 영인 자료 연동 작업은 말뭉치 활용의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말뭉치 정비 작업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 사업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을 고려하면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말뭉치와 영인 자료 연동 작업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 기술적인 측면: 조선왕조실록의 이미지 연동 방식 고려

아래는 깜짝새와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의 이미지 연동 화면을 나란히 제시한 것이다. 현재의 깜짝새는 연동한 이미지의 확대·축소 기능만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한국어 역사 자료 말뭉치의 영인 이미지 연동도 조선왕조실록에서 사용한 여러 편의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추가될 필요가 있다.



깜짝새의 이미지 연동 화면



조선왕조실록의 이미지 연동 화면

- 원문선택 기능: 말뭉치의 내용이 이미지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음영으로 표시해 주는 기능으로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 역사 말뭉치 검색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일반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으로 생각된다.
- 쪽 넘김 기능: 한국어 역사 자료 말뭉치는 내용 중심으로 단락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이나 절이 영인 자료의 2쪽에 걸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이 경우 쪽 넘김 기능이 있어야 2쪽에 걸친 영인 자료의 검토가 가능하다. 현재 깜짝새에는 없는 기능으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 다양한 원본 이미지 보기 방식: 말뭉치와 이미지를 비교·검토하려면 한 화면을 분할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현재 깜짝새에는 말뭉치와 이미지를 동시에 분할 화면으로 보여주는 기능이 없으므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 자료의 수집 및 조사 측면

말뭉치 정비 작업 시 영인 자료를 참고하여 정비를 해 왔으므로 지금까지 구축된

말뭉치의 자료 수집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국립국어원에서 향후 조선왕조실록과 유사하게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말뭉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정비 작업에 이용한 이미지가 선본 자료인지, 고품질 이미지인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수집한 자료의 이용에 관한 권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기관이나 개인에 맞게 협조를 의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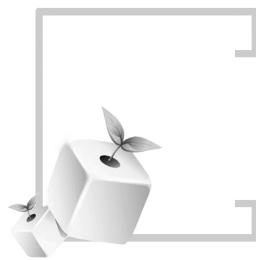
- 현재 수집된 영인 목록 작성
- 수집된 영인의 선본 및 품질 상태 점검
- 미수집된 영인의 목록 작성 및 기관 내지 개인에 의뢰해 추가 확보
- 수집된 영인 중 선본이 아니거나 품질이 낮은 경우 선본의 고품질 자료 추가 확보

□ 말뭉치 연동의 측면

현재 미정비 말뭉치의 정비 작업은 이미지 연동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집필팀의 깜짝새 이용을 통해서 이미지 연동이 어휘 사전 집필에 미치는 긍정적인 점을 확인하였으므로 이후 기구축 말뭉치의 경우 이미지 연동을 위한 XML 구조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수집된 영인 자료의 경우 PDF, JPEG, PNG 등 다양한 형식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 확보 시 형식 통일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PDF 파일은 대체로 권 단위의 여러 이미지가 한 파일로 저장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페이지별로 이미지를 분할하는 추가 작업이 있어야 말뭉치의 각 페이지와의 연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 영인 자료의 페이지별 파일 분할 작업
- 분할된 페이지별로 이미지 파일명의 형식 통일(DB방식에 따름)
- 말뭉치에서 페이지별 태그 추가 작업
- 향후 다양한 편의 기능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말뭉치의 XML 구조 개선 작업



제 4 장

차자표기팀



제4장에서는 2024년에 처음 시작한 차자표기 어휘 목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과 어원사전 내 차자표기 정보 기술을 위한 집필지침 초안 및 시범 집필 등에 대해 기술하도록 한다.

4.1. 차자표기팀 작업 개요

2023년 국어 어원사전 편찬 사업 결과 한글 창제 이전에 차자표기로 기록된 국어 어휘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목록 작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24년 사업에서는 장경준(고려대) 팀장을 중심으로 김지오(동국대), 문현수(인하대), 이용(서울시립대), 허인영(인하대) 공동연구원과 진윤정(고려대), 전한솔(서울대) 보조연구원 총 7명의 차자표기 전문가로 구성된 <차자표기팀>을 새로 구성하였다. ‘차자표기팀’에서는 차자표기 어휘 목록을 만들고, 관련 뜻과 예문에 관한 정보를 추가해 차자표기 어휘 데이터베이스를 새롭게 구축하였다. 또한 차후에 어원사전 내 차자표기 정보가 추가될 수 있도록 차자표기 정보의 집필지침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훈민정음 창제 이전 시기 어휘의 형태적, 의미적 변화 과정을 폭넓게 관찰하여 우리말 어휘에 대한 역사적 정보, 어원에 대한 정보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번 사업에서 차자표기팀이 목표로 삼은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한글 창제 이전에 차자로 기록된 어휘 목록을 최대한 많이 수집한다.

□ [대상]

- 이두, 향찰, 구결, 목간, 향약명, 어휘 전사 자료 등 차자표기 어휘

□ [방법]

- 1차 문헌을 통한 직접적인 어휘 추출
-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한 간접적인 어휘 추출
- 2023년 구축 어원 데이터베이스에서 차자표기 관련 내용 추출
(차자표기 어휘 추출 대상 자료는 4.2.에서 상술)

둘째, 표제어들에 대해 비전공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 [제공된 정보]

- 표제어를 정자체로 변환
(이체자·통용자 등 낫선 한자를 익숙한 정자체로 바꾸어 제시)
- 차자로 표기된 고대 어휘들의 ‘음(읽는 방법)’과 ‘뜻(관련 현대어)’ 정보 제공
- 어휘가 출현하는 ‘예문’뿐만 아니라 예문의 ‘현대어 번역’까지 제시

- 해독과 판독 및 선행 연구에서 쟁점이 된 사항들도 간략히 정리

셋째, 차자표기의 특성상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표기로 출현하기도 한다.

이런 이표기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뭉어서 제공한다.

□ 예시

한자표기	한글독음	추정독음	관련현대어	품사	이표기
伽倻	가야	가야	가야	명사	
伽耶國	가야국	가야국	가야	명사	
加羅	가라	가라	가야	명사	
加羅國	가라국	가라국	가야	명사	呵囉國 (삼국유사)
駕洛	가락	가락/가라	가야	명사	
伽落國	가락국	가락국/가라국	가야	명사	駕洛國 (삼국유사)
加良	가랑	가라/가야	가야	명사	

넷째, 기존 어원사전 정보와 연결되도록 차자표기 어휘 목록과 기존 표제항 어휘를 대응시킨다.

□ 예시

한자표기	한글독음	추정독음	관련현대어	표제어관련항
冢稀	가희	가희	개003	개003, 갈아지001
冢獐	가희	가희	개	개003, 갈아지001
各	각	저의아곰	각기	각각, 각기, 제각기,
覺	각	?	깨달다	깨달다001
覺	각	ㅅㅈㅅㅈㅈㅈㅈㅈ	깨달다	깨달다001
角	각	각		뿔001
角	각/셔발/셔	ㅅㅈㅈㅈㅈㅈ	뿔	뿔001
各_良尔	각량곰	제아곰	각각	각각, 각기, 제각기,
各_衣各_衣	각의각의량	식식아곰	각각	각각, 각기, 제각기,
各_衣各_衣	각의각의소	식식곰	각각	각각, 각기, 제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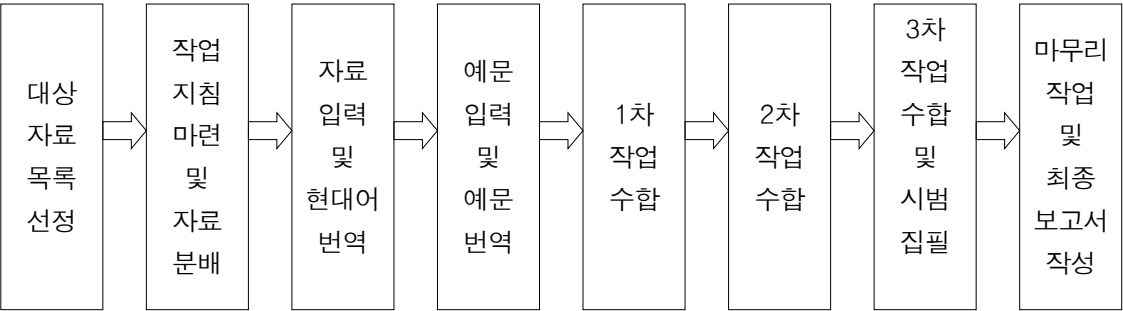
다섯째, 시범 집필을 통해 차후 진행될 어원사전 내 차자표기 어휘 집필지침을 마련한다.

- 차자표기 항목 집필지침 및 집필 예시는 4.5.와 4.6.에서 상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8단계로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언제/어떻게 진행되었

는지 도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차자표기 자료 구축 작업 내용과 작업 방법은 4.3.에서 상술)

□ 작업 과정



□ 작업 일정과 기간

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차자 표기 어휘 DB	1차 회의 진행 (3.29)	목록 추출 \ 거시 작업 지침 마련	목록 점검 \ 미시 작업 지침 마련	추출 어휘 현대어 번역	예문 입력 \ 예문 번역	중간 보고	1차 작업 수합	2차 작업 수합	3차 작업 수합 \ 시범 집필	마무리 작업 \ 최종 보고서

위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차자표기 어휘 4,350여 항목이 수집되고 집필지침 초안과 시범 집필이 이루어졌다. (차자표기 관련 어휘 목록은 ‘4.4.’와 ‘부록2’에서 상술)

4.2. 차자표기 어휘 추출 대상 자료

차자표기 어휘를 수집하기 위해서 고대부터 15세기까지로 시기를 한정하고 주요 어휘집, 고대국어 사전, 연구서의 어휘 부록, 연구 논문 등의 자료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15세기 이후 자료라도 차자로 표기한 문헌 일부는 포함하였다. 선정한 자료는 총 18종이며 자료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4.2.1. 문헌

- 1) 『삼국유사』 향가 14수
- 2) 『균여전』 향가 11수
- 3)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1541)
 - 원문 참고: 동경대 소장본, 1578년 중간 고려대 소장본
- 4) 『계림유사』(1103)
 - 원문 참고: 최영선(2015), 「鷄林類事의 음운론적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⁹⁾
- 5) 『향약구급방』(고려 고종 연간 추정)
 - 원문 참고: 일본 궁내청 서릉부 소장본. 『국역 향약구급방』(이경록 2018, 연세의학사총서 7, 역사공간)의 영인본¹⁰⁾
- 6) 『향약집성방』(1433)
 - 원문 참고: 고마자와대학 소장본. 청구번호: 濯足/816-27~30
- 7) 『향약채취월령』(1431)
 - 원문 참고: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 1722년 전사본. 청구번호: 特1-2151
- 8) 『조선관역어』(15세기)
 - 원문 참고: 강신항(1994), 『조선관역어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4.2.2. 연구 서적 및 논문

- 1) 송기중·남풍현·김영진 공편(1994), 『고대국어어휘집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2) 권인한(2016), 「제1편 제4장 어휘」, 『신라의 언어와 문학』,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3) 김무림(2004), 『국어의 역사』 부록, 한국문화사.
- 4) 윤재석 편저(2022), 『한국목간총람』, 주류성출판사.
- 5) 이병기(2014), 「구결 자료의 어휘」, 『구결연구』 33, 구결학회.
- 6) 박성종(1998), 「고대 국어 어휘」,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립국어연구원.

4.2.3. 사전류

- 1) 남풍현·이건식·오창명·이용·박용식 편(2020), 『吏讀辭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 2) 황선엽 외(2009), 『석독구결사전』, 박문사.

4.2.4. 기타 연구실적물

9) 『계림유사』는 이본 간 차이가 크고 오자도 많아 최영선(2015)에 실린 교감본을 참고하여 입력하였다.

10) 영인본의 판독이 쉽지 않아 선행연구 논저들을 참고하여 입력하였다.

① 남풍현(1981), 借字表記法 研究: 鄉藥救急方의 鄉名表記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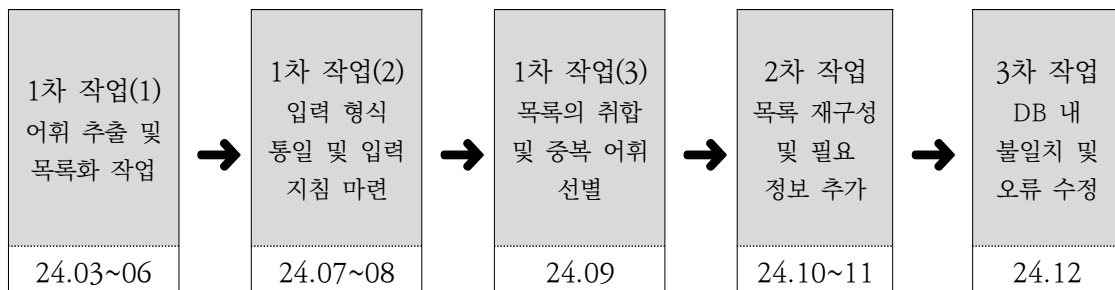
② 이은규(1993), 『鄉藥救急方』의 國語學的 研究. 효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③ 이경록(2018), 국역 향약구급방 (연세의학사총서 7). 역사공간

- 1) 2023년도 어원사전편찬사업 결과물 <어원관련논저DB>
- 2) 권인한(2023), 『동대사화엄경 각필자료집』, 미간행

4.3. 차자표기 자료 구축 작업

차자표기 자료 구축은 1차, 2차, 3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작업은 자료 선정부터 차자표기 어휘의 추출 및 입력 지침 마련, 목록의 수정·취합, 중복 어휘의 선별 등으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2차 작업은 향후 사전 집필을 위해 목록을 재구성하고 사전 집필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작업은 여러 작업자가 목록을 거듭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일치나 오류 등의 문제를 검토하여 자료의 일관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4.3.1. 1차 작업

어휘 추출 작업은 각 자료의 담당자를 정하고 입력 내용 및 형식을 통일한 뒤 진행되었다. 자료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입력자 개인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목록들을 하나로 취합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공통된 작업 지침을 마련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수정·보완하였다. 합의된 공통 작업 지침은 아래와 같다.

4.3.1.1. 차자표기 어휘 추출 작업 지침

- 1) 차자표기 어휘 추출 대상 자료의 정보는 엑셀을 활용하여 대부분 공통된 일러두기의 원칙에 따라 입력한다. 다만 자료의 특성에 따라 공통 일러두기를 따를 수 없거나 세칙이 많은 경우에는 따로 부록으로 실는다.
- 2) 입력은 기본적으로 차자표기로 된 어휘를 대상으로 하고, 명백한 한자어와 고유명

사(인명, 지명, 서명, 곡(曲)명, 사찰명 등), 문법 형태는 제외한다. 다만 국호나 관직명은 한자어와 차자표기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을 고려하여 수록하고, 그 외 고유어와 한자어의 경계가 불분명한 어휘, 한국 고유 한자어라 판단되는 어휘, 입력자의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등도 포함한다.

※ 참고

·〈이두사전〉: ‘보조사’ 포함함

·〈우역방〉: 한자, 차자표기, 한글이 모두 표기된 어휘만 추출함.

·〈목간 자료〉: ‘수사’의 경우 “미륵사지(彌勒寺址) 목간(木簡)에서 찾은 고대어(古代語) 수사(數詞)”(이승재, 2011, 『국어학』 62, 3-44) 참고함.

3) 원칙적으로 추출 대상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한다.

다만 자료에 내용이 없을 때는 입력자의 판단에 따라 내용을 채울 수 있으며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 ■, □ 등의 기호로 표시한다.

4) 입력 형식 및 각 항목의 세부 입력 지침은 아래와 같다.

①일련번호-②유형-③목록출처-④한자표기-⑤한글독음-⑥추정독음-⑦관련현대어-⑧품사-⑨나라-⑩출전-⑪예문1-⑫번역1-⑬예문2-⑭번역2-⑮예문3-⑯번역3-⑰비고1-(⑱비고2-⑲비고3…)

(1) “유형”은 이두, 구결, 향찰, 기타, 목간, 조선관역어로 나눈다.

(2) “목록출처”는 어휘 목록의 출처이다. 이미 목록화된 자료를 참고한 경우에는 해당 선행연구를 출처로 기입하고, 문헌이나 연구 서적을 대상으로 직접 목록화 작업을 한 경우에는 입력자를 출처로 기입한다. ㉠ 장경준(2024), 김지오(2024) 등

(3) “한자표기”는 자료에 제시된 어휘 형태로 표제항에 해당한다.

① 표제항은 정자(正字)로 표기한다. 원본에 약자(略字) 또는 이체자(異體字)로 되어 있으면 정자로 바꾸어 입력하고 원본의 표기는 비고란에 적는다.

㉠ 원본에 ‘辭叱’로 되어 있다면 표제항에는 ‘辭叱’로 입력하고 원본의 자형은 비고란으로 옮겨 적는다.

② 표제항에는 교감(校勘)한 글자를 입력한다. 원본의 표기는 비고란에 적는다.

③ 구결의 경우 표제항에는 원 글자를 입력하고 구결자는 비고란에 적는다.

㉠ 未_冬(표제항) : 未_ (비고란)

④ 표제항에는 ‘()’, ‘_’, ‘□’의 기호만 사용한다.

‘()’: 어휘의 경계를 정하기 어려울 때 사용함 ㉠ 七史(伊) : ‘사이’로 추정되는 차자표기 어휘로, 어형이 ‘七史’인지 ‘伊’를 포함한 ‘七史伊’인지 불분명한 경우임

‘_’: <구결> 자료에서 말음첨기, 전훈독표기 등에서 사용함 ㉠ 一切_尸, 還_乎 등

‘□’: 판독이 어려울 때 사용함

⑤ 같은 단어의 표기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 따로 입력한다. ㉮ 使丁, 私音丁, 私亦

4) “한글독음”은 한자표기에 대한 현대 한자음이다. 현대 한자음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기호로 표시한다.

5) “추정독음”은 해당 어휘의 당대(當代) 추정되는 독음이다. 기본적으로 자료에 제시된 것을 그대로 입력하지만 필요한 경우 수정한다.

자료에 추정 독음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입력자의 판단에 따라 입력하고, 추정이 어려운 경우 빈칸으로 남겨두거나 “?”로 표시한다. 추정독음을 한 가지로만 규정할 수 없을 때는 ‘/’를 사용해 병기한다.

※ 참고

·〈목간 자료〉: 『훈몽자회』, 『신증유합』, 『천자문』 등의 저서에서 이른 시기에 표기된 것을 우선적으로 반영함.

·〈계림유사〉: 최영선(2015), 鷄林類事의 음운론적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참고하여 입력함.

·〈향명 자료〉: 각종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입력함(부록1-VI 참조)

6) “관련 현대어”는 기본적으로 자료에 제시된 것을 그대로 입력하지만 기존 자료에 관련 내용이 없으면 입력자의 판단에 따라 입력한다.

※ 참고

·〈계림유사〉: 필요한 경우 연구자가 형태소 분석을 입력함.

7) “품사”는 입력자의 판단에 따라 입력한다.

8) “나라”는 기본적으로 자료에 제시된 내용을 따르되 입력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한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빈칸으로 두거나 문헌의 연대를 근거로 입력한다.

※ 참고

·〈목간 자료〉: 저서의 구분에 따라 ‘신라’, ‘백제’, ‘고구려’, ‘통일신라’로 나눔.

9) “출전”은 해당 어휘가 출현한 문헌 정보이다.

10) “예문”과 “번역”은 3개씩 제시한다. 이른 시대순으로 의미 파악이 쉽고 명료한 예문을 위주로 제시한다.

※ 참고

·〈고대국어어휘집성〉, 〈신라의어휘〉, 〈목간〉, 〈어원관련논저DB〉, 〈향명입력자료〉, 〈조선관역어〉는 예문과 번역이 없음.

11) “비고란” 내용

자료명	비고1	비고2	비고3
01_고대국어어휘집성(1994)	빈도	담당자메모	-
02_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1541)	원본 출처	담당자메모	-
03_신라의어휘(2016)	출처 쪽수	권인한(2016)의 기술내용	-
04_동대사화엄경(2023)	담당자메모	-	-
05_김무림(2004)	관련어와 주석 등	-	-
06_이병기(2014), 박성중(1998), 황선 엽외(2009)	구결자표기	담당자메모	-
07_삼국유사 향가 어휘	빈도	표제항 관련 메 모	예문 관련 메모
08_균여전 향가 어휘	빈도	표제항 관련 메 모	예문 관련 메모
09_이두사전(2020)	이두학습서 독음	담당자메모	-
10_한국목간총람(2022)	담당자메모	-	-
11_어원관련논저DB(23년 어원사업)	※참고		
12_계림유사(1103)	선행연구내용	-	-
13_향명입력자료 -향약구급방, 향약집성방, 향약채취월령	당명	담당자메모	-
14_조선관역어(15세기)	※참고		

※ 참고

·11_어원관련논저DB(23년 어원사전): 비고1(표제어)-비고2(검색형)-비고3(원어)-비고4(설명)-비고5(관련어)-비고6(키워드)-비고7(출처)-비고8(담당자메모). 기존 자료의 내용을 참고하고자 비고란에 덧붙여 나열한 것이다.

·14_조선관역어: 비고1(한자)-비고2(한자음음사)-비고3(대응한자음1)-비고4(대응한자음2)-비고5(분류)

자료별 담당자 및 추출 어휘 항목 개수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자료명	어휘 항목 개수	담당자
01_고대국어어휘집성(1994)	1,720	장경준
02_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1541)	20	
03_신라의어휘(2016)	237	

04_동대사화엄경(2023)	43	
05_김무림(2004)	177	문현수
06_이병기(2014),박성종(1998),황선엽 외(2009)	407	문현수·허인영
07_삼국유사 향가 어휘	240	김지오
08_균여전 향가 어휘	183	
09_이두사전(2020)	307	이용
10_한국목간총람(2022)	49	
11_어원관련논저DB(23년 어원사업 결과물)	680	전한솔·진윤정
12_계림유사(1103)	370	전한솔
13_향명입력자료: 향약구급방, 향약집성방, 향약채취월령	672	
14_조선관역어(15세기)	596	이용
총 5,701		

4.3.1.2. 1차 목록 번호 부여 및 중복 어휘 선별

14개의 입력 파일을 하나로 합치기 전에 먼저 각 파일 번호를 앞에 덧붙여 고유번호를 생성하였다. 고유번호는 해당 어휘의 주소와 같은 성격으로, 이후 목적에 따라 목록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구성이 바뀌더라도 본래의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예 01-0001, 02-0001, 03-0001 … 14-0001).

또한 2차 목록 작업을 위해 1차 목록 번호를 추가하였다. 고유번호 오른쪽에 ‘1차 목록번호’열을 추가하고 자료의 유형과 작업자에 따라 분류하여 번호를 부여하였다(예 A1-0001, A2-0001, A3-0001, B-0001, C-0001). ‘A’는 ‘구결 및 기타 어휘’, ‘B’는 ‘조선관역어·목간·이두 어휘’(작업자 진윤정), ‘C’는 ‘향찰 어휘’(작업자 김지오)이다. ‘A1(문현수), A2(전한솔), A3(허인영)’의 숫자는 작업자에 따라 분류된 번호이다.

전체 목록을 한자음과 품사를 기준으로 정렬하여 중복 어휘를 선별하였다. 동일 어휘로 판단된 항목은 같은 대번호를 주되 세부 번호로 구분하였다(예 A1-0001-01, A1-0001-02, A1-0001-03 등). 중복 어휘 선별은 표기, 품사, 의미, 시대, 국가 등의 정보가 완전히 일치하는 어휘들에 같은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아래 표 ‘谷’의 예 참고). 즉 이체자 혹은 통용자 관계, 말음첨기의 유무, 표기와 의미는 동일하나 품사가 다른 경우 등은 모두 각각의 번호를 부여하였다. 아래 ‘1차 목록 정리의 예(2)’에서 ‘他-佗’, ‘退是-退伊’의 어휘 항목에 모두 각각의 번호를 부여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1차 목록 정리의 예(1)

고유번호	1차목록번호	유형	목록출처	한자표기	한글독음	추정독음	관련현대어	품사	나라	출전
06-0307	A1-0295-01	기타	박성종(1998)	谷	곡	실	골짜기	명사	신라	삼국사
11-0498	A1-0295-02	기타	어원관련논저DB	谷	곡	실	시내	명사	신라	삼국사
11-0516	A1-0295-03	기타	어원관련논저DB	谷	곡	실	시내	명사	신라	삼국사
05-0019	A1-0295-04	기타	『국어의역사』(2004)	谷	곡	실	실	명사	신라	삼국사

1차 목록 정리의 예(2)

고유번호	1차목록번호	유형	목록출처	한자표기	한글독음	추정독음	관련현대어	품사	나라	출전
03-0106	B-0710-01	이두	권인한(2016)	他	타	녀느	남	명사	통일신라	신라사문서
09-0288	B-0710-02	이두	이두사전(2020)	他	타	녀의; 남의	남	명사	조선/14세기	
09-0289	B-0711	이두	이두사전(2020)	佗	타	녀의; 남의	남	명사	조선/14세기	
09-0290	B-0731	이두	이두사전(2020)	退是	퇴시	을이	물리다. 물리어.	동사	조선/14세기	
09-0291	B-0732	이두	이두사전(2020)	退伊	퇴이	을이	물리다. 물리어.	동사	조선/16세기	

4.3.2. 2차 작업

2차 작업에서는 사전 집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목록을 재구성하였다. 사전 집필에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고 향후 사전 집필에 중요한 ‘목록 내 관련항’, ‘표제어 관련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2차 목록 번호를 부여하고 품사나 비고란 등 기타 항목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2차 작업의 내용 및 세부 지침은 아래와 같다.

1) 품사 재분류

· 명사(수사, 의존명사 포함), 동사(형용사 포함), 부사, 관형사, 조사, 기타로 분류한다.

2) 2차 목록 번호 부여

· 작업 담당자의 성(姓)을 앞에 덧붙여 번호를 부여한다. 예) 김-0001, 김-0002 ...

3) 중복 어휘 판단의 기준 수정

· 1차 작업 때와는 달리 이체자·통용자 관계, 말음첨기 유무 등의 차이도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동일 어휘로 볼 수 있는 경우엔 같은 번호를 부여한다.

· 예를 들어 1차 목록에서 구분했던 ‘一切之’와 ‘一切尸’를 2차 목록에서는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하나의 어휘로 보아 동일한 번호를 부여하였다.

고유번호	1차 목록번호	2차번호	목록출처	목록내 관련항	한자표기	한글독음	관련 현대어	표제어 관련항
06-0384	A3-0238	진-0093	황선엽외(2009)	一切	一切之叱	일체지질		일체001. 다003
04-0030	A3-0236	진-0093	권인한(2023)	一切	一切尸	일절시	일절	일체001. 다003

4) 명백한 한자어 또는 난해어 삭제

- 현재 잘 사용하지 않는 명백한 한자어 또는 난해어는 ‘표제항 삭제’라 기록하고 2차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명백한 한자어일지라도 ‘一切’와 같이 일상적으로 널리 쓰는 한자어는 포함하기로 한다.
- 난해어로 판단되는 것은 향가 어휘가 대부분이나 극소수이고 ‘伊羅(이렇게?)’¹¹⁾, ‘伊底亦(이제?)’¹²⁾ 등의 어휘들이다.

5) 목록 내 관련항 추가

- 목록 내에 해당 어휘와 관련된 어휘를 함께 기록한다. 관련 어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띄어쓰기 없이 마침표(.)를 사용하여 나열한다. 단, 2차 번호가 동일하면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

6) 표제어 관련항 추가 : 사전표제어목록¹³⁾ 검토

- (1) 사전표제어목록에 해당 어휘(현대어형)의 등재 여부를 검토한다. 목록에 있으면 표제어와 의미번호를 기록하고, 없으면 ‘x(소문자)’로 표시한다. 유관 표제어가 둘 이상일 때는 띄어쓰기 없이 마침표(.)로 나열한다.

- (2) 표제항의 의미가 많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의미 하나만 적는다. 의미번호는 우리말샘에 근거하여 001, 002와 같이 세 자리 숫자로 기록한다.

- (3) 목록에는 없지만 ‘우리말샘’에 등재되어 있으면 ‘x#’와 함께 우리말샘 표제어를 기록한다.

예) 고대 인명 접미사 ‘干’ → x#간004

- (4) 해당 어휘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유사한 의미의 표제어가 있다면 그것을 입력한다.

예) 부사 ‘인하여(因 𐏺)’ → 인하다001

11) “伊羅 擬可 行等(이렇게 헤아려 가면)” <隨喜 09>

12) “月下 伊底亦(달이시여 이제)” <願往 01>

13) 사전표제어목록은 2023년도 어원사전편찬사업의 결과물로, ‘우리말샘’을 기준으로 표제어와 의미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5) 해당 어휘의 의미가 일상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그것과 유사하거나 그 의미를 포괄하는 표제어를 입력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쓰는 어휘를 ‘우리말샘’에서 검색하여 함께 입력하되 ‘#’ 부호를 사용한다.

예) 嫁(얼다.성교하다) → 교합001#성교하다001

(6) 해당 어휘가 구 구성일 경우에는 포함된 각 의미를 우리말샘에서 찾아 기록한다.

예) 格悶故論(거문구름) → x#검다001.구름001

7) 비교란 정리

· 여러 내용이 형식의 통일 없이 비교 1부터 9까지 기재되어 있던 것을 세 개의 항목(선행연구, 개별적 특징, 작업자 메모)에 나누어 정리한다. 페이지나 빈도 등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한다.

(1) 선행연구

- 형식: 내용 [서지사항] ; 내용 [서지사항]
- 선행연구가 둘 이상일 경우 세미콜론(:)을 사용해서 구분한다.
- 동일한 선행연구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 목록 번호가 동일하면 중복하여 기재하지 않되, 목록 번호가 다르면 중복하여 기재한다.

(2) 개별적 특징

- “한자 표기와 관련된 정보”를 기록한다. 예) 이체자 정보, 관련된 한어 표기 등
- 조선관역어 입력자료의 비교 내용은 음 정보는 삭제하고 한자표기만 나열한다. 한자 표기 사이엔 마침표(.)를 넣어 구분한다. 아래 표 참고.

1차 목록					→	2차목록	
비교1 (한자)	비교2 (한자음음사)	비교3 (대응한자음1)	비교4 (대응한자음2)	비교5 (분류)		개별적특징	
天	忝	턴	턴	天文門		天.忝.天文門	
日	忍	.실	씸	天文門		日.忍.天文門	
月	臥	.월	윽	天文門		月.臥.天文門	

(3) 작업자 메모: 이전 작업자의 메모와 2차 목록 작업자의 메모를 취합하여 함께 입력한다.

8) 예문 검토

- 중복된 예문은 삭제한다.
- 예문의 길이를 적당하게 조정하고, 번역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한다. 만약 수정이 어렵다면 추후 논의할 수 있도록 “작업자메모”란에 기록한다.

2차 목록의 예

고유번호	1차목록번호	2차번호	목록출처	목록내 관련항	한자표기	한글독 음	추정독음	관련 현대어
09-0219	B-0592	진-0216	이두사전(2020)	的只	的是	적시	마기	확실하다
01-1309	A3-0353	진-0217	『집성』(1994)	赤位大舍	赤位	적위	적위	적위
01-1310	A3-0354	진-0218	『집성』(1994)	赤位	赤位大舍	적위대사	적위대사	적위대사
09-0220	B-0594	진-0219	이두사전(2020)		適音	적음	마춤	마침.
06-0152	A3-0355	진-0220	이병기(2014)		寂靜 兮	적정혜	적정히	고요히
09-0221	B-0593	진-0221	이두사전(2020)	的是	的只	적지	마기	확실함.

표제어관련 항	품사	나라	출전	예문1	번역1
확실하다001	동사	조선/14세기		〈1395 대명률직해 1: 36 L〉後良中 在逃人乙 現捉推問次 前人是沙 爲首是如白佬是臥乎事是良尔 推問爲乎矣 ▶的是◀去等 還依首論, 通計前罪以充後數. 前人之 更良 爲首以 論罪爲 前矣 已決罪數乙 通計後罪良中導良 充數決罪齊	그 뒤에 도망갔던 사람을 잡아 추문하던 차에 전에 잡힌 사람이 바로 수범이라 자백한 일이 있어서 추문하였는데 사실이면, 전에 잡힌 사람을 다시 수범으로 논죄하여 이전에 이미 논죄하여 처벌한 죄의 수량을 동틀어 계산하고, 나중의 죄에 덧붙여 부족한 수를 채워 죄를 처벌한다.
x#적위001	명사-관 직	신라~통일신 라	사기 황룡사 탑		
x	명사-관 직	신라	사기		
마침002	부사	조선/16세기		《1521 父金別給文記》末女億年 情甚可憐乙仍于 ……婢思郎年庚辰等 許給事段 ^ 適音& 高原守以 醉飲時 燒栗啖之 況是閉戶之人以等用良 別給者.	마침 기한 동안 관직을 지내느라 하지 못했으므로
고요히001	부사	고려		<유가12:09-10> 此 1 {於} 寂靜 正思惟 時 能 障導 爲 入 心	이는 고요히 올바르게 사유하는 때에 능히 장애가 되는 것이며,
확실하다001	명사	조선/15세기		《1483 金孝盧司憲府繼後立案》四寸孫 的只去等…….	원인을 제대로 살펴 4촌 손자가 확실하거든

예문2	번역2	예문3	번역3	선행연구	개별적 특징	작업자 메모
《1640-42 審陽狀啓》大君送言于龍將曰轉報本朝之事非吾所知當使講院官員具由狀啓而但此人所控如此衙門自可處置此漢之罪走回及接云主人則萬無可推之路云中則龍將答曰前日診書中人則 的是& 逃還之人接主於永柔而此漢之名與通書者不同.	전일에 업무편지 에 쓴 사람은 확 실히 달아난 사람 으로 영유에서 살 고 있었는데, 이놈 이름은 편지를 전 한 사람과 다르니	《185-1862 各院 通文抄冊》若繫民 基 則院不可奪 的 是& 院基則 民何 敢爭.	삭제	[학습서없음]		
《1525 白元貞妻金氏別給文記》汝矣 母乙 獨女以 難以長養 成雙率居爲如可 女婿亦 適音 & 登科 年多京仕 喜聞生男吐分 不喻.	너의 어머니를 독녀 (獨女)로 어렵게 길러 혼인하고 솔 거(率居)하더 마침 사위가 마침 과거에 급제하여서 여러 해 동안 서 울에서 벼슬살이 를 하였는데	《1640-42 審陽狀 啓》又糧米十餘石 馬載連到伊州而 適音& 世子回還敦 是白乎等以 松山 餘在田米三十一石 十三斗先送于柳廷 益處爲白有餘.	또 쌀 19여 섬을 말에 싣어 연이 이주에 이르렀는데, 마침 세자 께서 돌아 오시게 되 었으므로 송산에	마 잠 《儒 必》, 《吏文, 吏便》, 《儒 必》, 《吏便 》, 《物譜》, 《羅麗》, 《 典律》,		

			아 있는 좁 쌀 31점 13 말 을 먼저 유정 익 에 보냈 으며	朝鮮, 集 成》		
					寂靜 号	
《1585 金堤縣 賣買斜給立案》 奴仇叱道金乙後所生 并以 金康順亦中永永放賣 的只&爲有等以 葉作粘連斜給爲遺.	이준에게 후소생 아울러 자필하여 영영함 방해함이 확 실히	《1655 曹善承 招辭》 處同奴婢等後所生 并以 永久放賣時 矣身段置參證 的只&爲去平 推考分揀施行敎 事.	수대로 반 고 후소생으 (後所生) 영영 로써 함이 방 매 함 일. 확 싣 한	마기《羅麗, 儒 物譜, 吏文, 吏 必, 吏師, 吏 便, 吏方》, 集 이《語錄》, 成 맞 기 《典 律》		

4.3.3. 3차 작업

위의 2차 작업을 통해 정제된 입력 자료를 최종 DB로 묶기 위해 3차 작업을 수행하였다. 3차 작업에서는 이전의 1차와 2차 작업 과정에 총 7명의 작업자가 참여하면서 발생한 작업자별 차이 및 오류를 수정하는 한편, 별도의 항목으로 나뉘었으나 한 어휘의 이표기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을 한데 모으는 등의 통합 작업을 1인(보조연구원 전한솔)이 전담하여 집중적으로 수행하였다.

1) 이표기 항목 집성

- 2차 작업에서 부분적으로 묶인 동일 어휘의 이표기를 전체적으로 묶음.
- 이를 위해 대표적인 표기 하나를 골라 대표항으로 삼고, 나머지 표기는 ‘이표기’란에 분류하였음.
- 대표 표기는 ① 생략 표기가 덜하고, ② 약체자를 덜 썼으며, ③ 시기가 오래되었으며, ④ 더 많은 계통의 자료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순서대로 고려해 선정함.
- ④번 조건까지 검토하고도 대표 표기가 추려지지 않은 경우, 남은 이표기 중에서 임의로 선정하였음.

2) 양식 통일 및 조정

- 연구자마다 다른 양식으로 입력한 사항을 동일 양식으로 변경.

3) 작업 중 누락된 정보 보완

이상의 3차 작업을 거친 결과물은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최종목록 번호	한자 표기	한글 독음	추정 독음	목록내 관련항	표제어 관련항	품사	나라	출전
0001	玉尾乃	옥미내	웅미리	x#옥밀이001		명사	조선	戊辛進饌儀軌
0002	臥那刺	와나랄	오나라	오다001		동사	조선	조선관역어
0003	爲_沙音	위사음	삼	삼다001	0004	동사	고려	석독구결
0004	爲_沙乎	위사호	삼오	삼다001	0003	부사	고려	석독구결

이표기	예문1	번역1	선행연구	개별적 특징
雍尾里 [度支準折], 雄尾里 [서귀영건도 감의궐]			‘雄尾里’는 웅미리’의 한자차용표기이다. 현대국어의 ‘옥밀이’에 대응하는 말로, 새김질에 쓰는 연장을 이른다. 꺾어 구부린 쇠 끝에 도래송곳 날과 같은 날이 있어서 홈 바닥을 밀어 반반하게 깎는 데 쓰인다. 度支準折에선 ‘雍尾里’로, 戊辛進饌儀軌(1848)에선 ‘玉尾乃’로 표기하였다. [오창명·천득열·손희하(2008), 『서귀영건도감의궐』의 철물류 어휘 분석 연구, 건축역사연구 17(3), 한국건축역사학회, 45-60.]	
				[한어] 來 [분류] 通用門
用沙, 爲沙, 由沙, 由三 [석독구결], 爲 [신라이두]	<화엄16:08> 又 光明乙 放ッデセ 華莊嚴ニノヲミ 種種セ 妙華乙 集ッホ 帳 {爲}テ乙	또 光明을 낸다. 꽃 莊嚴이니 하는 것이. 갖가지 묘한 꽃을 모아서 휘장 삼거늘		
爲三乎, 爲平 [석독구결]	<금광07:02-03> 量 無 智慧セ 光明ヲ 三昧ニ 傾動メ可ッ 不 矢ヒ人 能 矢 摧伏ッロ今 無 聞持陀羅尼人 {爲}ノ 本リ入乙 作ッホ 入 故ノ	한량없는 지혜의 광명에 대해 삼매가 傾動할 수 없는 것과 능히 摧伏시킬 이 없는 聞持陀羅尼가 위하여 근본이 되는 까닭으로,		

위 표의 구조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최종목록번호

- 각 항목을 구분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

□ 한자표기

- 대표 표제항의 한자 표기.

□ 한글독음

- 대표 표제항의 한자 표기를 현대 한자음 그대로 읽은 독음.

□ 추정독음

- 대표 표제항의 차자 표기 당시의 어형을 추정하여 수록.

□ 목록내관련항목

- 해당 차자표기 어형과 유관한, 본 목록 내의 차자표기 어형.

□ 표제어관련항

- 해당 차자표기 어형과 유관한 우리말샘 항목.

□ 품사

- ‘명사, 동사, 관형사, 부사, 조사, 기타’로 분류.

□ 나라

• ‘조선, 고려, 신라, 백제, 고구려’ 등과 같이, 해당 어휘가 사용된 자료가 만들어진 나라 이름을 밝힘.

□ 이표기

• 대표 표제항과 동일한 어형의 표기라고 판단되는 차자 표기의 목록.

□ 예문

• 대표 표제항과 이표기가 포함된 예문.

□ 선행연구

• 해당 차자표기 어휘와 관련된 선행 연구 내용을 요약 제시함.

□ 개별적특징

• 이상의 구조에서 밝힐 수 없는 기타의 정보를 수록함. 수록 정보는 아래와 같음.
• [한어] (향약명, 계림유사, 조선관역어의 경우) 차자표기에 대응되는 한어 명칭.
• [분류] 조선관역어에서, 해당 항목이 어떤 분류하에 기록되었는지 밝힘.
• [학습서] 이두 어휘의 경우, 학습서별로 제시된 독법을 밝힘.
• [원표기] 원 자료에는 이체자로 적혀있지만 표제항에 정체자로 변환했을 경우, 원래 표기를 밝힘.

4.4. 차자표기 어휘 잠정 목록

이상의 과정을 통해 잠정적으로 추출한 차자표기 어휘 목록은 다음과 같다.

*利 [木頁]荊 第叱 ~牟羅 ~伐 □□沙只 □人 加 加 嫁 軻 家居有 假軍師 加乃 加乃刃 加達 加德 加羅 加羅國 加羅語 駕洛 伽落國 加良 苛斂誅求 加个五知 加个曹而 加莫金 加母 致 珂門 柯半 嘉俳 珂背 假使_只 加士草 假蘇 假僧兒 伽倻 伽耶國 加耶金 加外左只 加于 嘉優 加隱耳 加乙木 加乙畏 加音草 加邑可乙木實 假耳 加伊宅 家猪 加知奈 佳叱 假叱耳 歌 尺 犬刀次草 加火左只 加火魚 家稀 各 覺 角 角 各_良尔 各_衣各_衣良尔 角干 角浪 脚烏 (伊) 角位 刻耳 各乎 干 間 艱苦亦 干伐浪 杆率 看烟 看翁 干支 蝎 芻乃 渴來 葛文王 葛蟠 處 葛上加乙畏 渴翅 芻只 葛川宮典 渴則寄 坎 監 監 監考 甘文國 甘文小國 敢別色二 監永 興司館 感恩寺成典 感義軍使 敢自直 紺著 甘佐非 甘板麻 甲日 甲折 江 强亦 剛司 江華京 慨 改 皆 皆 盖 蓋 皆_叱 蓋慨 改答 皆理 蓋馬 蓋馬國 丐剝 皆伯 皆崑之吳大 改拚 改衣 介伊日伊 皆知戟幢 皆知戟幢監 皆叱知 開湯 開湯刀 更良 去 居舉松骨 居得 居辣松骨 巨老 駉驪 巨里金 巨末伊 居毛伊 巨勿釘 居伐干支 居斯勿停 居塞蓮 居西干 居兒乎 舉乙金 渠長 居叱 居叱兒乎 居尺 居柒 居柒山國 健 韃吉支 件帶檜 乾馬 建平省 乞 乞 乞林 𠂔吾洞 乞 寢 乞鋪 乞布亦其 乞核薩 檢舉 檢校使 檢校尙書 檢潭 檢湖 檢花 怯仇兒 怯伶口 怯薛丹 格 格 格嫩大 格大論罵 格悶故論 格悶那莫 格悶大左 格悶墨二 格悶必 格以 格自 格自吉迫列 見 遣 𠂔 見_是 見甘介 犬乃里花 牽馬鐵 犬伊那里根 結 結尾 結臥思 結直 結叱加次根 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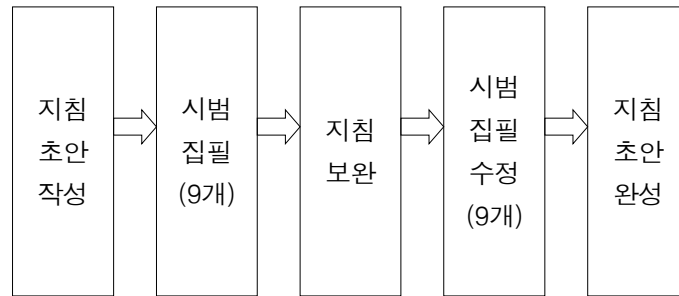
次邑笠根 兼_是 卿 逕 逕 更良 頃_叱 京都驛 經歷 經寫筆師 京城周作典 經心匠 京餘甲 京餘甲幢 京餘甲幢主 京五種幢 京五種幢主 京停 鏡井宮主 經題筆師 敬叱好 經筆師 契 溪 契 券 闕衿 闕衿幢 闕衿大監 闕衿 季奴只 季德 界里審使 雞林 雞林國 桂娥太后 鷄矣碧叱 雞矣十加非 計點使 稽知 戒_是 古 菰 高 故_去 故_叱 高干 庫庫 苦苦妹 告課 古官家典 高句麗 故國原王 故國川王 (중간 생략) 漢菩薩 韓舍 漢山停 漢山州闕幢 漢山州弓尺 漢山州都督 漢山州誓 漢山州少監 汗三 韓相 漢賽 漢城都督 漢城州行軍摠管 漢歲 罕孫 扞率 閑時洞 漢丫祕 汗音 漢吟 漢祗首蓓典 韓粲 罕害 割 割子蓋 轄載 轄載 轄載烏受勢 轄打 轄希 黑二 含梁 咸安郡統 合 合子 哈那 哈嫩格悶格大 哈嫩格以 哈嫩格自 哈嫩那大 哈嫩阿賴 哈嫩五會 哈嫩展根格大 哈嫩把戛大 哈嫩黑大 哈嫩黑立大 哈底 哈底 巷 項 恒_是 害海 蟹 解 醢 海干 害故論 海官 害吉大 害那格大 海獺 海頭王 害得大 害墨二 海滄 解自 解自臥那大 害底格大 害迭勒大 海菜 海菜白根 海尺 害必 害必翠耶大 行 行軍典 行軍摠管 行觴 苻人國 向 香附子 向屋 向爲 向入 鄉村主 虛物叱 獻 險側 赫居 玄 現_乎 玄菟 玄菟郡縣令 玄龍亭 玄石 血叱同 狹 愜_兮 俠州君 荊芥 刑部 亨整撒論 彗(叱只) 惠伊 惠重 好好 弧 華二 活 戶 好_乎 虎驚草 胡根 胡臨 狐矣尿 虎矣扇 虎矣扇根 戶長 胡住 或_刀 忽 忽然 弥 弘儒候 紅典 紅蛤 弘峴宮典 紅花 火 花 火炬 花郎 和白 火甚 火乙叱羅毛 火乙叱羅毛葉 火乙叱羅毛津 火以乃伊 靴典 火條 禾主 花主 火尺 禾尺 禾菁 火桶 花判 花厦國 花夏國 花好 確金 還 還_乎 桓儉 活吉大 活呆戛大 活索 活黃 況_彌 黃菊花 黃衿幢 黃衿暫幢步騎監 黃丹 黃龍 黃龍國 況弥 黃明膠 黃密 黃藥 黃桑木 黃位 黃蜀花 黃漆 黃太 黃灰木 廻 會宮典 迴之木 茴香 曉 曉 爻周 後_是 後高麗 後百濟 厚菜 訓刀 訓薊 休 黑 黑鎧監 黑鷄 黑根 黑衿幢 黑嫩 黑嫩害 黑立 黑立谷迫 黑立大 黑小豆 黑水國 黑嶽令 黑眼雀稻 黑衣長槍末步幢主 黑荏子 黑太 黑堆 黑皮木 欣門 釁何支 吃 訖_音 蛇鏞 訖載 欽_叱 興文監卿 喜 喜好 姣妹 (총 4,354개)

※ 전체 목록은 본 보고서 '[부록 3] 차자표기 어휘-우리말샘 표제어 대비 잠정 목록' 참조.

위의 목록은 본 사업에서 3차에 걸친 차자표기 자료 구축 작업을 통해 얻은 결과물의 일부로서 차자표기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표기와 국명, 관직명 등 어원사전 등재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어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향후 차자표기 어휘 DB의 보완과 더불어 어원사전 및 우리말샘의 표제어 목록과 정밀한 대비를 거쳐 어원사전 내 차자표기 정보 기술 대상 어휘 목록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4.5. 차자표기 항목 집필 지침 초안

사전 편찬 시 표제어 기술의 통일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집필 지침 마련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집필 지침은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으며, 집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될 필요가 있다.



차자표기 항목 집필 지침은 위의 과정을 거쳐서 초안을 완성하였으며, 이는 내년부터 이어질 사업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것이다. 완성된 집필 지침 초안은 아래와 같다.

차자표기 항목 집필 지침 초안

<차례>

1. 개요
2. 차자표기 항목의 기본 구성
3. 최초 출현 형태 및 문헌 소개
4. 차자표기 원리 설명
5. 이표기 소개
6. 추가 설명
7. 예문 소개
8. 참고문헌
9. 메모

7. 개요

- 차자표기 정보는 현재 진행중인 어원사전 편찬 사업의 표제어 중에 차자표기가 존재하는 항목을 기술 대상으로 한다.
- 차자표기 항목의 표제어는 어원사전 표제어와 일치시키고, 원고 내용 기술에 사용하는 어휘와 문체는 원칙적으로 어원사전 집필지침을 따른다.
- 차자표기 정보는 어원사전의 미시구조 중 ‘기타 어원 설명’ 항목에서 기술한다.

어원사전의 미시구조

표제어	
1) 기본 정보	어휘, 구분, 품사, 원어, 고유어 여부, 뜻풀이
2) 변화 정보	형태·표기 변화
	언어 내적 정보
	언어 외적 정보
	기타 어원 설명(‘차자표기 정보’ 기술)
	세기별 용례
3) 부가 정보	이형태/이표기
	관련어
4) 기타 정보	참고 논저
	메모

8. 차자표기 항목의 기본 구성

- 차자표기 정보는 크게 (1) 내용 설명 (2) 예문 (3) 참고문헌 (4) 메모로 나누어 기술한다.
- (1) 내용 설명은 다음의 순서대로 기술하되 해당 사항이 없으면 비워둔다.
 - ① 최초 출현 차자표기 형태 및 문헌 소개
 - ② 차자표기 원리 설명
 - ③ 이표기 소개
 - ④ 추가 설명
- ❖ 원고 작성 시 ①~④는 이어서 한 문단으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최초 출현 형태 및 문헌 소개

- 최초 출현 형태 및 문헌 소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하여 기술한다.
 - ① ○○’의 차자표기는 ‘△△’(연도)에 ‘☆★’로 처음 나타난다.
 - ② ‘○○’에 해당하는 옛말은 ‘□□’였는데, ‘□□’의 차자표기는 ‘△△’(연도)에 ‘☆★’로 처음 나타난다.
- ❖ 연도는 해당 문헌의 편찬 또는 간행 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 시 해당 예문과 관련된 연도를 제시할 수도 있다.

(예) ‘오직’의 차자표기는 <삼국유사>(1281) 향가 ‘우적가’에 ‘唯只’로 처음 나타난다.

예속 관계에 있는 종의 ‘주인’에 해당하는 옛말은 ‘향것’이었는데, ‘향것’의 차자표기는 <세종실록>(1402년 기사)에 ‘上典’으로 처음 나타난다

10. 차자표기 원리 설명

- 차자표기 원리 설명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하여 기술한다.

- ① ‘☆★’는 ‘☆’의 뜻에 해당하는 ‘○’와 ‘★’의 소리(‘◎’의 일부)인 ‘●’를 이용하여 ‘○●’를 적은 것이다.
- ② ‘☆’만으로도 ‘○○’를 나타낼 수 있지만 ‘★’를 이용하여 ‘○○’를 표기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 ③ ‘☆★’으로 ‘○○’를 적은 것은 ‘☆’, ‘★’의 뜻이나 소리와 무관하기 때문에 차자표기의 일반적인 경향에서 벗어난다.
- ④ (설명이 어려운 경우) ‘☆’는 차자표기에서 ‘○’를 적은 글자이다.

(예) ‘唯只’은 ‘唯’의 뜻에 해당하는 ‘오직’과 ‘只’의 소리 ‘기’의 일부인 ‘ㄱ’을 이용하여 ‘오직’을 적은 것이다.

‘家稀’는 ‘家’의 소리인 ‘가’와 ‘稀’의 소리인 ‘희’를 이용하여 ‘가히’를 적은 것이다.

‘川理’는 ‘川’만으로도 ‘나리’를 나타낼 수 있지만 ‘理’를 이용하여 ‘나리’를 표기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上典’으로 ‘향것’을 적은 것은 ‘上’, ‘典’의 뜻이나 소리와 무관하기 때문에 차자표기의 일반적인 경향에서 벗어난다.

11. 이표기 소개

- 이표기 소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하여 기술한다.

- ① ‘☆★’의 이표기로는 ‘**’, ‘**’, ‘**’가 쓰였다.
- ② ‘*’는 주로 구결에서 ‘쇼’ 대신 사용된 글자이다.
- ③ 구결에서는 ‘쇼’ 대신 글자 모양을 간략하게 줄인 ‘*’로 적기도 하였다.
- ④ ‘*’와 ‘쇼’는 서로 통용되는 글자이다.
- ⑤ ‘☆’자리에 쓰인 ‘*’는 이 글자의 뜻을 이용하여 ‘○’를 적은 것이고~

(예) ‘唯只’의 이표기로는 ‘惟只, 但只, 唯ハ, 惟ハ, 但ハ’가 쓰였다. ‘唯’와 ‘惟’는 서로 통용되는 글자이고, ‘ハ’는 주로 구결에서 ‘只’ 대신 사용된 글자이다.

‘家稀’의 이표기로는 ‘家猗’가 쓰였다. ‘稀’와 ‘猗’는 서로 통용되는 글자이다.

‘尼師今’의 이표기로는 ‘尼叱今, 齒叱今’이 쓰였다. ‘尼’자리에 쓰인 ‘齒’는 이 글자의 뜻을 이용하여 ‘니’를 적은 것이고, ‘師’자리에 쓰인 ‘叱’는 차자표기에서 ‘ㅅ’을 적은 글자이다.

12. 추가 설명

- 추가 설명은 위에 기술된 기본적인 정보 이외에 필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예) ‘上典’이 애초부터 ‘항것’과는 별개로 조선에서 만들어진 한국 한자어였을 가능성도 있다.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어록변증설에는 ‘上典’의 읽는 법을 ‘항것’으로 표기하였다. <세종실록>이나 <이재유고>의 설명에 따르면 종이 주인을 가리킬 때뿐 아니라 신하가 임금을 가리키거나 관아에서 하위자가 상위자를 가리킬 때에도 ‘上典’이라고 하였다. ‘加于’가 ‘더욱’의 표기에 쓰인 것은 조선 시대에 들어서의 일로 ‘ㄱ’이 표기되지 않았지만 보충해 읽었다.

13. 예문 소개

- 예문 소개는 최초 출현예를 가장 앞세우고, 해당 어휘의 의미와 용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예들을 선별하여 시대순으로 제시하되 이표기는 모두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예문과 해석을 나란히 보이고 예문에서 표제어 해당 부분은 ‘{ }’로 표시한다.
- 출전은 ‘〈 〉’로 표시하여 예문의 뒤에 붙인다.
- 예문의 수는 3개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가감한다.

(예) 예문1: 阿耶 {唯只} 伊 吾音之叱恨隱 瀟陵隱 <삼국유사(1281) 향가_우적가>

해석1: 아아 오직 이 남짓한 瀟陵은

예문2: {惟ハ} 願コトハナシ 大王リホナシ 之乙 捨ッウホ 我ヲナ 與ッロハハカ <석독구결 화엄경소>(12-13세기)

해석2: 오직 원컨대 大王께서는 그것을 버려서 나에게 주시며

예문3: 犬曰{家稀} <계림유사>(1103)

해석3: 개[犬]는 家稀라 한다.

14. 참고문헌

- 기술된 내용 중에 참고문헌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 기록한다.

15. 메모

- 사전 독자에게 밝힐 필요는 없으나 사전 집필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자유롭게 기술한다.

(예) 어원사전 표제어 ‘상전’의 관련어에 ‘주인’, ‘항것’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함. ≪이두사전≫에서는 ‘상전(上典)’의 뜻풀이를 ‘상위 등급의 관아. 또는 상관’이라고 하였으나 제시된 예문의 대부분은 ‘주인’으로 해석됨.

4.6. 차자표기 항목 집필 샘플

4.6.1. 오직

기본정보	오직 [오직] 오직 「001」 「부사」 여러 가지 가운데서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
항목설명	‘오직’의 차자표기는 <삼국유사>(1281) 향가 ‘우적가’에 ‘唯只’로 처음 나타난다. ‘唯只’은 ‘唯’의 뜻에 해당하는 ‘오직’과 ‘只’의 소리 ‘기’의 일부인 ‘ㄱ’을 이용하여 ‘오직’을 적은 것이다. ‘只’는 전통적으로 ‘기/ㄱ’을 표기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여기서는 ‘ㄱ’을 표기한 다. ‘唯只’의 이표기로는 ‘惟只, 惟ハ, 但ハ’가 쓰였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唯只’만이 나타나나 고려 시대에 들어서면 표기가 다양해져서 ‘唯只, 唯ハ, 惟ハ, 但ハ’가 쓰였다. ‘唯’와 ‘惟’는 서로 통용되는 글자이고, ‘ハ’는 주로 구결에서 ‘只’ 대신 사용된 글자이다. ‘但ハ’는 ‘但’이 ‘오직’의 뜻을 지니고 있는 데서 비롯한 표기이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는 ‘唯只’만이 나타난다.
예문	阿耶 {唯只} 伊 吾音之叱恨隱 瀋陵隱 <삼국유사(1281) 향가_우적가> 아아 오직 이 남짓한 선릉(瀋陵)은 右崔瑄矣段 賤母所生是在亦中 年少蒙昧爲旡 國家大體乙 想只不得爲遣 {唯只} 家行耳亦 遵行爲 亂常失度爲良尔. <유경공신녹권(상서도관첩)>(1262) 위의 최이는 천모(賤母) 소생인 데다가 나이가 어리고 무지몽매하며 국가의 대체(大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집에서 하던 일만 지켜 상도(常道)를 어지럽혀서 {惟ハ} 願ロムナ 仁慈ッハムナ 特号 矜念ノムハ乙 垂リテ下ハ 此ニ 王位乙 捨ッ ヨホ 以ヨ {於}我ヲ十 膽リロハ而立 <석독구결_화엄경소>(12-13세기) 오직 원컨대 인자하심으로 특히 불쌍히 여기는 것을 드리우시어서 이 王位를 버려서 나에게 주십시오. {但ハ} 慈念ノムハ乙 見ヨホ 以ヨ {於}我ヲ十 施ッロハ而立ッホナ 十 <석독구결_화엄경소>(12-13세기) 오직 慈念하는 것을 보아서 나에게 보시하소서.” 했을 때에 同儔人乙 除除 現告不冬爲在乙良 {唯只} 不盡告之人矣 罪以 坐罪齊 <대명률직해>(1395) 죄인의 무리 중 일부를 고하지 않으면 오직 그 일부 고하지 않은 사람의 죄로써 처벌한다.
참고문헌	
메모	‘但ハ’의 원 표기인 ‘但只’는 조선 후기에 ‘오직’으로 읽지 않고 해당 한자의 소리인 ‘단지’로 읽게 되면서 한자어 ‘단지(但只)’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것이 ‘오직’과 비슷한 뜻을 지니는 부사 ‘단지’의 어원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6.2. 더욱

기본정보	더욱 [더욱] 더욱 「001」 「부사」 정도나 수준 따위가 한층 심하거나 높게.
항목설명	‘더욱’의 차자표기는 <약목정도사오층석탑조성기(若木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1031)에 ‘加于’로 처음 나타난다. ‘加于’는 ‘加’의 뜻에 해당하는 ‘더으-’와 ‘于’의 소리 ‘우’를 이용하여 ‘더우’를 적은 것이다. 이표기로는 ‘尤于’가 있다. ‘尤于’는 ‘加’ 대신에 유사한 뜻을 지니는 ‘尤’가 쓰인 것이다. ‘加于’가 ‘더욱’의 표기에 쓰인 것은 조선 시대에 들어서의 일로 ‘ㄱ’이 표기되지 않았지만 보충해 읽었다.
예문	太平六年 歲次丙寅 十月日 米伍拾肆石乙 佳受令是遣在如中 {加于} 物業乙 計會爲 <약목정도사오층석탑조성형지기>(1031)

	태평 6년(1026년) 10월 x일에 쌀 54섬을 정확히 받게 하였던 데 더하여 물업을 계산하여 모아 無告之民亦 {加于} 閱望爲白良尔 <김효로사헌부계후입안>(1483) 고할 데 없는 백성이 더욱 민망하여서 不善寫儒生等 率入吏胥 貢生 雜類中能寫人 使之代書爲白臥乎所 {尤于} 猥濫爲白昆 <과거사목>(1553) 선하지 않은 사유생(寫儒生)들이 서리, 공생, 잡류 중 능히 베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 대신 쓰게 하는 바가 더욱 함부로 넘치니
참고문헌	
메모	고려 시대에 ‘加于’는 ‘더하-’를 뜻하는 ‘더으-’에 현대어의 ‘-아/어’처럼 쓰였던 ‘-오/우’가 결합하여 ‘더하여’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4.6.3. 개

기본정보	개 [개:] 개 「003」 「명사」 갯과의 포유류. 가축으로 사람을 잘 따르고 영리하다. 일반적으로 늑대 따위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 냄새를 잘 맡으며 귀가 밝아 사냥이나 군용, 맹인 선도와 마약 및 폭약 탐지에 쓰인다. 전 세계에 걸쳐 모양, 크기, 색깔이 다양한 300여 품종이 있다.
항목설명	‘개’에 해당하는 옛말은 ‘가히’였는데, ‘가희’의 차자표기는 <계림유사>(1103)에 ‘家稀’로 처음 나타난다. 家稀는 ‘家’의 소리인 ‘가’와 ‘稀’의 소리인 ‘희’를 이용하여 ‘가히’를 적은 것이다. ‘家稀’의 이표기로는 ‘家豨’가 쓰였다. ‘稀’와 ‘豨’는 서로 통용되는 글자이다.
예문	犬曰家稀 <계림유사>(1103) 개[犬]는 家稀이라 한다.
참고문헌	
메모	

4.6.4. 나라

기본 정보	나라 [나라] 나라 「001」 「명사」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 국민·영토·주권의 삼요소를 필요로 한다.
항목 설명	‘나라’에 해당하는 옛말은 ‘나락/나랑’이었는데, ‘나락/나랑’의 차자표기는 <삼국유사>(1281)에 ‘國惡’으로 처음 나타난다. ‘國惡’은 ‘國’의 뜻에 해당하는 ‘나락/나랑’과 ‘惡’의 소리인 ‘악/양’을 이용하여 ‘나락/나랑’을 적은 것이다. ‘國惡’의 이표기로는 ‘國惡支’이 쓰였다. ‘支’은 앞의 단어를 고유어로 읽으라는 기능을 하는 일종의 부호로 추정되기도 하고 ‘惡’의 끝소리 ‘ㄱ/ㅎ’을 표기한 문자로 추정되기도 한다. ‘國惡, 國惡支’은 중세국어의 ‘나랑’으로 이어지며, 현대국어에서는 ‘나라’가 되었다.
예문	君 如 臣 多 支 民 隱 如 爲 內 尸 等 焉 {國惡} 大 平 恨 音 叱 如 <삼국유사(1281), 권2>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하리라. {國惡支} 持以支 知古如<삼국유사(1281), 권2> {나라(가)} 지켜짐(을) 알 것입니다.

참고문헌	
메모	

4.6.5. 임금

기본정보	임금 [임:금] 임금 「001」 「명사」 군주 국가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
항목설명	‘임금’의 차자표기는 <삼국사기>(1145)에 ‘尼師今’로 처음 나타난다. ‘尼師今’는 ‘尼’의 소리인 ‘니’와 ‘師’의 소리인 ‘시/스’, ‘今’의 소리인 ‘금’을 이용하여 ‘니시금/닛금’을 적은 것이다. ‘尼師今’의 이표기로는 ‘尼叱今, 齒叱今’이 쓰였다. ‘尼’자리에 쓰인 ‘齒’는 이 글자의 뜻을 이용하여 ‘니’를 적은 것이고, ‘師’자리에 쓰인 ‘叱’는 차자표기에서 ‘스’를 적은 글자이다. ‘尼叱今, 尼叱今, 齒叱今’은 중세국어의 ‘님금’으로 이어지며, 현대국어에서는 ‘임금’이 되었다.
예문	初南解薨，儒理當立，以大輔脫解素有德望，推讓其位。脫解曰，“神器大寶，非庸人所堪。吾聞聖智人多齒，試以餅噉之。”儒理齒理多，乃與左右奉立之，號{尼師今}。古傳如此，金大問則云，“{尼師今}方言也，謂齒理。昔南解將死，謂男儒理·堉脫解曰，‘吾死後，汝朴·昔二姓，以年長而嗣位焉。’其後金姓亦興，三姓以齒長相嗣，故稱{尼師今}。”<삼국사기(1145), 권1> 처음 남해왕(南解王)이 세상을 떠나자 유리(儒理)가 당연히 왕이 되어야 했는데, 대보(大輔)인 탈해(脫解)가 평소 덕망이 있어서 왕위를 그에게 양보하고자 하였다. 탈해가 말하기를, “신성한 기물은 큰 보배라서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에 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빨이 많다고 하니 떡을 깨물어서 누가 이빨이 많은지를 알아봅시다.”라고 하였다. 유리의 잇금(齒理)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니, 이에 좌우 신하들과 더불어 왕으로 받들었고, {니시금/닛금(尼師今)}이라고 불렀다. 옛 전승이 이와 같은데, 김대문(金大問)은 이르기를, “{니시금/닛금(尼師今)}은 방언으로 잇금(齒理)을 일컫는 말이다. 옛날 남해왕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인 유리와 사위인 탈해에게 ‘내가 죽은 후에 너희 박, 석 두 성씨는 나이가 많은 자가 왕위를 잇도록 하라.’고 말하였다. 그 후 김씨 성이 일어나서 세 성씨가 이빨이 많은 것으로써 서로 왕위를 이어갔으므로, {니시금/닛금(尼師今)}이라고 칭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第三弩禮 一作弩 {尼叱今} 父南解，母雲帝。妃辭要王之女金氏。甲申立，理三十三年。{尼叱今}或作尼師今。<삼국유사, 권제1(1281)> 제3대 노례(弩禮). 노(弩)라고도 한다. {니시금/닛금(尼叱今)}. 아버지는 남해(南解)이고, 어머니는 운제(雲帝)이다. 왕비는 사요왕(辭要王)의 딸인 김(金)씨이다. 갑신(甲申)년에 즉위하여 33년을 다스렸다. {니시금/닛금(尼叱今)}은 ‘니시금/닛금(尼師今)’이라고도 한다. 第四脫解王。脫解{齒叱今} 一作吐解尼師今。<삼국유사(1281), 권1> 제4대 탈해왕(第四 脫解王). 탈해{니시금/닛금(齒叱今)}. 한편 토해‘니시금/닛금(尼師今)’이라고도 한다.
참고문헌	
메모	

4.6.6. 상전(上典)

기본 정보	상전(上典) [상:전] 상전 「002」 「명사」 예전에, 종에 상대하여 그 주인을 이르던 말.
항목 설명	예속 관계에 있는 종의 ‘주인’에 해당하는 옛말은 ‘항것’이었는데, ‘항것’의 차자표기는 <세종실록>(1402년 기사)에 ‘上典’으로 처음 나타난다. ‘上典’으로 ‘항것’을 적은 것은 ‘上’, ‘典’의 뜻이나 소리와 무관하기 때문에 차자표기의 일반적인 경향에서 벗어난다. ‘上典’이 애초부터 ‘항것’과는 별개로 조선에서 만들어진 한국 한자어였을 가능성도 있다.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어록변증설에는 ‘上典’의 읽는 법을 ‘항것’으로 표기하였다. <세종실록>이나 <이재유고>의 설명에 따르면 종이 주인을 가리킬 때 뿐 아니라 신하가 임금을 가리키거나 관아에서 하위자가 상위자를 가리킬 때에도 ‘上典’이라고 하였다.
예문	國俗 奴僕稱其主爲(上典) 臣下謂君上亦爲(上典). <세종실록 권16, 1402년 기사> 나라의 풍속에 노복(奴僕)이 그 주인을 '상전(上典)'이라 부르고, 신하가 임금을가리킬 때도 '상전'이라 부른다.
	及光祖爲大司憲 執法平允 人皆感服 每出市 人羅伏馬前曰 吾(上典)至矣 (俗語呼其主曰(上典)). <울곡전서 경연일기, 1567년 기사> 광조가 대사헌(대법관)이 되어 법을 집행했으며 공정하고 올바르게 처결하자,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감복하였다. 그가 시장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그의 말 앞에 엎드려서 '우리 상전이 오셨다'고 외쳤다 (세속에서는 그 주인을 '상전'이라고 부른다).
	奴婢呼家主曰(上典). 吏役呼官長亦曰(上典). {上典}卽항것也. 故士夫家婢亦曰하님. 卽下主也. 衙門公賤亦曰下典. <이재유고(頤齋遺藁)(1829) 권25, 잡저> 노비는 집주인을 ‘상전’이라고 부른다. 이역(吏役)이 관장(官長)을 부를 때도 ‘상전’이라고 하니, ‘상전’은 곧 ‘항것’이다. 그러므로 사대부 집안의 비(婢)도 ‘하님’이라고 하니, 곧 ‘하주’(=아래 주인)이다. 상급 관아[衙門]의 공노비[公賤]도 ‘하전’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메모	* 어원사전 표제어 ‘상전’의 관련어에 ‘주인’, ‘항것’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함. * <이두사전>에서는 ‘상전(上典)’의 뜻풀이를 ‘상위 등급의 관아. 또는 상관’이라고 하였으나 제시된 예문의 대부분은 ‘주인’으로 해석됨.

4.6.7.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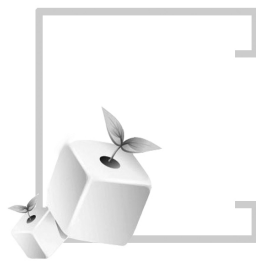
기본 정보	내 [내:] 내 「001」 「명사」 시내보다는 크지만 강보다는 작은 물줄기.
항목 설명	‘내’의 차자표기는 <삼국유사>(1281)에 ‘川理’로 처음 나타난다. ‘川理’는 ‘川’의 뜻인 ‘나리’와 ‘理’의 소리인 ‘리’를 이용하여 ‘나리’를 표기한 것이다. ‘川’만으로도 ‘나리’를 나타낼 수 있지만 ‘理’를 이용하여 ‘나리’를 표기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川理’는 중세한국어의 ‘나리’, ‘내’를 거쳐 현대한국어에서는 ‘내’가 되었다.
예문	逸鳥 (川理)叱 磻惡希 <삼국유사(1281), 권2> 일오(逸鳥) (내)의 조약돌에
참고문헌	
메모	

4.6.8. 천

기본 정보	천 [천] 천 「003」 「수·관」 백의 열 배가 되는 수. 또는 그 수의.
항목 설명	‘천’의 고유어인 ‘즈믄’의 차자표기는 <삼국유사>(1281)에 ‘千隱’으로 처음 나타난다. ‘千隱’은 ‘千’의 뜻인 ‘즈믄’과 ‘隱’의 소리인 ‘은’을 이용하여 ‘즈믄’을 표기한 것이다. ‘千’만으로도 ‘즈믄’을 나타낼 수 있지만 ‘隱’을 이용하여 ‘즈믄’을 표기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고려시대 석독구결에서는 ‘隱’ 대신 글자 모양을 간략하게 줄인 ‘1’으로 적기도 하였다. ‘千隱’은 중세한국어에 ‘즈믄’으로 이어지나, 현대한국어에서는 한자어 ‘천’에 밀려서 사라졌다.
예문	{千隱} 手叱 {千隱} 目盼 <삼국유사(1281), 권3> {천} 개의 손의 {천} 개의 눈을 過去セ 一1 生: 二1 生: 乃ッ 至1 十1 生: 百1 生: 千1 生: 百1 {千1} 生: 量1 無1 百1 {千1} 生: <석독구결_화엄경소>(12-13세기) 과거의 한 생이니 두 생이니 내지 열 생이니 백 생이니 {천} 생이니 백천 생이니 한량없는 백{천} 생이니 成劫: 壞劫: 成壞劫: 一1 非矢ヒセ 成劫: 一1 非矢ヒセ 壞劫: 一1 非矢ヒセ 成壞劫: 百1 劫: {千1} 劫: 百1 {千1} 億 那由他: <석독구결_화엄경소>(12-13세기) 성겁이니 괴겁이니 성괴겁이니 하나 아닌 성겁이니 하나 아닌 괴겁이니 하나 아닌 성괴겁이니 백 겁이니 {천} 겁이니 백{천}억 나유타이니
참고문헌	
메모	

4.6.9. 가배(嘉俳/嘉排)

기본 정보	가배(嘉俳/嘉排) [가배] 가배 「004」 「명사」 신라 유리왕 때에 궁중에서 하던 놀이. 음력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나라 안의 여자들을 모아 두 편으로 갈라, 왕녀 둘이 각각 한 편씩 거느리고 밤낮으로 길쌈을 하여 그 많고 적음을 견주어, 진 편에서 추석에 음식을 내고 춤과 노래 및 여러 가지 놀이를 하였다.
항목 설명	‘가위(한가위, 추석)’에 해당하는 옛말은 ‘가배’였는데, ‘가배’의 차자표기는 <삼국사기>(1145년) 중 ‘신라본기 유리이사금조(신라 3대 임금)’ 기사에서 ‘嘉俳’로 처음 나타난다. ‘嘉俳’는 ‘嘉’의 소리인 ‘가’와 ‘俳’의 소리인 ‘배’를 이용하여 ‘가배’를 적은 것이다. ‘嘉俳’의 이표기로는 ‘嘉排’와 ‘嘉憂’가 있다. 15세기에는 이것이 ‘가비’로 나타나고 ‘빙’의 소멸로 인해 ‘가빔 > 가외’로 바뀌면서 ‘嘉優(가우)’로 표기되기도 한 것이다. ‘가비’는 ‘곶(半, 中央) + 이(日)’로 분석되며, ‘가운데[中]’를 뜻하는 고유어로 추정된다. ‘가우’에 ‘날’이 더 붙어서 ‘가웃날’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날 표준말에서는 ‘가위/가윗날’로 정착되었다. ‘가위’에 다시 ‘한(正)’이 결합된 형태로 ‘한가위’가 만들어져 ‘가운뎃날(中央日)’의 뜻을 한층 더 강조한다.
예문	八月十五日…謂之嘉俳 <삼국사기(1145), 권1> 8월 15일을 … 가배(嘉俳)라고 한다. 八月ス 보로몬 아으 嘉俳나리마론 니믈 뵈셔 녀곤 오늘날 嘉俳샷다 <악학궤범(1493년), 고려가요 ‘동동’> 팔월 보름은 아아, 가윗날이건마는 입을 모셔 지내니 오늘이 한가위여라.
참고문헌	
메모	



제 5 장

자료구축팀



제5장에서는 먼저 자료구축팀의 작업 개요를 기술한 다음, 사례와 함께 구축 작업 과정을 소개하기로 한다.

5.1. 자료 구축팀 작업 개요

국어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자료구축팀의 핵심 목표는 공신력 있는 어원 연구 성과를 수합하고 정리하여 체계적인 참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2023 국어 어원사전 편찬’ 사업에서는 학술논문의 참조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어원 연구 성과를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다.

올해 사업에서는 단행본 및 학위 논문 100종, 신문 및 잡지 기사 100종을 포함하는 참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는 어원사전 집필자가 개별적으로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면서도, 역사학, 민속학, 미술사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어원 연구 성과를 집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궁극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는 어원 연구 성과를 사전 편찬 자원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며, 향후 국어 어원 연구와 사전 편찬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5.2. 참여 연구진

팀장	공동 연구원	보조 연구원	소속 대학
도원영 (고려대)	김숙정 (호남대)	이효윤	경희대
		남유진	고려대
		유환일	성균관대
		엄효민	고려대
		한다영	고려대
		장준희	고려대

5.3. 작업 계획 및 경과보고

5.3.1. 작업 계획

3월	어원사전 편찬용 참조 DB 구축 대상 수집 어원사전 편찬용 참조 DB 구축 대상 선별 기준 마련 및 선정 작업 지침 준비 + 연구원 교육
4월	단행본 및 학위 논문 DB 10% 구축 작업 지침 보완 및 중간 점검
5월~7월	단행본 및 학위 논문 DB 75% 구축
8월	단행본 DB 15% 구축(완료) 신문·잡지 기사 DB 구축 지침 작성, 신문·잡지 기사 DB 10% 구축
9월~10월	신문·잡지 기사 DB 90% 구축(완료)
11월	최종 정리 및 보고서 작성

5.3.1. 경과보고

3월	어원사전 편찬용 참조 DB 구축 대상 수집 어원사전 편찬용 참조 DB 구축 대상 선별 기준 마련 및 선정 작업 지침 준비 + 연구원 교육
4월	단행본 및 학위 논문 목록 171종 선정 신문·잡지 DB 250% 구축(기사 269편, 표제어 393개) 작업 지침 보완 및 중간 점검 작업자 교육, 질의 응답
5월~7월	신문·잡지 DB 300% 구축(기사 312편, 표제어 628개) ⇒ 제안 목표 200% 추가 달성 단행본 및 학위 논문 DB 50% 구축 작업 내용 검토 및 피드백, 수정·보완
8월	단행본 및 학위 논문 DB 75% 구축
9월~10월	단행본 및 학위 논문 DB 100% 구축
11월	단행본 및 학위 논문 DB 125% 구축(125편, 표제어 16,410개) ⇒ 제안 목표 25% 추가 달성 최종 정리 및 보고서 작성

5.4. 주요 작업 내용

5.4.1. 단행본 및 학위 논문 참조 데이터베이스

1) 대상 자료 수집 및 선별

어원을 다룬 단행본 및 학위 논문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 규모는 단행본 850여 종, 학위 논문 130여 종이다. 이 중 어원사전을 편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단행본 114종, 학위 논문 57종을 선별하였다. 참조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자료 선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수집된 목록을 평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 목록을 작성하였다.

- 자료 선정 기준

국어학 및 기타 분야의 어원 연구 성과를 포함한다.

해당 분과 학문 분야의 전문가가 집필한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표준어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를 우선 선정한다.

일반어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를 우선 선정한다.

사전 및 어휘집 형식의 자료는 제외한다.

동일 저자의 동일 자료는 최신 자료를 선정한다.

2) DB화 대상 수집 및 선정

- 대상 수집: 단행본 850여 종, 학위 논문 130여 종

- 대상 선정: 단행본 114종, 학위 논문 57종, 총 171종

: 연구진 3인이 어원 및 어휘사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선별 후 작업 순위 결정

- DB화 대상: 단행본 66편, 학위 논문 24편, 논총 35편, 총 125종

- 확인 방법: 소속 대학 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도서 직접 확인

※ [부록 4] DB화 단행본, 학위 논문, 논총 목록

저자	연도	제목	출판사	평가1	평가2	평가3	DB화	불가 사유
강신항	1980	개령유사 고려방언 연구	성균관대 출판부	3	1	D	x	동일 저서 수정판 있음.
기주연	1994	근대국어 조어론 연구(Ⅰ)	태학사	2	1	B	x	파생 접사의 판정 기준과 목록화 및 유형화에 목적을 둠.
김상규	2007	우리말에 빠지다	젠북	2	1	B	o	
김양진	2011	식물이름 수수께끼	루덴스	1	1	A	o	
김윤경	1939	興淸의 어원	박문서관	1	1	A	x	흥청의 어원이 아니라, '흥청'과 관련한 세태에 대한 수필임.
김진희	2011	«상례언해»의 어휘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1	C	o	
노재민	2000	물고기 이름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1	C	x	한국어 물고기이름 2,700여개 항목을 형태와 의미별로 분류하고 명명 방식을 살핀 연구임.
李基文	1991	國語 語彙史 研究	東亞出版社	1	3	C	o	
박희식	1984	중세국어의 부사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	B	o	
배해수	1991	<아내> 명칭에 대한 고찰, 국어의 이해와 인식	한국문화사	1	3	C	x	대상 아님. <아내> 명칭에 대한 낱말발을 분석한 연구임.
楊彦	2011	중세 언해 문헌의 전이어에 대한 연구: 써[以], 다맛/더브러/다려[與], 해여(금)[使], 또/및[及]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	1	A	x	단행본 있음. 단행본으로 작업함.
오혜선	2013	현대 국어 신어의 유형 분류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2	E	o	
유창돈	1975	어휘사 연구	삼우출판사	3	1	D	o	

〈표〉 어원 논저 대상 DB 구축 대상 목록, 선정, DB화

3) 작업 지침

기존 사업 결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국립국어원의 ‘2023년 어원사전 편찬 사업’의 참조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준용하였다. 다만, 어원사전 집필자가 단행본과 학위논문 등의 원문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어원 설명이 주되게 기술된 부분의 쪽수를 각각 작성하였다. 그래서 최종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항목은 ‘표제어, 검색형, 원어, 설명, 관련어, 주제어, 출처, 쪽수, 비고’ 등이다.

※ [부록 5]: 어원 논저 DB 구축 지침

4) 어원 논저 참조 DB_단행본, 학위 논문, 논총 예시

표제어	검색형	원어	설명	관련어	출처	페이지	비고
관자놀이	관자놀이	貫子놀이	맥박이 났을 때 관자가 이 위치에서 왔다갔다 한다는 데서 관자놀이로 함.	관자	정은진(2023), '전통 생활 어휘를 활용한 어문생활사 교육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58권 제2호, 국어교육학회, 115-150.		
관찰	관찰001	觀察	아미타불 신앙을 통해 극락에 태어나는 수행법 중 관찰법이 있음. 사리를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한다는 뜻의 불교 용어. 관념, 관찰과 같은 뜻으로 쓰임.	관념, 관찰	대원정사 편집부(1987), <불교에서 나온 말>, 서울: 대원정사.	28	
굴	굴004	窟	窟의 상고음은 *kʰuat'이고, 중고음은 *kʰuat'로 중고음과도 가까움.	굴, 구덩이	김태경(2016), "상고중국어 음운체계와 한국어 어휘의 어원", 학교방.	279쪽	
곽진	곽진	kōsin	몽고문어에서 목이매를 의미하는 kōsin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kōsin	이기문(1991), '中世國語의 蒙古語 借用語', "국어어휘사연구", 동아출판사.	128쪽	
녹두묵	녹두묵	綠豆묵	"포도청"에 대한 변말이다. '녹두묵'은 '청포'라고도 하는데, '청포'를 거꾸로 하면 '포청'이 되고 그러다 보니 '녹두묵'이 '포도청'을 가리키게 되었다.	청포003	조항범(2001), "선인들이 전해 준 어원 이야기", 태학사.	80쪽	
다대기	다대기	←tata[叩]	일본어 たたき, '두들김, 때림'이라는 뜻. 요리에 '다지거나 다진 재료를 넣어서 만든 양념(요리)'를 가리킴. 근대 이전 한국어의 '다디다'가 넘어간 것으로 보임.	다진양념	최태호(2022), <우리말 어원과 변천>, 대전: 문경출판사.	101	
둥이다	둥이다	둥	명사 '둥'에서 만들어진 동사다	둥(벗칠 100단)	리득춘(1996), 조선어 어휘사, 박이정	399쪽	
등신	등신002	等神	요즘으로 치자면 로봇 혹은 귀신하고 비슷한 개념. '사람의 형상을 만든 신상(神像)'을 의미했던 한자어가 '등신(等神)'임.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 내는 귀신'과 비슷한 뜻으로 쓰다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굳어짐.	바보, 멍텅구리, 얼간이	김상규(2007), '우리말에 빠진다'. 전북.	32	
만두	만두001	饅頭	중국어 饅頭의 차용어이다. 18세기 이후 '饅頭'가 상화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고, '만두'가 점차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자 '상화'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었다. 또한 그 의미도 변화하였다.	상화	이선영(1998), '음식명의 어휘사', "국어 어휘의 기반과 역사", 태학사	428쪽	
물리	물리002	物理	한적에서 物の道理라는 의미로 사용되던 것이었다. 이것이 明治期에 'physics'의 역어로 채용되면서 줄인 약어로 物理가 사용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870년대 당시 'philosophy'의 역어로 사용되던 窮理學과 병용하였고, 1880년대를 전후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최초로 근대적 의미의 물리를 소개한 것은 1881년 수신사 이현영으로, 1920년대까지 窮理와 병용하게 되었다. 1920년대 이후 窮理 다시 이전부터 사용되던 전통적 의미로만 사용되었다.	공리학	최경옥(2003), "韓國開化期近代外來漢字語의 受容研究", 제이앤씨.	150쪽	
방초	방초002	防草	"막새"를 차자로 표기한 것이 한자어로 된 것이다.	막새001	황금연(1997), '현대 한자 어휘의 기원에 대한 고찰: 차자 표기와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국어학 연구의 새 지평(성재이돈주선생 화갑기념)", 태학사.	235쪽	
백일장	백일장	白日場	달밤에 시재를 겨루는 망월장과 달리, 대낮(유시: 오후 5시~7시)에 시재를 겨루는 것을 백일장이라 일컫는다.	망월장	장진호(2012), "(국어 선생님이 몰랐던) 우리말 이야기: 알고 쓰면 좋은 우리말 420가지", 글누림.	168쪽	
별도	별도003	別途	불교에서는 독특한 길, 종파에 따라 특이한 교리라는 뜻으로 씀.	통도	대원정사 편집부(1987), <불교에서 나온 말>, 서울: 대원정사.	89	
석이버섯	석이버섯	石耳버섯	석이버섯은 돌 위에서 자라는 버섯이라는 뜻임. 북한에서는 '돌버섯'이라고도 함.	돌버섯	김양진(2011), '식물이를 수수께끼'. 루덴스.	107	

5) 기타 사항

요약 자료 중 일부는 용어집 수준의 정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음. 어원사전 집필을 위한 참조 자료로 중요도가 다르다고 판단하여 분류하였음.

(1) 단행본 및 학위 논문 : 10081 표제어

표제어	감색형	원어	설명	관련어	출처	페이지	비고
굿비	굿비		의미의 외연이 축소. 이 논문에서는 부사의 의미 변천과 소멸을 구분하여 제시하는데, 의미의 축소에 대해 단어의 감소와 외연 축소를 분류하였다.		이효원(2019), "한국어 부사의 변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34쪽	
놀란다	차례001		명사 '놀(切)'에 '-갈다'가 연결한 것이다.		유창돈(1975) "어휘사연구", 상우사	359쪽	
돌갈	달갈001		'돌의 알'은 제언의 활용형과 명사의 복합형이 복합명사로 굳어진 것이다.		유창돈(1975) "어휘사연구", 상우사	223쪽	
빙어	빙어		鯔魚(외잔어) 빙어 <舊二3a 鯔魚>, 빙어는 氷+어로 파생어이다. 국유고기는 '국슈류'라고도 하는데 '빙어'의 옛말이다. 어기 '국슈'와 '고기'의 결합으로 복합어라고 생각된다.		백승창(2009), "『物名考』類에 대한 國語學的研究: 어휘 분류와 조어법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32	
스럼	사럼001		원어는 '患'이다. '患'의 부의에서 다시 '憂'로 발달하여 다의를 형성하고, 오늘날은 '憂'란 부의만 남았다.		이승녕(2011), '어휘사', '심악이승녕 전집 9', 한국학중앙연구원	325쪽	
썩	썩001		중세국어 어형은 '썩'이었다. '썩'은 의성어로 이해되어, 이는 의성어 자체가 명사로 굳어진 예이다.		조항범(1998), '동물 명칭의 어휘사', '국어 어휘의 기원과 역사', 태학사	149쪽	
썩었다	썩었다	覺得	근대 중국어 발음 '교터'를 고려하고, 더 이른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깨닫다'가 '覺得'로부터 차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심재기(1991), '근대국어의 어휘 체계에 대하여', '김원진 선생 회갑 기념 논총', 민음사.	797쪽	
가구	가구003	家口	생성 시기는 1955년 / 1955년 내무부 통계국에서 실시한 제1회 간이인구조사에서 처음 사용된 말이다. 조선시대의 실록이나 호적에서 호당 인원 을 뜻하는 말로 쓰였던 '호구'도 비가죽원을 포함하므로 가구와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재운·박숙희·유동숙(2008), '『뜻도 모르고 자주 쓰는 우리말 어원 500가지』, 위즈덤하우스.	442	
가깝다	가깝다		'가'는 '열, 주변'의 뜻인데, 거리상 '열'은 멀리 않은 곳이므로, '가깝다'의 '가'는 멀리 않은 곳을 나타낸다. '갈'은 느낌을 나타내는 형용사 조성의 접미사로써 '가'와 결합되어 거리상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었다. '열'과 같이 느껴지는 거리라는 뜻이다.		령중률(2001), 조선말 단어의 유래, 금성청년종합출판사	41쪽	
가난	가난001		본래 '어렵고 힘들'의 뜻을 갖는 한자어 '간난(艱難)'에서 온 말이다. 한자어 '간난(艱難)'이 '가난'이라는 형태로 처음 나타난 것은 <나훈>(1475, 1:30)에 '가난'을 비롯하여 求 求노니'라는 구절에서부터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앞말의 받침과 뒷말의 첫소리가 같은 발음인 경우 앞말의 받침이 자음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말로 굳어지는 현상이 있었다.		김양진(2011), "우리말 수첩: 정보와사람.	16	
가난	가난001		한자어 '간난(艱難)'에서 '가난'으로 발음하게 된 것.		박기환(2009), "성경속의 우리말 어원을 찾아서", 서울: 해피&북스.	17	
가릉빈가	가릉빈가001	kalavinka	불교용어의 음역된 한자어. 이 자료에서는 한국어 한자의 기원과 유입 시기를 기준으로 어휘를 분류하여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심재기(1971), '한자어의 전래와 그 기원적 계보', '김형규박사 송수기념논총, 일조각.	365쪽	
가다듬다	가다듬다		'가두다'와 '다듬다'가 합쳐 이루어진 것이다. '가두다'는 정신, 마음을 다잡다는 의미이고, '다듬다'는 더 쓸모있고 범시있게 만드는 뜻을 가진다.		령중률(2001), 조선말 단어의 유래, 금성청년종합출판사	28쪽	
가다듬다	가다듬다		의미의 확장이 일어났다. "가다듬다"는 '돌을 가다듬다'는 기본 의미에서 '정신을 가다듬다'의 추상적 의미로 확장된 다음, '옷매무새를 가다듬다, 목을 가다듬다, 호흡을 가다듬다, 전열을 가다듬다' 등으로 의미가 확장하였음.		이선영(2002), '국어 어간복합어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1쪽	
가달	가달_이기문(1991)	qada'ar	중세몽고어 qada'ar을 재주도 방언에서 직접 차용한 것으로 믿어진다.		이기문(1991), "鞞大와 加捷"에 대하여', '국어어휘사연구', 동아출판사.	183쪽	
가대기	가대기002		땅을 갈기 위해 땅에 대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다. 농기구의기능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령중률(2001), 조선말 단어의 유래, 금성청년종합출판사	24쪽	
가라	가라010		'꺾잡(から, 戩)'이라는 뜻의 일본어에서 온 것으로 추측됨.		송승현(2022), "한국어 외래어 사용 양상 연구: 구어 자료를 기반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9쪽	
가라말	가라말	qara mori	고려 때 들어온 몽고어 차용어 몽고어 qara에서 '흑의 뜻을 알 수 있다.		이기문(1991), "語源 研究의 方法", '국어어휘사연구', 동아출판사.	78쪽	
가라앉다	가라앉다		이 말은 '물체가 일정한 높이에서 그 아래로 꺼져 내려앉다'의 의미로 풀이된다.		김양진(2011), "우리말 수첩: 정보와사람.	17	
가락	가락001		가늘고 길게 토막이 난 물건이 날개'이면서 그런 것들을 세는 단위임. 손의 의미를 지니는 '갈' 또는 '가지다'는 뜻을 지니는 '갖(간)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음. 옛날 만주어의 '가라', 몽골어의 '갈' 등도 다 '손'을 의미한다고 함.		김상규(2007), '우리말에 빠지다'. 전북.	56	
가락	가락001		'가르다의 어근 '갈'에 접미사 '-악'의 결합.		박기환(2009), "성경속의 우리말 어원을 찾아서", 서울: 해피&북스.	18	
가락	가락009		한자를 혼독하였을 때 '명예'라는 뜻이 되는데 이는 옛 가마인이 독의 형상을 하천이나 강에 명예를 지운 형상'으로 보고 '그릇'에 애고 했을 것으로 봄. 따라서 '가락'은 지금의 저수지를 뜻하는 말이고 '그릇'에는 독을 뜻하는 말로 봄.		언연석(2022), "역사·고전문화·우리말 어원에 관한 구불술의 작은 올림", 디자인21.	16쪽	세무공무원, 세무사로 근무. 현재 시인.
가락지	가락지001		반지는 손가락에 끼는 장신구다. 흔히 한 짝만 끼는 것은 반지(戒指, 半指). 쌍으로 끼는 것을 가락지라 부른다. '지환(指環)'은 가락지와 반지의 총칭이면서, 가락지만 뜻하기도 한다. '가락'은 한 군데에서 갈라져 나간 부분인 갈래의 뜻이다. 여기에 손가락을 나타내는 한자어 '指'가 더해졌으므로 가락지는 손가락의 겹말이며, 본래 한자어 指環에서 指이 생략된 것이다.		박영수(1995), "만물유래사전", 서울: 프레스빌.	23	
가람	가람001		승려가 살면서 불도를 다룬 곳, 즉 '사찰'을 나타내는 산스크리트어의 음역어 '승가람파(僧伽藍摩)'에서 온 말이다.		김양진(2011), "우리말 수첩: 정보와사람.	18	
가랑니	가랑니001		'새까' 이'를 가랑니라고 한다. 이 말은 방언에서도 '갈방니'로 쓰이고, 18세기 기록에는 '갈랑니'로 쓰이고 있다.		유창돈(1975) "어휘사연구", 상우사	184쪽	
가랑비	가랑비		'가랑비'의 '가랑'은 '가루비'를 '가랑비'로 발음하게 된 것이다.		령중률(2001), 조선말 단어의 유래, 금성청년종합출판사	30쪽	

(2) 용어집 수준의 자료 : 5679 표제어

단행본 및 논문집에서 개별 어휘의 설명 없이 목록만 제시한 경우

표제어	검색형	원어	설명	관련어	출처	페이지	비고
가책	가책001	呵責	박숙희(1994)는 의미 변화를 기술하는 책. 표제어.		박숙희(1994), "뜻도 모르고 자주 쓰는 우리말 500가지(Ⅰ)", 서울: 서운관.	97	
가출	가출002	家出	표제어/ 이 책은 한자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교양과 상식을 넓히고 우리네 삶의 양식과 생활 습관을 들여다보는 데 목적이 있는 책이다.		박수밀(2014), "(박수밀의 알기 쉬운) 한자 인문학: 우리말 한자에 담긴 역사와 문화", 다락원.	265	
각	각021	閣	표제어/ 이 책은 한자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교양과 상식을 넓히고 우리네 삶의 양식과 생활 습관을 들여다보는 데 목적이 있는 책이다.		박수밀(2014), "(박수밀의 알기 쉬운) 한자 인문학: 우리말 한자에 담긴 역사와 문화", 다락원.	202	
간섭주의	간섭주의	干涉主義	서혜진(2017)은 『現代新語釋義』(1922)에서 신어로 다루어질 수 있는 대상을 선별한 뒤, 그것의 형태론적인 구조와 오늘날까지의 생명력을 살펴보았음.		서혜진(2017), "『現代新語釋義』(1922) 신어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0	
간주	간주001	看倣	서혜진(2017)은 『現代新語釋義』(1922)에서 신어로 다루어질 수 있는 대상을 선별한 뒤, 그것의 형태론적인 구조와 오늘날까지의 생명력을 살펴보았음.		서혜진(2017), "『現代新語釋義』(1922) 신어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2	
간증인	간증인001	干證人	이른 시기에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한국 한자음으로 읽히는 한자어. 이 자료에서는 한국어 한자어의 기원과 유입 시기를 기준으로 어휘를 분류하여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심재기(1991), '근대국어의 어휘 체계에 대하여', "김원진 선생 회갑 기념 논총", 민음사.	790	
간호원	간호원	看護員	표제어/ 이 책은 한자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교양과 상식을 넓히고 우리네 삶의 양식과 생활 습관을 들여다보는 데 목적이 있는 책이다.		박수밀(2014), "(박수밀의 알기 쉬운) 한자 인문학: 우리말 한자에 담긴 역사와 문화", 다락원.	194	
갈보	갈보		유래가 설명된 표제어. 이 책은 각종 표제어에 대해 유래를 설명한 책이다. 다만 그것이 모두 어원은 아니다.		박영수(1995), "만물유래사전", 서울: 프레스빌.	106	
갈분	갈분001	葛粉	이른 시기에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한국 한자음으로 읽히는 한자어. 이 자료에서는 한국어 한자어의 기원과 유입 시기를 기준으로 어휘를 분류하여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심재기(1991), '근대국어의 어휘 체계에 대하여', "김원진 선생 회갑 기념 논총", 민음사.	790	

(3) “말의 씨아리” : 604 표제어

박정남(2001), "말의 씨아리: 語源"의 DB

표제어	검색형	원어	설명	관련어	출처	페이지	비고
가다	가다001		표제어, 이 책은 필자의 개인적인 이론으로 어원을 풀이한 것으로 보이는 책이다. 책의 내용 중 어느 부분에서 어원을 그렇게 상정하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없다.		박정남(2001), "말의 씨아리: 語源", 서울: 빛나리인쇄.	150	
가락	가락001		손가락의 갈라진 것을 가리키는 말. 노래를 부를 때 창고나, 북, 그리고 나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거나 트고 막는 까닭에 노래 '가락'이라 함.		박정남(2001), "말의 씨아리: 語源", 서울: 빛나리인쇄.	7	
가래	가래004		땅을 가라엎는다는 뜻에서 '가래'		박정남(2001), "말의 씨아리: 語源", 서울: 빛나리인쇄.	47	
가르치다	가르치다001		'가치다'로 써야 함.		박정남(2001), "말의 씨아리: 語源", 서울: 빛나리인쇄.	8	
가리키다	가리키다001		'가키다'로 써야 함.		박정남(2001), "말의 씨아리: 語源", 서울: 빛나리인쇄.	7	
가리킴	가리킴_박정남(2001)		부름(지칭)은 높고, 젊고, 사내, 계집이나 한 마디로 하는 것이 가장 알맞음.		박정남(2001), "말의 씨아리: 語源", 서울: 빛나리인쇄.	8	
가리표	가리표_박정남(2001)		표제어, 이 책은 필자의 개인적인 이론으로 어원을 풀이한 것으로 보이는 책이다. 책의 내용 중 어느 부분에서 어원을 그렇게 상정하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없다.		박정남(2001), "말의 씨아리: 語源", 서울: 빛나리인쇄.	166	
가세요	가세요_박정남(2001)		'가오'로 하는 것이 맞음		박정남(2001), "말의 씨아리: 語源", 서울: 빛나리인쇄.	8	
가아	가아_박정남(2001)		없다는 뜻이 담겨 있음		박정남(2001), "말의 씨아리: 語源", 서울: 빛나리인쇄.	9	

5.4.2. 신문 및 잡지 기사 참조 데이터베이스

1) 대상 자료 수집

최근 발행된 일간지, 종합지, 전문지 등에 ‘어원’, ‘어휘사’, ‘단어 유래’ 등을 다룬 기사를 확인한 뒤, 기사 작성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후보 목록을 작성하였다. 기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자료 선정 기준

국어학 및 기타 분야의 어원 연구 성과가 반영된 기사를 우선한다.

해당 분과 학문 분야의 전문가가 집필한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2) 기사 목록 및 표제어 수

번호	기관명·신문사명	잡지명·연재 제목	기사 수	표제어 수
1	경상일보	윤주은의 우리글 우리말	4	14
2	경향신문	우리말 산책	22	23
3	국립국어원	새국어생활	31	111
4	굿모닝충청	정진명의 어원 상고사	26	45
5	백뉴스	너의 어원은	26	45
6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한글+한자 문화	3	88
7	전북도민일보	바른 우리말 산책	3	3
8	전북일보	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	31	38
9	중앙일보	우리말 바꾸기	17	22
10	충청일보	정진명의 어원 이야기	19	27
		정진명 시인의 우리 어원 이야기	1	2
11	평택신문	아하! 재미있는 우리말 어원	3	4
12	프레시안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30	52
13	한국대학신문	송백헌 어원산책	33	40
14	한국어문기자협회	말과글	8	12
15	한국일보	우리말 톺아보기	50	77
16	한글학회	한글새소식	5	25
합계			312	628

※ [부록 6] DB화 기사 목록

3) 저자 정보

강미영: 국립국어원

김문오: 국립국어원

김민지: 한글문화연대 대학생 기자단

김병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윤우: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연구원

남미정: 국립국어원
 민기: 말과글 고문위원
 박미영: 국립국어원
 박재양: 경희대학교 교수
 송백헌: 충남대학교 교수
 안도: 시인, 2018년 전라북도 국어진흥위원회 위원장 선출
 엄민용: 「당신은 우리말을 모른다」 저자
 유지철: KBS 아나운서
 윤주은: 울산과학대학 교수
 이미향: 영남대학교 교수
 이윤미: 국립국어원
 이정복: 대구대학교 교수
 정진명: 시인, 「어원으로 본 한국 고대사」 저자
 조세용: 건국대학교 교수
 최태호: 중부대학교 교수
 황용주: 국립국어원

4) 신문·잡지 참조 DB 예시

표제어	검색형	원어	설명	편언어	출처	인터넷 주소	비고
강사	강사004	講師	사찰에는 기본으로 7종의 요사채가 건립되어 있다. 불전, 법당, 승당, 고리, 상문, 육실, 정랑 등인데 7당이라 통칭한다. 이 중에서 강당은 주로 설법과 강의를 하는 건물이다. 이 강당에서 승려를 지도하는 사람을 강사(講師)라고 한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현대어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강당, 강사, 강좌 등의 용어는 불교 용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강당, 강좌	윤주은(2020), 우리 말에 수용된 불교용어, 윤주은의 우리글 우리말(17), 경성일보, 2020.05.31.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2998	< 불교에서 나온 말 > (대원정사)를 참고하였다고 언급하였지만, 인용 범위를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일단 DB에 포함하였습니다.
기자	기자010	菓子	<천자문>에 '조' 밑에 연문 풀이로 '괴주 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옛날에 왕을 '기자'라고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기자조선	정진명(2022), 「단군과 기자 1」, 정진명의 어원 상고사, 굿모닝충청, 2022.11.17.	https://www.goodmom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749	시인 「어원으로 본 한국 고대사」 저자.
명태	명태001	明太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것으로 조재삼의 '송남잡지'에 명태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북어 명태는 우리나라 원산도 산물로서, 옛날에는 명천(明川) 지명에서는 잡치지 않았다. 명천 사람 태(太)씨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고기를 낚았는데 비태하고 맛이 좋아서 '명태(明太)'라 이름하였다"라는 설명이 나온다.	생태, 동태, 황태, 북어, 고다리	이윤미(2023), 명태와 멸치, 우리말 톨아보기, 한국일보, 2023.06.23.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209490000332	이윤미_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반려견	반려견	伴侶犬	'반려동물'이란 개념이 생겨난 것은 1983년 10월이다. 동물 행동학자로 노벨상을 받은 콘라트 로렌츠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였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애완동물은 더 이상 인간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뜻으로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란 단어로 이름을 바꾸게 됐다고 한다. 인생의 '반려자'란 말이 있듯이 '반려동물' '반려견' 등도 우리의 단짝이자 가족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뻔 듯하다. 물론 이러한 풀이에 대해서는 각자 견해를 다를 수 있다.	애완견	배상복(2023), '반려견' 나도 표준어, 우리말 바꾸기, 중앙일보, 2023.11.0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4898	
백수	백수001	白手	백수는 백수건달(白手乾達)의 준말로, 1920년대에는 창백한 얼굴에 흰 손을 가진 무기력한 지식인을 가리켰다. 그러다 돈 한 톨 없이 빈둥거리며 불고먹는 건달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고, 요즘은 직장을 갖지 못하고 노는 실업자나 조기 퇴직자를 총칭하게 되었다.	백수건달	송백헌(2008), 백수, 송백헌 어원 산책, 한국대학신문, 2008.03.31 08:47.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46444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백호	백호006	白毫	석가모니의 미간 가운데에 있는 '백호' (미간 백호상 眉間白毫相)。부처님 조각에는 이마에 점이 하나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부처뿐만 아니라 보살상에도 있는데, 초기 불상을 만들 때는 이마에 점 대신 수정 같은 보석을 끼워 넣기도 했다고 한다. 사실 이 점은 점이지 아니라, 빛나는 털. '백호'다. 이 터럭은 오른 쪽으로 말려 있고, 빛을 발하며 부드럽고 눈처럼 희다고 되어있다. 석가모니가 태어났을 때 이 흰 터럭은 1장 5척이었고, 무량한 빛이 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양 눈썹 사이에 한 톨 털은 '부처의 자비광명을 온 세계에 비추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석가모니가 태어난 지역인 인도사람들은 이마 한 가운데에 지혜의 눈을 붙이거나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백미	김영호(2021), 숨은 고사성어를 찾는 것이 삼국지의 '백미(白眉)', 너의 어원은, 백뉴스, 2021.02.08.	https://www.100news.kr/24575	
백창호	백창호001	碧昌호	백창호는 '백창우(碧昌牛)'가 변한 말로, 백동과 창성에서 나는 소가 대단히 크고 역세에 비유적으로 '고집이 세고 무뎡직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다.	백창우	조항범(2017), 백창호, 백창우, 목동이, 아하! 재미있는 우리말 어원, 문학신문, 2017.04.14.	http://www.ipt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720	

5.5. 근현대 신문 및 잡지 참조 자료 조사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근현대 신문과 잡지의 어원 관련 기사 수록 여부 확인 작업을 실시하였음.

1) 1900~1930년대 발간 잡지에 수록된 어원 관련 기사

- 잡지 선정 기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대사료DB 수록 근현대 잡지

백과사전 및 전문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된 잡지

논문과 저술서의 주제어 검색에서 확인된 잡지

※조광(朝光), 청춘(青春), 학지광(學之光), 개벽(開闢), 사해공론(四海公論), 새별, 신동아(新東亞), 소년(少年), 동광(同光), 태극학보(太極學報), 서북학회월보(西北學會月報), 별건곤(別乾坤), 삼천리(三千里) 등 대상 자료 정리

- 키워드 ‘어원, 語原, 語源’을 중심으로 검색

기사의 내용을 확인하여 단어의 역사 정보를 다룬 기사를 선별함.

- 해당 기사의 내용을 2024년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참조 자료 DB 구축 지침에 따라 정리하였음.

- 어원 집필을 위한 참고 자료의 수준을 확인하는 수준의 샘플 작업을 진행함.

[근현대 잡지 DB 샘플]

표제어	검색형	원어	설명	관련어	출처	인터넷 주소	비고
강사	강사004	講師	사람에는 기본으로 7종의 요사체가 건립되어 있다. 불전, 법당, 승당, 고당, 상문, 욕실, 정랑 등인데 7당이라 통칭한다. 이 중에서 강당은 주로 설법과 강의하는 건물이다. 이 강당에서 승려를 지도하는 사람을 강사(講師)라고 한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현대어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강당, 강사, 강 등의 용어는 불교 용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강당, 강좌	윤주은(2020), 우리 말에 수용된 불교용어, 윤주은의 우리글 우리말(17), 경성일보, 2020.05.31.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2998	<불교에서 나온 말>(대원정사)를 참고하였다고 언급하였지만, 인용 범위를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일단 DB에 포함하였습니다.
기자	기자010	箕子	<천자문>에 ‘조’ 밑에 언론 풀이로 ‘기’주 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옛날에 왕을 ‘기자’라고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기자조선	정진명(2022), ‘단군과 기자 1’, 정진명의 어원 상고사, 굿모닝충청, 2022.11.17.	https://www.goodmorni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749	시인, 「어원으로 본 한국 고대사」 저자.
명태	명태001	明太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것으로 조재삼의 ‘송담잡지’에 명태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복어 명태는 우리나라 원산도 산물로서, 옛날에는 명천(明川) 지명에서는 잡혀지 않았다. 명천 사람 태(太)씨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고기를 낚았는데 비태하고 맛이 좋아서 ‘명태(明太)’라 이름하였다’라는 설명이 나온다.	생태, 동태, 황태, 복어, 코다리	이윤미(2023), 명태와 열치, 우리말 톨아보기, 한국일보, 2023.06.23.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30949000332	이윤미_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반려견	반려견	伴侶犬	‘반려동물’이란 개념이 생겨난 것은 1983년 10월이다. 동물 행동학자로 노벨상을 받은 콘라트 로렌츠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였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애완동물은 더 이상 인간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뜻으로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란 단어로 이름을 바꾸게 됐다고 한다. 인생의 ‘반려자’란 말이 있듯이 ‘반려동물’ ‘반려견’ 등도 우리의 단짝이자 가족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듯하다. 물론 이러한 풀이에 대해서는 각자 견해를 다를 수 있다.	애완견	배상복(2023), ‘반려견’ 나도 표준어, 우리말 바꾸기, 중앙일보, 2023.11.06	https://www.joonggang.co.kr/article/25204898	
백수	백수001	白手	‘백수는 백수건달(白手乾達)의 준말로, 1920년대에는 창백한 얼굴에 흰 손을 가진 무기력한 지식인을 가리켰다. 그러다 돈 한 톨 없이 빈둥거리며 놀고먹는 건달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고, 요즘은 직장을 갖지 못하고 노는 실업자나 조기 퇴직자를 총칭하게 되었다.	백수건달	송백현(2008), 백수, 송백현 어원 산책, 한국대학신문, 2008.03.31 08:47.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46444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백호	백호006	白虎	석가모니의 미간 가운데에 있는 ‘백호’(미간 백호상 眉間白毫相)다. 부처님 조각에는 이마에 점이 하나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부처뿐만 아니라 보살상에도 있는데, 초기 불상을 만들 때는 이마에 점 대신 수정 같은 보석을 끼워 넣기도 했다고 한다. 사실 이 점은 점이 아니라, 빛나는 털, ‘백호’다. 이 터럭은 오른 쪽으로 말려 있고, 빛을 발하며 부드럽고 눈처럼 희다고 되어있다. 석가모니가 태어났을 때 이 흰 터럭은 1장 5척이었고, 무량한 빛이 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양 눈썹 사이에 난 흰 털은 ‘부처의 자비광명을 온 세계에 비추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석가모니가 태어난 지역인 인도사람들은 이마 한 가운데 지혜의 눈을 붙이거나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백미	김영호(2021), 숨은 고사성어를 찾는 것이 삼국지의 ‘백미’(白眉), 나의 어원은, 백뉴스, 2021.02.08.	https://www.100news.kr/24575	
벽창호	벽창호001	壁昌호	벽창호는 ‘벽창우(壁倉牛)’가 변한 말로, 벽동과 창성에서 나는 소가 대단히 크고 역세에 비유적으로 ‘고집이 세고 무뎡뎡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다.	벽창우	조항범(2017), 벽창호, 벽창우, 육공이, 아하! 재미있는 우리말 어원, 평택신문, 2017.04.14.	http://www.ipt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720	

표제어 ▾	검색형	원어	설명	관련어	출처	페이지	비고
가사내	계집아이001		사내에게 간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 한자에서 온 것으로 보는 당대의 주장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긴 기사문이다.	가사내	노덧물(1921), 閨者の辭典, 개벽 8, 94-99, 1921.02.01.	http://db.history.go.kr/id/ma_013_0080_0230	노덧물=방정환
거나하	거나하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어쩌거나 하다'에서 온 것으로 설명. 한자에서 온 것으로 보는 당대의 주장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긴 기사문이다.		노덧물(1921), 閨者の辭典, 개벽 8, 94-99, 1921.02.01.	http://db.history.go.kr/id/ma_013_0080_0230	노덧물=방정환
괜하	괜하다		쓸데없다는 뜻이라 설명. 한자에서 온 것으로 보는 당대의 주장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긴 기사문이다.		노덧물(1921), 閨者の辭典, 개벽 8, 94-99, 1921.02.01.	http://db.history.go.kr/id/ma_013_0080_0230	노덧물=방정환
국토계획	국토 계획	國土計劃	신어 설명, 국토의 보전, 이용, 개발, 건설의 종합적 계획		삼천리(1941), 時局解說, 삼천리 13(12), 124-125, 1941.12.01.	https://db.history.go.kr/id/ma_016_0880_0290	
냄	내음		'냄새'의 준말로 분석. 모양도 빛도 맛도 없는 것으로 코에 느껴지는 김(?)이라 설명. 한자에서 온 것으로 보는 당대의 주장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긴 기사문이다.		노덧물(1921), 閨者の辭典, 개벽 8, 94-99, 1921.02.01.	http://db.history.go.kr/id/ma_013_0080_0230	노덧물=방정환
남남	양념001		갈수록 실지 않다는 뜻의 '남남하다'와 '남남하다'를 합한 말로 설명. 한자에서 온 것으로 보는 당대의 주장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긴 기사문이다.		노덧물(1921), 閨者の辭典, 개벽 8, 94-99, 1921.02.01.	http://db.history.go.kr/id/ma_013_0080_0230	노덧물=방정환
넋의 메	노구메		'넋(신)에게 드리는 밥'로 설명. 한자에서 온 것으로 보는 당대의 주장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긴 기사문이다.		노덧물(1921), 閨者の辭典, 개벽 8, 94-99, 1921.02.01.	http://db.history.go.kr/id/ma_013_0080_0230	노덧물=방정환
목숨	목숨		'목에 숨이 있는 동안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란 의미에서 나온 말'이라 설명.		孫晉泰(1927), 朝鮮上古文化의 研究, 朝鮮古代宗教의 宗教學的 土俗學的 研究(2), 동광 12, 24-34, 1927.04.01.	https://db.history.go.kr/id/ma_014_0110_0060	손진태, 민속학자, 서울대 사학과 교수, 50년 남 북
바사기	바사기		'바보와 사끼(새끼)'를 합한 말로 분석. 한자에서 온 것으로 보는 당대의 주장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긴 기사문이다.		노덧물(1921), 閨者の辭典, 개벽 8, 94-99, 1921.02.01.	http://db.history.go.kr/id/ma_013_0080_0230	노덧물=방정환
백서	백서001	白書	신어 설명, 영국에서 의회 보고를 하기 위하여서의 관헌의 보고서		삼천리(1941), 時局解說, 삼천리 13(12), 124-125, 1941.12.01.	https://db.history.go.kr/id/ma_016_0880_0290	
삭을 세	사글세001	사글黃	한 번 내면 다시 찾지 못하는, 즉 삭아 없어지는 세로 설명. 한자에서 온 것으로 보는 당대의 주장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긴 기사문이다.		노덧물(1921), 閨者の辭典, 개벽 8, 94-99, 1921.02.01.	http://db.history.go.kr/id/ma_013_0080_0230	노덧물=방정환
소나기	소나기001		소를 걸고 비가 올지 오지 않을지 내기를 한 것에서 왔다고 설명. 한자에서 온 것으로 보는 당대의 주장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긴 기사문이다.		노덧물(1921), 閨者の辭典, 개벽 8, 94-99, 1921.02.01.	http://db.history.go.kr/id/ma_013_0080_0230	노덧물=방정환
스님	스님001		'스승님'의 준 말로 분석. 한자에서 온 것으로 보는 당대의 주장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긴 기사문이다.		노덧물(1921), 閨者の辭典, 개벽 8, 94-99, 1921.02.01.	http://db.history.go.kr/id/ma_013_0080_0230	노덧물=방정환
시집	시집001	婦집	'시집'의 '시'를 '합시, 하사' 등의 높임어 미로 설명. 한자에서 온 것으로 보는 당대의 주장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긴 기사문이다.		노덧물(1921), 閨者の辭典, 개벽 8, 94-99, 1921.02.01.	http://db.history.go.kr/id/ma_013_0080_0230	노덧물=방정환
양추질	양치질		양을 추스리는 질, 양은 광대뼈의 아어 '양냥이뼈'의 '양', 또는 '입을 다시다'를 뜻하는 지역어 '양다시다'의 '양', 추는 '추스르다'의 '추', 질은 일로 분석. 한자에서 온 것으로 보는 당대의 주장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긴 기사문이다.		노덧물(1921), 閨者の辭典, 개벽 8, 94-99, 1921.02.01.	http://db.history.go.kr/id/ma_013_0080_0230	노덧물=방정환
외누리	에누리001		틀리게 누린다는 뜻으로 설명. '외'를 그른 것, 틀린 것을 뜻으로 분석. 한자에서 온 것으로 보는 당대의 주장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긴 기사문이다.		노덧물(1921), 閨者の辭典, 개벽 8, 94-99, 1921.02.01.	http://db.history.go.kr/id/ma_013_0080_0230	노덧물=방정환
제오부대	제오 부대	第五部隊	신어 설명, 스파이 또는 내통자		삼천리(1941), 時局解說, 삼천리 13(12), 124-125, 1941.12.01.	https://db.history.go.kr/id/ma_016_0880_0290	
제오열	제오 열	第五列	신어 설명, 스파이 또는 내통자		삼천리(1941), 時局解說, 삼천리 13(12), 124-125, 1941.12.01.	https://db.history.go.kr/id/ma_016_0880_0290	
청서	청서001	靑書	신어 설명, 영국의 재외대공사로부터 외무대신에의 보고서		삼천리(1941), 時局解說, 삼천리 13(12), 124-125, 1941.12.01.	https://db.history.go.kr/id/ma_016_0880_0290	
허영허제	허영허제-노덧물(1921)	虛榮虛勢	허영과 허세로 분석. 한자에서 온 것으로 보는 당대의 주장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긴 기사문이다.		노덧물(1921), 閨者の辭典, 개벽 8, 94-99, 1921.02.01.	http://db.history.go.kr/id/ma_013_0080_0230	노덧물=방정환
홀의 새끼	호래자식	호래子息	'홀어미의 새끼'를 줄여 이르는 말로 분석. 한자에서 온 것으로 보는 당대의 주장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긴 기사문이다.		노덧물(1921), 閨者の辭典, 개벽 8, 94-99, 1921.02.01.	http://db.history.go.kr/id/ma_013_0080_0230	노덧물=방정환
황서	녹서001	黃書	신어 설명, 불난서 외교 보고서	녹서	삼천리(1941), 時局解說, 삼천리 13(12), 124-125, 1941.12.01.	https://db.history.go.kr/id/ma_016_0880_0290	

2) 1920년~1999년 신문에 수록된 어원 관련 기사

- 조사 대상

네이버 뉴스라이브리리 수록 신문

: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겨레신문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수록 신문

: 경성일보, 매일신보, 시대일보, 자유신문, 조선시보, 조선중앙일보, 황성신문 등

- 조사 방법

키워드 ‘어원, 語原, 語源, 유래, 由來’ 검색

기사의 내용을 확인하여 단어의 역사 정보를 다룬 기사를 선별한 뒤, 2023-2024 구축 어원관련DB 수록 여부를 확인함.

추후 작업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준의 샘플 작업으로, 표제어, 검색형, 어원, 출처, URL만 정리함.

- 예시

표제어	검색형	어원	출처	URL
고구려	고구려001	高句麗	岩本善文(1929), 『國』의 語源을 論ず, 金澤博士의 『同祖論』(三), 경성일보, 1929.07.03.	https://nl.go.kr/newspaper/news_chronology.do
과학	과학	科學	김광업(1929), 遺傳學과 優生論 (二), 동아일보, 1930.09.03.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30090300209206004&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30-09-
단군	단군004	檀君	황성신문(1909), 檀君聖祖由來紀念, 論說, 황성신문, 1909.04.21.	https://nl.go.kr/newspaper/news_chronology.do
담배	담배001		매일신보(1930), 始源과 由來, 1930.5.2.	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94419979&from=%EC%8B%A0%EB%AC%B8%20%EA%B2%8
부리	부리-이은상 (1933)		이은상(1933), 春川紀行 (3) [불외]에 올라서, 1933.05.13.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33051300209104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33-05-
사과	사과006	沙果	김용관(1932), 現下朝鮮의 蘋果栽培에 對하야 (六), 1932.06.05.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32060500209206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32-06-
사흘	사흘		최남선(1926), 壇君論 (四十九), 동아일보, 1926.06.21.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26062100209201019&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26-06-
시조	시조011	時調	안자산(1930), 時調의 淵源 (1), 동아일보, 1930.09.26.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30092600209204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30-09-
아훈	아훈-시대일보 (1925)		시대일보(1925), 語源과 史實, 시대일보, 1925.07.18.	https://viewer.nl.go.kr/main.wviewer#
오름	오름		권덕규(1924), 濟州行 (十八), 동아일보, 1920.04.01.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24082900209201025&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24-08-
칫솔	칫솔	cocktail	여운형(1933), 칫솔의 由來, 조선중앙일보, 1933.5.30.	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95759605&from=%EC%8B%A0%EB%AC%B8%20%EA%B2%8
투우	투우001	鬪牛	조선시보(1914), 朝鮮鬪牛의 由來(上), 조선시보, 1914.11.05.	https://nl.go.kr/newspaper/news_chronology.do
하늘	하늘001		양주동(1940), 朝鮮學界總動員 ㉑ 夏期特別論文 『하늘』의 原義 (上), 조선일보, 1940.07.28.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40072800239201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40-07-
한글	한글001		방중현(1936), 한글의 名稱 그 由來와 變遷(上), 조선일보, 1936.09.06.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36090600239205004&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36-09-
한글	한글001		자유신문(1946), 한글의 유래, 자유신문, 1946.10.09.	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115170872

- 권덕규, 방종현, 양주동, 여운형, 최남선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당대 주요 연구자들의 기사가 다수 검색됨.

김광업: 서예가, 평양 태생, 1927년 경성의전(京城醫專)을 졸업하고 계속 서도를 닦으면서 1935년 기성서화구락부(箕成書畵俱樂部)의 창립위원이 되었다. 해방 후 안과병원을 개업하면서 동명서예학원(東明書藝學院)을 개설하여 후진을 지도하였다. 1965년 한국서예가협회 창립위원이며 민전(民展)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김용관: 1897~1967. 요업기술자·과학기술 진흥 및 대중화 운동가.

안자산(안확): 1886(고종 23)~1946. 국학자.사회진화론과 문명개화론을 적극 주장하였지만, 엄밀한 학문적 기반 위에서 민족문화의 전통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그 발전과정을 다양한 분야에 걸쳐 검토하였다는 점은 이후 국학의 발전에 중요한 밑받침이 되었다.

이은상: 해방 이후 『노산시조선집』, 『푸른 하늘의 뜻은』 등을 저술한 작가. 시조작가·사학자.

岩本善文(이와모토 요시후미): 『朝鮮から見た日本の古代(조선에서 본 일본의 고대)』 저자, 고대 일본사를 정리한 역사 총서. 야마토 정권과 고분 문화, 나라 시대의 국풍 문화까지 시대별 정치 문화를 기록한 역사물.

5.6. 작업 관리

- 1) 책임 공동 연구원의 주도로 공동 연구원 1인과 국어사 전공 연구원 1인이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작업 방침을 결정한 뒤 실제 작업에 적용하였음.
- 2) 격주 회의에서는 작업 결과 확인, 피드백, 질의응답, 작업 배분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 3) 작업자별로 작성한 내용은 공동 연구원 2인이 오류 및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여 항목별로 정리한 뒤 팀 회의를 통해 공유한 뒤, 작업자가 이를 직접 수정하도록 하였음.

5.7. 자문

2024년 8월 8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워크숍 및 중간 보고회를 통해, 작업의 중간 결과물을 평가받고 이후 개선 방안을 수렴하였음.

국립국어원 2024년 어원사전 편찬 사업 자료구축팀 자문 의뢰서

팀장: ○○○

○○○ 선생님께

바쁜 일정 중에 본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 연구진의 사업 내용과 경과를 정리하여 보내 드립니다. 연구 사업의 진행 방향과 지금까지 구축된 결과가 어원사전 편찬에 적합한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자유롭게 조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략: 사업 개요 및 중간 수합 자료〉

※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사항

첫째, 기사문의 경우 최근 신문과 잡지를 중심으로 수집, 선별하였습니다. 작년에 의견을 주셨던 자문위원께서는 근현대 신문과 잡지에 수록된 어원 및 어휘사 관련 기사에서 어원 논의를 확인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둘째, 학위논문의 경우 석사 학위 논문이 일부 선정되었고, DB화하였습니다. 학문 풍토와 학술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근의 석사 논문을 DB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견서

○○○(○○대학교)

우선 자료 구축 팀에서 선행 연구들을 잘 정리해 주고 계셔서 어원사전 집필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집필 팀에서 작업을 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소소하게나마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고유어의 경우 집필 대상 단어가 이전 시기에 어떤 표기형들로 나타나는지, 복합어의 형태 정보에 대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독특한 형태 변화가 있는 경우(예: 접다>접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설명되어 왔는지, 주요한 의미 변화가 있었는지, 의미 변화에 영향을 미친 단어나 외부적 요인으로 무엇이 언급되어 왔는지와 같은 정보가 있으면 참고하기에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은 국어사 분야 학위논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휘를 직접적 주제로 한 학위논문이 아니더라도 이런 정보들을 보여 주는 경우가 있는데, 가령 주제는 대우법의 변화이지만 그 논의 안에서 ‘뵈다, 잡수다’ 등의 형태적 구성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큰 주제 아래에서 논의된 구체적 어휘들에 대한 내용을 집필 과정에서 일일이 찾아내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국어사 분야의 논문을 박사학위논문부터 두루 검토하면서 개별 어휘에 대해 언급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석사학위논문도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박사학위논문이든 석사학위논문이든 어원사전 집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담긴 것의 우선순위를 연구진에서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단행본과 학위논문의 경우 분량이 많으므로 요약된 내용이 담긴 부분의 대략적 페이지 번호나 절 번호를 함께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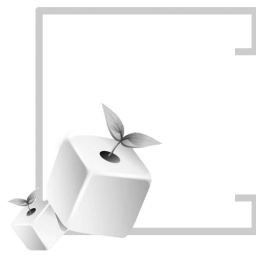
2. 근현대 신문과 잡지에 수록된 어원 및 어휘사 관련 기사도 수집하면 좋을 듯합니다. 다만 조선어학회의 〈한글〉이나 조선어학연구회의 〈정음〉에 실린 어원 관련 기사들은 작년에 이미 데이터베이스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어원에 관한 것도 좋지만, 어휘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 엿볼 수 있는 기사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1930년 조선일보에 연재된 한글 철자법강좌에 ‘가르치다’와 ‘가리치다’를 구별해서 써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이 당시에 두 어휘의 사용에 많은 혼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어원사전 집필에도 이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3. 근대 이후, 특히 개항기에 들어온 한자어, 외래어, 번역 차용어의 경우 그 유입 경로와 외국어에서의 단어 정보에 대해 알려진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겠고,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 당시의 중국, 일본의 사전 내용도 검색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올해 사업의 범위에서는 벗어나는 것이지만 앞으로 고려할 수 있을 듯하여 말씀드립니다.

〈반영 결과〉

- DB에 석사학위논문 포함
- 단행본, 학위 논문 DB에 쪽수 정보 추가



제 6 장

기대 효과



제6장에서는 2024년 국어 어원사전 편찬 사업에서 팀별로 수행한 작업의 의의와 기대 효과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6.1. 집필·감수팀

□ 최신의 어원 연구 성과를 반영하면서도, 일반 국민을 예상 독자로 하여 완성도 높은 어휘 역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2024년 사업을 통하여 《국어 어원사전》에 수록될 어휘 항목을 확대하고, 기존 어휘 정보의 정밀도를 높임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어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표제어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집필함으로써, 한국어 어휘 역사에 대한 정보성과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또한, 고대 한국어 시기의 최초 출현형이 확인되는 어휘의 어원 정보를 별도로 정리함으로써, 한국어 어휘 변화의 흐름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19세기 후반에 새롭게 출현한 어휘를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를 수행하여, 근현대 한국어의 어휘 변천에 대한 자료적 가치를 높였다. 집필 및 감수 과정에서는 보다 정교한 절차를 마련하여, 기존 연구의 오류를 수정하고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집필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표제어별 감수 단계를 체계화하여, 일반 독자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에게도 신뢰할 수 있는 어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어휘의 형태·음운 변천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조정하고 표준화함으로써, 일반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다. 《국어 어원사전》은 언어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한국어 어휘의 역사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어원 활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연구 등 여러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원고를 작성하였음.

2024년 사업에서는 어휘의 형태·음운 변천뿐만 아니라 의미 변화 과정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여 원고를 집필하였기에, 국어 교육 및 연구 현장에서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고등학교 〈국어〉 및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는 한국어의 역사와 어휘 변천 과정을 다루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사전은 이러한 교과 내용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익숙한 어휘의 변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한국어 어휘 연구자들에게도 본 사전이 의미 있는 자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기존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새로운 연구 결과를 포함하여 집필된 이번 《국어 어원사전》은 방대한 표제어에 대한 세기별 형태 변천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또한, 어원 정보 기술에 참고할 수 있는 연구 자료와 논저를 제공함으로써, 언어 연구자들이 더욱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어원 연구를 수행하는 데 유용한 기반이 될 것이다.

《국어 어원사전》은 단순한 어휘 변천 기록을 넘어,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어원을 기술하였다. 이에 따라 국어학뿐만 아니라 역사학, 민속학, 인류학 등의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어휘의 변천 과정을 사회적·문화적 변화와 연결하여 연구하려는 학자들에게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6.2. 말뭉치팀

□ 2024년 말뭉치의 정비는 기존 말뭉치 정비 사업과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어원사전 집필의 기반자료를 제공하며 국어사 자료의 균형있는 토대 구축에 기여함.

첫째,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2023년 말뭉치 정비의 후속 사업으로 2023년 정비 미완결 문헌의 말뭉치를 정비하였다. 『변강쇠가_신재효판소리사설집(전)』, 『한영자전』(296-830쪽), 『속명의록언해』(한문) 등 2023년에 완결되지 못한 미정비 말뭉치 과제를 마무리 지어 각각의 문헌별 완전 상태의 말뭉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2023년 입수한 신규 말뭉치 중 연간 자료 11종을 추가 구축하였다. 극소수에 불과하였던 연간 말뭉치 자료를 추가적으로 구축하여 국어사 연구의 기초 자료 및 어원사전 편찬의 기반 자료를 확충할 수 있었다.

셋째, 신소설 말뭉치의 정비를 통해 어원사전 집필에 기여할 수 있다. 2023년 25건 신소설 말뭉치의 정비에 이어 16건의 신소설 말뭉치를 추가 정비하였다. 기존 역사 말뭉치는 19, 20세기 전환기의 자료가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어형이나 의미의 변화를 추적적으로 기술하는 데 한계가 컸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OHICO 플랫폼과 깜짝새의 연동으로 말뭉치 구축·정비의 기술 및 말뭉치팀과 집필팀의 상호작용이 개선됨.

2023년에 진행한 말뭉치 정비 작업의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피드백과 그에 맞춘 시스템상의 개선은 향후 말뭉치 정비와 사전 집필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기대한다.

첫째, 2023년에 이어 KOHICO 플랫폼을 이용한 말뭉치 정비 작업은 기존의 정비 작업과 차별화된 이점을 제공하였다. 시공간의 구애 없이 작업과 검토를 진행할 수

있었고, XML 데이터의 형식을 점검하는 작업자와 내용을 점검하는 작업자의 업무 분담은 많은 시간을 단축하여 상당히 효율적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고품질의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공동 사업 분야에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서버 및 인터넷 교체로 인해 2023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속도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말뭉치 작업자의 경우 KOHICO에 말뭉치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시 겪었던 속도 문제가 일부 해결되었고, 집필자의 경우 검색에 이용하기 위해 말뭉치를 다운받을 시 업데이트된 것만 자동으로 다운받게 하여 모든 자료를 다운받았던 2023년 사업보다 속도의 향상을 이루었다.

셋째, 말뭉치의 정비와 검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방식은 정비가 완료되기 전까지 말뭉치를 검색에 이용할 수 없었지만, 깜짝새와 KOHICO의 연동으로 인해 정비 단계에 있는 말뭉치를 깜짝새에서 실시간 다운받아 검색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자료의 공백을 더 신속하게 채워줌으로써 어원 사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말뭉치와 영인 자료의 연동을 시범적으로 선보여 말뭉치 작업자가 더 정확하게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집필자의 경우 정비 단계에 있는 말뭉치 이용 시 영인 자료를 통해 입력 오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의 상호 작용은 말뭉치의 품질 향상과 집필 내용의 개선에 기여한다.

6.3. 차자표기팀

□ 차자표기 어휘 목록을 집대성하고 관련 정보 DB를 구축하여 차자표기 관련 연구에 기여함.

한자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기록한 차자표기 어휘를 집대성한 자료집은 일찍이 『고대국어어휘집성』(송기중·남풍현·김영진 공편, 1994,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3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새로운 이두, 구결 자료들이 많이 발견되었지만 이들까지 망라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목록화한 작업은 아직 시도된 적이 없다. 따라서 2024년 국어 어원사전 편찬 사업에서 미흡하나마 현 시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자료집, 사전, 원문 입력 자료 등을 검토하여 차자표기 어휘 DB를 구축한 것은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차자표기 및 국어사 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어원사전 내 차자표기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집필 지침을 마련하여 어원사전의 정체성 확립과 사전 이용자의 기대에 부응함.

이번 사업에서 국어 어원사전 내 차자표기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집필 지침 초안과 일부 항목에 대한 시범 집필을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한글 창제 이후 자료에만 근거하여 국어 어휘의 역사를 기술해 온 문제를 극복하고 어원사전으로서의 정체성을 뚜렷

이 세우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한글 창제 이전 시기에 우리말 어휘가 어떻게 표기되었는지 궁금해하는 사전 이용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6.4. 자료구축팀

□ 국어 어원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통합적 데이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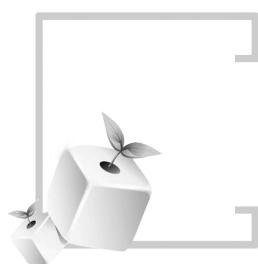
2024년 사업을 통해 구축된 어원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의 개별 연구 성과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며, 국어 어원 연구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한다. 특히, 어휘의 역사적 변천과 관련된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정리함으로써 연구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는 국어 어원사전 편찬뿐만 아니라 국어학 연구 전반에 걸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 국어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표준 모델 확립

본 사업에서는 어원 데이터의 체계적 정리 및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 검색 및 필터링 기능을 추가하였다. 이처럼 데이터 활용의 접근성을 높이게 됨으로써 연구자들은 손쉽게 어원 정보를 탐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데이터 구조의 표준화를 통해 향후 국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참조할 수 있는 모범적인 연구 모델을 제공하게 되었다.

□ 어원 연구 기반 확장을 위한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 확보

이번 연구를 통해 국어 어원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다양한 학술적 성과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어원사전 편찬뿐만 아니라 국어 교육, 국어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향후 데이터 업데이트 및 추가 연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국어학 분야의 연구 역량 강화 및 장기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록



[부록 1] 집필·감수팀 - 2024년 집필 완료 항목

가까스로, 가꾸다, 가끔, 가날프다, 가누다, 가느스름하다, 가는소금, 가늠하다, 가다루다, 가당찮다, 가득, 가득, 가라지, 가라지조, 가라치, 가락(005), 가락(010), 가락국수, 가랑잎, 가랏, 가래, 가래질, 가려내다, 가로다, 가로지다, 가루다, 가루라, 가르마, 가르새, 가르침, 가릉빈가, 가리마, 가리맛, 가마(001), 가마(003), 가만가만, 가말다, 가물가물, 가물거리다, 가뭇하다, 가방, 가사, 가스등, 가슴, 가슴빠, 가슴츠레하다, 가슴패기, 가시나무, 가시내, 가없이, 가엽다, 가위, 가으내, 가을밤, 가입하다, 가장자리, 가죽, 가짜, 가축, 가타, 가타부타, 가팔막, 가풀막, 가회톱, 각다귀, 각다귀판, 각선미, 간(001), 간(003), 간거리, 간다개, 간들어지다, 간수, 간자말, 간호부, 갈라내다, 갈리다, 갈림길, 갈맷빛, 갈무리, 갈무리하다, 갈바람, 갈비찜, 갈았하다, 갈피, 감기, 감나무, 감사, 감사무지, 감사무지하다, 감사하다, 감사히, 감싸다, 감아쥐다, 감제풀, 감투밥, 감파랄다, 갑갑증, 값비싸다, 값싸다, 값어치, 갓, 갓난아이, 갓난이, 갓밭이, 강아지풀, 강짜, 강피, 갓갓, 갓다, 갓은, 갓, 같이, 개날, 개떡, 개똥벌레, 개씨바리, 개오동나무, 개울가, 개이파리, 개인, 개자하다, 개잘량, 개장국, 개제하다, 개차반, 개키다, 갯벌, 가룩하다, 가웃, 가웃거리다, 거간, 거덜, 거듬, 거란, 거랑, 거러지, 거렁뱅이, 거룻배, 거리, 거리거리, 거리치, 거명, 거물거리다, 거물거물, 거뭇거뭇, 거미치밀다, 거북살스럽다, 거북스럽다, 거사, 거슴츠레하다, 거울삼다, 거웃, 거짓말하다, 거풀, 건달바, 건달뱅이, 건답, 건더기, 건몰다, 걸때, 걸레, 걸림돌, 걸상, 걸음마, 걸음발, 검부짚불, 검은색, 검은옻, 검은콩, 겁, 겁먹다, 경성드뭇, 경성드뭇하다, 겹겹질, 겹절이, 겹치레, 게걸, 게다가, 게딱지, 게슴츠레, 게슴츠레하다, 겨냥, 겨냥하다, 겨린, 겨우살이, 겹거니틀거니, 겹고틀다, 결리다, 결은신, 결코, 겹저고리, 경영하다, 경자마지, 경험, 경험하다, 겹가지, 겹두리, 계삼탕, 계집년, 계집애, 겹시다, 고(001), 고(003), 고구마, 고까웃, 고깝다, 고내기, 고누, 고달이, 고달프다, 고두리, 고두밥, 고두쇠, 고동, 고드름, 고들개, 고들빼기, 고등어, 고라, 고라니, 고라말, 고랑, 고래(002), 고래(001), 고래고래, 고래실, 고로쇠나무, 고로케, 고루, 고르다(004), 고르다(002), 고르다(001), 고름(001), 고름(002), 고리(001), 고리(003), 고리눈, 고리눈말, 고리눈이, 고리장이, 고리짝, 고린내, 고린전, 고릿적, 고마이, 고만, 고만두다, 고맘때, 고맙다, 고명딸, 고모, 고무, 고무래, 고무신, 고무줄, 고물, 고바우, 고방(001), 고방(007), 고부탕이, 고분고분, 고불고불, 고붓고붓, 고빔, 고비(001), 고비(002), 고뿔, 고뻘, 고사리, 고살, 고소하다, 고수, 고수머리, 고스란히, 고슴도치, 고슴뚝, 고싸움, 고약, 고약하다, 고양이, 고요, 고요하다, 고요히, 고욤, 고위까람, 고을, 고의, 고이, 고이다(003), 고이다(001), 고자, 고자질, 고작, 고장, 고쟁이, 고종씨, 고주망태, 고주박, 고지식하다, 고집, 고집하다, 고초, 고추, 고추장, 고치, 고치다, 고프다, 곱쟁이, 곤두, 곤두곤두, 곤두박질, 곤두박질하다, 곤두서다, 곤두세우다, 곤두질하다, 곤비하다, 곤쟁이, 곤쟁이젓, 곤지곤지, 곧, 곧바로, 곧이어, 곧잘, 곧장, 골답, 골동반, 골똥하다, 골방, 골백번, 골치, 곰국, 곰기다, 곰방대, 곰비임비, 곰살갑다, 곰살긋다, 곰탕, 곰팡, 곱다랄다, 곱돌, 곱사등, 곱사등이, 곱셈, 곱송그리다, 곱슬머리, 곱절, 곱창, 공부, 공부하다, 공이, 공짜, 과메기, 관두다, 관자놀이, 팔팔하다, 팔다, 팔하다, 광고, 광우리, 쾌쌈스럽다, 쾌쌈히, 팬히, 피나리, 피나리봇짐, 피악하다, 꿔, 구두, 구령찰, 구름다리, 구리, 구릿대, 구멍가게, 구물구물, 구석구석, 구접스럽다, 구정물, 구조개, 국문, 국어, 군것, 군고구마, 군데, 군데군데, 군밤, 군불, 군식구, 군어지다, 굴, 굴다, 굴대, 굴렁쇠, 굴레미, 굶다, 굶다, 굶주림, 굶닐다, 굶적이다, 굶, 굶다, 굶도리, 굶신굶신, 굶실굶실, 굶이굽이, 굶적, 굶히다, 굶, 굶거리, 굶웃,

굿일, 궁글다, 궁금증, 굿다, 권연초, 켄련, 꺾작, 귀감, 귀걸이, 귀땀, 귀뺨이술, 귀싸대기, 귀알, 귀양살이, 귀예지, 귀엽다, 귀통이, 귀틀집, 그거, 그녀, 그대로, 그때그때,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대로, 그런데, 그럴듯하다, 그럴싸하다, 그럼, 그렇다, 그렇지, 그렇지만, 그리고, 그리메, 그리워하다, 그리하여, 그맘때, 그믐달, 그중, 그쪽, 그토록, 극성부리다, 극성스럽다, 근지럽다, 글리, 글썸, 글썸요, 굵개, 금강석, 금붕어, 금자탑, 금줄(禁줄), 굿다, 기꺼이, 기껏해야, 기다랗다, 기라성, 기름칠, 기린, 기막하다, 기스락, 기슭, 기어이, 기어코, 기억, 기차, 긴가민가하다, 길, 길라잡이, 길미, 길썸, 길속, 김밥, 김장, 깃들다, 깊숙이, 깊숙하다, 깊이다, 까까머리, 까끄라기, 까나리, 까딱, 까딱수, 까딱하다, 까마득하다, 까맣다, 까부라지다, 까부르다, 까짓, 까치설, 까치설날, 깍쟁이, 깎이다, 깎풍기, 깎끔하다, 깎때기, 깎냥, 깎박이다, 깎작하다, 깎통, 깎패, 깨기, 깨끼접저고리, 깨끼저고리, 깨달음, 깨우치다, 깨트리다, 꺼내다, 꺼내리다, 꺼당기다, 꺼두르다, 꺼들다, 꺼들이다, 꺼병이, 꺼병하다, 꺼병이, 꺼오다, 꺼올리다, 꺾꽃이, 꺾, 꺾데기, 꺾안다, 꼬느다, 꼬락서니, 꼬랑이, 꼬랑지, 꼬마, 꼬봉, 꼬장꼬장, 꼬치, 꼬치꼬치, 꼭, 꼭둑각시, 쫓다, 쫓, 쫓뚜기, 쫓망태, 쫓불건, 쫓결, 쫓나풀, 쫓느름하다, 쫓떡쫓떡하다, 쫓집다, 쫓집어내다, 쫓트머리, 쫓기다, 쫓임없다, 쫓임없이, 쫓려가다, 쫓리다, 쫓어당기다, 쫓어들이다, 쫓어안다, 쫓어올리다, 쫓채, 쫓찍하다, 쫓, 쫓다, 쫓내, 끼리끼리, 끼어들다, 끼었다, 끼우다, 낚새, 낚강, 나도밤나무, 나돌다, 나르다, 나른하다, 나름, 나리, 나리꽃, 나마, 나무꾼, 나뭇등걸, 나방, 나부랭이, 나빠지다, 나서다, 나아지다, 나우, 나위, 나일론, 나지리, 나지막하다, 나팔, 나팔꽃, 낙화생, 낚시꾼, 난데없다, 난데없이, 난봉꾼, 난생처음, 난잡하다, 난잡히, 난처하다, 날가리, 날, 날다람쥐, 날라리, 날물, 날실, 날아들다, 날짜, 날치, 날잡다, 날큰하다, 날파람, 남다르다, 남만시, 남매, 남바위, 남사당, 남산골샌님, 남우세스럽다, 낫다(001), 낫다(002), 낫잠, 낫참, 낫꽃, 낫빛, 낫익다, 낫작, 낫다, 내(015), 내(004), 내가다, 내걸다, 내년, 내놓다, 내다보다, 내던지다, 내려가다, 내려놓다, 내려다보다, 내려다보이다, 내려서다, 내려앉다, 내리치다, 내립떠보다, 내미손, 내뺨다, 내보내다, 내보이다, 내뽐다, 내색, 내세우다, 내젓다, 내종씨, 내지르다, 내쫓기다, 내쳐, 내키다, 냄비, 냇다, 냇뿔다, 냇뜨다, 냉돌, 냉면, 너그럽다, 너나들이, 너름새, 너머, 너무나, 너무나너무, 너백선, 너삼, 녀두리, 녀두리, 녀따랗다, 녀뛰기, 녀리다, 넓이, 넓적하다, 녀겨보다, 녀겨주다, 녀мна들다, 녀보다, 녀적, 녀죽, 녀할아버지, 네놈, 네뺨, 네모반듯하다, 네모지다, 녀석, 노가다, 노구슬, 노니다, 노다지, 노드리듯, 노라리, 노란색, 노랑, 노래미, 노력보다, 노른자, 노른재, 노망태, 노여움, 노적가리, 노파리, 노파심, 녹비(鹿皮), 눈, 눈다니, 눈도랑, 놀, 놀이터, 놔팡이, 낫, 농악, 높새, 높새바람, 높이, 높이다, 놓다, 놓아두다, 놓이다, 놓치다, 놔두다, 뇌다, 뇌졸중, 누긋하다, 누나, 누다, 누령, 누령물, 누르다, 누름적, 누리, 누비혼인, 눈곱, 눈길, 눈깔사탕, 눈꺼풀, 눈썹, 눈대중, 눈독, 눈두덩, 눈뜨다, 눈부시다, 눈살, 눈썰미, 눈앞, 눈여겨보다, 눈요기, 눈총, 눈치코치, 놀려듣다, 놀리다, 놀은밥, 놀히다, 뉘(008), 뉘(007), 뉘(009), 뉘웃다, 느긋하다, 느낌, 느닷없이, 느림, 느슨하다, 느즈러지다, 느타리, 늑장, 늘, 늘그막, 늘다, 늘리다, 늘씬하다, 늘어서다, 능금나무, 능수버들, 능쟁이, 능지처참, 능히, 늦깎이, 늦마, 다가, 다가가다, 다가서다, 다가오다, 다그치다, 다급하다, 다담상, 다라지다, 다락방, 다래, 다른, 다만, 다발, 다솜, 다습다, 다시(001), 다시(009), 다시다, 다음, 다이를까, 다잡다, 다조지다, 다쫓다, 다지다, 다질리다, 다짐하다, 다짜고짜, 다짜고짜로, 다툼, 닥, 단골집, 단꿈, 단돈, 단둘, 단말마, 단맛, 단봇짐, 단숨에, 단작, 단집, 달강달강, 달개, 달거리, 달구리, 달라붙다, 달라지다, 달맞이꽃, 달아오르다, 달음, 달창나다.

달콤하다, 달포, 달하다, 닭의씻개비, 담그다, 담기다(003), 담기다(001), 닳, 당달봉사, 당도리,
 당면, 당조짐, 당찮다, 당초, 당추자, 닳, 대가리, 대갈, 대갈빡, 대거리, 대구, 대구탕, 대꾸,
 대꾸하다, 대낮, 대단찮다, 대단하다, 대단히, 대뜸, 대리석, 대마, 대목, 대문짝, 대문짝만하다,
 대번, 대번에, 대수, 대시, 대야(002), 대야(005), 대엿, 대장간, 대중, 대중없다, 대중없이,
 대통령, 대포, 대꽃술, 대합실, 맥, 맷바람, 맵기, 더군다나, 더기, 더께, 더넘, 더더욱, 더덕,
 더러, 더미, 더버기, 더벽머리, 더없이, 더욱, 더욱더, 더욱이, 더운찜질, 더위, 더하다,
 덕지덕지, 덕택, 덜, 덜리다, 덤, 덤불, 덤터기, 덧, 덧붙이다, 덧없다, 덧입다, 덧저고리, 덩,
 덩거칠다, 덩굴, 덩달다, 덩치, 덮이다, 덮치기, 덮치다, 데, 데굴데굴, 데려가다, 데려오다,
 데면데면, 데면데면히, 도대체, 도둑, 도둑질, 도둑질하다, 도드리장단, 도떼기시장, 도롱고리,
 도롱이, 도루묵, 도르다(002), 도르다(001), 도르래, 도르리, 도리, 도리깨질, 도리도리,
 도리머리, 도리질, 도말다, 도무지, 도붓장수, 도사리다, 도산지기, 도서다, 도와주다, 도우미,
 도우탄, 도저히, 도차지, 도투락, 독, 독살스럽다, 돈가스, 돈벼락, 돈육, 돈저냐, 돈푼, 돈보기,
 돈보이다, 돈아나다, 돈치다, 돌, 돌꽃, 돌나물, 돌날, 돌려주다, 돌맹이, 돌미나리, 돌발,
 돌부리, 돌부처, 돌아다니다, 돌아다보다, 돌이키다, 돌쩌귀, 돌팔매, 돌팔매질, 돌팔이, 뚱다,
 동그랗다, 동나다, 동넵, 동동걸음, 동떨어지다, 동무, 동무니, 동산, 동아줄, 동전, 동지,
 동짓달, 동쪽, 동티, 돛, 돛대, 돼지고기, 돼지우리, 되(001), 되(005), 되게, 되놈, 되다(024),
 되다(026), 되도록, 되돌리다, 되돌아가다, 되돌아보다, 되돌아오다, 되매우기, 되묻다,
 되살리다, 되살아나다, 되새기다, 되잡다, 되찾다, 되풀이되다, 되풀이하다, 된풀, 뒷박, 두,
 두겁, 두견, 두견새, 두고두고, 두근거리다, 두둑, 두둑두둑하다, 두둔, 두드러지다, 두령,
 두려움, 두려워하다, 두름, 두릅나무, 두리번거리다, 두말하다, 두세, 두셋, 두텁떡, 두툼하다,
 둔덕, 둔치, 둔하다, 둘러메다, 둘러보다, 둘러싸다, 둘러싸이다, 둘러다, 둘째, 둥, 둥개둥개,
 둥지, 뒤늦다, 뒤다(001), 뒤다(002), 뒤덮이다, 뒤돌아보다, 뒤따르다, 뒤떨어지다, 뒤버무리다,
 뒤엎기다, 뒤잇다, 뒤쫓다, 뒤집다, 뒤집어쓰다, 뒤집히다, 뒤쪽, 뒤척이다, 뒤통수,
 뒤틀어지다, 뒤편, 뒤흔들다, 뒷걸음, 뒷걸음질, 뒷골목, 뒷면, 뒷모습, 뒷받침, 뒷발, 뒷방,
 뒷산, 뒷손가락질, 뒤굴다, 드난살이, 드디어, 드러나다, 드러내다, 드러눕다, 드레, 드리우다,
 드스하다, 드습다, 든든하다, 든다, 든잡다, 들것, 들까불다, 들깨, 들러리, 들레다, 들려오다,
 들려주다, 들르다, 들리다(007), 들리다(005), 들먹이다, 들썩이다, 들썩대다, 들쭉날쭉,
 들어서다, 들어앉다, 들어주다, 들어차다, 들여다보다, 들여오다, 들이, 들이대다, 들이마시다,
 들이키다, 들입다, 들짐승, 들키다, 들판, 듯, 듯싶다, 듯이, 듯하다, 등밀이, 등에, 디덜방아,
 따갑다, 따돌리다, 따듯하다, 따따부따, 따뜻이, 따라다니다, 따라서, 따라오다, 따라지,
 따라지목숨, 따로따로, 따스하다, 따위, 따지다, 딱, 딱딱하다, 딱지, 딱총, 딱하다, 탄,
 탄따라패, 탄전, 탄죽, 딸리다, 딸아이, 딸애, 땀내, 땀받이, 땅거미, 땅꾼, 땅땸, 땅바닥, 땅속,
 땅콩, 땅다, 때다(003), 때다(002), 때로, 때문, 때아니다, 때우다, 때짚레, 땀, 땀전, 띠꺼머리,
 떠나가다, 떠나다, 떠돌다, 떠돌아다니다, 떠들다, 떠말다, 떠올리다, 떡, 떡고물, 떡두꺼비,
 떡볶이, 떡잎, 떨구다, 떨다, 떨어지다, 떨어트리다, 떼(003), 떼(005), 떼돈, 떼쓰다, 떼목,
 떼장, 또는, 또다시, 또라이, 또래, 또릿또릿하다, 또한, 똑같다, 똑같이, 똑딱선, 똑똑하다,
 똑똑히, 똑바로, 톨마니, 톱물, 퇴약별, 퇴창, 뚜껑밥, 뚜렷이, 뚜렷하다, 뚜쟁이, 툇, 툇배기,
 툇지, 툇리다, 툇어지다, 툇판지(001), 툇판지(005), 툇뚱하다, 뛰어가다, 뛰어나가다, 뛰어나다,
 뛰어넘다, 뛰어다니다, 뛰어들다, 뛰어오다, 뛰어오르다, 뛰쳐나가다, 땸, 뜨겁다, 뜨내기,
 뜨듯하다, 뜨뜻하다, 트락, 트음하다, 뜬금없다, 뜬눈, 뜬소문, 뜯어내다, 뜸, 뜻밖, 뜻밖에.

뜻있다, 띄다, 띄우다(005), 띄우다(002), 띄우다(001), 띠, 레지, 마감, 마구리, 마냥, 마냥모,
 마님, 마담, 마들가리, 마디다, 마땅찮다, 마땅히, 마뜩잖다, 마련, 마련되다, 마련하다, 마루,
 마르다(001), 마르다(007), 마른자리, 마름, 마름질, 마무리, 마빡, 마수, 마수걸이, 마요네즈,
 마을(001), 마을(003), 마음, 마음가짐, 마음껏, 마음대로, 마음먹다, 마음속, 마음씨, 마주보기,
 마주하다, 마치, 마치다, 마침, 마침내, 마흔, 막간, 막강하다, 막국수, 막다, 막대, 막대기,
 막둥이, 막무가내, 막상, 막새, 막지르다, 막지밀, 막질리다(001), 막질리다(002), 막히다,
 만나다, 만날, 만남, 만년필, 만담, 만들다, 만듬새, 만리경, 만만찮다, 만만하다(001),
 만만하다(003), 만무방, 만세, 만신, 만약, 만지작거리다, 만지작만지작, 만하다, 만화, 만,
 말물, 맡아주머니, 맡오빠, 만이, 말(013), 말(001), 말갈다, 말개미, 말개지다, 말고삐,
 말괄량이, 말굴레, 말귀, 말끔, 말끔히, 말다, 말다툼, 말달리다, 말대꾸, 말더듬이, 말뚝말뚝,
 말라깽이, 말리다, 말림, 말막음, 말매미, 말몰이꾼, 말문, 말뼉, 말뼉꾼, 말쑥이, 말쑥하다,
 말없이, 말짱하다, 말짱히, 말투, 말하기, 말혁, 맑스그레하다, 맑은술, 맘, 맘마, 맵소사,
 맛나다, 맛있다, 망가지다, 망둥이, 망령되이, 망석중, 망석중이, 망설이다, 망원경, 망초, 망치,
 망치다, 망태, 망태기, 망하다, 맛다, 맛대다, 맛돈, 맛바람, 맞서다, 맞은편, 맞장구, 맞다, 말,
 말다, 매끄럽다, 매달다, 매달리다, 매무새, 매섭다, 매암, 매우, 매운맛, 매이다, 매캐하다,
 매콤하다, 매콤하다, 매한가지, 매화틀, 맥고모자, 맥주, 맥쩍다, 맴, 맴돌다, 맵싸하다, 맵쌀,
 맵푹이, 맵탕, 머나멀다, 머다랄다, 머리칼, 머리통, 머릿속, 머무적머무적, 머물다, 머뭇머뭇,
 머슴애, 머저리, 머지않다, 머춤하다, 머춤하다, 먹고살다, 먹다, 먹먹히, 먹새, 먹성, 먹음새,
 먹음직스럽다, 먹이, 먼동, 먼산바라기, 먼지떨이, 멀거니, 멀건이, 멀다, 멀리, 멀미, 멀쑥하다,
 멀쩡하다, 멀찌가니, 멀찌감치, 멀찌막이, 멀찌막하다, 멀쩡멀쩡, 멀쩡하다, 멈칫, 멧, 멧있다,
 멧지다, 멧쩍다, 멍멍이, 멍석팔기, 멍석말이, 멍청이, 멍청하다, 멍추, 멍텅구리, 멍하니,
 멍하다, 멧다, 메(003), 메(004), 메기다, 메기장, 메꾸다, 메리야스, 메벼, 메스껍다, 메이다,
 메조, 메지다, 메추리, 멜빵, 멧갓, 멧돼지, 며느님, 며느리밀씻개, 며느리발톱, 며느리배꼽,
 며늘아기, 멀치, 명아주, 명주, 명함, 몇몇, 모, 모가치, 모듈뜨기, 모래찜질, 모롱이, 모리꾼,
 모리배, 모습, 모짜, 물이꾼, 몸부림, 몸부림치다, 몸빼, 몸살, 몸속, 몸종, 몸집, 몸짓, 몸차림,
 몸체, 몸치레, 몸통, 몸피, 몹시, 못(004), 못(001), 못(003), 못나다, 못내, 못다, 못도지,
 못되다, 못마땅하다, 못생기다, 못서다, 못자리, 못지않다, 몽글리다, 몽땅, 몽우리, 몽짜,
 몽치다, 몽키다, 뵈, 묘지, 묘지기, 무거리, 무념기, 무논, 무느다, 무다리, 무당벌레, 무당새,
 무더위, 무덤가, 무덤새, 무도회, 무동, 무따래기, 무랍, 무력무력, 무림생선, 무렵다, 무려,
 무렵, 무르다, 무르와가다, 무르와내다, 무르춤하다, 무름하다, 무릇, 무릇하다, 무릎도리,
 무릎디피무, 무릎맞춤, 무리(006), 무리(004), 무리꾸러, 무리하다, 무말랭이, 무맛, 무면나다,
 무명배, 무명실, 무명옷, 무살, 무삶이, 무서움, 무솔다, 무쉬, 무시무시하다, 무씨, 무어, 무엇,
 무엇하다, 무에리수예, 무응예수수, 무자리, 무자맥질, 무자맥질하다, 무자위, 무자이, 무저울,
 무정하다, 무젓다, 무좀, 무지기, 무지러지다, 무지령이, 무지르다, 무지하다(001),
 무지하다(002), 무지하다(004), 묶다, 묶음, 묶이다, 문, 문님이, 문돈이, 문득, 문밖, 문발,
 문뺏내, 문잡다, 물, 물감, 물건, 물긋물긋하다, 물긋하다, 물너울, 물렁하다, 물레방아,
 물렛가락, 물샬틈없다, 물샬틈없이, 물음, 물장구, 물장구질, 물장구치다, 물뽕물뽕, 물뽕하다,
 물컹거리다, 물컹물컹, 물컹물컹하다, 물컹이, 물컹하다, 물쿠다, 물디물다, 물숙하다,
 묶스그레하다, 뭉근하다, 뭉근히, 뭉키다, 물길, 물집승, 뵈, 뵈, 뵈하다, 미끈둥하다, 미대다,
 미레질, 미련, 미루나무, 미루적거리다, 미루적대다, 미루적미루적, 미심쩍다, 미안하다, 미역,

미역국, 미용실, 미용원, 미음, 미이다, 미장원, 미장이, 미적, 미적거리다, 미적대다, 미적미적하다, 미주알, 미주알고주알, 미치다, 미친개, 민낯, 민동산, 민망하다, 민족, 민통하다, 믿음직스럽다, 믿음직하다, 밀감, 밀개떡, 밀기름, 밀다, 밀동자, 밀따기, 밀랍, 밀려나다, 밀려들다, 밀려오다, 밀어내다, 밀어붙이다, 밀접하다, 밀푸러기, 밀광스럽다, 밀살맛다, 밀살머리스럽다, 밍근히, 밋, 밋갈이짚, 밋싹개, 밋싹개, 밋정, 바곳, 바깥쪽, 바꿈질, 바뀌다, 바느질아치, 바늘꽃, 바닷이, 바닷하다, 바디나물, 바라기, 바라다보다, 바라지, 바람꽃, 바람나다, 바람비, 바람직하다, 바래다, 바래다주다, 바랭이, 바로, 바로잡다, 바르다, 바리, 바리데기, 바리강, 바위틈, 바지개, 바지랑대, 바지춤, 바짓가랑이, 바짝, 바침술집, 바퀴벌레, 바투, 바투이, 박, 박각시, 박달, 박새, 박쌈, 박이다, 박쥐구실, 박쥐우산, 박차, 박치기, 박탈, 박태기나무, 반걸음, 반나마, 반달이, 반대, 반대편, 반대하다, 반두질, 만드럽다, 만드시, 만득만득하다, 만듯만듯하다, 반물, 반박하다, 반빛아치, 반빛하님, 반지, 반지럽다, 반진고리, 반짝거리다, 반짝이다, 반찬단지, 반창고, 반편, 반편스럽다, 반하다, 받다, 받아들이다, 받자, 받히다, 받, 받가송이, 받감개, 받강, 받갈다, 받개지다, 받걸음, 받그대대하다, 받그댕댕하다, 받그레하다, 받그름하다, 받그무레하다, 받그속속하다, 받그스레하다, 받그스름하다, 받그족족하다, 받굿받굿, 받대중, 받록구니, 받리다(001), 받리다(007), 받림, 받막, 받맘받맘, 받바리, 받밤받밤, 받버둥이, 받버둥질, 받뵈다, 받뵈뵈, 받씨, 받악하다, 받짝, 받치, 받기, 받혀내다, 밤늦다, 밤새껏, 밤웃, 밤하늘, 밥물, 밥하다, 맛줄, 방개, 방귀벌레, 방그레, 방금, 방망이찜질, 방문하다, 방바닥, 방송하다, 방시레, 방식, 방아깨비, 방아쇠, 방안, 방앗간, 방울뱀, 방울벌레, 방이다, 방짜, 발갈이, 발이다, 발장다리, 발치다, 배기다, 배낭, 배내, 배넛짚, 배다(001), 배다(009), 배다리, 배따라기, 배띠, 배롱나무, 배밀이, 배밀이하다, 배불뚝이, 배좁다, 배짱, 배착배착하다, 배참, 배추장다리, 배코, 백만장자, 백묵, 백반, 백서, 백숙, 백안시, 백안시하다, 백일장, 백일홍, 백중날, 백척간두, 백회혈, 뱀, 뱀도랏, 뱀뱀이, 뱀구레, 뱀살, 뱀심, 뱀줄, 뱅그레, 반덕, 반주그레하다, 밥뛰다, 버둥버둥, 버둥버둥하다, 버드러지다, 버드렁니, 버들, 버들웃, 버들치, 버러지, 버럭, 버렁, 버르장머리, 버르잡다, 버름하다, 버릇다, 버마재비, 버물리다, 버새, 버스, 버젓이, 버팀목, 벅차다, 번드럽다, 번드레하다, 번들번들하다, 번듯이, 번번이, 번번하다, 번번히, 번잡스럽다, 번잡하다, 번지다, 번지럽다, 번지질, 번째, 번차례, 번철, 번하다, 번히, 번정다리, 벌(002), 벌(008), 벌(001), 벌기다, 벌다, 벌리다, 벌림새, 벌물, 벌새, 벌씨, 벌음, 벌이, 벌타령, 벌판, 범강장달이, 범꼬리, 범벅, 범석, 벗겨지다, 벗기다, 벗어지다, 벗하다, 병거지, 병그레, 병긋거리다, 병병히(001), 병병히(002), 병시레, 벗, 벗나무, 베갯속, 베옷, 베자루, 베치마, 벼, 벼꽃, 벼락감투, 벼락부자, 벼룩시장, 벼름, 벼리다, 벼슬아치, 벼타작, 벽, 벽난로, 벽돌, 벽돌집, 벽면, 벽장, 벽창호, 벽화, 별것, 별다르다, 별똥별, 별안간, 별일, 별자리, 별짜, 별쫓나다, 별책, 범, 범쌀, 범씨, 벗날, 병치레, 별늬, 보, 보가지, 보깍질, 보꾸러미, 보내오다, 보늬, 보다(037), 보다(039), 보득솔, 보따리, 보라, 보라색, 보람하다, 보랏빛, 보루, 보름보기, 보리, 보리가락, 보리동지, 보리수, 보리웃, 보릿가루, 보릿고개, 보살핌, 보습고지, 보암보암, 보얗다, 보이다, 보쟁기, 보짱, 보탬, 보푸라기, 복달임(001), 복달임(002), 복덕방, 복받치다, 복숭아꽃, 복판, 볍음, 본데, 본래, 본밀, 본새, 볼그족족하다, 볼모, 볼썽, 볼우물, 볼품, 볼품사납다, 볼품없다, 봄가을, 봄꽃, 봄빛, 봄풀, 붓, 붓물, 붓장, 봉숭아, 봉죽, 봉지, 봐주다, 뵈다, 부끄러움, 부끄러이, 부닐다, 부다듯하다, 부닥치다, 부대끼다, 부대발, 부둥기다, 부드러이, 부드레하다, 부들, 부등가리, 부디기, 부딪히다, 부라, 부라리다, 부라부라, 부라질,

부라퀴, 부라부라, 부럼, 부루, 부룩소, 부르다, 부르르, 부르트다, 부름, 부리다, 부리이다, 부스스하다, 부시다, 부시시, 부영이셈, 부여잡다, 부유스름하다, 부자지, 부젓가락, 부지런, 부지런히, 부집게, 부쩍, 부채질, 부챗살, 부처, 부추기다, 부치다(011), 부치다(010), 부치이다, 부침개, 부침질, 부티, 부푸러기, 부풀리다, 북넉, 북새통, 북승이, 북어, 북재비, 북쪽, 분석하다, 불가사리, 불경이, 불그데데하다, 불그뎡뎡하다, 불그레하다, 불그름하다, 불그무레하다, 불그속속하다, 불그스레하다, 불그스름하다, 불그죽죽하다, 불긋불긋, 불긋하다, 불까다, 불등걸, 불땀, 불땀머리, 불뚝, 불러일으키다, 불리다(013), 불리다(011), 불리우다, 불리하다, 불림, 불쌍놈, 불쌍히, 불쏘시개, 불쑥, 불씨, 불어넣다, 불어리, 불어오다, 불줄기, 불집게, 불친소, 불과하다, 불쾌하다, 불태우다, 불한당, 불현듯이, 불덩물, 불어지다, 불으락푸르락, 붉은색, 붉히다, 붉다, 붓방아, 불임대, 불임성, 불임질, 불임틀, 불임판, 불임혀, 브래지어, 비, 비게질, 비계, 비김수, 비꼬이다, 비누, 비듬, 비등, 비뚜로, 비뚜름하다, 비뚤어지다, 비룻, 비룻되다, 비름, 비리척지근하다, 비릿비릿, 비릿비릿하다, 비릿하다, 비바람, 비바리, 비비대기치다, 비비적거리다, 비비적대다, 비빔밥, 비사치기, 비사치다, 비손, 비손하다, 비스듬히, 비스러지다, 비스거리다, 비속대다, 비슬거리다, 비슬대다, 비슬비슬, 비실비실, 비영비영하다, 비오리사탕, 비웃구이, 비웃적거리다, 비웃적대다, 비위, 비적비적, 비좁다, 비죽하다, 비지, 비지땀, 비쭈기나무, 비척거리다, 비추다, 비추이다, 비키다, 비틀거리다, 비틀리다, 비틈하다, 빈들빈들, 빈들빈들하다, 빈방, 빈자리, 빈정대다, 빈털터리, 빈틈, 빈틈없이, 빌미, 빌미하다, 빙더서다, 빗, 빗나가다, 빗줄기, 빙빙, 빙수, 빙시레, 빙충맛다, 빙충이, 빗꾸러기, 빗어내다, 빗어지다, 빗지다, 빗갈, 빗내다, 빠듯하다, 빠져나가다, 빠져나오다, 뻘히, 빨간색, 빨강, 빨갈다, 빨치산, 빠드러지다, 빠드렁니, 빠드렁이, 빠젓하다, 뻘히, 뻘다, 뻘지르다, 뻘침대, 뻘팔이, 뻘쭙하다, 뻥튀기, 뻥뜯이, 뻥빠지다, 뽀두라지, 뽀족이, 뽀듯하다, 뿌리내리다, 뿌리등걸, 뿌리치다, 뿌엇다, 뿌장귀, 뽳글뽳글, 뽳뽳이, 빠라, 빠침, 사그라지다, 사그랑이, 사그룻, 사글세, 사금, 사금파리, 사기(001), 사기(029), 사기(020), 사기(031), 사기(032), 사기(010), 사기(016), 사기(030), 사기(012), 사기(004), 사기꾼, 사기한, 사날, 사다새, 사들이다, 사랑니, 사랑채, 사래질, 사래, 사로자다, 사로잡, 사릅, 사리, 사립짜문, 사물놀이, 사박스럽다, 사발통문, 사부자기, 사삼버무레, 사시나무, 사양채, 사작바르다, 사작밥, 사쟁이, 사접시, 사철나무, 사탕무, 사탕발림, 사탕수수, 사탕절이, 사팔눈, 사팔뜨기, 사흔날, 사흘거리, 사흘돌이, 삭치다, 삭히다, 샅벌이, 샅팔이, 산, 산골짜기, 산군, 산길, 산꼭대기, 산더미, 산등성이, 산마루, 산마루터기, 산망스럽다, 산모롱이, 산모통이, 산봉우리, 산비탈, 산산이, 산산조각, 산속, 산양, 산이마, 산자고, 산지기, 산질, 산허리, 살갓, 살그머니, 살그미, 살깃, 살냄새, 살림살이, 살며시, 살무사, 살받이, 살벌하다, 살벌, 살살이, 살아가다, 살아남다, 살아생전, 살짝, 살쩍밀이, 살찌우다, 살치, 살피보다, 삶, 삶이, 삼, 삼계탕, 삼꽃, 삼눈, 삼다(003), 삼다(001), 삼발이, 삼수갑산, 삼순구식, 삼신할머니, 삼잡이, 삼재비, 삼촌, 삼치, 삼팔따라지, 삼편주, 삼하다, 삼사리, 삼시간, 샷갓나물, 샷대, 샷대질, 샷자리, 상감, 상감마마, 상그레, 상두받잇집, 상사위야, 상상, 상아, 상아탑, 상앗대질, 상응하다, 상추, 상큼상큼, 상투, 상피리, 새, 새경, 새고기, 새까맣다, 새남, 새물, 새빨갈다, 새알심, 새양나무, 새옹, 새조개, 새참, 새코찌리, 새털, 새파랗다, 색갈, 색다르다, 색동저고리, 샌들, 셀쭈하다, 샘받이, 섯강, 섯노랗다, 섯문, 섯바람, 섯서방, 생각나다, 생각되다, 생강짜, 생겨나다, 생계, 생과자, 생그레, 생김새, 생동팔, 생때갈다, 생무지(004), 생무지(001), 생벼락, 생사람, 생인발, 생인손, 생일, 생재기, 생전.

샴페인, 서그럽다, 서견, 서넉, 서느렇다, 서당, 서러움, 서름서름하다, 서름하다, 서무날,
 서삼촌, 서서히, 서성거리다, 서성대다, 서슴다, 서울, 서울까투리, 서족, 석수어, 석회,
 썩갈리다, 선녀, 선뜻, 선배, 선보이다, 선생님, 선술, 선인장, 선주후면, 선짓국, 선하품,
 선달받이, 선볼리, 설다듬이, 설령, 설레다, 설레발, 설령, 설탕, 섬, 섬새기다, 섬씨, 섬밀,
 성가퀴, 성그레, 성깃성깃, 성냥갑, 성냥개비, 성바지, 성스럽다, 성엿장, 성주받이, 섶(002),
 섶(005), 세, 세다, 세뚜리, 세상에, 세일, 세일즈맨, 세제, 셈수, 셔츠, 소들하다, 소란,
 소란스럽다, 소록소록, 소르르, 소리, 소리나무, 소리치다, 소매치기, 소몰이꾼, 소사(005),
 소사(015), 소소리, 소소리바람, 소스치다, 소용돌이, 소용없다, 소인네, 소주병, 소줏고리,
 소쩍새, 소쿠리, 속꺼풀, 속껍질, 속눈썹, 속다, 속대중, 속삭이다, 속상하다, 속이다, 속임수,
 속저고리, 속절없이, 속치마, 속하다, 속히, 속음, 손(007), 손(001), 손가락질, 손가방, 손거울,
 손견이, 손길, 손꼽히다, 손끝, 손녀, 손님, 손대중, 손도율이, 손돌바람, 손돌이추위, 손목시계,
 손바꿈, 손발, 손첩다, 손씻이, 손위, 손자, 손잡다, 손잡이, 손재수, 손질, 손질하다, 손짓,
 손찌검, 손톱깎이, 솔(005), 솔(003), 솔(001), 솔기, 솔다, 솔새, 솔솔이, 솔수평이, 솔직하다,
 솔직히, 솜대, 솜바지, 솜방망이, 솜솜, 솜옷, 솜저고리, 솜틀, 솜뜨다, 솜고라지다, 솜구치다,
 솜대, 솜아나다, 솜을대문, 솜치다, 송고리, 송골, 송곳니, 송사리, 송어, 송이, 송이버섯, 송치,
 췌장, 췌장이, 쇠, 쇠가래, 쇠고랑, 쇠꼬챙이, 쇠다(006), 쇠다(001), 쇠똥구리, 쇠막대, 쇠망치,
 쇠뭉둥이, 쇠새, 쇠손, 쇠지랑물, 쇠창살, 흰네, 수, 수계, 수고, 수고로이, 수고롭다, 수고하다,
 수군대다, 수군덕거리다, 수군수군, 수군수군하다, 수그러지다, 수그리다, 수놈, 수답, 수떨다,
 수라, 수라장, 수레, 수레바퀴, 수르르, 수리, 수리취, 수릿날, 수 많다, 수말, 수망, 수무지개,
 수바늘, 수박, 수박씨, 수백, 수백만, 수선거리다, 수세미, 수세미외, 수소문, 수소문하다, 수수,
 수수께끼, 수숫대, 수없이, 수월찮다, 수월하다, 수육, 수자해쫓, 수작, 수잠, 수저, 수전노,
 수종, 수종쇠, 수종다리, 수지니, 수진, 수진매, 수캉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투전, 수통니, 수파련, 수평아리, 수할치, 숙다, 숙덕숙덕, 숙주나물, 숙지다, 순하다, 순식간,
 순조롭다, 순진하다, 순히, 순갈, 술, 술래, 술래잡기, 술병, 술자리, 술잔, 술적심, 술찌끼,
 숨결, 숨기다, 숨박질, 숨소리, 숨지다, 숨탄것, 숨, 숨구멍, 숨기, 숨등걸, 숨불, 숨, 쉬,
 쉬다(002), 쉬다(010), 쉬다(003), 쉬다(001), 쉬슬다, 쉬엄쉬엄, 쉬지근하다, 쉬척지근하다,
 쉬파리, 원, 원내, 험사리, 스님, 스란치마, 스러지다, 스며들다, 스미다, 스산하다, 슬갑,
 슬그머니, 슬그미, 슬기, 슬기롭다, 슬다(001), 슬다(006), 슬머시, 슬몃슬몃, 슬쩍, 슬치,
 슬퍼하다, 슬프다, 슬픔, 슬피, 승배, 승강기, 승검초, 승냥이, 승새, 승아, 시갯박, 시계,
 시골, 시구문, 시궁, 시궁창, 시근거리다, 시근대다, 시금떨떨하다, 시금석, 시금시금, 시금치,
 시꺼멓다, 시끄럽다, 시내, 시냇가, 시냇물, 시늉, 시다, 시달리다, 시답다, 시답잖다, 시동생,
 시드럭부드럭, 시들다, 시래기, 시러베아들, 시러베자식, 시령, 시루, 시루떡, 시름, 시리다,
 시맥, 시무나무, 시부령거리다, 시삼촌, 시새우다, 시아버지, 시앗, 시어머니, 시어머님,
 시어미, 시우쇠, 시울, 시원찮다, 시원히, 시월, 시위(001), 시위(002), 시위대, 시장, 시장터,
 시장하다, 시정배, 시정아치, 시준가, 시중, 시집, 시집가다, 시척지근하다, 시치다, 시치미,
 시침, 시침실, 시침질, 시커멓다, 시큰거리다, 시큰대다, 시큰둥하다, 시큰하다, 시큼시큼,
 시큼하다, 시키다, 시툇이, 시툇하다, 식구, 식다, 식단, 식당, 식당차, 식지, 식칼, 식혜,
 식히다, 신, 신기료장수, 신기루, 신기전, 신기하다, 신나다, 신나무, 신돌이, 신랑, 신맛, 신문,
 신문사, 신문지, 신바람, 신발, 신비, 신비롭다, 신비스럽다, 신비하다, 신여성, 신진대사,
 신천지, 싣다, 실, 실감, 실감개, 실감하다, 실개울, 실개천, 실굽, 실굽달이, 실그러지다.

실그물, 실꾸리, 실날, 실내, 실내마님, 실답다, 실도랑, 실랑이, 실랑이하다, 실리다, 실안개,
 실없다, 실오라기, 실오리, 실울, 실쭉하다, 실컷, 실켜다, 실큼하다, 실터, 실툇, 싫다,
 싫어하다, 싫이, 심, 심기다, 심다, 심돋우개, 심드렁하다, 심드렁히, 심마니, 심보, 심부름,
 심상찮다, 심심찮다, 심심풀이, 심심하다, 심심히, 심지, 심지어, 싱겁다, 싱그레, 싱송생송,
 싱싱하다, 싱아, 싫다, 싸개, 싸구려, 싸느랴다, 싸늘하다, 싸다(001), 싸다(004), 싸라기눈,
 싸락눈, 싸우다, 싸움, 싸이다, 싸수, 싸트다, 쌀가마, 쌀바구미, 쌀밥, 쌀수수, 쌀쌀히, 쌀풀,
 쌀, 쌀지, 쌀짓돈, 쌀, 쌀그레, 쌀둥이, 쌀무지개, 쌀안경, 쌀다, 쌀이다, 쌀근덕거리다, 쌀다,
 쌀그레, 쌀, 쌀느랴다, 쌀다, 쌀레, 쌀레질, 쌀, 쌀다, 쌀이다, 쌀정이, 쌀렁하다, 쌀리다, 쏘다,
 쏘다니다, 쏘아보다, 쏘이다, 쏙독새, 쏙살같이, 쏙다, 쏙아지다, 쏙리다, 쏙군덕거리다, 쏙다,
 쏙대밭, 쏙버무리, 쏙새, 쏙스럽다, 쓰개, 쓰다(001), 쓰다(005), 쓰다(010), 쓰다듬다,
 쓰라리다, 쓰러지다, 쓰러트리다, 쓰레기통, 쓰레받기, 쓰레질, 쓰레질하다, 쓰리다,
 쓰이다(007), 쓰이다(013), 쓰적거리다, 쓰적대다, 쓴너삼, 쓴맛, 쓸개, 쓸다(002), 쓸다(009),
 쓸데없다, 쓸리다, 쓸모, 쓸쓸하다, 쓸어버리다, 쓸다, 쓸바귀, 쓸쓸이, 쓸쓰름하다, 쓸쓸하다,
 씹다, 씹우개, 씹우다, 씹(006), 씹(001), 씹도리, 씹름하다, 씹실, 씹족, 씹씩히, 씹다, 씹히다,
 씹가시다, 씹기다, 아가, 아가리, 아가워, 아가위나무, 아교, 아귀, 아귀아귀, 아그배, 아기자기,
 아기자기하다, 아까, 아낌없다, 아낌없이, 아낙군수, 아낙네, 아녀자, 아뇨, 아니, 아니다,
 아니야, 아니요, 아니하다, 아닥치듯, 아담하다, 아동(001), 아동(002), 아둔하다, 아드득아드득,
 아득, 아득아득, 아득아득하다, 아랑, 아랑곳없다, 아랑곳하다, 아랑주, 아래아, 아래웃,
 아래윗니, 아래쪽, 아래층, 아래턱, 아랫도리, 아랫동, 아랫배, 아랫입술, 아랫잇몸, 아령,
 아롱사태, 아른거리다, 아름다움, 아름드리, 아리랑, 아리송하다, 아마, 아마도, 아무것,
 아무래도, 아무썽, 아무썽록, 아무튼, 아무튼지, 아바마마, 아비규환, 아삭아삭하다, 아서,
 아서라, 아쉬룩하다, 아쉬움, 아쉽다, 아씨, 아아, 아얌, 아연하다, 아우님, 아우성, 아우성치다,
 아욱, 아울러, 아울러다, 아유, 아이, 아이고, 아이고머니, 아이종, 아작아작, 아재, 아재비,
 아저씨, 아주, 아주머님, 아주미, 아주버니, 아주버님, 아주비, 아줌마, 아지랑이, 아직,
 아질하다, 아찔하다, 아차, 아침, 아침밥, 아침저녁, 아귀(001), 아귀(003), 아귀쟁이, 아파하다,
 아편, 아프다, 아픔, 아하, 아해사리, 아홉, 아홉째, 아홉, 아흐레, 악독하다, 악머구리, 악몽,
 악물다, 악바리, 악수(002), 악수(007), 악어(002), 악어(001), 악착하다, 악처, 악취, 악하다,
 안간힘, 안경방, 안경점, 안경테, 안고수비, 안내, 안내서, 안내양, 안내장, 안내하다, 안녕,
 안녕하다, 안녕히, 안다미, 안달, 안달복달, 안동답답이, 안되다, 안비막개, 안비막개하다,
 안성맞춤, 안심찮다, 안일하다, 안잠, 안잠자기, 안잠자다, 안절부절, 안짱다리, 안침,
 안타까이, 앓은뱅이, 알나리깁나리, 알락달락, 알맹이, 알몸, 알싸하다, 알아주다, 알아차리다,
 알아채다, 알차다, 암놈, 암무지개, 암상, 암상스럽다, 암죽, 암강아지, 암톨쩌귀, 암팡스럽다,
 암평아리, 암행어사, 암행하다, 압근하다, 압정, 양값음, 양금, 양알거리다, 양증하다, 양탈,
 앞길, 앞날, 앞니, 앞다리, 앞당기다, 앞두다, 앞뒤, 앞바다, 앞부분, 앞서, 앞이마, 앞장,
 앞장서다, 앞쪽, 앞참, 앞치마, 애고머니, 애꾸, 애꽃다, 애달피, 애당초, 애매하다(001),
 애매하다(002), 애먼, 애면글면, 애벌, 애송이, 애시당초, 애옥살이, 애잇뎡기, 애절하다, 애초,
 애툇하다, 액때움, 액땀, 앳되다, 앵돌아지다, 앵두편, 앵무새, 앵미, 앵속, 야기부리다, 야단,
 야단법석, 야단하다, 야무지다, 야바위, 야살, 야살스럽다, 야옹, 야젓잖다, 야청, 야트막하다,
 야툼하다, 야하다(001), 야하다(003), 야호, 약간, 약골, 약과, 약반, 약밥, 약빠르다,
 약삭빠르다, 약삭스럽다, 약손가락, 약식, 안정, 알개, 알굿다, 알따랴다, 알망굿다.

알브스름하다, 알찍하다, 알팍하다, 앓다, 암생이, 암전이, 암체, 암치, 양갱, 양귀비, 양달,
 양동이, 양등, 양말, 양머리, 양복, 양복쟁이, 양복점, 양식, 양약, 양약국, 양옥, 양옥집,
 양요리, 양장, 양장하다, 양재기, 양주, 양차렷, 양초, 양탄자, 양행, 양회, 얇다, 얇보다, 애,
 애기, 애기하다, 어그러지다, 어글어글하다, 어금지금하다, 어깨춤, 어갯바람, 어눌하다,
 어둔하다, 어른거리다, 어리석다, 어리칙칙하다, 어린애, 어림하다, 어릿거리다, 어릿광대,
 어마나, 어마어마하다, 어마하다, 어머, 어머니, 어멈, 어물어물하다, 어물진, 어벌췌하다,
 어부바, 어비, 어비딸, 어비아들, 어살굿다, 어서, 어설피, 어수룩하다, 어수선하다,
 어스레하다, 어스름달, 어슴새벽, 어슴푸레하다, 어숫거리다, 어숫하다, 어안, 어언간,
 어우러지다, 어우렁더우렁, 어울림, 어음, 어이구, 어이구머니, 어이며느리, 어이새끼, 어인,
 어정어정, 어중간, 어중간하다, 어중이떠중이, 어지간히, 어지자지, 어췌든, 어찌다, 어찌면,
 어쩐지, 어찌나, 어찌하다, 어차피, 어흥, 억누르다, 억세다, 억수, 억울하다, 억장, 억척스럽다,
 언뜻, 언변, 언사, 언성, 언저리, 언제나, 언젠가, 언죽번죽, 언중하다, 언짢다, 언청이, 언턱,
 얹히다, 열, 열간, 열간망둥이, 열간이, 열개, 열거리, 열근하다, 열근히, 열금뱅이, 열금숨숨,
 열금열금, 열기설기, 열떨하다, 열뜨기, 열뜨다, 열뜨리다, 열렁뚱뚱, 열렁뚱뚱하다,
 열룩열룩하다, 열리다, 얼마간, 얼마나, 얼버무리다, 얼어붙다, 얼얼하다, 얼울하다, 얼음장,
 얼음찜질, 얼치기, 얼크러지다, 얼벽얼벽, 얼어매다, 얼이, 얼이치다, 얼적빠기, 얼적얼적,
 얹히다, 엄나무, 엄마, 엄부, 엄숙하다, 엄습하다, 엄엄하다, 엄연하다, 엄연히, 엄지, 엄지가락,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엄청나다, 업구령이, 업다, 업둥이, 업송이, 업신여기다, 업히다,
 없다, 없애다, 없어지다, 없이, 엇갈리다, 엇구수하다, 엇먹다, 엇셈, 엉거시, 엉거주춤, 엉겁결,
 엉경귀, 엉금엉금, 엉너리, 엉덩이, 엉뚱하다, 엉클다, 엉클어지다, 엉키다, 엮다, 엮어삶다,
 에구머니, 에두르다, 엔간하다, 엔간히, 엘리베이터, 여간, 여간내기, 여일하다, 여전하다,
 여전히, 여하하다, 역겹다, 역경, 역류하다, 역적, 역정, 역풍, 연계, 연탄, 연필, 염병, 염증,
 엮꺾련, 영감, , 영계, 영계백숙, 영계찜, 영화로이, 영화롭다, 예사, 였다, 오가다, 오갈피나무,
 오그라들다, 오그라지다, 오그라트리다, 오그랑망태, 오그랑오그랑, 오그랑이, 오그랑장사,
 오그랑쫄그랑, 오그랑쪽박, 오그랑하다, 오그리다, 오금, 오긏하다, 오나, 오누이, 오늘,
 오늘날, 오늬, 오다, 오도카니, 오독도기, 오두막, 오디, 오디새, 오뚝이, 오뚝하다, 오라,
 오라기, 오라버니, 오라버님, 오라범, 오라비, 오라질, 오라가락하다, 오랑개, 오랑개꽃, 오래,
 오래다, 오래도록, 오래되다, 오래뜯, 오래오래, 오래전, 오랜, 오랜만, 오랫동안, 오려논,
 오로지, 오로지하다, 오롯이, 오롯하다, 오르내리다, 오르다, 오르락내리락, 오르막, 오른,
 오른발, 오른손, 오른손잡이, 오른쪽, 오른팔, 으뜸세, 오리, 오리나무, 오리다, 오막살이,
 오목하다, 오무래미, 오므라이스, 오므라지다, 오므라트리다, 오므리다, 오미자, 오미자편,
 오밀조밀, 오밀조밀하다, 오비다, 오빠, 오사리, 오소리, 오솔길, 오이, 오이지, 오입, 오작교,
 오장육부, 오쟁이, 오죽잖다, 오줌, 오줌통, 오줌보, 오지, 오지그릇, 오지랖, 오직, 오히려,
 옥사쟁이, 옥쇄장, 옥수수, 옥신각신, 옥양목, 온, 온갖, 온돌, 온몸, 온종일, 온통, 올(001),
 올(003), 올가미, 올곧다, 올라가다, 올라서다, 올라앉다, 올라오다, 올라타다, 올려놓다,
 올려다보다, 올리다, 올림, 올바로, 올벼, 올빼미, 올울이, 올챙이, 올케, 올해, 읊다, 읊히다,
 읊기다, 읊아가다, 읊아오다, 읊다, 읊이, 옴, 옴나위, 옴니암니, 옴췌하다, 옴죽옴죽하다,
 옴파리, 옴팍, 옴팡, 옴팡눈, 옴포동이같다, 웃, 웃가슴, 웃가지, 웃감, 웃걸이, 웃고름, 웃깃,
 웃깃차레, 웃밥, 웃섞, 웃소매, 웃자락, 웃장, 웃차림, 옹고집, 옹골차다, 옹구, 옹기종기,
 옹달샘, 옹두라지, 옹두리, 옹알옹알하다, 옹이, 옹자배기, 옹헤야, 웃, 웃기장, 웃나무, 웃칠.

와글와글, 와드등거리다, 와락, 와사, 와사등, 와삭와삭하다, 와이샤쓰, 와이셔츠, 와인, 와전하다, 왁자지껄, 왁자하다, 완돈하다, 완만하다, 완문, 완자, 완자탕, 완장, 완정하다, 완증하다, 완한, 완한하다, 왈가닥, 왈각왈각, 왈각왈각하다, 왈왈하다, 왈각, 왕거미, 왕고모, 왕골, 왕기, 왕눈이, 왕모래, 왕바람, 왕엷이, 왕엷이짚신, 왕청되다, 왕청스럽다, 왜, 왜가리, 왜간장, 왜밀기름, 웬지, 외, 외구, 외꼬지, 외나무다리, 외나무물, 외눈통이, 외다, 외다리, 외대다, 외둥이, 외따로, 외딴, 외람하다, 외로, 외로움, 외로이, 외롭다, 외면치레, 외모, 외삼촌, 외손잡이, 외알저기, 외알제기, 외알제기하다, 외양(001), 외양(003), 외양(004), 외양간, 외우다, 외정, 외종씨, 외 짝, 외치다, 외침, 외코신, 외투, 외틀다, 외풍, 외할머니, 윈, 윈발, 윈빔, 윈손, 윈손잡이, 윈쪽, 윈팔, 요, 요강, 요기스럽다, 요기하다, 유도전목하다, 요란하다, 요리, 요리사, 요리점, 요릿집, 요맘때, 요밀요밀하다, 요밀하다, 요부하다, 요사, 요사스럽다, 요사이, 요새, 요술, 요임, 요족하다, 요즈음, 요즘, 요지경, 요컨대, 요통, 요행하다, 요행히, 욕, 욕먹다, 욕설, 욕지기, 욕하다, 용감하다, 용고뚜리, 용골때질, 용권하다, 용돈, 용두레, 용두질, 용력, 용마루, 용병, 용빼다, 용솟음, 용쓰다, 용용하다, 용트림, 용틀임, 용하다, 우거지, 우거지다, 우그리다, 우글우글하다, 우글쭈글, 우글쭈글하다, 우단, 우당탕, 우동, 우둔(002), 우둔(003), 우둔우둔하다, 우둔하다, 우력우력, 우력우력하다, 우렁우렁, 우렁우렁하다, 우렁이, 우렁차다, 우레, 우렛소리, 우려내다, 우려먹다, 우르르, 우리(001), 우리(003), 우리나라, 우리다(001), 우리다(003), 우리말, 우릿간, 우멍하다, 우몽하다, 우무, 우묵우묵, 우묵우묵하다, 우묵하다, 우물, 우물물, 우물우물하다, 우물지다, 우므려들다, 우므려지다, 우므려트리다, 우므리다, 우박, 우변, 우분, 우비, 우비다, 우산, 우세, 우세스럽다, 우세하다, 우수리, 우수수, 우스개, 우스꽝스럽다, 우습다, 우악스럽다, 우악하다, 우연, 우영, 우연만하다, 우연찮다, 우연히, 우유, 우자스럽다, 우장, 우적우적하다, 우족, 우줄거리다, 우중충하다, 우짚다, 우케, 우탄, 우태, 우통하다, 옥기, 옥다, 옥보하다, 옥신옥신, 옥신옥신하다, 옥실, 옥옥하다, 옥이다, 옥지르다, 옥질리다, 운각, 운감하다, 운기, 운김, 운두, 운명하다, 운수, 운신하다, 운전, 운전하다, 울, 울긋불긋, 울긋불긋하다, 울꺅울꺅, 울다, 울대, 울돌목, 울두(002), 울두(001), 울렁울렁하다, 울력, 울리다, 울림, 울림소리, 울먹거리다, 울먹대다, 울먹울먹, 울먹울먹하다, 울먹이다, 울먹줄먹하다, 울면, 울바자, 울보, 울부짚다, 울상, 울새, 울섶, 울음, 울음소리, 울적하다, 울칩, 울칩하다, 울다리, 울통불통하다, 울화, 움(001), 움(004), 움누이, 움팔, 움막, 움막살이, 움썰움썰하다, 움썰하다, 움직이다, 움직임, 움츠려들다, 움츠리다, 움치다, 움푹하다, 움문거벽, 움성움성하다, 움열거리다, 움열움열, 원결, 원답, 원미, 원시, 원시경, 원시하다, 원죄, 월가, 월가하다(001), 월가하다(001), 월궁, 월궁향아, 월등, 월등하다, 웬만치, 웬만큼, 위턱, 위풍스럽다, 유독, 유들유들하다, 유모차, 유성기, 육탈하다, 육회, 윤나다, 으그러뜨리다, 으그러지다, 으스러뜨리다, 으스러지다, 으스름하다, 으스스하다, 으슬으슬, 으슬으슬하다, 옥박다, 옥박지르다, 은결, 은결들다, 은근하다, 은닉하다, 은목감이, 은물, 은벽처, 은색, 은실, 은입사, 은침, 을근을근하다, 을러대다, 을러메다, 음달, 음지, 음흉하다, 읍선생, 응반다, 응석, 응역하다, 응응하다, 의견, 의롭다, 의젓하다, 이글이글하다, 이금하다, 이까짓, 이들이들, 이들이들하다, 이듬, 이러구러, 이러다, 이러면, 이러이러하다, 이러저러하다, 이러하다, 이러히, 이런, 이런저런, 이렇저렇, 이렇다, 이레, 이렛날, 이루, 이루다, 이루어지다, 이룩되다, 이룩하다, 이르다(003), 이르다(001), 이르다(009), 이른바, 이를테면, 이름, 이름나다, 이리(001), 이리(003), 이리(004), 이리(002), 이리저리, 이리쿵저리쿵하다, 이리하다, 이리하여, 이마, 이마뺨, 이만, 이만하다.

이맘때, 이매하다, 이면수, 이모, 이모부, 이무기, 이미, 이바지, 이바지하다, 이발관, 이발소, 이밥, 이번, 이복동생, 이복형제, 이봐, 이부자리, 이불, 이뿌리, 이수하다, 이숙하다, 이슬, 이슬비, 이슴, 이승, 이양하다, 이야기, 이야기하다, 이야깃거리, 이야말로, 이양선, 이양하다, 이어, 이어서, 이어지다, 이어하다, 이엄이엄, 이영, 이에, 이에짬, 이왕, 이왕에, 이외, 이우다, 이운하다, 이올다, 이웃, 이웃집, 이웃하다, 이욕고, 이제, 이제야, 이즈음, 이지러지다, 이직하다, 이질, 이질녀, 이쪽, 이태, 이토록, 이튿날, 이틀, 이튿, 이파리, 이판사판, 이팔청춘, 이팝나무, 이풀, 이향, 이향하다, 익년, 익다(001), 익다(010), 익더귀, 익명서, 익살, 익숙하다, 익일, 인간, 인간처, 인골, 인공, 인두, 인두겁, 인력거, 인류, 인사하다, 인유하다, 인적, 인절미, 인제, 인중, 인지, 인척(001), 인척(003), 인출하다, 인형, 인후병, 인후지지, 일거무소식, 일거일동, 일곱, 일곱째, 일구다, 일그러지다, 일깨우다, 일꾼, 일년감, 일다(001), 일다(004), 일룰, 일목, 일목장군, 일미, 일부러, 일부일처, 일산, 일삼다, 일손, 일쑤, 일어나다, 일어서다, 일어앉다, 일영, 일영표, 일으키다, 일일이, 일장춘몽, 일찌감치, 일찍, 일찍이, 일체, 일컫다, 일컬리다, 일터, 일하다, 일행, 일흔, 일희일비, 읽기, 읽다, 읽히다, 읽다, 잃어버리다, 임금, 임금님, 임연수어, 임의롭다, 임자, 입, 입가, 입가심, 입고하다, 입김, 입내, 입노릇, 입다, 입덧, 입때, 입맛, 입맞춤, 입문하다, 입발림, 입방아, 입수염, 입술, 입술가벼운소리, 입술소리, 입쌀, 입씨름, 입씨름하다, 입아귀, 입학하다, 입히다, 잇, 잇꽃, 잇다, 잇달다, 잇달다, 잇대다, 잇따르다, 잇몸, 잇바디, 잇비, 잇살, 잇새, 잇소리, 잇짚, 잉아, 잉어, 잇다, 잇어버리다, 잇히다, 잎, 잎갈나무, 잎담배, 잎사귀, 잎잎이, 자가사리, 자갈, 자개, 자개미, 자갯돌, 자가, 자겸, 자겸하다, 자고저, 자과부지, 자국, 자국물, 자귀, 자귀나무, 자그락자그락, 자그마치, 자그마하다, 자그시, 자근자근, 자금, 자금심, 자금하다, 자꾸, 자네, 자늑자늑, 자늑자늑하다, 자닝하다, 자닝히, 자두, 자라, 자라나다, 자라다(001), 자라다(005), 자락, 자란자란, 자랑, 자랑삼다, 자랑스럽다, 자랑하다, 자루(001), 자루(003), 자르다(010), 자르다(001), 자리(010), 자리(001), 자리공, 자리끼, 자리다, 자리옷, 자만자족하다, 자명악, 자명종, 자모지리, 자못, 자물쇠, 자박자박, 자반, 자반뒤집기, 자밤, 자배기, 자비량, 자빠지다, 자석, 자세히, 자시다, 자시지벽, 자시하, 자식, 자아내다, 자애롭다, 자약히, 자옥하다, 자옥하다, 자위, 자작나무, 자작자작, 자작자필, 자작지열, 자장자장, 자전거, 자주, 자주자주, 자지러지다, 자질구레하다, 자취, 자칫, 자칫자칫, 자칫하다, 자칭왕, 자퇴, 자퇴하다, 자투리, 자포자기, 자포자기하다, 자품, 자필, 자하거, 자행거, 작다, 작달막하다, 작대기, 작두, 작벼리, 작별, 작별하다, 작사리, 작살, 작아지다, 작약, 작은며느리,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작은창자, 작작, 작히, 작히나, 잔걸음, 잔나비, 잔누비, 잔돈푼, 잔등, 잔등이, 잔디, 잔디밭, 잔뜩, 잔말, 잔말하다, 잔망스럽다, 잔망하다, 잔무, 잔병, 잔병치레, 잔소리, 잔술, 잔술밭, 잔술, 잔술집, 잔잔하다, 잔질하다, 잔챙이, 잔치, 잔치하다, 잔풀, 잔풀나기, 잘, 잘겁하다, 잘근잘근(001), 잘근잘근(002), 잘나다, 잘다, 잘되다, 잘룩하다, 잘룩잘룩, 잘름발이, 잘리다, 잘못, 잘못되다, 잘못하다, 잘박잘박, 잘살다, 잘생기다, 잘잘, 잘코사니, 잘하다, 잠결, 잠귀, 잠그다(001), 잠그다(005), 잠기다(001), 잠기다(005), 잠꼬대하다, 잠자다, 잠잠하다, 잠잠히, 잡것, 잡년, 잡놈, 잡다, 잡다하다, 잡도리, 잡도리하다, 잡되다, 잡말, 잡맛, 잡비, 잡살뱅이, 잡상스럽다, 잡스럽다, 잡아넣다, 잡아매다, 잡아먹다, 잡아먹히다, 잡을손, 잡음, 잡죄다, 잡철, 잡탕, 잡티, 잡혀가다, 잣, 잣기름, 잣송이, 장가, 장가가다, 장가락, 장골, 장구벌레, 장구채, 장국, 장기(013), 장기(008), 장기튀김, 장끼, 장난, 장난감, 장난꾼, 장난하다, 장다리, 장닭, 장대, 장도리, 장돌림, 장돌뱅이, 장판지, 장맛비, 장맛이, 장모, 장백의, 장봉, 장뽕,

장사꾼, 장사치, 장색, 장악, 장옷, 장의사, 장인, 장작, 장작가리, 장작개비, 장작더미, 장작불,
장작웃, 장조, 장조림, 장조모, 장지, 장지문, 장차, 장치기, 장터, 잣감, 잣다, 잣히다, 재(003),
재(001), 재가승, 재간, 재갈, 재강, 재골, 재깍재깍, 재담, 재당숙, 재떨이, 재미없다,
재미있다, 재밌다, 재바르다, 재봉춘, 재분, 재빨리, 재수, 재우다, 재우치다, 재잘거리다, 재재,
재재거리다, 재전, 재채기하다, 재촉, 재촉하다, 재치, 재티, 재싸다, 재빛, 재반, 재통이, 저거,
저것, 저냐, 저녁밥, 저놈, 저러다, 저러면, 저러하다, 저런, 저렇다, 저리, 저마다, 저맘때,
저번, 저을, 저을눈, 저을대, 저작, 저작하다, 저적저적, 저절로, 저지레, 저희, 적다(001),
적다(003), 적빈, 적빈무의, 적빈여세, 적빈하다, 적이나, 적자, 적잖다, 적절하다, 적절히,
적히다, 전간, 전골, 전나귀, 전나무, 전날, 전년, 전당, 전당포, 전당하다, 전유어, 전축,
전혀(001), 전혀(002), 전화, 절(001), 절(002), 절구질, 절다(001), 절다(006), 절따, 절따말,
절뚝발이, 절뚝절뚝, 절령절령, 절로, 절룩거리다, 절룩절룩, 절름발이, 절벽절벽, 절이다,
절절, 절초, 절친하다, 절편, 절하다, 젊다, 젊은이, 젊음, 점, 점박이, 점복하다, 점심시간,
점잔, 점잖다, 점쟁이, 점점, 점점이, 점차, 점치다, 점(011), 점(003), 점다, 점동세, 점때,
점붙이다, 점시, 점시꽃, 점어들다, 점질리다, 점치다, 점치이다, 점침점침, 점하다, 점히다, 젓,
젓가락, 젓가락돈, 젓가락풀, 젓국, 젓나무, 젓다, 정갈스럽다, 정갈하다, 정겹다, 정녕, 정녕코,
정들다, 정말, 정말로, 정배기, 정성, 정성껏, 정성스럽다, 정수리, 정신, 정신없이, 젓, 젓가슴,
젓꼭지, 젓내, 젓다, 젓동생, 젓떼기, 젓무덤, 젓버듬하다, 젓부들기, 젓빛, 젓어미, 젓줄, 젓통,
젓히다, 제(029), 제(001), 제(030), 제(032), 제각기, 제기, 제기다, 제기차기, 제대로, 제때,
제멋대로, 제물, 제물땀, 제물로, 제물에, 제발, 제법, 제육, 제육볶음, 제풀에, 조각, 조그마치,
조기, 조끼, 조라떨다, 조록조록, 조르륵조르륵, 조리돌리다, 조물조물, 조발낭, 조백,
조변석개, 조뻗하다, 조상, 조새, 조소, 조소하다, 조식, 조실부모, 조실부모하다, 조안,
조안하다, 조자리, 조잘조잘, 조죽, 조청, 조촐조촐, 조카딸, 족대, 족족, 족족하다, 족족히,
족형, 존존하다, 졸가리, 졸랑졸랑, 졸래졸래, 졸막졸막, 졸부, 졸업하다, 졸장부, 졸지,
졸직하다, 졸토, 졸것, 졸놈, 졸도적, 졸상스럽다, 종가래, 종계, 종고리, 종고모, 종고모부,
종년(001), 종년(002), 종두지미, 종발, 종배(002), 종배(003), 종삼, 종선, 종씨, 종알종알,
종야, 종없다, 종없이, 종작, 종작없다, 종작없이, 종잘종잘, 종잘종잘하다, 종잡다,
종종거리다, 종주먹, 종지뻗, 종차, 종파, 종풍이미, 좇, 좇다, 좇아가다, 좇아오다, 좇잡다,
좋아하다, 종이, 좌르르, 좌르륵, 좌불안석, 좌우, 좌우되다, 좌우명, 좌우하다, 좌족, 좌판,
찰찰, 찡이, 찡기, 찡이, 찡이질, 주객, 주걱턱, 주과포, 주과포해, 주관, 주광, 주급, 주급하다,
주년, 주늑, 주달, 주담, 주독, 주량, 주루룩주루룩, 주리, 주리다, 주마가편, 주마등, 주막,
주말, 주머니, 주먹, 주먹구구, 주모, 주무럭주무럭, 주무르다, 주물럭거리다, 주물럭대다,
주물럭주물럭, 주물리다, 주밀, 주밀하다, 주밀히, 주발, 주병(001), 주병(002), 후보, 후보코,
주비, 주뻗하다, 주사야탁, 주사위, 주살, 주석, 주섬주섬, 주수병, 주실, 주실하다, 주어지다,
주위, 주일, 주장(004), 주장(010), 주장하다, 주장대, 주저, 주저리, 주저리주저리, 주저앉다,
주저앉히다, 주저하다, 주전부리, 주전자, 주절주절(001), 주절주절(003), 주절, 주정하다,
주제꼴, 주제넘다, 주줄이, 주좁다, 주책, 주책없다, 주체(001), 주체(010), 주체긋다,
주체스럽다, 주체하다, 주추, 주춤, 주춤주춤, 주춤주춤하다, 주춧돌, 주판, 주판지세, 주필,
주흔, 주흥, 죽(018), 죽(004), 죽근, 죽다, 죽담, 죽대, 죽데기, 죽도, 죽사, 죽사립, 죽사마,
죽살이, 죽살이치다, 죽상, 죽이다, 죽절, 죽젓개, 죽젓광이, 죽죽, 죽지, 죽지뻗, 죽창(001),
죽창(002), 죽치다, 죽침(001), 죽침(002), 준가, 준골, 준민고택, 준시, 준좌, 준좌하다, 준치,

준허하다, 줄글, 줄달음, 줄달음질, 줄드리다, 줄띄우다, 줄방석, 줄줄이, 줄팔매, 줌, 줌치, 줍다, 줯대, 중, 중가, 중간따기, 중구삭금, 중깃, 중난하다, 중늪은이, 중다버지, 중도이페하다, 중두리, 중등, 중등인, 중매, 중매쟁이, 중목, 중문, 중미, 중변, 중부, 중뿔나다, 중상, 중서, 중시조, 중신하다, 중언부언, 중얼거리다, 중얼중얼, 중얼중얼하다, 중역, 중완, 중용하다, 중의, 중인, 중장, 중절모, 중절모자, 중절중절하다, 중정, 중중거리다, 중초, 중침, 중키, 중혀, 중형, 중화, 중화참, 중화하다, 쥐, 쥐구멍, 쥐날, 쥐다, 쥐대기, 쥐뿔, 쥐똥나무, 쥐락펴락, 쥐며느리, 쥐불, 쥐불놀이, 쥐불놀이, 쥐뿔, 쥐어뜯다, 쥐어박다, 쥐어박히다, 쥐어지르다, 쥐어질리다, 쥐어짜다, 쥐엄나무, 쥐엄질, 쥐이다, 쥐젖, 쥐참외, 쥐치, 쥐통, 즈음, 즈음하다, 즉각, 즉경, 즉석, 즉시, 즉전, 즉전하다, 즉지, 즉차, 즉효, 즐거움, 즐거이, 즐겁다, 즐기다, 증미, 증소불의, 증손자, 증정, 증편, 지가락, 지갑, 지게, 지게문, 지게미, 지격하다, 지겹다, 지궁하다, 지결련, 지귀, 지귀하다, 지그시, 지근지지, 지근지쳐, 지긋지긋(001), 지긋지긋(003), 지긋지긋하다, 지기없다, 지기지우, 지결이다, 지결지결, 지결지결하다, 지나가다, 지나다, 지나다니다, 지나오다, 지나치다, 지난날, 지난달, 지난번, 지난주, 지난해, 지남거, 지남석, 지남철, 지내다, 지네, 지노, 지느러미, 지나다, 지다(002), 지다(010), 지다(018), 지다위, 지다위하다, 지당하다, 지더리다, 지도리, 지독하다, 지독히, 지돌이, 지둔, 지딱지딱, 지딱지딱하다, 지라, 지랄, 지랄하다, 지령이, 지례(001), 지례(002), 지루하다, 지르다(016), 지르다(006), 지르다(001), 지르잡다, 지름길, 지름뜨다, 지리다, 지린내, 지머리, 지목하다, 지벽지벽, 지벽지벽하다, 지범지범, 지부지기, 지붕, 지빈하다, 지뻥지뻥, 지사위한, 지새다, 지새우다, 지아비, 지어내다, 지어미, 지엄하다, 지에, 지열하다, 지엽적, 지원하다, 지우개, 지우다(004), 지우다(012), 지원극통, 지원극통하다, 지음치다, 지이다, 지이하다, 지인지감, 지저귀, 지저귀다, 지저분하다, 지적지적하다, 지전, 지지다, 지지르다, 지질구레하다, 지질리다, 지질하다, 지치, 지치다, 지칭개, 지켜보다, 지키다, 지킴, 지팡이, 지푸라기, 지피다, 지향, 지혜롭다, 직손, 진과, 진기, 진눈깨비, 진달래, 진담(003), 진담(002), 진담누설, 진디, 진땀, 진말, 진맥하다, 진물, 진밥, 진배, 진배하다, 진버짐, 진사전, 진선, 진선진미, 진솔, 진솔웃, 진외가, 진외조모, 진외조부, 진유, 진임, 진자리, 진작, 진저리, 진짜, 진짜로, 진짬, 진창, 진티, 진펄, 진풀, 진하다(001), 진하다(007), 진흙, 질겁, 질것, 질경이, 질그릇, 질근, 질근질근(001), 질근질근(003), 질근질근하다, 질녀, 질다, 질동이, 질둔하다, 질뚝질뚝하다, 질방구리, 질벽질벽하다, 질번질번하다, 질부, 질뽕, 질색, 질색하다, 질서(001), 질서(003), 질솔, 질실, 질실하다, 질척질척, 질탕관, 질탕하다, 질흙(003), 질흙(001), 짐, 짐꾼, 짐대(001), 짐대(002), 짐독, 짐새, 짐작, 짐작되다, 짐작하다, 짐짓, 짐짝, 짐, 짐게, 짐게벌레, 짐바들기, 짐사람, 짐심, 짐심하다, 집안, 집안사람, 집안일, 집알이, 집오리, 집일, 집적집적하다, 집채, 집치레, 집탈, 집탈하다, 집터, 짓, 짓굿다, 짓긋이, 짓둥이, 짓먹다, 짓적다, 징(002), 징(001), 징걸이, 징검다리, 징검돌, 징검징검, 징경이, 징글징글하다, 징두리, 징세하다, 징둥, 징둥우리, 징뭇, 징신, 징자리, 짜장, 짜장면, 짜증, 짤막하다, 짬밥, 짬뽕, 짬깨, 짬다, 찢찢하다, 쫓다, 찢, 찢다, 쭈그렁이, 쭈그리다, 쭈뼛하다, 쭈, 쭈정어, 쭈쭈, 찢, 찢개, 찢그렁이, 찢꺼기, 찢끼, 찢다(006), 찢다(004), 찢다(001), 찢들다, 찢르다, 찢르레기, 찢푸리다, 찢다, 찢히다, 찢넙다, 찢레, 찢레꽃, 찢레나무, 찢리다, 찢, 찢질, 찢질하다, 찢그리다, 찢기다, 찢기다, 찢다, 찢어지다, 차가다, 차갑다, 차곡차곡, 차꼬, 차다(001), 차다(007), 차다(014), 차다(017), 차돌, 차라리, 차렵, 차렵것, 차렸, 차레, 차리다, 차림, 차림새, 차림차림, 차림표, 차마, 차반, 차부, 차오르다, 차이다, 차이점, 차일피일, 차지,

[부록 2] 차자표기 어휘 DB 작업 세부 지침

I. 『고대국어어휘집성』(1994)의 어휘 추출 일러두기

1. 『고대국어어휘집성』(송기중·남풍현·김영진 공편, 199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하 『집성』)에 수록된 어휘 중 명백한 한자어와 고유명사(인명, 지명, 서명, 곡명, 사찰명 등)를 제외한 나머지 차자표기 어휘를 추출하여 표에 수록하였다.
2. 『집성』에서 국호나 관직명은 한자어와 차자표기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을 고려하여 모두 수록하였으나 『舊唐書』 등 중국에서 편찬한 사서에만 나오는 표기는 추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조사, 어미, 접사와 같은 문법 형태도 추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집성』에서 같은 표기가 ‘신라’와 ‘통일신라’의 구분만으로 분리 수록된 경우는 하나로 합치고 ‘신라~통일신라’로 표시하였다.
참고) 『집성』에서 사서 추출 어휘 목록은 ‘신라’와 ‘통일신라’를 구분하지 않았고, 금석문·고문서 추출 어휘 목록은 ‘신라’와 ‘통일신라’를 구분하였다.
4. 『집성』에서 같은 표기가 사서에서 추출한 어휘 목록(이하 ‘목록Ⅰ’)과 금석문·고문서에서 추출한 어휘 목록(이하 ‘목록Ⅱ’)에 각각 수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로 합치되, 세부 항목에 차이는 보이는 경우 적절히 통합하였다.
예) ‘內省’이 목록Ⅰ에서는 ‘신라, 관명’으로 분류되고 목록Ⅱ에서는 ‘통일신라, 명사’로 분류된 것을 본고의 표에서는 ‘신라~통일신라, 명사-관직’으로 표시함.
5. 『집성』에서 목록Ⅰ은 저본의 표기에 대해 글자 단위로 교감을 하여 ‘(/)’로 표시한 반면 목록Ⅱ는 교감을 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교감한 결과를 표제어로 제시하고 원전의 표기는 비교2에 기록하였다.
예) 『집성』 목록Ⅰ에서 ‘大(/太)守’로 제시한 것을 본고에서는 표제어와 비교2에 각각 ‘太守’, ‘大守’로 표기된 것을 『집성』(1994)에서 교감한 결과임’으로 기록함.
6. 표에서 ‘나라’는 원칙적으로 『집성』에 표시된 것을 옮긴 것으로서, 대체로 해당 표기가 사용된 나라를 뜻하지만 해당 표기와 관련된 나라를 뜻하기도 한다. 『집성』에 표시가 없고 명확하지 않은 것은 기입하지 않았다.
예) 본고의 표에서 ‘百殘’에 대해 ‘고구려’로 표시한 것은 ‘고구려’에서 사용된 표기임을 뜻하고, ‘南韓’이나 ‘三韓’에 대해 ‘한’으로 표시한 것은 고대국가 중 ‘한’과 관련된 표기임을 뜻함.
(『집성』에서는 ‘三韓’의 경우 각각 무표시[목록Ⅰ, p.207], 고구려, 백제, 통일신라[이상 목록Ⅱ, p.225]로 표시된 4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음)
7. 표에 수록한 내용 중에 ‘추정 독음’, ‘관련 현대어’, ‘비고’란은 『고대국어어휘집성』에 없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8. 작업 과정에서 『집성』에 수록된 어휘 표기의 오류를 수정하고 한자별로 분류하여 재편집한 『고대 국어 어휘 표기 한자의 자별 용례 연구』(송기중 저, 2004, 서울대

학교 출판부)를 참고하였다.

II. 『동대사화엄경 각필자료집』(권인한 저, 2023, 미간행)의 어휘 추출 일러두기

※ 「동대사화엄경 각필자료집」의 경우 부록으로 제시된 색인집에서 어휘 표기를 추출하여 본문에서 확인한 다음 본고의 자료 형식에 맞추어 추가하였다. 단, 여기서도 문법 형태나 명백한 한자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였다.

※ 세부지침

1. 같은 표기가 여러 번 출현하는 경우 출전에는 모두 표시하되 예문과 현대어역은 첫 번째로 표시한 것만 기록하였다.
2. 한자 표기에서 말음첨기로 추정되는 것은 그것이 기입된 한자와의 사이에 ‘_’를 추가하여 표시하였다. 단, 동사 어간의 말음첨기자를 목적어에 기입한 경우 동사와 말음첨기자 사이에 ‘_’를 추가하여 표시하였다.

(예: ‘’(0078)는 한자 표기에서 ‘所_良’로 기록하고, ‘’(0055, ‘隨衆生心’)은 한자 표기에서 ‘隨_叱’로 기록함)

3. 예문에서 각필로 기입된 부분은 그것이 기입된 (마지막) 한자에 ‘[]’를 표시하고 그 안에 기록하였다.

(예: ‘’(0797)은 예문에서 ‘前[阿巴]’으로 기록함)

4. 현대어역은 원칙적으로 자료집에 제시된 역경원 번역을 인용하되 입력자가 판단하여 일부 수정한 곳도 있다.

(예: ‘諸佛之所說’(0161)은 자료집에 “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입력자의 판단으로 “여러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다”로 수정하여 반영함)

5. 자형 판독이나 어형 추정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어형은 반영하지 않았다.

(예: ‘有’자나 ‘在’자에 기입된 ‘伊留’의 경우 자료집에 ‘있?-’로 추정하였으나 ‘있-’의 선대형이 ‘있-’이라는 근거가 충분치 않아 반영하지 않음)

III. 향가 어휘 목록 추출 일러두기

1. 향가 어휘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삼국유사> 향가 14수, <균여전> 향가 11수이다. 장르 분류에서부터 판독까지 문제가 많은 ‘도이장가’는 포함하지 않았다. 어휘 목록의 선정은 선행 해독을 바탕으로 ‘김지오’ 연구원이 직접 추출하였다. 그 후에 <황선엽(2023), 향가의 어휘, 세계한국어한마당 발표자료집>에 나타난 어휘와 비교해 목록을 검토·보완한 것이다.
2. 목록을 추출할 때 한자어는 제외하고 고유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 고유어와

한자어의 경계가 분명치 않을 때에는 모두 목록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형태나 독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난해어도 배제하지 않고 최대한 수록하였다. (난해어의 독음과 뜻은 ‘?’로 처리)

3. 어휘는 형태소 단위의 ‘단어’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관용적인 표현으로 굳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단어’ 단위 이상, 즉 ‘구(句) 구성’도 일부 포함하였다. (예) 他道(다른 길=外道)

4. 향가의 어휘 형태 뒤에는 어휘를 읽는 방식을 지시하는 음성보충자(말음첨기자)가 수의적으로 붙는다. 이런 음성보충자도 어휘 형태와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음성보충자가 표시된 경우와 표시되지 않는 형태가 공존할 때, 두 형식 모두 표제항으로 제시하였다.

(예1) 一|一等|一等隱 → 3개의 표제항, 二|二尸 → 2개의 표제항

5. 향가의 어휘는 독립적으로 표기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뒤따라 나오는 문법 형태와 결합되어(종성이 연결되어) 하나의 한자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형태소 분석을 함께 제시하였다. (예) 知(디) : ㄷ(ㄷ+이)

6. 독음과 의미, 형태(분절)를 한 가지로만 규정하기 힘들 경우 ‘ / ’를 사용해 복수의 가능성을 병기하였다.

(예) 栢史: 잣/자시, 脚烏伊: 가꺠리/가로리/허튀, 雪: 눈/서리

7. 표제어 어휘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를 사용해, 견해에 따라 해당 형태가 들어 가거나 빠지거나 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예) 七史(伊), 彗(叱只)

8. 표제항에 관한 보충 설명은 [비고2: 표제항에 관한 담당자 메모]란에 기술하였다. [비고2]에는 표제항의 말음첨기자 정보, 원본과 다르게 정체자나 오자를 수정한 사항, 난해구에 대한 보충 설명 등이 담겨 있다.

9. 어휘 목록 추출과 해독과 번역 과정에 참고한 선행 해독 목록은 아래와 같다.

姜吉云(2004), 『鄉歌 新解讀 研究 修正版』, 한국문화사.

金善琪(1993), 『옛적 노래의 새풀이-鄉歌新釋』, 보성문화사.

金俊榮(1979/1982), 『鄉歌文學』, 형설출판.

김완진(1980),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지오(2012), 균여전 향가의 해독과 문법,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남풍현(2010~2020), 헌화가, 원가, 도천수관음가, 우적가, 원왕생가, 도솔가, 재망매가, 안민가, 모죽지랑가 해독 논문.

류렬(2003), 『향가연구』(조선어학전서 13), 박이정출판사. [2005,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재출간]

박재민(2002), 「口訣로 본 普賢十願歌 解讀」,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박재민(2013), 『신라 향가 변증』, 태학사.

박재민(2013), 『고려 향가 변증』, 박이정.

박지용 외 편(2012), 향가 해독 자료집, 한글파일.

서재극(1975), 『신라 향가의 어휘 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小倉進平(1929), 『郷歌及び吏讀の研究』, 京城帝國大學. [1974, 아세아문화사 영인]
 양주동(1965), 『증정 고가연구』, 일조각.
 유창균(1994), 『향가비해』, 형설출판사.
 이탁(1958), 『국어학논고』, 정음사
 정렬모(1965), 『향가연구』, 북한: 사회과학원출판사.
 정창일(1987), 『향가신연구』, 세종출판사.
 지현영(1947), 『향가여요신석』, 정음사.
 지형률(2007), 『改訂版 郷歌正讀』, 다다아트.
 홍기문(1956), 『향가해석』, 북한: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IV. 향가 어휘 예문과 현대역 일러두기

1. 어휘 형태와 함께 예문과 번역을 함께 제공하고, 작업 지침은 아래와 같다.
 - 예문의 수가 3개 이상일 경우, 의미 파악이 쉽고 명료한 예 위주로 제시한다.
 - 현대역은 선행 해독들을 두루 검토한 후 이루어진 ‘김지오’ 연구원의 해독이다. 다만, 의미 파악이 난해하거나 선행 해독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경우, 현재까지의 해독 가운데 최선의 해독이라고 여겨지는 한 해독을 선택해 제시한다. (이때에만 해독의 출전 표시함)
 - “國惡 大平恨音叱如 <안민 08>”의 경우 원본의 8행 전체는 “爲內尸等焉國惡大平恨音叱如<安民 08>”와 같은 내용이 더 있지만, 예문에서는 맥락을 보일 수 있는 부분만 발췌해 “爲內尸等”은 삭제하기도 하였다.
2. 향가 원문에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제시한 예문은 의미 단위와 현대국어 정서법에 따라 띄어쓰기 구분을 해두었다.
3. 현대역에서 내용을 보충한 부분은 []을 사용하고, 문법 형태를 보충한 경우는 ()를 사용하였다.

(예) [손] 하나 내려놓고 [눈] 하나를 떨어져, 나라(가) 지켜짐(을) 알 것입니다
4. 현대역을 제시하기 어려운 난해구는 향찰 표기 그대로 노출하였다.

(예) 窟理叱大을 살려 所音物生 이를 먹여 살려라
5. 현대역에 여러 해석이 공존하거나, 논의가 분분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경우, [비고3: 예문에 관한 담당자 메모]에서 보충 설명을 제시하였다.

(예) [비고] '達阿羅'는 '月羅理'와 유사한 표현으로 '달 아래' 정도로 해석되어 왔음. 그러나 '달'은 '月'이 아니라 '산(높은 땅)'이라는 뜻으로 파악됨. 둘 아래(양주동) ㄷㄹㄹ(홍기문,지현영), 달아라(류렬,서재극) ㄷ라라(김완진), 달 아라(유창균)와 같이 읽는 방법과 끊어 읽기가 분분함.
6. 우세한 여러 해독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를

사용해 병기하였다.

(예) 世理 都之叱 逸鳥隱 第也 <怨歌 08> 세상 都之叱 버린/잃은 곳이어

V. 계림유사 입력 지침

※ 범례

1. 해독된 항목에 대한 이본의 교감과 추정독음은 아래 연구를 따랐다.
- 최영선 (2015), 鷄林類事의 음운론적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 위 연구에서 추정 독음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비워 두었다.
3. 한자 중 현대 한자음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으로 해당 자리를 비워 두었다.
4. 관련 현대어를 입력할 때는, 다른 선행연구와 해독이 일치하는 경우, 또는 입력자의 판단에 해독이 합당한 경우에 한하였다.
5. 관련 현대어를 제시할 때, 필요하면 형태 분석을 입력자가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
6. 비고란에는 최영선(2015)에서 해당 항목의 추정 독음과 관련하여 제시한 설명을 요약하였다.

※ 참고문헌

- 강신항(1980), 鷄林類事 高麗方言 研究.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강영봉(2003), 제주어 '비바리' 어휘에 대하여. 영주어문학 5, 5-12
- 권인한(2003), 계림유사의 한어음운사적 의의. 국어학 42, 3-27.
- 권재선(1975), 麗代 친족 및 남녀 호칭어에 대한 고찰. 고려시대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135-173.
- 김승호(1995), 계림유사의 斧曰 鳥子蓋/鳥子蓋에 대하여. 어문학교육 17, 71-85.
- 김완진(1983), 계림유사와 음절말 자음. 국어학 12, 34-46
- 김완진(2002), 사과와 능금 그리고 멧. 국어학 40, 3-19
- 김진구(1997), 速과 菩薩의 연구. 복식문화연구 5(1), 19-28.
- 김진구(1997), 麻帝核試의 연구. 복식문화연구 5(4), 6-11.
- 김철현(1962), 계림유사 연구. 국어국문학 25, 101-128.
- 남풍현(1981), 借字表記法 研究：郷藥救急方の 郷名表記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풍현(2010), 한화가의 해독. 구결연구 24, 5-35.
- 도수희(2007), 지명어 음운론. 지명학 13, 113-145.
- 박성종(1988), 어두자음 /ㄱ/에 대한 한 연구. 언어 13(2), 313-331.
- 박희숙(1988), 계림유사·고려방언의 '婆記'와 '曹兒'에 대하여. 선청어문 16·17, 336-349.
- 방종현(1955), 계림유사연구. 동방학지 2, 2-205

- 서재극(1975), 신라 향가의 어휘 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 심재기(1993), 고려시대 언어 문자에 관한 연구. 인문논총 29, 25-42
- 유창돈(1954), 계림유사 補敝. 최현배선생 회갑기념논문집, 129~155
- 유창돈(1957), 한청문감 어휘고. 국어국문학 17, 3-14
- 유창선(1938), 계림유사 고려방언考. 한글 54, 206-209
- 윤선태(1975), 752년 신라의 대일교역과 「바이시라기모쓰게(買新羅物解)」. 역사와 현실 24, 40-66.
- 이기문(1962), 용비어천가의 국문가사의 제문제. 아세아연구 5(1), 87-131.
- 이기문(1964), 동사 어간 '았-', '였-'의 史的 고찰. 도남조윤제박사 회갑기념논문집. 신아사, 341-350.
- 이기문(1968), 계림유사의 재검토. 동아문화 8, 205-248
- 이기문(1991), 국어 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 이기문(2003), 계림유사의 細註에 대하여. 고려조어연구 논문집, 347-362
- 이기문(2015), 國語 속의 蒙古語 借用語. 한국어연구 12, 41-117
- 이승욱(1973), 계림유사의 문법자료. 국어문법체계의 사적연구, 266-296.
- 이승재(1995), 계림유사와 차자표기 자료의 관계. 대동문화연구 30, 159-184.
- 李元植(1973), 鷄林類事 略攷. 朝鮮學報 67, 81-135
- 임홍빈(1995), 계림유사의 '刀斤'의 읽기에 대하여. 국어사와 차자표기(소곡남풍현선생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115-132
- 전몽수(1939), 古語研究草. 한글 71·72, 162-167, 193-197.
- 전몽수(1941), 古語雜考. 한글 83·84, 452-455.
- 진태하(1975), 鷄林類事研究. 광문사.
- 진태하(1982), 계림유사의 誤寫·誤釋·未解讀 어휘고. 동방학지 34, 43-96.
- 최학근(1978), 국어방언에 나타나는 희귀어. 관악어문연구 3, 517-528.
- 前間恭作(1925), 鷄林類事麗言攷. 東洋文庫.
- 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試攷 -缺語考-. 東都書籍.

VI. 향명 자료 입력 지침

※ 범례

1. 연구자에 따라서 어떤 것이 향명 표기인지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는 일단 신되, 입력자가 향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는 추정 독음을 "(향명 아님)"으로 입력하였다.
2. 추정 독음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은 "?"으로 표기하였다.
3.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독법 중 15세기 중세 한국어의 표기 원칙에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예는 입력자가 수정하되, 분철을 연철로 하는 등 해독의 원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하였다.

4. 관련 현대어는 어형이 일치하는 한자어인 경우, 또는 말음첨기가 되어 있거나, 구성이 문증되는 고유어와 동일한 등의 이유로 고유어 표기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경우 제시했다.
5. 차자표기일 가능성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은 것, 또는 항명 표기와 무관한 현대어는 소괄호로 둘러 제시했다.
6. 오늘날 이어지는 명칭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으로 표기하였다.

※ 향약구급방

1. 원문은 아래 책에 실린 일본 궁내청 서릉부 소장본의 영인을 참고하였다.
이경록(2018), 국역 향약구급방 (연세의학사총서 7), 역사공간
2. 추정 독음을 설정할 때는 아래 연구의 독법 중 다수가 사용한 것을 우선적으로 따르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이유를 밝혔다.
 - 남: 남풍현(1981), 借字表記法 研究 : 鄉藥救急方の 鄉名表記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 이은규(1993), 『鄉藥救急方』의 國語學的 研究. 효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역: 이경록(2018), 국역 향약구급방 (연세의학사총서 7), 역사공간
3. 이은규(1993)의 원 해독은 음성기호로 제시되어 있다. 이 자료집에서는 한글로 바꾸어 입력하였다.

※ 향약집성방

1. 원문은 아래 판본을 참고하여 입력하였다. 다만 고마자와본과 장서각본은 판본 계통이 비슷하다고 생각되어, 상태가 좋은 고마자와본을 기준으로 입력하였다.
 - 고마자와대학 소장본 (청구번호 濯足/816-27~30)
 - 장서각 소장본 (청구번호 C7-79)
 -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 (청구번호 < -15)
2. 추정 독음을 설정할 때는 아래 연구 중 남풍현(1999)의 독법을 우선시하여 실행, 그렇지 않다면 이유를 밝혔다.
 - 김: 김두찬(1983), 차자표기 항명의 통시적 연구 : 향약집성방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 남풍현(1999), 『향약집성방』의 항명에 대하여. 진단학보 87, 171-194

※ 향약채취월령

1. 원문은 일본국회도서관에 소장된 1722년 전사본을 참고하였다.
2. 규장각에도 20세기의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으나(古7409-1) 대본으로 삼지는 않았다.
 -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 (청구번호 特1-2151)

3. 추정 독음을 설정할 때는 아래 연구의 독법 중 다수가 사용한 것을 우선적으로 따르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이유를 밝혔다.

- 조: 조성오(1983), 『鄉藥採取月令』의 借字表記體系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상): 김홍석(2001), 『鄉藥採取月令』에 나타난 鄉藥名 研究(上). 한어문교육 9, 87-107
- 김(중): 김홍석(2002), 『鄉藥採取月令』에 나타난 鄉藥名 研究(中). 한어문교육 10, 93-115
- 김(하): 김홍석(2003), 『향약채취월령』에 나타난 향약명 연구(하). 한어문교육 11, 133-151
- 윤: 윤장규(2005), 『향약채취월령』의 국어학적 연구 : 차자표기음과 한·중 한자음의 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부록 3] 차자표기 어휘-우리말샘 표제어 대비 잠정 목록

*利어리석다 [木頁]荊광대싸리 第叱x#째 ~牟羅x#군.현 ~伐벌001 □□沙只x#형개 □人x#-인 加가다001 加더하다001 嫁교합#성교하다.정분나다 軻가슴001 家居가거위001 假軍師x 加乃가래004 加乃刃x#가래004.날009 加達x#다리001.가랑이001 加德더덕002 加羅x#가야 加羅國x#가야 加羅語x#가야 駕洛x#가야 伽落國x#가야 加良x#가야 苛斂誅求x#가렴주구 加个五知가마우지 加个曹而까마중이001 加莫金x#가막쇠001 加母致가물치001 珂門x 柯半고의001.바지 嘉俳가위003.한가위#가배004.가배일 珂背고의001.바지 假使只만약.가령.설령.비록 加士草x 假蘇x#형개 假僧兒가시내 伽倻x#가야001 伽耶國x#가야001 加耶金가야금 加外左只더위지기#더위지기001 加于더욱.더욱이.더욱더 嘉優가위003.한가위 加隱耳까귀001.까마귀 加乙木x 加乙畏가뢰001 加音草x#회향003 加邑可乙木實떡갈나무001 假耳까귀001.까마귀 加伊宅x 家猪돼지001 加知奈x 佳叱만.뽕 假叱耳까귀001.까마귀 歌尺x 犬刀次草가회톱.가위톱 加火左只더위지기1 加火魚가오리001 家稀개003.강아지001 各각각.각기.제각기 覺깨닫다001 角뿔001 角뿔001 各良尔각각.각기.제각기 各衣各衣良尔각각.각기.제각기 角干x 角漁x 脚烏(伊)다리001.가랑이001 角位x 刻耳x#까귀001 各乎따로001.각각 干x#간004 間사이001 艱苦亦간절히 干伐漁x#간벌찬 杆率x 看烟x 看翁x 干支x#간지018 蝎허001 訛乃가래004 渴來가래001 葛文王x 葛蟠處? 葛上加乙畏가뢰001 渴翅갓 訛只갈퀴001 葛川宮典? 渴則寄가치001 坎감001 監밤002 監범001 監考x#감고007-010 甘文國x#감문국 甘文小國x 敢別色二x#나미 監永興司館x#감영흥사관 感恩寺成典x#감은사성전 感義軍使x#감의군사 敢自直초가집001 紺著감제풀001 甘佐非x#감잡이003 甘板麻단너삼001 甲日x#갑일 甲折갑절.굽절 江강 强亦억지로001 剛司x 江華京x 慨개001 改개003 皆다003.모두001 皆모든001 蓋덮다001 蓋갓001 皆叱다003.모두001 蓋慨x 改答술002 皆理그리워하다 蓋馬곰003 蓋馬國개마국 丐剝거지001 皆伯왕 皆崑之吳大x#낭아초 改揜개암001 改衣고치다.가시다 介伊日伊개나리002 皆知戟幢x#개지극당 皆知戟幢監x#개지극당감 皆叱知노예.하인#사령(使令)013.마지기003.별배(別陪)002 開湯x#개탕002 開湯刃x 更良다시001 去가다001 居舉松骨x 居得가득001 居辣松骨x 巨老거위001 駟驥x 巨里金x#걸이쇠001 巨末伊거머리002 居毛伊거미002 巨勿釘거덜못001 居伐干支x 居斯勿停x 居塞蓮가시연001 居西干x#거서간001 居兒乎거위002 舉乙金걸쇠001 渠長x 居叱있다 居叱兒乎거위002 居尺x 居柒거칠다010 居柒山國x 健x 鍵吉支왕 件帶槍x#위모005 乾馬곰003 建平省x#건평성 乞글001 乞발다001 乞林그림001 鬻吾洞x 乞寢x 乞鋪x#글.보다001 乞布亦其x 乞核薩x#글.쓰다001 檢舉x#검거002 檢校使x 檢校尙書x 檢潭x 檢湖x 檢花검화001 怯兒兄x 怯伶口x 怯薛丹x 格格형 格嫩대검다003 格大論罵x 格悶故論x#검다002.구름001 格悶那莫x#검다002.나무001 格悶大左x#검다002.대추001 格悶墨二x#흑마001 格悶必검은색 格以거위001 格自가을 格自吉迫列x 見보다001 遣남기다001 見x 見是보이다001 見甘介x#닭의장풀001 犬乃里花개나리002 牽馬鐵x 犬伊那里根개나리002 結결001 結尾끝003 結臥思검웃001 結直아내001 結叱加次根x#갓001 結次邑笠根x#갓001 兼是검하다 卿x 逕x 逕지나다001 更良다시001 頃叱x 京都驛x 經歷경력#경력004 經寫筆師x 京城周作典x 經心匠x 京餘甲x 京餘甲幢x 京餘甲幢主x 京五種幢x 京五種幢主x 京停x 鏡井宮主x 經題筆師x 敬叱好공경하다 經筆師x 契해001 溪x 契券x#계권 屬衿x 屬衿幢x#계금당 屬衿大監x 屬衿x 季奴只게로기001 季德x#계덕 界里審使x 雞林x#계림 雞林國x 桂娥太后x 雞矣碧叱맨드라미001.벚001 雞矣十加非달기씨깨비001 計點使계점사001 稽知x#계지005 戒계001 戒어르다001 古x 古낡다001 古묵다001 古오래다001 古예001 苾오이001 高높이 故去그러므로001 故叱그러므로001 高干x#고간007 庫庫곳곳001 苦苦妹x#꼬꼬마 告課x#고과 古官家典x 高句麗고구려 故國原王x 故國川王x 高貴位꼬끼오001 古今非居口x#질러자001 姑記고기001 果吉고기001 古奈宮x#고나궁 古奈末x 雇奴x#고노 固德x#고덕002 古冬非居參x#질러자001 古良夫里停x#고량부리정 高麗고구려 高麗國고구려 高麗語고구려 古寧伽耶고령가야 古寧加耶國고령가야 故論구름001 故論額大x#구름001.없다 故論以思大x#구름001.있다 苦離樂得x 古馬곰003 固麻서울001 告目x#고목002 高支높다001 古斯구슬001 古斯구슬001 古斯也노루001 高沙伊沙老里x#고새사노리 古史浦x 高參猪矣皮고슴도치001 古常까지 古索金x 膏石곱돌001 古召기울이다001.세우다001 古召盲曹兒x 高所音猪고슴도치

001.고슴뚝001 古尸x 高柴고수001 尻驛典x#고역전 苦牛勞實우영001 古有x 古有人x 古乙心
 골속001 俵音다짐001 古音矣余老곰003.쓸개 古音鐵x 孤邑多遜松骨x 古邑豆訟꼭두서니001
 古衣고니001 古以고르다001 古人x#고인001 古自國x 故作고작 古朝鮮고조선 高朱蒙x#고주
 몽 孤竹國x#고죽국 故只짐짓001.일부러 庫叱곳001 古次곳#곳002 古昌典x 苾菜외나물002
 古鄒加x 古鄒大加x 枯亭골002 苦瓢고호001 哭을다001 谷 시내001.골004 谷 시내001.골004
 谷국001 曲甘佐非x#굽다008.감자비001 谷見來時x 穀內部x 哭利弓幾기러기001 谷莫개천
 001 谷莫마을001 谷速x 曲釘x 曲釘x 曲釘x 衰火x 骨x#얼004 骨꽃001 骨x#성013 骨乃斤
 停x 骨無伊우003 骨伐國x#골벌국 鶻試x 骨浦x 骨浦國x 骨火國x#골화국 骨火小國x 鷹곳001
 共함께001 功x 孔x 孔공001 共叱함께001#더불어 功德部x#공덕부 功德司x 公等x 孔且x#공
 목 公反공평.고루 供奉卜師x#공봉복사001 供奉乘師x#공봉승사 供奉醫師x#공봉의사 功夫일
 끈 工部員外郎x 公然공연히 孔烟x 供爲공양#공양하다 工匠공장 工匠府x# 工匠府監x# 串곳
 002 串甘곳감 串光伊국광이 串釘고치001 串蟹x#꽃게 果x 課코001 誇(方言許諾)x 過去지나
 가다001 課谷母곳구멍001 科科날날이001 果果立賽끼꼬리002 科科以날날이001 課吉立코끼
 리001 果落x#능007 果門곰003 果迫꽃부리001 寡婦處女推考別監x#과부처녀추고별감 果思
 꽃001 過甚괴심하다001 果耶大x 菓音열매001 跨二갈001 果綽고추001 果左爽x#고죽상 瓜
 菜외나물002 過出지나다001 果把x#꽃밭 霍x 冠관#관002 貫甲x#관갑 管軍官x 管軍頭目x
 觀音草웅담005 官引道x#관인도 關字x#관자005 關智x#??? 管處황새001 管總司x#관총사
 刮嫩x#관원 刮世과일 刮世你格大x#과일001.익다001 刮世大臥那刺x#과일001.따다001 刮世
 埋雜大x#과일001.맷다001 刮世把x#꽃밭 廣너비001 廣是널리001 廣開土大王x#광개토대왕
 狂犬x#광견001.제견001 廣光伊x#넉광이001 廣頭釘x#대길못001 廣石광석 狂尸恨어리석다
 光懿王太后x 光伊광이001.국광이 匡治奈x 廣評省x#광평성 廣坪侍郎x#광평시랑 愧귀001 壞
 良없애다 怪僧牙x 槐音鐵x 槐花木皮회화나무001 敎가르치다001 敎명령 敎하다001 巧是x#
 공교히001 矯這尸x 敎是께서 橋鐵x#다리쇠001 交鈔x#교초001 久오래003 寇도적001 舊예
 001 久去오래다001 久良오래다001 俱叱爲동반하다 具乎갖추다001 具乎갖추다001 九干x#
 구간001 驅口x 求其乃구지내001 求其乙波耳x#누고004 句茶國x#구다국 句當維那x 勾驪고
 구려 溝瀆x#성013 溝瀆우리001.우리003 舊理예001.옛날001 仇里竹구릿대001 鳩目花x#구
 맥002 丘物叱丘物叱바글바글003.웅기종기 九味x 九使者x#구사자001 九誓幢x#구서당 區戍
 구슬001 九牛一毛x#구우일모 久音方伊금병이001 玖長x 具足兮x#구족하다001 九州萬步幢
 主x 九重奈麻x 仇七幢x#구칠당 救荒狄所里x 國나라001 國老x#국로001 國法中分與x 國師
 x#국사011 國相x#국상002 國相x#국상002 國惡나라001 國壤王x#국양왕001 國子博士x#국
 자박사001 國宰x#국재002 國朝王x#국조왕001 國尊x#국존001 國統x#국통002 國統x#국통
 002 菊花童x#국화동001 菊花童環x 君x#군003 群무리001 裙치마001 軍x#군007 郡太守x
 軍部卿x 軍部令x 軍師군사007 軍師監x#군사감002 軍師幢x#군사당001 軍師幢主x#군사당주
 001 郡上村主x 郡守군수005 君王x#군왕001 軍尹x#군윤001 軍主군주002 郡主군주003 郡
 中上人x 郡統x#군통001 軍戶x#군호002 屈성013 屈林구름001 掬排目x 屈召介골001.조개
 001 屈押縣令x 芎藭苗x#궁궁이001 芎藭草x#궁궁이001 穹廬x#궁려001 弓非排x#활비비
 001 躬身草x#조류001 宮翁x#궁옹001 勸農x#권농002 權務x#권무001 眷屬x#권속002 机
 概典x#궤개전001 机盤局x 貴귀016 貴干x#귀간001 鬼尼고양이001 貴幢裨將x 貴幢弟監x 貴
 幢摠管x 貴幢x 歸附軍x 歸化部曲蘇復別監x 葵花x#규화004 極兮극히001 克虞x 根뿌리001
 近기운007 勤火叱부지런히001 根脚근각001 根你卜二x#금024.이불001 根迫尺x#금분003
 根白昏大x#글001.배우다001 斤尸글001 根沁大x#글001.쓰다001 簞竹葉댓잎001 根中뿌리
 001 斤次左只x 錦금024 衿昱001#깃010 今良지금003 今爲隱지금003 今只지금003 今支지
 금003 今只隱지금003 今叱지금003 金官x 金官國x#금관국001 衿券x 衿給x 衿記x#깃기002
 衿得x 金燈花x 金馬곰003 今毛邑여덟001 今勿검다002 金非陵音쇠비름001 金非音쇠비름
 001 禁書省x#금서성001 金義官x 今日오늘001 錦典금전008 金鳥쇠새001 衿主x 今呑지금
 003 金塔子x 衿荷x 衿荷臣x#금하신001 衿合x 及김001 及미치다005 及只및001 及叱및001
 及干x#급간002 級干x#급간002 及干支x#급간002 急幢x#급당001 及伐x#급벌찬001 及伐干
 x#급벌찬001 級伐滄x#급벌찬001 及伐斬典x 及伐尺x 及殮x#급찬001 給帳典x 及尺干x#급
 척간001 及欣깊다001 揜悶x#크다001.강001 揜阿必큰아버지001 揜額密큰어머니001 揜把論
 x#큰바람001 其그001 己성013 旗x#기031 記기록하다001 起일으키다001 冀是바라다001

己衣스스로001 幾叱몇001 基谷x#토골002 岐等如x 岐等如x 欺臨거름001 畿林기름001 幾心
 귀신001 岐如x 岐如x 岐亦x 岐亦x 祈以빌다001 機張기장014 記載그재001 綺典x#기전010
 岐只x 己只까지003 岐只x 奇貝早支x#급벌찬001 吉길다002 吉길001 吉大憂x#길001.닭다
 003 吉董捨以大x#기둥001.세우다015 吉勒吉기러기001 吉林기름001 吉墨大x#길001.멀다
 003 吉墨勒大x#길001.마르다001 吉士x#길사003 吉賽直기와집001 吉漁x 吉憂憂大x#길
 001.가깝다001 吉二길001 吉自大x#길001.질다002 吉雜色二기장쌀001 吉怎기침001 吉之x
 吉支왕004 吉之智x 吉次x#길차001 吉刑菜實질경이001 金쇠001 金居里x 金非虞쇠비름001
 金山幢主x 金銀花草금은화001 金義官x 喫마시다001 那내001 那吉大x#낮001.길다003 那答
 신004 那落수염003 那論노르다001 那論歲x 那莫나무001 那沒香x 那勿납001 那勿납001 那
 奔놓다001 那比널리001 奈率x#나솔001 那耳냉이001 那在이제001 那左把저녁밥001 落떨
 어지다001 落午花x 落只x#지기017 卵알001 難是x 赧思낮001 赧世色x#얼굴001.씻다001
 難隱일곱001 赧自남자002 捺翅沒朝勳x#날씨001.못004.줄다001 捺翅朝勳x#날씨001.줄다
 001 捺則낮다001 南나무001 甥오라비001 南加耶x 南記나무001 南帶方x#남대방군001 南
 桃園宮x 南木나무001 南邊第一x 南扶餘x#남부여001 南部褥薩x 南廂壇x#남상단001 南沃沮
 x#남옥저001 男子木蓋x#현대001 南下所宮x 南韓x 納貨部x#납화부001 浪물결001 郎幢摠
 萱x 乃내다031 內누리001 內안001 內땅001 奈크다001.길다001 迺넛001 內供奉x#내공봉
 001 內道監x#내도감001 內頭佐平x#내두좌평001 奈麻x#나마002 乃勿납001 內米못003#바
 다001 內法佐平x#내법좌평001 內奉令x#내봉령001 內奉省x#내봉성001 內奉侍郎x 奈夫□x
 奈夫通典x 內事x#내사007 內史令x#내사령001 內史侍郎x#내사시랑001 奈生郡三千幢x 內省
 x#내성003 內省侍郎x 奈率x#나솔001 捺翅낮001 內侍茶房x 內視令x#내시령001 內臣佐平
 x#내신좌평001 乃伊말하다001 內殿焚修x 內殿焚修僧x 來際x#미래제001 奈吐郡三千幢x 內
 平x#내평005 內原部x#내경부001 女國x#여국001 女狄x 念념다001 念受勢x 捻宰낮001 奴x
 弩幢x#노당001 弩幢主x#노당주001 蘆洞里x#갈월001 努落노루001 弩禮누리001 努論故論
 x#누를다001.구름001 努論埋x#황앵001 努論墨二x#황마001 努論所貴x#노랄다001.살구
 001 努論數本x#누를다001.술001 努論必x#노란빛001 弩舍知x#노사지001 努色눈썹001 奴
 也只x#노야기001 蘆浦x 蘆湖x 祿牌x#녹패002 惱땅001 惱x 餒墨나물001 餒墨把x#나물발
 001 餒一넛001 餒直阿怎x#내일001.아침001 惱叱古音알리다001.보고하다002 餒必누이001
 漏刻x#누각001 漏刻博士x#누각박사001 漏刻典x#누각전001 嫩눈014 嫩눈014 嫩눈001 嫩
 눈001 嫩赧大x#눈014.날다001 嫩按x#눈알001 嫩耻x 能나003 能弥능히001 能是知능히001
 能支능히001 能知능히001 能消x#능소화001 能消草x#능소화001 能亦능히001 尼이004 你
 이004 你이004 妳이모003 旎이001 你格x 你格刺x 尼谿相x#이계상001 你谷일곱001 泥根
 沒x 泥不이불001 尼師今x#이사금001.임금001 你憂x 泥底얼다001 你之일다001 匿家入囉x
 多다003 多많다001 多是많이001 多留따르다001 多里甫리다리미001 多勿國x#다물국001
 多勿侯x 多伐國x#다벌국001 多支갈다001 荼毘다비002 多士摩다시마001 多只닥001 多支갈
 이001 多婆那國x 但다만001 團자라001 𡵓계곡001 段은006#는001 端(런던본만)x#전035
 但只오직001 丹國x 檀君王儉x#단군왕권001 𡵓貴草x#당귀002 斷末摩단말마001 𡵓越x 但只
 오직001 達산001.높다001 疸달005 𡵓𡵓x#달단001 達山x#달산001 達率달솔001 達乙伊다
 리005 奮논001 幢x#당020 當只반드시001 當叱반드시001 黨故菜x#당귀002 唐鵲때까지
 001 幢典x 幢主x#당주003 幢主x#당주003 唐菁무002 唐菁實무002 唐楫伊덩싸리001 唐秋
 子x#당추자001 當必兮x#필히001 大크기001 大크다001 大땅001 帶대011 待기다리다001
 大是x 大駕洛x#대가야001 大伽耶x#대가야001 大伽耶國x#대가야001 大角干x#대각간001#
 대각찬001 大角古皮질경이001 大角漁x#대각찬001#대각간001 大監대감002 大居塞x#항가
 새001 大谷x#대곡010 大曲甘佐非x 大谷城頭上x#대곡성두상001 大官大監x#대관대감001
 大匡x#대광002 大匡內議令x 大國統x#대국통001 大屈乙曹介굴001.조개001 大奈麻x#대나마
 001 大幢x#대당002 大幢少監x 大幢將軍x 大幢摠萱x 隊大監x#대대감001 大對盧x#대대로
 003 大德x#대덕001 對德x#대덕007 大都督x#대도독001 大都司x#대도사001 大道署x#대도
 서001 大都維那x 大洞x#대동010 隊頭x#대두004 大等x#대등002 大刺다락001 大刺直다락
 집001 大梁州都督x 對盧x#대루014 大鹿사슴001 大龍部x#대룡부001 大莫離支x#대막리지
 001 代尾x#대모004 大博士x#대박사001 大朴曹介함박조개001 大朴花함박꽃001 臺盤x 帶
 方x#대방012 帶方郡公x 帶方郡王x 帶方王x 大伯士x#대백사001 大輔x#대보003 大輔x#대

보003 大府x#대부004 大府卿 大府寺x#대부시001 大使x#대사007 大師x#대사013 大舍x#
 대사010 大司邑x 大使者x#대사자002 大舍第x 大舍帝智x 大相x#대상001 大相x#대상002.대
 상003 大色直x#지계004 大舒發翰x#대서발한001 大書省x 大石x 大率x#대솔002 大守x 待
 是기다리다001 大阿干x#대아간001#대아찬001 大阿干支x#대아간001#대아찬001 大阿滄x#
 대아간001#대아찬001 大樂監x#대악감001 大額x#대음001 大耶x#대야001 大鳥x#대오004
 大鳥第x 大鳥鳥x 大鳥知x#대오지001 大尉x 對爲대하다002 大維那x 大尹x 大隱鳥x#황새
 001 大人대인004 大人國x 大一伐干x 大日任典x#대일임전001 大匠x 大將대장004 大將軍x#
 대장군002 大匠大監x#대장대감001 大匠尺幢x 大匠尺幢主x#대장척당주001 大典事x#대전사
 001 大典儀x#대전의001 大傳典x 大正x#대정002 大左대추001 大佐平x 大主簿x#대주부001
 大衆等x 大尺x#대척003 帶鐵x#띠쇠001 大打대답001 大琢角干x 大統x#대통013 大平恨x#
 태평하다001 大學監x#대학감001 大學士x#대학사002 大兄x#대형001 宅집001 德얼004 德
 x#덕006 德率x#덕솔001 德應x#덩001 刀되001 到이르다001 導이끌다001 徒무리001 徒무
 리001 徒무리001 徒무리001 道길001 都모두002 度是건네다001 都叱다003 都監x#도감
 002 道監典x#도감전001 刀古个伊x#도고마리001 都官x#도관002 刀斤늑다001 都乃x 道乃
 頭釘x 道乃鍾子x#도래송곳001 都督x#도독005 都督使x 都頭x 陶登局x#도등국001 都囉x 都
 羅本x 刀羅次도라지001 闍黎도령001 道令도령001 都籠箕x 闍梨도령001 都馬蛇도마뱀001
 都卜二둘001 刀部x#도부004 到付x#도부005 道使x#도사015 靚捨(런던반만)주석003 都事
 稽知x#도사게지001 都事大舍x#도사대사001 都事舍知x#도사사지001 刀士邑다섯001 徒上x
 都省x#도성006 道尸길001 都謁稽知x#도알게지001 都謁舍知x#도알사지001 都唯那x#도유
 나001 都唯那娘x 都乙羅叱도라지001 道以도로002 都引稽知x#도인게지001 都引幢x#도인당
 001 都引舍知x#도인사지001 都亨驛x#도정역001 刀尺백정001 途亨둘001 都乎모으다001
 都護府x#도호부001 督산001 禿魯花x#독로화001 毒蛇독사003 頓계곡001 頓部叱모두002#
 다003 突돌004 突돼지001 芑迪耳돌쩌귀002 動움직이다001.떠나다001 東새018 銅동032
 同是같다001 東京掌書記x 冬瓜仁동아001 東宮官x 東宮御官x 東宮衛x 同內史門下平章事柱國
 x 銅綠x#동록002#동청004 東明王x#동명왕001 同文동문001 東關새벽001 東部大人x 東扶
 餘x#동부여001 東西南北동서남북001 東尸새018 東市典x#동시전001 東沃沮x#동옥저001
 冬乙藍虛里x#드령허리001 冬乙沙伊겨우살이003 東征軍x#동정군001 同舟[司舟]사주001 動
 寨x 同婆記x#사내아이001 斗말014 豆等良只두드러기001 杜路迷두루미001 斗毛里x#두모리
 002 頭目x#두목003 頭上x#두상002 頭上大監x#두상대감001 頭上弟監x#두상제감001 兜率
 x#도솔001 豆訟을무001 豆也摩次作只x#두여머조자기001.귀구001 豆也末注作只x#두여머조
 자기001.귀구001 豆也味次x#두여머조자기001.귀구001 豆也个次火x#두여머조자기001.귀구
 001 豆音伏只뜸부기001 豆音矣羅耳x#두루미냉이001 豆衣乃耳x#두루미냉이001 豆應仇羅등
 굴레001 豆仍只x 頭釘x#대갈못001 豆地鼠x#두더쥐001 豆吞炭典x 豆何非두꺼비001 得다
 003 得시내001 得얻다001 得是x 得盖덮개001 得盖덮개001 得屢다리005 得勒들다001 得
 勒들다001 得勒把吉x#들001.밖001 得卜大덤다001 得本數本x#덤다003.술001 得二달005
 得二닭001 得二吉卜格大x#달005.기울다003 得二答x#유005 得二墨大x#달005.맑다002 得
 二文大x#닭001.울다002 得二以思格大x#달001.이지러지다002 得二朵畧大x#달005.둥글다
 001 等것001#바003 等良같이002 等之爲같다001 登仕郎x#등사랑001 登席자리010 等也산
 001 登外등에001 登子金x#등자쇠001 等狀x#등장004 羅x#신라001 羅祿나락001 羅耳實냉
 이001 騾耳草x 羅戲少時x 落지다003 落只x#지기017 亂어지럽다001 卵알001 浪물결001
 郎幢x#낭당002 郎幢將軍x 郎刀x 狼牙子x#낭아초001 狼矣牙x#낭아초001 郎將x 郎中x#낭
 중002 來오다001 來帶늑대001 略兮x#간략히001 梁문007 梁山001 梁x 良알다001 棟x 梁
 貂x 兩排所枕x 樑奉보아지001 樑我之보아지001 量田使x 良中에012#에서002 良中了에게로
 001 良中乙良x 良中置에도 樑之末x 兩河道摠官x 麗x 練익히다001 蓮根연근001 連率연솔
 001 樊濊x 蓮子연자005 連鐵이음쇠001 連鐵이음쇠001 輦下國x 廉使x 領령012 令是시키다
 001 靈廟寺成典x 領非頭x 靈山狄所里x 令只시키다001 禮部x#예부002 禮部x#예부002 禮部
 令x 禮成典x 禮臣x 禮賓省x 禮爲x 例作府x 例作典x 露나타나다001#나타내다001 露乎나타
 나다001#나타내다001 鹿x 鹿角膠x 綠衿幢x 祿大x 錄事녹사001 錄事녹사001 錄事參軍x 論
 논하다001 賴泰늑대001 了마치다003 了마치다003 遼東大都督x 了以x 了姐아들001 了寸了
 姐x 了兮마치다001 蓼花요화001 龍x 龍城國x 龍王典x 螻x 類무리001 留功x 留德x 留守x

留水x 流音x 流音官x 流伊x 留天x 柳漆버들웃001 柳漆苗버들웃001 六頭五頭品육두001.오두
 품001 六頭品육두품001 律令博士율령박사001 律令典율령전001 勒根得屨x 廩翁은옹001 廩
 典능전001 陵色典능색전001 理이치007 利是x 裏公x 裏內從人x 理方府令x 吏部이부002 裏
 腐草속씩은풀001 俚云x 莉園典자원전001 俚音x 利濟府이제부001 裏朽斤草속씩은풀001 臨
 貢省直x 林檎능금001 臨屯임둔001 立세우다001 立세우다001 立工x 立石碑人x 磨磨001 馬
 말015 𠂔x#만금001 磨勒마갈001 馬江x 磨那大x 磨叔曷大x 馬尿木말오줌나무001 磨刀石여
 석003 麻履典x 麻立말뚝001.왕004.머리001 麻立干마립간001 馬鳴退x 馬無乙串x 磨墨立산
 정005 𠂔支마002 馬部마부004 馬夫乙伐士叱말불버섯001 麻蛇마시다001 麻袖干x 馬十曹介
 말조개001 磨阿迫x 𠂔汝乙마늘001 馬乙말020 麻刀마흔001 馬蘭子마린자001 磨一산001 麻
 典x#마전007 麻田마전006 麻帝머리001 麻帝骨x 磨帝國x 麻帝核試x 磨震마진002 馬叱同仇
 火乃말뚝구리001 麻致맛002 磨堆迫x 磨必賴x 摩何尊백미003.서장경001 馬韓마한001 馬韓
 道安撫大使x 馬銜稻x 麻花上粉삼꽃001 莫아니001.못001 莫叱없다001 莫叱是없이001 莫離
 머리001 莫離支마리지001 莫閔모밀001 莫底大모질다001 莫底撒論x 滿가득하다001.차다
 001 萬x 萬尸만007 萬步幢x 萬步幢主만보당주001 蔓月阿彌맨드라미001 蔓月阿比맨드라미
 001 蠻子만자001 蠻子軍만자군001 蠻害만년002 抹말003 末말004 靺鞨말갈001 靺鞨渤海x
 末仇里개구리001 末栗마름004 末步幢主x 末應德達명덕말기001.말기001 末應德達汝注乙명
 덕말기001.말기001.년출001 亡없다001 望良바라보다001 網草망초001 埋매009 妹x 枚매
 001 每매003 買x#물(水)001.내(川)001 賣팔다001 呆예001 寐錦마립간001 埋多묻다003 呆
 論여름001 呆論臥那大x 買尸마늘001 每阿未매미002 每如마다001 呆忍부인010 每作只根매
 자기001 貌맥008 貌國맥008 盲僧x 面낫001 面石捉上人x 面石捉人x 免身면신002 面捉上x
 滅없다001 滅良없애다001 滅知衣底x 滅乙멸001 命목숨001 明밝다001 鳴울다001 名下이
 름하다001 明斤밝다001 明期밝다001 名表紙x 明活典명활전001 帽x 慕그리다001 毛모기
 001 毛x 毛 如x 毛多모두001 毛達모르다001 毛刀무더기001 毛冬못001 牟羅마을001 毛良
 머리001 慕理그리다001 毛禮x 毛立끼무릇001 模盧마을001 母勒묻다008 慕本王모본왕001
 母魯모레001 母史어미001 兒史모습001 毛施모시001 毛施背모시001.베001 母生암소001 毛
 典x 模倣x 毛叱所只x 毛次羅只메추라기001 毛乎모으다001 萼花붓꽃001 目눈001 木串子무
 환자001 木麥메밀001 目白甘板麻단너삼001 木部목부001 目非阿次암눈비앗001 目非也叱암
 눈비앗001 目非也次암눈비앗001 木只모끼001 木只椽모끼연001 木只刀모끼날001 木瘡균독
 001 木尺목척001 木通목통003 沒물001 沒審무슨001 沒涕里물들이다001 蒙x 無叱없다001
 無是없이001 無兮없이001 無殼月乙板伊달팽이001 無間兮곧바로001 無間常委兮x 茂件羅粟x
 無窮花木무궁화001 無端무방001 武督무독001 無比兮x 無蘇무002 霧乙加个耳물까마귀001
 茂火더불다001 墨x 墨根色x 墨吉林罵x 墨勒마루006 墨立머리001 墨立吉머리털001 墨立必
 色x 墨埋亞直망아지001 墨二말007 墨二答오009 墨怎마음001 墨怎勒大x 墨怎按大x 聞듣다
 001 門몸001 聞是듣다001 文督문독001 文尸글001 文人x 文咨王文자왕001 文作人x 文尺x
 文尺x 蚊川首稽典문천수숙전001 文蛤문합001 勿말007 勿물001 物叱것001 勿渠묻다001 勿
 吉물길001 勿吉渤海x 物物날날이001 物物以x 勿兒隱提良x 勿乙可致물까치002 物藏省물장
 성001 物藏典물장전001 勿叱隱阿背x 勿叱隱提阿x 彌물001.내001 未冬아니001 未是없이
 001 味是爲맛보다001 未只x 未知아니001 靡叱없다001 靡叱是없이001 未起骨오징어.뽕001
 未多夫里倅미다부리정001 米立용001 米立答진004 米甞쌀보리001 迷反미혹하다001 未鞍x
 未由棄메기001 迷冊大미치다001 美川王미천왕001 迷波미혹하다001 迷火미혹하다001 民백
 성001 悶吉大x 悶勒x 悶呆曷大x 悶墨大x 悶迫勒大x 民隱백성001 悶二물001 悶二하천002
 悶子x 悶中王민중왕001 悶黑立大x 密셋001 密翅易成x 蜜乙x 密沮메주001 密只그옥이001
 朴바001 箔발003 朴박001 朴박005 朴舉x 朴串바곳001 迫刺팔다001 博士박사003 朴沙伊
 박새001 迫升백성001 朴葉박005 朴鳥伊박새002 迫尺동이001 朴鐵x 箔草박새002 箔恥具羅
 x 朴赫居世박혁거세001 反번001 盤x 斑鳩버들기001 般多伊助音좀001 反同x 半門범002 般
 若반야003 反亦도리어001 胖襖x 半迭勒大x 盤蕉파초002 拔빠다001 潑발001 拔都용사005
 勃叱鼠박쥐001 渤海발해001 渤海國발해001 渤海靺鞨발해001 放놓다001 方x 邦나라001 方
 叱비로소001 方甄刻耳x 方領방령001 坊里丁x 榜悶罵替x 方伯방백001 防禦使방어사001 方
 佐방좌001 方鎮x 防草막새001 芳荷박하001 拜배001 拜절하다001 排배목001 背균독001
 背배001 陪모시다001 倍是x 排帶會위모004001 排木배목001 背戌버선001 排岸使배안사

001 拜言答뵐001 排支乃x 白사되다001 白히다001 百隱백006 伯干x 百缸將軍x 白俁音x 百
 官幢백관당001 百官幢主x 白鳩비둘기001 白衿幢x 百吉草백미003 栢臺x 百頭x 白良사되다
 001 白蔓月阿比맨드라미001 白茅香모향002 白反사되다001 栢史잣나무001 白是사되다001
 白榆實무이005 栢子x 栢子木잣나무001 百殘백제001 百節편축001 白帝백제001 百濟백제
 001 百濟國백제국001 百濟國王x 百濟郡公x 白之사되다001 百執事백집사001 白川首蓆典x
 白朮백출001 白蟲倉백충창001 白朶大법도001 白土백악001001 白波串바꽃001 白活발괄
 001 番監x 伐벌001 伐曲大절긔대001 伐力川停벌력천정001 範教師x 犯斤버금001 凡矣무릇
 001 法功夫x 法幢법당001 法幢監법당감001 法幢頭上x 法幢主x 法幢辟主x 法幢火尺x 法部
 법부002 法主법주001 碧衿幢x 壁典x 碧珍x 碧珎伽耶벽진가야001 卞변한001 邊가001 卞國
 公변국공001 卞韓변한001 別따로001 別별001 別兮특별히001 別錦房x 別刺벼락001 別刺文
 大x 別部將x 別思버001 別爲별 다르다001 別邑x 別二별001 別二得莫大x 別二哲大x 別二擺
 大x 別二哈大x 別置倭典x 別乎따로001 并아올러001#함께001 瓶x 并以아올러001#함께001
 兵官佐平병관좌평001 兵物叱병기002#무기001 兵部병부001 兵部卿병부경001 兵部令병부령
 001 兵府部令병부부령001 兵部史병부사001 兵部侍郎병부시랑001 并囚x 瓶碗x 竝院x 并遊
 友x 并以아올러001#함께001 并只아올러001#함께001 保金x 屏村宮典병촌궁전001 寶姐말
 001 保羅國x 寶露國x 寶보배001 菩里파려001 步보004 保命司보명사001 普是널리001 寶非
 비비다001 步監보감004 菩薩x 步騎監보기감001 樛兒之보아지001 步騎幢主x 甫尹보윤001
 卜짐001 卜북005 濮북005 卜뚝001 卜지다018 復甲尸또001 復刀또001 復爲隱또한001 復
 只또001 復乎또001 幬頭복두001 卜物짐짝001#짐바리001 僕射복야001 卜賞복송아001 卜
 數결복002 卜役x 卜以지다018 福田복전001 卜定복정001 伏只복001#복어001 卜冊부채001
 本以본디001 本根故論x 本根果x 本根墨二적마001 本根必붉은빛001 本道安理麻蛇x 本矣본
 디001 本彼宮본피궁001 本彼首蓆典x 本和上x 奉받다001 峯봉016 捧받들다001 烽해001 蓬
 다복001 蓬만나다001 捧俁音다짐001 奉德寺成典봉덕사성전001 捧上받아들이다001.봉상
 005 烽上王봉상왕001 奉實部봉빈부001 奉御봉어001 奉恩寺成典봉은사성전001 逢音마침
 002#때마침001 奉座局x 奉支鐵杖x 蓬次다복숙001 浮뜨다001 父아비001 負짐001 負짐001
 部부001 部무리.부류001 不冬아니001 不只못001 不知아니001 部監等x 浮去떠가다001 副
 君x 副達魯花赤x 浮浪人부랑인001 夫里성013.마을001 駙馬金印x 夫背也只제조009.궁뎡이
 001.무한자001 副使부사009 夫斯술003 副帥부수001 富心검물001 夫餘부여001 扶餘君부여
 군001 不如正理兮x 不喻아니001 部伊무리001 夫作x 部長부장004 副將軍x 釜底下土복룡간
 001 夫叱心검물001 付菜부추001 斧尺x 夫泉宮典부천궁전001 副總管x 浮灘里x 不平等兮불
 평등하다001 副戶長x 付鳳부영이001 北帶方x 北門頭x 北部大兄x 北部小兄x 北扶餘복부여
 001 北司設복사설001 北廂복상001 北廂典복상전001 北心검물001 北岳복악001 北沃沮복옥
 저001 北園宮x 北叱心검물001 北吐只宮典x 分나누다001 分x 分뉘002 分즈음001 噴磨x 噴
 墨二x 噴外亞吉x 分釘x 噴必파란빛001 佛止부처001 弗矩밖다001 弗矩內밖다001 弗斯侯x
 佛體부처001 朋知벗003 緋x 非잘못되다001 飛것001 祕밀002 轡고삐001 備乎갖추다001
 飛蓋x 碑碑x 比烈忽停x 飛龍省x#비룡성001 沸流國x#비류국001 批勒버룩001 卑離x#성013.
 마을001 霏微비001 非排x#활비비001 非背刃x#활비비001 飛夫刃x#활비비001 比伐首x#비
 벌수001 非師豆刀草애기풀001#원지010 秘書省x#비서성001 卑列城行軍總管x 飛月阿未x 裨
 將x#비장007 祕祖메주001 比只國x 毗處빛001 非稟子비름001 頻希비녀001 氷庫典x#빙고
 전001 龕뎡001.만016 事일001 仕x 使부리다001 史x#사013 四넛001 寫쓰다001 寺절001
 捨버리다001 斜x 斜x 死죽다001 死죽음001 沙새011 沙모래001 絲x 絲실001 舍x 舍쇠001
 蛇뱀001 賜주다001 駟x 斯是x#이011 私音x#사사로이001 事只섬기다001 祀口干x 沙干x
 沙干支x 沙舉乙金x 捨格刺서다001 司庫x#사고001 司庫吏x#사고001 司功x#사공001 司空
 部x#사공부001 祀串바곳001 史官x#사관008 仕官出干x 司寇x#사구003 司寇部x#사구003
 司軍部x#사군부001 使內부리다001 思內사뇌가001 沙老里x 司農卿x#사농경001 蛇達只뱀말
 기001 史臺x#사대005 仕大等x#사대등001 仕大舍x#사대사001 蛇都羅叱뱀도랏001 司徒部
 x#사도부001 沙咄干x#사돌간001 四頭品x#사두품001 斯羅x#신라001 斜羅夫老x#사라부루
 001 沙梁宮x#사량궁001 沙梁伐國x#사량벌국001 司例x#사례001 斯盧x#사로012 捨立x#서
 리008 司馬x#사마003 沙毛x#삼다004 私母사모004 司牧사목002 史勿國x 沙鉢사발001 四
 方軍主x 沙伐國x#사벌국001 司範署x#사범서001 司兵x#사병002 沙伏x 沙非x 司籠局x 司賁

卿x 司貴府x#사빈부001 史師x 沙塗사슬001 沙森犯勿羅粟x 沙蔘矣角사슴001.뿔001 蛇床子
 뱀도랏001 蛇牀菜子x#사상자003 四設幢x#사설당001 沙滄x#사찬001 沙瑟木x#백양나무
 001 斜是x 沙尸새011 仕臣x#사신002 私臣x 司樂x#사악001 司馭府x#사어부001 沙魚皮상
 어001 司業x#사업001 私亦사사로이001 沙熱伊서늘하다001 沙月鳥사다새001 司位府x#사
 위부001 沙乙木花야합화001.자귀나무001 沙乙味x#살미001 沙音삼다004 舍音마름004 私音
 丁사사로이001 蛇音置良只뱀도랏001 蛇音置良只菜實뱀도랏001 沙邑菜삼주001 司儀x#사의
 002 沙矣모래001 司議郎x#사의랑001 賜以주다001 舍人x#사인011 使者x#사자006 師子衿
 幢x#사자금당주001 師子衿幢監x#사자금당주001 四子幢x 使作人x 蛇長魚뱀장어001 寺典x#
 사전005 使丁사사로이001 司正x#사정003 司正府x#사정부001 司正丞x 邪足智x 司舟x#사
 주001 寺主x#사주009 四重阿滄x#사중아찬001 斜只x 舍知x#사지021 司直x#사직003 辭叱
 말001 沙滄x#사찬001 司倉x#사창001 沙尺x 沙尺干x 四千幢x#사천당001 司天大博士x#사
 천박사001 司天博士x#사천박사001 四天王寺成典x#사천왕사성전001 蛇脫皮뱀001.허물002
 私通x#사통003 娑婆사바001 賜牌사패001 蛇避草궁궁이001 蛇香菜사향채001.전호005 已顯
 사발001 賜花x#사화018 沙會사위001 司勳監x#사훈감001 沙喙x 蛇休草궁궁이001 朔x 散
 뿌리다001 產날다001 蒜마늘001 筭손001 山達伊小豆x 山梅子산매자001 山彌x#살미001
 算博士x 散灑是뿌리다001 蒜尸마늘001 山藥마002 山羊산양001 山羊角산양001.뿔001 酸棗
 加柴가시001 山叱水乃立멧미나리001 山叱伊羅羅次이스라지001 山尺산지기001 傘朵色二경
 미002 煞죽이다001 薩x#살016 薩囉살다001 娑味x#살미001 薩滄x#살찬001 三삼003 三삼
 007 三共遊來x 三軍大將軍x 三柳버드나무001 三株大棗대추001.산조003 三彌尼大棗대추
 001.산조003 三武幢x#삼무당001 三排木x#삼배목001 三邊守x#삼변수당001 三邊守幢x#삼
 변수당001 三司x#삼사003 三十九餘甲幢x#삼십구여갑당001 三重沙干x 三重阿滄x#삼중아찬
 001 三枝九葉음양곽001 三千監x#삼천감001 三千幢x#삼천당001 三千幢主x#삼천당주001
 三韓x#삼한002 三韓功臣x 上x#올리다020 上정수리001 廂x 桑뽕나무001 牀x 相x 喪良없애
 다001 常是항상001 上只위001 相乎서로002 相乎서로002 相加x#상가006 相加羅都x#상가
 라도001 上干x#상간001 相國x#상국003 上堂x#상당002 上堂大奈麻x 上大等x#상대등001
 上大舍典x#상대사전001 上都x#상도002 桑木上倚衣阿之x#상표초001 賞文大코끼리001.올다
 001 詳文司x#상문사001 上房x 上方x 上白是상사리001 尙父都省令x 尙父令x 上使x 賞賜署
 x#상사서002 上舍人x 上相大角干x 尙書x#상서004 尙膳局x#상선국001 上守x 桑樹上冬乙沙
 里x#겨우살이002 桑樹上螺x 上臣x#상신002 上新謀典x 上翁x#상옹001 上位使者x#상위사
 자001 尙衣x 上引道x#상인도001 上人邏頭x 上將君x#상장군001 上宰x 上典x#상전002 上
 坐x#상좌007 上座x#상좌007 上佐平x#상좌평001 上柱國x#상간001 上州停x#상주정001 上
 州行軍大管x 上州行軍總管x 上州行使x 上村主x 尙宅x 上下x 上下色x 上項x#윗목002 上戶長
 x 上和上x 賽x#새007 賽得屢새011.다리005 色x 色立서리003 色埋소매001 色罵刺쌌다001
 色悶二스물001 色阿必시아버지001 色賴密시어머니001 色二쌀001 色一셋001 色日설002 色
 尺大살지다001 色必按大x#정통009 生생003 生是내다002 生券軍x 生根x 生大대두003 生銅
 x#생동004.자연동001 生動小豆x#생동팥001 生洞粘x#생동찰001 生死路x 生以살리다001
 生鮑x#생포003 生鮑甲x#생포003 西갈바람002 西혀001 誓是맹세하다001 鬪鬪다001 鼠瓜
 쥐참외001 鼠菰根쥐참외001 徐那伐x#서라벌002 誓幢x#서당002 誓幢幢主x#서당002.당주
 003 誓幢摠管x#서당002.총관001 徐羅伐x#서라벌002 書令史x#서령사001 舒發뿔001 舒發
 韓x 徐伐x#서라벌002 徐事x#서사004 書寫人x 書生서생001 瑞書郎x 瑞書院學士x 西成x#서
 성002 西市典x#서사전001 閭失x#분실003 徐耶伐x#서라벌002 鼠厭木實쥐엄나무001 誓音
 다짐001 鼠矣包衣귀리001.보리001 書人x 西仄x#서부003 書尺x#서척001 西川王x#서천왕
 001 鼠苞衣귀리001.보리001 石x#섬002 碩x 昔尸x 石刀도끼001 石鱗운모001 石書立人x 石
 衣x#돌옷001.이끼001 石飴x#석청001 席典x#석전007 石竹花x#석죽화001 石捉上x 石捉上
 人x 石捉人x 石清蜜x#석청001 石投幢x#석투당001 石投幢主x#석투당주001 夷韓奈麻x 石花
 x#석위001 石花x 先良먼저002 先下먼저002 善彌잘003 善支잘003 先可먼저002.우선002.아
 직001 選于x#선간004 善能兮능히001 瀋陵x#선업004 船府x#선부004 船府卿x 船府令x 船
 府署x 鮮卑x#선비010 善石得造x 蟬蛻선각007 先亦먼저002.우선002.아직001 仙人x#선인
 006 僊人x#선인001 先沮知x#선저지001 宣傳消息x#선전소식001 蟬脫매미002.허물002 蟬
 脫生매미002.허물002 善坪宮典x#선평궁전001 宣花呵喝x 舌혀001 薛설002 說이르다003 雪

(是)는014.서리003 設以只비록001 蟾두꺼비001 閃벼락001 蟾眉上酥두꺼비001 蟾矣杵두꺼비001.이불001 涉건너다001 盛신001 成是아루다001 省살피다001 成留아루다001 成在아루다001 盛叱왕성하다001 成記x 星利별001 成博士x 城使上x 星山伽耶x#성산가야001 星茸x#별버섯001 城作上人x 成典x#성전005 成典和上x 城主x#성주008 省只草속새001 城叱x#성014 歲쇠001 洗신001 洒셋001 世理누리001.세상001 洗宅x#세택002 細婢x 歲史x#사이002 細辛x#세신003 洗心x#세신003 世二실001 細採艾x 所良바003 所叱곳001 掃쓸다002 燒소004 少叱爲적다003 小加x 燒사르다001 素쇠001 所加里쓰가리001 小伽耶x#소가야001 少監x#소감001 酥甘소금001 少監職x 小卿x#소경012 小京餘甲x 小京餘甲幢主x#소경여갑당주001 所串바곳001 埽宮x#소궁002 所貴살구001 所那莫소나무001 所內使x 所內學生x#소내학생001 少年監典x#소년감전001 少年書省x#소년서성001 小奴其x 小奴焉x 所老狄所里x 小大使者x 小大兄x 蘇塗x#소도010 小都司x#소도사001 小豆花소두화001 笑利象畿송골매001 所里眞木참나무001 蘇文x 召文國x#소문국001 蘇勃부추001 蘇芳典x#소방전002 疎步눈썹001 少府監x#소부감001 所夫里x 所比x#적색001 所非쵸001 召史x#소사015 小舍x#소사007 小司兵x#소사병001 小司邑x#소사읍001 小使者x#소사자001 小舍第x 小舍帝智x 小蒜根달래001 小相x 小書省x 小石捉上人x 小石捉人x 少守x#소수008 蘇戍술001 小獸林王x#소수림왕001 所也只뽕기003 小鳥x#소오001 小鳥帝智x 小鳥知x#소오지001 小元甫x 所月伊蜂바더리001 蘇乳x 酥油x#수유006 少尹x#소윤002 所乙x#단독001 所乙串소루쟁이001 所邑朽斤草속썩은풀001 消衣亅창포001 所以去그러므로001 小將x#소장002 疏典x#소전012 小典事x 小典儀x#소전의001 少典引x#소전인001 所只까지003 所志x#소지011 召參停x#소삼정001 所枕받침001 所枕金x#받침쇠001 蘇判x#소판003 酥亨술001 酥亨麻蛇술001.마시다001 蘇亨速x 蘇亨打里술001.다리다001 小兄x#소형001 所昏소금001 束목음001 速x 速是빨리001 俗監典x#속감전001 粟枯x#출미001.차좁쌀001 速路우산001 屬屬이어001 速音打x 速二순가락001 速疾兮빨리001 束草속새001 孫손007 遜손001 遜時蛇손001.씻다001 孫烏囉손007.오다001 孫集移室손007.집001.있다001 率서리003.이슬001 率거느리다001 率x#솔008 率솔001 松솔003 松衣亅창포001 松矣亅叱根창포001.석창포001 宋正監x 碎부서지다001 鎖쇠001 鑣쇠줄001 衰也只뽕기003 衰也只家뽕기003 修叱땀다001 受刀받다001 垂중이001 戍풀002 手손001 授주다001 收건다010 水물001 繡x 藪수풀001 藪숲001 遂은004 遂철008 首새011 首소004 迕x 隨叱좃다001 垂是드리우다001 數是자주001 隨乎좃다001 順叱좃다001 順叱爲좃다001 隨乎좃다001 水管巨里金x 藪宮典x#수궁전001 首泥x 水壇x#수단007 水韃韃x 水刺수라002 守令수령001 修例府x#수례부001 愁雷수리002 數木把x#주반002 戍沒수물001 藪未숲001 水芳荷박하001 遂卜x#중021 遂卜x#중021 數本술001 水部x 水賜무수리002 修城府x#수성부001 受勢오다001 修孫땀다001 數數是자주001 隨順兮x#수순하다001 水魚송어 修營感恩寺使院x 修營靈廟寺使院x#수영영묘사사원001 修營奉德寺使院x#수영봉덕사사원001 修營奉聖寺使院x#수영봉성사사원001 數要木實x#수유나무001 首企x 愁伊禾x#시화001 水荏子개001 水作x 遂爭x 水田논001 水助史/汁x#액젓001 收坐x 水左耳x#통초001 水主수주002 水酒村干x 誰支누구001 須只모름지기001 水尺x#수척001 水鐵x#수철001 水靑木x#물푸레나무001 水靑木皮x#물푸레나무001 壽春部x#수춘부001 愁驚수리002 水脫x 數板麻x#단너삼001 宿자다001 肅正臺x#숙정대001 舜선001 巡馬所x#순마소001 戍x 戍술가락001 述干x#술간001 戍羅소래001 述尔x 崇文臺x#숭문대001 膝무릎001 習버릇001 丞x#승005 升되003 昇오르다001 昇오르다001 蠅파리001 升古亅伊도꼬마리001 升量승냥이001 僧房典x 僧法實승법실001 乘府x#승부001 乘府令x 僧司x 丞相x#승상001 承宣x#승선001 僧庵草x#승검초001 僧統x#승통003 始비롯하다001#시작하다 施베풀다001 是x#이다004 是이004 時때001 時是때001 矢x 是是이008 示是보이다001 是叱爲x 始叱乎비로소001 時根沒x#식다001.물001 始岐비록001 詩惱x#사뇌001 施德x#시덕001 時都乃x 侍讀x#시독002 侍郎x#시랑001 侍郎x#시랑001 侍郎x#시랑002.시랑003 示留x#얼다001 市部x#시부001 時司x 時蛇씻다001 侍書學士x 侍御史x#시어사001 侍衛監x#시위감001 侍衛府x#시위부001 匙櫟x#시집003 侍中x#시중006 侍中x#시중008.시중009 侍中x#시중006 元叱비롯001 是絃있다001 施好보시002 息x#흄001 植심다001 食먹다002 喰먹이다001 飾器房x 食床식탁001 食尺典x#식척전001 植貨府x#식화부001 新새011 身音몸001 身萬몸001 身靡몸001 新丁새로001 新丁x 神鬼x#신귀간001 神鬼干x#신귀간001 新大王x#신대왕001

神道x#신도간001 新羅x#신라001 新羅督軍x 申聞色x#신문색001 新反x#새로에001 新反x#새로에001 新附軍x 新三千幢x#신삼천당001 新園典x#신원전001 辛尔x 新人x 新州停x#신주정001 神天干x#신천간001 新台邑사름 神通신통 身乎몸소001 失x#잃다001 失 시내001 實 실001 悉良다003 實勿x 實帶x 實封x#실봉001 實亦실로001 悉直x#실직003 悉直谷國x#실직곡국001 悉直國x#실직국001 悉直停x#실직정001 實漢서른001 尋찾다001 心x 心音마음001 心未마음001 心米마음001 深깊다001 深是깊이004 甚是x#심히001 深遠兮 深黃x#울금001 深黃花x#울금001 心回草현삼001 心廻草현삼001 十尸열004 耶二열004 噯열004 十幢x#십당001 十停x#십정001 十濟x 雙絲刀x 我나003.우리003 我于나003.우리003 阿나003.우리003 阿았다001 阿格刺았다001 阿則家囉았다001 丫加아가001 阿干x#아간001 雅蓋x 我係오리004 我躬x#아궁001 阿貴알리다001 阿其拔都x#아기001 阿捺x 我嫩阿怎오늘001.아침001 我嫩害내년001 阿尼x 阿尼大都唯那x#아니대도유나001 阿尼典x 丫姐아들001 阿得二아들001 阿大약대001 阿大墨二x#약대001.말015 我刀x#아도간001 我刀干x#아도간001 阿羅伽耶x#아라가야001 阿羅國x#아라가야001 安羅x#아라가야001 我浪x 阿浪氣아랑주001 阿良邏頭x 我稜那曼敢大x#얼음001.늑다001 我稜額勒大x#얼음001.얼다001 丫彌어미001 額密어미001 阿夫實아욱001 阿郁아욱001 丫祕아비 阿必아비001 阿斯達x#아사달001 丫查祕아주비001 阿凜x#아찬001 謁旱支x 鴉數耶x 丫兒아우001 阿自아우001 阿耶伽耶x#아라가야001 丫慈x 丫子彌아주미001 丫子彌아주미001 阿殘x 衙前x#아전004 阿怎아침001 阿慘아침001 阿怎以你格刺x#아침001.일찍001.일다001 阿怎以你格刺x#아침001.일찍001 阿怎把아침밥 阿只아기001 阿只草애기풀 阿直蓋墨二x#말015 阿叱加伊實아주까리001 阿次叱加伊아주까리001 丫寸x 丫寸丫姐x#까치설001 亞退x 阿巴앞001 兒孩아이001 阿孩아이001 我害올해001 阿行x 阿戶아흠001 鴉好아흠001 阿火아우르다001 鴉訓아흔001 樂乎x 嶽干x#악간001 樂浪x#낙랑001 樂浪國x#낙랑001 樂浪郡x#낙랑군001 樂浪郡王x 樂師x 岳音x#산001 嶽典x 惡寸x#몇다003.긋다003 按蓋안개 按蓋底格大안개 安國君x 按大알다001 關알다001 安里鹽骨眞아니001#여물다001 岸立弘至x 安撫大梁州諸軍事x 安撫諸軍事x 按墨二x#암001.말015 安樂兮x#안락하다001 安爲편안하다001 安逸戶長x 雁脂x 安海珂背안001.고의001 曼叔撒論x#사람001 曼莫갈모004 曼罵가마001 曼罵貴가마귀001 曼色阿必가시아비001 曼色額密가시아미001 關英x#알영001 謁者x#알자004 謁子帶x 曼左갓웃001 曼怎撒論x#사람001 曼直가지005 曼尺갓001 曼尺卜갓001.북005 岩乎바위001 暗암001 押누르다001 押督x#압독국001.압랑국001 押督小國x#압독국001.압랑국001 押梁國x#압독국001.압랑국001 押梁小國x#압독국001.압랑국001 鴨盧x 鴨脂x 仰우러르다001 哀슬프다001 愛x#사랑하다001 哀反서럽다001 愛自思x 額落我曼x 鶯x 也x#아012 冶x 夜밤001 夜未x#배미001 夜音밤001 耶得二여덟001 夜味x#배미001 耶沁여섯001 耶在x#이제001 也次x#어미001 耶必大아위다001.여위다001 若만약001 若只만약001 若叱만약001 若之爲x#같다001 藥部x#약부002 藥師x#약사004 藥典x#약전008 樣x#양002 羊양006 羊古米양귀비001 陽古米양귀비001 讓國君x 楊等柒버들웃001 楊等柒根버들웃001 兩手두001.손001 楊典x#양전012 養支양치001 兩河道摠官x 御近當x 於內어느002 於內어느002 於冬是어디001 於冬矣어디001 於羅瑕x#어라하001 御龍省x#어룡성001 禦侮副尉x#어모부위001 御伯郎x#어백랑001 於斯x#엇003 魚矣食개구리밥001 於乙x#우물001 於火x#얼001 言乃x#말하다001 撿염소001 撿答x 掩木皮염나무001 業作x 餘音남다001 如갈다001 汝너001 餘良남다001 餘爲隱남다001 如印갈다001 如只갈이001 如支갈이001 如之爲갈다001 如只爲갈이하다001 如支爲갈이하다001 與叱더불다001 餘甲幢x#여갑당001 汝古里너구리001 汝古里古其x#너구리001.고기001 汝古里叱同x#너구리001.똥001 汝刀x#여도간001 汝刀干x#여도간001 汝等徒너희001 餘良나마001 與老얼004 如理兮x 礪石숫돌001 汝兒頭여우001 汝兒昌子여우001.창자001 與乙삼003 如一亦한결같이001 汝注乙豆년출001 余叱엇001 亦刀또001 易兮쉬이001 役只겪이001 易亦쉬이001 淵뚼003#연뚼 烟x 然叱爲그러하다001 薰矣蜜제비꿀001 煙舍典x#연사전001 筵翁x#연옹001 緣由연유006 然叱皆好x#그러하다001.하다001 淵遷x#소007.벼랑001 染谷典x#염곡전001 鹽骨易成x#여물다001.있다001 鹽骨眞x#여물다001 染宮x#염궁001 焰硝x#염초002 葉앞001 葉作x 令시키다001 影그림자001 永길다002 永去길이005 永良길이005 嬰叱爲병들다001 領客府x#영객부001 領客府令x 領客典x#영객전001 影个伊汝乙伊그림자001 盈滿是채우다005 英生영생이001 永昌宮成典x#영창궁성전001 永昌典x#영창궁성전001 永興寺

成典x#영흥사성전001 濊x#예017 穢國x#예017 穢宮典x#예궁전001 濊貊x#예맥001 驛屬
 x#예속003 例作府卿x#예작부001 厖나003 厖x#깨닫다001 唯只오직001 娛是즐기다001 汚
 去x 烏捺오늘001 五能x 五刀x#오도간001 五刀干x#오도간001 五道按察使x 吾獨毒只오독도
 기002 烏得夫得오독도기002 五頭品x#오두품001 吾里우리003 烏沒우물001 五悶우물001
 五悶吉大x#우물001.값다001 五悶呆吉大x#우물001.열다001 烏支x#가마우지002 烏不實없
 다001 烏斯舍x#토끼001 五常x#오상002 五十日稷x#선나리001 吾兒尼오소리001 敖耶x 吾
 乙未x#올방개001 烏乙反x#영글다001 烏拙x#오졸002 五州誓x#오주서001 烏知x 烏直只오
 직001 五天x#오천간001 五天干x#오천간001 屋裏坐少時오르다001 玉尾乃x#옥미이001 沃
 沮x#옥저005 屋打理x 醞x#온009 溫泉온천002 兀蒼伊울챙이001 臥눕다001 瓦器典x#와기
 전001 臥那刺오다001 臥悶阿迫앞001 臥思뜻001 臥宿x 完山停x#완산정001 完山州誓x#완
 산주서001 琯夏國x 頑荊광대싸리001 曰是x#말하다001 往x#지나다001 王儉朝鮮x 王等x 王
 師x#왕사006 枉必왕비001 倭x#왜004 倭오이001 倭理x#왜004 倭典x#왜전001 外屬x#왜
 계005 外弓x#왜궁001 外椋Ⅱx 外法懂x 外舍部x#외사부001 外司正x#외사정001 外三千x#
 외삼천001 外上외상001 外書x#외서003 外亞吉자두001 外餘甲x 外餘甲幢x#외여갑당001
 外餘甲幢主x#외여갑당주001 外位x#외위001 外眞村主x 外村主x 外平x 外原部x#외경부001
 了마치다001 遙x#멀리001 要兮필요하다001 腰帶요대001 漱里모시다001 蓼花x#요화004
 欲x 褥奢x#욕사001 褥薩x#욕살001 用쓰다010 爲沙音삼다001 春典x 涌出솟아나다001 右
 x#위001 牛x#소004 虞x 于[干]x#간004 雨是x#밀다001 牛高非x#쇠고비001 牛谷x 右理方
 府x#우이방부001 于萬x#없다001 于音毛x#없다001 牛無樓邑쇠무륜001#무륜001 牛膝草쇠
 무륜001#무륜001 右武衛將軍x 右味x 右輔x#우부003 右輔x#우부004 牛蜂家말벌001 丐蜂
 家말벌001 牛夫月乙매자기001 右司祿館x#우사록관001 于山國x#우산국001 于尸山國x#우
 산국001 牛首幢x 牛首邊x#우수변001 牛首停x#우수정001 牛首州屬幢x 牛首州三千幢x 牛首
 州誓x 右新謨典x 牛吾濃伊우렁이001 尤于더욱001 于雄x#비둘기001 右衛將軍x 憂音시름 牛
 矣小便소변001 牛耳菜소귀나물001 牛狄所里x 于次x#다섯001 于次x#다섯001 于台x#우태
 003 牛黃우영001 云이르다003 韃工房x 雲音구름001 雲梯幢x#운제당001 雲梯幢主x 云何叱
 爲어떠하다001 雲麾將軍x 鬱金花x#울금001 鬱折x#울절001 蔚琿國x 蔚琿大國x 雄鼠糞x#숫
 쥐001 熊月背x 熊字x#곰003 雄鳥屎x#수새001 熊州都督x 熊州都督府x#웅진도독부001 熊
 津都督x 熊津道總管x 熊川x 熊川州停x 元비롯하다001 遠x#멀다003 遠是멀리001 元知支비
 롯001 源谷羊典x#원곡양전001 願堂典x 員理x 元輔x 元鳳省x#원봉성001 元鳳省待詔x 遠山
 x#원산007 員外郎x#원외랑002 元尹x#원윤001 猿蛛납거미001 院主x#원주009 願請x 圓環
 x 月달005 月羅理달005 月乙賴伊달래001 月山x 月乙羅다래001 月池嶽典x#월지악전001 月
 池典x 月灘里x 位x#비슷하다002 爲爲하다001 謂이르다003 爲三乎삼다001 爲一是이루다
 001 餽箇누구 爲只싫다001 位頭大兄x 違叱x#어긋나다001 爲等如x#통틀어001 魏滿朝鮮x#
 위만조선001 衛武監x#위무감001 衛士佐平x#위사좌평001 萎玉이울다001 董乙根갈006.뿌리
 001 尉解x#저고리001 位和府x#위화부001 位和府令x 有叱있다001 由x#말미001 遊놀다
 001 唯(雀)乃x 猶是오히려001 有在게시다001 有置두다001 有殼月乙板伊달팽이001 有間无
 間兮 留功x 維那x#유나002 唯乃x 唯乃師x 唯乃僧x 儒禮누리001 乳母젖어미001 有司x#유
 사002 有司x#유사002 有司x#유사002 留水干x#유수간001 留守官x#유수관001 猶亦오히려
 001 有乙梅을미001 流音x#흘림002 遺子禮x 榆醬x#느릅나물001 遺知끼치다003 留天干x#
 유천간001 遊行노닐다001 六官x#육관001 陸橋x 六部監典x#육부감전001 六部少監典x#육
 부소감전001 六月太x 肉典x#육전001 潤젖다001 栗未靺鞨x 隱x#는001 隱x#숨다001 慙勲
 兮은근히001 隱密亦是말하다001 恩率x#은솔001 乙x#우물001 乙x#를001 乙吉干x#을길간
 001 乙段x 乙良x#을랑001 乙良沙x#을랑001 乙良置x#을랑001 乙茂火더불다 乙文魚x#밀어
 002 乙沙x#를001 乙以x#를001 乙支x 乙榮x 乙置x#를001 音里火停x#음리화정001 音聲署
 x#음성서001 音聲署長x 音汁伐國x#음즙벌국 音質國x 邑입001 邑借x#읍차001 應叱爲직하
 다003 鷹峰x 應爲응하다001 矣x#의010 矣x 擬可꺾다001 懿恭大王x 矣徒x#무리001 矣毛
 邑x#이듬001 醫博士x#의박사002 議方府x#의방부001 議史x#의사014 擬只비기다003 醫學
 의학002 義刑臺x#의형대001 意侯奢x 二尸둘001 以입001 以이011 伊이010 伊이010 伊이
 르다003 伊이011 爾x 移옮다001 而x 以沙x#삼다004 已沙이미001 爾叱爲그러하다001 伊
 干x 伊干支x 移去x 二屬x 二屬幢x 裏公x 二弓x#이궁001 伊同宮典x#이동궁전001 伊罰干x#

이벌간001 伊伐滄x#이벌찬001 伊伐兮停x#이벌해정001 以卜數耶x 以本漢이웃집001 異斯이
 끼001 伊西古國x 伊西國x 伊滄x#이찬001 伊尸x#이루다001 移實있다001 以沁이슬001 以沁
 額大x 以沁以思大x 以如邑여덟001 易亦쉽다 耳亦뽀003 爾屋시들다001 伊乙每을무001 伊乙
 吾音蔓으름덩굴001 利伊村干x 二節末幢x 已只까지003 伊叱音포의004 僮叱花잇꽃001 異次
 싫다001 伊處싫다001 爾處x#시들다002 伊尺滄x#이척찬001 伊土羅叱x 以把底이바지003
 伊火兮停x#이화해정 伊屹烏音으름덩굴001 翼工x#익공002 弋只x#이039.가17 人사람001
 人米남001.사람001 人音남001.사람001 印인011 印 끝001 引 끌다001 因乎안하다001 引道典
 x#인도전001 仁里별001 咽鳴x#울다001 一等隱하나001 壹干支x 日尸날001 日尸恨날001
 逸버리다001.잃다001 日古邑일곱001 日官x#일관005 日官部x#일관부001 一具x 壹今智x 一
 急일곱001 一吉干x#일길간001 一吉干支x 一吉滄x#일길찬001 一念x#일념001 一短일흔001
 逸答여덟001 逸頓여든001 一利별001 一利村干x 一毛x#일모001 一伐x#일벌002 一伐干x#
 일벌간001 一伐滄x 日本x#일본003 逸舜예수001 逸戌여섯001 一一일일이002 日日이날이
 001 一日花x#일일화003 一切之叱일체001.다003 一切尸일체001.다003 一尺x#일척001 一
 尺干x 臨貢일금001 任那x#임나001 任那加羅x 任那加良x 任運兮x#거리깁없이001 荏子깨
 001 入것001 入날다001 入들다001 立세우다001 入是들이다001 仍反넣다001 仍叱菜넣나
 물001 姉x#윗누이001.손위001.누이001 者은007.는001 自스스로001.자기003.자신001 自矣
 스스로001.자기003.자신001 觜쥐002 者音놈001 自衣以스스로002 自蓋찌개001 紫衿幢x#사
 자금당주(獅子衿幢主) 者里宮자리공001.장류005 子母蓋x 紫夫豆상추001 紫夫豆菜상추001
 子貢早支x#서발한001 子細자세히001 仔細亦자세히001 紫蘇자조기001 紫蘇實자조기001 紫
 水晶x#자수정001 自然兮자연히001 自位x 鮓子南жат001.жат나무001 刺雀鼻粟x 自在兮x#자재
 하다001 自蔡x#자채002 紫菰x#자충002 慈充무당001.자충004 雌孥저울001 紫布x#자포
 005 紫河車x#자하거001 自乎절로001.저절로001 作만들다001 作자001 作功臣x 作工人x 雀
 譚x 作文x 作上人x 作書人x 作食人x 作者작자003 作之자다001 作紙x#작지003 作韓舍x 殘
 國x 暫沙火장간001 暫叱장간001 迓干x#잡간001 雜工司x 雜那憂大x#성013.나가다001 雜嫩
 直x#집001.자다001 雜得勒憂大x#성013.들어가다001 雜思x#성013 雜思жат001 迓滄x#잡찬
 001 迓判x#잡판001 丈x#장009 匠x 杖x#장013 獐노루001 獐노루001 將與令只장차002 長
 鼓草장구채002 長官형001 長官漢吟형수001 將軍장군006 將軍장군006 將近亦가까이001 將
 德x#장덕001 長刀x#장도003 壯道里장도리001 將來가져오다002.장래003 章柳x#장류근
 001.장륙002 長吏x#장리001 壯士x#장사004 長史x#장사007 將上x 障繕府x#장선부001 長
 与이미001 章柳根x#장류근001.장륙002 長乙기르다001 掌音손바닥001.손뼉001 獐矣加次모
 싯대001 匠人장인008 將作監x#장작감001 將作人x 長槍幢x#장창당001 匠尺x 在있다001
 宰官x#재관002 宰相재상006 宰相재상006 宰相재상006 梓人房x 滓典x#재전008 宰把指x
 底아래001 楮닥나무001 猪돼지001 著쓰다001 著光x#저광이001 著衿x 著衿騎幢主x 這里居
 자리공001 這里君자리공001 猪矣水乃立멧미나리001 猪矣栗도토리001 這這가지가지001.날
 날이001 著直墨二종마001 赤 빨간색001.적색004 磧조약돌001 滴音작다001 迪古里막따구리
 001 赤衿幢x 積女國x 狄相x 狄小豆적소두001.결명자001 狄所里x 的是확실하다001 赤位x#
 적위001 赤位大舍x 適音마침002 寂靜兮고요히001 的只확실하다001 典x 前앞001 煎다리다
 001 田밭001 田밭001 畠밭001 專古전적003 轉是더욱001 全乎전적003 典京府x#전경부
 001 展根大저물다001 前內部x#전내부001 典當x#전당004 典大等x#전대등001 典大舍x#전
 대사002 典大舍典x#전대사전001 顛倒兮x#전도하다011 典都唯乃x 箭尾x 前百濟x 田菩薩x
 前部x#전부014 前部大使者x#전부014 典祀署x#전사서003 典事人x 典設館x 典謁x#전알002
 全亦오로지001.온전히001.전혀001 專亦오로지001.온전히001.전혀001.전혀002 典翁x#전옹
 002 典邑署x#전읍서001 典引x 鑄字助博士x 全州刺史x 殿中令x 殿中省x#전중성001 田中村
 x 專知大舍x 詮次가닭001 典彩署x#전채서001 展害x#천년001 展亨버선001 折꺾다001 折
 절가락001 節관장하다 節주사위001 節때001 節敎x 節度使x#절도사001 節末幢主x 節使x
 節書人x 節州統x 折叱可꺾다001 節縣令x 點口部x#점구부001 占捺x#저물다001 占沒저물다
 001 漸勿日伊栗x 漸勿日伊粘栗x 粘米참쌀001 粘石차돌001 占人x 接접하다001 接冬접동새
 002 樸至접시001 丁뚝001 廷x 頂위001 鉦x 正叱바로002 丁蓋골짜기001 鄭芥정가002 正
 卿x#정경002 政官x#정관005 政官大書省x#정관005 正匡x#정광001 精勤兮부지런히001 精
 勤無間兮끊임없이001 鼎今音臺英검댕001 精騎大監x 汀理넋물001 正明國x 政法典x#정법전

001 正甫x#정보002 政丞x#정승001 政承x#정승001 正承x#정승001 政承公x#정승001 正承公x#정승001 正承院x#정승001 行身상인007 正朝x 停助人x 貞坐x 汀叱물가001 貞察x#정찰003 貞和太后x 精朽草x 濟x#제016 第제032 諸x 除없애다001.덜다001 際가001.끝001 濟是건네다001 弟監x#제감001 除公x#제공003 除公x#제공003 題辭x#제사017 第三村主x 梯黍x 制守x#제수003 諸業博士x#제업박사001 題音x 第二x#제이002 第二村主x 第一제일004 祭典x#제전005 除除더러001.일부002 題只x 際叱가001 齊旱支x 諸兄x#제형004 助 돕다001 우이르다009 朝아침001 造짓다008 鳥새006 照是비추다001 助蓋x 照骨초고리001 助教x#조교004 藻那x 藻那國x 鳥囉오다001 鳥麻새삼003 鳥沒우물001 造物짓다008 鳥朴새박001 曹方居塞조방가새001.조뱅이001 助背槌x#포황001 調府x#조부007 調府令x#조부령001 調府史x#조부007 鳥鼻衝栗x 朝聘使x 助史젓001 租舍知x#조사지002 朝生暮落花子x#견우자001 朝鮮x#조선007 朝鮮相x#조선상001 朝鮮王x 鳥屎x#새똥001 助阿滄x 造位x#조위005 調位府x#조위부001 造隱x 照音釘x#삐침001.뚝001 皂衣x 皂衣頭大兄x 鳥伊麻새삼003 助人x 鳥子蓋도끼001 造作만들다001 租典x#조전005 朝廷佐平x#조정좌평001 鳥足金x#새발장식001 鳥足釧x#새발장식001 鳥足粧飾x#새발장식001 祖主x#조주003 竈中卦釜下黃土也x#복롱간001 竈中黃土x#복롱간001 釣天省x#조천성001 造秋亭x#조추정001 措必x#크다001.비001 朝霞房x#조하방001 尊부처001 卒x#졸006 從叱쫓다001 種叱갓가지001.갓갓001.가지가지001 種種叱갓가지001.갓갓001.가지가지001 從大相x 從舍知x#종사지001 鐘成在伯士x 宗正監x 佐원쪽001 坐앉다001 坐자리001 坐伽第邑하나001.하루001 佐軍x#좌군004 佐歸木자귀나무001 左理方府x 左理方府令x 左番謁者x 左輔x#좌보002.좌보003 左輔x#좌보002.좌보003 左僕射x 左司祿館x 坐山典x#좌산전001 左色二좁쌀001 佐承x#좌승003.좌승004 左丞x#좌승001 左新謀典x 左右理方府x 左右義方府x 佐尹x#좌윤003 左將x#좌장001 左將x#좌장001 佐叱젓001 佐川x#좌천동001 佐平x#좌평001 罪答x#자011 主님008.주인001 主님008.주인001 周둘레001 周두루001 周叱두루001 炷x 丟담001 主谷재갈001.굴레001 朱幾죽다001 朱那x 丟那大담001.늑다001 丟那墨大담001.낫다001 酒大사다001 州都令x 珠海省x 主刺바라002 主屢바라002 朱夢x#주몽001 周物叱온갓001 周鉢x#주발001 州佰x 州輔x#주보003 主簿x#주부008 主簿x#주부008 主簿x#주부008 綱部x#주부016 主簿道使x#주부008 主事x#주사005 主事x#주사005 主事x#주사005 主寺x 主寺僧x 酒滲사슴001 酒滲文大사슴001.울다001 主書x#주서001 朱石x#대자007 注也邑위엄나무001 走葉木위엄나무001 酒二살구001 州助x#주조003 州主x 注之花할미꽃001 州統x#주통001 酒罷二사발001 主平x 酒必格以x#새우002.게001 竹大根죽대001 竹栗膠x#대암풀001 竹葉細辛x#죽엽세신001.백미003 中가운데001 衆무리001 重무겁다001 中口x 中軍主活x 重奈麻x#중나마001 仲幢x#중당006 中幢幢主x#중당006 中大夫x#중대부001 仲棨x 中裏大兄x#중리대형001 中裏大活x 中裏小兄x#중리소형001 中裏位頭大兄x#중리위두대형001 中方x#중방001 中部x#중부004 中舍x 中事省x 中司邑x#중사읍001 仲上중상001 中侍x#중시001 重阿干x 重阿滄x#중아찬001 重亦거듭001.무겁다001 中畏大夫x#중외대부001 中尹x#중윤002 中衣本x#중의001 中典事x#중전사001 中早稗중을피001 中川王x#중천왕001 卽支잘003 卽乎곧001 曾只音刀x#조금001 曾是일찍001 曾只일찍001 證隱鶯伊경경이001 之x#이045 之것001 之是이010 只x#성013 地땅001 智x#이045 枝가지001 知x#이045 知것001 知알다001 至x#이르다002 持以지니다01 持音지니다01 知是알리다001 至亦x#이르다002 支架x#지계001 地加乙x#자완001 之介지계003 枝棘x#복숭아001 持機x#지계001 指南石x#지남석001 之乃지네001 地頭乙戶邑땃두름나무001 遲晚x#자백001.자백하다001 地伯級干x 只沙里탕자001 只沙里皮탕자001.탕자나무001 知想只알다001 知瑞書監x 知元鳳省事x 旨爲人x 地乙梨아가위001.당구자002 持音x 知音x#알림002 止以그치다001.머물다001 持節使x 知州事x#지주사001 芝止치자003 只叱기장003 之次버금001.다음001 地瘡x#균독001 芝草x#지초004 知乎x#알림002 只火乙기울001 直방008 織錦房x#직금방001 直徒典x#직도전001 直得大x#집001.덥다001 直等곧다001 直墨勒我根大x#집001.마룻대001.올리다001 織紡局x 直体고치다001 直歲x#직세002 直亦곧001.바로006 直爲바르다006 直長x#직장001 直燦大x#집001.차다017 塵티끌001 珍달007 盡良다하다001 盡다003.모두001 辰x 進선비001 進叱나아가다001 眞音잠001 珍閣省x#진각성001 眞瓜잠외001 眞瓜子잠외001 眞瓜蒂x#과체002 辰國x#진국004 震國x#진국006 眞乃지네001 眞茶x#차015 眞頭x 眞末밀가루001 眞麥밀002.소맥

002 眞麥一말002.소맥002 振武x#진무002 眞番x#진번001 進賜x#나리001 進使內x#나아가
 다001 陳省x#진성006 眞實x#진실로001 珍惡들004 眞亦참으로001 盡月背진달래001 辰音
 국어001 塵伊티끌001.가루001 眞荏子葉x#참갯잎001 眞珠蓬x#암려자001 進支진지001 塵
 티끌001 津尺나루001.지기019 眞菁實순무001 眞椒촉초001 秦韓x#진한001 辰韓x#진한
 001 鎮海將軍x 眞紅x#진홍001 叱x#의016 疾是빨리001 質姑꼴004 叱科阿里과리001 叱段
 은007.는001 叱同동001 迭刺x 叱利阿里과리001 質背x#자주009 叱分분003.만016 迭世접시
 001 叱乙根춌001 叱乙夫乙田仲춌001.춌뿌리001 迭二절001 秩秩날날이001.갓가지001 疾疾
 兮빨리001 質薦기직001 斟酌짐작001 集모으다001 執駕人x 執事집사001 執事郎x 執事史x
 執事省x#집사성001 執事侍郎x 執事員外郎x 執事中侍x 執音잡다001 次x 次차#차020 此是
 x#이011 此이008 茶차#차008 車수레001#차008 車차008#수레001 次于x 茶啖x#다담001
 次大舍x 扯罵치마001 次博士x 次弗두렵다001.두려워하다001 差使員x 此善業造x 車所也只썰
 기002 茶戌찰순가락001 且亦또한001.또한002 且熱音宮典x 次鬱x#외삼촌001 次乙皆부들
 001#향포001 車衣단오001#수리003 車衣菜x#위령선001 又釘x#비녀뚫001 次知차지001
 次次차차001 次次雄x#차차웅001 次盼두렵다001.머뭇거리다001 着必종이001 撰干찬간001
 撰干支x#찬간001 燦數本차다017.술001 攢染典x#찬염전001 讀伊기리다001#찬양하다003
 祭把論차다017.바람001 站역참001#참017 參良火停x#삼량화정001 儼爲x#참회하다002 站
 赤역참001#참017 慚盼부끄럽다001 唱x#부르다004 倉部x#창부007 倉部令x#창부007 倉部
 史x#창부007 倉部侍郎x#창부007 倉部貞外郎x#창부007 唱翳倉x 蒼耳子x#창이자001 昌子
 창자001 倉直x 彩典x#채전001 彩典監x#채전001 採花할미꽃001 冊閱보리001 柵城守吏x
 妻처002.아내001#가시012 處岼001 處곳001 處干x#처간001 尺x 尺x 尺文자문001#척문
 001 尺卜大춤다001 陟臂처002.아내001#척006 尺人x 尺釘x#척정001 千x#천003 川나루
 001 泉샘001 千隱x#천003 天南星大者x#귀구001 天動천둥001#우레001 天祿司x 川理내
 001 天麻苗x#천마003 天文博士x#천문박사001 天僕寺x 泉府卿x 天仙子x#천선자001 天原
 乙하늘타리001 天乙根x#하늘타리001 天翼철릭001 泉州節度使x 天叱月乙하늘타리001 天叱
 月伊하늘타리001 蛭出紙누에001.종이001 哲저001.젓가락001 鐵쇠001 哲谷立저고리001 哲
 根悶작다001.강001#물002 哲根把論작다001.바람001 哲根必작다001.비001 鐵粉씻가루001
 鐵鑪典x#철유전001 哲在x#저재001 哲哲x#누이001 檐簷x 僉然兮x 牒垂賜教在之x 帖字x 貼
 鐵x 淸x#맑다001 靑x 靑丘x#청구001 靑衿幢x 靑黛x#청대009 靑黛實x#청대009 靑淵宮典x
 靑玉菜x#시호004 靑位x#청위001 靑乙召只x#쪽006 淸淨兮x#청정하다003 靑州誓x 靑台x#
 청대009 靑苔x#청대009 諦是자세히001 替里受勢x#뜯다001 初x#비롯하다001 初叱x#비로
 소001 初叱音x#처음001 初叱乎x#비로소001 吵喃x 初如x#처음001 初亦x#처음001 草牛黃
 x 椒菜x#시호004 草八國x 椒皮x#조피001 寸x#촌003 寸x#향003 村x#촌004 村徒典x 寸釘
 x 村主x#촌주001 總兮x#총괄하다001 寵谷埋x#송골매001 摠官x#총관001 冢宰x#총재001
 摠翰林x 最只x#안직002.가장001 最初兮x#처음001 推x#밀다001 推遣x#미루다001 推旂x#
 미루다001 推x#셋001 追x#쫓다007.쫓다001 追乎x#쫓다007.쫓다001 追良x#쫓다007.쫓다
 001 鄒x 追考x#추고002 鄒牟x 追愛x 追亏x 秋子木x#가래나무001 酋長x#추장001 酋長x#
 추장001 秋察尸x#가을001 逐x#쫓다007.쫓다001 築冶房x 春x#봄001 春夏秋冬x 出x#나다
 001 出x#나다001 出是x#내다001 衝幢主x 充滿兮x#충만하다001 取x#얻다003 吹x#불다
 001 趣可x#나아가다001 聚笠우산001 就音x#쫓다007.쫓다001 聚蠶房x 側根施x 側柏實x#
 측백001 治x#다스리다005 置x#두010 置x#두다002 耻x#지다003 雉骨木x 置等羅只x#두드
 러기001 置簿x#치부006 雉賽x 稚省x#치성003 齒所叱史如x 熾然兮x#치열하다002 雉矣毛
 老邑x#끼무릇001 置伊有根x#띠008 置伊存x#띠008 雉鳥老草x#승마001.끼절가리001 齒叱
 今임금001 則卜論答x 親亦x#친히001 柒谷x 七史(伊)x#사이002 柒矣於耳x 漆典x 七重奈麻
 x#칠중나마001 柒浦x 針房x#침방001 寢矣x#자리012 称x 快兮x#쾌히001 他x 他x#남001
 他x#남001 他x#남001 佗x#남001 墮x#지다003 朶x#돼지001 朶答x#돼지띠001 他道x 朶
 得屢x#돌다리001 陀羅尼x#다라니002 朶落你格刺x#돌아가다009 打里x#다리다001 馳馬x
 打馬鬼x#까마귀001 打馬此마치다003 打色x#다섯001 打戍x#다섯001 打色墨立左雜x#다섯
 001.머리001 朶二둘001 朶以x#돌다001.줄다001 打典x 朶恨墨怎x#몰다001.줄다001.마음
 001 朶恨撒論x#몰다001.줄다001.사람001 啄x#닭001 喙x#닭001 啄評x 托羅x#탁라001 吞
 x#골004 吞마을001 吞阿奈x#마을001.안001 寃叱x#앗다001 耽羅x#탐라001 耽牟x#탐모라

001 耽牟羅x#탐모라001 耽羅國x#탐라국001 耽牟羅國x#탐모라001 塔菜x#경천001 湯水x#
 탕008 太x#공001 迨加乙x#탕알001 太角干x#대각간001 太監x#태감001 太奈麻x#대나마
 001 太太角干x#태대각간001 太太對盧x#태대대로001 太太莫離支x#태대막리지001 太太舒
 發翰x#태대서발한001 太太兄x#태대형001 太等x 太莫離支x#대막리지001 泰封x#태봉004
 太師x#태사003 太舍x#대사010 太相x#대상001 太常卿x#태상경001 太守x#태수001 太守
 x#태수001 太阿干支x 太子侍書學士x 太學博士x#태학박사001 宅x#집001 槪子x#탕자001
 吐x#독001 兔郡x 土倦x#두건001 兔賢x#투구001 吐吉x#토끼001 吐答x#토끼띠001 土卵
 x#토란001 吐乙麻x#돌011.삼003 吐伊遏x#탕알001 吐梓x#토줄001 通叱x#사웃001 通文博
 士x#통문박사 堆昆x 腿馬末x 退是x#물리다007.물리다011 退伊相考x#물리다007.상고007
 特進x#특진002 把x#밥001 把x#밭001 擺x#배001 擺x#배007 擺x#배008 敗x#배008 波
 x#바003 把敢大x#밭001.갈다008 破故紙x#보골지001 波串x#바꽃001 把那哈大x#밭001.나
 누다001 播你x 波珍x#바다001 把刺x#강001 把刺格自x#강변001 把刺那大x#바다001 把刺
 墨噴得x#강001.가운데001 把論x#바람001 孛纁x#바람001 風x#바람001 風未x#바람001 播
 妹x#봄001 播妹阿迫x#봄001.앞001 播妹堆迫x#봄001.뒤001 破彌干x#파미간001 巴賣x#비
 비다001 婆兒x 把耶勒大x#밭001 巴衣x#바위001 把二x 波日x 播張x 巴只x 把指x 波珍干x
 波珍干支x 波珍淪x#파진찬001 擺咱x#배001.차다001 擺咱安理x#배001.차다001.아니001
 把朵舌大x#밭001.다투다001 板果吉x#잉어001 判官x#판관002 板捺x#바늘001 板麻너삼
 001 孛x#불001 孛x#불001 湏江鎮典x#패강진전001 孛南木x#불나무001 沛者x#패자001
 孛采x#부채001 鞭x#채찍001 徧个之爲x 便是곧001 便乎곧001 便亦x#편히001 平均亦x#곧
 고루001 平東將軍x 平立宮典x#평립궁전001 評事x#평사005 評者x#평자003 平章事x#평장
 사001 抨定戶孫x 平珍音典x#평진음전001 抱x#안다001 袍x#도포003 袍黻色x 包來x#보리
 001 包尔刀叱x 包衣末x#보릿가루001 布伊作只질경이001 靴人房x 庖典x 蒲槌上黃粉x#포황
 001 曝典x 杓x#소004 杓答x#소띠001 豹尾草x#위령선001 杓并x 杓額x 漂典x#표전004 稟
 主x#품주001 風鐵x 風破回金x 彼x#저005 彼x#저007 彼刀x 彼刀干x#피도간001 皮盧x#버
 루001 必路x#버루001 皮盧x#뚝001 筆x#뚝001 皮離受勢x#빌려주다001 苾x#빋001 彼日
 x#피일001 彼藏x 必叱반드시001 皮典x 必膽x 彼珍干支x 必刺x#피리001 皮打典x 必色大x#
 비싸다001 必x#전복003 必額大x#비001.없다001 必x#비001 必于x#비룩001 必x 必以思大
 x#비001.있다001 必底大x#싸다012 必只반드시001 罷陀里x#비둘기001 下x 何叱亦x#어찌
 001 何如x#어찌001 何亦兮x#어찌001 何叱무엇001 何叱亦沙x#어찌001 何叱爲x#어떠하다
 001 何乎무엇001 下干支x 下句驪x#하구려001 夏菊x#하국001 河屯x#하나001 下舍人x 河
 西停x#하서정001 河西州弓尺x 河西州誓x 下手x#하수002 下位引道x 下典x 下州停x#하주정
 001 下州行使x 下處x#하처001 鶴x#학005 學士x#학사004 漢x#히다001 韓x#크다001 韓
 x#한006 韓國x 漢捺x#하늘001 哈嫩二x#하늘001 韓奈麻x#한나마001 旱蓮草x#한련초001
 漢丫彌x#할미001 翰林x#한림003 翰林郎x 翰林沙干x 翰林院x#한림원001 翰林學士x#한림
 학사001 漢菩薩x#히다001.쌀001 韓舍x#한사007 漢山停x#한산정001 漢山州屬幢x#한산주
 계당001 漢山州弓尺x#한산주궁척001 漢山州都督x 漢山州誓x#한산주서001 漢山州少監x 汧
 三x#한삼002 韓相x 漢賽x#히다001.새001 漢城都督x 漢城州行軍總管x 漢歲x#히다001.쇠
 001 罕孫x#한승003 扞率x#한솔001 閑時洞x 漢丫祕x#할아비001 汧音x#땀001 漢吟x 漢祗
 首蓓典x 韓榮x#한찬003 罕害x#한001.해002 割x#갈001 割子蓋가위001 轄載x#내일001 轄
 載x#내일001 轄載烏受勢오다001 轄打x#타다006 轄希x#흙001 黑二x#흙001 舍梁x 咸安郡
 統x 合x#합001 合x#합하다001 合子x 哈那x#하나001 哈嫩格悶格大x#하늘001 哈嫩格以x#
 천아001 哈嫩格自x#하늘001.가001 哈嫩那大x#하늘001.높다001 哈嫩阿賴x#하늘001.아래
 001 哈嫩五會x#하늘001.위001 哈嫩展根格大x#하늘001.저물다001 哈嫩把戛大x#하늘001.
 밝다001 哈嫩黑大x#하늘001.맑다001 哈嫩黑立大x#하늘001.흐리다001 哈底x#사조020 哈
 底x#하직001 巷x#구령001 項x 恒是x#항상001 害x#해002 海x 蟹x#게001 解x#혀001 醢
 젓001 海干x#해간001 害故論x#히다001.구름001 海官x 害吉大x#해002.길다001 害那格大
 x#해002.나다001 海獺x#해달001 海頭王x 害得大x#해002.덥다001 害墨二x#히다001.말
 015 海淪x#해찬001 解自x#겨울001 解自臥那大x#겨울001.오다001 害底格大x#해002.지다
 002 害迭勒大x#해002.짙다001 海菜x#해채002 海菜白根x#해채002 海尺x#해척001 害必x#
 햇빛001 害必翠耶大x#햇빛001.나다001 行x#행하다001 行x#행하다001 行x#가다001 行軍

典x#행군전001 行軍摠管x 行觴x 荇人國x 向x#향하다001 香附子x#향부자001 向屋x#인도
 하다003 向爲x#향하다001 向入x#생각하다001 鄉村主x 虛物叱x#허공002 獻x#바치다001
 險側x 赫居x#발다001 玄x 現乎x#나타내다001 玄菟x 玄菟郡x 縣令x#현령001 玄龍亭x#현
 룡정001 玄石x#현석001 血叱同x#피똥001 狹x#좁다001 愜兮x#괘히001 俠州君x 荊芥x#형
 개001 刑部x#형부002 亨整撤論x#상인007 捰(叱只)x#혜성001 惠伊x#두루001 惠重x 好x#
 줄다001 好x#하다001 弧x#활001 華二x#활001 活x#활001 戶x#지계003 好乎x#즐기다
 002 虎驚草x#독활001 胡根x#작다001 胡臨울다001 狐矣尿x#여우오줌001 虎矣扇x#범부채
 001 虎矣扇根x#범부채001 戶長x#호장002 胡住x#웃다001 或刀x#또001 忽x#성013 忽然
 弥x#흘연히001 弘儒候x#홍유후001 紅典x#홍전001 紅蛤x#홍합001 弘峴宮典x#홍현궁전
 001 紅花x#홍화003 火벌001 花x#꽃001 火炬x 花郎x#화랑002 和白x#화백002 火甚신001
 火乙叱羅毛x#불나무001 火乙叱羅毛葉x#불나무001 火乙叱羅毛津x#안식향001 火以乃伊x#
 연설하다002 靴典x 火條x#부자001 禾主x#화주009 花主x#화주010 火尺x#화척003 禾尺x#
 무자리002 禾菁x#순무001 火桶x#화통005 花判x 花厦國x 花夏國x 花好x 確金x#확쇠001
 還x#돌아오다001 還乎x#도로001 桓儉x 活吉大x#개천001.깊다001 活呆憂大x#개천001.얼
 다001 活索x#활001.쏘다001 活黃x#호롱001 況彌x#하물며001 黃菊花x#선복화 黃衿幢x 黃
 衿暫幢步騎監x 黃丹x#황단003 黃龍x#황룡001 黃龍國x#황룡국001 況弥x#하물며001 黃明
 膠x 黃密x#황랍001 黃蘗x#황벽002 黃桑木x 黃位x 黃蜀花x 黃漆x#황칠002 黃太x 黃灰木
 x#노린재나무001 迴x#돌다001 會宮典x#회궁전001 迴之木x#회화나무001 茴香x#회향003
 曉x#환하다001 曉x#새벽001 交周x#호주002 後是x#뒤001 後高麗x#후고구려001 後百濟
 x#후백제001 厚菜x#부추001 訓刀x 訓讞x 休쇠001 黑x#검003 黑x 黑鎧監x#흑개감001 黑
 鷄x# 黑根x 黑衿幢x 黑嫩x#일백002 黑嫩害x#일백002.해002 黑立x#허리001 黑立谷迫x#국
 궁002 黑立大x#흐리다006 黑小豆x#먹팥001 黑水國x 黑嶽令x 黑眼雀稻x#고새눈거미001
 黑衣長槍末步幢主x 黑荏子x#흑임자001 黑太검은콩001 黑堆x#중아리001.허튀001 黑皮木x#
 가문비나무001 欣門x#힘줄001 疊何支x#흔하다001 吃x 訖音x#끝내다001 訖鏞x#두꺼비
 001 訖載x#어제001 欽叱x#흠모하다001 興文監卿x 喜x#기뻐하다001 喜好x#기뻐하다001
 娵妹x#언니001 (총 4,354개)

[부록 4] DB화 단행본, 학위 논문, 논총 목록

1. 단행본 66편

- KazuhikoHoshi(1995), "건축·인테리어 용어 유래사전", 국제
김상규(2007). '우리말에 빠지다'. 젠북.
김소내(2019). '우리말의 고향(증보판)'. 한누리미디어.
김승곤(1984). '한국어의 기원'. 건국대학교 출판부.
김양진(2011). '식물이름 수수께끼'. 루덴스.
김양진(2011). '우리말 수첩'. 정보와사람.
김의박(2014). "옛말산책", 비봉출판사.
김태경(2016), "상고중국어 음운체계와 한국어 어휘의 어원", 학고방.
김태곤(2008), "국어 어휘의 통시적 연구", 박이정.
김형철(2010), "국어 어휘 연구", 경남대학교 출판부.
대원정사 편집부(1987), <불교에서 나온 말>, 서울: 대원정사.
도수희(2005), "백제어 어휘 연구", 제이앤씨.
도수희(2005), "백제어 연구", 제이앤씨.
도수희(2008), "삼한어 연구", 제이앤씨.
럼종률(2001), 조선말 단어의 유래, 금성청년종합출판사
리득춘(1996), 조선어 어휘사, 박이정
마성식(1991), <국어 어의변화 유형론>, 대전: 한남대학교 출판부.
박갑천(1974), <어원수필>, 을유문화사.
박갑천(1998), <(재미있는)어원 이야기>, 을유문화사.
박기환(2009), <성경속의 우리말 어원을 찾아서>, 서울: 해피&북스.
박병식(2007), <(어원으로 밝히는) 우리 상고사 . 상>, 용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박수밀(2014), <(박수밀의 알기 쉬운) 한자 인문학: 우리말 한자에 담긴 역사와 문화>, 다
락원.
박숙희·유동숙 편저(1995), <우리말의 나이를 아십니까>, 서울: 서운관.
박영수(1995), <만물유래사전>, 서울: 프레스빌.
박일환(1994), <우리말 유래 사전>, 서울: 우리교육.
박홍길(1998), <어휘 변화의 원인별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손평효(2012). '공간말 '앞'과 '뒤'의 연구'. 박이정.
송근원(2016), "코리아는 호랑이의 나라", 퍼플.
송정석(2009), "살아 움직이는 어원이야기 (상)", 정인출판사.
송정석(2009), "살아 움직이는 어원이야기 (하)", 정인출판사.
안연석(2022), "역사·고전문학·우리말 어원에 관한 구불술의 작은 울림", 디자인21.
안예리·이정란·이준환·정한데로(2020). 『신식부인치가법』의 번역과 어휘'. 한국학중앙연구
원출판부.
楊彦(2017). '중세 언해 문헌의 전이어에 대한 연구: 써[以], 다봣/더브러/브려[與], 허여곰
[使], 쏘/밋[及]을 중심으로'. 역락.
유창돈(1975) "어휘사연구", 삼우사
이광호(2013), "농서 자료에 나타난 어휘장의 분류 및 표기법 연구", 역락.

이광호(2016), "국어 어휘의 역사", 지식인.

이기문(1991), '國語 語源論의 課題', "국어어휘사연구", 동아출판사.

이남덕(1985), "한국어 어원 연구 2",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이남덕(1985), <韓國語 語源 研究. 1 : 原始韓國語의 探求>,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남덕(1985), '한국어 어원연구 III', 이화여대 출판부.

이남덕(1986), "한국어 어원 연구 IV",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덕해(2010), "불교어원산책I", 집옥재.

이동석(2013), "우리말 어휘의 역사 연구 1", 역락.

이동석(2015), "시어의 어원 연구", 한국문화사.

이병근(2004), "어휘사", 태학사.

이어령(2023), "뜻으로 읽는 한국어 사전- 신화 속의 한국 정신", 21세기 북스.

이우철(2005), "한국 식물명의 유래", 일조각.

이익섭(2010), '우리말산책'. 신구문화사.

이재운·박숙희·유동숙(2008). '(뜻도 모르고 자주 쓰는) 우리말 어원 500가지'. 위즈덤하우스.

이주희(2011). '내 이름은 왜? : 우리 동식물 이름에 담긴 뜻과 어휘 변천사'. 자연과생태.

장진호(2012), "(국어 선생님이 몰랐던) 우리말 이야기: 알고 쓰면 좋은 우리말 420가지", 글누림.

전재호(1987), "국어어휘사연구", 경북대 출판부.

조항범(2001), "선인들이 전해준 어원 이야기", 태학사.

최경옥(2003), "韓國開化期近代外來漢字語의 受容研究", 제이앤씨.

최기호(2009), "최기호 교수와 어원을 찾아 떠나는 세계 문화여행: 아시아편", 박문사.

최남희(2005), "고구려어 연구", 박이정.

최창렬(1991), <우리말 어원연구>, 서울: 일지사.

최창렬(2002), <어원의 오솔길>, 고양: 한국학술정보.

최창렬(2005), <아름다운 민속어원>, 파주: 한국학술정보.

최창렬(2006), <어원산책>, 파주: 한국학술정보.

최태호(2022), <우리말 어원과 변천>, 대전: 문경출판사.

한태호 외(2006). '원예식물 이름의 어원과 학명 유래집'. 전남대학교 출판부.

허복구, 박석근(2002). '재미있는 우리 꽃 이름의 유래를 찾아서'. 중앙생활사.

허복구, 박석근, 이일병(2004). '재미있는 우리나라 이름의 유래를 찾아서 : 유래로 즐기고 사진으로 감상하는 우리나라 이름 백과사전!'. 중앙생활사.

허세립, 천소영(2014). '한·중 언어문화론: 어원에 담긴 한·중 민족의 삶과 뿌리'. 대원사.

홍사만(2003), '국어 어휘의미의 사적 변천: 유의어의 의미 기술', 한국문화사.

2. 학위논문 24권

가와사키 케이코(2010), '중세한국어 '나다'류 어휘의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유리(2004). '『구급간이방언해』와 『동의보감 탕액편』의 약재명에 대한 비교'.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진(2007). '개화기 국어 교과서의 어휘·표기법 연구: 『녀자독본』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아(2016). '신어에서 축소어의 양상 변화 : 2005년~2014년 국립국어원 조사 목록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2011). '《상례연해》의 어휘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진(1988). "훈몽자회의 어휘적 연구: 字訓의 共時的 記述과 國語史的 變遷을 中心으로", 숙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大川大輔(2003). "'채소'관련 어휘의 통시적 고찰',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지연(2006). "韓國 近代化期 '日製漢語'의 수용과 변용: 韓國 近代化期 辭典에 받아들여진 漢語를 對象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희식(1984). '중세국어의 부사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도용(2001). '우리말 신체어의 의미 확장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승창(2009). '『物名考』類 에 대한 國語學的 研究: 어휘 분류와 조어법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혜진(2017). "『現代新語釋義』(1922) 신어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승현(2022). '한국어 외래어 사용 양상 연구: 구어 자료를 기반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지혜(2009). "온도감각어의 통시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은경(2005). "국어 공간어의 의미 변화 연구: 위치 어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혜선(2013). '현대 국어 신어의 유형 분류'.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2002). '국어 어간복합어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종현(2006). "'여가(餘暇)'의 어원 탐색 및 개념 분석에 관한 연구: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행(1988). "韓國語 依存名詞의 通時的 研究: 統辭.意味論的인 考察을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효운(2019). "한국어 부사의 변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지혜(2020). "한국어 미각어의 통시적 변화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영돈(1992). "國語 親戚語에 대한 研究: 어원 및 형태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정아(2001). "조선시대 농서에 나타난 어휘 연구: 어휘 변화와 형태적 특성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정아(2016). "언간 자료에 나타나는 생활 물명의 어휘사적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3. 논총 35편(논문 62편)

- 강헌규(1986). "절(寺)의 어원", <한국언어문학논총, 국어학논문집 : 凡山 강헌규교수 화갑기념>, 364-373면.
- 곽재용(1994). '몇몇 신체어의 통시적 고찰', "우리말의연구(외골권재선박사화갑기념논문집)", 우골담.
- 곽충구(1995). "意味分化에 따른 單語의 形態分化和 音韻變化, 國語史와借字表記." 『李基

- 文敎授停年退任紀念論叢』(서울: 신구문화사). 45-71면.
- 구본관(2006). "부역의 어휘사." <國語學論叢 : 李秉根先生退任紀念>. 파주: 태학사. 937-958면.
- 권재선(1975), '麗代 친족 및 남녀 호칭어에 대한 고찰', "高麗時代의 言語와 文學: 한국어 문학대계 2", 영설출판사.
- 권재선(1997), '백제의 시조 이름과 나라 이름의 어원 연구', "국어학 연구의 새 지평(성재 이돈주선생 화갑기념)", 태학사.
- 김양진(1999). 『용비어천가』의 훈민정음 주음 어휘 연구, "역학서와 국어사 연구", 443~486. 태학사.
- 김영진(1983), '판수' 攷, "민속어문논총", 계명대학교 출판부, 367-381.
- 김종택(1986), '머리·허리·다리'의 어원 추정, "국어학신연구: 약천김민수교수화갑기념", 탑출판사, 855-863.
- 김종택(1994), '몇몇 우리말의 어원 풀이', "우리말의연구(외골권재선박사화갑기념논문집)", 우골탑.
- 김홍석(2000), '어명의 명명법에 대한 어휘론적 고찰', "국문학논집" 제17집,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71-111.
- 남풍현(1968), '중국어 차용에 있어서의 직접차용과 간접차용의 문제에 대하여: 초간 「朴通事」를 중심으로 하여', "이승녕박사송수기념논총", 을유문화사, 213-223.
- 노명희(1998), '자연계어휘의 변천사', "국어 어휘의 기반과 역사", 태학사
- 도수희(1980), '百濟語의 '餘村·沙平'에 대하여', "난정 남광우박사 화갑기념논총", 일조각, 439-451.
- 문금현(1998), '신체 어휘의 변천사', "국어 어휘의 기반과 역사", 태학사
- 민현식(1998), '시간어의 어휘사', "국어 어휘의 기반과 역사", 태학사
- 박상규(1991), "무당 및 무속어계에 대한 의미와 부분적인 어원 탐색의 단견", <국어의이해와인식>, 한국문화사, 913-932.
- 서재극(1968). '계집의 어원고찰'. 杏丁 李商憲先生回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 성인출(1994), '일칭명사의 어원과 음운변화에 대한 고찰', "우리말의연구(외골권재선박사화갑기념논문집)", 우골탑.
- 성인출(1997), '색채어의 어원과 음운론적 고찰', "한민족어문학" 제31권, 한민족어문학회, 35-53.
- 신중진(2005), "'기르다/양육하다/치다/키우다'의 다의성에 대한 통시적 고찰", "우리말 연구 서른 아홉마당", 833-862.
- 심재기(1971), '한자어의 전래와 그 기원적 계보', "김형규박사 송수기념논총, 일조각.
- 심재기(1991), '근대국어의 어휘 체계에 대하여', "김완진 선생 회갑 기념 논총", 민음사.
- 양주동(1936), '語源考證數題', "양주동전집 10: 논문", 동국대학교 출판부, 157-168.
- 유창돈(1957), '平北語 散考', "일석이희승 선생 송수 기념 논총", 일조각
- 이규태(1989), "'설'의 말뿌리", "이규태코너 제9권: 싸움의 韓國學", 기린원, 26-27.
- 이규태(1996), '태풍 어원고', "이규태코너 제19권: 노래의 한국학", 기린원, 296-297.
- 이기문(1971), '語原 數題', "金亨奎博士頌壽紀念論叢", 일조각, 431-439.
- 이기문(1991) '아즈비'와 '아즈미', "국어어휘사연구", 동아출판사.
- 이기문(1991), '祿大와 加撻'에 대하여, "국어어휘사연구", 동아출판사.

- 이기문(1991), “韓國語 속의 滿洲 通古스 諸語 借用語에 대하여”, “국어어휘사연구”, 동아출판사.
- 이기문(1991), ‘語源 研究의 方法’, “국어어휘사연구”, 동아출판사.
- 이기문(1991), ‘中世國語의 蒙古語 借用語’, “국어어휘사연구”, 동아출판사.
- 이기문(1991), ‘國語 語彙史의 構想’, “국어어휘사연구”, 동아출판사.
- 이기문(1991), ‘蒙古語 借用에 대한 研究’, “국어어휘사연구”, 동아출판사.
- 이기문(1991), ‘語源數題’, “국어어휘사연구”, 동아출판사.
- 이기문(1991), ‘語彙 借用에 대한 一考察’, “국어어휘사연구”, 동아출판사.
- 이기문(1991), ‘鷹鵠名의 起源의 考察’, “국어어휘사연구”, 동아출판사.
- 이기문(1991), ‘韓國語와 中國語의 接觸에 대하여’, “국어어휘사연구”, 동아출판사.
- 이병선(1976), ‘부여국명고’, “김형규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선영(1998), ‘음식명의 어휘사’, “국어 어휘의 기반과 역사”, 태학사
- 이승녕(1961), ‘「ᄒᆞᆫᄇᄃᆞᆫ」攷: 特히 語辭의 雙形·三中形의 並行的 發達例로서의 考察’, “韓國文化叢書” 제15집, 을유문화사, 263-379.
- 이승녕(1969), ‘語尾 「-과디여」類注釋考’, “김재원박사 회갑기념논총”, 을유문화사, 703-717.
- 이승녕(2011) ‘시간 어휘에 대하여’, “심악이승녕전집 9”, 한국학술정보
- 이승녕(2011), ‘ᄒᆞᆫᄃᆞᆫ 고’, “심악이승녕 전집 9”, 한국 학술정보
- 이승녕(2011), ‘국어에 반영된 중국문화의 어휘론적 고찰’, “심악이승녕 전집 9”, 한국 학술정보
- 이승녕(2011), ‘국어의 의미 변화 시고’, “심악이승녕 전집 9”, 한국 학술정보
- 이승녕(2011), ‘어휘사’, “심악이승녕 전집 9”, 한국 학술정보
- 이승욱(2005), ‘선어말어미 ‘-습-’의 의미 변화에 대한 통시적 고찰’, “우리말 연구 서른아홉 마당”, 태학사
- 이승재(1998) ‘高麗 中期 口訣資料의 敬語法 體系’, “국어 어휘의 기반과 역사”, 태학사
- 이현희(1993), ‘중세국어 ‘둔갑-’의 형태론’, 形態(국어학강좌 3), 태학사.
- 정광(1995), ‘국어에 나타난 일본어의 언어적 간섭’, “새국어생활” 5(2), 국립국어연구원.
- 조강봉(1997), ‘학성의 어원’, “국어학 연구의 새 지평(성재 이돈주선생 화갑기념)”, 태학사.
- 조동탁(1939), ‘어원 소고’, <조선어학보>, 361-365면.
- 조항범(1998), ‘동물 명칭의 어휘사’, “국어 어휘의 기반과 역사”, 태학사
- 최영애(2004), ‘중국 고대 음운학에서 본 한국어 어원 문제’, “중국어학의 주제탐구”, 한국문화사.
- 최창렬(1976), ‘국어 투명어의 유형고’, “김형규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서울대학교출판부.
- 최창렬(1989), ‘액막이 연의 어원적 의미’, “송하 이종출박사 화갑기념논문집”, 송하이종출박사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 최창렬(1992), ‘족두리와 남바위의 어원적 의미’, <국어학연구백년사[II]>, 서울: 일조각, 441-452면.
- 황금연(1997), ‘현대 한자 어휘의 기원에 대한 고찰: 차자 표기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국어학 연구의 새 지평(성재 이돈주선생 화갑기념)”, 태학사.
- 히라이 세이미(2005), ‘계시다’에 대한 일고찰’, “우리말 연구 서른 아홉 마당”, 태학사.

[부록 5] 어원 관련 논저 DB 작업 지침

1. 표제어

- 1) 저자가 논문과 단행본, 기사문의 주요 어휘로 표시하거나 처리한 표현형을 표제어 자리에 넣는다. 제목, 초록, 키워드, 서론, 결론에 등장하거나, 표로 처리하거나 목록화해 둔 것을 말한다.
- 2) 동일 저자의 글이 복수인 경우 최신 자료에서 언급한 어휘를 표제어로 한다.
- 3) 원문에 제시된 형태를 그대로 적는다. 비표준어형, 방언형, 차자 표기를 포함한 고어형, 숫자 및 알파벳, 기호 표기 등도 포함한다. 단, 단순 한자 병기는 제외한다.
- 4) '/'로 연결되거나 괄호로 제시된 표제어는 별개의 행으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 5) 표제어에는 동형어 구분 번호를 넣지 않는다.

<예시①> 제목에 어휘가 등장하는 경우

‘뒤안길’, ‘오솔길’, ‘외딴길’의 어원

조 항 범*

<예시②> 장·절 제목에 어휘가 등장하는 경우

3. 수반(물밥, 무래밥, 무림), 속수, 내전, 거리밥

아래의 내용은 『표준』의 수반, 물만밥, 물말이, 물밥, 무림에 대한 기술 내용이다. 이를 보면 수반, 물만밥, 물말이는 일반명사, 물밥과 무림은 민속어휘 명사이다.

IV. 민속어휘와 의미

1. 화주, 유사, 판주

마을곳을 지내는 모든 마을은 제물을 준비하여 모시게 된다. 제사에 필요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화주, 헌관, 축관, 집사 등이다. 이들을 역할별로 나누며, 제수를 준비하는 화주, 절을 하는 헌관, 독축을 하는 축관, 집례를 하는 집사 등이 있으며, 뒷심부름을 맡을 사람을 뽑기도 한다.¹⁰⁾

14) 수반(水飯) 「명사」=물만밥.

15) 물만밥 「명사」물에 말아서 풀어 놓은 밥. ㄴ 물말이 「1」·수반08(水飯)·수요반·수화반.

16) 물말이 「명사」 「1」=물만밥. 「2」 물에 흠뻑 젖은 옷이나 물건 따위를 이르는 말.

17) 물밥 「명사」 「민속」

무당이나 판수가 굿을 하거나 물릴 때에, 귀신에게 준다고 물에 말아 던지는 밥. ㄴ 무림02.

18) 무림 「명사」 「민속」=물밥.

전남지역의 민속어휘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A Korean Linguistic Study on the 'Traditional Lexicon
in Jeonnam Province

황 금 연**
Hwang, Geum-Yeon

목 차

I. 머리말	IV. 민속어휘와 의미
II. 마을곳 관련 어휘	V. 마무리
III. 신격 어휘의 구조	

- ✓ 단, 위의 ‘마을곳 관련 어휘’, ‘신격 어휘의 구조’의 ‘마을곳, 신격’처럼 상위어(어휘장 명칭)는 표제어로 처리하지 않는다.

<예시③> 본문 내용에 어휘가 <표>로 정리되어 등장하는 경우

[표 4] 천문과 지리 관련 부류 어휘 예

분류항목	세부 분류	어휘 예
天文	우주, 별	昆侖天形, 赫顯光明, 玉衡北斗
	시령, 시간	辰月正月 又曰 孟陽端上春, 天中節端午, 昏時晝夜, 冥陽晝夜, 頭更初更
	자연현상(바람, 구름, 비 등)	深然雨油雨, 關風風不已, 恒月則風常風에 바람이 치다
地理	땅, 길	地離야 즉죽하다, 地離야 뜨르다, 離離야 무럭무럭하다, 離離地두렁두렁한 사, 離離에올길
	흙, 돌	枯泥진흙, 代赫石요흔 유토 又曰 血離, 石離돌들, 虎皮石어룡돌
	물	離離시워나다, 離離습은 여흔, 水面青綿물의 잇기, 銑水의 비긴들, 札猛子스스익하다, 跳過離離정걸드리, 打橋드리 놓타, 折橋드리 허다, 浮水고인들 又曰 死水

<예시③-ㄱ> 표로 정리되었지만 관련어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 ✓ 본문에 표로 제시된 어휘라 하더라도, 논문 저자가 관련어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관련어>로 입력한다. 빨간 네모는 표제어로 처리하고, 파란 네모의 <비고>는 관련어로 처리한다.

<표 2> 『학봉종가 한글편지』의 질병 명과 고유어 비교

	『학봉종가 한글편지』의 질병 명		[비고] 고유어 질병 명
	한자어	고유어	
마마/천연두	두덜(痘疾), 역질(疫疾), 시두(時痘)		*손님 ⁸⁾
학질/말라리아	학증(瘧症), 양일학(兩日瘧) ⁹⁾	초점(방언형-5회)	고곰
감기	감기(感氣), 감환(感患)		긱불
복통	복통(腹痛)	빅아리(1회)	빅알히, 빅아리
해소/기침 가래	히소(咳嗽), 히소증, 히천(咳嗽) 담증(痰症), 격담(膈痰)		기춤 그래춤
종기/부스럼	종기(腫氣), 종환(腫患) 웅질(癰疾), 창질(瘡疾)	쥐브름(1회)	브으름/브스름
기타	흉통(胸痛) 한속증(寒栗症)		가슴알히 소오름>소름

<예시④> 본문 내용에 어휘가 목록으로 정리되어 등장하는 경우

6) 당산, 당산신

7) 소나무당산, 미륵할머니, 할아버지장승 / 할머니장승

8) 할아버지당산 / 할머니당산 / 아들당산 / 딸당산

// 아들미륵 딸미륵(또는 손자미륵)

9) 당산할아버지(또는 당산하네) / 당산할머니 / 당산할매

10) 천룡할아버지(또는천룡하나씨) / 천룡할아버지(천룡하나씨), 천룡신

11) 선독할머니 / 비석할매 / 할머니독(또는 할매독)

12) 샘할머니

13) 웃당산(웃당산, 상당산) / 아랫당산(하당산), 윗뜸철룻 / 아랫뜸철룻

- ✓ 빨간 네모 안의 어휘를 모두 표제어로 처리한다. 이때 각 표제항에서는 서로를 관련어로 넣는다.

예 <표제어> 소나무당산 <관련어> 미륵할머니, 할아버지장승, 할머니장승
<표제어> 할아버지장승 <비고> ‘할머니장승’과 분리.

2. 원어

- 1) 해당 표제어에 해당하는 원어 정보를 넣는다.
- 2) 판단이 어려울 경우 <우리말샘>의 원어 정보를 따른다.

3. 검색형

- 1) 표제어에 한글 외의 표기(알파벳, 숫자)가 있을 때 한글로, 비표준어형, 방언형, 고어형은 표준어형으로, 기타 기호는 모두 삭제한다.
 - * 사어가 된(대응되는 현대 표기형을 찾을 수 없는) 고어형과 독법이 통일되지 않은 차자 표기 등은 검색형에 그대로 복사해서 넣는다.

표제어	검색형
뻘-	뻘-000(2007)
슬쭈지	슬쭈지-000(2007)

- 2) 검색형은 빈칸이 없도록 채운다. 표기 수정 사항이 없다면 표제어형을 복사해서 넣는다.
- 3) 띄어 쓰지 않는다.
- 4) 비표준어의 경우 표준어 또는 규범 표기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가장 널리 쓰이는 형태를 제시한다.
- 5) 동형어에는 동형어 구분 번호를 넣는다.
 - * 작업의 통일성을 위해 동형어 구분 번호는 <우리말샘>의 다의 번호를 넣는다.
 - * <우리말샘>의 다의 번호에 따라 세 자릿수로 표기한다. 예 001, 002, ..., 011
단, 표제어가 다의어인 경우 가장 앞선 다의 번호를 입력한다.
 - * <우리말샘> 미등재어에는 ‘저자명(발표 연도)’을 넣는다. 한 저자의 사전에 동형의 미등재어가 여럿일 경우 번호를 넣어 구분한다.

4. 내용

- 1) 연구 논저의 설명을 짧게 요약하여 제시한다.
저자의 주장을 기술한다. 단순 인용은 언급하지 않는다.
- 2) 필자 정보 등 불필요한 정보는 넣지 않는다.

- 3) 어원 정보로 보기 어려운 내용은 기술하지 않는다.

막다른 골	막다른 골-주경미 (2008)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한 경우.			주경미(2008), "20세기 초기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	-----------------------	--	--	--

- 4) 저자의 주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뒤에 설명을 달 수 있다.

5. 관련어

1) 저자가 관련어로 명시한 표현을 적는다. 작업자가 관련성을 판단할 필요 없다.

✓ 단, 해당 논의에서 다루는 문헌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어로 볼 수 없다.

‘딸기’의 표제어도 문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역어유해』에는 ‘地樞’로, 『방언유석』에는 ‘覆盆子’, 동어유해보에는 ‘草荔枝’로 나온다. 물명어휘집인 『죽관물명고』에는 ‘草荔枝’에 해당하는 것이 ‘사울기’로 뜻풀이하였으며 ‘覆盆子’는 ‘거문명덕 색을’로 뜻풀이 하였다. 『과정일록』에서는 ‘딸기’에 해당하는 표제어가 ‘地樞’로 『역어유해』와 동일하다. 동일한 표제어에 상이한 주석이 달린 것으로 보아 품종이 달라도 모두 ‘딸기’로 인식하여 풀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

⇒ ‘地樞’과 ‘딸기’는 표제어와 관련어 관계로 맺어질 수 있으나 해당 논의에서 살피는 문헌이 아닌 것에서 출현한 어휘와는 관련어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참고)

[표 9] 『과정일록』과 다른 분류어휘집의 표제어 차이

부류	표제어 및 주석	
	과정일록	다른 분류 어휘집
地理	水漫出 시위나다	水滿漚 시위나다
地理	札猛子 브즈미악하다	余水 브즈미악하다<역어>, <동문>, <방언>
人倫人事	癡軟 늙은하다	倦軟<동문>
人倫人事	賭賽 우렐드토다	爭短長 우렐 드토다<역어>, <동문>
		賭賽 <방언>

⇒ 빨간 네모 속 어휘는 각각 표제어로도, 관련어로도 입력될 수 있으나 파란 네모 속 어휘는 입력하지 않음.

6. 키워드

✓ 저자가 제시한 논문 키워드를 넣는다.

7. 출처

1) 논문, 단행본, 잡지

✓ 서지 사항은 다음 순서로 제시하며, 논문 제목은 작은따옴표, 책 제목은 큰따옴표로 표시한다.

이름(연도), ‘논문 제목’, “학술지명” 0권 0호, 발행 기관, 쪽수.

예) 이승희(2018), '19세기 "학봉종가 한글편지"에 나타난 질병 관련 어휘에 관한 고찰', "한국문화" 8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13-140.

2) 신문

- ✓ 서지 사항은 다음 순서로 제시하며, 기사 제목은 작은따옴표로, 연재 제목은 대괄호로 표시한다.

이름(연도), '기사 제목', [연재 제목], 신문사, 발행일자.

예 윤주은(2020), '우리 말에 수용된 불교 용어', [윤주은의 우리글 우리말(17)], 경상일보, 2020.05.31.

- ✓ 기사의 출처는 해당 기사의 URL을 정확히 제시한다. 다만, 정보량이 많아 가독성을 떨어뜨리므로 이를 구분하여 '인터넷 주소' 항목에 따로 넣는다.

8. 비고

- 1) 작업 시 발생하는 문제, 지침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 기타 처리 결과를 적는다.
- 2) 저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추가한다.

[부록 6] DB화 기사 목록

1. 경상일보, 윤주은의 우리말 우리글

윤주은(2019), 해와 달, 윤주은의 우리글 우리말, 경상일보, 2019.07.21.

윤주은(2020), 우리 말에 수용된 불교용어, 윤주은의 우리글 우리말(17), 경상일보, 2020.05.31.

윤주은(2020), 우리말과 함께하는 일본어, 윤주은의 우리글 우리말(20), 경상일보, 2020.05.31

윤주은(2020), 즐거운 설날 보내세요, 윤주은의 우리글 우리말(13), 경상일보, 2020.02.02.

2. 경향신문, 우리말 산책

엄민용(2021), ‘따라지’는 있어도 ‘싸가지’는 없다, 우리말 산책, 경향신문, 2021.06.07.

엄민용(2021), 사전에도 없는 일본식 군대용어들, 우리말 산책, 경향신문, 2021.08.02.

엄민용(2022), ‘난다 긴다’는 이들이 어울리던 웃놀이, 우리말 산책, 경향신문, 2022.02.21.

엄민용(2022), ‘알아야 면장을 한다’의 면장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말 산책, 경향신문, 2022.01.10.

엄민용(2022), ‘토끼젓’은 있어도 ‘창란젓’은 없다, 우리말 산책, 경향신문, 2022.11.14.

엄민용(2022), 6·25가 바뀌 놓은 땅이름 ‘판문점’, 우리말 산책, 경향신문, 2022.06.27.

엄민용(2022), 6·25의 아픔이 담긴 말 ‘원산폭격’, 우리말 산책, 경향신문, 2022.06.06.

엄민용(2022), 강산이 변하듯 말도 변한다, 우리말 산책, 경향신문, 2022.06.13.

엄민용(2022), 매미 때문에 억울하게 된 베짖이, 우리말 산책, 경향신문, 2022.09.26.

엄민용(2022), 외래어 ‘토마토’의 우리말은 ‘일년감’이다, 우리말 산책, 경향신문, 2022.10.17.

엄민용(2022), 임진왜란 때 나팔수는 없었다, 우리말 산책, 경향신문, 2022.09.19.

엄민용(2022), 하나이면 ‘반지’, 둘이어야 ‘가락지’, 우리말 산책, 경향신문, 2022.12.05.

엄민용(2023), ‘남이사’는 주야장천 쓰지 말아야 한다, 우리말 산책, 경향신문, 2023.03.20.

엄민용(2023), 귀뚜라미 등에 업혀온 ‘처서’, 우리말 산책, 경향신문, 2021.08.23.

엄민용(2023), 닥았지만 뿌리가 다른 ‘호떡’과 ‘호빵’, 우리말 산책, 경향신문, 2023.01.09.

엄민용(2023), 생활 속 쓰임과 사전 뜻풀이가 다른 ‘모닥불’, 우리말 산책, 경향신문, 2023.10.22.

엄민용(2023), 석보상절에도 나오는 낙타의 순우리말은?, 우리말 산책, 경향신문, 2021.06.14.

엄민용(2023), 토끼의 꿈무늬에는 ‘꽂지’가 없다, 우리말 산책, 경향신문, 2023.01.30.

엄민용(2023), 황제의 이름 때문에 생긴 절기 ‘경칩’, 우리말 산책, 경향신문, 2023.03.06.

엄민용(2024), 꽃샘추위보다 먼저 오는 ‘잎샘추위’, 우리말 산책, 경향신문, 2024.03.10.

엄민용(2024), 뼈를 이롭게 하는 나무 ‘고로쇠’, 우리말 산책, 경향신문, 2024.03.03

엄민용(2024), 신문기자를 이르던 옛말 ‘기별서리’, 우리말 산책, 경향신문, 2024.03.31.

3. 국립국어원, 새국어생활

김무림(2008), "설마, 얼마'의 어원", "새국어생활" 제18권 제4호, 국립국어원, 137-144.

김무림(2009), "말미암다'의 어원", "새국어생활" 제19권 제1호, 국립국어원, 131-137.

김무림(2009), "모시, 무명, 비단'의 어원", "새국어생활" 제19권 제4호, 국립국어원, 97-103.

김무림(2009), "불현듯이', '썰물', '켜다'의 어원", "새국어생활" 제19권 제2호, 국립국어원, 85-91.

- 김무림(2010), '그리스도'와 '기독교(基督)'의 어원', "새국어생활" 제20권 제1호, 국립국어원, 93-98.
- 김무림(2010), "'멤쌀'과 '메지다'의 어원', "새국어생활" 제20권 제3호, 국립국어원, 113-117.
- 김무림(2010), "'우레'와 '올다'의 어원', "새국어생활" 제20권 제2호, 국립국어원, 95-100.
- 김무림(2011), "'땀띠'와 '땀약별'의 어원', "새국어생활" 제21권 제3호, 국립국어원, 177-184.
- 김무림(2012), "'포개다, 달포, 해포'의 어원', "새국어생활" 제22권 제1호, 국립국어원, 141-146.
- 김무림(2012), '한자음의 변화와 '화냥'의 어원', "새국어생활" 제22권 제3호, 국립국어원, 193-199.
- 김무림(2013), "'생기다'의 어원', "새국어생활" 제23권 제1호, 국립국어원, 106-112.
- 김영일(2008), "'꼬마'의 어원', "새국어생활" 제18권 제1호, 국립국어원, 141-147.
- 김완진(2000), "'마아'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제10권 제2호, 국립국어원, 127-134.
- 김완진(2000), "'열명'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제10권 제3호, 국립국어원, 113-120.
- 이기문(1998), '말본', "새국어생활" 제8권 제1호, 국립국어원, 201-209.
- 이기문(2007), '승기약탕(勝妓藥湯)', "새국어생활" 제17권 제1호, 국립국어원, 115-121.
- 조항범(2002), "'아빠, 아버지'의 어원', "새국어생활" 제12권 제3호, 국립국어원, 89-98.
- 조항범(2002), "'오빠'와 '누나'의 어원', "새국어생활" 제12권 제4호, 국립국어원, 105-114.
- 조항범(2003), '地名 語源 몇 가지(1)', "새국어생활" 제13권 제3호, 국립국어원, 225-237.
- 조항범(2003), '地名 語源 몇 가지(2)', "새국어생활" 제13권 제4호, 국립국어원, 117-127.
- 조항범(2003), '화냥'의 어원과 의미', "새국어생활: 제13권 제2호, 국립국어원, 139-151.
- 조항범(2004), '네티즌들이 궁금해하는 어원 몇 가지(1)', "새국어생활" 제14권 제2호, 국립국어원, 125-135.
- 조항범(2004), '네티즌들이 궁금해하는 어원 몇 가지(2)', "새국어생활" 제14권 제3호, 국립국어원, 143-153.
- 조항범(2004), '네티즌들이 궁금해하는 어원 몇 가지(3)', "새국어생활" 제14권 제4호, 국립국어원, 113-123.
- 조항범(2004), '地名 語源 몇 가지(3)', "새국어생활" 제14권 제1호, 국립국어원, 165-184.
- 조항범(2005), '잘못 알고 있는 어원 몇 가지(1)', "새국어생활" 제15권 제1호, 국립국어원, 143-152.
- 조항범(2005), '잘못 알고 있는 어원 몇 가지(2)', "새국어생활" 제15권 제2호, 국립국어원, 105-118.
- 조항범(2005), '잘못 알고 있는 어원 몇 가지(3)', "새국어생활" 제15권 제3호, 국립국어원, 135-149.
- 조항범(2006), '잘못 알고 있는 어원 몇 가지(5)', "새국어생활" 제16권 제1호, 국립국어원, 135-142.
- 조항범(2006), '잘못 알고 있는 어원 몇 가지(6)', "새국어생활" 제16권 제2호, 국립국어원, 117-124.
- 조항범(2006), '잘못 알고 있는 어원 몇 가지(7)', "새국어생활" 제16권 제3호, 국립국어원, 111-118.

4. 굿모닝충청, 정진명의 어원 상고사

정진명(2022), '조선'고', 정진명의 어원 상고사, 굿모닝충청, 2022.10.27.

정진명(2022), '2000년전 우리가 사용했던 언어는?', 정진명의 어원 상고사, 굿모닝충청, 2022.09.15.

정진명(2022), '단군과 기자 1', 정진명의 어원 상고사, 굿모닝충청, 2022.11.17.

정진명(2022), '단군과 기자 4', 정진명의 어원 상고사, 굿모닝충청, 2022.12.08.

정진명(2022), '숙신'고, 정진명의 어원 상고사, 굿모닝충청, 2022.11.03.

정진명(2023), '난하'고', 정진명의 어원 상고사, 굿모닝충청, 2023.08.31.

정진명(2023), '살수'고', 정진명의 어원 상고사, 굿모닝충청, 2023.08.24.

정진명(2023), '열수'고', 정진명의 어원 상고사, 굿모닝충청, 2023.08.17.

정진명(2023), '가야 1', 정진명의 어원 상고사, 굿모닝충청, 2023.11.06.

정진명(2023), '고구려 2', 정진명의 어원 상고사, 굿모닝충청, 2023.02.16.

정진명(2023), '단군과 기자 10', 정진명의 어원 상고사, 굿모닝충청, 2023.01.19.

정진명(2023), '단군과 기자 9', 정진명의 어원 상고사, 굿모닝충청, 2023.01.12.

정진명(2023), 대동강의 어원 고찰, 정진명의 어원 상고사, 굿모닝충청, 2023.09.07.

정진명(2023), '발해 1', 정진명의 어원 상고사, 굿모닝충청, 2023.03.30.

정진명(2023), '발해 2', 정진명의 어원 상고사, 굿모닝충청, 2023.04.06.

정진명(2023), 서연왕 동명 주몽 신화, 정진명의 어원 상고사, 굿모닝충청, 2023.07.20.

정진명(2023), '신라 1', 정진명의 어원 상고사, 굿모닝충청, 2023.09.29.

정진명(2023), '신라 2 황성', 정진명의 어원 상고사, 굿모닝충청, 2023.10.05.

정진명(2023), '신라 4', 정진명의 어원 상고사, 굿모닝충청, 2023.10.26.

정진명(2023), '신의 나라 '진국'', 정진명의 어원 상고사, 굿모닝충청, 2023.11.09.

정진명(2023), "'위만' 고', 정진명의 어원 상고사, 굿모닝충청, 2023.02.02.

정진명(2023), '탐라', 정진명의 어원 상고사, 굿모닝충청, 2023.11.30.

정진명(2023), '한사군의 이름 1', 정진명의 어원 상고사, 굿모닝충청, 2023.06.08.

정진명(2023), '한사군의 이름 2', 정진명의 어원 상고사, 굿모닝충청, 2023.06.15.

정진명(2023), '한사군의 이름 3', 정진명의 어원 상고사, 굿모닝충청, 2023.06.22.

정진명(2023), '한사군의 이름 4', 정진명의 어원 상고사, 굿모닝충청, 2023.06.29.

5. 백뉴스, 너의 어원은

김영호(2021), '김치'를 '김치'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너의 어원은, 백뉴스, 2021.08.18.

김영호(2021), '내 어찌 내 음악을 감추겠는가' 지음(知音), 너의 어원은, 백뉴스, 2021.03.15.

김영호(2021), 개나 소나, 개발새발... 왜 다 '개' 일까?, 너의 어원은, 백뉴스, 2021.11.03.

김영호(2021), 그 날을 기다리며, '와신상담(臥薪嘗膽)', 너의 어원은, 백뉴스, 2021.02.18.

김영호(2021), 그리스도의 생일은 정말 12월 25일이었을까? '크리스마스'의 어원, 너의 어원은, 백뉴스, 2021.12.08.

김영호(2021), 깨진 거울? '파경(破鏡)'의 어원과 뜻, 너의 어원은, 백뉴스, 2021.10.07.

김영호(2021), 나만 없는 '고양이'의 어원, 너의 어원은, 백뉴스, 2021.10.14.

김영호(2021), 넌 얼굴에 철판을 깔았니? '철면피(鐵面皮)', 너의 어원은, 백뉴스, 2021.09.15.

김영호(2021), 넌 포위 됐다! '사면초가'(四面楚歌), 너의 어원은, 백뉴스, 2021.04.04.

김영호(2021), 늦깎이, 점심, 삼매경... 불교에서 유래된 말들, 너의 어원은, 백뉴스, 2021.09.30.

김영호(2021), 마침내 밝혀지는 ‘마침내’의 어원, 너의 어원은, 백뉴스, 2021.09.08.
 김영호(2021), 말짱 도루묵? ‘도루묵’의 어원, 너의 어원은, 백뉴스, 2021.08.25.
 김영호(2021), 사과는 왜 사과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너의 어원은, 백뉴스, 2021.12.30.
 김영호(2021),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 지록위마(指鹿爲馬), 너의 어원은, 백뉴스, 2021.02.08.
 김영호(2021), 숨은 고사성어를 찾는 것이 삼국지의 ‘백미’(白眉), 너의 어원은, 백뉴스, 2021.02.08.
 김영호(2021), 시치미 떼다, 꿩 대신 닭... ‘매사냥’에서 유래된 말들, 너의 어원은, 백뉴스, 2021.08.12.
 김영호(2021), 신들을 기리던 축제? 올림픽의 유래, 너의 어원은, 백뉴스, 2021.07.27.
 김영호(2021), 아껴야 잘 살지! ‘자린고비’의 어원, 너의 어원은, 백뉴스, 2021.11.11.
 김영호(2021), 알고 보면 같은 어원? ‘거들먹거리다’와 ‘거덜 나다’, 너의 어원은, 백뉴스, 2021.11.19.
 김영호(2021), 약관(弱冠), 불혹(不惑), 고희(古稀)... 나이를 나타내는 단어들, 너의 어원은, 백뉴스, 2021.06.21.
 김영호(2021), 영원한 단짝, ‘칼’과 ‘도마’의 어원, 너의 어원은, 백뉴스, 2021.10.27.
 김영호(2021), 원래 한국 음식? ‘자장면’의 어원, 너의 어원은, 백뉴스, 2021.12.22.
 김영호(2021), 이것도 고사성어였어? ‘모순(矛盾)’과 ‘완벽(完璧)’, 너의 어원은, 백뉴스, 2021.06.10.
 김영호(2021), 일본어에서 온 말? ‘냄비’의 어원, 너의 어원은, 백뉴스, 2021.09.24.
 김영호(2021), 저는 이거 잘 몰라요, ‘문외한(門外漢)’, 너의 어원은, 백뉴스, 2021.10.20.
 김영호(2021), 쥐뿔? 개뿔? 왜 ‘뿔’일까?, 너의 어원은, 백뉴스, 2021.11.24.

6.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한글+한자 문화

심재기(2023), "語源 찾는 이야기－國語語彙의 出生과 成長(2)－", "한글+한자 문화" 제283권,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40-45.
 심재기(2023), '語源 찾는 이야기－國語語彙의 出生과 成長(1)－', "한글+한자 문화" 제282권,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30-35.
 심재기(2023), '語源 찾는 이야기－國語語彙의 出生과 成長(3)－', "한글+한자 문화" 제284권,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26-30.

7. 전국도민일보, 바른 우리말 산책

안도(2021), ‘환절기’는 있어도 ‘간절기’는 없다, 바른 우리말 산책, 전북도민일보, 2021.09.06.
 안도(2021), 고추 - 곤죽 - 골탕, 바른 우리말 산책, 전북도민일보, 2021.05.17.
 안도(2021), 미역국 - 바가지 - 복불복, 바른 우리말 산책, 전북도민일보, 2021.05.03.

8. 전북일보, 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

안도(2016), 개차반, 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 전북일보, 2016.12.16.
 안도(2016), 꼬드기다, 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 전북일보, 2016.08.19.
 안도(2016), 낭패(狼狽), 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 전북일보, 2016.12.30.
 안도(2016), 단골집, 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 전북일보, 2016.11.11.

안도(2016), 도무지, 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 전북일보, 2016.07.08.
 안도(2016), 마누라, 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 전북일보, 2016.11.18.
 안도(2016), 망나니, 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 전북일보, 2016.09.02.
 안도(2016), 무녀리, 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 전북일보, 2016.08.26.
 안도(2016), 봉투, 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 전북일보, 2016.08.05.
 안도(2016), 부질없다, 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 전북일보, 2016.12.02.
 안도(2016), 빈대떡, 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 전북일보, 2016.12.09.
 안도(2016), 성역, 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 전북일보, 2016.07.29.
 안도(2016), 술, 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 전북일보, 2016.09.23.
 안도(2016), 신사, 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 전북일보, 2016.11.04.
 안도(2016), 아수라장, 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 전북일보, 2016.07.22.
 안도(2016), 야단법석, 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 전북일보, 2016.10.14.
 안도(2016), 을씨년스럽다, 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 전북일보, 2016.12.23.
 안도(2016), 찌개, 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 전북일보, 2016.10.07.
 안도(2016), 투서, 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 전북일보, 2016.10.28.
 안도(2016), 한심하다, 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 전북일보, 2016.10.21.
 안도(2016), 황소, 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 전북일보, 2016.09.09.
 안도(2017), '감칠맛'과 '감칠맛', 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 전북일보, 2017.03.17.
 안도(2017), 거지(乞人), 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 전북일보, 2017.02.10.
 안도(2017), 말짱 도루묵, 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 전북일보, 2017.01.13.
 안도(2017), 수리수리마수리, 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 전북일보, 2017.01.06.
 안도(2017), 알아야 면장을 한다, 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 전북일보, 2017.03.24.
 안도(2017), 암체와 염치, 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 전북일보, 2017.03.10.
 안도(2017), 조카, 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 전북일보, 2017.02.17.
 안도(2017), 처녀(處女), 총각(總角), 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 전북일보, 2017.02.03.
 안도(2017), 청국장, 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 전북일보, 2017.02.24.
 안도(2017), 터무니가 없다, 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 전북일보, 2017.01.20.

9. 중앙일보, 우리말 바꾸기

김현정(2023), '가을 내내'는 '가으내'일까, '가을내'일까, 우리말 바꾸기, 중앙일보, 2023.10.19.
 김현정(2023), '오지랴'를 모르는 '오지라퍼'라니, 우리말 바꾸기, 중앙일보, 2023.10.26.
 배상복(2022), '멋적다'는 당신께, 우리말 바꾸기, 중앙일보, 2022.12.08.
 배상복(2023), '~에 있어'는 없어도 된다, 우리말 바꾸기, 중앙일보, 2023.08.17.
 배상복(2023), '고박'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 바꾸기, 중앙일보, 2023.10.30.
 배상복(2023), '공구리'의 우리말은?, 우리말 바꾸기, 중앙일보, 2023.08.14.
 배상복(2023), '다크투어리즘'의 우리말은?, 우리말 바꾸기, 중앙일보, 2023.08.21.
 배상복(2023), '반려견' 나도 표준어, 우리말 바꾸기, 중앙일보, 2023.11.06.
 배상복(2023), '뱅크런'의 우리말은?, 우리말 바꾸기, 중앙일보, 2023.07.24.
 배상복(2023), '수입선'은 문제가 없는 말일까?, 우리말 바꾸기, 중앙일보, 2023.12.11.
 배상복(2023), '시견장치'가 뭐예요?, 우리말 바꾸기, 중앙일보, 2023.06.05.

배상복(2023), '잔고' '잔액' 어느 것으로 부를까?, 우리말 바꾸기, 중앙일보, 2023.09.04.
 배상복(2023), '천장'과 '천정'의 차이, 우리말 바꾸기, 중앙일보, 2023.05.04.
 배상복(2024), '윤중제'는 제방을 뜻하는 일본말, 우리말 바꾸기, 중앙일보, 2024.03.28.
 배상복(2024), '하룻강아지'는 며칠 된 강아지?, 우리말 바꾸기, 중앙일보, 2024.02.26.
 배상복(2024), 꽃샘추위, 우리말 바꾸기, 중앙일보, 2024.03.04.
 배상복(2024), 아름다운 우리말 '여우비', 우리말 바꾸기, 중앙일보, 2023.07.13.

10. 충청일보, 정진명의 어원 이야기(정진명 시인의 우리 어원 이야기)

정진명(2022), 갯대산 팔결다리, 정진명의 어원 이야기, 충청일보, 2022.07.20.
 정진명(2022), 고은리, 정진명의 어원 이야기, 충청일보, 2022.05.11.
 정진명(2022), 금천, 정진명의 어원 이야기, 충청일보, 2022.03.30.
 정진명(2022), 까치내, 정진명의 어원 이야기, 충청일보, 2022.06.08.
 정진명(2022), 말의 뿌리를 알면 무척 아름다운 우리말, 정진명의 어원 이야기, 충청일보, 2022.02.03.
 정진명(2022), 무심천, 정진명의 어원 이야기, 충청일보, 2022.06.15.
 정진명(2022), 미원, 정진명의 어원 이야기, 충청일보, 2022.05.18.
 정진명(2022), 미호천, 정진명의 어원 이야기, 충청일보, 2022.07.06.
 정진명(2022), 상당산성, 정진명의 어원 이야기, 충청일보, 2022.07.13.
 정진명(2022), 수름재, 정진명의 어원 이야기, 충청일보, 2022.06.29.
 정진명(2022), 영운천, 정진명의 어원 이야기, 충청일보, 2022.04.20.
 정진명(2022), 오근장, 정진명의 어원 이야기, 충청일보, 2022.05.25.
 정진명(2022), 왕암산, 정진명의 어원 이야기, 충청일보, 2022.04.27.
 정진명(2022), 용이 우글거리는 동네에서 2, 정진명의 어원 이야기, 충청일보, 2022.03.16.
 정진명(2022), 용이 우글거리는 동네에서 3', 정진명 시인의 우리 어원 이야기, 충청일보, 2022.03.23.
 정진명(2022), 용이 우글거리는 동네에서, 정진명의 어원 이야기, 충청일보, 2022.04.13.
 정진명(2022), 우암산, 정진명의 어원 이야기, 충청일보, 2022.06.22.
 정진명(2022), 한겨레의 뿌리 1, 정진명의 어원 이야기, 충청일보, 2022.07.27.
 정진명(2022), 한겨레의 뿌리 2, 정진명의 어원 이야기, 충청일보, 2022.08.03.
 정진명(2022), 한겨레의 뿌리 3, 정진명의 어원 이야기, 충청일보, 2022.08.10.

11. 평택신문, 아하! 재미있는 우리말 어원

조항범(2016), 건달, 한량, 건달바, 할냥, 아하! 재미있는 우리말 어원, 평택신문, 2016.09.23.
 조항범(2017), 벽창호, 벽창우, 목곶이, 아하! 재미있는 우리말 어원, 평택신문, 2017.04.14.
 한말연구학회(2016), '아하! 재미있는 우리말 어원', 평택신문, 2016.10.24.

12. 프레시안,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최태호(2020), 거시기와 동짜바리,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프레시안, 2020.12.11.
 최태호(2020), 귀먹으셨어요?,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프레시안, 2020.03.13.
 최태호(2020), 낭만에 대하여,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프레시안, 2020.12.04.
 최태호(2020), 농팡이와 빨치산,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프레시안, 2020.07.17.

최태호(2020), 농인(聾人)과 아인(啞人),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프레시안, 2020.04.03.

최태호(2020), 단군과 단골과 당골,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프레시안, 2020.04.10.

최태호(2020), 독도, 대마도, 일본,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프레시안, 2020.01.31.

최태호(2020), 바람(風)과 바람(壁)과 바람(託),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프레시안, 2020.04.24.

최태호(2020), 번째와 째번,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프레시안, 2020.03.06.

최태호(2020), 설(元旦)과 살(歲),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프레시안, 2020.01.25.

최태호(2020), 수육과 양곱창,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프레시안, 2020.04.17.

최태호(2020), 아저씨, 아주머니 그리고 아줌마,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프레시안, 2020.02.21.

최태호(2020), 애먼과 속맥(菽麥),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프레시안, 2020.02.14.

최태호(2020),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프레시안, 2020.03.20.

최태호(2020), 영부인(令夫人)과 어부인(御婦人, 御夫人),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프레시안, 2020.07.10.

최태호(2020), 주책바가지와 대포,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프레시안, 2020.05.01.

최태호(2020), 프란체스카 여사는 호주댁?,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프레시안, 2020.01.17.

최태호(2021), ‘개평’과 ‘타짜’,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프레시안, 2021.06.18.

최태호(2021), ‘비싸다’와 에누리,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프레시안, 2021.05.28.

최태호(2021), ‘폐하’에서 ‘족하(조카)’까지,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프레시안, 2021.09.03.

최태호(2021), 고바우 영감 다팡 먹다,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프레시안, 2021.01.08.

최태호(2021), 불초(不肖)와 빈승(貧僧),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프레시안, 2021.03.19.

최태호(2021), 십팔번(十八番)과 뽀록,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프레시안, 2021.02.05.

최태호(2021), 아찬(까치)설과 신축년(하얀 소의 해),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프레시안, 2021.01.01.

최태호(2021), 한가위와 중추절과 추석,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프레시안, 2021.09.17.

최태호(2021), 함바식당(はんば)과 스키다시(つきだし),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프레시안, 2021.01.22.

최태호(2022), 구린내와 고린내,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프레시안, 2022.07.15.

최태호(2022), 바닥과 마루,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프레시안, 2022.11.18.

최태호(2022), 암체와 염치,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프레시안, 2022.12.23.

최태호(2023), 폭탄과 박살,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프레시안, 2023.01.27.

13. 한국대학신문, 송백헌 어원 산책

송백헌(2004), 왕신단지, 송백헌 어원 산책, 한국대학신문, 2004.10.11 11:11.

송백헌(2005), ‘물레’, 송백헌 어원 산책, 한국대학신문, 2005.06.04 14:33.

송백헌(2005), ‘오라질’, 송백헌 어원 산책, 한국대학신문, 2005.04.23 14:41.

송백헌(2005), ‘장국밥’, 송백헌 어원 산책, 한국대학신문, 2005.05.21 13:20.

송백헌(2005), ‘장마(霖雨)’, 송백헌 어원 산책, 한국대학신문, 2005.07.11 10:03.

송백헌(2005), 감투 쓰다, 송백헌 어원 산책, 한국대학신문, 2005.10.10 08:54.

송백헌(2005), 굴비, 송백헌의 어원 산책, 한국대학신문, 2005.05.14 13:02.
 송백헌(2005), 다홍치마, 송백헌 어원 산책, 한국대학신문, 2005.11.21 11:54.
 송백헌(2005), 대꽃집, 송백헌 어원 산책, 한국대학신문, 2005.03.14 12:52.
 송백헌(2005), 독도(獨島), 송백헌 어원 산책, 한국대학신문, 2005.10.24 09:06.
 송백헌(2005), 사찰(寺刹), 송백헌 어원 산책, 한국대학신문, 2005.11.28 09:48.
 송백헌(2005), 살풀이, 송백헌 어원 산책, 한국대학신문, 2005.11.14 10:01.
 송백헌(2005), 설령당, 송백헌 어원 산책, 한국대학신문, 2005.04.30 11:39.
 송백헌(2005), 손돌(孫斗)이 추위, 송백헌 어원 산책, 한국대학신문, 2005.12.03 11:06.
 송백헌(2005), 숙주나물, 송백헌 어원 산책, 한국대학신문, 2005.04.16 14:17.
 송백헌(2005), 인절미, 송백헌 어원 산책, 한국대학신문, 2005.11.08 09:41.
 송백헌(2005), '주점' 내외를 분별하는 술집서 유래, 송백헌 어원 산책, 한국대학신문, 2005.08.20 08:15.
 송백헌(2005), 함흥차사(咸興差使), 송백헌 어원 산책, 한국대학신문, 2005.10.17 10:51.
 송백헌(2006), 갈등, 송백헌 어원 산책, 한국대학신문, 2006.07.31 15:45.
 송백헌(2006), 건달(乾達), 송백헌 어원 산책, 한국대학신문, 2006.10.17 11:57.
 송백헌(2006), 경을 치다, 송백헌 어원 산책, 한국대학신문, 2006.07.31 15:46.
 송백헌(2006), 경칩(驚蟄), 송백헌 어원 산책, 한국대학신문, 2006.02.24 11:00.
 송백헌(2006), 난장판·아사리 판, 송백헌 어원 산책, 한국대학신문, 2006.11.14 13:52.
 송백헌(2006), 불한당, 송백헌 어원 산책, 한국대학신문, 2006.09.25 09:10.
 송백헌(2006), 소나기, 송백헌 어원 산책, 한국대학신문, 2006.08.19 14:04.
 송백헌(2006), 숙맥, 송백헌 어원 산책, 한국대학신문, 2006.07.31 15:49.
 송백헌(2006), 옛 먹어라, 송백헌 어원 산책, 한국대학신문, 2006.09.16 12:46.
 송백헌(2006), 쥐뿔도 모른다, 송백헌 어원 산책, 한국대학신문, 2006.07.31 15:43.
 송백헌(2006), 직성이 풀리다, 송백헌 어원 산책, 한국대학신문, 2006.07.31 15:48.
 송백헌(2008), 꼬마, 송백헌 어원 산책, 한국대학신문, 2008.04.18 21:29.
 송백헌(2008), 백수, 송백헌 어원 산책, 한국대학신문, 2008.03.31 08:47.
 송백헌(2008), 오소리감투, 송백헌 어원 산책, 한국대학신문, 2008.03.10 10:08.
 송백헌(2008), 주먹구구, 송백헌 어원 산책, 한국대학신문, 2008.03.21 20:41.

14. 한국어문기자협회, 말과글

김병선(2021.09), 'X의 정체를 찾아서: 육설의 어원에 대한 단상', "말과글" 제168호, 한국어문기자협회, 61-64.
 김운우(1998), '身土不二의 어원과 사상 再考', "말과글" 제76호, 한국어문기자협회, 43-50.
 민기(1989), '續' 아리랑'語源考', "말과글" 제41호, 한국어문기자협회, 57-63.
 민기(1998), "'신토불이'어원 再論", "말과글" 제75호, 한국어문기자협회, 50-54.
 박재양(1995), "'기와'의 語源", "말과글" 제64호, 한국어문기자협회, 44-45.
 박재양(1995), '도·개·걸·웃·모의 語源', "말과글" 제62호, 한국어문기자협회, 42-43.
 박재양(1996), '미꾸라지의 語源', "말과글" 제69호, 한국어문기자협회, 27-28.
 박재양(1996), '미장이의 語源', "말과글" 제66호, 한국어문기자협회, 46-48.

15. 한국일보, 우리말 톺아보기

강미영(2020), '가르치다'를 생각하며,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0.05.15.

강미영(2020), 낱말에 어린 편견과 존중,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0.05.01.

김문오(2020), 한가위의 어원,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0.09.25.

남미정(2021), 고양이와 돼지,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1.06.04.

남미정(2021), 김치와 과도교정,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1.06.11.

남미정(2021), 민간 어원,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1.06.18.

남미정(2021), 언어의 화석,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언어의 화석, 2021.05.28.

박미영(2021),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의 손가락,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1.12.24.

박미영(2022), 강남 갔던 제비 강남콩 물고,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2.02.25.

박미영(2022), 젓가락은 사이시옷,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2.02.18.

박미영(2022), 호랑이와 범,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2.01.07.

유지철(2020), 과학에서 유래한 우리말,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0.02.03.

이미향(2020), '몇 월 며칠'의 사연,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0.08.05.

이미향(2020), 매운맛 한 번 보실래요?,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0.06.17.

이미향(2020), 오른쪽과 한일전,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0.08.12.

이미향(2020), 옷깃이 스치면 인연이지,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0.04.22.

이미향(2020), 용의 수염처럼,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0.02.19.

이미향(2020),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0.04.15.

이미향(2020), 카키색, 그 출생의 비밀,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0.11.04.

이미향(2021), '식물'이 어때서요?,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1.11.06.

이미향(2021), 갈등과 낭패,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1.08.21.

이미향(2021), 값과 빛,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값과 빛, 2021.12.25.

이미향(2021), 사고의 고삐,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1.08.14.

이미향(2021), 조선어음을 아십니까?,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1.10.16.

이미향(2022), 구실과 벼슬,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2.04.30.

이미향(2022), 까치설,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2.01.29.

이미향(2022), 새참 먹고 할까요?,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2.10.01.

이미향(2022), '손님은 왕'일까?,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2.02.19.

이미향(2022), 어느 고려인의 '만남',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2.08.27.

이미향(2022), 흙쇼핑 세상의 색깔,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2.10.22.

이미향(2023), 머리말 자리끼,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3.05.27.

이미향(2023), 바탕 '소'에서 배우는 것들,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3.08.12.

이미향(2023), 손으로 이루는 재주, '솜씨',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3.08.26.

이윤미(2023), 갈무리,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3.09.01.

이윤미(2023), 고뿔과 코끼리,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3.07.28.

이윤미(2023), 꽃감 꼬치,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3.06.30.

이윤미(2023), 더위에 대하여,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3.08.04.

이윤미(2023), 도토리 먹는 돼지,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3.04.14.

이윤미(2023), 명태와 멸치,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3.06.23.

이윤미(2023), 모내기과 김매기,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3.06.02.

이윤미(2023), 살코기와 수탉,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살코기와 수탉, 2023.04.21.

이윤미(2023), 옛기름은 기름이 아니다,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3.03.31.
 이정복(2019), '상고대'와 '블랙 아이스',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19.12.06.
 이정복(2019), '창의공작관'과 'AZIT 메이커스페이스',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19.11.29.
 황용주(2022), 100년 전엔 총을 '쏘다'가 '놓다'였다,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2.03.11.
 황용주(2022),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2.08.12.
 황용주(2022), 담배를 먹다, 피우다, 태우다,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2.03.04.
 황용주(2022), 도돌이표, 되돌이표,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2.08.19.
 황용주(2022), 돌아온 '우금티'의 '티'를 찾아서,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2.05.06.
 황용주(2022), '-을 수밖에 없다' 표현의 정착, 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일보, 2022.06.24.

16. 한글학회, 한글새소식

김민지(2023.09), '우리말 어원을 찾아서', "한글새소식" 제613호, 한글학회, 8-9.
 조세용(2010), '우리말 어원 산책 (3)', "한글새소식" 제457호, 한글학회, 16-17.
 조세용(2010), '우리말 어원 산책 (4)', "한글새소식" 제458호, 한글학회, 12-13.
 조세용(2010), '우리말 어원 산책(1)-주로 한자어계 귀화어를 중심으로-', "한글새소식" 제454호, 한글학회, 6-8.
 조세용(2010), '우리말 어원 산책(2)-주로 한자어계 귀화어를 중심으로-', "한글새소식" 제456호, 한글학회, 10-11.

<기획·연구>

국립국어원 김선철 어문연구과장

국립국어원 이대성 학예연구관

국립국어원 김수현 학예연구관

국립국어원 남미정 학예연구사

국립국어원 안기경 연구원

<연구 참여자>

연구책임자 황선엽(서울대학교)

공동연구원 황선엽, 조남호, 하귀녀, 이병기, 이지영, 장경준,
정은영, 오민석, 김지오, 문현수, 이용, 허인영,
박진양, 도원영, 김숙정

연구보조원 최준호, 신현규, 배진솔, 하정훈, 장린, 이용규,
양하오췌, 강현주, 김준수, 정윤희, 이찬식,
김형진, 김진희, 배은혜, 강은진, 이광숙, 오피애,
진윤정, 전한솔, 이효윤, 남유진, 유환일, 한다영,
엄효민, 장준희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24년 12월 12일

발행일: 2024년 12월 12일

인쇄: 도서출판 안북스

※ 이 보고서는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2024 국어 어원사전
편찬’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

